

中國學

CHINESE STUDIES

第 14 輯

大韓中國學會

Kore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2000. 8. 31

<大韓中國學會>

고 문 : 성파스님, 조남규여사

회 장 : 이근효(경성대)

수석부회장 : 김용운(동아대)

부 회 장 : 문지성(대전대) 이등연(전남대) 이의환(대구효가대) 이준식(성균관대)

총무이사 : 오창화(경성대)

운영위원 : 김명학(충남대) 김원중(배재대) 서보근(영남대) 심우영(상명대)

안재철(제주대) 안기섭(전남대) 오태석(동국대) 유장근(경남대)

윤수영(강원대) 이회옥(한국외대) 임승배(원광대) 전광진(성균관대)

정우광(협성대) 정 일(목포대)

학술이사 : 신흥철(동아대 ; 언어문학분과) 고영근(부산외대 ; 정경사회분과)

배경한(신라대 ; 역사철학분과) 김남희(부산외대 ; 예술문화분과)

편집이사 : 하영삼(동의대)

연구이사 : 진광호(부산외대) 김종현(동아대)

섭외이사 : 오경제(경성대) 김세환(부산대)

출판이사 : 박경실(울산대) 조관희(상명대)

기획이사 : 이창숙(인제대)

감 사 : 이재승(경남대) 정헌철(경상대)

편집위원 : 김영기(동서대) 백운목(경성대) 이재하(경성대) 김인호(동의대)

김윤경(신라대) 김진영(부산외대) 정귀화(창원대) 이인택(울산대)

이상규(성심외대) 김태만(해양대) 임수암(경남정보대) 김창경(부경대)

연구조교 : 이 현(경성대)

[題字] : 性坡스님

(通度寺 瑞雲庵 住持)

中國學

第 14 輯

2000年 8月

目 次

秦 光 豪…聲符의 表意類型 分析	1
朴 慶 松…한국 한자음 중의 《切韻》 “三等韻”	23
韓 鐘 鎬…‘等’의 概念	37
張 皓 得…矛盾·反對, 時間·空間에 대한 中國語 否定詞의 具現樣相	65
金 昌 吉…現代漢語單雙音節介詞功能差異研究	95
華 霄 穎…韓國中文系二年級學生的漢語學習特點及教學對策	105
張 淑 賢…語言學革命的深層文化背景	119
宗 明 華…莊子與陸機의《文賦》	123
葉 桂 同…論《金瓶梅》“甘公跋”的作者當爲魯重民或其友人	131
李 京 奎…王士禛詞論研究	139
金 泰 寬…晚清 革命派 小說理論 研究	151
劉 麗 雅…《邊城》과 《盲啞院에서》의 비교 연구	203
楊 秀 芝…明代中疏關係	219
青柳純一…李公樸과 民主救國運動의 思想	229
鄭 海 容…시장화 과정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개혁과 중앙의 역할 ...	265
金 榮 奇…《論語》「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韓譯에 대한 考察	299
鄭 貴 和…先秦 儒家의 法律觀에 관한 고찰	317
李 相 圭…朱子學與朝鮮理學的傳衍與發展	345
辛 昌 浩…《戰國策》寓言譯註	361
編輯 部…會則 및 投稿要領	403

CHINESE STUDIES

Volume 14

August 2000

An Analysis of The Meanings in the Sound Parts Ideograms	Jin, Kwang-Ho ... 1
The Third Class Rhymes of <i>Qieyun</i> (切韻) in the Sounds of Sino-Korean Characters	Park, Kyeong-Song ... 23
The Concept of 'Deng(等)'	Han, Jong-Ho ... 37
A Projection of Contradiction, Contrary, Time & Place in Mandarin Negatives	Chang, Ho-Deug ... 65
Different Functions of Prepositions in Modern Chinese Monosyllables & Disyllables	Jin, Chang-Ji ... 95
Distinctive Features of Learning Chinese Among Chinese Department Sophomore Students in Korea & an Alternative Teaching Strategy of Chinese Language	Hua, Xiao-Ying ... 105
Some Connotative Cultural Backgrounds of the Linguistic Revolution	Zhang, Shu-Xian ... 119
<i>Zhuangzi</i> (莊子) & Luji's "Wenfu(文賦)"	Zhong, Ming-Hua ... 123
The Author(s) of "Gangorba(甘公跋)" in <i>Jinpingmei</i> (金瓶梅) Should Be Luzhongmin or His Companions	Ye, Gui-Tong ... 131
The Theory of Wangshizhen(王士禎)'s "Ci(詞)"	Lee, Kyeong-Kyu ... 139
The Novelistic Theory of Revolutionary School in The End of Ching Dynasty	Kim, Tae-Kwan ... 151
A Comparative Essay of " <i>Biancheng</i> (邊城)" & " <i>in a Blind & Dumb School</i> "	Liu, Li-Ya ... 203
The Relation Between Liukyu & Ming Dynasty	Yang, Xiu-Zhi ... 219
Ligongpu(李公樸) & His Ideas of The Save-The-Nation Movement	AoyakiZuichi ... 229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 Provinci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Chinese Capitalization	Jeong, Hae-Yong ... 265
A Study of Korean Versions in Translation of " <i>Jiyulierliren, Jiyudaerdaren</i>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in <i>Lunyu</i> (論語)	Kim, Young-Ki ... 299
Confucianist Legislative Views in Pre-Chin Dynasty ...	Jeong, Kwi-Hwa ... 317
Tradition & Development of The Doctrines of Zhu-Zi & The Philosophy of Human Nature in Yi Dynasty	Lee, Sang-Kyu ... 345
The Translation & Annotation of Fables in " <i>Zhanguoci</i> (戰國策)"	Sin, Chang-Ho ... 361

聲符의 表意類型 分析

秦 光 豪*

<目 次>

- | | |
|---------------|------------|
| I. 序 言 | 2. 同源字類 |
| II. 聲符의 表意類型 | 1) 聲符表本字意例 |
| 1. 形聲專字類 | 2) 聲符表借意例 |
| 1) 假借造字에 의한 것 | III. 結 言 |
| 2) 引伸造字에 의한 것 | |

I. 序 言

형성자는 구조적인 면에서 보면 소수의 多形一聲의 형성자도 있지만, 대체로 하나의 형부와 하나의 성부로 구성된 一形一聲의 형성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능면에서 형부는 형성자의 뜻을 나타내고, 성부는 그 형성자가 만들어질 당시의 음을 반영하며, 선택적으로 표의의 역할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형부는 형성자의 뜻을 나타내는 표의 성분이고, 성부는 독음을 나타내는 표음 성분이라는 말이다. 그렇지만 형성자에 있어 형부가 형성자의 표의의 주체이고, 성부는 표음과 부수적으로 표의의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형성자에 있어 형부가 표의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경우에 있어 의미의 주체라고 할 수는 없다. 형부가 갖는 표의의 한계는 단지 類別意·關聯意나 또는 어떤 범위 정도만을 설정할 수 있을 뿐이며, 형부

* 부산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중국어학과 부교수

가 의미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예로 형부가 木인 문자들은 대부분 木名이나, 기타 나무와 관련된 개략적인 의미들이다. 형부가 水인 문자들은 水名이나, 여러 물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낸다. 형부가 金인 문자는 금속 명이나 금속과 관련된 의미를, 형부가 女인 문자는 여자 또는 아름다움·연약함 등 여성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이치에 따라 형부를 보고 그 문자의 개략적인 의미를 유추해 낼 수는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부 형성자는 형부가 문자의 전체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예로 코 鼻자는 音理上 “從自, 畀聲”의 형성자이다¹⁾. 自는 코의 상형문으로 鼻의 전체 의미를 나타내며 성부 畀는 음만을 나타낸다. 그물 罔자는 “從网, 亡聲”의 형성자이다. 网은 그물의 상형문으로 罔자의 전체 의미를 나타내며, 성부 亡은 음만을 나타낸다. 齒자에서 아래의 𪔐는 앞니를 나타내는 상형문으로 齒자의 전체 의미를 나타내며, 止는 이 문자의 성부이다. 별 星자는 원래 “從晶, 生聲”의 형성자로 지금은 晶을 日로 줄여 쓰고 있다. 晶은 본래 별의 상형문으로 星자의 전체 의미를 나타내고 生은 음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形符加聲의 형성자는 그 수가 극히 제한적이다.

이처럼 형성자의 형부는 대체로 사물의 종류나 관련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성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형성자의 字意에 참여하고 있다. 물론 모든 형성자의 성부가 다 표의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시형성자²⁾ 특히 고대의 형성자일수록 성부는 확실한 표의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출발하여 본고는 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성

1) 鼻자는 《설문》에서는 “從自畀”의 회의로 간주하였으나, 그 音理를 따져보면 鼻는 父二切로 非紐, 畀는 必至切 幫紐이고, 段玉裁 古韻에 의하면 모두 15部에 속한다. 非紐와 幫紐는 上古音에서 모두 幫紐에 속하므로 鼻와 畀는 동음 자이다. 따라서 鼻는 “從自, 畀聲”의 형성자로 보아야 한다.

2) 李孝定은 《漢字的起源與演變論叢》, 23쪽에서 “가차로 말미암아 형부를 가해 만든 형성자를 原始形聲字라 하며, 원래는 없었으나 순수하게 일형일성으로 이루어진 후기형성자를 순수형성자라고 한다(是由假借加注形符而成的形聲字, 叫做原始形聲字, 那些原來沒有, 純粹由一形一聲相配合而成的後起形聲字, 叫做純粹形聲字)”고 하였다.

부를 살피고, 어떤 성부가 표의 기능을 갖고 있는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성부의 형성자에서의 위치를 정립해 보고자 한다.

II. 聲符의 表意 類型

형성자는 전체 한자의 95% 이상으로 그 수가 매우 많다. 《설문해자》에 수록된 9,353자 중에도 약 8,000자 이상³⁾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성부의 수 또한 매우 다양하다. 姚文田의 《說文聲系》에 의하면 《설문》에는 총 1,109개의 성부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성부들이 모두 형성자에서 표의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의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성부가 표의를 하는 경우를 골라 그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形聲專字類와 同源字類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1. 形聲專字類

形聲專字란 한 문자에 다른 의미가 생겨 본의와 이 의미를 구별하기 위해 성부나 형부를 가해 만든 형성자를 말한다. 성부를 가해 만든 形符加聲의 형성전자는 형부가 전체 의미를 나타내지만 그 수가 매우 적다. 대부분이 성부에 형부를 가한 聲符加形의 형성자이다. 聲符加形의 형성전자에 있어 성부는 의미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형부는 객체가 되어 유별의나 관련의 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聲符加形의 형성전자는 가차의에 의한 것과 인신의에 의한 것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1) 假借造字에 의한 것

이는 한 문자에 무본자의 가차의가 들어와 본의와 같이 쓰이게 되자,

3) 《설문》에서 형성자로 언급한 문자는 7,679자이나 상형이나 지사·회의문자 중 형성으로 보아야 할 것을 포함하면 8,000자 정도로 추산된다.

본의를 가차의와 구별하기 위해 형부를 가해 새로운 형성전자를 만든 것으로, 대부분의 초기 형성자가 이에 속하며, 형성자의 발생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午자를 예로 들면, 갑골문의 午자는 절구공이의 상형문이다. 따라서 午는 절구공이가 이 문자의 본의이다. 후에 干支의 이름으로 차용되어 주로 간지의 뜻으로 상용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절구공이의 본자인 午자는 옆에 그의 재료를 나타내는 나무 木자를 형부로 가해 “從木, 午聲”의 形聲專字인 杵자를 만들어 전용하게 되었다. 즉 이에서 보면, 杵자에서 木자가 형부이기는 하지만, 이는 단지 절구공이의 재료를 나타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성부인 午자는 표음의 기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午자가 원래 갖고 있던 절구공이라는 뜻을 100%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杵자에서 형부인 木은 철의 구조가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 사회에서 절구는 나무로 만들었다는 사실만을 알려 줄 뿐이다. 이 예에서 형부의 표의 기능은 객체적이고 보조적이며, 성부의 표의 기능이 훨씬 주체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설문해자》를 기준으로 예를 더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且 祖

《說文⁴⁾·且部》：薦也。從⁵⁾几，足有二橫。一，其下地也。

《說文·示部》：始廟也。從示，且聲。

且자의 갑골문은 남자의 생식기 형태로 만든 비석을 그린 상형문이다. 고대 풍속에는 가문의 대를 잇고 종족을 유지·번식시키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식이라 여겼으므로 남자의 생식기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따라서 조상에게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고자 생식기 모양의 비석을 만들어 모시게 되었다. 이에 且자는 “조상”·“할아버지”·“받들다” 등의 뜻을 갖게 되었다. 후에 且자는 “또한”·“잠시” 등의 의미로 차용되자 본의를 이와 구별하기 위해 且자에 신을 나타내는

4) 본고에 인용한 《설문》 판본은 《大徐本》을 기준으로 하였다.

5) 《설문》에는 ㄹ으로 되어 있으나 활자관계로 본 논문에서는 모두 從자로 바꾸어 쓴다.

형부 示를 가해 “從示, 且聲”의 형성전자 祖자를 만들어 전용하였다. 이
에서 형부 示는 신이라는 개략적인 의미만을 나타낼 뿐이며, 성부인 且
가 祖자의 전체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莫 暮

《說文·艸部》：莫, 日且冥也. 從日在艸中.

莫자는 저녁이 되어 태양이 풀숲 속으로 들어가 점차 어두워짐을 나
타내며, 이에서 “저녁”·“어둡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후에 이 문자
는 否定詞의 의미로 가차되자, 본의를 가차의와 구별하기 위해 莫자에
태양을 나타내는 형부 日을 가해 “從日, 莫聲”의 형성전자 暮자를 만들
어 전용하게 되었다. 이에서 형부 日은 태양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일
뿐이며, 성부인 莫자가 暮자의 전체 의미를 주도하고 있다.

須 鬚

《說文·須部》：面毛也. 從頁從彡.

段注本 《설문》에는 “頤下毛也”라 하였다. 이에 의하면 須는 턱 밑에
난 수염을 뜻하던 문자였다. 후에 “반드시”·“모름지기” 라는 의미로 차
용되자 본의를 이와 구별하기 위해 모발을 나타내는 형부 髟자를 가해
“從髟, 須聲”의 형성전자 鬚자를 만들어 전용하게 되었다. 이에서 형부
髟자는 모발이라는 의미만을 나타낼 뿐이며, 성부인 須자가 전체의 의
미를 주도하고 있다.

無 舞

《說文·亡部》：無, 亡也. 從亡, 無聲.

《說文·舛部》：樂也. 用足相背. 從舛, 無聲.

無자는 甲文과 金文에 의하면 손에 쇠꼬리나 술 같은 물건을 들고 춤
을 추는 형상으로 본의는 “춤”이다. 후에 “없다”나 부정사의 의미로 차
용되자 본의를 이와 구별하기 위해 두 발을 나타내는 舛자를 형부로 가
해 “從舛, 無聲”의 형성전자 舞자를 만들어 전용하게 되었다. 이에서 형
부 舛자는 발을 이용한다는 의미를 나타낼 뿐이며, 성부인 無자가 “춤”

이란 전체 의미를 주도하고 있다.

韋 圍

《說文·韋部》：相背也。從舛，口聲。獸皮之韋可以束。枉戾相韋背，故借以爲皮韋。

《說文·口部》：守也。從口，韋聲。

韋자는 지역을 돌며 지키는 모습을 나타내는 문자이다. 후에 가죽이라는 의미로 차용되자 본의와 이를 구별하기 위해 공간을 나타내는 형부 口자를 가해 “從口，韋聲”의 형성전자 圍자를 만들어 전용하게 되었다. 이에서 형부 口자는 지역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뿐이며, 성부인 韋자가 전체의 의미를 주도하고 있다.

新 薪

《說文·斤部》：取木也。從斤，亲聲。

《說文·艸部》：蕘也。從艸，新聲。

新자는 원래 도끼로 나무를 베어 땀나무를 한다는 뜻이었다. 후에 “새롭다”라는 의미로 차용되자 본의와 이를 구별하기 위해 풀을 나타내는 형부 艸자를 가해 “從艸，新聲”의 형성전자 薪자를 만들어 전용하게 되었다. 이에서 형부 艸는 초목을 나타낼 뿐이며, 성부인 新자가 전체의 의미를 주도하고 있다.

它 蛇

《說文·虫部》：虫也。從虫而長象冤曲垂尾形。上古艸居患它，故相問無它乎。蛇，或從虫。

它자는 본래 뱀을 그린 상형문이다. 후에 지시사의 의미로 차용되자 본의와 이를 구별하기 위해 벌레나 곤충을 나타내는 형부 虫자를 가해 “從虫，它聲”의 형성전자 蛇자를 만들어 전용하게 되었다. 이에서 형부 虫은 벌레나 동물의 일종이라는 것만을 나타낼 뿐이며, 성부인 它자가 전체의 의미를 주도하고 있다.

凡 帆

《說文·凡部》：最括也。從二，二藕也。

凡자는 갑골문에 의하면 배의 돛을 그린 것이다. 후에 “무릇”·“모두” 등의 의미로 차용되자 본의와 이를 구별하기 위해 친을 나타내는 형부 巾을 가해 “從巾, 凡聲”의 형성전자 帆자를 만들어 전용하게 되었다. 이에서 형부 巾은 단지 재료를 나타낼 뿐이며, 성부인 凡자가 전체의 의미를 주도하고 있다.

丁 釘

《說文·丁部》：夏時萬物皆丁實。象形。

《說文·金部》：鍊鉞黃金。從金，丁聲。

丁자는 갑골문에 의하면 들을 깨는 정을 그린 상형문이다. 후에 干支의 이름으로 차용되자 본의와 이를 구별하기 위해 금속을 나타내는 형부인 金자를 가해 “從金, 丁聲”의 형성전자인 釘자를 만들어 전용하게 되었다. 이에서 형부 金은 단지 금속이라는 재료만을 나타낼 뿐이며, 성부인 丁자가 전체의 의미를 주도하고 있다.

2) 引伸 造字에 의한 것

이는 앞에서 설명한 假借 造字의 의한 것과 같은 원리로, 본의 이외에 이에서 파생된 인신의가 생겨 통용되게 되자 본의를 인신의와 구별하기 위해 이에 형부를 가해 새로운 형성전자를 만든 것이다. 인신에 의한 형성전자는 본인의 <引伸造字試論>⁶⁾이란 논문에서 다룬 바 있다. <설문>을 근거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止 趾

《說文·止部》：止，下基也。象艸木出有址，故以止爲足。

《설문》에 止자를 초목이 나오는 곳이라 풀이하였으나, 갑골문에 의

6) <引伸造字試論>, 《중국어문논집》(부산·경남중국어문학회) 제11집, 1-20 쪽, 1996, 12.

하면 止자는 사람의 발을 그린 상형문이다. 발은 사람이 가고 멈추는 일을 담당하는 신체기관이므로 인신되어 “가다”·“멈추다”라는 의미로 인신되었다. 이에 본의를 인신의와 구별하기 위해 무릎 이하 발을 나타내는 足자를 가해 “從足, 止聲”의 형성전자인 趾자를 만들어 전용하게 되었다. 이에서 형부 足자는 발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나타내며, 성부인 止자가 발이라는 구체적인 의미를 주도하고 있다.

肅 繡

《說文·聿部》：肅，持事振敬也。從聿在肅上，戰戰兢兢也。

《說文·糸部》：繡，五采備也。從糸，肅聲。

《설문》에서는 肅자를 일을 함에 공경스러움을 다한다라고 풀이하였으나, 金文에 보이는 肅자는 손에 붓을 들고 복잡한 자수의 도안을 그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자수의 도안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그려야 하므로, 이에서 “신중하다”·“엄숙하다”라는 인신의를 갖게 되었다. 이에 본의와 인신의를 구별하기 위해 천을 나타내는 형부 糸자를 가해 “從糸, 肅聲”의 형성전자 繡자를 만들어 전용하게 되었다. 이에서 형부 糸자는 단지 재료만을 나타낼 뿐이며, 성부인 肅이 전체의 의미를 주도하고 있다.

益 溢

《說文·皿部》：益，饒也。從水皿。皿，益之意也。

《說文·水部》：溢，器滿也。從水，益聲。

益자는 그릇에 물이 가득하여 흘러 넘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에서 인신되어 “넘다”·“남다”·“이익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에 본의와 이를 구별하기 위해 물을 나타내는 형부 水자를 가해 “從水, 益聲”의 형성전자 溢을 만들어 전용하게 되었다. 이에서 형부 水자는 단지 물과 관계 있는 의미라는 것만을 나타내며, 성부인 益자가 전체의 의미를 주도하고 있다.

監 鑑

《說文·臥部》：監，臨下也。從臥，畱省聲。

《說文·金部》：鑑，大盆也。一曰鑑諸侯可以取明水於月。從金，監聲。

《說文》에서는 監자를 내려다보다라는 뜻으로 풀이하였으나, 갑골문의 監자는 그릇에 물을 떠놓고 거울처럼 얼굴을 비추어 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에서 監자는 “비추다”·“보다”·“감시하다”·“감독하다”라는 인신의의를 갖게 되었다. 이에 監의 거울이라는 의미와 인신의의를 구별하기 위해 金자를 가해 “從金，監聲”의 형성전자인 鑑자를 만들어 전용하게 되었다. 이에서 형부 金자는 단지 거울의 재료를 나타낼 뿐이며, 성부인 監이 전체의 의미를 주도하고 있다.

求 裘

《說文·裘部》：裘，皮衣也。從衣，求聲。一曰象形，與裘同意。求，古文省衣。

《설문》에 의하면 裘는 가죽이 본의이며, 求자는 裘의 고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갑골문에 의하면 求는 모피로 만든 털가죽 옷을 나타낸다. 이러한 털가죽 옷은 큰 동물인 경우는 한 마리를 사냥하면 만들 수 있지만, 작은 동물은 여러 마리를 잡아야 했다. 그러므로 모피 옷은 아릅답기도 했지만 매우 귀하고 값진 물건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원하고 구하려 했던 물건이었으므로, 이에서 “구하다”·“원하다”라는 의미로 인신되었다. 이에 본의와 인신의의를 구별하기 위해 형부 衣자를 가해 “從衣，求聲”의 형성전자 裘자를 만들어 전용하게 되었다. 이에서 형부 衣자는 단지 옷이라는 뜻을 나타낼 뿐이며, 성부인 求자가 전체의 의미를 주도하고 있다.

설명한 바와 같이 形聲專字類에서 형부는 단지 의미의 종류나 개별의를 나타내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성부가 형성자 전체의 의미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즉 의미에 있어 성부가 주라면, 형부는 從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同源字類

陳澧는 상고시대에 문자가 없었을 때에는 사람의 언어는 소리로 뜻을 표현하였다⁷⁾고 하였다. 소리를 형상화 한 것이 문자이므로 문자의 음은 바로 뜻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다. 王力은 음과 意가 모두 같거나, 음이 유사하고 意가 같은 것, 또는 意가 유사하고 음이 같은 문자를 同源字라 한다⁸⁾고 정의하였다. 이는 음과 의가 같거나 유사한 문자들은 같은 원류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이다. 즉 음이 같거나 유사한 문자들은 뜻도 같거나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 말을 다시 형성자에 대입하면 성부가 같은 문자들은 의미도 같거나 유사하다는 말이 된다. 黃侃은 “형성의 正例는 반드시 회의를 겸한다”⁹⁾고 하였다. 그래서 黃永武는 《形聲多兼會意考》에서 “凡從某得聲之字多有某之義”¹⁰⁾라 하여 동일 성부 문자간의 의미상의 관계를 설명하였고, 殷寄明은 《漢語語源義初探》에서 성부가 같은 문자는 그 語源이 대부분 같다고 하여 많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한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한어에는 단지 구두형식만이 있었다. 서계가 생기자 말에 비로소 구두와 서면의 두 가지 형식, 즉 문자성운과 문자형체를 갖추게 되었고, 사람들은 언어 중의 말을 위해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본자를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원래 구두언어 중에 들어있는 이 사의 음절이 문자의 본음으로 전화되었다. 그 사의가 바로 본의이며, 본자·본음·본의 삼자가 통일된 것이다. 예로…….11)

7) 清·陳澧, 《說文聲表·序》. “上古之世, 未有文字, 人之言語, 以聲達意.”

8) 王力, 《同源字典》, 1쪽. “凡音義皆近, 音近義同, 或義近音同字, 叫做同源字.”

9) 黃侃, 《說文條例》, 第4條. “凡形聲之正例, 必兼會意”

10) 黃永武는 《形聲多兼會意考》에서 총 93조의 예를 들면서 모두 “從某得聲之字多有某之義”의 형식을 취해 설명하였다.

11) 殷寄明, 《漢語語源義初探》, 27쪽. “漢字產生前, 漢語語詞只有口頭形式, 書契興起, 語詞才具有口頭·書面兩種形式即文字聲韻和文字形體. 人們為語言中的語詞構制一個表義的本字, 那麼原來在口頭語言中承載這個詞的音節就轉化為文字的本音, 其詞義即本義, 本字·本音·本義三者統一, 如…….”

동원자 중에서 성부가 표의를 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성부 본자의 의미(본의나 인신의, 혹은 語源意)로 표의하는 경우와 성부가 가차된 의미로 표의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1) 聲符表本字意例

이는 성부가 성부 자체의 의미로 표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分을 聲符로 갖는 문자는 “나누다”·“홀어지다”라는 뜻을 갖는 예가 많다.

攸자는 《설문·支部》에 “攸, 分也. 從支, 分聲”이라 하였다. 攸자는 “나누다”·“나누어지게 하다”는 뜻이다. 형부 攴은 외부의 힘을 가한다는 뜻이며, “나누다”는 뜻은 성부 分자에서 취한 것이다.

盼자는 《설문·目部》에 “盼, 詩曰美目盼兮. 從目, 分聲”이라 하였고, 段注本 《설문》에는 “白黑分也. 詩曰美目盼兮”라 하였다. 단주본에 의하면 盼자는 눈의 흰자와 검은자의 구별이 분명하여 맑고 아름다운 눈을 나타낸다. 형부는 目자이지만 성부는 “나누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貧자는 《설문·貝部》에 “貧, 財分少也. 從貝從分, 分亦聲”이라 하였다. 貧자는 재물이 홀어져 가난해짐을 나타낸다. 貝는 고대에 화폐로 사용했으므로 재물을 나타내며, “홀어지다”라는 의미는 성부 分자에서 취한 것이다.

粉자는 《설문·米部》에 “粉, 傅面者也. 從米, 分聲”이라 하였다. 粉자는 곡식의 흰 가루이며 화장품으로 얼굴에 바르기도 하였다. 형부 米가 곡식을 나타내지만 “가루”라는 의미는 성부 分자에서 취한 것이다.

欸자를 성부로 갖는 문자는 “빠지다”·“터지다”·“부족하다”·“훼손되다”라는 뜻을 갖는 예가 많다. 欸자는 《설문·又部》에 “分決也”(확 나누다)라 하였고, 갑골문에 의하면 둥그런 고리 모양이면서 한 쪽이 터진 옥을 두 손으로 잡고 있는 형상이다. 이는 欸자의 初文이다.

缺자는 《설문·缶部》에 “缺, 器破也. 從缶, 決省聲”이라 하였다. 缺은 토기의 이가 빠진 것을 나타낸다. 용기의 뜻은 형부 缶자에서 취했지만, “빠지다”라는 뜻은 성부 夬자에서 취한 것이다. 缺자는 지금은 인신되어 주로 “빠지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決자는 《설문·水部》에 “決, 行流也. 從水, 從夬”이라 하였고, 朱駿聲의 《說文通訓定聲》에 “決, 人導之而行曰決, 水不循道而自行亦曰決(사람이 인도하여 가는 것을 決이라 하며, 물이 길 따라 흐르지 못해 절로 흐르게 되는 것도 決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決은 물의 흐름이 막혔다가 한 곳이 터지면서 흐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決자에서 형부 水자는 물을 나타내지만, 성부 夬자는 “훼손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陔자는 《玉篇·阜部》에 “陔, 地裂也”라 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문자는 땅이 갈라지다는 뜻이며, 형부 阜자는 땅을, 성부 夬자는 “갈라지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腠자는 《설문·肉部》에 “腠, 孔也. 從肉, 決省聲. 讀若決水之決”이라 하였다. 이는 살에 구멍이 난 것을 뜻하며, 형부 肉자는 살을, 성부 夬자는 “훼손되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突자는 《설문·穴部》에 “突, 穿也. 從穴, 決省聲”이라 하였다. 이는 구멍을 뚫다는 뜻이다. 형부 血자는 구멍을 뜻하며, 성부 夬자는 “뚫다”는 뜻을 나타낸다.

缺자는 《설문·臺部》에 “缺, 缺也. 古者城闕其南方謂之缺. 從臺缺省”이라 하였다. 이는 성의 남쪽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에서 형부 臺자는 城을 뜻하며, 성부 夬자는 “빠지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卷자를 성부로 갖는 문자는 “구부리다”·“말다”·“둘러싸다”·“움츠리다”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구부리면 편 것보다는 크기가 작아 지므로 또 “작다”·“섬세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卷자는 《설문》에 “卷, 膝曲也”라 하였다. 이는 무릎이 구부러지다는 뜻으로 이에서 인신되어 “구부러지다”는 뜻을 갖는다.

拳자는 《설문·手部》에 “拳, 手也. 從手, 夨聲”이라 하였고, 《玉篇·手部》에 “拳, 屈手也”라 하였다. 이는 사람의 손을 말아 권 것으로 주먹을 뜻한다. 이에서 형부 手자는 손을 뜻하며, 성부 夨자는 “말다”·“구부리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捲자는 《玉篇·木部》에 “捲, 屈木孟也”라 하였다. 이는 나무를 둥글게 휘어 만든 그릇을 뜻한다. 이에서 형부 木자는 나무를 뜻하며, 성부 卷자는 “구부리다”는 뜻을 나타낸다.

蟠자는 《廣韻·先韻》에 “蟠, 蟲形詰屈”이라 하였다. 이는 벌레가 꿈틀꿈틀한 모양을 형용한 것이다. 꿈틀꿈틀한다는 것은 몸을 구부리는 것이므로, 형부 虫자는 벌레를, 성부 卷자는 “굽다”는 뜻을 나타낸다.

彎자는 《설문·角部》에 “彎, 曲角也. 從角, 夨聲”이라 하였다. 이는 굽은 뿔을 뜻한다. 이에서 형부 角은 뿔을, 성부 夨은 “구부러지다”는 뜻을 나타낸다.

蹇자는 《玉篇·足部》에 “蹇, 蹇蹇不伸也”라 하였다. 이는 발이 오그라들어 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서 형부 足은 발을, 성부 卷은 “구부러지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鬢자는 《설문·髟部》에 “鬢, 髮好也. 從髟, 卷聲”이라 하였다. 《설문》에서는 머리카락이 아름다운 모습이라 풀이하였으나, 《集韻·先韻》에 “鬢, 一曰髮曲”이라 하였다. 이는 머리카락이 꼬불꼬불한 것, 즉 곱슬머리를 나타낸다. 이에서 형부 髟는 모발을, 성부 卷은 “구부러지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總자는 《설문新附·糸部》에 “總, 纒總也. 從糸, 卷聲”이라 하여,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풀이하였다. 그러나 《淮南子·汜論訓》에 “古者有蓋而總領, 以王天下者矣(옛날에는 투구를 쓰고 굽은 것을 단 갑옷을 입고, 천하를 다스렸다)”라 하였고, 注에 “總領, 皮衣屈而紘之(갓옷에 구부려 꿰매는 것)”이라 하였다. 이에 보면 總領은 옷에 구부려 꿰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總자의 형부 糸은 천을, 성부 卷은 “구부리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纂자는 《설문·糸部》에 “纂, 攘臂繩也. 從糸, 夨聲”이라 하였다. 이는 팔의 소매를 말아(걸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매는 팔찌 끈을 뜻한다.

이에서 형부 糸은 천을, 성부 𠂔은 “말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囿자는 《설문·口部》에 “囿, 養畜之閑也. 從口, 卷聲”이라 하였다. 이는 가축을 기르는 우리를 뜻하며, 우리는 사방을 둘러싸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형부 口는 사방을, 성부 卷은 “둘러싸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𡇗자는 經자의 초문으로, 𡇗자를 성부로 갖는 문자는 “곧고 길다”는 뜻을 가진 문자가 많다. 𡇗자는 金文에 의하면 베틀에 세로 줄인 날줄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다. 베틀로 천을 짜려면 실을 길이로 팽팽하게 당겨서 걸어야 하므로 이에서 𡇗자는 “곧다”·“길다”·“강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勁자는 《설문·力部》에 “勁, 彊也. 從力, 冫聲”이라 하였다. 이는 강직하다는 뜻이다. 이에서 형부 力은 힘을, 성부 冫은 “곧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徑자는 《설문·辵部》에 “徑, 步道也. 從辵, 冫聲”이라 하였다. 이는 사람이 다니는 큰길을 나타내며, 이는 곧게 뻗은 길을 의미한다. 《莊子·秋水》에 “徑流之大”에서 釋文에 “直度曰徑”이라 한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형부 辵은 길을, 성부 冫은 “곧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脛자는 《설문·牛部》에 “脛, 牛膝下骨也. 從牛, 冫聲”이라 하였다. 이는 소의 무릎아래에서 발목까지의 뼈를 말한다. 膝下骨은 다른 뼈에 비해 곧고 길게 생긴 것이다. 따라서 형부 牛는 소를, 성부 冫은 “곧고 길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瘿자는 《설문·疒部》에 “瘿, 彊急也. 從疒, 冫聲”이라 하였다. 이는 근육이 갑자기 강하게 긴장되는 즉 瘿癭(경련)을 뜻한다. 이에서 형부 疒은 질병을, 성부 冫은 “강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脛자는 《설문·肉部》에 “脛, 脛也. 從肉, 冫聲”이라 하였다. 이 역시 무릎 밑에서 발목까지의 뼈를 말한다. 이는 곧고 길게 생긴 것이다. 따라서 형부 肉은 신체기관을, 성부 冫은 “곧고 길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莖자는 《설문·艸部》에 “莖, 枝柱也. 從艸, 冫聲”이라 하였고, 段注

本 《설문》에는 “艸木幹也”라 하였다. 이는 초목의 줄기를 말하며, 초목의 줄기는 곧고 긴 모습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형부 艸는 草木을, 성부 逕은 “길고 곧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逕자는 《玉篇·辵部》에 “逕, 路逕也”라 하였다. 이 역시 徑자와 마찬가지로 곧게 뻗은 큰길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부 辵은 길을, 성부 逕은 “곧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頸자는 《설문·頁部》에 “頸, 頭莖也. 從頁, 逕聲”이라 하였다. 이는 목을 나타낸다. 《釋名·釋形體》에 “頸, 徑也. 徑挺而長也(곧고 길다)”(주)라 하였다. 이로 보면 형부 頁은 머리를, 성부 逕은 “곧고 길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2) 聲符表借意例

이는 성부가 성부 본자의 의미와 무관한 차의로 표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曷자는 《설문·曰部》에 “曷, 何也. 從曰, 囧聲”이라 하였다. 이에 의하면 曷자는 원래 “어찌”·“어느”·“무엇” 등과 같이 감탄사나 의문사로 쓰이던 문자였는데, 후에 형성자의 성부로 쓰이는 경우 왕왕 “멈추다”·“다하다”·“막히다” 등의 차의로 쓰이게 되었다. 曷자를 성부로 갖는 문자 중에 “멈추다”·“다하다”라는 뜻을 갖는 문자가 적지 않다.

喝자는 《설문·口部》에 “喝, 灑也. 從口, 曷聲”이라 하였다. 이는 소리를 크게 질러 목이 막힌 것을 뜻한다. 이에서 형부 口는 발성기관인 입을, 성부 曷은 “막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遏자는 《설문·辵部》에 “遏, 微止也. 從辵, 曷聲”이라 하였다. 이는 통행이나 길이 막힌 것을 뜻한다. 따라서 형부 辵은 길이나 行來를, 성부 曷은 “막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歇자는 《설문·欠部》에 “歇, 息也. 一曰气越泄. 從欠, 曷聲”이라 하였다. 이는 숨을 돌려 쉬다는 의미이다. 이에서 형부 欠은 입이나 호흡을, 성부 曷은 “멈추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惕자는 《설문·心部》에 “惕, 息也. 從心, 曷聲”이라 하였다. 이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멈추어 쉬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서 형부 心은 마음을, 성부 曷은 “멈추다”·“쉬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音자는 《설문·音部》에 “音, 聲也. 生於心, 有節於外謂之音, 宮商角徵羽聲也. 絲竹金石匏土革木音也. 從言音一”이라 하였다. 이는 바로 소리를 뜻한다. 그러나 형성자의 성부로 쓰이는 경우 왕왕 “어둡다”는 차의로 사용되었고, 또 어둡은 조용하고 잘 보이지 않으므로 “침묵”, 또는 “보이지 않다”는 뜻으로도 쓰이게 되었다. 따라서 음자를 성부로 갖는 문자 중에 “어둡다”·“침묵”·“안 보이다”는 의미를 갖는 문자가 많다.

暗자는 《설문·日部》에 “暗, 日無光也. 從日, 音聲”이라 하였다. 해가 빛이 없다는 말은 바로 어둡다는 뜻이다. 이에서 형부 日은 해를, 성부 音은 “어둡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窞자는 《설문·穴部》에 “窞, 地室也. 從穴, 音聲”이라 하였다. 이는 지하실을 뜻하며, 지하실은 햇빛이 들지 않아 어두운 곳이다. 따라서 형부 穴은 땅굴을, 성부 音은 “어둡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罟자는 《설문·网部》에 “罟, 覆也. 從网, 音聲”이라 하였다. 이는 그물로 덮어 씌우다는 뜻이다. 덮어씌우면 빛을 차단하게 되어 역시 어둡게 된다. 따라서 형부 网은 그물을, 성부 音은 “어둡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黠자는 《설문·黑部》에 “黠, 深黑也. 從黑, 音聲”이라 하였다. 이는 시커멓다는 뜻으로 곧 어둡을 나타낸다. 이에서 형부 黑은 검다는 뜻을, 성부 音은 “어둡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溚자는 《설문·水部》에 “溚, 幽溼也. 從水, 音聲”이라 하였다. 이는 어둡고 습하다는 뜻이다. 이에서 형부 水는 습기를, 성부 音은 “어둡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闔자는 《설문·門部》에 “闔, 閉門也. 從門, 音聲”이라 하였다. 이는 문을 닫는 뜻이다. 문을 닫는 것은 역시 빛을 차단하는 것이므로 어둡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옥편·門部》에 “闔, 幽也”라 하여 어둡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였다. 이에서 闔자의 형부 門은 문을, 성부 音은

“어둡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喑자는 《설문·口部》에 “喑, 宋齊謂兒泣不止曰喑. 從口, 音瞢”이라 하였다. 《方言》을 인용하여 송나라와 제나라에서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을喑이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泣은 소리를 내지 않고 우는 것을 말한다. 《설문·水部》에 “泣, 無聲出涕曰泣”이라 하여 소리를 내지 않고 눈물만 흘리는 것을 말한다.喑자에서 형부 口는 입을, 성부 音은 “소리를 내지 않다”·“침묵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瘖자는 《설문·疒部》에 “瘖, 不能言也. 從疒, 音瞢”이라 하였다. 이는 말을 하지 못하는 병어리를 뜻한다. 이에서 형부 疒은 질병을, 성부 音은 “침묵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愔자는 《광운·侵韻》에 “愔, 靖也”라 하였다. 이는 고요하다는 뜻이다. 이에서 형부 心은 마음을, 성부 音은 “침묵”을 나타낸다.

諳자는 《설문·言部》에 “諳, 悉也. 從言, 音瞢”이라 하였다. 이는 자세히 알다는 뜻이다.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해를 하거나 외워야 한다. 《옥편·言部》에 “諳, 記也”라 하여 기억하다로 풀이하였다. 또 諳자가 言부의 문자인 것으로 보아 암기하여 알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암기나 암송은 보지 않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諳자의 형부 言은 말을, 성부 音은 “보지 않다”·“안 보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皮자는 《설문·皮部》에 “皮, 剝取獸革者謂之皮”라고 하였다. 즉 皮는 동물의 가죽을 말한다. 그러나 형성자의 성부로 쓰이면 왕왕 굴곡이나 평탄치 못하다는 차의로 사용되곤 한다. 皮자를 성부로 갖는 문자 중에 “屈曲”이나 “不平”·“불균형”의 뜻을 갖는 문자를 보면,

顛자는 《설문·頁部》에 “顛, 頭偏也. 從頁, 皮聲”이라 하였다. 이는 머리가 한 곳으로 치우친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우치다”·“쏠리다”는 뜻을 나타낸다. 이에서 형부 頁은 머리를, 성부 皮는 “불균형”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駢자는 《설문·馬部》에 “駢, 駢駢也. 從馬, 皮聲”이라 하였다. 이는 말이 머리를 내두르는 모양을 나타낸다. 이에서 형부 馬는 말을, 성부 皮는 “굴곡”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尫(또는 跛)자는 《설문·尫部》에 “尫, 蹇也. 從尫, 皮聲”이라 하였다. 이는 사람이 다리를 저는 절름발을 뜻한다. 이에서 형부 尫은 절다름, 성부 皮는 “불균형”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波자는 《설문·水部》에 “波, 水涌流也. 從水, 皮聲”이라 하였다. 이는 물이 파도치며 흐르는 것을 뜻한다. 이에서 형부 水는 물을, 성부 皮는 “굴곡”을 나타내고 있다.

坡자는 《설문·土部》에 “坡, 阪也. 從土, 皮聲”이라 하였다. 이는 언덕을 뜻한다. 이에서 형부 土는 땅을, 성부 皮는 “不平”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阪자는 《설문·阜部》에 “阪, 阪也. 一曰沓也. 從阜, 皮聲”이라 하였다. 이 역시 언덕을 뜻한다. 따라서 형부 阜는 地形을, 성부 皮는 “不平”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성부를 가진 문자는 의미 또한 유사한 경우가 많으며, 형부는 단지 그 의미의 유별이나 종류를 나타낼 뿐이며, 성부가 형성자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형부와 성부가 형성전자에서처럼 표의 면에 있어 주종의 관계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대등하거나 성부가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結 言

일반적인 인식에 의하면 형부는 표의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성부는 표음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형부가 형성자 자의의 전체를 나타내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앞에서 예를 든 鼻자나 星자 罔자 등과 같이 일부 형성자는 형부가 형성자의 전체 자의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 성부가 표의의 기능을 갖지 못하고 표음의 기능만을 하는 형성자에 있어서도 형부는 단지 類別意나 개략의만을 나타낼 뿐이며, 형부만으로 字意 전체를 파악하기에

는 부족함이 많다. 이에 반해 성부는 기본적으로 표의 기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성자의 의미를 주도하고 있다. 形聲專字類에서는 성부가 형성자 전체의 의미를 주도하고 있으며, 형부는 단지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음을 보였다. 또 동원자류에서도 형부는 의미의 유별이나 종류를 나타내며, 성부가 보다 구체적으로 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사실을 통해 몇 가지로 요약해 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부가 표의 기능을 갖는 것이 형성자의 正例에 속하며, 초기의 형성자일수록 성부가 표의 기능을 가지며, 후기 형성자일수록 성부가 표의 기능을 갖지 못하는 예가 많다.

둘째, 성부가 형부보다 더 주도적이고 구체적으로 표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형성자에서 형부와 성부가 50%대 50%로 동등하게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게 중심에 훨씬 성부 쪽에 쏠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상당수의 성부가 같은 문자들은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어 서로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許慎은 《說文解字》에서 성부가 표의 기능을 갖고 있는 문자는 형성과 회의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보아 『亦聲』으로 구분하였고, 역대의 많은 학자들은 이를 회의로 보아야 한다, 또는 형성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등 이론이 분분해 왔다. 따라서 여러 문자학 개론서에서는 이를 회의에 포함시켜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성부의 표의 기능은 당연한 것이고, 그 예 또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그러므로 許慎이 말한 『亦聲』이란 것은 할 필요가 없는 말이며, 또 이를 회의로 보아야 한다느니 『形聲兼會意』나 『會意包形聲』이라고 하는 말들은 성부에 대한 이해가 적어서 생긴 말일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연구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동원자 방면에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을 가진 문자, 또는 동일한 성부를 가진 문자들 간의 의미상의 상호 연관관계를 찾아내 증명하는 일이 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書目

- 許 慎,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臺灣 漢京, 1980년 3월 초판.
- 揚 雄, 戴 震(疏), 《方言疏證》, 臺灣 中華書局, 1974년 3판.
- 顧野王, 《玉篇零卷》, 日本 舊鈔卷子本, 國字整理小組.
- 陳彭年, 《宋本廣韻》, 黎明文化事業公司, 1976년.
- 丁福保, 《說文解字詁林》, 臺灣 鼎文書局, 1977년.
- 容 庚, 《金文編》, 臺灣 弘道文化事業有限公司, 1960.
- 黃永武, 《形聲多兼會意考》, 文史哲出版社, 1976년 4판.
- 李孝定, 《甲骨文字集釋》, 臺灣 中央研究院歷史言語研究所, 1965 초판.
- 周法高, 《金文詁林補》, 臺灣 中央研究院歷史言語研究所, 1982 초판.
- 《中文大辭典》, 中華學術院, 1980.
- 李孝定, 《漢字的起源與演變論叢》, 聯經出版事業公司, 1986년 초판.
- 王 力, 《同源字典》, 北京 商務印書館, 1987 재판.
- 徐中舒,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88년.
- 王鳳陽, 《漢字學》, 吉林文史哲出版社, 1989년.
- 裘錫圭, 《文字學概要》, 北京 商務印書館, 1990년.
- 詹鄞鑫, 《漢字說略》, 遼寧教育出版社, 1991년 초판.
- 于省吾, 《甲骨文字詁林》, 北京 中華書局, 1996년 초판.
- 秦光豪, 《文字學概論》, 도서출판민족문화, 1997년 초판.
- 殷寄明, 《漢語語源義初探》, 學林出版社, 1998년 초판.
- 秦光豪, <假借辨析>, 《외대어문논총》 제6집, 1990년 11월.
- 秦光豪, <引伸造字試論>,釜山慶南中國語文學會 《中國語文論集》 제11
집 1996.12.

中文提要

一般來說形聲字之形符有表意之功能，聲符有表音與表意之雙重功能，但不能說形符是形聲字之表意主體，聲符是表意之客體。形聲字之形符很少表形聲字的全體意(形符加聲之形聲字)，大部分都表形聲字的類別意或相關意。雖然不能說所有的聲符都有表意的功能，但在形聲字上更具體地表意的却是聲符。本稿從這一點出發，試圖分析形聲字聲符之表意類型。

聲符之表意類形可分為兩種。第一是形聲專字類，第二是同源字類。形聲專字又可分為兩種。第一是由假借而造的，第二是由引伸而造的。這種形聲字之聲符比形符更主體地具體地表形聲字的字意。例如，“其”字的本意就是“所以簸者也”。後假借為“那”，“他”等之代詞或指示詞。所以“其”字裏面有了本意及假借意。後來要把這兩種意思分開，在“其”字上面加上“竹”字，作一個“從竹，其聲”之形聲專字“箕”字來表示本意。所以“箕”字之聲符“其”字表“箕”的全體意，形符“竹”字只表材料而已。例如，“求”字的本意是毛皮衣。在古代毛皮可表示男人的打獵能力，也表示貴重的東西，所以許多人都願意得到。後來引伸為願意，追求等的意思。由此“求”字有毛皮意與願意的兩種意思。所以要把這兩種意思分開，在“求”字下面加上表示衣服的形符“衣”字，作一個“從衣，求聲”的形聲專字“裘”字。“求”字專門表示“願意”的引伸意，“裘”字專門表示毛皮衣的本意。“裘”字的聲符“求”字表具體的意思，形符“衣”字只表類別意。

同源字類也可分為兩種。第一是聲符表本字意例，第二是聲符表借意例。聲符表本字意例是指聲符表本字之本意或引伸意而言之。例如，“卷”字《說文》云“膝曲也”。所以從卷聲之形聲字(拳，捲，蜷，拳，踘，髻，總，綵，圈等字)多有“曲”，“捲起來”，“縮小”，“細小”等之意。聲符表借意例就是說聲符表假借意。例如，“音”字本是聲音的意思。後來假借為表示“黑暗”，“沈默”，“看不見”等之意。所以從音之形聲字(暗，窅，罨，黯，滯，闇，暗，瘡，愔，諳等字)多有“黑暗”，“沈默”，“看不見”等之意。由此可見，形聲字之聲符比形符更主動地參與於形聲字的字意。

한국 한자음 중의 《切韻》 “三等韻”

朴 慶 松*

<目 次>

- | | |
|-------------------------------------|-------------------|
| 1. 이끄는 말 | 3. 한국한자음 중의 “三等韻” |
| 2. 한국한자음과 《切韻》음계
네 가지 ‘等’의 대응 관계 | 4. 맺는말 |

1. 이끄는 말

《切韻》의 음운체계를 연구하는데 있어 한국의 한자음을 체계적으로 이용한 학자는 칼그렌(Karlgren)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중고음을 재구 하면서, 한국한자음을 중국의 역외(域外) 방언이라고까지 하며 매우 중시하였다. 예를 들면 중고음 3등운의 주요모음을 재구할 때, 한국한자음과 일본漢音を 이용하였다(1995:469).

	漢音	高麗
二等	-an	-an
三四等	-en	-ən

이러한 한자음을 근거로 중고음 3등운의 전설모음 [ɛ]를 추정하였다. 사실 인도·유럽어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오던 역사비교언어학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차용음이 중국 역사음운학에서와 같이 그 원시음을

* 영산대학교 중국학과 강의전담교수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 것은 칼그렌의 커다란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친족어가 아닌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베트남의 언어에는 중국의 한자와 그 독음체계가 자국의 음운체계에 동화되어 사용되었고, 韓·日·越의 문화는 비자연적 언어접촉¹⁾의 방식을 통하여 인쇄 소위 ‘한자문화권’으로 형성되었다. 한자는 구체적인 語音を 바로 알 수 있는 표음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대한어 음가추정 작업에는 현대한어방언과 친족언어 뿐만 아니라, 이들 차용어의 자료 또한 이용해야 한다. 이 중에서 한국한자음은 한자 수량이 방대하고, 시간적으로 한기층음에 집중되어 있고, 대체음 역시 전환규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역사언어학의 관점에서 볼 때 어느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으로, 이러한 한어와 주변언어의 접촉은 인도 유럽어족 간의 접촉과 다른 새로운 과제를 제공해 준다.

칼그렌의 《中國音韻學研究》(1995)에서 중고음 3등운 介音의 음가추정에 한국한자음이 이용되었다. 그는 山攝과 威攝을 예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473).

	韻 a		韻 β		韻 γ
山攝 : 愆 虔	kən	言	ən	肩 堅 牽 縶	kiən
		掀	ən	研	iən
				弦 絃 賢	hiən
件	kən	建	kən	見	kian
諺	ən	憲 獻	hən	硯	iən
				銜 縣	hiən

1) 陳保亞(1996:8)는 언어접촉을 자연접촉과 비자연접촉으로 나누었다. 자연접촉은 한 공간안에서 다른 두 언어가 상호 접촉하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면 한어와 소수민족언어 간에 같은 지역에서 접촉하는 경우이다. 비자연접촉은 다른 공간에서 문자 전파 혹은 문헌의 번역을 통하여 접촉하는 것을 말하며, 隋唐시대 일본어와 중국북방 한어와의 접촉 등을 가리킨다. 본 논문에서는 이것의 명칭과 개념을 따랐다.

權拳	kuən	元原源	uən		
		誼暄	huən		
捲圈	kuən			玄懸	hiən
眷卷倦	kuən	券勸	kuən		
		愿	uən		
咸攝：		嚴	əm		
儉	kəm			兼謙	kiam
險	həm	檢	kəm	嫌	hiəm
驗	həm	欠	həm	歉	kiam

칼그렌은 한국한자음에서 3등운의 a韻과 β韻에 -i가 없고, 4등운에 -i가 있는 것을 근거로, 중고음 3등 a韻은 성모가 j화(喩化)되고 개음은 輔音적인 -i로, 4등운은 母音적인 -i로 설정하였다²⁾. 이후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3등운의 개음은 어떠한 성격을 가진 것이며, 4등운에 개음 [i]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어 왔다.

사실 《切韻》음운체계에서 3등운은 아주 복잡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이러한 3등운 개음의 추정에 한국한자음을 근거로 한것에 주목하고, 한국한자음에서 왜 3등운에 개음이 없는 모음으로 독음되고 있는지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전 학자들은 한자음이 국어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용·실현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직 그 대응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것 같았다. 그래서 필자는 먼저 중고음 3등운과 4등운을 한국한자음에서 어떻게 변별하고 있는지, 이것이 당시 16세기 국어음과 어떻게 대응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에서 나온 전환규칙으로 한국한자음에 반영된 중고음 3등운의 성격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2) 이 중 칼그렌이 예외자로 든 3등운의 a韻 山攝과 咸攝의 見系에 모음 -i를 가진 한자(예: 遣 kiam, 絹 kiam, 厭 iam)가 있다. 이것은 칼그렌이 소홀히 다루었던 重紐와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이에 대해서는 이미 줄고(박경송:1998)에서 분석한 바가 있다.

2. 한국한자음과 《切韻》음계 네 가지 ‘等’의 대응 관계

‘等³⁾’이란 도표 형식으로 광운 음계의 성모·운모·성조의 결합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즉 중고한어의 음운체계와 독음을 나타낸 것이다.

필자의 논문(1998)에서 한국한자음⁴⁾과 《切韻》 음운체계의 네 가지 ‘等’⁵⁾의 대체관계에 대한 규칙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 다시 소개해 보겠다.

〔표 1〕

開口 韻攝	一等	二等		三等		四等
		見系	非見系	見系 (喻四 제외)	非見系	
果攝	a					
假攝		a	a		ia	
蟹攝	ɿ(哈) ai(泰)	ɿ ai ia	ɿ ai	ai, ia	ia iə	ia i iə
止攝				ii, i	i ɿ(精·莊組)	
咸攝	ɿm(覃韻精組) am	am	am	əm, iam	iam	iam
深攝				im	im, im ɿm(莊組)	

3) 사호(四呼)가 형성되기 전, 한어 음운의 체계는 ‘口’라는 것으로 개구음과 합구음으로 나누고, 각 ‘口’에는 1·2·3·4 ‘等’으로 나누고, 각각의 ‘等’은 운미(韻尾)와 주요모음의 차이에 따라 16개의 ‘攝’으로 나누어진다. ‘等’의 기본정신은 바로 聲와 韻의 결합관계이다.

4) 본 논문에서 사용된 한자음은 당시 현실 한자음을 표기한 《訓蒙字會》(1527년 崔世珍편찬 총 3,360자, 초간본 觀山文庫本)를 근거하였고, 《訓蒙字會》에 등재되지 않은 것은《新增類合》(1576년 劉希春편찬 총3,360자)를 참고하였다.

5) 《方言調查字表》에서 분류한 상용자 3,700여개와 한어음운 명칭에 근거한 것이다.

山攝	an		an	ən, iən	iən	iən
臻攝	ʌn in			in, in	in	
宕·江攝	aŋ		aŋ	aŋ, iaŋ	iaŋ	
曾攝	ʌŋ iŋ			iŋ	iŋ iŋ	
梗攝		ʌiŋ iəŋ	ʌiŋ	iəŋ	iəŋ	iəŋ
果·假攝	a, oa	oa	a, oa			
遇攝	o			ə(魚韻) u(虞韻)	iə, ə(莊組) iu, u(莊組)	
蟹攝	ʌi, oi	oi oai oa		uəi	iəi iui	iəi iu
止攝				uəi, iəi ui, iu	iui, iu iəi, i	
效攝	o	io	o, io	io	io	io
流攝	u			u(尤韻) iu(幽韻)	iu	
咸攝					əm	
山攝	an, oan	oan	an	uən, iən	iən	iən
臻攝	on un			un, iun	iun	
宕攝	oaŋ			oaŋ	aŋ	
曾攝	oŋ uk			iək		
梗攝		oiŋ		iəŋ	iəŋ	iəŋ
通攝	oŋ			uŋ(東韻) oŋ(鍾韻)	iuŋ ioŋ	

[표 1]에서 한국한자음과 ‘等’의 대응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開口音				合口音			
一 二 等	Λ	a	Λi	ai	o	oa	oi	oai
三 等 (見系)	i	ə	ii	əi	u	uə	ui	uəi
三 等 (非見系), 四 等	i	iə	i	iai	iu	iə	iu	iai

위와 같은 한국한자음의 中聲체계를 15·6세기 당시 국어의 모음체계와 대비하여 보겠다. 중세 국어 모음계통에서 단모음은 7개이며, 허응(1985:410)의 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음가를 추정하고 있다.

〔표 3〕

	-後(+低)	+後(-低)	
		-圓脣	+圓脣
-低(-後)	ʃ(ə)	_(i)	┐(u)
+低(+後)	ʎ(a)	·(Λ)	┘(o)

당시 이러한 모음체계는 모음조화의 규칙과 완전히 일치한다. 즉,

* 양성모음 : Λ o a
 음성모음 : i u ə
 중성모음 : i

중세 국어 모음간의 대립관계가 음절과 음절끼리의 어울림인 모음조화현상과 부합되고 있다. 즉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을 모음조화의 규칙이라고 한다.

앞의 표들을 통하여 중세 국어의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립이 한국한자음에서는 1·2등과 3등의 대립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즉 開口音 1등운과 2등운은 한자음의 “ʎ(a)”와 “·(Λ)”로 국어의 양성모음이고, 3등운의 見系자는 한자음의 “ʃ(ə)”와 “_(i)”로 국어의 음성모음이며, 3등운의 非見系字, 喻四, 重紐四等, 및

4등운은 중성모음([i]) 또는 중성모음([i])와 음성모음([a])으로 대응되고 있다. ㅅㅁㅂ音에서는 1·2등과 3등이 각각 “ㄱ([o])”와 “ㄴ([u])”의 대립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대응관계는 음운 변화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切韻》은 한국한자음에 비하여 상당히 오래 되었으며 ‘等’의 체계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즉 한국한자음에서 1·2등은 이미 합류되었고, 3·4등은 합류의 되는 과정이 아직 완성되지 않고 見系, 重紐, 그리고 喻母字가 아직 3등과 4등의 대립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한자음과 네 개 ‘等’의 대응관계는 중국역사음운학에서 아직 논의되고 있는 重韻, 重紐, 喻三·四等 등의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필자는 언어 접촉의 음운 전환규율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다루었고(1998), 또한 《切韻》과 한국한자음의 전환규율에서 예외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국어 음운체계의 제약과 음운 변화에서 서로 다른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하여 규명한 바 있다(1999).

3. 한국한자음 중의 “三等韻”

《切韻》음운체계에서 가장 복잡한 것이 3등운이다. 3등운이란 공통적으로 개음-i-(운모 i 포함)를 가지는 것을 말하며, 중고음에서 현대 한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음운의 변화⁶⁾는 이 3등운에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다수 중국 현대 방언구역에서 3등운과 4등운의 구별이 없어지고(金有景(1982) 참고), 북경어에서도 4등운이 3등운에 합류되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한국한자음은 3등운과 4등운이 여전히 구별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줄곧 중국음운학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왔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한국한자음에 반영된 한자 음가만을 《切

6) 예를 들면, 輕脣音과 重脣音의 분화, 舌頭音과 舌上音의 분화, 齒頭音과 捲舌音의 분화 및 舌根音과 舌面音의 분화 등이 이것이다.

韻》음의 재구에 이용하였고, 오히려 한자음 자체가 한국어의 음운계통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한자 독음이 이러하니 《切韻》의 음가도 이것과 같거나 혹은 유사할 것이다, 혹은 《切韻》의 재구음으로 한국한자음에서 어떤 음이 탈락되었다든지 동화되었다는 등으로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제2장에서와 같이 한국한자음은 이미 한국어 음운체계에서 한 구성성분이며, 비록 이들이 차용될 당시 독음의 분류는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차용될 당시 중국의 실제 어음을 완전하게 보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중국 역사언어학을 연구하는데 있어 한국한자음의 실제 음가를 중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반드시 한국어와의 관계 속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독음의 類가 어떠한 유형으로 변별되고 있는지에 치중하여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한자음에서 3등운의 독음은 廢韻·宵韻·幽韻·庚清韻(上·去聲 포함, 下同) 이외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각 운의 重紐4등과 喻四字를 제외한 見系字와 부분 唇音字이며, 이들 주요모음은 한국어의 음성모음 [j] 혹은 [a]이다. 다른 하나는 非見系字(순음의 일부분字 제외)와 重紐 4등, 喻四字이며, 주요모음은 한국어의 중성모음 i 혹은 [i]에 음성모음 [a]가 결합된 이중모음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止攝자들은 현재 한국한자음과는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독음되고 있다.

見系		開 口		合 口	
止攝	支	ii	寄奇義穢椅	uəi	詭跪毀
		i	企岐妓技	ui	危僞靡委爲
脂	脂	ii	飢冀器祁	iu	規窺虧
		uəi		ui	軌櫃
		i	棄伊夷肄	iəi	癸季
		ui		ui	龜位
之	之	iu		iu	逵葵維唯
		ii	基起期疑喜醫矣		

i 其飴已異
 微 ii 機既氣祈希 ui 歸鬼魏揮諱威胃

3등운 見系字는 한국한자음에서 국어의 음성모음과 대응되고 있으며, 이것은 4등운이 중성모음과 대응되는 것과 확실하게 구별되고 있다. 즉 국어의 모음조화의 체계에서 음성모음과 중성모음의 대립이 중고한어 3등운과 4등운을 구별하는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국어의 음운체계에서 음성모음과 중성모음의 대립이 없다면 한국한자음에서도 중고한어 3·4등의 구별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梗攝의 3등 見系字(예: 京莢逆)는 전환규율에 의하면 음성모음 ·aŋ와 4등의 ·iaŋ과 대립되어야 하는데, 모두 ·iaŋ으로 독음된다. 이것은 아마도 국어음 절 조건에서 설근 비음과 입성운은 음성모음과는 결합할 수 없어서 아닐까 추정된다.

중고음에서 3등운의 모음은 1·2등에 비하여 전설고모음에 가깝다. 한국한자음에서 3등운의 주모음은 [i] 혹은 [ɨ]로, 1·2등의 주모음 [a] 혹은 [ɨ] 보다는 높지만 이것은 국어의 모음계통에서 [i] 이외에 다른 전설모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성모음 [a]와 [i]류의 고모음으로 중고음 3등운의 전설고모음과 대응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어에 한자가 차용될 때 중고음 3등운과 4등운을 국어의 모음조화체계로 전환될 때, 왜 3등운의 見系字는 국어의 음성모음을 선택하고 중성모음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고음 3등운의 개음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중고음 3등운의 개음은 항상 純4등운⁷⁾의 개음의 유무와 함께 다루어 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음운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칼그렌은 威·山攝의 한국한자음으로 《切韻》 음운체계의 3등운과 4등운을 각각 자음적인 [i]와 모음적인 [i]로 재구했다. 이후 그는 《中上古漢語音韻綱要》(1987:56~56)에서 여전히 두 개

7) 純 4등운은 齊·蕭·添帖·先屑·青錫 등의 韻을 가리킨다.

의 개음을 전지하면서, 또한 설명을 덧붙이기를 이전의 한국한자음에서는 3등운에 어떤 i모음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설근음 이외에 다른 聲母자(仙韻: 然 ian, 連 rian, 綿 mian. 鹽韻: 炎 iam, 奩 riam)에 의해서 알 수 있다하여, 3등은 자음성의 단음[i]로 4등은 모음성의 장음[i]를 주장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한자음의 3·4등운 見系字의 독음의 차이는 국어의 음운체계의 제약에 의한 것으로, 즉 3등운과 4등운을 구별하기 위해 국어의 음성모음과 중성모음을 선택한 것이지, 칼그렌이 주장한 것과 같은 두 개의 다른 모음을 구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칼그렌이 위와 같은 결론을 얻어낸 것은 한국한자음의 4등운이 이미 3등 非見系자에 합류되었다는 것을 간과하였고, 또한 한국한자음에는 중뉴(重紐)⁸⁾와 유3(喻三)과 유4(喻四)의 변별⁹⁾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칼그렌과 같이 단지 한국한자음의 3·4등의 독음으로 중고한어의 3·4등의 개음을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후의 많은 학자들 또한 純4등운의 개음의 유무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 그 중 王靜如의 《論古漢語之顎介音》(1948), 陸志韋의 《古音說略》(1947:167~173), 李榮의 《切韻音系》(1956) 등에서 純4등운에는 개음 [i]가 없다고 주장했다. 邵榮芬(1982:124~126)에서 불교 밀종 바라니경의 4등운자에 [i]가 아닌 대부분 [e]로 대역한 것으로 보아 4등운은 개음[i]가 없으며, 주요모음은 梵文의 [e]에 가깝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주로 서면문헌 자료와 음운이론으로 추정한 것이며, 이후 몇몇 학자들은 현대한어 방언의 자료를 이용하여 4등운은 개음이 없다고 했

8) 중뉴는 《廣韻》에서 같은 운의 같은 開口와 合口 내에 두 류의 小韻이 대립되는 있는 것을 말한다. “祭·支·脂·宵·鹽·侵·仙·眞(諄)” 등의 여덟 개 3등운의 唇音, 牙音, 喉音자 성모 아래에서 한 韻에 反切上字는 같은 류이지만, 反切下字는 두 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한다. 한국한자음에서는 宵韻과 侵韻을 제외한 각 운의 喉牙音자에서 두가지 다른 독음을 가지고 중뉴3등과 중뉴4등을 대표하고 있다.

9) 《切韻》음운체계에서 喻母는 같은 小韻에서 두 개의 다른 反切上字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두 개의 다른 성모를 대표하는 것이다. 한국한자음에서 喻3은 국어의 음성모음으로 喻4는 중성모음으로 독음되고 있다.

다. 그 중에 李如龍(1984)은 閩방언 자료를 근거로 《切韻》의 4등운은 개음[i]가 없는 개구음이라고 주장하였고, 張賢豹(1985) 또한 이를 바탕으로 4등운을 *ai로 추정하였다.

우리는 한국한자음의 3·4등운의 非見系자의 합류와, 3등운 見系자의 중뉴4등과 喻4와 4등운의 독음이 같은 것에 근거하여, 위의 관점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국한자음의 3·4등운 독음의 구별은 《切韻》음계 초기 형식을 반영한 것이 아닌 3등운과 4등운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4등운이 이미 [i]개음이 이미 나타난 이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吳文祺(1986:89)는 純4등운의 개음[i]는 唐代에 발생한 것이며, 慧琳의 《一切經音義》의 反切이 《廣韻》과 다른 것은 齊·先·蕭·青·添 등 韻의 反切上字에 있으며 이는 개음[i]가 이 때 나온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위와 다른 관점으로 3등운의 개음 문제를 다루는 학자들도 있다. 즉 한국한자음의 3등운의 두가지 독음을 이용하여 중고한어의 3등운이 두개의 개음으로 추정하였다. 즉 [i]개음과 [i]개음이다. 이러한 견해를 처음으로 제시한 학자는 有坂秀世이다. 그는 한국한자음의 止攝 喉牙音의 ki와 kij, 臻攝의 in과 in 등을 예로 제시하면서, 《韻鏡》의 喉牙音 3등과 正齒音(莊組)의 개음을 중설고모음 [i]개음으로, 4등은 구개적·전설적 [i]로 설정하였다(1937-39:327-357). 한국한자음에서 3등운이 直音으로 반영된 것은 이 非구개적인 拗音¹⁰⁾적 요소 [i]가 어두에 흡수된 까닭이며, 4등은 구개적 拗音적 요소 [i]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拗音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하였다. 河野六郎(1979:337-339) 또한 이와 유사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한자음에 대하여 상당히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는데, 拗音은 3등운에만 나타나며 拗音-이 나타나는 것을 3등운 甲, -i가 나타나는 것을 3등운 乙이라고 하였다.

이후 한국한자음을 연구하는 국어학자들(박병채, 1986:109-110; 이운동, 1997 등) 역시 3등 개음은 子音의이고 中舌적인 [i] 또는 전설적인 [i]로 되기 쉬운데 국어 음운체계에서 [i]는 활주음으로 쓰이지 않았기

10) 直音과 拗音이란 용어는 일본 학자들이 일본 漢音에서 사용하던 용어로서 介音(yod)의 유무를 가리킨다.

때문에 탈락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3등운의 3중모음을 허용하지 않는 국어의 음절구조에 맞추어 2중모음으로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3등운 개모음 [j]를 失落시키고 ㅅㅁㅊㅌㅍㅍ만 반영하여 威攝과 山攝에서 ‘위’로 투영되었다(이운동, 1997:165)고도 설명하고 있다. 3등 중 牙音 성모 다음에서는 3등 개모가 성모의 조음위치 때문에 더 뒤로 끌려들어 가 요음성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탈락하게 되고 ‘에’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184)라고 하듯이 마치 한국한자음의 전환규율이 아무런 규칙도 없이 어떤 경우에는 핵모음이 탈락되었다고 하기도 하고(합구음의 경우),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음이 탈락되고 합구개음만 남은 경우(ui), 그리고 합구음에서는 3중모음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말 음운조직에 맞추어 단순화되는 과정에서 3등 개모음 [j]가 강하기 때문에 남고 합구요소 [u]가 약하기 때문에 탈락하여 개구음과 같이 투영된 것(ian : 兄·營·永 등의 자)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것에는 아무런 전환규율도 없이 먼저 재구된 <切韻>음계를 한국한자음에 불규칙적으로 대응되는 것으로만 해석하였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음운학자들이 주장하는 실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미 살펴보았듯이 한국한자음 3등운의 독음은 4등운과의 변별을 하기 위함이었지 당시 한어의 음가를 완전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다. 즉 한국한자음의 음성모음과 중성모음의 대립은 3등운이 純4등운과 重紐4등·喩4와의 변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또한 이러한 가설을 세울 수도 있다. 즉 한국인이 중국한자가 차용될 당시 자국의 어음에 대한 변별의식인 모음조화규칙의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립으로 중고음 1·2등운의 양성모음과 3등운의 음성모음의 대립이 가장 우선이었을 지도 모른다. 둘째, 한어의 음운변화는 주로 개음 [i]를 가진 3등운에서 발생하였는데, 중설적인 개음[i]로는 그러한 현상이 설명될 수 없으며, 현대한어방언의 음운변화에도 대응시킬 수 없을 것이다.

4. 맺는말

이상에서 본 논문은 한국한자음과 《切韻》음계 ‘等’의 전환규율을 살펴보고, 이전 학자들의 3등운에 대한 재구와 한국한자음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나름대로 검토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한국한자음과 중고음은 확실한 전환규율을 가지고 있으며, 중세 국어 모음조화규칙의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립관계가 중고음의 네 개 ‘等’과 전환관계는, 開口音 1등운과 2등운은 한자음의 “k[a]”와 “·(ɿ)”로 국어의 양성모음이고, 3등운의 見系자는 한자음의 “k[ə]”와 “—(i)”로 국어의 음성모음이며, 3등운의 非見系자, 喻四, 重紐四等, 및 4등운은 중성모음([i]) 또는 중성모음([i])와 음성모음([ə])으로, 合口音에서는 1·2등과 3등이 각각 “ɿ([o])”와 “ɿ([u])”의 대립을 이루고 있다.

《切韻》의 3등운은 개음[i]를 가지고 있으며, 4등운은 개음이 없는 [e]로 추정할 수 있으며, 한국한자음에 반영된 3등운과 4등운의 변별은 한국한자음의 음성모음과 중성모음의 대립을 통하여 3등운이 純4등운과 喉牙音의 重紐4등·喻4와의 변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어접촉의 측면에서 보다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金有景(1982), <關於浙江方言中咸山兩攝三四等字的分別>, 《語言研究》 제1기.
- 南廣祐(1992), 《古今漢韓字典》, 인하대학교출판사.
- 朴慶松(1998), <韓國漢字音和漢語音韻史的研究>, 북경대학 박사논문.
- 朴慶松(1999), <韓語의元音和諧律與《切韻》音系四個“等”的轉化規律>, 《語言研究》 제1기.
- 朴炳采(1986), 《고대국어의 연구-음운편》, 고려대학교출판사.

- 邵榮芬(1982), 《切韻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吳文祺(1986), <上古音中的幾個問題-評王力《詩經韻讀》>, 《語言文字研究專輯》(下), 商務印書館.
- 王靜如(1948), <論古漢語之顎介音>, 《燕京學報》 제29기.
- 有坂秀世(1957), <カルグレン氏の拗音説を評す>, 《國語音韻史的研究》, 三省堂, 동경.
- 陸志韋(1947), <古音說略>, 《陸志韋語言學論文選集》(1963), 中華書局.
- 李如龍(1984), <自閩方言證四等韻無-i-說>, 《音韻學研究》 제1집, 中華書局.
- 李 榮(1956), 《切韻音系》, 科學出版社.
- 李潤東(1997), 《韓國漢字音의 이해》, 螢雪出版社.
- 張賢豹(1985), <《切韻》純四等韻的主要元音及相關問題>, 《語言研究》 제1기.
- 陳保亞(1996), 《語言接觸與語言聯盟》, 語文出版社.
- 칼그렌(1987), 《中上古韓語音韻綱要》, 聶鴻音中譯本, 齊魯書社.
- 칼그렌(1995), 《中國音韻學研究》, 商務印書館.
- 河野六郎(1979), 《朝鮮漢字音の研究》, 河野六郎著作集, 平凡社, 일본.
- 許 雄(1985), 《국어음운사》, 샘출판사.

‘等’의 概念

韓 鐘 鎬*

<目 次>

- | | |
|---------------------|--------------------|
| 1. 序論 | 2.3 現代의 ‘等’에 대한 해석 |
| 2. ‘等’에 대한 기존의 해석 | 3. 기존의 해석에 대한 검토 |
| 2.1 唐宋代의 ‘等’에 대한 해석 | 4. ‘等’의 개념 |
| 2.2 明清代의 ‘等’에 대한 해석 | 5. 結論 |

1. 序 論

中古 시기의 韻圖, 특히 현존하는 가장 이른 韻圖인 《韻鏡》에 사용된 글자는 어떻게 배열되었고, 그것들이 나눈 四等과 43圖는 어떻게 구성된 것인가? 韻圖의 성질과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초기 형태의 韻圖를 再構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해명되어야 할 문제가 ‘等’의 문제이다.

현존하는 宋元等韻圖인 《韻鏡》、《七音略》、《切韻指掌圖》、《四聲等子》、《切韻指南》 등을 살펴보면, 《韻鏡》、《七音略》、《切韻指掌圖》는 먼저 平、上、去、入 四聲을 나누고 다시 각 聲調에 네 개의 칸을 나누었고, 《四聲等子》、《切韻指南》은 먼저 네 개의 칸을 나누고 다시 각 칸에서 平、上、去、入 四聲을 나누었다. 음운 학자들

* 동아대 석당전통문화연구소 특별 연구원

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네 개의 칸을 四‘等’¹⁾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等’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학자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있다. 물론 현재의 일반적인 음운학 개설서들은 江永의 말을 현대 語音學의 관점으로 해석한 ‘等’의 개념을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대부분의 음운학자 역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해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학자도 한가지 표준으로 ‘等’을 해설한 사람이 없고, 학자들마다 ‘等’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등운학상의 매우 중요한 한가지 문제이자 韻圖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관건적인 요소인 ‘等’의 문제를 탐구하여 韻圖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아가 초기 형태의 韻圖를 再構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等’에 대한 기존의 해석

2.1 唐宋代의 ‘等’에 대한 해석

‘等’의 개념을 사용하여 韻部를 분석한 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현존하는 자료에서 본다면 ‘四等’의 명칭은 守溫《韻學殘卷》에 가장 처음 보인다. 《韻學殘卷》은 <四等重輕例>와 <定四等輕重兼辨聲韻不和無字可切門> 등에서 ‘四等’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四等輕重例>에 열거된 스물 여섯 조의 例字를 자세히 살펴보면,²⁾ ‘等’의 귀납이 《韻鏡》과 합치하고 ‘四 등이 전부 갖추어져서’ 韻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四等重輕例>의 뒤에서 “精清從心邪審穿禪照³⁾ 아홉 글자에는 단지

1) ‘四等’이라고 쓸 경우에는 1, 2, 3, 4等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아라비아 숫자로 1等, 2等이라고 쓸 경우에는 각각 해당 ‘等’만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하 이와 같다.

2) 守溫, 《韻學殘卷》(《唐五代韻書輯存》下), 臺北, 學生書局, 1994, 803~804쪽.

兩等輕重만 있다(精清從心邪審穿禪照九字中只有兩等輕重)⁴⁾고 한 것은 聲母의 발음 부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 聲母와 결합되는 韻母까지 고려하여 말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⁵⁾ 현재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韻學殘卷》이 제시한 例字가 《韻鏡》과 합치한다는 사실이다. 《韻學殘卷》의 내용이 이미 있었던 韻圖를 근거 삼아 초록한 韻圖를 말할 수 있을 뿐이다.⁶⁾

張麟之는 《韻鏡》識語에서 “그 체제는 韻書의 一東에서부터 각각 四聲을 모아 배열하여 위치를 정하였는데, 실제로는 《廣韻》·《玉篇》의 글자를 가지고, 五音 清濁에 따라 한 것이고, 그 실마리는 橫呼에 있다.”⁷⁾고 말하였고, 또 <橫呼韻>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한 글자의 字母(紐)와 四聲을 알지만, 그 안에 열 여섯 가지의 소리가 있는지는 모른다. 대략 열 여섯 가지의 소리 이것은 平上去入을 각기 가로로 벌여 놓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다시 예를 들자면 東字韻의 風豐馮膺, 이것들은 하나같이 平聲으로서, 四聲이 있게 되는데, 넷이지만 그것을 네 배로 하면, 결국 열 여섯이 된다. 그래서 古人의 聲韻과 관련된 詩에서는 ‘한 글자의 字母는 세로와 가로로 열 여섯 가지의 소리를 나누어 벌여 놓았다’고 하였다.(人皆知一字紐四聲, 而不知有十六聲存焉。蓋十六聲是將平上去入各橫轉故也。且如東字韻風豐馮膺, 是一平聲, 便有四聲, 四而四之, 遂成十六。故古人切韻詩曰: ‘一字紐縱橫分數十六聲’.)⁸⁾

張麟之가 제시한 ‘位’는 바로 같은 ‘等(類)’의 글자가 배열된 가로 行을 가리켜서 후대의 ‘等’과 같다고 볼 수 있지만, 《韻鏡》의 圖와 張麟之

- 3) 《韻學殘卷》에는 ‘然’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땅히 ‘照’가 되어야 한다.
- 4) 守溫, 《韻學殘卷》(《唐五代韻書集存》下), 799쪽, 804쪽.
- 5) 周祖謨, 《唐五代韻書集存》, 804쪽.
- 6) 周祖謨, <讀《守溫韻學殘卷》後記>, 《問學集》(上), 北京, 中華書局, 1981, 505쪽.
- 7) “其製, 以韻書自一東以下各集四聲, 列爲定位, 實以《廣韻》、《玉篇》之字, 配以五音清濁之屬, 其端又在於橫呼。”(張麟之, 《韻鏡》, 《等韻五種》本, 臺北, 藝文印書館, 1975, 1쪽)
- 8) 張麟之, 《韻鏡·橫呼韻》, 12쪽.

가 쓴 여러 ‘條例’에는 모두 ‘等’이라는 말이 없다. 張麟之는 《韻鏡》에 배열된 韻字의 ‘定位’만을 말한 것이고, 들고 있는 예도 聲母의 차이를 강조한 것이지 分‘等’의 표준을 말한 것은 아니다.

宋代의 저명한 과학자인 沈括 역시 ‘等’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그는 《夢溪筆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매 聲은 다시 四等이 있는데, 淸、次淸、濁、平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顛、天、田、年、邦、腭、龐、彪의 종류가 그것이다. ……글자에는 重·中重·輕·中輕이 있다. 本等の 聲이 전부 다른 等으로 바뀌어 들어간 것을, 무리가 어그러졌다(類隔)고 한다. 비록 等を 어그러뜨려 놓았을 지라도, 모름지기 그 무리를 사용해야 하는데, 脣音과 脣音이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齒音과 齒音이 하나의 무리를 이루는 것을 이른다. 예를 들면 武延(切)이 綿이 되고, 符兵(切)이 平이 되는 것이 그것이다. 韻은 本等に 귀속되는데, 冬과 東을 예로 들면, 字母가 모두 ‘端’字에 속하고, 冬은 곧 ‘端’字 중의 第1等聲이므로, 都宗切의 宗字는 第1等韻이다.(每聲復有四等, 謂淸、次淸、濁、平也, 如顛、天、田、年、邦、腭、龐、彪之類是也。……字有重、中重、輕、中輕, 本等聲盡泛入別等, 謂之類隔, 雖隔等, 須以其類, 謂脣與脣類· 齒與齒類, 如武延爲綿, 符兵爲平是也。韻歸本等, 如冬與東, 字母皆屬端字, 冬乃端字第一等聲, 故都宗切, 宗字第一等韻也。)⁹⁾

沈括은 먼저 淸、次淸、濁、平 네 종류의 聲母의 발음 방법과 四等を 대응시키고 있지만, ‘글자’의 本等이 다른 ‘等’에 들어가 무리가 어그러지는(類隔) 현상이 출현하였다고 한 것에서 重、中重、輕、中輕이 音節, 즉 ‘글자’의 ‘等’을 구분하는 명칭이고, 聲母의 발음 부위를 근거로 하였지만 ‘韻母’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沈括이 말한 ‘等’은 한 음절의 시작 부분인 聲母를 淸濁輕重의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이 네 가지 聲母와 결합하는 韻母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며, 후대의 等韻學에서 말하는 ‘四等’과는 다른 것이다.¹⁰⁾

9) 沈括, 《夢溪筆談》(《國學基本叢書》本), 臺北, 商務印書館, 1968, 99쪽.

10) 南宋의 祝泌와 明代의 邵光祖 역시 淸濁輕重의 명칭을 사용하여 四等を 설명하였다. 자세한 것은 拙稿 <韻圖의 起源과 唐代 韻圖의 再構>(韓國外大博

南宋 이전에 만들어진 《四聲等子》¹¹⁾가 처음으로 ‘等’字를 책이름에 이용하였고, 이후 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等’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운용하여 韻을 開·合 각 四等으로 나눔에 따라 等韻學이 크게 흥성하였다. 《四聲等子》는 ‘通攝內一’圖의 앞에 있는 도표에서 字母의 ‘等位’를 밝히고 圖 속의 어떤 것이 어느 等に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려주고, 序文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切韻이 지어진 것은, 陸氏에게서 비롯되었다. 等韻門法(關鍵)의 설립은, 智公¹²⁾에게서 시작되었다. ……그 심오함을 드러내는 이론은, 36字母를 가지고 384聲¹³⁾을 묶어, 따로 따로 20圖를 만들었으며, 각 圖는 네 가지 종류로 갈랐다.(切韻之作, 始乎陸氏, 關鍵之設, 肇自智公. ……其指玄之論, 以三十六字母約三百八十四聲, 別爲二十圖, 畫以四類。)¹⁴⁾

비록 《四聲等子》가 각 等に 어떤 글자가 소속된 것인지를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네 가지 종류로 갈랐다’고 한 것이 네 가지 ‘等’을 말한 것인지, 네 가지 ‘聲調’를 말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宋 晁公武 《郡齋讀書記》(1152)에 게재된 僧 宗彦의 《四聲等第圖》

士論文, 2000) 주13, 14를 참고할 수 있다.

- 11) 羅常培는 《四聲等子》가 南宋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漢語音韻學導論》, 香港, 太平書局, 1971, 59쪽)
- 12) 朱星은 智公이 《龍龕手鑑》을 위해 序를 지은 智光일 것이라고 추측하였지만(《宋元等韻學述評》, 《朱星古漢語論文選集》, 臺北, 洪葉文化事業有限公司, 1996, 240쪽), 智公이 어떤 시대의 승려인지 아직 일치된 정론이 없다.
- 13) 《切韻指掌圖·董南一序》도 384聲을 말하고 있는데, 내용은 《四聲等子》와 대동소이하다. 현재까지 384聲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해석이 없는데, 董同龢의 연구에 따르면 《四聲等子》는 字母를 23行으로 나열했고, 韻母를 四等·四聲의 16行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한(23×16) 368에다 각 圖別로 가장 마지막 줄에 韻目字를 배열한 16格을 더하면 384聲이 되지만, 《切韻指掌圖》는 字母를 36行으로 나열하였고, 韻母를 四等·四聲의 16格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한(36×16) 576에다 다시 16을 더하면 592聲이 된다고 하였다(《切韻指掌圖》中的幾個問題》, 《董同龢先生語言學論文選集》, 臺北, 食貨出版社, 1974, 86쪽).
- 14) 無名氏, 《四聲等子》(《等韻五種》本), 臺北, 藝文印書館, 1975, 1쪽.

는 처음으로 ‘等第’라는 명칭을 책이름에 사용하였지만, 애석하게도 오래 전에 실전되어 ‘等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고,¹⁵⁾ 金人 韓道昭의 《五音集韻》은 劉鑑의 《經史正音切韻指南》을 그대로 답습하였고 등을 나누는 방법도 동일하지만, 역시 ‘等’이라는 명칭을 해석하지 않았다.

2.2 明清代의 ‘等’에 대한 해석

唐宋에서 明清까지 어음이 크게 변하였고, 明清代의 실제 어음 속에는 四等の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等’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한 明清 시대의 몇몇 사람들은 唐宋 시대 韻圖가 開合 각 四等を 나누는 것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中古 四等を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였는데, 그 결과 출현한 것이 兩等說이다.

兩等說의 근원은 明 神宗 萬曆 연간(1573~1620)의 袁子讓이다. 袁子讓은 실제 어음을 근거로 1等과 2等이 비슷하고 3等과 4等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上下等’의 說을 제기하였지만, 四等を 二等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제기하지는 않았다.

賈秉敬은 《韻表·辯二等》(1605)에서 ‘一表二等說’을 제기하였는데, 그는 한가지 음에는 四等이 있을 수 없고, 단지 二等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¹⁶⁾ 그는 후대의 ‘呼’의 개념으로 ‘等’을 이해하여 開口呼 二等과 合口呼 二等을 합쳐서 ‘四呼’를 만들었기 때문에, 二等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呼’의 개념으로 ‘等’의 개념을 바꾸어 버린 것이다.

清初에 이르러 潘耒(1646~1708)가 입술의 모양을 표준으로 삼아 開齊合撮 四呼를 정하고, 또 二等兩呼說을 근거로 韻圖 배열 방법을 설명하였다. 潘耒는 開口呼의 四等이 開齊 2呼이고 合口呼의 四等이 合撮 2

15) 陳澧는 《切韻考·外篇》卷3(臺北, 學生書局, 1994, 506쪽)에서 《四聲等第圖》와 《四聲等子》가 하나의 책이라고 하여 하나의 설을 갖추었지만, 아직 정설이 없는 상태이다.

16) 趙蔭棠, 《等韻源流》,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5, 160쪽, 재인용.

呼이며, 매 圖에 兩洪兩細가 있는 것은 字母에서 나누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類音》卷2 <等韻辨·圖說>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36母는 하나의 칸(格)으로 나란히 나열하고, 開口、齊齒、合口、撮口을 가지고 四等을 나누어 배열하면, 聲母를 읽어내고 韻母를 읽어내는 것이, 하나같이 분명한데, 어찌 門法이라는 것이 세워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等韻을 지은 사람이, 각 韻 가운데에 혹은 開齊만 있거나, 혹은 合撮만 있거나, 혹은 開合만 있는 것을 보고, 결국 兩等이면 그것을 배열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종으로 36字母를 나열하여 36行을 만들면 지나치게 뻥뻥하고, 횡으로 2等を 나열하면 지나치게 드문드문해진다. 그래서 知徹澄娘은 따로 뽑아 내어 端透定泥 아래에 나열하고……줄여서 23行을 만들고, 횡으로 四等を 나열하였다.(三十六母並列一格, 而以開口、齊齒、合口、撮口分置四等, 則出切行韻, 劃一分明, 有何門法之可立哉? 乃作等韻者, 見各韻中或止有開齊, 或止有合撮, 或止有開口, 遂謂兩等足以置之. 而縱列三十六母爲三十六行則太密, 橫列二等則太疎, 乃取‘知、徹、澄、娘’列於‘端、透、定、泥’之下……蹙爲二十三行, 橫列四等.)¹⁷⁾

潘耒는 袁子讓、叶秉敬 보다 한 걸음 나아가 分等の 원칙 문제를 언급하였지만, 그는 왜 36字母가 ‘上層’、‘下層’으로 나뉘는지는 해석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이론에 따라 韻圖를 검사하여 韻圖가 거의 매 장마다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等韻의 ‘立法’이 아직 완전하지 않고, 스스로 그 예를 어지럽혔다고 비판하였다.

袁子讓、葉秉敬과 潘耒의 兩等四呼說은 明清等韻學派의 관점이다. 그들은 明清의 北音系韻書에서 출발하여 宋元等韻圖上의 四等이 믿을 수 없는 가공의 존재이고, 실제로는 洪細兩等만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와 같은 관점은 실제로 韻圖에 존재하는 四等を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古韻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等’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노력하였고, 또 ‘等’에 대해 적지 않은 연구를 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江永과

17) 王力, <<類音>>研究>(《王力文集》第18卷),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91, 360쪽, 재인용.

陳澧이다.

江永은 ‘等’의 개념을 ‘呼’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兩等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明清等韻學派의 견해에 반대하였다. 그는 宋元等韻圖의 四 등이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音學辨微》에서 특별히 <辨等例>를 기술하여 宋元等韻圖의 四 등이 洪細에 따라 나누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音韻에는 四 등이 있는데, 1等は 가장 크고, 2等は 그 다음으로 크며, 3·4等は 모두 작지만, 4等이 더욱 작는데, 학자들이 쉽게 변별하지 못한다. 등을 변별하는 방법은, 모름지기 이들 韻母와 결합하는 字母로 그것을 변별해야 한다.(音韻有四等, 一等洪大, 二等次大, 三四皆細, 而四尤細, 學者未易辨也, 辨等之法, 須於字母辨之.)¹⁸⁾

그는 또 “후인은 字母와 等韻을 말하면서도 이것에 몽매하였고, 전인은 等韻圖를 만들었으면서도 이 이치를 밝혀 말하지 않았다”¹⁹⁾고 하여 <等位圖>를 만들어 36字母의 等位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等位圖歌>를 지어 ‘字母’의 ‘等位’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²⁰⁾ 그는 韻圖가 ‘等’을 나누고 글자를 나열한 상황에 대해 세밀한 분석을 하였고, 四 등의 구별이 洪細에 있다고 말하였지만, 그가 洪細의 구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아 당시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

陳澧는 江永처럼 韻의 洪細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切韻考·外篇》卷3에서 ‘等’이 ‘韻’에서 구분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옛 사람들은 韻이 서로 비슷한 것에서 여러 韻을 나누었는데, 예를 들면 東冬鍾이 이것이다. 또 한 韻의 反切下字에서 여러 종류를 나누었는데, 예를 들면 東韻을 두 종류로 나눈 것이 이것이다. 이것은 바로 후대의 分等的 의미이지만, 옛 사람들은 다만 韻으로써 그것을 나누고, 다만 反切下字으로써 그것을 나누었을 뿐, 上字로써 그것을 나누지는 않았다

18) 江永, 《音學辨微》(《音韻學叢書》本), 臺北, 廣文書局, 1977, 38쪽.

19) “後人言字母與等韻者槽於此, 前人爲等韻圖又未明言此理。”(江永, 《音學辨微》, 39쪽)

20) 江永, 《音學辨微》, 40-41쪽.

(古人於韻之相近者分爲數韻，如東冬鍾是也。又於一韻中切語下字分爲數類，如東韻分二類是也。此卽後來分等之意，然古人但以韻分之，但以切語下字分之，而不以上字分之。)21)

陳澧는 한 韻의 反切下字를 몇 종류로 계통 분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等을 말하려면, 韻을 위주로 해야지, 聲을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22)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또 동운학자가 反切下字에 따라 ‘等’을 나누지 않고 字母에 따라 ‘等’을 나누었기 때문에 韻圖의 分等과 韻書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초래되었다고 하였다.

等韻家は 字母로써 等을 나누었다. 그러나 古書의 反切 두 글자가 완전히 같은 等이 아니면, 下字를 근거로 等을 나누지 않고, 上字를 근거로 等을 나누어서, 결국 동일한 韻 동일한 글자로 하여금 等數에 뒤섞여 가지런하지 못함이 있게 하였다.(等韻家則以字母分等。然古書切語二字不盡同等，不憑下字分等而憑上字分等，遂使同一韻同一類之字有等數參錯者矣。)23)

陳澧의 말은 ‘等’이 韻書의 反切下字의 분류에서 나온 것이지만, 동운학자가 反切下字의 분류에 따라 ‘等’을 나누지 않고 字母에 따라 ‘等’을 나눔으로써 《切韻》의 원래 의도와 부합되지 않고 等數가 뒤섞이는 현상, 다시 말해 韻圖의 分等과 韻書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 결코 ‘等’이 ‘字母’를 근거로 나눈 것임을 설명한 것이 아니다.

章炳麟은 明清 양대에 발전하여 한 지방의 語音體系(單一體系)를 근거로 ‘等’을 이해하고, 開合 各 四等の 舊等韻說을 부정한 明清等韻學派의 兩等四呼說의 영향을 받아 宋元等韻圖上의 開口 各 四等을 부정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1) 陳澧, 《切韻考·外篇》, 492쪽.

22) “等之云者，當主乎韻，不當主乎聲。”(羅常培, 《漢語音韻學導論》, 62쪽, 재인용)

23) 陳澧, 《切韻考·外篇》, 493쪽.

字母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아직 등을 나누지 않았다. 같은(字)母의 소리는, 크게 나누면 開口開口에 지나지 않는다. 가지런하게 하여 입을 오므리되 줄임을 보이는 것을 나누어 撮口로 삼고; 가지런하게 하여 입을 벌리되 줄임을 보이는 것을 나누어 齊齒로 삼는다. 開口開口은 모두 外聲이고, 撮口齊齒은 모두 內聲이다. 이에 따라서 제한하면, 開口가 1 등이 되고, 撮口가 그 細音이다; 開口가 1 등이 되고, 齊齒가 그 細音이다. 본래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는 또 네 가지가 되는데, 이것은 간단하고 쉬운 것이라고 어린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다. 宋 아래로, 혹자는 撮口開口 모두 四等이고, 同母 同韻尾인 것은 여덟 개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단지 이치에만 맞는 말이고, 사실은 사람들은 목이 메이고 끼어서 말을 할 수가 없다. '見'母 舌尖으로 끝나는音を 가지고 시험해 보면, '昆、君、根、斤' 이외에, 또 다른 소리가 있어서 그 사이에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 원래 그것이 자잘하게 쪼개어진 것은, 일찍이 《廣韻》、《集韻》 등의 여러 책이, 分部가 번잡하고 많은 것만을 보고, 그 까닭은 알지 못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달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廣韻》에 포함된 것이, 古今方國의音を 아우른 것이고, 同時同地에서 韻 206種을 얻은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였다.(始作字母, 未有分等. 同母之聲, 大別之不過開口撮口. 分齊視撮口而減者爲撮口; 分齊視開口而減者爲齊齒. 開口撮口皆外聲, 撮口齊齒皆內聲也. 依以節限, 則撮口爲一等, 撮口其細也; 開口爲一等, 齊齒其細也. 本則有二, 二又爲四, 此簡易可以告童孺者. 季宋以降, 或謂撮口開口皆四等, 而同母同收者可分爲八. 是乃空有名言, 其實使人哽介不能作語. 驗以'見'母收舌之音, '昆、君、根、斤'以外, 復有他聲可容其間耶? 原其爲是破碎者, 嘗睹《廣韻》、《集韻》諸書, 分部繁複, 不識其故, 欲以是通之耳! 不悟《廣韻》所包, 兼有古今方國之音, 非並時同地得有聲勢二百六種也。)²⁴⁾

章炳麟은 '等'이 介音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綜合體系의 介音과 單一體系의 介音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單一體系의 介音을 근거로 綜合體系의 介音을 보았기 때문에, 音理에 따라 開齊合撮 四呼가 있어야 하고, 開口四等、撮口四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²⁵⁾ 章炳麟이 明清等韻學派의 兩等四呼說의

24) 章炳麟, 《國故論衡·上卷·音理論》, 浙江圖書館校刊本, 出版年度未詳, 17~18쪽.

25) 王力은 章炳麟이 '開齊合撮'과 等韻의 四等を 혼동하여 함께 말한 것은 옳

영향을 받아 開合 각 四等を 부정하고 ‘等’을 四呼로 잘못 이해하였지만, ‘等’이 介音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等’을 해석하기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章炳麟의 해석보다 비교적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간 사람이 그의 제자인 黃侃、馬宗霍 등이다. 黃侃과 馬宗霍은 等韻이 開合 각 四等を 나눈 것에 반대하였고, 開口에 二等만 있고, 合口에 二等만 있으며, 총 네 개의 等に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고,²⁶⁾ 또 1、2、3、4等の 차이에 관해 1、2等は 모두 洪音이고, 3、4等は 모두 細音이며, 1、4等は 古本韻의 洪、細이고, 2、3等は 今變韻의 洪、細라고 하였다.²⁷⁾ 黃侃、馬宗霍의 논의에 따르면, ‘等’을 나눈 것은 음을 분석한 것일 뿐만 아니라, 古音의 沿革을 설명한 것이고, 이것은 《切韻》(《廣韻》)이 동일 韻인 것을 여러 韻으로 나눈 의도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等’과 介音이 관련이 있음을 명백하게 간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舊韻書가 綜合的이라는 이러한 관전을 틀어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南北이라는 지역적 차이를 망각하고, 단지 古音의 시대적 차이만을 생각하여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2.3 現代의 ‘等’에 대한 해석

현대의 음운학자는 현대 과학의 音理로 古代 音韻의 변천을 해석하여 새로운 발견이 많았지만, ‘等’의 해석에 있어서는 역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 일치하지 않는다.

스웨덴의 한학자 칼그렌이 처음으로 江永이 제기한 四等洪細의 구분을 현대 어음학의 설명을 빌어 介音과 主要母音의 洪細의 차이로 해석한 이래, 중국의 많은 언어학자들이 칼그렌의 주장에 찬성하였고, 또 칼

지 않다고 하였다.(《漢語音韻學》, 北京, 中華書局, 1935, 89쪽)

26) 黃侃, 《黃侃論學雜著·與人論治小學書》(《四部備要》本),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4, 153쪽.

27) 黃侃, 《黃侃論學雜著·聲韻通例》, 141쪽. 馬宗霍, 《音韻學通論》, 臺北, 泰順書局, 1972, 356~357쪽.

그런의 주장에 대해 수정과 보충을 하여 더욱 갖추어진 四等洪細說을 내놓게 되었다. 예를 들면 唐作藩은 칼그렌의 이론을 근거로 四等の 구별을 더욱 분명하게 말하였다.

現代語音學으로 해석하면 소위 '洪大'란 母音 발음 시의 舌位가 비교적 뒤이고 비교적 낮은 것을 말한다. 즉 [a]、[ə]、[o]、[u] 등의 母音이 여기에 속한다. 소위 '細'란 母音 발음 시의 舌位가 비교적 앞이고 비교적 높은 것을 말한다. 즉 [i]、[e]、[ɛ]、[a] 등의 母音이 여기에 속한다. 왜 또 '洪大'、'次大'、'細'와 '尤細'의 구별이 있었을까? 이것은 왜냐하면 母音의 高、低、前、後 역시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즉 '高'는 또 高와 半高의 구분이 있고, '低'는 또 低와 半低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大는 洪大와 次大가 있고, 細는 細와 尤細가 있는 것이다.……等的 개념이 주로 韻腹(즉 主要母音)을 분석한 것인 동시에 介音[i]의 유무와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은, [i]介音은 前高母音이기 때문에 介音[i]가 없는 音節은 발음이 비교적 洪(1等、2等)하고, [i]介音이 있는 것은 비교적 細(3等、4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等の 主要母音 [ɛ][e]는 이미 1、2等の 主要母音 [a][a]보다 비교적 앞이고 비교적 높는데, 다시 介音[i]를 추가하면 더욱 높아지게 되고, 細音은 더욱 분명해지게 된다.(用現代語音學來解釋, 所謂'洪大'是指的發音時元音的舌位比較後比較低, 如[a]、[ə]、[o]、[u]等元音屬之; 所謂'細'就是指的發音時元音的舌位比較前比較高, 如[i]、[e]、[ɛ]、[a]等屬之。爲什麼又'洪大'、'次大'、'細'和'尤細'的區別呢? 這是因爲元音的高、低、前、後也是相對的。如'高'還有高和半高之分, '低'還有低和半低之別, 所以大有洪大、次大, 細有細和尤細的區別。……等的概念主要是分析韻腹(即主要元音)的同時也和介音[-i]的有無相關, 因爲[i]介音是個前高元音, 沒有介音[i]的音節發音比較洪(一、二等), 有[i]介音的就比較細(三、四等)。三四等的主要元音([ɛ][e])已經比一、二等的主要元音([a][a])較前較高了, 再加上介音[-i]就更高了, 細音就更清楚了。)²⁸⁾

이와 같은 해석이 바로 칼그렌의 견해를 수정 보충하여 이루어진 四等洪細說의 내용이고, 현재 대다수의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이며, 대체

28) 唐作藩, 《音韻學教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1, 69~70쪽. 그는 또 四等の 구별은 母音의 洪細 차별이지만, 東韻과 같은 1·3等 合韻은 介音의 차이라고 설명하였다(<關於'等'的概念>, 《音韻學研究》1994年 第3輯, 158쪽).

로 江永이 “一等洪大, 二等次大, 三四皆細, 而四尤細”라고 한 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四等洪細說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해석을 하였다. 王力은 만년에 칼그렌의 학설을 보충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왜 四等を 나누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韻頭가 다르기 때문이다……둘째, 聲母가 다르기 때문이다(爲什麼分爲四等呢? 這裏有兩個原因: 第一, 由于韻頭的不同……第二, 由于聲母的不同。)²⁹⁾

또 龍庄偉는 早期韻圖는 聲에서 ‘等’을 나누었다고 주장하였다.

‘等’은 早期韻圖의 작자가 《切韻》系韻書 字音의 聲紐[反切上字]에 대한 분석을 하여 얻어낸 부류이다.(‘等’是早期韻圖作者對《切韻》一系韻書字音的聲紐[反切上字]進行分析所得的類別。)³⁰⁾

이와 같이 聲、韻、介音、母音의 洪細 중의 어느 하나를 근거로 ‘等’을 나누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머리 속에 모두 하나의 대전제, 즉 옛날에 四等の 분류가 있었다는 것을 승인한다.

그러나 최근에 어떤 학자는 이와 같은 견해와 다른 관점을 제기하였다. 史存直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 자신이 이 문제에서 여러 해를 모색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침내 韻圖가 象嵌細工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가 韻圖의 ‘等’에 대해 기계적인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대략 오직 1等만이 洪音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 2、3、4等이 洪도 되고 細도 되는 것에 관해서는, 오히려 聲母에 의거하여 유동적으로 보아야 한다.(我自己在這個問題上摸索了多年, 才終於擦覺出來韻圖帶有鑲嵌細工的性質。我們對韻圖中的‘等’是不能作機械解釋的, 大約只有一等爲洪音不錯, 至于二三四等爲洪爲細, 却要依聲母活看了。)³¹⁾

29) 王力, 《漢語音韻》, 北京, 中華書局, 1980, 94쪽.

30) 龍庄偉, <釋等>, 《河北師院學報》1989年 第1期, 78쪽.

31) 史存直, <說反切>, 《漢語音韻學論文集》,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7,

비록 史存直은 韻圖의 ‘鑲嵌細工’에 대해 세밀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古人的 四等 분류가 기존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표준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다시 말해 그는 古人的 四等 분류가 의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3. 기존의 해석에 대한 검토

상술한 역대의 ‘等’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면, 四等を 구별한 근거가 무엇인지 최초로 韻圖를 만든 사람이 ‘等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等’의 개념에 대한 인수 인계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後人들이 자신의 연구 관점에 따라 ‘等’의 개념에 대해 해석을 하였고, 똑같은 문제라도 사람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설도 하나가 될 수 없었고, 결국 ‘等’에 대한 해석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等’에 대한 이해는 이와 같이 다양하고 각자 근거로 삼은 것이 있어서 하나로 절충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等’에 관한 역대의 해석은 ‘等’의 함의가 명확하지 않은 唐宋代의 해석과 四等を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史存直의 견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지만 ‘等’의 구분이 聲母(字母)、韻、介音 중의 어느 하나(혹은 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韻圖의 分等이 과연 여러 학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聲、韻(主要母音)、介音 중의 어느 하나를 근거로 한 것인지 아니면 史存直의 견해처럼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인지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古人이 ‘等’을 나눈 표준이 韻의 主要母音의 차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音理上에서 통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洪細四等

이 主要母音을 말하는 것이라면, 語音 체계상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모순을 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主要母音의 開口度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의 韻(部)에 속하는 글자들이 '四等'에 나뉘어 속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데, 韻圖를 살펴보면 2, 3, 4等字가 동일한 하나의 韻(部)에 속하는 현상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206韻 속에는 아주 많은 韻(部)이 동시에 2, 3, 4等字를 포함하는 것이 있다. 동일한 韻類이면서 몇 개의 等列로 나눈 것을 예로 들면 '東鍾支脂之魚虞咍眞諄仙戈麻陽庚清尤侵鹽蒸³²⁾祭'韻 등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들의 分等 상황을 조사해 보면, 그것들의 分等은 反切下字와 관련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래의 [도표 1]을 보라.

[도표 1] 동일한 韻類이면서 等이 다른 反切下字³³⁾

聲韻	幫組	端組	見組	精組	影組	來組
東	1/3구별있음	1/3구별있음	1/3구별있음	1/234구별있음 234구별없음	1/34구별있음 34구별없음	1/3구별있음
鍾				34구별없음	34구별없음	
支	34구별없음		34구별없음	234구별없음	34구별없음	
脂	34구별없음		34구별없음	234구별없음	34구별없음	
之			34구별없음	234구별없음	34구별없음	
魚				234구별없음		
虞				234구별없음	34구별없음	
咍				13구별없음		
眞	34구별없음			34구별없음	34구별없음	
諄			34구별없음	34구별없음	34구별없음	
仙				234구별없음	34구별없음	
戈			1/3구별있음		1/3구별있음	
麻		2/4구별있음		2/34구별있음	2/4구별있음	

32) 平聲만을 들어 上去入에도 해당되게 한다.

33) 《韻鏡》과 《廣韻》을 근거로 비교 작성하였다. 《廣韻》反切下字의 종류는 통계의 일관성을 위해 汪壽明·潘文國《漢語音韻學引論》(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2) [附錄三](88~102쪽)에 실려 있는 《王韻》·《廣韻》反切下字分類比較表를 참조하였다.

陽				234구별없음	34구별없음
庚	2/3구별있음		2/34구별있음		2/3구별있음
清				34구별없음	
尤	34구별없음		34구별없음	234구별없음	34구별없음
侵				234구별없음	34구별없음
鹽				34구별없음	34구별없음
蒸				34구별없음	
祭			3/4구별있음		3/4구별있음

만약 이들 글자가 主要母音의 開口度에 대소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들 글자가 어떻게 동일한 하나의 韻(部)에 속하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게다가 反切에 사용된 글자에서 본다면, 이들 동일한 하나의 韻(部)에 속하는 2, 3, 4等字는 종종 동일한 反切下字를 사용하여 字音を 병합하였는데, 이것은 더욱 설명하기 어렵다. 去聲의 ‘志’、上聲의 ‘養’ 2 韻字의 反切을 예로 든다:³⁴⁾

2等	藏: 側吏 廁: 初吏 事: 鉏吏 駛: 疎吏	礫: 初兩 爽: 疎兩
3等	志: 職吏 試: 式吏 侍: 時吏	掌: 諸兩 敵: 昌兩 賞: 書兩
4等	子: 將吏 戔: 側吏 笱: 相吏 寺: 祥吏	獎: 卽兩 搶: 七兩 想: 息兩 象: 徐兩

일반적인 反切의 원리에 따르면 反切下字가 동일하면 그것의 主要母音은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상술한 反切下字가 동일한 몇 글자의 ‘等’이 主要母音의 開口度에 ‘次大、細、尤細’의 구별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만약 主要母音의 開口度에 ‘次大、細、尤細’의 구별이 있다면, 그들의 反切下字가 뒤섞일 수 있을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동일한 反切下字를 가진 反切을 그 韻腹(主要母音)이 다른 것으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洪細四等を 韻腹의 차이로 해석한 것은 보기에는 과학

34) 이 예는 史存直의 <關於‘等’和‘門法’>(《漢語音韻學文集》, 292쪽)에서 인용하였다.

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과학적이라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等은 韻의 主要母音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介音을 근거로 구분한 것인가? 介音 方面에서 '等'의 해석을 찾는 것은 主要元音의 차이에서 찾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聲類를 기준으로 본다면, 牙音、喉音、脣音³⁵⁾과 半舌音은 기본적으로 모두 四等이 나누어지지 않는다. 舌音은 1、4等이 나누어지지 않고, 2、3等이 나누어지지 않는다. 齒音은 1、4等이 나누어지지 않는다. 韻類를 기준으로 본다면, 동일 韻 속에서 2、3、4等字를 포괄하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介音 方面에서 '等'의 개념을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介音 하나만을 가지고 '等'을 해석하면 音理上에서 통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介音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介音은 단지 開、齊、合、撮 四呼 혹은 開口 1、2等과 合口 3、4等を 나눌 수는 있지만, 開合 각 四等を 나눌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韻圖를 보면 同韻의 글자가 다른 몇 개의 '等'에 나열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同韻의 글자가 다른 몇 개의 '等'에 배열된 것은 대체로 反切上字에 계통성이 있고, 특히 精、照組의 2、3、4等字는 反切下字가 동일한 종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韻鏡》內轉第11開 齒音의 배열 상황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反切은 《廣韻》을 근거로 하였다).

	魚 韻					語 韻					
2等	菹 側魚	初 楚居	鉏 士魚	踈 所菹	○	阻 側呂	楚 創舉	齟 牀呂	所 踈舉	○	莊組(照二)
3等	諸 章魚	○	○	書 傷魚	蝮 署魚	鬻 章與	杵 昌與	紆 神與	暑 舒與	壑 承與	章組(照三)
4等	苴 子魚	疽 七余	○	胥 相居	徐 似魚	苴 子與	目皮 七與	咀 慈呂	謂 私呂	叙 徐呂	精組

35) 脣音의 分化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설이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中古 이후에야 비로소 輕脣과 重脣의 두 갈래로 分化되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王力, 《漢語史稿》, 《漢語史稿》第9卷,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8, 147쪽)

위의 도표에서 2, 3, 4等に 배열된 글자의 反切下字는 계통 분석 작업을 해보면 같은 종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古人의 分等이 단순히 介音 [i]를 사용하여 '1, 2等'과 '3, 4等'을 나눈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韻圖의 分等 표준은 원래 획일적인 것이 아니고, 介音으로 '等'을 나누었다는 견해는 韻圖의 分等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等'은 介音이나 主要母音 어느 하나만을 근거로 해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 清代의 江永 역시 이와 같은 상황에 주의하였기 때문에, "等을 구별하는 방법은 字母에서 변별해야 한다"고 하였다. 상술한 예만을 가지고 본다면 江永의 말은 옳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韻圖에서는 동일한 韻類의 글자를 '等'을 나눈 이외에, 또 많은 서로 다른 韻類를 그 韻母가 비교적 접근하는 것에 따라 하나의 조로 편성하고 여러 '等'을 나누었으며, 결코 聲母에만 의거하여 '等'을 나누는 표준으로 삼지는 않았다. 이것은 현재 대부분의 음운학자들이 韻이 '等'을 나누었다는 것을 증명할 때 이용하는 <四等重輕例>의 '高交嬌澆'、'官關藥力涓' 등을 살펴보기만 해도 '等'이 '聲'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래의 도표는 <四等重輕例> 속의 '高交嬌澆'、'官關藥力涓'자의 《韻鏡》에서의 '等位'이고, 《廣韻》의 反切을 덧붙인 것이다.

	入聲		去聲		上聲		平聲	
1等	墨 莫北	黑 呼北	吁 古案	岸 五吁	杲 古老	掩 烏敢	觀 古丸	高 古勞
2等	麥 莫獲	赫 呼格	諫 古宴	雁 五晏	姁 古巧	斃 於檻	關 古還	交 古肴
3等	省 亡逼	赤邑 許極	建 居萬	彥 魚變	嬌 居喬	掩 於儼	藥力 居員	嬌 舉喬
4等	覓 莫狄	赤欠 許激	見 古電	硯 吾甸	皎 古了	斃 於琰	涓 古玄	澆 古堯

표 속의 1, 2, 4等字는 대체로 聲母가 동일한 것이 많고, 3等字 聲母는 1等字와 다르다. 이와 같이 聲母가 같으면서 다른 等に 배열되었다

면 分等の 표준은 당연히 聲母가 아니라 韻母라고 해야 되지 않는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等’은 介音、主要母音、聲母 중 어느 한가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介音を 위주로 한 것도 아니고, 역시 聲母와 韻母만을 위주로 한 것도 아니며 일종의 介音、主要母音、聲母가 뒤섞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羅常培는 ‘等’이 ‘聲’과 ‘介音’、‘主要母音’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四等の 洪細는 무릇 母音を 발음할 때, 口腔 共鳴의 大小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단지 冬과 鍾、登과 蒸, 및 東韻이 公弓 두 종류를 나누고, 戈韻이 科綱 두 종류를 나누며, 麻韻이 家遮 두 종류를 나누고, 庚韻이 庚京 두 종류를 나눈 것은, [i]介音의 유무로써 나눈 것이다. 또 反切下字가 똑같이 3等韻에 있는 것 가운데, 正齒音의 2、3等은 聲母의 剛柔로써 나눈 것이다[2等은 舌尖後音이고, 3等은 舌面前音이다]. 喻母 및 脣音、牙音의 3、4等은 聲母가 구개음화 작용이 있는가 없는가로 나눈 것이다[3等은 j가 있고, 4等은 j가 없다]. 反切下字가 똑같이 3等韻에 속해 있는 것 가운데 正齒와 齒頭같은 것은 한 행에 병렬할 수는 없어서, 精淸從心邪는 4等に 내려보냈는데, 역시 韻을 갈라서 세우는 법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四等之 洪細, 蓋指發元音時, 口腔 共鳴之 大小而言也. 唯冬之與鍾、登之與蒸, 以及東韻之分公弓兩類, 戈韻之分科綱兩類, 麻韻之分家遮兩類, 庚韻之分庚京兩類, 則以有無[i]介音分; 又反切下字同在三等韻中, 而正齒音之二、三等以聲母之剛柔分[二等爲舌尖後音, 三等爲舌面前音]; 喻母及脣音、牙音之三、四等以聲母有無附類作用分[三等有j, 四等無]; 他如正齒與齒頭不能並列一行, 而降精淸從心邪於四等, 由等韻之立法未善使然.)³⁶⁾

羅常培의 이 말을 살펴보면, 그는 먼저 ‘等’의 개념을 母音의 차이로 해석하고, 이것에 뒤이어 介音의 차이라고 하였으며, 그 뒤에 다시 聲母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는데, 聲母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그렇다면 ‘等’의 차별은 母音에 있는 것인가, 介音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聲母에 있는 것인가? 하나 하나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모두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모두 틀린 것 같기도 하다. 다시 말해 어떤 때에는 母音과 관련이

36) 羅常培, 《漢語音韻學導論》, 45쪽.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때에는 또 介音 혹은 聲母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도대체 ‘等’이라는 개념의 표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審音을 위해 만든 審音表라고 불리는 韻圖가 어떻게 이와 같이 통일된 표준이 없이 무질서 할 수 있는가? 羅常培 역시 이와 같이 생각하였기 때문에, 상술한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等韻’의 법칙이 아직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分等の 표준은 결코 명확한 것이 아니었다. 현대 음운학자들이 현대 어음학의 원리를 사용하여 본래 모호한 ‘等’의 개념을 설명한 것은 ‘等’의 성질 중에서 한쪽 면만을 장악한 것에 불과하고 결코 古人이 等を 나누었다는 사실을 원만하게 해석한 것이 되지는 못한다. 과학적인 분류를 할 때의 분류 표준은 마땅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것이어야 하고, 중도에 분류 표준을 바꾸면 분류가 분명해지지 않는 병폐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분류 표준은 간단할수록 좋은 것이고, 지나치게 많으면 표준이 없는 것만 못한 것이다. 四等に 구별이 있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음운학자들은 分等の 사실을 설명할 때 分等과 聲調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聲母、介音、韻母 전체를 分等の 표준으로 간주하는데, 이렇게 分等を 설명하는 것은 韻圖의 구성과 等の 성질을 온전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 分等에 대한 지금까지의 설명은 결코 이론상에서 ‘等’의 진실한 의미를 밝히지 못하고, 韻圖上的 韻字의 배열에 근거하여 각기 상이한 각도에서 ‘等’과 聲母、介音 혹은 韻母와의 관련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납득할 만한 표준을 발견하지 못한 채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4. ‘等’의 개념

韻圖가 만들어진 이래로 ‘等’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等’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석을 한 사람은 없다. 韻圖가 만들어진 시대에서 멀지 않은 唐宋의 음운학자, 과학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等’의

의미를 설명하지 못하였고, 또 清代의 저명한 등운학자인 江永、陳澧가 모두 分等說을 주장하였지만 각기 결론이 다르다. 게다가 陳澧는 分等說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等韻의 폐단을 지적하고 ‘等’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도 회의를 표시하였는데, 韻書의 ‘小韻 머릿글자’를 韻圖가 上下 네 개의 칸에 배열한 것만을 보고 四等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과연 古人의 뜻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지는 분명히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 아주 많은 학자들이 ‘等’은 聲、韻、調와 같이, 어음 구성상의 모종의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요소가 무엇인지는 지금까지 분명하게 설명한 적이 없다. 단지 主要母音의 洪細의 차이라고 하고(경우에 따라서는 介音과의 관계 有無라고도 한다), 혹은 介音의 有無라고 하는데, 그것은 두 개의 ‘等’만을 만들 수 있을 뿐 四等を 만들 방법이 없다. 또 介音과 主要母音이 함께 관련된 것이라고 하지만, 韻圖가 다른 ‘等’에 배열한 것은 聲母의 차이로 인한 것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等’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여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分等說’이 그다지 믿을 만하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사실은 ‘等’의 성질에 대한 연구가 다른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等’의 성질이 聲에 주체가 있다, 韻에 주체가 있다 혹은 聲에 주체가 있는 이후에 韻에 주체가 있었다는 등의 문제가 논쟁 중인데 만족할 만한 해석을 얻기는 어렵다. 만약 ‘等’이 韻圖의 제작 원칙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표준’만을 드러내어야 하고, 이 표준은 모든 韻圖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 韻圖에서는 이 표준을 사용하고, 저 韻圖에서는 저 표준을 사용하고, 또 다른 韻圖에서는 또 다른 표준을 사용하는 식의 표준은 표준이라고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표준을 사용하면 韻圖를 해석하는 것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韻圖를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과학성이 결핍된 완전히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韻圖의 표상만을 본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개념의 혼란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단순히 時代 혹은 地域의 차이로 인해 ‘等’의 개념이 전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각자가

자신이 본 것에 따라 ‘等’을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일까? 필자는 清初 馬自援이 지은 《重訂馬氏等音內外集》의 ‘等’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馬自援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等이라는 것의 의미를 골라 뽑으면, 다른 것이 있는데, 그 실이 여섯이다. 하나는 ‘等이란, 무리이다’고 말한다 ……둘은 ‘等이란, 가지런한 것이다’고 말한다 ……셋은 ‘等이란, 구분하는 것이다(俗字는 戩이다)고 말한다. ……넷은 ‘等이란, 등급이다’고 말한다. ……다섯은 ‘等이란, 한 무리이다’고 말한다. ……여섯은 ‘等이란, 비교하는 것이다’고 말한다. 五音 속 각 韻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 필요 없이, 한 韻의 머릿글자를 숙독하기만 하면, 五音 65韻의 머릿글자 아래의 글자는, 모두 저절로 통하는데, 마치 사물을 서로 비교하여 나오는 것 같다.(等之取義, 則有不同, 其說有六. 一曰: 等者, 類也. ……二曰: 等者, 齊也. ……三曰: 等者, 等(俗作戩)也. ……四曰: 等者, 級也. ……五曰: 等者, 輩也. ……六曰: 等者, 比也. 以五音中各韻首不必遍讀, 止熟讀一韻首之字, 而五音六十五韻首中之字, 即皆自通, 如物之相比而出也.)³⁷⁾

馬自援의 견해가 그다지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古人의 等에 대한 해석이 ‘等’을 聲、韻、調에 해당하는 어음상의 어떤 구성 요소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 맥락에서 해석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等은 무리이고, 가지런한 것이며(等, 類也, 輩也)”(《玉篇·竹部》) 일정한 표준에 따라 字音에 대해 분석하고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얻어낸 부류에 불과하므로 四等은 바로 四類이고 ‘등급(等第)’이 아니라 ‘같음, 대등함’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等’은 韻圖를 배열하는 과정 중에 반영되어 나온 하나의 ‘結果’³⁸⁾이고,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等’이 聲이나 介音、韻 중의 어느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等’은 聲이나 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古人의 ‘等’과 현재 통상

37) 馬自援, 《重訂馬氏等音內外集》(《叢書集成續編》本 第19冊),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4, 827쪽.

38) 韻圖의 四等 배열 방법에 대해서는 拙稿 <韻圖의 起源과 唐代 韻圖의 再構> 169~179쪽을 참고할 수 있다.

적으로 말하는 '等'의 개념은 구별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와 같은 개념이 李新魁가 자신의 주장을 보충할 때 사용한 '類'의 동의어라고 생각한다.³⁹⁾ 이것은 古人이 말하는 '等'이 현대 語音學의 지식을 빌린 '等'이 아니고, 더욱이 江永이 말한 '等'의 개념도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말해지고 있는 四等洪細說에 따른 '等'의 개념을 생략하고, 古人의 문장에서 '等'을 '類'자로 대체하여 해석하여 보면 四等洪細說에 따른 '等'의 해석보다 더욱 명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沈括의 말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 聲은 다시 四類(等)가 있는데, 淸、次淸、濁、平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顛、天、田、年、邦、脰、龐、彪의 종류가 그것이다. ……글자에는 重、中重、輕、中輕이 있다. 本類(等)의 聲이 전부 다른 類(等)로 바뀌어 들어간 것을, 무리가 어그러졌다(類隔)고 한다. 비록 類(等)를 어그러뜨려 놓았을지라도, 모름지기 그 무리를 사용해야 하는데, 脣音과 脣音이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齒音과 齒音이 하나의 무리를 이루는 것을 이른다. 예를 들면 武延(切)이 綿이 되고, 符兵(切)이 卍이 되는 것이 그것이다. 韻은 本類(等)에 귀속되는데, 冬과 東을 예로 들면, 字母가 모두 '端'字에 속하고, 冬은 곧 '端'字 중의 第1類(等)의 聲이기 때문에, 都宗切의 宗字는 第1類(等)의 韻이다.⁴⁰⁾

대체로 《四聲等子》가 '等'자를 사용하여 책이름으로 삼고, 이것이 劉鑑의 추앙을 받았기 때문에,⁴¹⁾ 영향력이 나날이 증대되었고, 이로 인해 후대의 사람들이 점차 '等'이라는 한 글자를 고정적으로 사용하여 宋元 韻圖상의 4行을 가리키는 것이 되었을 뿐이고, 韻圖가 '等'에 따라 배열된 것은 아니다.

결국 현존 韻圖의 四等 배열의 형식만을 보고 '等'이라는 개념이 무엇

39) 李新魁의 견해는 《漢語等韻學》(北京, 中華書局, 1983) 158쪽에 보인다.

40) 주9)와 같다.

41) 劉鑑의 《經史正音切韻指南·熊澤民序》에 “옛날에 四聲等子가 있었는데, 세상에 유포되어 전해지는 것 중의 바른 계통이다.(古有四聲等子, 爲流傳之正宗.)”는 말이 있다(《經史正音切韻指南》, 《等韻五種》本, 臺北, 藝文印書館, 1975, 1쪽).

인지를 추론하는 것은 단순히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보려고 하는 인과가 뒤바뀐 것에 지나지 않는다. ‘等’은 韻圖의 배열 원칙이 아니라 韻圖를 배열하는 과정 중에 반영되어 나온 ‘結果’이기 때문에 古代의 ‘等’은 현재 말하는 ‘等’의 개념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말해 江永이 “一等洪大, 二等次大, 三四皆細, 而四尤細。”라고 말한 것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韻圖를 제작하는 사람이 ‘等’에 대해 구체적인 원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 韻圖를 제작하였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概念’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의 ‘抽象’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抽象’의 과정을 거쳐 江永이 말한 것과 같은 하나의 ‘概念’으로 정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等’이 韻圖 배열의 ‘結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韻圖 배열의 ‘原則’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미 반복적인 초록과 수정을 거쳐 최초의 韻圖의 모습에서 변한 《韻鏡》과 같은 早期韻圖의 ‘等’을 완전하게 해석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等’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5. 結論

필자는 ‘等’이라고 하는 것이 韻圖를 배열하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어음 구성상의 요소가 아니라 反切體系의 정밀한 분석을 거쳐 韻圖에 反切上下字, 즉 聲類와 韻類를 합리적으로 배열하는 과정 속에서 圖上에 반영되어 나온 聲、韻類 결합의 ‘結果’이고, 이것의 함의는 지금까지 학자들이 주장한 것과 같이 聲母、介音 혹은 主要母音 중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 배열한 ‘등급(等第)’의 개념이 아니라, 聲、韻類 배열의 ‘가지런함’을 강구하여 ‘等’ 내의 글자에 ‘근사’하면서 ‘대등’한 곳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古人의 分等은 매 四等 내의 글자가 모두 介音의 유무나 主要母音의 洪細의 구별 혹은 聲母 때문에 字音에 ‘등급(等第)’의 차이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한 과학적인 원칙이 아니라, 이와 반대로 오히려 이들 사이에 내적 연관이 있고 四等 내의 글자에 근사하고 대등한 곳이 있음을 강조한 것에 지나

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參考文獻

- 江 永, 《音學辨微》(《音韻學叢書》本), 臺北, 廣文書局, 1977.
- 羅常培, 《漢語音韻學導論》, 香港, 太平書局, 1971.
- 唐作藩, 《音韻學教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1.
- , <關於‘等’的概念>, 《音韻學研究》1994年 第3輯.
- 董同龢, <<切韻指掌圖>中的幾個問題>, 《董同龢先生語言學論文選集》, 臺北, 食貨出版社, 1974.
- 馬自援, 《重訂馬氏等音內外集》(《叢書集成續編》本 第19冊),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4.
- 馬宗霍, 《音韻學通論》, 臺北, 泰順書局, 1972.
- 無名氏, 《四聲等子》(《等韻五種》本), 臺北, 藝文印書館, 1975.
- 司馬光, 《切韻指掌圖》(《音韻學叢書》本), 臺北, 廣文書局, 1974.
- 史存直, <說反切>, 《漢語音韻學論文集》,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7.
- , <關於‘等’和門法>, 《漢語音韻學文集》,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7.
- 守 溫, 《韻學殘卷》(《唐五代韻書輯存》下), 臺北, 學生書局, 1994.
- 沈 括, 《夢溪筆談》(《國學基本叢書》本), 臺北, 商務印書館, 1968.
- 王 力, 《漢語史稿》, 《漢語史稿》第9卷,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8.
- , <<類音>研究>(《王力文集》第18卷),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91.
- , 《漢語音韻》, 北京, 中華書局, 1980.
- , 《漢語音韻學》, 北京, 中華書局, 1935.
- 汪壽明·潘文國, 《漢語音韻學引論》(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2.
- 龍庄偉, <釋等>, 《河北師院學報》1989年 第1期.
- 劉 鑑, 《經史正音切韻指南》(《等韻五種》本), 臺北, 藝文印書館, 1975.

- 李新魁,《漢語等韻學》,北京,中華書局,1983.
- 章炳麟,《國故論衡·上卷·音理論》,浙江圖書館校刊本,出版年度未詳.
- 張麟之,《韻鏡》(《等韻五種》本),臺北,藝文印書館,1975.
- 趙蔭棠,《等韻源流》,臺北,文史哲出版社,1985.
- 朱 星,〈宋元等韻學述評〉,《朱星古漢語論文選集》,臺北,洪葉文化事業有限公司,1996.
- 周祖謨,《唐五代韻書集存》,臺北,學生書局,1994.
- ,〈讀《守溫韻學殘卷》後記〉,《問學集》(上),北京,中華書局,1981.
- 陳 澧,《切韻考·外篇》,臺北,學生書局,1977.
- 祝 泌,《皇極經世解起數訣》(《四庫全書》本 805冊),臺北,商務印書館,1986.
- 韓鐘鎬,〈韻圖의 起源과 唐代 韻圖의 再構〉,韓國外大博士論文,2000.
- 黃 侃,《黃侃論學雜著》(《四部備要》本),臺北,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1984.

中文提要

在古代漢語語音的研究中,用‘等’的概念來區分漢語的聲類和韻類,就叫等韻。研究等韻的學科就稱為等韻學。用等韻的學理來分析古漢語語音而制成的圖表,就叫等韻圖。但是什麼是‘等’,早期韻圖作者却沒有明言。

前人指‘等’的說法,雖見仁見智各有所見,然終嫌得幽渺而不很清楚,於是致於今人學者從介音[i]之有無,韻母主要元音之洪細等方面詳加探討,欲解穿唐宋等韻的奧秘,然而所得結論還不能使人信服。

這樣,一方面‘等’可以有許多不同的含意,另一方面對現在認為的‘等’古人又有許多不同的說法,這種在概念上的混亂情況說明什麼呢?是不是如同有人所主張的這證明‘等’可以既表明聲,又表明韻?我認為不是。反之,這說明‘等’既不表明聲,也不表明韻,只不過是‘類’的同義詞而已。我認為‘等’就是韻圖排列過程中反映過來的‘結果’,又是對某一種音‘類’加以區分的標準,又是

‘齊’、‘平’和‘等同’的概念。易言之，我認爲宋元韻圖的分等不是表明每四等內之字都因元音舌位高低前後之差異而使字音有等第的不同，却是表明了其有內在的聯系，四等內之字有其‘近’、‘同’之處。

矛盾·反對, 時間·空間에 對한 中國語 否定詞의 具現樣相*

張 皓 得**

<目 次>

1. 序 論	4. 否定詞 變遷過程 및 다른 言語에서의 具現
2. 矛盾·反對에 對한 中國語 否定詞의 具現	4.1 否定詞 變遷의 規律과 方向
3. 時間·空間에 對한 中國語 否定詞의 具現	4.2 韓國語와 英語에서의 具現
	5. 結 論

1. 序 論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는 부정에 대한 표현법, 즉 부정에 대한 언어형식(linguistic form)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언어형식이 모든 언어에서 획일적으로, 통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언어에 있어서도 시대에 따라 그 언어형식은 변화한다. 왜냐하면 객관현상이 인간의 두뇌를 통하여 의미투영 및 통사투영이 되는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인간에게 있어서 언어는 인간이 허용을 해야만 구속복(straitjacket)이 되기 때문에 의미체계는 인간사회

* 본 논문은 2000년 6월 23일 경성대학교에서 개최된 大韓中國學會 第1回 國際學術大會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자로 좋은 의견을 주신 金正必선생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단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전임강사

와 관련되는 다른 어떤 체계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확장되고 수정이 되기(이기동, 1983:144) 때문이다. 또한 모순·반대, 시간·공간 개념도 의미론적으로든, 통사론적으로든 모든 언어에 내재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두 짝의 상대적인 개념은 우리 인간이 객관현상을 인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위의 관점을 통해 볼 때 중국어에도 ‘모순·반대’, ‘시간·공간’에 대한 부정사의 통사적 구현양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본 논고에서는 《祖堂集》에 출현하는 부정사와 현대중국어의 부정사를 연구범위로 삼아, 그 통사론적인 특징에 대해 공시적 분석 및 통시적 고찰을 통하여, 중국어에 나타나는 개별언어학적인 특징을 찾고 한국어·영어와의 비교를 통하여 언어의 정체성, 즉 보편성 및 특수성을 찾고자 한다. 더 나아가 모순·반대, 시간·공간에 대한 중국어 부정사의 구현양상에 대한 원리를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고의 목적이다.

2. 矛盾·反對에 대한 중국어 부정사의 구현

본 논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矛盾’과 ‘反對’는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矛盾’은 영어로 ‘contradiction’에 해당되며, ‘反對’는 영어로 ‘contrary’라고 한다¹⁾. ‘矛盾’이란 어떤 개념 S와 어떤 개념 P에는 공통

1) ‘矛盾’과 ‘反對’에 대한 용어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예스페르센이 지은 《어법철학(The Philosophy of Grammar)》의 중역본(1988:464)에서는 ‘矛盾’과 ‘對立’으로 번역하고 있다. 鄧守信의 논문(1984:116, 번역문)에서는 ‘相對’와 ‘相反’으로 번역하고 있다. 또 何應燦 등(1988:96-99)의 《邏輯學引論》에서는 ‘矛盾’과 ‘反對 혹은 對立’으로 사용하고 있다. 허성도(1992:28)는 ‘否定’과 ‘相反’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정민 등(1987:219-220)의 《언어학사전》에서는 이 두 용어가 원래 논리학에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矛盾’과 ‘反對’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상을 살펴보면 ‘contradiction’은 대체로 ‘矛盾’을 공통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contrary’도 대체로 ‘反對’ 혹은 ‘對立’로 사용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矛盾’과 ‘反對’

적인 외연(外延)이 없으며, 이 두 외연의 합이 하위개념(下位概念)²⁾의 외연과 같음을 가리킨다. ‘反對’는 어떤 개념 S와 어떤 개념 P가 공통적인 외연(外延)을 갖지 않으며, 또한 이 두 외연의 합이 하위개념(下位概念)의 외연보다 작음을 가리킨다.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矛盾·反對를 일찍이 언어학 연구에 적용시킨 사람은 예스페르센(Otto Jespersen)이었다. 그는 서구어의 통사적 분포(syntactic distribution)에 근거하여 논리학의 이 개념관계를 언어의 부정(negation)에 적용시켰다³⁾. 즉 ‘white’와 ‘not-white’, ‘rich’와 ‘not-rich’를 모순관계에 ‘white’와 ‘black’, ‘rich’와 ‘poor’를 반대관계에 적용시키면서, 통사적으로 전자는 ‘unhappy’, ‘impossible’, ‘disorder’ 등과 같이 부정접두사를 사용한 파생어나 부정사를 사용한 언어구조를 사용하며, 후자는 ‘young’과 ‘old’, ‘good’과 ‘bad’, ‘big’과 ‘small’처럼 어간이 다른 낱말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반대관계에 해당하는 두 개념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개념을 설정하여 이것도 부정방식 -neither young nor old-을 통하여 표현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그는 ‘긍정적(Positive)’, ‘의문스러운(Questionable)’, ‘부정적(Negative)’이라는 삼분법 체계를 수립했다⁴⁾. 그의 이런 연구는 이후 언어의 부정에 대한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그는 ‘white’와 ‘not-white’, ‘rich’와 ‘not-rich’를 모순관계에 ‘white’와 ‘black’, ‘rich’와 ‘poor’를 반대관계 연결시키고 있지만 사실상이 둘의 관계는 모두 반대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이런 그의 한계는 그가 서구어의 통사적 분포에만 국한하여 연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는 기본적으로 논리학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이므로 이를 사용하기로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용어는 필자가 박사학위논문(1999b:44)에서부터 일관되게 사용해온 용어이므로 ‘矛盾’과 ‘反對’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2) 저급개념(低級概念)이라 부르기도 한다.
- 3) 예스페르센의 원저명은 《The Philosophy of Grammar》로 1924년에 출판되었다. 본 논고에서는 중국어 번역본(1988:464-466)을 사용하였다.
- 4) 그의 삼분법 체계에 대해 필자는 ‘모순’, ‘반대’, ‘확정반대’, ‘불확정반대’라는 개념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논술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拙稿(1999d:107-125)를 참조.

논리학의 개념과 언어학의 통사관계를 적절하게 연결시키지 못하고 각각 따로 분리하여 살핀 데 기인하고 있다⁵⁾.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중국어에서 나타나는 모순·반대에 대한 통사적인 구현양상을 분석·고찰함으로써 에스페르센의 관점의 한계를 보완할 뿐 아니라 중국어 부정사의 통사적 구현양상과 모순·반대의 관계 및 그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술어논리학의 논리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뒤 통사적 분포와 연결지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雲岳云：「皮也無，打什摩鼓？」(운암이 이르길：「가죽도 없는데， 무슨 북을 친단 말이냐?」) (105b6)⁶⁾
2. 師云：「雷聲甚大，雨點全無。」(선사께서 이르시길：「뇌성은 매우 크나， 빗방울은 전혀 없구나.」) (228b8)
3. 過去諸佛還從凡夫中修持去，無天生聖人。(옛날의 여러 부처는 평범한 사람들이 수행하여 된 것이니 선천적인 성인은 없었다.) (358a6)
4. 疏山無言。(소산은 말이 없었다.) (146a2)
5. 師曰：「眞佛無相。」(선사께서 가로되：「참 부처는 상이 없느니라.」) (102b6)
6. 云：「家無二主，國無二王。」(가로되：「집에는 두 주인이 없고， 나라에는 두 임금이다.」) (262b14)
7. 師便喝云：「死水無魚，徒勞下鉤。」(선사께서 고향을 지르며 가로되：「죽은 물에는 고기가 없나니 헛되이 낚싯대를 드리었도다.」) (177a14)

위의 예문을 술어논리학의 논리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1의 「雨點全無。」는 $(\forall x)\neg P(x)$ 라는 술어논리학의 논리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풀이하면 “모든 x에 대해서 x가 雨點[빗방울]이라면, x는 모두 없다(x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이다. 예2의 「皮也無。」는 $(\exists x)\neg Q(x)$ 의 논리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풀이하면 “어떤 x에 대해서 x가 皮[가죽]이

5)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拙稿(1999d)를 참조.

6) 본 논고에서 인용한 예문은 일본 中文出版社에서 출판한 영인본 《祖堂集》을 이용하였다. '105b6'에서 영문을 중심으로 앞의 숫자는 쪽수를 나타내며, 뒤의 숫자는 줄수를 나타내며 영문 'a', 'b'는 상단, 하단을 나타낸다. 즉 앞의 예는 105쪽 하단 6째줄을 가리킨다.

라면, x는 없다(x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이다. 예3의 「無天生聖人」은 $(\forall x)\neg(P(x))$ 의 논리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풀어 쓰면 “모든 x에 대해 x가 天生聖人[천성적인 성인]이라면 x는 없다(x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이다. 예4의 「疏山無言」은 $(\exists x)P(x) \rightarrow (\exists x)Q(y) \wedge \neg R(x,y)$ 의 논리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풀어 쓰면 “어떤 x에 대해 x가 「疏山」이라면 즉 어떤 y가 존재하고, y는 「言」이며, 그리고 x는 y가 없다.”이다. 예5의 「眞佛無相」은 $(\exists x)P(x) \rightarrow (\exists x)Q(y) \wedge \neg R(x,y)$ 의 논리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풀어쓰면 “어떤 x에 대해 x가 「眞佛」이면 즉 어떤 y가 존재하고 y는 「相」이며, 그리고 x는 y가 없다.”이다. 예6의 「家無二主」는 $(\exists x)P(x) \rightarrow (\exists x)Q(y) \wedge \neg R(x,y)$ 의 논리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풀이하면 “어떤 x에 대해 x가 「家」이면 즉, 어떤 y가 존재하고, y는 「二主」이며, 그리고 x는 y가 없다.”이다. 예7의 「死水無魚」는 $(\exists x)P(x) \rightarrow (\exists x)Q(y) \wedge \neg R(x,y)$ 의 논리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풀이하면 “어떤 x에 대해 x가 「死水」이면 즉, 어떤 y가 존재하고, y는 「魚」이며, 그리고 x는 y가 없다.”이다.

예1에서 예7까지는 모두 ‘無’라는 낱말을 사용하여 부정을 표시하고 있는 문장이다. 이들 예문을 모두 ‘存在’와 ‘所有’, 즉 ‘存有’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위 논리식의 분석을 통해 볼 때 ‘無’라는 부정을 의미하는 술어(predicate)의 상대적인 술어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상의 술어문은 모두 하나의 술어 ‘有’에 대한 부정을 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위의 술어문은 ‘有’와 ‘無’라는 두 개념의 공통적인 외연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두 외연의 합은 하위개념의 외연과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1에서 예7까지는 모두 ‘矛盾’을 표시하는 술어문이라 할 수 있다.

8. 師曰：「龍不出洞，誰人奈何？」(선사께서 가로되：「용이 웅덩이를 나오지 않으니 그 누가 어찌하리요?」) (174a9)
9. 師曰：「爲什麼不與他第一座？」(선사께서 가로되：「왜 그에게 첫 자리를 주지 않느냐?」) (125b12)

예8의 「龍不出洞」는 $(\exists x)P(x) \wedge (\exists y)Q(y) \wedge \neg R(x,y)$ 의 논리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풀이하면 “어떤 x 에 대해 x 는 「龍」이다. 그리고 어떤 y 가 존재하며, y 는 「洞」이고 그리고 x 는 y 를 나가지 않는다.”이다. 예9의 「你)不與他第一座」는 $(\exists x)P(x) \wedge \neg Q(a,x,b)$ 의 논리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해석하면 “ x 가 존재하는데, x 는 「第一座」이고 그리고 a 가 b 에게 x 를 주지 않는다.”이다.

예8은 술어 ‘出(나가다)’에 대한 부정을 표시하고 있다. 언어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동사 ‘出’에 대한 부정이다. 그러나 술어 ‘出’은 이 개념과 다른 개념 사이에 공통적인 외연을 갖지 않으나, 이것과 어떤 상대적인 외연의 합이 하위개념의 외연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出’의 상대적인 개념을 ‘入’이라 한다면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적인 외연은 없으나, 이 둘 외에도 ‘坐’, ‘站’, ‘介乎’ 등과 같은 다른 외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두 외연의 합이 하위개념의 외연보다 작다. 그러므로 술어 ‘出’은 ‘矛盾’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反對’를 표시한다. 예9의 술어 ‘與(주다)’도 어떤 상대적인 개념을 ‘受(받다)’라고 한다면, 이 둘 외에도 ‘借(빌려주다)’, ‘還(갚다)’ 등과 같은 다른 외연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술어도 ‘反對’를 표시한다.

7) 술어논리학의 연산식은 앞에서 본 것처럼 ‘양화사’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지만 ‘모순·반대’에 대해서는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forall x)\neg P(x)$ 와 $\neg(\forall x)P(x)$ 의 두 연산식은 ‘양화사’가 포함된 부정을 표시하여 전자는 ‘전체부정’을 후자는 ‘부분부정’을 표시하고 있으며 연산식도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4 「疏山無言」의 연산식 $(\exists x)P(x) \rightarrow (\exists x)Q(y) \wedge \neg R(x,y)$ 와 예8 「龍不出洞」의 연산식 $(\exists x)P(x) \wedge (\exists y)Q(y) \wedge \neg R(x,y)$ 의 부정은 모두 $\neg R(x,y)$ 로 구분이 없다. 실제로 전자는 ‘모순개념’을 표시하고 후자는 ‘반대개념’을 표시하므로 연산식에서도 이를 다르게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술어논리학의 연산식은 아직 이를 구분하는 연산장치가 없다. 이 연산장치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더 깊이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런 연유로 본 논고에서는 ‘모순·반대’ 개념에 대한 연산식을 구분하지 않고 현행 술어논리학의 연산식으로 표시하고 설명부분에서 그 차이를 서술하기로 한다. 그리고 ‘모순·반대’ 개념에 대한 연산장치는 후속연구로 남겨 둔다.

10. 雲岫不安。(운암이 편치 않다.) (90a9)

예10의 「雲岫不安」은 $P(a) \wedge \neg Q(a)$ 의 논리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해석하면 “「雲岫」이 존재하고 그리고 편안하지 않다.”이다.

예10은 술어 ‘安(편안하다)’에 대한 부정의 표현이다.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서술문(predication)은 부정사 ‘不’가 형용사 ‘安’을 부정하고 있는 문장이다. 예10의 술어 ‘安’도 예8과 예9의 술어와 마찬가지로 ‘安’의 상대적인 개념을 ‘不安’으로 설정한다면 마찬가지로 ‘怕(무서워하다)’, ‘痛(아프다)’ 등과 같은 다른 개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예10도 ‘反對’ 개념을 표시한다.

11. 「心非佛性, 佛性是常, 心是無常。」(心은 佛性이 아니니, 佛性은 常이고, 心은 無常이라.) (61b2)
12. 師又曰:「汝爲學坐禪? 爲學坐佛? 若學坐禪, 禪非坐臥; 若學坐佛, 佛非定相。」(선사께서 또 가로되:「자네는 좌선을 배우려고 하느냐, 좌불을 배우려고 하느냐? 좌선을 배우려 한다면 禪은 앉고 눕는 것이 아니요, 좌불을 배우려 한다면 佛은 定相이 아니니라.) (72b5)
13. 師代云:「非師本有。」(선사께서 대신 이르길:「나도 본래부터 안 것이 아니니라.) (304a11)
14. 師有時云:「吾有大病, 非世所醫。」(한번은 선사께서 이르길:「나는 큰 병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268b1)

예11의 「心非佛性」은 $a \in A$ 혹은 $(\exists x)P(x) \wedge (\exists y)Q(y) \wedge \neg Q(x,y)$ 의 논리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풀이하면 “어떤 x 가 존재하며, x 는 「心」이다. 그리고 어떤 y 가 존재하며, y 는 「佛性」이다. 그리고 x 는 y 가 아니다(x 는 y 에 속하지 않는다)”이다. 예12의 「禪非坐臥」은 $(\exists x)P(x) \wedge Q(\emptyset) \wedge R(\emptyset) \wedge \neg S(x, (Q(\emptyset) \wedge R(\emptyset)))$ 의 논리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해석하면 “ x 가 존재하며 x 는 「禪」이고 그리고 개체사(個體詞)가 없는 술어 $Q(\emptyset)$ 가 존재하며 $Q(\emptyset)$ 는 「坐」이다. 그리고 개체사가 없는 술어 $R(\emptyset)$ 가 존재하며 $R(\emptyset)$ 는 「臥」이다. 그리고 x 는 $Q(\emptyset)$, $R(\emptyset)$ 가 아니다.”이다.

예11에서 예14까지는 술어 ‘非’를 이용하여 ‘是’에 대한 부정을 표시하고 있다. 이 예문들의 논리식을 살펴보면 모두 하나의 술어 개념 즉 ‘關

係'와 관련된 개념을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관계' 개념은 '是(이다)'와 '非(아니다)'로 나뉘어진다. 술어논리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是(이다)'라는 개념과 '非(아니다)'라는 개념 사이에는 공통적인 외연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두 개념 이외의 하위개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11에서 예14까지는 모두 '矛盾'을 표시한다. 예11은 단순히 개체사와 개체사의 관계를 표시하고 있지만, 예12에서 예14까지는 개체사와 개체사가 빠진 또 하나의 서술문과의 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관계'를 표시하는 서술문은 '개체정항(individual constant)'과 '개체정항'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데 국한되지 않으며, '개체정항'과 '술어정항(predicate constant)' 혹은 '술어(predicate)'와의 관계도 표시함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是'와 '非'는 단순히 개념 사이의 관계만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명제 전체의 관계도 서술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통사적 분포관계를 통해 '모순·반대'의 구현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통사적 분포관계에 있어서《祖堂集》에서 '모순·반대'를 표시하는 중국어 부정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꾸기(substitution)」와 「붙이기(addition)」이다.

15. 師曰：「頂上還有人不？」對曰：「無人。」(선사께서 가로되：「정상에 사람이 있습니까?」 대답하여 가로되：「사람이 없습니다.」) (123a6)
16. 又問：「更有什摩言說？」對曰：「非心非佛，亦曰不是心，不是佛，不是物。」(또 묻기를：「더 무슨 말이 있습니까?」 대답하여 가로되：「심도 아니고 불도 아닌 것은, 달리 심도 아니요, 불도 아니요, 물도 아니다라고 일컫는다.」) (64b10)
17. 問雲居：「你愛色不？」對曰：「不愛。」(운거에게 묻기를：「너는 색을 좋아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좋아하지 않습니다.」) (122b2)

예15와 예16을 살펴보면 통사적인 분포에 있어서 부정사는 모두 술어로 쓰이고 있다. 예15를 보면 '無'는 앞의 묻는 문장의 '有'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16도 이른바 '바꾸기'의 방식으로 '是'에 대한 부정을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17은 '바꾸기'가 아닌 '붙이기'의 방식으로 술어 '愛'를 부정하고 있다. 예15

와 예16이 ‘바꾸기’라는 통사적 수단을 이용하여 부정을 표시하는 이유는 ‘無’와 ‘非’의 상대적인 개념이 각각 ‘有’와 ‘是’ 밖에 없어 모두 ‘모순 개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17의 ‘愛’의 상대적인 개념은 하나만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바꾸기’의 방식이 아닌 ‘붙이기’의 방식으로 부정을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愛’가 ‘반대개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祖堂集》에 나타나는 부정용법 가운데 ‘바꾸기’는 ‘모순’을 표시하며, ‘붙이기’는 ‘반대’를 표시한다. 그러므로 ‘모순·반대’에 대한 표현이 통사적 분포에서도 대립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8. 我沒有中文書.(나는 중국어 책이 없다.)
19. 我沒有去過德國.(나는 독일에 가 본 적이 없다.)
20. 他不吃飯.(그는 밥을 먹지 않는다.)
21. a. 他高.(그는 크다.)
b. 他不高.(그는 크지 않다.)
c. 他矮.(그는 작다.)
22. 這支粉筆丕白.(이 분필은 회지 않다.)
23. 這支粉筆不是白的.(이 분필은 흰 것이 아니다.)
24. 他不是吃飯, 而是吃麵.(그는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면을 먹는다.)

예18부터 예24까지는 현대중국어에서 부정을 표시하고 있는 문장이다. 예18은 [[我]NP[[[沒]Neg[[有]V[中文書]NP]VP]V]VP[∅]I]IP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문장은 ‘有’와 ‘中文書’가 서로 통어(command)하는 관계에 있으면서 전자가 후자를 다스리고(govern) 있다. 다시 ‘沒’와 ‘有’가 서로 통어관계에 있으면서 전자가 후자를 다스리고 있다. 이것은 ‘沒’가 ‘有’만을 부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19도 ‘有’가 ‘去過德國’을 다스리고 있으면서 다시 ‘沒’가 ‘有’를 다스리면서 동시에 ‘有去過德國’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은 의미상으로 ‘독일을 가 본 적이 있다(去過德國)’는 상황의 ‘존재(有)’에 대한 ‘부정(沒)’을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곧 ‘沒’은 동사 ‘有’만을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모순개념’을 표현하고 있다는 증거이다⁸⁾. 예20에서 예22까지는 통사적 분포에 있어서 《祖堂集》과 같으며

8)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張皓得(2000)을 참조

‘반대개념’을 표시하고 있다. 예23은 ‘是…的’라는 통사구조를 이용하여 ‘모순개념’을 표시하여 예22의 ‘반대개념’과 구분하고 있다. 예24는 두 개의 절을 사용하여 ‘모순개념’을 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현대 중국어에는 ‘無’와 ‘非’처럼 ‘바꾸기’를 이용하여 ‘모순개념’을 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사적인 구조의 차이를 통하여 ‘모순’과 ‘반대’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대중국어에서도 ‘모순·반대’에 대한 부정사의 통사적인 구현양상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술어논리학의 논리식 및 통사적인 분포양상을 통하여 《祖堂集》에 출현하는 부정문을 분석하여 보았다. 위의 분석을 종합하면 논리학의 개념과 명제를 부정하는 부정사는 ‘無’, ‘不’, ‘非’ 세 개임을 알 수 있다. ‘無’와 ‘非’는 논리학의 ‘모순’을 나타내며, ‘不’는 논리학의 ‘반대’를 나타낸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부정사들이 모두 ‘바꾸기’와 ‘붙이기’라는 서로 다른 분포관계를 통해 ‘모순’과 ‘반대’의 개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논리학적 개념관계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논리학의 명제 혹은 개념의 의미로 볼 때, ‘無’는 ‘存有’개념에 대한 부정을 표시하고, ‘不’는 ‘作爲(동작과 행위)’와 ‘性狀(성질과 상태)’에 대한 부정을 표시하며, ‘非’는 이들 사이의 ‘關係’에 대한 부정을 표시함을 알 수 있다. ‘存有’와 ‘關係’에는 ‘이원가치(二元價值)’로 표현되는 개념이며, ‘行爲’와 ‘性狀’은 ‘다원가치(多元價值)’로 표현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전자는 ‘모순개념’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으며, 후자는 ‘반대개념’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모순’과 ‘반대’는 하나의 유기체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S. I. Hayakawa가 말한 것처럼, “이원가치 사고는 언어의 본질에 뿌리를 박고 있으며, ……언어의 이원가치 사고는 물론 다원가치 사고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기⁹⁾” 때문이다.

9) ‘이원가치’와 ‘다원가치’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埴川(S. I. Hayakawa)著, 柳之元 譯, 《語言與人生》,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7.2, 163-187쪽을 참조.

3. 時間·空間에 대한 중국어 부정사의 구현

《祖堂集》에 쓰인 부정사는 ‘無·未·莫·勿·沒·亡·罔·靡·不·非·匪·否·休’ 13개이다. 曾蕙蘭(1997:50)은 《祖堂集》과 같은 시대의 《敦煌變文》에 쓰인 부정사 연구를 통하여 ‘無·未·莫·勿·沒·罔·不·非·匪·否·叵·休’ 12개의 부정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易孟醇(1989:341-343)은 선진시대에 사용된 부정사로 ‘無·毋·亡·蔑·莫·未·未·微·靡·罔·勿·不·否·匪·非·弗’ 16개를 제시하고 있다.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 갑골문에 쓰인 부정사는 ‘勿·罔·不·弗·毋·非’ 6개이다.

이 부정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통시적, 공시적 측면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그것은 음운상의 공통점으로 이들 부정사의 성모의 조음점이 모두 입술에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楊聯陞(1971:161)은 ‘反脣相譏’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한국인들도 입술을 깨물면서 ‘부정’이나 ‘금지’를 표시하므로 설득력이 약하다. 둘째, 같은 조음점을 좀 더 세분하면 또 다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는 p계열의 음으로 발음되고 다른 하나는 m계열의 음으로 발음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구분은 갑골문 시대의 부정사부터 현대 중국어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구분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런 음운현상 이면에는 어떤 원리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서는 《祖堂集》의 부정사에 대한 연구결과¹⁰⁾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하겠다.

25. 師曰：「頂上還有人不？」，對曰：「無人。」(선사께서 가로되：「정상에 사람이 있습니까?」, 대답하여 가로되：「사람이 없습니다.」) (123a6)
26. 問：「父母未生時，鼻孔在什麼處？」(물어 가로되：「부모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콧구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302a4)
27. 師便咄云：「出去! 莫向這裡癡。」(선사께서 큰소리로 꾸짖어 가로되：

10) 이 부분과 관련된 상세한 논의는 졸저(1999b)와 졸고(1999c)를 참조.

- 「씩 나가거라! 이곳에 똥 누지 마라.」(109b11)
28. 光陰勿虛度. (광음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78a1)
29. 師有時曰:「……沒佛可成, 沒道可修, 沒法可捨.」(선사께서 한 때 이르길:「……이를 부처도 없고 님을 도도 없으며 버릴 법도 없도다.」) (132a10)
30. 有照成寺達性禪師讚嘆問:「其理甚妙, 眞妄雙泯, 佛道兩亡……」(조성사의 달성선사가 감탄하며 묻기를:「그 이치가 아주 오묘하니 진리와 사악함이 모두 없어지고, 불과 도 둘이 없어진다면……」) (69a12)
31. 師良久, 學人罔措.(선사께서 오래토록 그대로 있으니 제자가 몸 둘 바가 없었다.) (202b13)
32. 毗尼勝藏, 靡不精研.(비니승장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108b2)

예25부터 예32까지는 성모가 m-으로 시작되는 부정사들이다. 그 중에서 예25는 부정사 ‘無’를 사용한 부정문이다. 《祖堂集》에서 부정사 ‘無’는 총 1624회 출현하고 있다. 이것은 ‘無’가 m계 부정사 중에서 가장 無標的(unmarked)라는 표시하는 한 증거라 하겠다. 나머지 예26부터 예32까지는 순수한 언어구조적 측면에서 사용된 부정사라고 할 수 있겠다¹¹⁾.

33. 問雲居:「你愛色不?」對曰:「不愛.」(운거에게 묻기를:「너는 색을 좋아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좋아하지 않습니다.」) (122b2)
34. 又問:「更有什摩言說?」對曰:「非心非佛, 亦曰不是心, 不是佛, 不是物.」(또 묻기를:「더 무슨 말이 있습니까?」 대답하여 가로되:「심도 아니고 불도 아니다」는, 달리 ‘심도 아니요, 불도 아니요, 물도 아니다’라고 하기도 한다.) (64b10)
35. 思曰:「你去讓和尚處達書, 得否?」對曰:「得.」(사 스님께서 가로되:「네가 양 스님 있는 곳에 가서 편지를 전해야겠는데 할 수 있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할 수 있습니다.」) (75b7)
36. 見月休看指, 歸家罷問程. (달을 보려면 손가락을 보지 말고, 집에 돌아가려면 노정을 묻지 마라.) (82a10)

11) 순수언어적 측면의 부정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拙著(1999b)를 참조.

예33부터 예35까지는 성모가 p-로 시작되는 부정사를 사용한 부정문이다. p계 부정사 중에서는 ‘不’가 총 4135회로 가장 많이 출현하므로 가장 無標的(unmarked)인 부정사라고 할 수 있다. 예26의 부정사 ‘休’는 갑골문 시대나 선진시대에는 출현하지 않는 부정사로 근대한어 시기에 비로소 출현한다¹²⁾. 그리고 현대 중국어에서는 ‘休想!(꿈 깨!)’에서만 출현하는 부정사이다. 그러므로 이 부정사는 순수언어적 측면의 부정사로 논리구조적 측면의 개념을 표시하는 부정사와는 구분하여 다루어야 한다. 즉 ‘休’는 시간·공간 개념과는 관련이 없고 단지 ‘금지’ 등의 순수언어적인 측면의 의미만을 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祖堂集》에 출현하는 부정사 중 ‘無’와 ‘不’가 각각 m계 부정사와 p계 부정사를 대표하는 부정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국어의 모든 부정사가 m/p계 부정사로 나뉘는 현상은 우연의 일치일까? 선진시대부터 현대 중국어에까지 이 구분이 지켜져 사용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이것은 일시적인 혹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이 내면에는 어떤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갑골문 시대에 이들 부정사는 모두 假借字, 즉 借音字로 사용되어져 왔다. 이것은 부정사가 음소를 근거로 삼아 단어를 빌어 썼다는 것으로 발음이 뚜렷한 대비현상을 보인다는 것은 부정사가 동원사에서 출발했으며 그 안에는 내재된 원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또한 《祖堂集》에서 m계의 가장 無標的인 부정사인 ‘無’가 음운의 변천으로 인해 현대 중국어에서는 零聲母로 바뀌었다. 그러나 m계와 p계라는 이 패러다임을 유지하기 위해 현대 중국어에서 ‘無’ 대신 ‘沒’을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더라도 이 패러다임 속에는 어떤 내재된 구분의 원칙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에서 논의한 ‘모순’과 ‘반대’에 대한 부정사도 ‘無’와 ‘不’로 구분되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패러다임은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필자(1999b)는 이 구분을 시간·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시켰다. 인간이 인지하는 모든 현상계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 바

12) 부정사 ‘休’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楊聯陞(1971:166)을 참조할 것.

꾸어 말하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제외하면 모든 현상계는 사라지는 것이다. 즉 두뇌와 감각기관 및 언어라는 매개로 존재하는 현상계¹³⁾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지과정은 시간이라는 요소과 공간이라는 요소를 뺄 수 없기 때문에 언어형식에 있어서도 시간과 공간에 대한 표현법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있다. 이것은 형태론적인 측면에서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사론, 음운론 등 언어의 전 영역에 걸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 m계 부정사와 p계 부정사는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m계 부정사는 공간 개념에 대한 부정을 표시하며, p계 부정사는 시간개념에 대한 부정을 표시한다.

현대중국어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37. 你有沒有去過中國?(너 중국에 가 본 적 있니?)
38. *沒. / 沒有.(아니.)
39. 沒(有)去過.(가 본 적 없어.)
40. (有)去過.(가 본 적 있어.)
41. WinJar 1.23 來了! JAR爲一壓縮格式, 大家都有看過吧, 是Netscape 常用的壓縮格式! 也是不錯的壓縮軟體! 請到軟體下載區下載!(WinJar 1.23판이 왔어요! JAR은 압축형식인데 여러분 모두 보신 적 있지요, Netscape에서 늘 쓰이는 압축프로그램입니다. 편찮은 압축프로그램이죠! 내려받기 하는 곳에 가서 내려 받으세요!)
42. 他來的時候, 你們正在上課嗎? 沒有, 那時候, 我們正休息呢.(그가 왔을 때, 너희들은 수업 진행중이었니? 아니, 그 때 우리는 쉬고 있는 중이었어.)
43. 中國他不去.(중국 그는 안 간다.) / *中國他不去一次.(중국 그는 한번 안 간다.)

예37부터 예43까지는 얼핏 보기에는 모두 ‘시간’에 대한 부정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예43과 다른 예문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43의 뒤에 있는 예문은 왜 비문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시간도 다시 구분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예43의 앞의 예문과

13) 논리학에서는 이 현상계를 다시 ‘객관세계’와 ‘가능세계’로 나누기도 한다.

뒤의 예문의 차이는 ‘一次’라는 낱말이 있고 없음이다. 그렇다면 이 ‘一次’라는 낱말을 무슨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을까? ‘一次’라는 낱말은 횡수를 나타내는 말이다. 즉 이것은 ‘量’의 개념이 부여된 낱말이다. ‘量’의 개념이 부여되었다는 것은 쪼갤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時間’의 ‘間’은 ‘사이, 틈’을 의미하므로 시간에는 쪼갤 수 있는 ‘量’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다. 克洛德·拉爾(Claude Larre)는 “‘時間’에서 ‘間’은 시간이 몇가지 조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를 통해 시간에 ‘量’의 개념이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¹⁴⁾.”라고 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週期性(Rhythmus)¹⁵⁾에 의해 시간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주기성은 ‘반복’을 낳으며 ‘반복’은 ‘횡수’를 낳고, ‘횡수’는 ‘量’을 낳는다. 예43에서 ‘횡수’는 부정사 ‘不’와 결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43의 앞의 예는 문장이 성립되므로 ‘시간’을 量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과 ‘나눌 수 없는 시간’으로 구분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¹⁶⁾. 예37부터 예42까지는 모두 시태조사와 결합된 문장이거나 이에 대한 답을 표시하는 문장이다. 시태조사와 결합한다는 것은 예43의 수량사와 결합하는 문장처럼 ‘시간’을 量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을 黃正德(1988:88)은 ‘사건의 계량화(quantification of events)’로 보고 있으며 본 논고에서는 ‘시간의 공간화’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시간의 공간화’라는 개념에 대한 부정에는 반드시 ‘沒(有)’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沒’의 원래 개념은 ‘無’와 같이 ‘존재’에 대한 부정을 표시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본다면 ‘존재’, ‘공간’, ‘시간의 공간화’, ‘사건의 계량화’는 ‘운동’

14) 路易·加迪(Louis Gardet) 등, 《文化與時間》, 臺北: 淑馨出版社, 1992.1, 31쪽.

15) 토를라이프 보만(Thorlief Boman)은 “時界를 정하는 것으로서의 하늘의 빛들은 인간에게 상이한 느낌들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그것들은 시간을 객관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상응하는 것은 인간의 주관적인 시간감각이다. 태양과 달에 대한 관찰을 기대할 수 없는 짐승들까지도 예민한 시간감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시간감각들은 육체적 週期性(Rhythmus)들에 관련되어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주관적인 시간을 알려주는 것으로 우리는 잠과 깨, 일, 휴식, 식사시간 등을 든다. 우리에게서 짧은 週期性들도 있다: 심장의 鼓動, 맥박들, 호흡들, 이외에 수많은 개인적 주기성들이 있다”라고 했다.

16) 石統智(1992)는 전자를 ‘離散量’, 후자를 ‘連續量’이라 불렀다.

‘시간’, ‘공간의 시간화’ 등과 대비를 이루어 모두 같은 맥락에 있게 되는 셈이다. 예41의 ‘有看過’를 보면 ‘看過(본 적이 있다)’라는 사실이나 상황의 ‘有(존재)’를 표시하고 있다. 이것도 ‘沒’가 ‘시간의 공간화된 개념’에 대한 부정을 표시한다는 반증이다.

어떤 대상은 형식(Form, 형태<Gestalt>)과 내용(Inhalt, 질량<Masse>, 질료<Materie>)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는 幾何學의 순수학 형식들로 이루어진 성질들에 의해 규정된 공간을 통해서이다(토를라이프, 183). 즉 어떤 대상의 존재를 파악하고자 할 때는 가로, 세로, 높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삼차원의 공간을 이용한다. 가로, 세로, 높이는 원래 ‘量’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離散量’이다. 그러므로 물체는 기본적으로 ‘離散量’의 개념을 표시하므로 ‘명사’도 ‘離散量’을 표시하며, ‘명사’의 ‘공간화 상태’인 ‘존재’도 ‘離散量’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這裏沒有中國人’은 ‘沒’를 사용하여 부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沒’가 ‘공간개념’의 부정에 사용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상을 종합하면, m개 부정사는 ‘존재’와 관련된 ‘공간’, ‘시간의 공간화’를 표시하며 p개 부정사는 ‘운동’과 관련된 ‘시간’을 표시한다고 할 수 있다.

4. 부정사 변천과정 및 다른 언어에서의 구현

4.1 부정사 변천의 규율과 방향

중국어의 부정사 변천과정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첫째, 부정사 개수의 변천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어의 부정사는 갑골문 시대에서 현대 중국어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 수가 많아지다가 현저히 줄어들어 현재는 ‘沒’과 ‘不’ 두 개만 사용되고 있다. 왜 이렇게 부정사의 개수가 변해왔을까? 부정사 자체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이는 중국어의 각 요소, 즉 통사분포, 음운분포, 의미투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면 각 영역에 대한 고찰을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통사분포(syntactic distribution)의 변천이다. 통사적 분포의 변화에 있어서 근대한어 시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了’, ‘着’, ‘過’와 같은 時態助詞가 성숙기에 접어들고, ‘了’, ‘來’, ‘去’와 같은 事態助詞, ‘得’, ‘來’ 등과 같은 構造助詞가 발전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動補構造’도 다양한 통사적 형식을 보이며 발전한다¹⁷⁾. 중국어의 통사적 특징은 ‘語順’과 ‘虛詞’로 대표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근대한어 변천을 요약한다면 통사적 분포에서 ‘기능사(functional word) 혹은 標識(marker)’의 기능 강화와 그에 따른 몇 가지 ‘어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대한어 시기의 부정사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예를 들면 고대한어에서 부정사로 사용되던 ‘毋’·‘弗’·‘微’·‘蔑’ 등은 근대한어에서 부정사로 쓰이지 않으며, ‘沒’ 등과 같은 부정사들이 새로이 출현하여 점차적으로 발전하게 된다.¹⁸⁾

44. 師曰：「喫飯也未？」 對曰：「未喫飯。」(선사께서 가로되：「밥을 먹었는지요 아직 안 먹었는지요?」 대답하여 가로되：「아직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262a2)
45. 師曰：「喫飯也未？」 對曰：「喫飯了也。」(선사께서 가로되：「밥을 먹었는지요 아직 안 먹었는지요?」 대답하여 가로되：「밥을 먹었습니다.」) (83b7)

예45에서는 ‘了’를 사용하여 초보적인 ‘완료’의 의미를 표시하고 있으나, 예44에서 보듯이 부정사는 아직 ‘未’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예44의 「未喫飯。」은 현대 중국어의 ‘還沒有吃飯’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를 통해 ‘還’이라는 기능사가 출현하여 발전함으로써 부정사의 통사적 형식도 ‘沒有’로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無’도 ‘無有’와 ‘沒’가 혼용되던 제1차 과도기를 거쳐 현대 중국어에서는 ‘沒’와 ‘沒有’를 같이 사용하는 제2차 과도기 과정을 밟고 있다.¹⁹⁾

17) 자세한 논의는 劉堅 등(1992:6-8)을 참조.

18) 자세한 논의는 拙著(1999b) 참조.

19) 자세한 내용은 拙著(1999b:159-163)과 拙稿(2000)를 참조.

46. 師云：「眉且不是目。」(선사께서 가로되：「눈썹은 결코 눈이 아니다.」) (159a6)
47. 師曰：「專甲不是那邊人。」(선사께서 가로되：「저는 그곳 사람이 아닙니다.」) (78b7)
48. 行者云：「不是風動，不是幡動。」(행자가 가로되：「바람이 움직인 것이 아니고, 깃발이 움직인 것이오.」) (46a11)
49. 師云：「我不是患聾。」(선사께서 가로되：「나는 귀를 앓는 사람이 아니오.」) (209a13)

예46에서부터 예49까지를 살펴보면 근대한어 시기에 이미 ‘不是’의 사용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祖堂集》에는 ‘非’·‘非是’ 및 ‘不是’의 통사구조가 동시에 출현하고 있는데, 이는 ‘관계’를 나타내는 부정사가 ‘非’에서 ‘非是’의 과도기를 거쳐 ‘不是’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²⁰⁾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볼 때 근대한어의 ‘기능사’가 많이 출현하고 그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어 부정사도 그 개수가 줄어들면서 부차적인 의미소는 ‘기능사’에게 그 기능을 넘겨주고 기본적인 의미소·예를 들면 ‘부정(모순, 반대)’, ‘시간’, ‘공간’ 등·만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갔다. 湯廷池(1994:99)는 이를 상고한어의 ‘종합형식(synthetic form)’에서 현대중국어의 ‘분석형식(analytic form)’으로의 발전 추세라고 말하고 있다.²¹⁾

셋째, 음운분포의 변천과 어휘의 선택이다. 몇 천년의 변천과정을 거쳐 중국어의 부정사는 ‘沒’와 ‘不’ 두 개만이 사용되고 있다. 《祖堂集》에 출현하는 부정사 중 m계의 가장 無標的인 부정사는 ‘無’이며 p계의 가장 無標的인 부정사는 ‘不’이다. 이것은 이들 부정사의 생명력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생명력이 강해야 하는 ‘無’는 왜 소실 되었으며, 또 왜 ‘沒’가 m계의 대표적인 부정사로 선택되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음운의 변천과 어휘의 선택, 즉 규율과 방향이

20) 자세한 내용은 拙著(1999b:289) 참조.

21) “這些否定詞中的演變似乎也顯示從上古漢語的「綜合形式」(單純詞)到現代漢語「分析形式」(複合詞)的發展趨向。”

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無’는 근대한어 시기를 거치면서 그 음소가 변하게 된다. 즉 /m/ → /m̥·/ɥ/ → /∅/의 변천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곧 m/p계 부정사의 구분이 흐트러짐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당시에 막 새로 생겨나 쓰이기 시작한 ‘沒’가 ‘無’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 m/p계 부정사 구분의 일관성을 지금까지도 유지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규율에 따라 방향을 잡아가는 일련의 ‘自淨過程’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연계가 오염이 되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는 것처럼 언어도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어의 변화·발전은 처음부터 어떤 원칙이나 규칙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방향성을 잡아 원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중국어의 부정사의 변화도 이런 ‘自淨過程’을 겪어왔다. 원고시대의 同源詞에서 출발하여 m/p계의 부정사로 나뉘어 발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모순·반대’와 ‘시간·공간’이라는 규율을 찾아 그 방향으로 발전해갔다. 근대한어 시기에 들어 ‘無’의 음운변천, 몇몇 부정사의 소실, ‘기능사’의 발전 등으로 m/p계의 구분이 흐트러지는 듯 했으나 다시 ‘沒’라는 부정사의 어휘 선택을 통한 방향성을 잡아 ‘모순·반대’, ‘시간·공간’ 및 m/p계 부정사의 규율을 유지해오고 있다.

넷째, 의미투영의 ‘自淨作用(Self-purification)’이다. 石毓智(1992:33-46)는 ‘連續量’과 ‘離散量’, ‘定量’과 ‘非定量’²²⁾을 기준으로 삼아 현대중국어의 부정사를 연구하였다. 그는 ‘連續量’을 나타내는 낱말을 ‘連續量詞’라 하였으며, ‘離散量’을 표시하는 낱말을 ‘離散量詞’라 하였다. 전자는 ‘不’로만 부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후자는 ‘沒’로만 부정을 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형용사 중에서 ‘有點’, ‘很’, ‘最’ 등과 같은 정도부사로 수식만 할 수 있으며 앞뒤에 수량사를 둘 수 없거나 완성태조사 ‘了’와 결합할 수 없으면 이것은 완전한 連續量詞로 ‘不’로만 부정할 수 있으며, ‘沒’로는 부정할 수 없다. 예컨대 ‘籠統’, ‘平淡’, ‘普通’ 등이 있다.

22) “量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신축적인 범위를 가진 낱말을 ‘非定量詞’라 하며, 의미상으로 하나의 點만을 표시하여 부정한 후에 ‘less than’의 뜻을 받아들이 만한 공간이 없는 낱말을 ‘定量詞’라고 한다. 전자는 ‘不’와 ‘沒’로 부정할 수 있지만 후자는 그럴 수 없다.”

어떤 형용사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면서 또 앞뒤에 수량사를 둘 수 있으며, 혹은 조사 ‘了’와 결합할 수 있다. 이 형용사는 連續量과 離散量의 성질은 다 갖추고 있으므로 ‘不’로도 부정할 수 있으며 ‘沒’로도 부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高²³⁾’, ‘長’ 등이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통사적 분포’의 변화로 인하여 부정사가 갖는 의미도 달라진다. 현대중국어의 부정사에도 ‘모순·반대’, ‘시간·공간’의 기능이 내재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離散量·連續量’이라는 의미소가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고에서는 이를 ‘意味의 追加投影(Additional projection of meaning)’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것은 인간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 더 정밀해지듯이²⁴⁾ 의미투영도 더 다원가치화되고 세밀해짐을 표시하는 반증이라 하겠다. 즉 현상계에 대한 인간의 의미투영, 통사투영이 더 정밀해지고 정교해지면서 발생한 의미투영의 ‘自淨作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言語의 自淨原理(Self-purification of Language)’라 부른다.

4.2 한국어와 영어에서의 구현

앞에서 중국어의 부정사는 ‘모순’과 ‘반대’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것이 또한 통사적인 투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모순’은 ‘存有’와 ‘관계’에 대한 부정을 표시하면서 ‘바꾸기’라는 통사적인 투영을 겪으며, ‘반대’는 ‘作爲’와 ‘性狀’에 대한 부정을 표시하면서 ‘붙이기’라는 통사적인 투영을 겪는다고 하였다. 그러면 이런 구분이 다른 언어에서는 어떻게 통사적으로 구현되는 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한국어를 살펴보자.

23) ‘有點高’, ‘很高’, ‘一尺高’, ‘高一尺’, ‘高了’, ‘這棵樹不高’, ‘這棵樹沒高’ 등과 같은 예문을 만들 수 있다.

24) 100미터 달리기에 대한 기록을 쟁 때, 지금은 ‘백 분의 1秒’ 단위까지 계산을 하지만 옛날로 거슬러 올라 갈수록 이런 계산법에 대한 필요성은 희박해진다.

50. 나는 책이 없다.
51. 나는 책을 볼 수 없다.
52. 그가 없다.
53. 이 세상에 그는 존재하지 않는다.
54. 나는 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55. 그는 책을 보지 않는다.
56. 저 꽃은 예쁘지 않다.
57. 나는 학생이 아니다.

위의 예문을 통해 볼 때, 한국어에 쓰이는 대표적인 부정사는 ‘없다’, ‘않다(아니 하다)’, ‘아니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예50과 예51은 ‘없다’로 부정하고 있다. 모두 ‘존재’에 대한 부정을 표시하고 있다. 전자는 ‘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며, 후자는 ‘내가 책을 볼 수 있다’는 명제의 실현여부, 즉 가능성의 존재 유무에 대한 의미를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예54는 ‘소유’의 개념인 ‘가지다’에 대한 부정을 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어에서는 ‘존재’와 ‘소유’라는 개념에 대한 부정을 표현할 때 부정사를 분리하여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어가 ‘존재’와 ‘소유’라는 개념을 하나의 ‘存有’라는 개념으로 통사적인 투영을 하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두 개념이 서로 분리되어 통사적인 투영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예56은 ‘예쁘다’라는 ‘性狀’ 개념에 대한 부정의 표현이다. 이 때 사용되는 부정사는 ‘않다’이다. 이것은 한국어에서 ‘동작’, ‘행위’, ‘성질’, ‘상태’ 등의 개념이 부정으로 표시될 때는 동일한 통사적 투영을 거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51과 예55을 비교해보면 모두 ‘보다’라는 용언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자는 뒤에 다시 체언, 즉 불완전명사가 와서 이의 존재여부를 묻는 말이 되어 ‘없다’로 부정하고 있으나 후자는 ‘행위’를 나타내는 용언이 와 ‘않는다’로 부정하고 있다. 또 예52과 예53를 비교해보면 전자는 ‘있다’에 대한 부정이고, 후자는 ‘존재하다’에 대한 부정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행위’를 표시하는 ‘하다’라는 어미가 올 때는 ‘않다’로 부정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어에서 부정을 표시할 때 ‘존재’와 ‘행위’를 엄연히 구분하여 표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을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 존재(있다) - X'
 소유(가지다) - X + 않다
 동작, 행위(일반동사) - X + 않다
 성질, 상태(형용사) - X + 않다
 관계(이다) - X'

한국어에서는 '존재'와 '관계'를 표시할 때는 술어의 '바꾸기'라는 통사적 투영을 통해 부정을 표시하므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언중에게 있어서 이 두 개념은 '모순'이란 개념을 표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소유', '동작·행위', '성질·상태'는 '붙이기'라는 통사적 투영을 통해 부정을 표시하므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언중에게 이 두 개념은 '반대'란 개념을 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한국어에서도 '모순', '반대'에 대한 부정사의 통사적 구현이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8. He is not here.(그는 여기에 없다)
 59. He doesn't have enough money.(esp AmE) / He hasn't (got) enough money.(esp BrE)²⁵⁾(그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60. She does not study English.(그녀는 영어를 공부하지 않는다)
 61. It is not white, but is black. (그것은 회지 않고 검다)
 62. It is not white.(그것은 회지 않다)
 63. He is not young, but is old. (그는 젊지 않고 나이가 많다)

예58은 '존재'에 대한 부정을 표시하고 있다. 예4에서 예6까지는 '性狀'에 대한 부정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의 부정은 모두 'be' 동사 바로 뒤에 부정사 'not'²⁶⁾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59는 '소유'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 예문에서 미국에서 사용하는 영어와 영국에서 사용하는 영어가 용법상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25) 이 예문은 Randolph Quirk, Sidney Greenbaum(1973:184)에서 재인용.

26) 영어에서 쓰이는 부정사는 'not' 외에도 'no'가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영어에서도 음운상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안/an/과 '없/ep', 중국어의 'm'과 'p', 영어의 'not'과 'no' 사이의 제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한다.

조동사 'DO' + 'not'의 형식을 'have' 동사 앞에 위치하게 하여 부정을 표시하고, 다른 하나는 'have' 동사 바로 뒤에 부정사 'not'을 붙여 부정을 표시하고 있다²⁷⁾. 예60은 '동작'과 '행위'에 대한 부정을 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존재'나 '性狀'에 대한 부정표현법과는 달리 조동사 'DO' + 'not'의 형식을 동사 앞에 두어 부정을 표시하고 있다. 이상의 통사적 투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존재(is) - X + not

소유(have, got) - X + not(영국식 영어), DO not + X(미국식 영어)

동작, 행위(일반동사) - DO not + X

성질, 상태(형용사) - X not + X'

관계(is) - X + not

영어에서의 여러 개념에 대한 통사적 투영은 중국어와 한국어처럼 '바꾸기'와 '붙이기'의 방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두 '붙이기'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붙이기'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어 통사적인 분포의 대비를 이루고 있다. 하나는 술어 바로 뒤에 부정사 'not'을 붙이는 것('직접붙이기')이고, 다른 하나는 술어 앞에 'DO + not'의 통사적 형식을 추가하는 것('덧붙이기')이다. 전자는 '존재', '성질·상태', '관계'의 개념에 사용되고 있으며, 후자는 '행위·동작'의 개념에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소유'에 대한 통사적 형식은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전자는 'DO + not'의 형식을 취하고 후자는 술어 바로 뒤에 부정사 'not'을 붙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영어에서도 '모순'과 '반대'에 대한 부정사의 통사적 구현은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전자는 술어 바로 뒤에 부정사를 붙이는 형식을 취하고 후자는 '조동사+부정사'의 형식을 추가하여 사용한다.

27) 이런 통사적 투영의 차이는 이 언어형식(linguistic form)을 사용하는 언중의 '소유' 관념에 대한 변화를 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구분 개념	통사적 분포(syntactic distribution)			모순, 반대			비 고
	중국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	
존재	바꾸기	바꾸기	직접붙이기	모순	모순	모순	
	有→無	있다→없다	BE→BE + not				
소유	바꾸기	붙이기	직접/덧붙이기	모순	반대	모순/ 반대	
	有 → 無	가지다 → 가지다+않다	have → have + not, DO not + have				
관계	바꾸기	바꾸기	직접붙이기	모순	모순	모순	
	是 → 非	이다→아니다	BE → BE + not				
동작 행위	붙이기	붙이기	덧붙이기	반대	반대	반대	
	X → 不 + X	X → X + 않다	X → DO not + X				
성질 상태	붙이기	붙이기	직접붙이기	반대	반대	모순	
	X → 不 + X	X → X + 않다	BE+X → BE+not+X				

위의 그림을 보면 ‘존재’, ‘관계’, ‘동작·행위’의 개념에 있어서는 중국어, 한국어, 영어의 ‘모순·반대’에 대한 구현양상이 모두 일치한다. 그러나 ‘소유’와 ‘성질·상태’의 개념에 있어서는 중국어, 한국어, 영어의 ‘모순’ 및 ‘반대’에 대한 통사적 투영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이는 ‘變化’라는 기준으로 이원가치의 원리를 적용시켜 구분해 볼 수 있다. 위의 개념은 첫째 ‘변화하지 않음(常)’과 ‘변화함(變)’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으로 ‘변화함(變)’을 다시 ‘움직임(動)’과 ‘고요함(靜)’으로 나눌 수 있으며, 또한 ‘변화하지 않음(常)’은 다시 ‘[+공간]의 변화하지 않음(存有)’과 ‘[-공간]의 변화하지 않음(關係)’으로 나눌 수 있다²⁸⁾. ‘[+공간]의 변화하지 않음(存有)’는 다시 ‘存在’와 ‘所有’로 나눌 수 있다. 이 분류를 ‘성질·상태’의 통사적 구현에 적용시켜 본다면, 중국어나 한국어는 ‘성질·상태’를 ‘고요함(靜)’으로 보고서 그 상위개념으로 ‘변화함(變)’이 있음을 표시하지만, 영어에서는 1차적 분류인 ‘常’과 ‘變’에서 끝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질·상태’를 ‘常’의 개념으로 보아 ‘모순’을 표시하고 있다. 중국어에서는 ‘소유’를 ‘모순’의 통사적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반대’의 통사적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식 영어

28) 이에 관한 자세한 구분은拙著(1999b:49-53)을 참조.

에서는 ‘반대’라는 통사적 형식으로 영국식 영어에서는 ‘모순’이라는 통사적 형식으로 투영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원가치는 ‘모순’을 낳으며, 다원가치는 ‘반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 둘은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며 하나의 유기체로 이원가치의 연속성이 다원가치를 낳는다. 이런 점에서 위의 통사적 투영을 의미적 투영을 반영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현상계에 대한 투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통사상의 일반화는 의미상의 일반화를 반영한다”²⁹⁾는 말과 통할 수 있다. 이것은 언어 내면에는 언중의 현상계에 대한 보편성과 특수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위의 분석을 통해 보면 부정과 관련된 보편성은 ‘존재’, ‘관계’, ‘동작·행위’의 개념에 대한 부정에 있으며, 특수성은 ‘소유’, ‘성질·상태’의 부정에 있다. 이런 특수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즉 언어와 사유방식, 언어와 민족성 등 언어와 사유의 연관성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5. 結 論

모순·반대에 대한 중국어 부정사의 구현양상은 통사적 형식에 있어서 ‘바꾸기(substitution)’과 ‘붙이기(addition)’이다. ‘存有’와 ‘관계’의 개념은 ‘모순’을 표시하여 ‘바꾸기’로 나타나며, ‘동작·행위’, ‘성질·상태’의 개념은 ‘반대’를 표시하여 ‘붙이기’로 나타났다. 한국어와 영어에서도 모순·반대에 대한 변별적 통사분포가 드러난다.

시간·공간에 대한 중국어 부정사의 구현양상은 음운적 형태로 나타나는데 즉 m계 부정사와 p계 부정사이다. m계 부정사는 ‘공간개념’, ‘시간의 공간화된 개념’을 표시하였으며, p계 부정사는 ‘시간개념’을 표시하였다. 선진시기부터 현대까지 이 두 계통을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 오고

29) 이기동(1983:184). 이기동의 이 부분은 Ray S. Jackendoff의 <Grammar as Evidence for Conceptual Structure(개념구조의 증거로서 문법)>를 번역한 것이다.

있다. 부정사의 소설, 출현, 음운의 변화, 기능사의 출현 및 기능강화 등으로 이 패러다임이 깨질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만 어휘의 선택을 통하여 규율과 방향을 유지해왔다. 이를 본 논고에서는 ‘言語의 自淨原理 (self-purification of language)’이라 명명하였다.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면, 동원사에서 출발한 중국어 부정사는 m/p계라는 음운적인 대비 및 ‘바꾸기’와 ‘붙이기’라는 통사적인 분포를 이용하여 ‘모순·반대’, ‘시간·공간’이라는 의미투영을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렇듯 중국인들은 線形構造(linear structure)로 된 언어라는 1차원의 세계와 二元價値를 이용하여 두뇌만큼 복잡한 과정을 거쳐, 다원가치로 구성된 3차원의 세계(객관세계)와 4차원의 세계(가능세계)를 절묘하게 표현해내고 있다.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³⁰⁾로부터 만들어낸 어휘를 통사론, 음운론적인 규율과 방향을 찾는 ‘自淨作用’을 통하여 현상계의 의미투영을 精緻하게 그려오고 있다.

參考文獻

- [南唐]靜·筠, 《祖堂集》, 京都: 中文出版社, 1984.6
 [南唐]靜·筠, 《祖堂集》, 臺北: 新文豐出版社, 1987.6
 Allwood(등)저, 전병래(등)역, 《논리언어학》, 서울: 한신문화사, 1987.5.
 橋本萬太郎 著, 河永三 譯, 《언어지리유형학》, 서울: 학고방, 1990.12
 金岳霖主編, 《形式邏輯》, 秦皇島: 人民出版社, 1979.10.
 路易·加迪(Louis Gardet) 등, 鄭樂平 등 譯, 《文化與時間》, 臺北: 淑
 馨出版社, 1992.1.
 石毓智, 《肯定和否定的對稱與不對稱》, 臺北: 臺灣學生書局, 1992.7.
 宋國明, 《句法理論概要》,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7.7.
 易孟醇, 《先秦語法》, 長沙: 湖南教育出版社, 1989.7.

30) 河永三(1996:50, 2000:81). “사람이 주제가 되고 있으며, ‘사람’이라는 잣대를 통해 자연을 인식하고 세계를 보려하는 사유적 특징을 갖고 있다.”

- 奧托·葉斯柏森, Otto Jespersen著, 何勇 等譯, 《語法哲學(*The Philosophy of Grammar*)》, 北京: 語文出版社, 1988.12.
- 劉堅 등, 《近代漢語虛詞研究》, 北京: 語文出版社, 1992.3.
- 劉文英, 《中國古代時空觀念的產生和發展》,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79.
- 이기동 편저, 《언어와 인지》, 서울: 한신문화사, 1983.9.
- 이정민, 배영남, 《언어학사전》, 개정증보판, 서울: 박영사, 1987.10.
- 早川(S. I. Hayakawa)著, 柳之元 譯, 《語言與人生》,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7.2.
- 존 에클스(John C. Eccles) 지음, 박찬웅 옮김, 《뇌의 진화-자아의 창조》, 서울: 민음사, 1998.3.
- 湯廷池, 《漢語詞法句法五集》, 臺北: 臺灣學生書局, 1994.9.
- 토를라이프 보만(Thorlief Boman) 저, 허 혁 옮김,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 경북: 분도출판사, 1975.5.
- Randolph Quirk, Sidney Greenbaum, 《*Concise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 Longman Group Limited, 1973.
- 鄧守信, <Negation and Aspects in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1:1, 1973a, pp.14-37.
- 鄧守信, <Negation in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2:2, 1974, pp.125-140.
- 鄧守信, <Scope of Negation>,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1:3, 1973b, pp.475-478.
- 鄧守信著, 張旭譯, <論漢語否定結構>(南開大學中文系《語言研究譯叢》編輯組編, 《語言研究譯叢》第一輯, 天津:南開大學出版社), 1984, 116-138쪽.
- 白銀姬, 《《左傳》否定句句法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 國文研究所 博士論文, 1994.
- 楊聯陞, <漢語否定詞雜談>, 《清華學報》新九卷第一·二期合刊, 民國六十年九月, 160-191쪽.
- 張泰源, <助詞「了」字의 語法 機能 研究>, 《中國語文學》第15輯, pp.

319-351, 1988.

- 張泰源, <漢語連續態研究>, 《中國語文學》第17輯, 1990.6, pp.193-236.
- 張泰源, 《漢語動貌體系研究》, 國立臺灣大學 中文研究所 博士學位論文, 1994.3.
- 張皓得, <<祖堂集>否定詞 패러다임(Paradigm)>, 《中國語文學》第33輯, 1999c, pp.151-184.
- 張皓得, <矛盾, 反對 그리고 「確定反對」와 「不確定反對」-現代中國語 否定詞의 語法理論>, 《中語中文學》第24輯, 1999d, pp.107-125.
- 張皓得, <선종어록 《祖堂集》에 나타난 부정사 '未'의 용법 연구>, 《인문연구논집》第4輯, 동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a, pp.157-179.
- 張皓得, <現代中國語의 '沒', '有' 및 相(aspects)>, 한국중국어문학·중국문화 연합학술대회 논문집, 2000.
- 張皓得, 《<祖堂集>否定詞之邏輯與語義研究》, 國立政治大學 中文研究所 博士論文, 1999b.
- 河永三, 甲骨文에 나타난 時間 表現法의 特徵, 한국중어중문학 춘계연합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0, 63-84쪽.
- 河永三, 甲骨文에 반영된 인간중심주의(淑明女子大學校 中國學研究所, 《中國學研究》제10집), 1996.8, 49-73쪽.
- 黃正德, <說「是」和「有」>, 《歷史語言研究所集刊》第五十九本第一分,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88.3, 43-64쪽.
- Teng Shou-Hsin, <Negation in Chinese>, *JCL*, Vol.2, No.2, 1974.5.

中文提要

‘矛盾·反对’和‘时间·空间’在汉语否定词之投射

本文通过汉语否定词在逻辑·语法和语义上的分析探讨‘矛盾·反对’与‘时间·空间’在否定词的语法投射(syntactic projection)和语音投射(phonetic

projection)。

在语法投射上, 汉语否定词用‘替换(substitution)’和‘附加(addition)’的语法手段表示‘矛盾关系(contradictory relations)’和‘反对关系(contrary relations)’。‘存有’和‘关系’等概念在语法形式上显现为‘替换’的语法形式而表现出‘矛盾关系’概念。‘动作·行为’, ‘性质·状态’等概念在语法形式上显现为‘附加’的语法形式而表现出‘反对关系’概念。韩语和英语也出现这种对比现象, 笔者把它做为本文立论的傍证, 如韩语和英语分别用‘替换/附加’和‘直接附加(direct addition)/补加(supplementary addition)’的语法手段表示‘矛盾’和‘反对’。

在语音投射上, 汉语否定词的‘时间’和‘空间’概念显现为m系否定词(用m开头的否定词)和p系否定词(用p开头的否定词), 即m系否定词表示‘空间’和‘时间的空间化’等概念, 而p系否定词表示‘时间’概念。近代汉语时期在语言形式上发生了许多变化, 如否定词的产生和消失·语音变化·功能词(functional word)和标识(marker)的出现及其功能的强化等。其中特别指出的就是m系否定词‘无’的消失。从近代汉语到现代汉语的演变过程中, 最无标的m系否定词‘无’现在已不用作否定词, 所以后来选当时新产生的否定词‘没’作现代汉语的否定词用。虽然汉语否定词中间经过了语音的‘脱变’, 可是这种语音对比(m/p系否定词的体系)一直没有变化, 就是说汉语否定词经过‘语音对比的维持’和‘词的筛选’的语法手段, 从古到今一直维持m/p系否定词的变化表(paradigm)。由此可窥见汉语的否定词像环保的自净过程一样经过寻找规律(即‘语音对比的维持’)和方向(即‘词的筛选’)的演变过程维持语言的投射原则, 我们把它称为‘语言的自净公理(self-purification of language)’。

总之, 从同源词发展出来的汉语否定词从古到今一直维持汉语否定词的变化表(paradigm), 即用‘m/p的语音辨别’和‘替换/附加’的语法分布‘投射出’矛盾/反对’和‘时间/空间’等概念。如此看来, 中国人用由线形结构(linear structure)形成的语言结构这种一维世界和二元价值, 透过错综复杂的过程, 把由多元价值形成的三维世界(客观世界)和四维世界(可能世界)如实地描写出来。换言之, 中国人依据人间中心主义的原则产生词汇, 寻找语法和语音上的规律和方向, 精致地投射出现象界。

现代汉语单双音节介词功能差异研究

金 昌 吉*

<目 次>

§0 引言	二、造成单双音节介词功能差异的原因
一、几组近义单双音节介词的功能差异	三、余 论

§0 引言

0.1 有闲单双音节的问题，吕叔湘先生早在1963年就有过相闲的论述。其中的有些观点，虽然没有具体的阐发，但已引起了许多后进者的闲注，近年来已有很多学者对有闲的问题进行了具体和深入的研究。

0.2 现代汉语的介词也有单、双音节之分，单音节介词如：“据、自、从、依、对”等，双音节介词如：“根据、自从、依据、对于”等等，这是极为简单的事实。我们所闲心的竝不是表面上的这些音节差异，而是在音节差异之下所表现出来的句法、语义及语用功能上的差异。本文将探讨那些在语义上相近，但范围不同，而且在句法功能及语用表现上也有所不同的单双音节介词的差异，竝对造成这些差异的原因进行一些初步的探索。

0.3 对现代汉语介词的单双音节的考察，我们主要闲注的是那些在语义上相近的几组，但有时也会对整个现代汉语介词在单双音节上的对立进行一些探讨。

* 新罗大学 中国学科 客座教授

一、几组近义单双音节介词的功能差异

1.1 现代汉语中有几组介词在语义上相近,但有单双音节上的对立,如:“按、照:按着、按照”;“本:本着”;“朝:朝着”;“趁:趁着”;“乘:乘着”;“冲:冲着”;“除:除了、除掉、除去、除开、除却”;“打、从、自、由:自从、自打、打从、从打、由打”;“当:当着”;“对:对于”;“据、依、照:根据、依据、依照”;“距、离:距离”;“顺:顺着”;“随:随着”;“为:为了、为着”;“向:向着”;“沿:沿着”等等。与单音节介词形成对立的双音节介词的构成方式主要有以下几种:a、在单音节介词后加“着”或“了”,如“为:为了、为着”,这种形式占有很大比例;b、两个近义的单音节介词并列,如:“距、离:距离”、“打、从、自、由:打从、从打、自打、由打”等,这种型式也较常见。但值得注意的是,这类双音节介词并非都具有两个或几个与之近义的单音节介词,如“依据、依照”有与之相类的“据、依、照”,但“根据”却只有一个与之相类的“据”,“根”却不是介词;c、其他,如“对:对于”;“除:除掉、除去”等等。这几组介词在具体的使用中,有的在音节搭配上有限制,有的则在句法、语义、语用功能上都有一些值得注意的差异。

1.2 单双音节介词的对立有些是处于分化过程中的竞争状态(详下),有些则属于语言的冗余现象,如:“除/除了”与“除去、除开、除掉、除却”:“为/为了”与“为着”;“从/打”与“打从、从打、自打”等。后者是语言规范的问题,不是我们目前所要研究的。

1.3 有闲单双音节介词在功能上的差异,我们在1996年就曾做过一些初步的研究,以下择其要阐述其中的一些观点,并在此基础上做进一步的阐发。

1.3.1 句法功能上的差异

1.3.1.1 搭配上的差异

搭配上的差异有两种:一种是音节上的搭配差异,一种是固定格式搭配上的差异。我们先看音节上的搭配差异。单音节介词后既可以出现单音节的名词或代词,也可以出现多音节的名词性词语,而双音节介词后一般只能出现两个或两个音节以上的名词性词语,不能是单音节的词语。例如:从此→*自从此、*打从此;为民除害→*为了/着民除害;依法→*依照法;按时→*

按着时;本此精神→*本着此精神;按人口(计算)→按着人口(计算);顺这条路(走下去)→顺着这条路(走下去)等等。固定格式搭配上的差异表现为,有些固定格式只能容纳单音节的介词,不能容纳双音节的介词,例如:从左到右→*打从左到右;有些则单双音节均可,如:对/对于…来说。我们发现,与介词相关的固定格式中,大部分是单音节介词,双音节介词的则较少,即便是单双音节均可的,也以单音节的使用为常。例如:从…起/开始;从…说/来说/说来;从…看/来看/看来;从/打…以后/以来;由…可见;除/除了…以外/之外;按…说/讲/来说/说来;当…时/时候;在…上/方面;在…下;为…所;拿…来说;等等。

1.3.1.2 句法位置和功能不同

单音节介词+单音节名词往往要紧靠动词谓语中心而位于句中,而双音节介词+双音节(或多音节)名词性词语却常常可以远离谓语中心而位于句首,例如:

(1) 公安机関依法对他们进行了惩处→*依法公安机関对他们进行了惩处。

(2) 公安机関依照法律对他们进行了惩处→依照法律,公安机関对他们进行了惩处。

另外,一些单音节介词,如“在、向、往、于、自、以”等,可以位于某些动词或形容词之后,构成一个“相当于一个动词”的结构(胡裕树主编,1987a,b),而与之相关的双音节介词,如“向着、自从、自打”等各没有这样的用法。

此外,在考察中我们还发现,几乎所有的双音节介词构成的介词短语都可以位于句首,即使他们有时用在句中,也大都可以移至句首。例如:

(3) 他对于打仗,想得很简单→对于打仗,他想得很简单。

(4) 我通过小王找到了我小学时的朋友→通过小王,我找到了小学时的朋友。

而有些双音节介词所构成的介词短语在作状语时,只能位于句首,如“关于…”,

(5) 关于经费,各单位自筹→*各单位关于经费自筹。

单音节介词+单音节名词或代词所构成的介词短语可不加“的”直接作定

语(当然大多也可加“的”，但结构显得有些松散)，而双音节介词与其他词语构成的介词短语在作定语时则通常要加“的”。例如：

(6) 对华政策／沿途各站／沿海城市／随身物品(可加“的”，但结构显得松散了，而且这类定中结构大多带有一定的熟语性，如“沿海”可以与“内地”直接对照使用)

(7) 为了我的献身精神→*为了我献身精神

(8) 这兄是我依照直觉的一种判断→*这兄是我依照直觉一种判断

“关于”、“对于”较为特殊，它们所组成的介词短语作定语时往往可以不带“的”，但带“的”与不带“的”一样，通常会产生歧义。如“关于定性问题”，既可以是 a、关于定性／问题，也可以是 b、关于／定性问题。“对于”也有类似的情况，如“对于常见句式研究”。这种情形一般要在具体语境中加以区别。

单音节介词所构成的介词短语可位于谓语动词后，如：

(9) 扔在桌子上／来自中国／生于1964年(动词后介词及介词短语的性质和功能是什么，目前还有很多争议，参看金昌吉，1996)

而双音节介词构成的介词短语却只能位于句中或句首。

1.3.2 语义范围上的差异

单双音节介词在语义上的差异较为复杂，不同的组有着不同的表现。从整体上看，单音节介词的语义范围是大于或等于双音节介词的语义范围。大多数常用的单音节介词的语义范围都较双音节介词的语义范围大，比如“对”比“对于”的使用范围大；“为”比“为了、为着”的使用范围大；“从”比“自从、打从”等的使用范围大等。

例如，“对”和“对于”。“对”除了具有“对于”的各个义项外，还可表示目标和方向，与“向”、“朝”相当：

(1) 我对他鞠了一躬。

(2) 他对我笑了笑。

(3) 他又对那些洋水果看了看，这才离去。(侯学超例)(以上例句中的：“对”都不能换成“对于”)

“为”和“为了、为着”(wéi)。

“为”有两个读音，一个是“为”(wéi)，一个是“为”(wèi)。“为”(wéi)与

“为了、为着”并无多大关系。因此这里只考虑“为”读作wèi时的情况。“为”在现代汉语中有三个基本义项:(一)引进动作的受益者,相当于“给”或者“替”。例如:

- (4) 为人民服务。
- (二) 表目的。例如:
- (5) 为共产主义事业奋斗终身。
- (三) 表原因。例如:
- (6) 他为失去工作忧虑不安。

“为了、为着”可表示目的,但没有“为”的第一个义项的用法,至于有没有“为”的第三个义项的用法,目前尚有不同的看法,我们先一个例句:

(7) 梁实秋先生为了《拓荒者》上称他为“资本家的走狗”就做了一篇白云“我不生气”的文章。(《鲁迅全集》第4卷)

这句话中的“为了”显然是表原因的。这种用法在五四时期并不少见,可以说是“为”向“为了”发展的一种继承性演变,现在已不大常用。另外,表原因而且使用频率也较高的“因为”、“由于”完全可以起到与“为了”同样的作用。因此,在语言运用中,“为了”已趋向于只表目的,表原因则用“因为”或“由于”。这是一种趋向规范化的变化。“为着”同“为了”。

“从、自”组。

在这一组中,“从”的语义功能最齐全,使用范围也最大。其他词的各种用法一般都可以用“从”来替换。我们先把“从”的各种用法列举出来,然后再与其他词一一比较:

- (一) 表处所起点。
- (8) 闲话少说,张木匠拿上这件得劲的家伙,黑丧着脸从他妈的房子里走出来,回到自己的房里去。
- (二) 表时间起点。
- (9) 从合作社成立以来,支部年年种实验田。
- (三) 表事物的来源。
- (10) 知识从实践中来。
- (四) 表经田的路线、场所。
- (11) 列车从隧道里穿过。(以上两例为《八百词》例)

(五) 表某一范围的起点或出发点。

(12) 从中央到各个地方，都要有一批勇于探索，精力较好的人。

(六) 表发展变化的起始。

(13) 中心点从以阶级斗争为纲转到以发展生产力为中心，从封闭转到开放，从固守成规转到各方面的改革。

(七) 表取得的处所。

(14) 出发之前，我从文化馆借了一份地图，想熟悉一下路线。

(八) 表凭借、根据。

(15) 从把甩臂的架势，迈步的姿态，阿拉坦一眼就认出，正是阿爸朝鲁。

(九) 表说话的着眼点或所依据的事理，常与“看(看来、来看)”、“说(说来、来说)”等搭配使用。

(16) 从思想史的观点看，西方近代的知识分子的起源和十八世纪启蒙运动的关系最为密切。

(十) 表动作、行为的着眼点，常与抽象名词 + “上、方面”等搭配。

(17) 要真正从思想上解决问题。(《八百词》例)

“自”在(一)(二)(三)(四)四种用法上与“从”基本相同，而其他用法则是“自”所不具备的。

“自从、自打”的功能最为单一，只在(二)用法上与“从”相当，但也仅限于表示过去的时间起点。

“打”在(一)(二)(三)(四)(七)五种用法上与“从”相同，但其他几种则不具备。“打从、从打”同“打”。“由”则在(一)(二)(三)(四)(五)(六)(八)(九)各用法上与“从”基本相同(“由”还有其他用法，如表施事等，因与“从”不同义，所以不在这里讨论)。虽然单音节与单音节、双音节与双音节也各有差异，但总的来看，其中还是单音节介词的语义范围较双音节介词的语义范围广。

其他如“当”和“当着”、“趁”和“趁着”、“沿”和“沿着”等，虽在音节搭配的表现上有所不同，但语义范围是一致的，没有大小之别。

1.3.3 语用上的差异

单双音节介词在语用上的差异主要体现在以下几个方面：(一)语体上的不同，如带“着”的双音节介词大多用于书面语，如：“朝”与“朝着”：“趁”与“趁

着”：“冲”与“冲着”：“随”与“随着”等等。当然情况并非完全如此，因为语体上的不同还与他们的历史渊源有关，如：“本”与“本着”都用于书面语，“打，从，打从，从打”等用于口语，而“自，自从”则多用于书面语：“除，除了，除掉”等口语，书面语都可用，而“除却”则只用于书面语。(二)使用的地域不同。如：“从”，“自”是说写汉语的人都用的，前者用于口语，后者用于书面语，而“打，打从，从打，自打”则只通行于北方话。以上两个方面的区别都不具有普遍性，只在某一组中形成对立。(三)使用频率上的不同。这一点在单双音节的对立中较为明显。总的来看，大多数单音节介词在使用频率上要高于相应的双音节介词，如：“对”比“对于”的使用频率高，“为”比“为了/为着”的使用频率高，“从，打，由”比“打从，从打”。

二、造成单双音节介词功能差异的原因

2.1 单双音节介词存在功能上的差异，我们通过以上的比较分析已可以清楚地看到。为什么音节上的差异会造成二者在其他功能上的差异，这是我们目前所关心的问题。

2.2 句法功能的差异中，音节搭配上的限制好解释，这语汉语的节奏倾向有关。因为现代汉语是以双音节为主流的语言，所以在具体的组合上也就形成了一种单配单，双配双的结构样式。奇加奇，偶加偶，搭配起来也显得较为整齐。用吕叔湘先生(1979)的话说，就是“这种限制起源于语音(双音化的趋势)，影响到语法”。其他句法功能上的差异则是由于单音节介词+单音节名词或带代词这种结构大多太自由，粘附性较强，因而造成了这种结构在作状语时通常紧靠句中动词，作定语时可不加“的”直接附于名词之上。单双音节介词构成的介词短语还位于谓语动词后，也与单双音节介词的虚化和粘附性有关(参看金昌吉，1996)。

2.3 语义上的差异似乎较为复杂。按照我们的理解似乎有以下几个方面的原因：(一)语义功能的分化。语义上的差异从一方面看似乎是语义范围大小的问题，但从另一方面看又未尝不可以看作是它们在语义功能上的进一步分化，双方在不同的义项上互有分工，各有所承。单双音节从表面上看是语音

的对立,但从词汇的角度看却未尝不可以说是量级或几个不同的词的对立。既然是不同的词功能必定会有所不同。在分化的过程中就会产生竞争,直到彼此的语义功能趋于固定。(二)虚化。从虚化的角度我们不难理解这样一个简单的事实,即单音节词比双音节词更容易虚化,而虚化的一个主要的表现就是意义的泛化,这也就造成了单音节介词在语义范围上大于双音节介词的现象。另外,虚化还会造成语义的重新分配,如“于”在虚化的过程中,其语义功能有些就分散于现代汉语中的其他介词如“在”、“比”、“对”等身上,这样,其他介词的语义功能就会有所膨胀,而整个现代汉语介词的语义功能也要进行相应的调整。“以”、“从”、“自”、“由”等介词在虚化的过程中也有类似的情况(参看金昌吉,1996)。虚化也是造成“当”和“当着”、“沿”和“沿着”等在语义范围上等同的原因。由于这一类词还保留着一些动词de特性,因此在使用 的过程中,两种形态的表现会同时共存,但语义上却并无差异。

2.4 造成单双音节介词在语用上的差异的原因无非是以下几条:(一)不同方言交汇融合的结果。普通话在不断地吸收各方言的词语,但同时也在不断地选择和淘汰。在这种选择和淘汰的过程中,自然会形成一些同义或近义词语的并列,也包括一些单双音节词语的共存,如“自、从、打:从打、打从、自打”等。(二)书面语和口语的分化。语言发展的理想状态应该是书面语和口语一致,可汉语由于历史和其他各方面复杂的原因,书面语与口至今还存在着一定的分歧,这种分歧自然也体现在词语的不同选择上。如“离”与“距、距离”、“根据”与“据、依、照、依据、依照”等,都是前面的词语多用于口语,而后面的则多用于书面语。(三)表意的需要。我们前面已经说过,单双音节介词在义项的分布上有所不同,有些义项在语言的表达中是常用的,有的则不常用,在加上语义范围的大小不同,因此也就造成了单双音节介词在使用频率上的不同。

三、余论

3.1 不少单双音节介词的对立是由于单音节介词后“着”或“了”的附着。我们以前(金昌吉,1996)曾对这个问题做过一些阐述,现在看来,其中的有些

观点并不十分正确,需要修正。我们发现,凡是可以加“着”或“了”的介词在功能上都或多或少地保留了一些近似于动词的功能,如“冲/冲着”、“为/为了/为着”、“按/按着/按照”、“本/本着”、“趁/趁着”、“乘/乘着”、“顺/顺着”、“随/随着”等。例如:

- (1) 这样处理是按照党的政策。
- (2) 我这是冲老梁。冲你,什么都不给。(以上吕叔湘例)
- (3) 我们奋斗了几十年,就是为了消灭贫困。
- (4) 每次吵架,最后我还不是顺着你。
- (5) 我为人人,人人为我。

这些介词短语可以在一定的条件下充当谓语,(1)(2)(3)(4)是在前谓语“是”(吕叔湘,1979)后,(5)是前后形成并列的对立结构。虽然有条件,但还是与一般的介词的功能有所不同,而与动词性词语的功能相近。现代汉语的介词本来大多都是从动词虚化而来的,因此我们认为,双音节介词中的“着”和“了”虽然已经不再是“体”标记(石毓智,1995),但它们依旧是动词形态的残余。

3.2 许多虚词都有单双音节的对立,这种音节上的对立也都影响到句法、语义和语用。如副词有基础形式和重叠形式的对立,例如“万:万万”;“频频:频频”;也有一般的单双音节的对立,例如“才:方才”;“在:正在”等等。这些单、双音节相对的形式,在一系列的特点上都有着自已不同的表现(张谊生,1995)。

3.3 吕叔湘先生(1963)曾经说过:“在现在汉语里,单音节成分的活动是常常受到一定的限制的”。这句话对大部分实词来说无疑是正确的。对介词来说,似乎有两种相反的倾向:一是一些常用的虚词大多是单音节的,而且在语义功能上要比相应的双音节词广,使用频率也高。如“为”、“对”、“从”等。一是一些不太常用的介词则恰恰与吕先生所论述的相符。如“随着”、“沿着”、“本着”等都比相应的单音节介词“随”,“沿”,“本”在使用上要自由一些。

主要参考文献

- 候学超编, 1998, 《现代汉语虚词词典》, 北京大学出版社.
- 胡裕树主编, 1987a, 《现代汉语》(增订本), 上海教育出版社.
- _____, 1987b, 《〈现代汉语〉使用说明》(增订本), 上海教育出版社.
- 金昌吉, 1996, 《汉语介词和介词短语》, 南开大学出版社.
- 陆俭明, 马真, 1985, 《现代汉语虚词散论》, 北京大学出版社.
- 吕叔湘, 1963, 《现代汉语单双音节问题初探》, 《中国语文》第1期.
- 吕叔湘, 1979, 《汉语语法分析问题》, 商务印书馆.
- 吕叔湘主编, 1980, 《现代汉语八百词》, 商务印书馆.
- 石毓智, 1995, 《时间的一维性对介词衍生的影响》, 《中国语文》第1期.
- 孙朝奋, 1994, 《〈虚化论〉评介》, 《国外语言学》第4期.
- 张谊生, 1995, 《现代汉语副词的功能研究》, 上海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
(打印本).

韩国中文系二年级学生的 汉语学习特点及教学对策

华 霄 颖*

<目次>

一. 引言	
二. 韩国中文系二年级学生的 汉语学习特点	1. 结合学生的兴趣安排 教学内容
1. 兴趣型的学习动机	2. 利用韩语中的汉字词 进行词汇教学
2. 母语环境中的汉语学习	3. 在课堂上创造汉语学习环境
3. 以母语为媒介的语言输入	4. 口语教学的一种尝试-- 聚合式主题教学法
4. 母语干扰下的语言输出	
三. 教学对策	四. 结束语
	参考文献

一. 引言

作为交换教授,笔者自1999年9月至2000年6月在韩国任教一年,担任大学中文系汉语口语课的教学工作。在具体的教学过程中,从教材的选择到教学内容的确定、教学程式的设计等各方面,都深深体会到与在国内进行的对外汉语教学大相径庭。为了深究这一区别的就里,笔者曾设计了一份学生学习情况调查表,调查内容主要涉及学习动机、学习内容、学习方法与学习难点。因为笔者在韩期间主要担任二年级的汉语口语课程,同时也因为从语言

* 中国 华东师范大学 国际中国文化学院 讲师,韩国 东义大学 中文系 交换教授
(huaxiaoying@ccc.ecnu.edu.cn)

学习角度看，每个学习阶段都有着各自不同的特点，都有研究的价值，因而问卷调查主要在二年级学生中展开。另外，笔者还通过因特网调查了韩国大学中文系的课程设置。本文试图结合调查结果和教学经历，对韩国中文系二年级学生的学习动机、语言学习环境、语言输入、语言输出各方面的特点作一阐述，并提出针对学生特点而设计的教学对策。需要说明的是，因为调查范围有限，难免挂一漏万，以待各位指教。

二. 韩国中文系二年级学生的汉语学习特点

1. 兴趣型的学习动机

用巴甫洛夫的观点来看待学习，学习是起源于情境变化的刺激，这是任何学习发生的不可缺少的构成因素，这种刺激最终能维持多久便取决于学习动机。学习动机是引起学习活动的动力机制，最终决定学习行动的方向。学习动机包括学习需要和学习期待，简单地说，就是为什么要学和达到什么样的学习水平。前者将直接影响学习者在学习过程中的注意力、情绪和状态，而后者能加强学习动机，使学习者长久保持积极的学习态度。在我们的调查中，在对“为什么学习汉语”这一问题的回答上，64.6%的学生是因为“对汉语感兴趣”，24.6%的学生是因为“关心中国”，只有6%的学生回答是为了去中国而学习汉语。在对“你希望你的汉语水平 a)能和中国人说话 b)能和和中国有关系的公司工作 c)能去大学院学习”一题的回答上，56.5%的学生选择a)，30.4%的学生选择b)。而对选修中国老师用汉语讲授的课程的四年级学生的随机调查则显示90%以上的学生选择b)，这说明他们的学习目的十分明确——为在求职中具有竞争力而努力学习汉语。相反，二年级的学生因为还未深入考虑自己的发展前途，故而学习动机是兴趣型的，并不指向明确的学习目的；对自己应该达到什么样的汉语水平，大部分学生的认识也很模糊。这与中国学习汉语的留学生也显示出了差异。有研究者将在中国学习汉语者的学习目的分为“汉语工具类”和“汉语专业类”，大致不差(陈绂，1997)。但值得

注意的是,对在中国的汉语初学者来说,即使是“汉语专业类”者,也必须先过以“汉语工具”为学习目的这一关。因为他们先得先解决在中国的日常生活用语。因而,对在中国学习的汉语初学者而言,汉语作为日常生活的交际工具这一特点是十分明确的,体现出迫切性。而这一点,却是在母语环境中学习汉语的学生大都不具备的,因而他们仅仅是凭着对汉语或对中国的好感开始学习,这是完全可以理解的。如何巧妙地利用学生的这种兴趣并将之深化,是每个汉语老师应该考虑的。同时因为学习动机直接作用于具体的学习活动,对学生学习动机的考察,也是选择教学内容、确定教学方法的一个出发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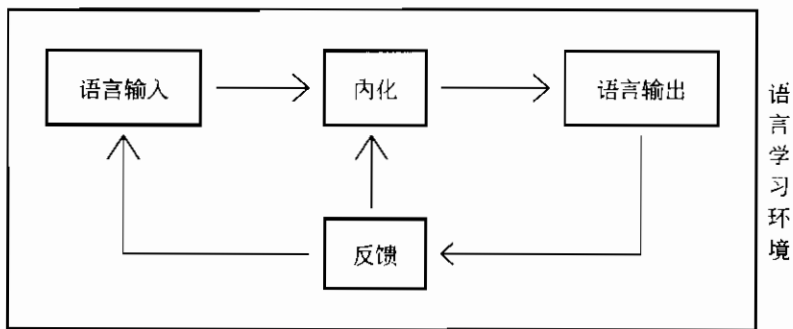
2. 母语环境中的外语学习

在韩国学习汉语,是一种母语环境中的汉语学习,和在目的语环境中的第二语言学习是有很大的不同的。这主要体现在语言学习环境这一点上。一般把语言学习环境分为社会大环境和课堂小环境。前者指语言学习者所处的社会的语言环境,而后者包括教师在课堂教学中提供的语言环境及组织学生使用目的语进行的语言交际训练活动。显然,母语环境中的汉语学习者在社会大环境上处于劣势。对于在中国学习的汉语学习者来说,他们无时无刻不处在目的语的语言环境中。在课堂教学以外,他们也可以通过解决自己的日常生活需要或和操目的语的者的交际需要、认识目的语国家等种种迫切愿望的过程,自然而然地习得汉语,并且将这种自然的习得与课堂环境中有意识的关于语法规则的学习密切结合起来,从而获得语言能力。社会大环境对目的语学习的作用是十分明显的,因而一些国家的汉语教学者想方设法创造母语环境中的汉语学习环境,如美国的明德暑校、马里兰暑期中文师资培训班等。这些学校都试图用种种手段创造一个“中国化”的环境。从教学和活动场所陈设的中国艺术品到供观赏的中国影视作品,从课堂学习到日常生活,使学生时时刻刻处于看“中国”、听“汉语”、说“汉语”的人造语言环境中。“中国城”附近的学校,还常常带学生到“中国城”去体验中国人的生活。据称学习效果很好(刘珣,1992)。这种名为“沉浸法”的教学方式仅适用于具有强化性质的封闭的学习环境,并不适合课堂常规教学,但创导者重视语言环境对语言学习的作用,并根据学生的语言环境调整教学对策的做法却是符合语言学习理论的,

值得母语环境中的汉语教学者借鉴。对于在母语环境中学习汉语的韩国中文系学生来说，课堂是他们最主要的汉语学习环境，因而如何根据课程的教学目的最大限度地利用课堂环境至为重要。

3. 以母语为媒介的语言输入

李宇明(李宇明, 1992)曾将语言学习阐述为在一定的语言学习环境中由语言输入、内化、语言输出、反馈四环节构成的连锁过程，并建表如下：



可以看出，四个环节互相作用，形成一个互动的动态过程，而语言输入是每一个学习过程的起点，它包括学习者在语言学习过程中接触到的各种语言素材。因而，必须搞清楚学生的语言输入特点，从而制定相应的教学对策。而我们的调查也表明，在语言输入这一点上，韩国中文系二年级学生有着鲜明的特点。

我们从社会语言环境和课堂语言环境两个方面来考察。先从社会语言环境看，因为是母语环境中的外语学习，缺乏目的语环境中学习汉语所具备的良好语言环境，因而以汉语为媒介的语言输入甚少。调查显示，学生比较喜欢中国影视音像作品。但是，由于学生的汉语水平有限，一般只能借助韩语翻译理解内容；另一方面，由于种种原因，这些作品大部分是来自香港的粤语作品。因而，能作为汉语素材输入的内容很少。最近，也有教师利用中国的普通话vcd和中国网站上的有闲文章作为汉语课的辅助内容，学生很感兴趣，

但因词汇量和语法点的原因,不适宜二年级学生,即使对高年级学生而言,也只能借用母语翻译手段讲授。近来,韩国国内有关汉语学习的网站越来越多,除了交流留学情报、解答疑问外,也有不少网站开设了初中高各级水平的会话课程,所有课程内容均用韩语加以注释、讲解,无一例外。那就是说,如果学生能自觉利用汉语网站进行学习,也是以母语为媒介的。笔者曾口头询问过常去这些网站访问的学生(多为四年级学生),一般都是以搜索招聘信息为目的。二年级学生中能在课外自如地使用这些方式作为增加语言输入的途径的很少,原因是还不具备相当的汉语能力。因此,可以这么说,母语环境中学习汉语的韩国中文系二年级学生,能从社会语言环境中得到的汉语语言素材微乎其微,且都是以母语为媒介手段。再从课堂环境中的语言输入看,除了直接用汉语授课的会话课外,还有用韩语讲授的相关汉语课程。网上对韩国部分大学中文系课程设置调查的结果表明,虽然各类课程的比例因学校的教学目标不一而各异,但汉语语言类课程的开设则较为一致:一年级有基础汉语课,一般由韩国老师讲授;二、三年级有中、高级汉语口语课,一般由中国老师担任,同时开设由韩国老师教授的中、高级汉语讲读课(着重于培养阅读能力)和汉语语法课;四年级则开设实用性较强的报刊汉语、贸易汉语、实用汉语作文之类课程。当然,作为中文系学生,他们同时还学习有闲中国文学、文化的专业课。因此,虽然直接用汉语为语言媒介输入的汉语内容只有口语课程,但以韩语为媒介输入的汉语内容可谓不少,这些内容都将直接作用于学生的汉语学习。这种情况造成了二年级学生在开始汉语口语课程时的二面性:一方面,囿于上文所说的社会语言环境的限制,缺乏汉语语言素材的输入和使用汉语的机会,造成学生开口难或一开口错误百出的表象,易导致教师过低估计学生已有的汉语知识;而另一方面,他们同时也以母语为媒介接受了相当的汉语词汇、语法规则等内容,却因为缺乏使用环境而不知如何用于表达。初次赴韩任教的中国教师往往不易察觉二年级学生这种汉语交际能力与汉语知识水平不匹配的特殊情况。而且,这种以母语为媒介的语言输入方式也造成了学生在学习汉语时对母语的极大依赖性:每学目的语中一个词汇或一条语法规则,必得先通过母语的转换进入记忆。如此,在语言输出时,又必得借助于母语的参照用目的语表达,形成韩国中文系二年级学生汉语学习的又一特点:母语干扰下的语言输出。

4. 母语干扰下的语言输出

可以从语音、词汇、语法、语用四个方面来分析这一特点。

1) 语音

从知识学习的角度看，这些学生在一年级时都已在基础汉语这一课程中系统地学过汉语语音知识，初步掌握了汉语声母、韵母、四声的发音方法，能拼读音节，但从学生语言输出的实际情况看，还有不少问题。

声、韵母的发音。笔者注意到，有一些韩国的汉语教材在语音教学阶段用韩语字母作注。这样做在某种程度上可称得上效果显著。因为在韩国学习汉语，没有那么好的语言环境，初学者的语音分辨力很差，如果以他的母语或较熟悉的外语为参照，可以帮助他找到相应的发音位置。但是不能到此为止，接着该指出对应的两个音之间的差异，这样才能学到汉语声韵母的正确发音。从二年级学生的实际发音情况看，与韩语接近的汉语音，学生常会受母语影响产生负迁移。比如声母“l”和“r”常用韩语中的“ㄹ”代替，“乐”、“热”不分；“s”和“x”常用“ㅅ”代替，“小”、“少”同音；“f”这个唇齿音在韩语中没有，但由于韩语中有些以“ㅍ”打头的汉字词，对应的汉语词声母为“f”，所以“p”、“f”不分，“fushan”念成“pushan”，“pengyou”念成“fengyou”；“zh”和“j”则发成“ㅈ”。韵母同样有这种情况。“an”和“ang”常发成发音位置介于这两者之间的“안”音。较难的是“i”这个音，因为在实际发音中受韵母影响而略有分别，而学生常发成韩语中的“ㅡ”音。“ü”则常被发成类似“위”的音。

音节的拼读。音节的拼读，受声、韵母发音的影响。如果声、韵母发音不对，音节拼读自然也不对。值得注意的是连读现象。韩语中词的各音节之间能连读，即前一个音节的最后一个辅音和后一个音节的第一个元音拼读。但是汉语音节之间是不能连读的。学生的这种连读现象往往发生于和韩语类似的情况，前一个音节以“n”或“i”结束，而后一个音节以零声母或“h”打头。如“ni hao”常有人发成“niao”，“xi huan”发成“xiuan”，“yin wei”发成“yin nui”，“pian yi”发成“pian ni”。当然，这些错误不多，一旦向学生重申汉语音节的发音规律，学生极易纠正。

声调。声调是韩国学生的语音难点,因为韩语中没有声调。根据笔者去年对二、三年级口语测试的录音分析,三声是二年级学生最易出错的声调。因为三声在实际句子中产生变调,最常错的是将一个词第一个音节的半三声发成二声,进而影响第二或第三个音节的声调。如将“mèi guó”发成“m éi guǒ”,“mèi gè rén”发成“méi gě rén”。另一种情况正好相反,将二声误发成半三声,如将“nán péng you”发成“nǎn péng you”、“shuō wán le”发成“shuō wǎn le”,是刻意注意了三声而矫枉过正,连二声也成了三声。第三种情况是一个双音节词的最后一个音节的一声,常常发成象四声那样下抑的声调,但又不象四声那样彻底。这些声调上的问题是否与韩语中以词为单位的发音特点有关,因为笔者的韩语水平有限,不敢贸然下结论,希望能得到韩国学者的指教。¹⁾

语调。语调已不是单纯的语音问题,和语用有很大的关系。语调有时能决定句子的意思。但是在汉语教学中如何教语调,仍是一个薄弱点。在中国的汉语学习者因为是在目的语环境中学习,大量接触生动、丰富的汉语语言,也对他们感受汉语语调有益。而韩国学习者自然没有这种条件,如果课堂不教,是无从掌握正确的语调的。大部分二年级学生在朗读或表达时很难把握重音在哪里、何处停顿。

2) 词汇

在我们的调查问卷中,有一题是这样的:“你觉得汉语什么最难? a)语音 b)词汇 c)语法”。统计结果表明,51.9%的学生认为语法最难,39.5%的学生认为语音最难,而仅有8.6%的学生认为词汇最难。韩语有近60%的词是汉字词,这些词与汉语的部分词音义近似,有的意思完全相同。这给韩国学生学习汉语带来了很大的便利。这也是韩国学生认为汉语词汇不难的一个原因,同时亦是韩国汉语学习者较其他国家汉语学习者而言具有的特殊性。但是事物总是具有两面性。在汉姆莱的外语词汇困难层次模式中,那些位居高

1) 郑沃根教授看了此段后提出这些声调问题与韩语中的地方口音也有关系。比如因为釜山话和汉城话词的发音特点不同,有可能导致两地学生在声调上的不同发音特点。

难度的词汇就是因为和母语比较形式近似而在同义语义范围内的意义不同和意义趋于分散或集中的近似(据盛炎, 1990)。曾有韩国学者将《普通话三千常用词表》中的汉语常用词与韩语中的汉字词作了对应研究, 发现同形比例较高的是: 实词中名词分类中的抽象名词(占90%以上)和有关政策、法律、经济、社会、文化、学术、教育等领域的名词(占80%、70%以上)、表示方向位置、思想感情的词(占70%以上), 动词分类中的有关政治、法路活动的词(占81%以上), 形容词分类中有闲社会情况的形容词(占90%以上), 数词分类中有闲数目的词34个中33个汉韩同形; 虚词中表示范围和肯定否定的副词(占60%以上)(郑宪哲, 1993)。由此可见, 由于历史上文化交流的原因, 韩语中大量保留了现代汉语中仍在使用的表示抽象事物名称的名词、表示抽象行为的动词、对事物进行抽象描述的形容词。但是, 同形并不等于同义, 存在着意义重叠交叉或完全不同的情况, 即使是同形同义, 也可能在语法或语用层面(如语体)产生错位。当然还有形似而义同的词存在, 或韩语中用作一个词而汉语中已不成词, 只能用词组表达的情况。二年级学生口头表达中的错误大都是由汉韩词汇这种似是实非的情况造成的。

3) 语法

如前所说, 语法在调查中被认为是最难的。主要的原因是汉语和韩语分属两个语种, 语法规则完全不同。从收集到的语法错误分析, 二年级学生的错误较多地来自母语的负迁移影响。这种情形和学生的语言学习环境有关。正如前文所论述的, 作为外语学习, 韩国学习者除了在有限的汉语课上学习和使用汉语, 再没有真实的语言环境, 不可避免地受到母语甚多干扰; 另外他们大部分的汉语知识是通过母语的解释而进入头脑, 也就是说, 他们已经习惯以母语为媒介的翻译式的语言输入, 久而久之, 在语言的输出上, 也无法摆脱母语的束缚, 形成翻译式的输出方法, 即要用汉语表达一个意思, 必得先形成那个意思的韩语表达式, 然后逐词译成汉语, 完成这个表达过程。这种现象早已被国外语言学家证实, 认为外语初学者倾向于用母语中的范畴和结构来分析学到的外语语句, 因而在运用外语时, 也会用母语中的一些成分来代替外语中的成分(据许余龙, 1992)。二年级学生正处于这样的初级阶

段。请看下列病句的汉韩对照。

- | | |
|--------------|------------------|
| 1. 今天比昨天很热。 |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습니다. |
| 2. 我想很多赚钱。 |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
| 3. 他今年是二十一岁。 | 그는 올해 21살 입니다. |
| 4. 在窗外有下雨。 | 창밖에서 비가 내리고 있다. |
| 5. 我给他说。 | 내가 그에게 말하겠다. |
| 6. 我很高兴了。 | 나는 매우 기뻐다. |

前三个句子是将韩语直译成汉语造成的,说话者除了SVO这一语序外,完全不考虑汉语的语法规则。后三个句子比较复杂,既有母语的干扰,也有目的语语法规则的泛化。第四个句子,可能学生在学习汉语介词“在”时将之与韩语的“에”作了对应,韩语用“에”时,汉语一概用“在”,殊不知这个句子恰恰不能用“在”。第五个句子也类似,认为“에게”就是“对”、“给”。第六句则是把汉语中表示动作完成的“了”和韩语表示过去时的结构变化对应,故只要发生在过去,不管动词、形容词,不管需要不需要,一概加“了”。这里表现出的泛化也是因为将汉语的语法规则与韩语的语法规则简单化的一一对应造成的。

要说明的是,在另一种情况下,学生也不得不借助翻译的方法表达,那就是当他需要用未学过的语法规则来表达时。这时产生的错误另当别论。

4) 语用

在语用层面上,同样反映出因习惯于语言输入和语言输出上的翻译方法带来的缺陷。每个民族的语言都反映了这个民族独特的思维、文化习惯,因而,语言的使用,离不开那个特定的语言环境。同样一句话,如果对不同民族的入说,有可能变得不可理解甚至南辕北辙。因此,注意语用习惯是完成语言交际功能的關鍵。如果不考虑语用环境,只是简单地将母语中的意思用目的语直接翻译出来,有时会造成误解。母语环境中的外语学习者因为缺乏目的语语言环境,急需在教学中给予语用层面上的指导。教一个表达方式,不仅要让学生了解意思,也要让他知道什么时候说、对谁说。笔者刚到韩国时,有一次课间休息,坐在课桌旁与学生聊天,恰巧里座的学生从教室外进来,

我见势让其进入，却不料她用汉语说了句“等一会儿”，我百思不得其解。待某次在超市挡了店员的路，店员用韩语说了这句话，才恍然这句可以表示“等一会儿”意思的句子此时用汉语该说成“让一让”。在“买东西”这一主题的教学中，笔者根据学生在交际训练中的语用错误，特地将汉语和韩语中不同的购物习惯用语进行了对比教学。

어서 오세요. * 快进来。 请进。或 欢迎光临。

무엇을 찾으세요? * 你找什么？ 你要买什么？

사과 두 개 주세요. * 请给我两个苹果。 我要买两斤苹果。

(两国买水果时计量单位不同)

여기 있어요. * 这儿有。 给你。

学生说的句子完全符合汉语语法，但是与汉语的习惯不符，故应给予指导。二年级学生另一个典型的语用错误是“네”的用法。韩语中常用“네”回答对方的问话或表示回应。因为“네”表示肯定，所以学生一概用“是”，而不知道汉语中因前一句话的不同意思有“是”、“是啊”、“好吧”、“可以”、“对”、“知道了”等多种表达方式，完全视语用环境决定。

三. 教学对策

1. 结合学生的兴趣安排教学内容

如前所述，二年级学生的学习动机是“兴趣型”的。兴趣的维持可长可短，教师的引导作用甚为关键。一要在教学中不断鼓励学生，增强学生的学习信心。有这样一个现象引起笔者的注意，即年级越高，选修中国老师用汉语讲授的课程的学生越少。那些淘汰者是不是都没有能力继续学习汉语呢？其实未必。调查中有一题让学生评估自己的汉语口语水平，认为“不太好”和“不好”的各占41%和30%，比例之高令人吃惊。当然这种选择和亚洲人自我评价时的谦虚倾向有关，但还是能反映出相当一部分学生存在潜在的学习焦虑。一旦这种焦虑到了自身无法承受时，学生就会选择放弃学习。因而教师

应该善于发现学生的点滴进步,及时予以鼓励,增强其学习汉语的自信心,延长其学习兴趣的维持期限。同时在安排教学内容时,必须考虑结合学生的兴趣。兴趣是不断变化的,教师应该适度地进行引导并加以利用。比如学习有闲天气的内容,教师先介绍中国某个城市的天气情况,然后让学生模仿介绍其家乡或所在城市的天气情况。学生听的时候饶有兴趣,因为没去过中国;说的时候也兴致勃勃,因为中国老师对他说的内容感兴趣。总之,在课堂教学中教师应根据学生的兴趣点充分调动学生学习汉语的积极性,有效地实施教学目的。

2. 利用韩语中的汉字词进行词汇教学

词汇是困扰外语学习者的一大难题,主要表现在词汇量上。外语学习者都会有这样的体会,在基础学习阶段过后,初步掌握了该语言的基本语法规则时,会出现这样一种临界现象:想要尝试表达得多一些时,却发现词不达意,原因是词汇量不足。词汇量不能达到一定的标准,会影响汉语水平的提高。因为韩语中至今仍频繁使用汉字词,因而韩国学生对汉语词汇的领悟力较高。在韩国教中文系学生学习汉语,学生语言背景单一,完全可能利用汉韩词汇比较分析的研究成果进行针对性教学,有效地扩大学生词汇量。这种方式的词汇教学可根据各阶段的教学目标和学生的实际水平进行。二年级可在教材范围外,适当增加一些汉韩共有的日常生活常用词汇的教学。上文提及的那些同形率较高的抽象词汇,则适合在开设报刊课的四年级进行集中教学,有助于提高学生书面语体的阅读能力和表达能力。当然,汉韩词汇的对应十分复杂,在教学中应特别强调词性、词义、语体、语用上的差别,帮助学生正确掌握词汇。

还有一类词汇是韩国学生易掌握而目前在汉语教学中尚很少被人注意的,那就是汉语成语。韩语中有大量的故事成语,多为四字结构,因为多来自中国古代典籍,意义与汉语成语相近。因此,在对比基础上教授汉语成语,学生是容易接受的,不会象西方国家学生因文化差异太大而难得其中要领。自然,这种教学内容因其适用于书面语也宜安排在高年级。

3. 在课堂上创造汉语学习环境

在韩国学习汉语的一大劣势是缺乏使用汉语的大环境，二年级学生在语言输出时表现出来的种种问题都直接或间接地与此有关。因而应尽可能利用课堂环境这个有限的汉语学习空间。尤其是口语教学，从教师教到学生学到学生交际训练都必须设置相应的情境。教师教的、学生学的都应该是特定情境中恰当地表达某种需要或思想的语言方式，然后学生在教师模拟设置的情境中进行仿真式语言交际训练，以期通过感性活动加强实际的语言交际能力。在这整个教学过程中，语调和语用的教学内容都可得到强调，并督促学生在仿真训练中得到操练。

4. 口语教学的一种尝试—聚合式主题教学法

这种教学法是笔者根据韩国中文系二年级学生的汉语学习特点而设计的口语教学方式。这种教学法既考虑交际时的功能表达，又考虑表达时的结构，但教学目的不是单一地指向功能项目或结构规则或功能和结构的均衡，而是力图使学生掌握具体情境下的正确表达方式。功能是不能离开具体情境的，而每一个具体情境又是由若干功能点组成的。比如“路遇久未见面的老朋友”这一情境，可由“打招呼”、“互相问候近况”、“就共同兴趣聊天”、“约定下一次见面”、“表示再见”等多个功能点组成，可随双方具体情况增减。而路遇对象的变化，又会带来功能点的变化。如果路遇每天见面的同学，功能点就会不一样。如果将“路遇”确定为教学主题，分情境教授特定情境中的表达方式，那么学生掌握的不是孤立的句子，而是同情境紧密结合在一起的恰当的表达方式。这些主题范围，对已学过一年基础汉语的二年级学生来说，确立为日常生活交际的基本方面如“介绍自己”、“谈论天气”、“买东西”、“生病”、“路遇”等。每个主题又可分设几个场景，如“生病”可分“诉说病情”、“向老师请病假”、“看病”、“看望病人”。聚合式特点指的是在教学内容安排上，考虑二年级学生语言输入不少而开口能力较弱的特点，将学生已学或未学的同一主题的常用词汇、表达式集中在一起教学。一个主题范围的教学过程是这样的：第一步，集中学习同一主题范围的词汇及表达式；第二步，学习课本中

相关主题范围的内容,注重语调、语用方面的学习;第三步,将学生分成若干小组,让其根据教师设置的情境和功能点的要求进行仿真交际训练;第四步,教师根据学生的练习情况进行纠错分析。

聚合式主题教学法的好处在于每一教学过程主题明确,使学生明白这一教学过程结束后应掌握的知识、能力范围;又因为强调了情境,强化了学生的语用意识,让他们学会根据场合选择恰当的表达方式;聚合式的教学方法也能充分调动学生通过汉语或韩语媒介已接受的语言素材,让课堂成为将语言知识转化为语言交际能力的桥梁。从根本上说,这种教学方式是把口语课当作一门实践性的课程,而不是学习性的课程,它不强调“你学到了什么”而强调“你能用这些去做什么”。

四. 结束语

以上所述,可以说是笔者一年中对在韩国进行的汉语教学的一些思考。汉语教学在世界各国方兴未艾,如何加强母语环境中的汉语教学日益成为各国汉语教学研究者研究的重点。其中,以汉语为媒介和以韩语为媒介的针对性教学也正为不同身份的研究者所关注。在这儿,笔者想重申对比分析方法对母语环境中的汉语教学的重要性。如果说对比分析对学生学习过程中的错误预测率过低,首先得考虑学生的语言环境,其次是学习阶段和学习者的年龄。对于母语环境中学习汉语的韩国中文系二年级学生来说,因为前述的以韩语为媒介的语言输入、受韩语干扰的语言输出的特点,必然要运用对比分析方法来预测学习难点、分析和纠正学习错误。有关汉语和韩语比较研究的成果将为在韩国进行的汉语教学提供丰厚的基础,使之更有针对性,更有效果。

参考文献

1. 陈绂, 1997, 《论对外汉语教学的两大类别》, 吕必松主编, 《语言教育问题研究》, 1999, 北京: 华语教学出版社
2. 李宇明, 1992, 《语言学习异同论》, 《世界汉语教学》编辑部编, 《语言学习理论研究》, 1994, 北京: 北京语言学院出版社
3. 刘珣, 1992, 《语言学习理论的研究与对外汉语教学》 同上
4. 盛炎, 1990, 《语言教学原理》 重庆: 重庆人民出版社
5. 郑宪哲, 1993, 《韩国语汇에 대응하는 中国语汇研究》 釜山庆南中国语文学会编, 《中国语文论集》, 1993
6. 许余龙编著, 1992, 《对比语言学概论》, 上海: 上海外语教育出版社.
7. (美)黎天睦, 1987, 《现代外语教学法》, 北京: 北京语言学院出版社.
8. 桂诗春编著, 1985, 《心理语言学》, 上海: 上海外语教育出版社.
9. 周谦主编, 1998, 《学习心理学》, 北京: 科学出版社.

논문개요

이 논문은 설문조사와 그 간의 교수경험을 결합하여 한국의 중어중문학과 2학년 학생의 학습동기, 언어학습의 환경, 언어의 수입, 언어의 수출 등의 방면에 걸쳐 명백히 밝히고, 아울러 학생의 학습적 특징에 근거에 계획한 교학 방법을 제시한다.

语言学革命的深层文化背景

张 淑 贤*

如果说十九世纪是生物学革命的世纪，那么，二十世纪则是语言学革命的世纪。这里的“革命”并不仅仅是某一学科之内的革命，而是指某一学科的革命引起了一个世纪观念的刷新与思想的革命。由索绪尔的《普通语言学教程》引起的语言学革命，并不仅仅是语言学的革命，而且也引发了文学、哲学、人类学等其它学科的革命。形式主义、结构主义、符号学与解构主义的文学批评，作为二十世纪的批评主潮，基本上可以称为语言学批评。列维-斯特劳斯的人类学、拉康的精神分析学、阿尔都塞的结构主义马克思主义，无不深受语言学革命的观念刷新。因此，语言学革命已经越出了语言学本身，而对二十世纪几乎所有的人文社会科学学科产生了广泛而深远的影响。

语言学革命为什么发生在西方二十世纪？其深层的文化背景何在？我们认为，十九世纪达尔文的进化论对基督教人类由来的质疑，马克思以现世幸福之必然性对基督教来世之彼岸的取代，尼采的“上帝死了”等等，都是促成二十世纪语言学革命的基因。在十九世纪以前，上帝是最终的言说者，因而也就为“逻各斯中心主义”(logocentrism)提供了必然性与可靠性。然而，经过十九世纪思想大师对基督教的批判，到二十世纪西方已进入“后基督教信仰”(post-christian)阶段。“上帝死了”，然而人还活着。人还在用语言言说着、思维着，然而最终的言说者、思维着却已随风飘走。正是从这个意义上，清理、研究上帝死后给人类留下的一大堆语言符号就成为时代的要求，而索绪尔的语言学也就应运而生。

* 东西大学 中文系 客员教授

索绪尔为了更科学地研究语言，将语言从历史的变迁中抽离出来，来了一个横向切断，以便进行共时性的凝视。索绪尔认为，语言是一个符号系统，其中每个符号都由能指组成。譬如“猪”这个符号，写成“猪”读作“zhu”是其能指，“猪”意指一种豢养可食的动物是其所指。能指与所指的关系完全是任意的，汉语称之为“猪”的动物，英语称之为“pig”。为什么我们叫它“猪”而你叫它“pig”，完全是运用一种语言的人约定成俗的，没有什么道理可讲。每一语言系统中的符号之所以有意义，就在于这一符号与其它符号的区别，譬如“猪”之为“猪”，不在于“猪”本身有什么意义，而在于“猪”之区别于“猪”、“彘”、“豨”等等。这样，索绪尔又切断了符号与现实的意义对应，而将符号作为一个充满差异的共时系统进行科学研究，试图在言语的下面发现语言系统的语法规则。

索绪尔的语言学理论一经产生，就对二十世纪的人文社会科学产生了巨大影响。伊格尔顿(T·Eagleton)认为，索绪尔的语言学观点影响了俄国的形式主义，詹姆森(F·Jameson)认为，结构主义不过是从索绪尔的语言学角度重新理解一切事物的尝试。对二十世纪人类思想乃至知识生活产生重大影响的一些思想家，如阿尔都塞、拉康、富柯、罗兰·巴特等人，无一不受索绪尔语言学的洗礼。存在主义大师海德格尔的语言观，与索绪尔的也很相似。列维-斯特劳斯的结构主义人类学，也是从索绪尔的语言学理论发展而来的。我们之所以认为这种语言学革命是“上帝死了”的结果，就在于索绪尔、海德格尔、结构主义思想家有一个共同的语言学假设：语言并不仅仅是一种表达观念的交际工具，而是生命的活动范围与存在本身。语言之外即使有什么，也还需要通过语言去理解。因此，语言之外的不需要语言去理解的东西，其实就是上帝。

对于西方思想来说，消解上帝而又新造一个上帝，可以说是一个近代传统。海德格尔那个到处游荡而又无从把握的“存在”(being)列维-斯特劳斯那个神话借人来思维而不为人知的“结构”等等，就又重现了一个冒牌的上帝。从语言学的角度彻底消解这一个个冒牌的上帝，甚至连索绪尔的共时性语言学系统也一道予以消解，就成为德里达(Jacques Derrida)在《论文字

学》等著作中所致力的。德里达作为一个解构主义哲学家，首先是针对结构主义宣战的，然而德里达从语言学入手，不但将“结构”拆散，而且对结构主义的语言学来源，也进行了批判。我们将重点讨论德里达的语言学批判。

索绪尔的语言学切断了语言符号与现实意义的对应关系，切断了语言的发展流变，将语言看成是一个封闭稳定的自足系统，就为德里达的批判留下了缺口。“猪”之为“猪”，在索绪尔看来只是与“豮”、“彘”、“豨”等的区别，然而，在德里达看来，这种区别到哪里才能停下来呢？索绪尔的“语言”应该有一个界限明确的意义结构，然而在语言的什么地方来划定边界呢？在索绪尔那里，符号的意义既然取决于区别即“不是什么”，那么其意义也就不在符号之内，而在整条能指链上。在德里达看来，能指链的延续是无穷无尽的。德里达提出了“分延”(difference)的概念，以纠正共时性语言学对历史性的忽视。他认为意义是无始无终的符号游戏的副产品，能指与所指也不存在习称的对应关系，二者之间也没有固定的区别。你想知道一个能指的意义，一查字典，得到的又是一个能指，再查字典，得到的还是一个能指，你可以永远查下去。而且能指与所指也并非不可以互换，你想知道“美”这一能指的所指，一查《说文解字》，说“美，善也”，你又想知道“善”这一能指的所指，再查《说文解字》，说“善，美也”。更何况能指在不同的语境中会有不同的所指。譬如《现代汉语词典》对“猪”的解释是：“哺乳动物，头大，鼻子和口吻都长，眼睛小耳朵大，脚短，身体肥。肉供食用，皮可制革，鬃可制刷子和做其他工业原料，粪尿可做肥料。”然而说某人“你是一头猪”，就决非上面的意义，而且在不同的语境中又有不同的含义，有时指人很笨，有时指人很贪吃，有时又指人很脏……即使是说人很笨，在不同的能指链上又有不同的含义。德里达认为，没有终极意义就为表意活动的游戏开辟了无限境地。

德里达摧毁了语言学中的上帝，然而留下的却是无意义，游戏与虚无主义。正如宗教中的上帝死后，将西方人留在一片偶然、荒诞、无意义的荒原上，等待希望中的戈多。因此，上帝之死是二十世纪西方语言学革命深层的文化背景。返观我们中国，古来就不太崇上帝，这就是德里达为什么问

中文认同的原因。然而，另一方面，我国语言学界对西方二十世纪的语言革命应该有所回应，不能总是停留在“语言是一种表达观念的交际工具”的前索绪尔阶段，从而参与同世界语言学的对话。

(通讯地址：济南山东大学国际教育交流学院 邮编：250100)

庄子与陆机的《文赋》

宗 明 华*

庄子思想对魏晋文学理论产生影响主要通过两个途径：一是直接的浸润。庄子思想作为一种哲学理论对文学直接产生影响是很自然的。随着文学的发展，人们必然会对文学的种种现象加以抽象，概括，因此哲学思想必然会给文学理论以影响。如曹丕将哲学概念的“气”引入文学理论，提出了“文气论”。二是间接地通过文学创作产生作用。庄子对魏晋文学的思想内容及艺术都有很大的影响，促进了“文学的自觉”，这不仅表现在文学创作中多以写人为主，重在表现人的感情，表现人的个性上，还表现在文学理论中人们对作家的个性特点，文学的抒情本质有明确的理性认识。因此，魏晋时期文学理论在初步形成的过程中，也比较集中地表现出人性意识的觉醒。如曹丕的“文气论”即突出了文学即人学的特点，标志着文学理论已脱离了儒家诗教而直接转向了对文学本体即作家作品的研究。而陆机的“缘情说”则是在此基础上对文学这一抒情本质特征作出了明确的概括。而他的《文赋》更是抛开了功利目的，从文学自身的创作构思，艺术灵感等方面探讨了作家在个体创作时的精神活动。这显然是文学理论走向更高层次的表现。

王瑶先生在《文论的发展》中说：“如果说《典论论文》是代表汉末以来的思想在文学上的应用，则陆机《文赋》正是魏晋玄学的思想表现于文学上的理论。所以大体上说，陆机《文赋》可以代表魏晋人对于文学的一般看法。”¹⁾

《文赋》作为一部古代文论的名作，第一次细致地讨论了文学创作及其内部的一些规律，尤其是从人的主观意识出发谈作家的创作构思更是难能可贵

* 中国烟台大学 教授，釜山外国语大学 中国语系 客座教授

1) 王瑶，《中古文学史论》，北京大学出版社，1998年。

的。因此，很多研究者都认为陆机的《文赋》论创作主要“以老庄道家思想为指导”²⁾ 本文仅从庄子对陆机《文赋》影响的角度作一具体分析。

(一) 序言中有两点是值得注意的。首先，他根据别人及自己的文学创作经验指出作家在创作过程中常出现的一种现象：“余每观才士之所作，窃有以得其用心。”又说：“每自属文，尤见其情。”这已点明了作家进行文学创作是一种由人主观意志所驱使的行为，是要“用心”，是要“见其情”，即表达人内心的思想及情感。遣辞作文是要将人的心与情通过“文”表达出来。陆机开宗明篇就抛开了人以外的一切社会政治，诗教美刺，单刀直入地谈到“人”这个创作主体，表明他已完全把人当作文学创作的主体来研究了。这一明确的认识与魏晋以来对人性的重视，人的主体意识的觉醒是一致的。而正始以来，尤以庄子人生哲学对文人影响最大。

其次，他从人是文学创作的主体出发谈到了作家主观的“意”与“物”的闲系，即作者通过构思形成的要表达出来的“意”，能否准确地反映客观的要表达的对象，并指出了：“意不称物，文不逮意”的著名观点。这方面的探讨，很多论家都谈得相当细致。需要进一步指出的是陆机能提出这样一个复杂的文学创作问题，是建立在他对人的主观思维活动有明确认识的基础上的。自魏晋以来随着士人对人及人性认识的不断深入，对人精神活动的认识也趋具体细致。尤其玄学中言、意之辨的讨论，使人们对“意”的认识更深入了。

魏晋时期的“言、意之辨”源于庄子是没有问题的，庄子谈言、意闲系不是从文学的角度出发，而是以之喻体“道”。因为庄子主张“无言”，“忘言”以达超越，所以庄子非物质而重精神。他看到了物质之“言”对精神之“意”的束缚，阻碍了意与道的冥合才提出“得意忘言”。但庄子却客观地道出了物质之“言”的局限性，这对魏晋文人启发最大。王弼的“言、意之论”是结合《系辞》于言、意之外提出了“象”的概念。“象”虽然是一个哲学概念，但却开始与形象有了闲系，使“言、意之辨”更靠近了文学艺术以形象达“意”这一规律。庄

2) 张少康，《中国文学理论批评发展史》(上)，北京大学出版社，1995年。

子之“意”与道相闲。道不可言，只能意会。由此也可以说庄子的“意”通于“道”。王弼的“意”的内涵是既与言，象相闲，又有不可尽言之妙。

汤用彤在《理·佛·玄》一书中曾指出：

盖陆机《文赋》专论文学，而王弼于此则总论天地自然，范围虽不相同而所据之理论，所用之方法其实相同，均为尽意莫若象，尽象莫若言。得意忘象，得象忘言也。

魏晋人普遍重“意”，不仅“得意忘言”，行为上也重“得意忘形”。这个“意”的内涵就更丰富了。它是一个与“道”相似但又比“道”更具体的并普遍用于人精神上的概念，又常常用于表达人的心，神超越无累的境界。《晋书·阮籍传》中说：阮籍“得意，忽忘形骸”，即是此意。陶渊明《五柳先生传》中讲自己读书“每有会意，便欣然忘食”，是指人在读书过程当中精神所达到的一种高层次的境界。至于《饮酒》第五首中的“此中有真意”，也是指诗人在远离世俗社会，内心虚静达于与山水田园自然融为一体后所感受到的一种至纯至美之境。

在陆机之前，论诗主美刺，比兴，重政教而忽视人这个创作主体。陆机受魏晋以来闲于“言意之辨”的启发，看到了作家在创作过程中“意”与“物”，“言”与“意”的矛盾，将这三者的闲系作为讨论文学创作构思的理论基础，无疑是一个创新。他在《文赋》中没有用“气”字，却用了七个“意”字，显然陆机论文与曹丕有不同。陆机重作家用意遣辞，完全是从作家创作的角度来论文，而曹丕则是以一个鉴赏者的身份，从一个读者的感觉印象出发来评论作家。从意义上说，陆机论文重“意”才真正注意到了文学创作的本质。陆机《文赋》中所用的“意”主要指作家通过构思形成的创作意图。这个“意”有确定的所指，但又具有魏晋以来“意”不可尽言的含义。所以，他才有“意不称物，文不逮意”的认识，并说：“非知之难，能之难也”。他写《文赋》就在于力图解决“能”的问题。可这个问题又难以一下说清，于是他又补充说：“至于操斧伐柯，虽取则不远；若夫随手之变，良难以辞逮。”这说明陆机已意识到了文学创作规律的奥妙难识。人的主观精神世界难识，人的感情变化也难识，也与庄子描写人精神自由境界即“道”时的神秘感相通。

(二) 关于创作构思过的论述，陆机受庄子思想影响是最为明显的。艺术构思中的“心游”，将灵感归之于“天机”，都直接采用了《庄子》语。

陆机开篇提出的“伫中区以玄览，颐情志于典故。”是指明作家在构思之前必须有的一种虚静心态和创作修养。接着便描述了作家构思过程：“其始也，皆收视反听，耽思旁讯，精鹜八极，心游万刃。”陆机描写创作开始时的心态是“收视反听”，即是内视。这里陆机显然是化用了《庄子》中的“无视无听”。《庄子·在宥》中说：“无视无听，抱神以静”，就可以达到至道之境。《人间世》中又说：“无听之以耳而听之以心，无听之以心而听之以气！耳止于听，心止于符。气也者，虚而待物者也。唯道集虚。虚者，心斋也。”无视无听而达于“心斋”，就是一种体道的心境。这种心境，在阮籍，嵇康的文章中也可见到。阮籍《清思赋》中有“微妙无形，寂寞无听。”嵇康《答难养生论》中有“内视反听，爱气斋精”。陆机把这种体道的心境引入文学理论，用来说明创作开始时的一种状态，就是排除一切干扰入艺术构思。

艺术构思首要的是想象。陆机描写这种想象的思维活动，是“精鹜八极，心游万刃。”他化用了庄子的“心游”。《庄子》中多处用“游心”一词，即是“心游”。庄子之“逍遥游”，主要是“心”之游，是人的精神，心灵呈现出的一种自由自在的状态。徐复观在《中国艺术精神》中说：“无所系缚”的游戏之游“为庄子所用游字之基本意义。”陆机借用庄子的“心游”来描写想象的无拘无束超越时空是最贴切不过的了。而陆机所描写的那种“观古今于须臾，抚四海于一瞬”的博大胸襟，也来自《庄子·秋水》中的“计四海之在天地之间，不似礨空之在泽乎？计中国之在海内，不似稊米之在大仓乎？”陆机以“游”来说明文学创作中想象自由发挥的状况，是第一次将喆学意义的人生境界引入了文学创作，并使“游”具有了客观的审美意义。

在构思过程中陆机用“罄澄心以凝思，眇众虑而为言”来论意与辞的关系。“凝思”即凝神，是神专一达于虚静的表现。这一提法也脱于《庄子·达生》的“有志不分，乃凝于神”。陆机用“凝思”而不用“凝神”则更重在表现作家的主观构思活动。“澄心”，“凝思”，作家的想象才能得以真正发挥，才能达到“笼天地于形内，挫万物于笔端。”形内，指作家的主观精神世界，将天地笼于形内，就是《庄子·齐物论》中所云的“天地与我并生，而万物与我为

一。”是形容人主观世界的无限博大。这种创作心态，司马相如论赋的创作时也提到过。托名葛洪的《西京杂记》卷二中记载：司马相如答盛览云：“赋家之心，苞括宇宙，总览人物，斯乃得之于内，不可得而传”。万物览于形，是一种无法用语言能表达清楚的心境。阮籍《大人先生传》中所说：“天地制域于内，而浮明开达于外”也是这种状态，都强调人的精神活动是无限自由的，作用是巨大的。可见一认识在魏晋时期是普遍被士人认同的。

陆机所强调的创作灵感即“应感之会”，在艺术构思中也十分重要。而这灵感却是难以捉摸的，“来不可遏，去不可止。藏若景灭，行犹响起。”无从把握。故而陆机认为这灵感是来自“天机”，“方天机之骏利，夫何纷而不理。”《庄子·秋水》中记载了一个有名的寓言：“夔怜蚘，蚘怜蛇，蛇怜风，风怜目，目怜心。”夔一足，不知百足虫蚘如何走路，蚘曰：“予动吾天机，而不知其所以然。”蚘百足不如蛇无足走得快，蛇曰：“夫天机之所动，何可易也。”《庄子·天运》中又说：“天机不张而五官皆备。”天机，即自然天性。陆机将灵感归之于天机自然，认为创作的灵感“天”所动，是不可改变的，更是人力所不能及的。《文选》中《文赋》李善注引司马彪注云：“天机，自然也。”又引“《大宗师》曰：‘其嗜欲深者，其天机浅也。’刘障曰：‘言天机者，言万物转动’，各有天性，任之自然，不知所由然。”都说明：天机即自然。陆机对于无从把握的灵感认识到了，也作了描绘但无法加以解释，最终又归之于自然。

对于“丰约之裁，俯仰之形，因宜适变，曲有微情”的情况，陆机则认：“譬犹舞者赴节之投袂，歌者应弦而遣声。是盖轮扁所不得言，亦非华说之所能精。”这里陆机形容其中的奥妙难言，也是用了《庄子·天道》中“轮扁斫轮”之典，轮扁“得之于手而应于心，口不能言”的是“有数存焉于其间”，陆机以之比喻文章妙有不同，也如轮扁之不得言。对于创作过程中的某些变化难以掌握，陆机曾几次论及，“随手之变，良难以辞逮”，“吾未识夫开塞之所由。”正如裴斐在《诗缘情辨》中所说：“殊不知承认创作规律之难以认识，这正是陆机的卓识”。而这一卓识是明显受到庄子启发的。

魏晋的“文学的自觉”表现在很多方面，不仅表现为文人精神上的自由，诗文的“通脱”，注重个人抒情，也表现在文学创作中自觉地追求，运用想象。从正始以来，文学创作中所具有的浪漫特色便是自觉运用想象的结果。而陆

机在《文赋》中能对艺术想象，构思，灵感作如此精道地描绘，有如此明确的理性认识，一方面与文学创作的实际密切相关，另一方面也可看作是“文学自觉”的进一步深化，即“文学自觉”在深层次理论上的突出表现。在这种深入的理性分析中，庄子思想的影响是十分明显的。

（三）庄子与陆机“缘情说”的关系

刘绍瑾在《庄子与中国美学》中说：

对魏晋文人（“缘情”说产生在魏晋，由陆机首先提出）影响深远的《庄子》，它本身就是“缘情说”的滥觞，“缘情”的文学理论与庄子有着深刻的渊源关系。

我比较同这种提法。因为：

首先，庄子在思想上强调“自适”，为文是为了“适己”。司马迁《史记·老庄申韩列传》中曾说：“其言洸洋自恣以适己”。这一评价本身就是肯定庄子之文是不受约束的“自恣”，是为抒写自己的思想情感。庄子讲“自适”本身即是对入自然之性的肯定。当然，庄子没有从文学理论上认识自己的为文，但却已明确了他之为文就是要把自己的所想写出来。“适己”是强调了写作者的主观方面。如果换一个角度，从创作来讲，庄子之为文的“适己”，也是一种“缘己”而发。《庄子·山木》中曾说：“形莫若缘，情莫若率。缘则不离，率则不劳”。林希逸《南华真经口义》中解释：缘“因其自然之意”。率，“循其自然之意”。庄子的“缘形”，“率情”已明确是顺情之自然。

其次，庄子是从入性之自然来反对儒家礼仪的束缚的，这一点在《马蹄》，《盗跖》等篇中已表现得十分明显。《天道》“退仁义，宾礼乐”下郭象注云：“以情性为主也。”更说明庄子摒弃仁义礼乐是为人的自然情性，而且《庄子》中多处用“真”，“天真”也主要是指人的情性自然率真，并针对仁义之“伪”而言。

再次，庄子与惠子曾明确地讨论过“情”的问题，《德充符》中详细地记载

了他们的对话内容。庄子于其中已明确表示：“吾所谓无情者，言人之不以好恶内伤其身，常因自然而不益生也。”就是说庄子反对的是那些伤性之情，不是反对人的“因自然”之情。后来嵇康更明确地称伤性之情为“嗜欲”。

对于庄子的重情，已有不少学者论述过，仅举两例：

胡文英《庄子独见·庄子总论》中说：

庄子眼极冷，心肠极热。眼冷，故是非不管。心肠热，故感慨无端，虽知无用，而未能忘情，到底是热肠挂住。虽不能忘情，而终不下手，到底是冷眼看穿。庄子最是深情，人第知三闾之哀怨，而不知漆园之哀怨有基于三闾也。盖三闾之哀怨在一国，而漆园之哀怨在天下；三闾之哀怨在一时，而漆园之哀怨在万世。

近人闻一多先生《论庄子》中也说：“庄子是开辟以来最古怪最伟大的一个情种”。³⁾可见对庄子的愤极而忘情是最深情，这一点很多学者都注意到了。

“缘情”说作为文学理论，其主要前提即是承认：人有自然之情，这种情又可以自然抒发。现在，学者们大都认为“缘情”说从根本上否定了传统儒家“言志”说的道德内涵。这种评价本身至少说明有两点是与庄子思想有闲的：一是承认人的自然之性情，二是与儒学仁义道德相对立。“缘情”说不过是在庄子“自适”思想的基础上，从文学理论的角度进一步指明了诗歌的抒情特征。两者在强调人性自我这一根本点上却是完全一致的。

当然，“缘情”说的产生，原因是多方面的，魏晋时期文人重情，文学作品重抒情的现象是相当普遍的。

《三国志·魏志·钟繇传》中注引《魏略》钟繇答曹丕书曰：“臣同郡故司空荀爽言：‘人当道情，爱我者一何可爱，憎我者一何可憎!’”

《世说新语·伤逝》中记载：王戎丧儿，悲不自胜，曰：“圣人忘情，最下不及情。情之所钟，正在我辈。”

魏晋人不仅敢于公开宣称“人道当情”，在行为上也表现为“任情”，这方面

3) 《闻一多文集·时代的鼓手》，海南国际新闻出版中心，1997年。

的例子很多，大多见于《世说新语》，此不再举。

文学作品中的尚情现象也更为普遍，值得注意的是：自建安以后，文人在创作时大都明确地意识到了自己写诗文是为了抒发个人的哀乐情感，这显然是人性觉醒的现。如：

王粲《为潘文则作思亲诗》有句“诗之作矣，情以告哀。”曹丕《燕歌行》云“展诗清歌聊自宽，乐往哀来摧心肝。”庄子《渔父》中云：“真悲无声而哀。”嵇康在《声无哀乐论》中则主“无声之乐”。陆机从文学理论上提出“缘情”说，在文学创作上也屡屡用“缘情”一词。如《叹逝赋》：“哀缘情而来宅。”《思归赋》：“悲缘情以自诱。”左思《悼饮酒序》中又说：“辄题数句自娱。”都是十分明确自己创作诗文是在抒情，而且是在承认人的自然之性的基础上，不是为了某种功利目的的个人感情的自由抒发。这种自觉的认识显然是秉承了庄子人性之自然的思想。

此外，魏晋人认为任情合于自然的理性认识也是促成“缘情”说产生的一个思想因素。王弼，何晏等人关于圣人无情无情的讨论，以及嵇康等人对人的性情的理论分析，对陆机也有直接的影响。而这些玄学家们从思想上又都不同程度地受到了庄子思想的影响。

论《金瓶梅》“开公跋”的作者 当为鲁重民或其友人

叶 桂 桐*

<目 次>

- | | |
|------------------------------|---------------------------|
| 一. 目前学术界关于“开公跋”的评价与认识 | 四. “开公跋”写于崇祯末年(约崇祯十四~十六年) |
| 二. “开公跋”的矛头是指向“弄珠客”序的 | 五. “开公跋”出于鲁重民或其友人之手 |
| 三. “开公跋”最早见于内阁文库本《新刻绣像批评金瓶梅》 | 六. 尚待解决的问题 |

摘要 《金瓶梅》“开公跋”，无论对于理解“崇祯本”系统《金瓶梅》各版本之间的关系，“崇祯本”与“词话本”之间的关系，还是对于《金瓶梅》作者研究等重大问题，都是关键之一。作者认为，“开公跋”的矛头是指向“弄珠客”序的，最早见于内阁文库本《新刻绣像批评金瓶梅》；“开公跋”写于崇祯末年；作者当为鲁重民或其友人。

关键词 《金瓶梅》 开公跋 鲁重民

所谓“万历本”《新刻金瓶梅词话》卷首有三篇序(跋)言，这就是“欣欣子”序，“开公跋”，“东吴弄珠客”序。其中“开公跋”最短，只有92个字(“开公书”三字不计)。但这短短的跋语，无论对于理解“崇祯本”系统《金瓶梅》各版本之间的关系，“崇祯本”与“词话本”之间的关系，还是对于《金瓶梅》作者研

* 中国 烟台师范大学 中文系 教授

究等重大问题，都是关键之一。因此有必要加以认真研究。关于《金瓶梅》三篇序言之间的闲系问题，我在拙作《论“万历本”〈新刻金瓶梅词话〉刻于清顺治年间——兼论〈金瓶梅〉三序言之内在闲系》¹⁾中，已经作过阐述，但因为不是专门谈“开公跋”，所以有些问题没有涉及，有些问题虽然涉及了，但只是提了一下，未加论述。现将这些问题一并加以论述。

一、目前学术界关于“开公跋”的评价与认识

从现藏日本内阁文库本《新刻绣像批评金瓶梅》卷首收录“开公跋”算起，到现在为止，至少有三百五十多年了，但关于“开公跋”的研究评价却是近几十年来的事情。近几十年来，伴随着《金瓶梅》作者考证以及整个《金瓶梅》研究的深入，学术界对于“开公跋”也进行了研究，研究结果大致如下：

(一)普遍认为“开公跋”与“欣欣子”序，“东吴弄珠客”序都写于明万历年间。

(二)关于这三篇序言之间的闲系，主要有两种见解：第一，认为“欣欣子”序与“弄珠客”序观点不同，此说以吉林大学王汝梅先生为代表。王先生未涉及“开公跋”，但从其上下文可以推知，王先生是认为“开公跋”与“弄珠客”序的观点一致的，所以“崇祯本”只删观点不同的“欣欣子”序，而不删“开公跋”²⁾。

第二，认为《金瓶梅》三篇序言是一个统一的整体，这以台湾的魏子云先生和华中师大的陈昌恒等先生为代表。魏先生说：“读《金瓶梅词话》中的三篇序跋，虽‘开公’之篇有伪托之嫌，但这三篇叙文，必是该书的作者的友人或共商酌之作，或无疑问。”³⁾

陈昌恒先生说：“通过上面的剖析，我们可以看到这三篇叙文所涉及到的有闲《金瓶梅》的三个方面的问题，构成了一篇完整的评论《金瓶梅》的文章，冯梦龙以三个化名将白己一分为三，目的是要形成对《金瓶梅》有利的

1) 关于鲁重民的生平行事，所知甚少，估计杭州可能会有这方面的材料，待日后调查，以便弄清“开公”之含意。

2) 王汝梅：《金瓶梅探索》，吉林大学出版社1990年9月版，第52~53页。

3) 魏子云：《〈金瓶梅〉的序跋》，《金瓶梅探原》，台湾远流图书公司1979年4月，第178页。

社会舆论，为使这部奇书具有保存下来的社会环境，同时也是为了以假乱真，将自己遮掩起来。但是这三篇叙文的整体感及行文语气的一致性，却使我们在其字里行间找到了冯梦龙这个‘犹抱琵琶半遮面’的隐身人。”⁴⁾

(三)关于《金瓶梅》三篇叙文的作者，主要有两种见解：第一，认为这三篇叙文出于一个人之手，如上述陈昌恒先生。第二，认为三篇叙文出于三人之手，而且对这三个作者都有所推测。“欣欣子”、“弄珠客”姑且不说。关于“开公”，王利器先生以为“开公”是僧无念⁵⁾，鲁歌，马征先生以为“开公”是王稚登的第一挚友曹子念。⁶⁾

二. “廿公跋”的矛头是指向“弄珠客”序的

为了便于读者阅读，我们把这篇“开公跋”摘录出来：

《金瓶梅传》，为世庙时一巨公寓言，盖有所刺也。然曲尽人间丑态，其亦先师不删“郑卫”之旨乎！中间处理埋伏因果，作者亦大慈悲矣。今后流行此书，功德无量矣。不知者竟目为淫书，不惟不知作者之旨，并亦冤却流行者之心矣。特为白之。开公书。

关于“开公跋”与“弄珠客”序之关系，我在上述拙作中已经说过，“开公跋”的矛头是直接指向“弄珠客”序的，是投向“弄珠客”序的利剑，是讨伐“弄珠客”序的檄文。对此，读者自可参看。惟我在文中，把“开公跋”的第一句话当作该序的中心论点，后来又仔细琢磨，觉得不够准确，现在加以修正。

“开公跋”的中心论点应是：《金瓶梅》非淫书也。第一句话，是引起，也从两个方面对中心论点加以阐述：第一，这是世庙时一巨公寓言，虽不免有点拉大旗作虎皮之嫌，但却是为《金瓶梅》张本；第二，“盖有所刺也”，即

4) 陈昌恒：《冯梦龙 金瓶梅 张竹坡》，武汉出版社1994年9月版，第29页。

5) 王利器：《〈金瓶梅词话〉成书新证》，杜维沫，刘辉编《金瓶梅研究集》，齐鲁书社1988年1月版，第9页。

6) 鲁歌，马征：《〈金瓶梅〉及其作者探秘》，华岳文艺出版社1989年12月版，第64页。

有为而作。第二句话“然曲尽人间丑态，其亦先师不删郑卫之旨乎”，这是用孔子不删“郑卫”，来说明《金瓶梅》虽有“郑卫”，但不是淫书；第三句话“中间处理埋伏因果，作者亦大慈悲矣”，是从作品与作者角度论证《金瓶梅》不是淫书；第四句话“今后流行此书，功德无量矣”，主要是从刻印出售角度说，《金瓶梅》既然不是淫书，流行者也功德无量；第五句话“不知者竟曰为淫书，不惟不知作者之旨，并亦冤却流行者之心矣”，这是反驳《金瓶梅》是淫书的观点；第六句话“特为白之”，是为作者与流行者辩白。

“开公跋”的《金瓶梅》非淫书说是针对“弄珠客”《金瓶梅》是“秽书”的中心论点而立论的。（关于“弄珠客”的观点，详见上述拙作《论“万历本”〈新刻金瓶梅词话〉刻于清顺治年间》，在此不再赘述。）

三、“开公跋”最早见于内阁文库本《新刻绣像批评金瓶梅》

“开公跋”既见于《新刻金瓶梅词话》，也见于以日本内阁文库藏本为代表的“崇祯本”《金瓶梅》，但《新刻金瓶梅词话》的刻印时间不清楚，不能作为依据，所以要考察“开公跋”的最早出处，只能从“崇祯本”系统中加以考察。

众所周知，“崇祯本”系统的《金瓶梅》又可以大别为两个子系统：一是每半页10行，每行22字，无“开公跋”，这一系统本以通州王孝慈藏本最有代表性，但如今下落不明，只能以现北京大学图书馆藏本等为代表；二是每半页11行，每行28字，有“开公跋”，这一系统以日本内阁文库藏本为代表。可见，“开公跋”只见于第二种“崇祯本”系统的《金瓶梅》中。

这种系统的《金瓶梅》明清时期的藏本，有三种：一是首都图书馆藏本（原为孔德学校图书馆所藏），一是日本内阁文库藏本，一是日本东洋文化研究社藏本。日本的这两个藏本为同版，而且东洋文化研究社藏本“开公跋”已佚，所以以内阁文库藏本为代表，就可以了。那么，只要考察一下内阁文库本与中国首都图书馆藏本谁早谁晚就可以了。对此，台湾的魏子云先生和复旦大学的黄霖先生已经做过比较：

最近魏子云先生将首图本第一页书影与内阁本相勘后，认为内阁本“印刷

清晰”，首图本“极其漫漶”，“光凭这一点，亦足以判定(首图本)后印”。这是正确的。但魏先生在这里尚稍有疏忽，认为两书是“同一版式的刻本”，首图本只是“后印”而已。实际上，首图本根本是一种将内阁本简陋化后的后刻本。……近有友人在首都图书馆翻阅此书后来告说，据其版刻，似为道光以后所出，我颇信之。⁷⁾

既然如此，那么“廿公跋”最早见之于内阁文库本《金瓶梅》。

四、“廿公跋”写于崇祯末年(约崇祯十四~十六年)

日本学者荒木猛先生对内阁文库本《新刻绣像批评金瓶梅》进行了认真考察，得出了令人信服的结论。⁸⁾

原来，这一刻本装订为20册，其封面是用该书肆刻印的别的书的废书页折叠起来的，根据这些废书页，可以断定该书肆为杭州鲁重民的书肆。

内阁文库本《新刻绣像批评金瓶梅》即为鲁重民所刻印。而那些用作封面的废书页，其中一种是该书肆刻印的《十三经类语》一书的，而《十三经类语》一书序言的署名落款时间是崇祯十三年(1640)。《新刻绣像批评金瓶梅》当然刻于其后。假定《十三经类语》刻于崇祯十三年，那么《新刻绣像批评金瓶梅》当刻于崇祯十四~十六年。因为崇祯十七年，也就是顺治元年，而“廿公跋”云“《金瓶梅》，为世庙时一巨公寓言”，显然是明人的口气，因此《新刻绣像批评金瓶梅》(内阁文库本)当刻于崇祯十四~十六年(1641~1643)，“廿公跋”亦写于此时。

7) 黄霖：《关于〈金瓶梅〉崇祯本的若干问题》，中国金瓶梅学会编《金瓶梅学刊》(试刊号)，1989年6月版，第81~82页。

8) 荒木猛《关于〈新刻绣像批评金瓶梅〉(内阁文库藏本)的出版书肆》，黄霖，王安国编译《日本研究〈金瓶梅〉论文集》，齐鲁书社1989年10月版，第130~138页，137页。

五. “廿公跋”出于鲁重民或其友人之手

內閣文库本《金瓶梅》与第一种崇祯本系统的《金瓶梅》相较，主要有三方面的不同：一是改变了版式，即将原来的每半页10行，每行22字变为每半页11行，每行28字，这就使每页的容量增加了将近三分之一，全书的页码减少了将近三分之一，这样可以节约纸张，降低成本；二是个别评语有所改动；三是增加了“廿公跋”。

我在上述拙作《论“万历本”〈新刻金瓶梅词话〉刻于清顺治年间》中，对于这篇“廿公跋”从人们对《金瓶梅》认识评价的历史的角度，给予了较高的评价，但如果就刻印者增加此跋语的目的而言，则恐怕主要是在为自己刻印《金瓶梅》辩白，张本，很有点广告的意味。

现在我们就来探讨这篇“廿公跋”的作者。

这种內閣文库本《金瓶梅》是杭州书商鲁重民所刻，增加的这篇“廿公跋”就出于鲁重民之手的可能性极大。

关于这位鲁重民，我手头没有关于他的生平行事的资料，只知道他是一位明末的杭州书商，他至少刻印过《十三经类语》，《舆图摘要》，《官职备考》等书。⁹⁾又，《四书文库总目摘要》在《十三经类语》条，提到过这位鲁重民。为了对其人有所了解，我现在就把这段文字引录如下：

旧本题罗万藻编。万藻字文止，江西人，天启丁卯举人。福王时官上杭县知县。唐王僭号于福建，擢为礼部主事。未几卒。故至今时文家称曰“罗仪部”。《明史·文苑传》附见艾南英传中。是书因坊本《五经类语》，更取《十三经》广之，分一百三十四类。杭州鲁民重又为之注。按万藻虽仅以时文名家，而所学具有原本。其时文幽渺湛深，纯以意运，亦决不用此餽餽之功。况其时张溥与张采立复社，艾南英与章世纯，陈际泰及罗万藻立豫章社。会南英选刻时文，涂乙过当，为衆所诟，乃取己及三人之文亦分合作摘谬二例，涂乙其半，刊以示衆。溥等因以离间其交，世纯，际泰皆为所

9) 荒木猛《关于〈新刻绣像批评金瓶梅〉(內閣文库藏本)的出版书肆》，黄霖，王安国编译《日本研究〈金瓶梅〉论文集》，齐鲁书社1989年10月版，第130~138页，137页。

动，而万藻恬于名誉，独不从溥。今此书之首乃有溥序，与当日情事大为乖刺。殆民重托称万藻，籍豫章社之名以行，又伪撰溥序，籍复社之名以取重。总之，坊贾伎俩而已。

——《四库全书总目提要》，中华书局1965年版，第1174页。

按：这段文字中的“鲁民重”为“鲁重民”之误刻。

从上述这段文字的叙述，我们已经不难看出鲁重民的做派。他刻印《金瓶梅》，为了牟利起见，也为了为自己辩白，于是在《金瓶梅》卷首加上了“开公跋”。

鲁重民为《十三经类语》做过注，也为李日华所撰而由他刻印的《舆图摘要》作过补订(四六全书之一)¹⁰⁾，可见他具有一定的文字功底，完全有能力撰写“开公跋”。再从“开公跋”的书贾口气来看，我认为“开公跋”就出于鲁重民之手。当然，也不应完全排除鲁重民请其友人或者在其书坊刻印书籍的文人代写“开公跋”的可能性。

荒木猛先生说：“从李日华的著作于此出版来加以考察，那么也可判明他(按：指鲁重民)与李日华(1565~1635)有着某种关系。而且，此人恐怕正是内阁本《金瓶梅》的刊行者，而其刊行的年代当在明代气运将尽的崇祯十三年之后不远。”¹¹⁾ 我也以为内阁文库本《金瓶梅》的刊行者不会是李日华，而是鲁重民，因为李日华死于崇祯八年，而且李日华认为《金瓶梅》是淫书，不会去刊行它。这有李日华的日记可证：

万历四十三年十一月五日，沈伯远携其伯景倩所藏《金瓶梅》小说来，大抵市译之极秽者耳，而锋焰远逊《水浒传》。袁中郎极口赞之，亦好奇之过。

——《味水轩日记》(节录)，转引自朱一玄编《金瓶梅资料汇编》，南开大学出版社 1985年10月版，第193页。

10) 荒木猛《关于〈新刻绣像批评金瓶梅〉(内阁文库藏本)的出版书肆》，黄霖，王安国编译《日本研究〈金瓶梅〉论文集》，齐鲁书社1989年10月版，第130~138页，137页。

11) 荒木猛《关于〈新刻绣像批评金瓶梅〉(内阁文库藏本)的出版书肆》，黄霖，王安国编译《日本研究〈金瓶梅〉论文集》，齐鲁书社1989年10月版，第130~138页，137页。

按：景倩为沈德符的字。

李日华对《金瓶梅》的评价与“开公跋”大相径庭，因此，我以为李日华刊行《金瓶梅》的可能性很小。

六. 尚待解决的问题

(一)关于鲁重民的生平行事，所知甚少，估计杭州可能会有这方面的材料，待日后调查，以便弄清“开公”之含意。

(二)将内阁文库本《金瓶梅》的评语与北京大学图书馆藏本《新刻绣像批评金瓶梅》的评语加以比勘。但因为手头无内阁文库本《新刻绣像批评金瓶梅》的影印件，所以暂时难以进行，亦待日后进行。

王士禛词论研究

李京奎*

<目次>

- | | |
|--------|----------|
| 一. 序言 | 四. 论云间词派 |
| 二. 论源流 | 五. 小结 |
| 三. 论正变 | |

一. 序言

近年来研究词论的学者不少，其中专论一家词者，不胜枚举。龙沐勋在《研究词学之商榷》一文中说：“推求各调表情之缓急悲欢，与词体之渊源流变，及至各作者利病得失之所由，谓之词学”¹⁾。他所说的词学，就是研究词的宫调声色、词体渊源流变和历代词家评论。因此本文所要探讨的是王士禛对于词的欣赏、批评和研究心得。

清初的词家以为最重要的词论是源流和正变的问题。《花草蒙拾》、《远志斋词衷》、《古今词话》之说法都如此。本文以《花草蒙拾》为中心，探究词的源流·正变以及其他问题。

二. 论源流

《花草蒙拾》中论词的源流的资料如下：

* 江原大学 中文系 教授

1) 《研究词学之商榷》 龙沐勋 词学季刊 第一卷 第四号。

王漢陂初作北曲，自謂極工，徐召一老樂工問之，殊不見許。於是爽然自失，北面執弟子禮，以伶為師……詞曲雖然不同，要亦不可盡作文字觀，此詞與樂府所以同源也。²⁾

又說：

唐無詞，所歌皆詩也。宋無曲，所歌皆詞也。宋諸名家，要皆妙解絲肉，精於抑揚抗墜之間，故能意在筆先，理協字表。今人不解音律，勿論不能創調，即按譜徵詞，亦格格有心手不相起之病，欲與古人較工拙於毫厘，難矣。(同上)

又說：

或問詩詞曲分界。予曰：“無可奈何花落去，似曾相識燕歸來”，定非香奩詩。‘良辰美景奈何天，賞心樂事誰家院’，定非《草堂》詞也”。(同上)

由此可見，王士禛對詞的聲律非常注意，認為它應該「妙解絲肉，精於抑揚抗墜之間」，「不可盡作文字觀」。因此他就音律部分來推論，認為詞與樂府同源，王士禛《漁洋文集》卷三中有一篇〈倚聲集序〉更說得詳盡：

甚矣聲音之道，詎不大哉！古者歌詩三百、弦詩三百，意三百五篇之外，可以被管弦，諧金石者，篇目猶衆，特其聲弗傳耳。……大抵世代升降不同，而聲音之道則一。故樂辭曰詩，詩聲曰歌。……唐詩号称極備，樂府所載，自七朝五十五曲之外不概見，而梨園弟子所歌，率當時詩人之作，如王之渙之涼州、白居易之柳枝，王維渭城一曲流傳尤盛，此外以李白、杜甫、李紳、張籍之流，因事創調，篇什繁富，要其音節皆不可歌。詩之為功既窮，而聲音之秘勢不能無所寄，於是溫·和生而《花間》作李、晏出而《草堂》興，此詩之餘，而樂府之變也。詩餘者，古詩之苗裔也。……至是聲音之道乃臻極致，而詩之為功，雖百變而不窮。

歷來談論詞的起源者，或主六朝(如楊慎)，或主隋(如王灼)，或主唐(如張

2) 《花草蒙拾》 詞話叢編本, p.648.

惠言), 可谓众说纷纭, 莫衷一是, 但总而言之, 盖多拘守时代之说。据元稹的<乐府古题诗序>可知, 任何由音乐歌舞所形成的文字, 其构成因素不外乎「由乐以定词」和「选词以配声」两种。而这两种莫不与声律息息相关。因而王士禛论词不囿於时代, 就声音之道以溯其源, 在当时可谓颇具慧眼。王氏友人刘体仁在《七颂堂词绎》里也有同样的意见:

古词佳处, 全在声律见之, 今止作文字观, 正所谓徐六担板。

其他, 邹只谩的《词衷》, 徐鉉的《词苑丛谈;音韵》, 都对词的声韵加以注意, 我们由此可知, 王士禛及其友人论词的源流, 是从声律著眼, 所以能够通古今而将诗词曲看成一理。

三. 论正变

婉约和豪放是词风的两大基本类型。所谓正变, 指词体的正格和变调, 後代学者也有人认为词风的分类不是那麼简单, 如谢章铤主张宋词有三派, 一为婉约、二为豪宕、三为醇雅。不过如果说词家依正变分为两大类的话, 正格即指婉约派, 变调即指豪放派。现在要看王士禛对正变的看法, 他在《花草蒙拾》里说:

张南湖论词派有二: 一日婉约、一日豪放。仆谓婉约以易安为宗, 豪放惟幼安称首, 皆吾济南人, 难乎为机矣。³⁾

我想王氏始混一<词体、词派>, 将张南湖的词体改说词派, 从此, 宋词分为婉约、豪放二派, 並以此来评论词人。又说:

弁州谓苏、黄、稼轩为词之变体, 是也。谓温、韦为词之变体, 非也。夫温、韦视晏、李、秦、周, 譬赋有高唐神女, 而後有长门、洛神。诗有古诗录别, 而後有建安黄初三唐也。谓之正始则可, 谓之变体则不可。(同上)

3) 《花草蒙拾》词话丛编本, p.685.

王氏从词的原始，作品产生的先後来说明词的正变，在当时没有人如此主张。王氏在《倚声集序》中说：

诗馀者，古诗之苗裔也。语其正，则环、煜为之祖。至漱玉淮海而极盛，高、史其大成也。语其变，则眉山导其源，至稼轩、放翁而尽其变，陈、刘其馀波也。（按此条在《西圃词说》也有引用）

王氏有词的正变论带著一种历史发展性。他在《香祖笔记》中说明正变时又提出「正变不当分优劣」之论。他说：

词家绮丽豪放两派，往往分左右袒。予谓第当分正变，不当分优劣。四十年前，在广陵与邹訒士只谟同定《倚声集》，予详陈卧子词云：如香车金犊，流连陌阡，反令人思草头一点之乐。⁴⁾

他在《倚声集》讲正变之後，过了四十年，再谈到词的正变，说明得很明白。从陈後山在《後山诗话》中评苏东坡词『如教坊雷大使之舞，虽极天下之工，要非本色』以後，崇「正」抑「变」的观点影响了後代词坛，至王士禛才有意打破此种观念，这是前人未发的创见。与王氏同时的词论家刘体仁、沈谦、彭孙遹、贺裳等人都仍持有传统的看法。兹各举一条为例：

《金粟词话》：词以盛丽为本色，要是体制使然。

《七颂堂词绎》：稼轩『杯汝来前』毛颖传也，『谁共我、醉明月』，恨赋也。皆非词家本色。

《填词杂说》：秦少游《一向沈吟久》，大槩山谷归田乐引，铲尽浮调、直持本色。

《皱水轩词筌》：词中本色语，如李易安『眼波纔动被人猜』，萧淑兰『去也不教知，怕人留恋伊』对此种句，即可谓词中之真色生香。

他们以艳丽为词之本色，看做词之正体。因为他们受到明末词人的影响。《古今词话》和《词苑丛谈》都有记顾宋梅之「词以艶冶为正则」的观念，如

4) 《香祖笔记》 广文书局, p.170.

《古今词话》云：

孙执升曰：顾宋梅常言词以艶冶为正则，宁作大雅罪人，弗带经生气。词至施子野花影集，旖旎极矣，宋梅独痛刷之，良以词之视曲，其道甚远，词之去曲，其界甚微，又不能不为词家守壁耳。⁵⁾

宋梅以为艶冶(与艶丽可相通)和旖旎不同，甚至忌旖旎语，他提出「艶冶为正则」的目的是「词家守壁」。词曲混淆的现象从宋代开始就已产生，至明末清初词曲牌相互杂乱。如沈雄云：

前人有以词而作曲者，断不可以曲而作词。如念奴娇、百字令，同体也，俱隶北曲大石调。(见於《古今词话》)

又田同之的《西圃词说》云：

曲调不可入词，人知之矣。而八犯玉交枝、穆护砂、捣练子等，亦间收金、元通於词曲者，何也？盖西江月等宋词也。玉交枝等，元词也。捣练子等曲，因乎词者也，均非曲也。若元人之後庭花、乾荷叶、小桃红……俱为曲调，与词之声响不侔。况北曲自有谱在，岂可阑入词谱，以相混淆乎⁶⁾

如上的情况，让清初词人也同意顾宋梅「词家守壁」的主张，所以他们都引用了「本色」的口号来助翼清初词学的复兴。

四. 论云间词派

明末清初，云间词派盛行一时。代表云间词派的词人是陈子龙和宋徵璧。可惜的是云间词派词话不传，兄散见於後人的词话中。所以不容易了解他们的词论。

5) 《古今词话》词话丛编本，p.807.

6) 《西圃词说》词话丛编本，p.1471.

云间派词论从徐釁的《词苑丛谈》中得见。《词苑丛谈》卷四，华亭宋尚木徵璧条云：

吾(宋徵璧)於宋词得七人焉，日永叔，其词秀逸。日子瞻，其词放诞。日少游，其词清华。日子野，其词娟洁。方回，其词新鲜。小山，其词聪俊。日易安，其词妍婉，他若黄鲁直之苍老，而或伤於颓。王介甫之剷削，而或伤於拗。晁无咎之规检，而或伤於朴。辛稼轩之豪爽，而或伤於霸。陆务观之萧散，而或伤於疏。此皆所谓我辈之词也。苟举当家之词，如柳屯田哀感顽艳。而少寄托。周清真婉蜒流美，而乏陡健。康伯可排叙整齐，而乏深邃。其外则谢无逸之能写景，僧仲殊之能言情，程正伯之能壮采，张安国之能用意，万俟雅言之能叠字，姜白石之能琢句，蒋竹山之能作态，史邦卿之能刷色，黄花麓之能选格，亦其选也。词至南宋而繁，亦至南宋而敝，作者纷如难以概述。夫各因其姿之所近，苟去前人之病而务用其所长，必赖後人之力也夫。⁷⁾

陈子龙的词论从《幽兰草词库》中得见，他说：

词者，乐府之衰变，而歌曲之将启也。然就其本制，厥有盛衰。晚唐语多俊巧，而意鲜深至，此之于诗，犹齐梁对偶而开律也。自金陵二主，以至靖康，代有作者，或穠纤婉丽，极哀艳之情，或流畅澹逸，穷盼倩之趣，然皆境由情生，辞随意启，天机偶发，元音自成，繁促之中，尚存高浑，斯为最盛也。南渡以还，此声遂渺。……(《安雅堂稿》上册 卷五、页二七九)

陈子龙是明末时代的人，宋徵璧是清初前十家之一。他们对词论的基本观念，可能相同。例如词学的沿革和重视北宋的看法等。⁸⁾ 宋徵璧推崇北宋七家，他对南宋词论的评论缺乏分析，不过他对南宋辛、陆、姜、张、史、蒋，根据作品风格来分析可以说是正确的，这是他对南宋词的立论根据。而陈子龙推崇南唐二主，及北宋诸家。可说太专一，这是两人对词论的不同处。

7) 《词苑丛谈》广文书局，p.92.

8) 茵阁琐谈：「渔洋《花草蒙拾》，偶然涉笔，殊有通识。其述云间诸家论云：五季犹有唐风，人宋便开元曲。」陈子龙、宋徵璧大体上，都推崇北宋，以五代北宋为词的全盛时代。

王士禛在《花草蒙拾》中对云间作者有二条评语。他说：

云间数公论诗拘格律，崇神韵。然拘于方幅，泥于时代，不免为识者所少。其于词，亦不欲涉南宋一笔，佳处在此，短处亦坐此。⁹⁾

又说：

近日云间作者论词有云：『五季犹有唐风，入宋便开元曲，故专意小令，冀复古音，屏去宋调，庶防流失。』仆谓此论虽高，殊属孟浪。废宋词而宗唐，废唐诗而宗汉魏，废唐宋大家之文而宗秦汉，然则古今文章，一画足矣，不必三坟八索至六经三史，不几几赘疣乎。(本条《词苑萃编》卷九指摘曾收录)

稍後田同之在《西圃词说》中说：

云间诸公，论诗宗初盛，论词宗北宋，此其能合而不能离也。夫离而得合，乃为大家。¹⁰⁾

龙榆生在《近三百年名家词选》中作陈子龙的小传说：

词学衰於明代，至於子龙出，宗风大振，遂开三百年来词学中兴之盛。¹¹⁾

从上面的资料来看，各人所主张的，稍有不同。徐珂在《近词丛话》中说：

王士禛以为明黄门陈子龙之劲敌。¹²⁾

因此王士禛批评云间作者「废宋词而宗唐」「泥于时代」「不欲涉南宋一笔」「冀复古音，屏去宋调」等等。又田同之批评云间词人说「论词宗北宋」。所以

9) 《花草蒙拾》词话丛编本, p.685.

10) 《西圃词说》词话丛编本, p.1453.

11) 《近三百年名家词选》宏业书局, p.4.

12) 《近词丛话》词话丛编本, p.4222.

王士禛的评语可能是针对陈子龙而发的。这种论词的观念影响於後代，所以朱竹垞主张尊崇南宋词，到晚清时，出现「词不必分南宋北宋」之说（《白雨斋词话》卷八）。这都是清初词人靠阮亭之重要求「词格之变」（徐珂语见於《近词丛话》）的结果。但在此要注意的是宋徵璧的词论。他批评南宋词人时，肯定了黄、王、辛、陆诸家的苍老、剷削、豪爽、规检而指出他们颓、拗、霸、疏，宋氏批评的词人当中，有南宋人，也有北宋人，所以云间词人到清初並不是用「时代的标准」来确定词论，而是时代环境和词论的发展过程，如此而已。所以可以说清初词坛是一个变换期或过渡期。

此种词坛的变化是由王士禛的词集，《阮亭诗馀》《衍波词》所造成。¹³⁾ 但是蒋景祁说「(阮亭)精研诗格，衍波以後，禁不作词。」¹⁴⁾ 因此王士禛的词论，大都是他早期的看法。不过在当时，他的词论颇有影响力，可以造成一种风气。

现在详细看云间派的创作理论和当时人的评语。

《古今词话》收录宋徵璧之文艺创作理论。他说：

宋徵璧曰：情景者，文章之辅车也。故情以景幽，单情则露。景以情妍，独景则滞。今人景少情多，当是写及月露，虑鲜真意。然善述情者，多寓诸景，梨花榆火，金井玉钩，一经染翰，使人百思。哀乐移神，不在歌恸也。¹⁵⁾

又宋徵璧说：

词家之旨，妙在离合，语不离则调不变宕。情不合则绪不连贯。每见柳永，句句联合，竟过久许，笔犹未休，此是其病。（同上）

从宋徵璧的文章中，可见他主张情景同工，情景为文章之相依，所以独景则滞。云间词论推崇北宋，而亦指出北宋人的短处，如柳永词句句联合，意过久许，笔犹未休为其病。沈雄批评宋氏的「情景离合」说：

13) 见《阮亭诗馀和衍波词的著成年代》台湾大学 文史哲学报。

14) 《瑶华集集述》中华书局，p.4.

15) 《古今词话》词品下卷 词话丛编本，p.849.

词至离合处，有不为浅人索解者。『时复见残灯，和烟坠金穗』，『人不见，春在绿芜中』，『梦断彩云无觅处，被凉明月生南浦』，诸语耐人遐想，又岂独开宕者所能参耶。(同上)

王士禛评陈子龙词说：

陈大樽诗首尾温丽，湘真词亦然。然不善学者，镂金雕琼，正如土木被文绣耳。又或者断断格律，不失尺寸，都无生趣。¹⁶⁾

王士禛所谓不善学者以下之评语，专指云间末流，以刻意、浓色填咏物词的弊病。

彭孙遹也说『近人诗馀，云间独盛。然能作景语，不能作情语。』(见于《金粟词话》)此种批评观念，在清初词坛，全面发展，成了『本色论』。论词以本色当行之法，早在陈师道、李清照时即有此说。事实上，这是一个如何认识词的艺术特性的问题。清初词坛，则更加强这种观念。邹只谠在《远志斋词表》中说：

王次分云：词曲家非当行本色，虽丽语博学无用。丽语而复当行，不得不以此事归之云间诸子。¹⁷⁾

贺裳在《皱水轩词筌》中说：

词虽以险丽为工，实不及本色语之妙。如李易安『眼波才动被人猜』……排一个字，费许大气力。¹⁸⁾

沈谦《填词杂说》说：

男中李後主，女中李易安，极是当行本色。秦少游『一向沈吟久』大类山谷

16) 《花草蒙拾》词话丛编本，p.685.

17) 《远志斋词表》词话丛编本，p.656.

18) 《皱水轩词筌》词话丛编本，p.716.

归田乐引，铲尽浮词，宜抒本色，而浅人常以雕绘傲之。¹⁹⁾

刘体仁也在《七颂堂词绎》中说：

稼轩『杯汝前来』，毛颖传也，『谁共我，醉明月』恨赋也。皆非词家本色。²⁰⁾

他们的本色论由王氏对云间词之评语中引申，而作一种观念性用语。所谓「当行本色」是指音律风格之工。这是论词以婉约为正宗的传统观念。清初词坛用本色表现词的内容、技巧、风格等方面。

他们以艳丽、险丽为词之本色，又推崇後主、易安、少游词风盛丽的特性，在诗词上並無区别。所以小词与诗，可谓体制相通。此种观念影响後代崇尚词格的基本思想。

五. 小结

综合上述的内容，我们得如下之三点结论。

第一：填词构成因素不外乎「由乐以定词」和「选词以配声」两种。王士禛对词的声律非常注意，认为它应该「妙解丝肉，精于抑扬抗坠之间」「不可尽作文字观」。因此他就音律部分来推论，而主张词与乐府同源。

第二：婉弱和豪放是词风的两大基本类型。王士禛从词的原始，作品产生的先后来说明词的正变。他说明正变时，又主张“正变不当分优劣”之论。

第三：云间词派的领袖词人是陈子龙和宋徵璧。王士禛借此二人看当时词坛的一般情况。不过，陈子龙尊崇南唐北宋，宋徵璧肯定南宋词人。王士禛兄采用陈子龙之主张。

19) 《填词杂说》 词话丛编本, p.631.

20) 《七颂堂词绎》 词话丛编本, p.619.

參考文獻

- 詞話叢編 唐圭璋編 中華書局
<阮亭詩餘和衍波詞的著成年代> 文史哲學報 台灣大學
<研究詞學之商榷> 龍沐勛 詞學季刊 第一卷 第四號
近三百年名家詞選 夏承濤編 宏業書局
瑤華集 蔣景祁編 中華書局
詞學 創刊號 華東師範大學出版社
香祖筆記 王士禛 廣文書局
倚聲集 台灣大學圖書館 藏書

論文提要

왕사정사론연구

사학의 발전은 사의 발전과 더불어 동시에 시작되었다. 그것은 詞와 詞話의 발전을 살펴보면 긍정할 수 있다. 소위 詞學 혹은 詞論이란 정통적으로 사의 연원과 변천과정 그리고 음악적 요인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청초의 위대한 시인인 王士禛의 詞論을 그의 저서 《花草蒙拾》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려는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있다. 첫째는 사의 원류를 살펴보고 둘째는 사의 정변에 대하여 셋째는 雲間詞派에 대하여 王士禛이 어떻게 생각하였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詞論研究가 그러하듯이 이 논문에서도 王士禛과 동시에 교류하거나 당대에 존재했던 사인들의 詞話를 위주로 하여 방증의 자료를 나열하고 공통의 견해를 도출해내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필자는 아래의 간단한 세 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째, 詞의 源流에서 詞를 짓는 것은 음악에 詞를 맞추거나 歌詞가

먼저 있고 나중에 음악을 지어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점에서 王士禛은 특히 聲律에 특히 주의하여 詞와 樂府를 같은 근원으로 보았다.

둘째, 正變論에서 正變은 婉弱과 豪放으로 이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王士禛은 특히 역사 발전적인 正變論을 주장하였다. 특히 당시 正變論이 優劣論을 대변하여 詞의 정당한 가치를 논함에 문제가 된다고 보고 이를 강력히 타파하였다.

셋째, 雲間派를 논함에 있어 王士禛은 陳子龍만의 견해를 채택하여 공정성을 잃었다. 이는 당시 그의 위상에 비추어 清初 詞壇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晚清 革命派 小說理論 研究*

金 泰 寬**

<目 次>

- | | |
|---------------------------|---------------------------------------|
| 1. 서론 | 가) 梁啓超 등의 “소설계혁명” 이론에 대한 반성 |
| 2. 초기 혁명과 지도자들의 소설에 대한 견해 | 나) “小說界革命”이론의 치우침을 바로잡고 새로운 소설관을 제기하다 |
| 가) 章太炎의 소설관 | 다) 소설 창작방법과 예술기교에 대한 논의 |
| 나) 진천화의 소설이론 | |
| 다) 황소배의 소설이론 | |
| 3. 徐念慈와 黃人 등 <小說林>派의 소설이론 | 4. 결론 |

1. 서론

만청 “小說界革命”이론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그 성과도 적지 않았다. 만청 소설이론의 핵심은 의심할 여지없이 “小說界革命”이론의 출현이었다. 따라서 이 이론의 발전과정을 쫓아서 논의를 하다보면 자산계급 개량파의 소설이론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고 다른 유파의 소설이론은 상대적으로 허술하게 다루게 되고, 또 다룬다고 하더라도 이들과의 대응관계라는 관점에서 다루게 되어 아쉬운 점이 남아있었다.¹⁾ 다른 한편으로는

* 이 논문은 동의대학교 1998학년도 교내 연구비에 의해 작성되었음.

** 동의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필자는 줄고 <晚晴小說理論研究>라는 논문에서 정치적인 관점을 완전히 배

당시에 있어 정치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한 정치적 실세였던 자산계급 혁명파의 소설이론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만청 혁명파의 소설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한 번 써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 글에서 필자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혁명파는 대륙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소설이론가로서의 혁명파 보다는 범위를 좀 더 넓게 잡아 보았다. 대륙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소설이론가로서의 자산계급 혁명파의 정의는 “중국대륙의 학계에서는 이 세 사람(黃人·徐念慈·王鐘麒)을 중심으로 한 이 시기의 소설론을 ‘자산계급 혁명파의 소설이론’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명칭은 戊戌變法 이후에서 『小說林』의 창간 이전(1898~1906) 시기의 소설론을 ‘자산계급 개량파(資產階級改良派)의 소설이론’이라고 부르는 데 대한 변별적인 것이다.”²⁾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분류한다면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자산계급 혁명파와 소설이론가로서의 자산계급 혁명파의 개념정의에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고, 역사적 실체로서의 자산계급 혁명파의 소설이론이 어떠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남기 때문에 필자가 이 글에서 채용하는 개념정의는 역사적 실체로서의 자산계급 혁명파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1905년 8월부터 1911년 10월 신해 무창기의가 성공하여 중화민국이 건국될 때까지가 중국근대사에 있어서 자산계급 혁명파의 전성시대인 소위 역사에서 말하는 신해혁명시기이다. 자산계급혁명의 발전은 자산계급 혁명파의 여론공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산계급 혁명파가 처음부터 여론공작을 중시한 것은 아니었으나, 20세기 초에 접어들자 말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광서 25년 12월(1900년 1월)에 《中國日報》를 창간하였으며 대략 다음해 겨울쯤 《開智錄》을 창간하였다. 이때 이후부터 혁명신문이나 소책자들이 雨後竹筍처럼 쏟아져 나왔다. 중국동맹회가 성립된 이후에는 《民報》·《中國日報》·《中興日報》 등을 주요진지로 하여, 자산계급 혁명파들은 자산계급 개량파(그들은 주로 《新民叢報》 《南洋總匯報》 등을 통하여 입헌보

제한체, 소설의 내부문제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 적이 있음.

2) 이영섭, 《만청 시기 ‘소설림파’의 소설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년 8월, 2쪽.

황 등의 사상을 고취했다.)들과 한바탕 대규모의 논쟁을 벌임으로서 전 사상문화영역에 거대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사상논쟁에서 革命派는 명백하게 우세한 고지를 점하였고, 梁啓超가 주편하던 《新民叢報》는 1907년 7월에 정간되어 졌고, 자매지인 《新小說》잡지는 이보다 훨씬 이른 1906년 1월 이미 정간되어지고 말았다.

그 다음으로는, 梁啓超가 “소설계 혁명”을 고창하고, 소설의 사회 교화기능을 전력으로 선전하자, 소설의 문학상의 지위는 크게 제고되어 졌으며, 만청 시기의 신소설이 발흥하는데 일정정도의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창작·번역·이론을 막론하고 모든 분야에서 전례없는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그러나 양적 발전이 반드시 질적 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 시대를 풍미하였던 《新小說》·《繡像小說》등과 같은 소설전문잡지의 정간은 어떤 의미에 있어선 신소설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신소설이 발전해 감에 따라 각양각색의 문제점도 드러나게 되어, 비평가(이론가를 포함)들은 소설의 변영이라는 수면의 아래쪽에 잠복해 있는 창작의 위기를 의식하기 시작하였고, 어찌는 수 없이 되돌아 와서 바로 직전의 소설이론을 연구하고, 한 쪽으로 편향된 이론에 대해선 바로잡기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소설계의 조류는 《小說林》이나 《月月小說》등과 같은 소설전문잡지를 중심으로 출현하였으며, “小說界革命”이 한참 성행할 때 시대조류를 타고 태어난 《新小說》(월간, 1902.11~1906.1) 《繡像小說》(반월간, 1903.5~1906.4) 등 소설잡지가 정간된 뒤를 이어 곧 바로 창간하여, “소설계 혁명”시기에 이론이 앞서가든, 다시 말하면 신 이론으로서 구소설을 비판하는 그러한 현상을 타파하고, 이론과 창작이 함께 가는, 다시 말해서 신소설이론으로서 신소설을 비판하는 새로운 시기를 열어놓았던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小說林》파를 혁명파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대단히 희박하다. 필자는 이 소설림파의 서념자나 황인을 혁명파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지만, 다수의 대륙의 학자들이 혁명파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그들이 혁명파의 고위 영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혁명사업에 참여하였고 다소 혁

명적인 성향을 띄고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혁명파라고 부르기로 하고 논의의 진행하고자 한다.

2. 초기 혁명파 지도자들의 소설에 대한 견해

梁啓超는 무술변법운동이 실패한 이래 여론선전으로서 실제적인 정치운동을 대신하였는데, 梁啓超나 그의 추종자들과는 달리, 孫中山·黃興·陳少白 및 章太炎 등과 같은 자산계급革命派의 영수들은 무장혁명 등과 같은 직접적인 정치행동을 중시했지 소설의 정치선전기능 등에 대해선 그다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아니했었다. 따라서 정치운동가로서의 자산계급 혁명파들의 소설과 관련한 활동은 자산계급 개량파들의 활동에 비해서 활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황소배나 진천화 등과 같은 개별 작가나 이론가들의 활동은 상당히 활발해서 당시의 소설발전에 끼친 공로가 적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가) 章太炎의 소설관

章太炎은 古文家 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일반적인 《報章小說》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으며, 소설에 대한 이해도 대체로 보수적인 편이었다. 그는 《與人論文書》에서 소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설가는 구류심가 중의 일가이니, 함부로 지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으로는 송견이 글을 지어 위로는 간하고 아래로는 가르치니, 그 뜻이 黃老사상과 비슷한 데가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말았다. 그 다음으로는 정도가 아닌 인물과 풍속들이나 사소한 학술적인 이야기들을 사관이 역사에 기록할 수도 없고, 제자백가들의 사상서에도 기록할 수도 없는 뒷이야기를 주어 모은 것과 같은 것들인데 사람들이 이를 중시했다. 그 아래로는 神怪고사 같은 것이 있는 데, 때로는 스스로 본 것들도 있어서, 소문으로 들은 것이

아니어서 의도적으로 꾸며낸 사건이 아니므로, 그 문장이 단조로와 담담하고 무미건조하여 태평스럽고 아무 일도 없는 듯하기도 한데, 《搜神記》《幽明錄》 등이 이들로 사람들이 이 또한 귀하게 여겼었다.唐人들이 처음으로 의도적으로 근거 없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했는데 후세사람들이 이를 본받아서 짓고 소설이라고 명명하니 본래의 소설의 의미와는 다르다. 포송령이나 임서와 같은 사람들이 책을 지어 소설로서 명명한 것은 《大全》《講義》같은 책들을 유가의 六藝에 가탁하는 것과 같다.³⁾

장씨는 《宋鉅著書》가 전형적인 소설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는 《諸子學略說》에서 《宋子》라는 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언급했다.

송자는 위로는 간하고 지켜워도 이를 포기하지 아니했으니(莊子·天下便), 아마도 사회도덕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가 열거한 黃老 등 諸家 또한 그와 유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街談巷語 또한 民俗에 유익할 수 있었던 것이다. 《笑林》 이후에는 이러한 뜻이 점점 쇠퇴하였으니 芻議의 의론이 아닌 것이다.⁴⁾

그의 뜻은 분명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장씨가 비록 소설이 實에서 虛로 변천해 가는 과정은 파악하고 있었으나, 그가 선호한 것은 “의도적으로 꾸며낸 사건이 아닌 것”으로, “사관이 일일이 기록할 수 없고, 諸子(사상가)들이 기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었다. 그는 《文學論略》이라는 글에서 《水滸傳》·《儒林外史》·《閱微草堂》 등의 작품들이 雅하여 俗되지 아니하다

3) 《中國近代文學大系》(文學理論集一: <與人論文書>), 132쪽. “又小說者列在九流十家, 不可妄作. 上者宋鉅著書, 上說下教, 其意猶與黃老相似. 晚世已失其守. 其次, 典道人物風俗, 學術方技, 史官所不能志, 諸子所不能錄者. 比于拾遺, 故可尚也. 其下或及神怪, 時有目睹, 不乃得之風聽, 而不刻意構畫其事, 其事坦也, 淡乎若無味, 恬然若無事者, 《搜神記》《幽明錄》之倫, 亦以可貴. 唐人始造意爲巫蠱媒嬾之言, 晚世宗之, 亦自以小說名, 固非其實. 夫蒲松齡·林紆之書, 得以小說署者, 亦猶《大全》《講義》諸書, 傳于六藝儒家也.”

4) 《中國古事研究》(八), 1쪽.

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은 이들 작품들이 각각 “街談巷語” “神怪幽密”이라는 전통적인 소설의 개념에 부합하면서도 “淪入惡道”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의 소설관념은 周·秦·西漢이래 형성된 구류십가로서의 소설가의 소설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洪秀全演義》의 첫머리에 序를 써서 연의소설의 기원·특징 및 사회작용 등을 논하고 있는데, 여전히 옛 것을 보존한다는 개념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연의가 싹트기 시작한 것은 그 기원은 멀리 전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 살펴보면, 주나라 때 제자들이 윗대의 고사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경전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으나, 자신의 뜻을 덧붙여 수식하고 있는데, 말씀이나 사건을 막론하고 대체로 몇 배나 되는 분량으로 불러 놓았다. 예를 들면 《六韜》는 태공의 일을 기록한 것이나 그 사건을 부연 설명해 놓은 것이다. 《素問》은 기백에 가탁해 지은 책으로 그 말씀을 부연 설명해 놓은 것이다. 演言하는 것은 宋明 대의 유학자들이 이를 답습했는데, 《大學衍義》 같은 책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演事하는 것은 소설가들이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옛날 역사에 근거하여 그 흐름을 살피고 진실된 것과 거짓된 것을 관찰하여 주관적으로 옛사람들의 뜻을 추측하여 소설(街談巷議)을 지어 농가의 부녀자나 아이들도 모두 秦漢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帝王將相의 업적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중국의 백성들이 옛날의 역사를 인식하는 정도가 인도와 같은 수준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사건을 부연 설명한 것이 비록 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옛것을 보존한 공은 매우 크다 하겠다. 禹山世次郎이 《洪秀全演義》를 지은 본래의 취지도 여기에 있다⁵⁾.

5) 《洪秀全演義·章序》, 1쪽. “演義之萌芽, 蓋遠起于戰國, 今觀晚周諸子說上世故事, 多根本經典, 而以己意飾增, 或言或事, 率多數倍. 若《六韜》之出于太公, 則演其事者也. 若《素問》之托于岐伯, 則演其言者也. 演言者, 宋·明諸儒因之爲《大學衍義》: 演事者, 則小說家之能事, 根據舊事, 觀其會通, 察其情偽, 推其意以明古人之用心, 而附之以街談巷語, 亦使田家婦子, 知有秦·漢至今帝王師相之業: 不然, 則中夏齊民之不知故國, 將與印度同列. 然則演事者雖多稗傳, 而存古之功亦大矣.”

장씨가 《洪秀全演義》의 序를 쓴 본래의 의도는 옛 것을 보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황세중이 연의소설이라는 이 무기를 사용하여 태평천국의 역사지식을 보급함으로써 인민들의 혁명적 역정을 진작시켜 反淸투쟁의 대열로 끌어내고자 하는 정신을 찬양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는 太平天國운동은 鄭成功의 뒤를 계승한 위대한 反淸운동으로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明 태조가 명을 건국한 일과 버금가는 일”이나, 비록 朱元璋이 원나라를 반대한 것과 나란히 거론한다고 하더라도 청나라 조정에서 “역사서에 기록하기는 하였으나 상세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악의적으로 비방을 함”으로서, 일반 백성들이 사건의 진상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1904년 劉成禺가 자산계급혁명가의 관점에서 《太平天國戰史》라는 책을 썼을 때 孫文이 敍를 써서, 이 책은 비록 “문장이 수려하지 못한 면은 있으나, 알려지지 않은 덕담을 충분히 전하고는 있는데,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어렵다”라고 하였다. 《洪秀全演義》는 문장이 통속적이어서 “출판 후에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성행하여 남양이나 미주지역의 화교들도 대부분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회곡으로 편찬한 작품도 나와서 종족관념을 일깨우는데 끼친 영향은 참으로 크다 하겠다”⁶⁾. 따라서 장병린도 序를 써서 이 책을 극찬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릇 국가나 종족에 관한 일은 들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어나는 사람이 더욱 많게 되는 법이다. 제갈량이나 악비에 관한 이야기는 목동들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이는 모두 소설에 의해서 선전된 것이다. 오늘 次郎이 이 소설을 지음에 그 이야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고 문장 또한 통속적이다. 지금부터는 홍왕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제갈량이나 악비를 존경하는 사람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옛사람들의 말에 “舜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말이 있다. 홍왕은 이미 갔으나, 홍왕을 본받으려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⁷⁾

6) 馮自由, 《革命逸史·洪秀全演義作者黃世仲》.

7) 淸·黃小配, 《洪秀全演義》(상해고적출판사, 1981.1), 1쪽, <章序>. “夫國家種族之事, 聞者愈多, 則興起者愈廣. 諸葛武侯·岳鄂王事, 牧猪奴皆知之, 正

여기서 말한 “홍왕을 본받으려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의미는 곧 새로운 反淸혁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章炳麟은 유명한 혁명 선전가였으므로 그가 《洪秀全演義》에 序를 써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 책을 긍정하였으니, 틀림없이 이 소설의 혁명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시켰을 것이다.

나) 진전화⁸⁾의 소설이론

賴演義爲之宜昭。今聞次郎爲此，其遺事既得之故老，文亦適俗。自茲以往，余知尊念洪王者，當與尊念岳·葛二公相等。昔人有言，舜何人也，予何人也，洪王朽矣，亦思復有洪王作也。”

- 8) 陳天華(1875~1905). 청대 자산계급 혁명가·소설가. 字가 星台이고 또 過庭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별호는 思黃이며, 河南省 新華縣 下樂村 사람이다. 光緒 元年(1875)에 출생했다. 가정은 빈한하였으며, 부친 陳善은 낙방한 수재로 생활력이 없었다. 陳天華는 어렸을 적에는 남의 집 소를 먹였으며, 고향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15세에 겨우 서당에 들어갔다. 그는 타고난 재주가 뛰어났으며, 당시에 유행하던 단사와 소설 등을 읽기를 좋아하였다. 그는 《二度梅》·《粉妝樓》·《一才子》·《西游記》·《封神榜》 및 《陶澂私訪南京》 등과 같은 잡지들의 잔본들 한편 한편들을 보물처럼 여기며 일단 한 번 읽기 시작하면 손에서 놓을 줄을 몰랐다. 때때로 모방을 하기도 하고, 문체를 모방해서 통속소설이나 山歌 등의 음악을 지어보기도 하였는데, 훗날 그가 혁명을 고취하는 통속적인 說唱文學 작품을 을 짓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작품들은 실제로 이러한 그의 유년생활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졌다. 1896년 아버지를 따라서 신화현 현소재지로 옮겨 살게 되었는데, 여전히 행상생활을 면할 수가 없었다. 후에 친척의 도움을 받아 浙江書院에 입학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학을 제창하던 新華求實學堂에 들어갔다. 1903년 이 학당의 지원을 받아 일본으로 유학가 東京弘文學院 사범과에 입학하였다. 같은 해 4월엔, 러시아가 중국의 동북 3성을 점령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 수십 통을 써서 중국의 각급 학교에 우편으로 배달하였다. 적극적으로 재일본 유학생 조직인 항러시아의용대(후에 만주를 배척하는 혁명군국민교육회로 바뀜)에 참여하여 귀국혁명운동원으로 천거되었다. 또 楊篤生과 함께 《游學譯編》·《新湖南》 등 잡지를 창간하여 혁명을 고취하였다. 1904년 2월 그는 황홍·송교인 등과 함께 장사에서 華興會를 설립하고 호남에서 反淸武裝蜂起를 계획하고 참여하였으나 사전에 누설되어 또 다시 일본으로 도망하였다. 1905년 일본에서 송교인 등과 함께 《二十世紀支那》잡지를 창간하였다. 同盟會가 설립되자 陳天

陳天華는 신해혁명 직전의 한 뛰어난 혁명선전가 이었다. 그는 수많은 걱정이 넘치는 작품을 써서, 제국주의의 광적인 침략과 청조의 암흑적 전체정치를 폭로하였는데, 그의 문장은 대단히 선동적이다. 그의 《猛回頭》《警世鐘》《獅子吼》 등의 작품은 통속적이고 쉬워서 광범위하게 유행하여 한 시대를 풍미했는데,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어 당시에 있어선 혁명의 나팔소리 역할을 하였다.

저명한 혁명활동가인 진천화는 《獅子吼》란 소설 가운데에서 작중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송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학문을 하는 것(앞에서 말한 歐美 지역으로 가서 헌법이나 군사학 등을 배우는 것을 가리킴)도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지에는 조금도 혁명의 풍조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 모두들 가버리면, 누가 국내에서 혁명의 기운을 일으키겠는가? 세계 각국은 나라마다 수천 개의 신문잡지사가 있어서, 최소한 일년에 수백 권의 소설을 발행하여, 능히 백성들의 지혜를 일깨울 수 있었다. 중국은 이렇게 지역이 방대하니 그들의 수십 배는 되어야 한다. 의외로 상해 한 지역에만 몇 종의 부패한 신문이 발행될 뿐 다른 지역은 전무한 실정이다. 신이상 소설은 한편도 없으니, 어찌 백성들의 지식을 어떻게 일깨울 수 있겠는가? 가령 수천 수백의 워싱턴이나 나폴레옹 같은 영웅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나는 내륙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새로운 신문을 창간하여 되는대로 몇 종의 신소설을 써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집안에서 만이라도 새로운 길을 열어, 너희들이 학문을 이루어 돌아왔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들을 배양해 놓겠다.” 사람들이 대답했다. “훌륭한 생각이요! 훌륭한 생각이요! 찬성입니다! 찬성입니다! 요즈음의 일들은 대단히 복잡하단 말이요, 모두들 각자 말을 일을 나누어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고 당신은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면 서로 병행을 해

華는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여, 會章起草員으로 천거되어 그 유명한 《革命方略》초안을 작성하였다. 《民報》가 창간되었을 때 撰述員을 역임하였다. 이 해 11월 일본정부가 《取締清韓留日學生規則》(청나라와 한국의 유학생 금지규정)을 반포하였을 때, 陳天華는 이에 격분하여 12월 8일 일본의 大森灣에서 바다에 투신하여 자결하였다. 絶命辭 만 여자의 문장을 남겨 국민들에게 각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도 서로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이 일단은 그의 소설관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는 맨 먼저 소설을 창작하는 목적은 “국내에 혁명의 기운을 불러 일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꾸어 말하면 광대한 민중들로 하여금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끔”하고, 혁명을 이해하고, 혁명에 영향을 미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작자는 이러한 혁명의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키고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며, 만약 군중들이 깨닫지 못하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몇몇 혁명당만이 단독으로 천하를 움직이려고 한다면, “가령 수천 수백의 워싱턴이나 나폴레옹 같은 영웅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소설창작의 목적이며 소설의 혁명에 대한 작용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신문잡지의 창간이나 소설의 창작 등 여론 진작사업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강조하지는 않았으며, 기껏해야 복잡 다단한 혁명사업의 한 분야로 인식하고 정치·군사 등 다른 혁명공작과 “서로 병행해도 서로 어긋남이 없는” 상부상조의 관계로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 서로 협심 단결하여 “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당신은 당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할 때” 비로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소설과 혁명간의 관계--소설이 비록 혁명의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소설의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소설이 비록 혁명사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혁명사업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분야에 불과하다--를 한 걸음 더 나아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다) 황소배⁹⁾의 소설이론

- 9) 黃小配(1872~19120). 청대 자산계급 혁명파의 선전가. 소설가로 世仲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禺山世次朝이며 또 曙世·世次朝·隸·老隸·隸孫·世界一個人 등이 있다. 廣東 番禺人이며, 부유한 지식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책읽기를 좋아하였다. 20여세가 되면서부터 가세가 기울어 형인 黃伯耀와 더불어 吉隆坡와 싱가포르 등지를 다니면서 생계를 꾸려나갔다. 戊戌政變 후에 康有爲를 중심으로 한

신문·잡지를 통하여 혁명을 선전하고 혁명사업에 실제로 참여하는 외에도 黃小配는 소설창작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차례로 《洪秀全演義》·《二十載繁華夢》(一名《粵東繁華夢》)·《黨人碑》·《陳開演義》(已佚)·《岑春火宜》(已佚)·《宦海冤魂》·《宦海潮》·《黃梁夢》·《鏡中影》·《廣東世家傳》(未見)·《大馬扁》·《宦海升沉錄》(一名《袁世凱》)·《朝鮮血》(一名《伊藤傳》)·《十日建國志》(未見) 및 辛亥革命후에 쓴 《新漢建國志》(未見) 등 십여 종의 소설을 썼다. 이 소설들은 어떤 작품은 열정적으로 근대중국의 농민기의 및 이에 참여한 영웅들을 찬양하고 있으며, 어떤 작품은 康有爲를 중심으로 한 자산계급 보황파들을 공격하고 있으며, 어떤 작품들은 신해혁명과 외국자산계급 혁명을 극력 찬양하고 있다. 그 소재가 광범위하고 내용이 풍부하며 입장이 분명하면서도 예술성 또한 비교적 높아서, 그는 晚清 小說史에 있어서 비교적 영향력이 있는 작가중의 한 사람이다¹⁰⁾.

保皇波들이 싱가포르에서 《天南新報》를 창간하였을 때, 그는 이의 영향을 받아 여러 차례 투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이 신문의 기자로도 활동하였다. 1901년에 흥중회의 해외조직인 중화당에 가입하였다. 1903년에는 홍콩으로 돌아와서 《中國日報》의 편집을 맡았으며, 그 후에 진시중과 함께 이 신문의 筆政(논설주간)을 맡았다. 뿐만 아니라 차례로 《世界公益報》·《廣東日報》·《有所謂》 등과 같은 신문의 편집을 맡음으로서 晚清시 자산계급혁명파의 유명한 선전가가 되었다. 黃小配는 1905년 8월에 손중산이 이끄는 동맹회에 가입하여, 동맹회 홍콩지부의 섭외와 서무 일을 맡아보았으며, 차례로 《少年報》·《廣東白話報》·《中外小說林》 등의 심문과 잡지를 발간했으며, 일찍이 당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신해(1901년)년 3월 29일 일어난 廣州革命黨人起義사건에도 직접 참가했다. 武昌起義 사건후 黃小配는 동맹회 남방지부 연락책 신분으로 광주지역 각 지역의 민과 군의 연락업무를 책임졌다. 그 해(1911년) 廣東이 독립을 선포하였을 때, 그는 혁명의 열정을 품고 《新漢日報》를 창간하였으며, 廣東軍政府 樞密處 參議·民團總局局長·軍團協會副議長 등에 임명되었다. 1912년 봄, 廣東軍政府 代理都督 陳炯明이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몰아낼 때, 사람들을 모함했다는 죄명으로 그를 체포하였으며, 5월 3일에 好漢民을 시켜 그를 살해하도록 하였다.

10) 연구의 부족으로 황소배 부분은 《中國古代小說百科全書》(中國大百科全書

黃小配는 소설창작에 직접 참여하는 외에도 소설창작에 관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탐색을 했다. 그가 발표한 소설이론에 관한 문장은 《洪秀全演義》의 自序·例言과 《二十載繁華夢》의 弁言·凡例 및 《宦海潮》의 叙文·凡例 등의에도 《中外小說林》¹¹⁾에 발표한 《文風之變遷與小說將來之位置》(署“棠”)·《中國小說家向多托言鬼神最阻人群慧力之進步》(署亞蕤)·《小說之功用比報紙之影響爲更普及》(署老隸)·《學堂宜推廣以小說爲教書》(署“老隸”)·《改良劇本與改良小說關係于社會之重輕》(署“隸”)·《小說風尚之進步以翻譯說部爲風氣之先》(署“世”)·《著<水滸傳>之施耐庵與施耐庵之<水滸傳>》(미서명, 문장의 스타일로 볼 때 마땅히 黃小配의 문장으로 봐야할 것임)등 논문의 성격이 뚜렷한 문장이 있다.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견해도 상당부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소설의 사회적 작용에 대해서 독창적인 견해를 발표했다. 黃小配는 “한 시대의 문학은 한 시대의 사회적 풍조와 관계된 것이며, 한 시대의 풍조는 한 시대의 성쇠와 관계된 것이다.”고 지적함으로써 문학과 사회 생활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다. 黃小配는 소설이 “啓民智, 壯民氣(백성들의 지혜를 계몽하고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하는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소설은 언제나 지위가 매우 낮았으므로 그 발전이 유독 늦었다. 따라서 “사회지식이 발전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개화가 된 국민이 지금에 와서는 지식이 퇴색하고 국가는 낙후되어 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운이 번창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동서양 각국의 사정은 중국과 달리 “모두가 소설의 힘을 빌어 국민의 영혼을 진작시키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소설을 교과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백성들의 지식이 발달하는 것이 수은이 땅에 쓰며드는 것과 같다”. “각국의 백성들의 지혜가 진보하는 것은 소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바에 힘입은바 크다.”고 하였다. 그

出版社), 189-190쪽에서 번역 인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 11) 《中外小說林》 또한 당시에 있어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소설잡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잡지는 광둥에서 발행되었던 관계로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 잡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비로소 황소배의 소설이론에 대한 연구가 깊이를 더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설과 성현들의 경전이나 불경과 도가서 및 신문잡지 등과 비교를 한 후 “불경이나 도가서와 성현들의 경전을 손에 들고 있으면 깊은 밤중에 짙은 안개 속에 앉아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해 미칠 지경이지만, 갑자기 한 권의 소위 말하는 소설이라는 것이 있어 읽고 있으면 보약이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해 주는 것만 같고 현미경이 사람의 눈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만 같으니, 이 얼마나 유쾌한 일인가! 만약 사람들이 소설을 읽고서는 지식이 날로 발전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 말을 믿지 않겠다”(《文風之變遷與小說將來之位置》)고 말했다. 그는 소설이 중국에서도 반드시 중시를 받을 것이며, “장차 문단의 맹주가 될 것이다”(《文風之變遷餘小說將來之位置》)고 여기고 있었다.

2. 소설의 예술성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 黃小配는 소설은 정치적으로 혁명적인 사상경향을 띄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예술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소설의 줄거리·구성·인물의 묘사·예술적 허구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 뛰어난 견해를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소설에 나타나는 정치적으로 혁명적인 사상경향성은 인물·사건·배경 등의 묘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말로서 사람을 인도하는 신문·잡지와 다른 점은 소설은 구체적인 행위의 묘사를 통해서 사람을 인도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하면 인물의 형상묘사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무언의 교화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소설 속의 사건의 묘사는 모두 情으로서 이를 전달하고 情을 묘사함은 모두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게 된다. 묘사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사상감정을 묘사 가운데 드러내게 된다. 그는 자기 자신이 소설을 창작함에 있어서 소설의 창작에 있어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이러한 법칙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二十載繁華夢》凡例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평범한 소설 속에서는 많은 소설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이 소설은 그렇지 아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는지만 결론이 그 속에 자연스럽게 내포되어져 있다”. 그는 《宦海潮》凡例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반적인 책에서는 인물에 대한 선호가 지나치게 노골적이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출세한 인물을 묘사하는 경우에 인물의 행위마다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하고 지나치게 과장되게 묘사를 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없앴다 따라서 張씨는 이 책의 주인공에 대한 묘사에는 지나치게 과대평가 하거나 과소평가 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

의 이러한 인식은 소설을 단순히 정치사상의 선전도구로만 여기는 그러한 소설관과는 뚜렷이 구별되어진다.

3. 근대적 소설개념으로 중국과 외국소설을 평가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소설 읽기를 좋아했다. 그는 소설이론 가운데에서 중국고전소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소설은 元明代에 이르러 크게 성행하기 시작하여, 淸代에 이르러 더욱 더 성행했다……그 찬란한 업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특히 《三國志演義》·《金瓶梅》·《水滸傳》·《紅樓夢》 등을 극찬했다. 그는 “《三國志演義》를 읽는 사람은 마땅히 작자의 의도가 漢나라 정통을 존중하고 군웅의 할거를 배척하는데 있음을 알아야 한다. 《水滸傳》을 읽는 사람은 마땅히 작자가 비유하고 있는 뜻을 알아야 한다. 《金瓶梅》를 읽는 사람은 마땅히 작자가 세대를 풍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紅樓夢》을 읽는 사람은 마땅히 작자가 사치스럽고 음란한 풍조를 경고하고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文風之變遷與小說將來之位置》)고 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민족적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외국소설을 배척하지도 않았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방 각국의 유명한 소설가로는 러시아에는 톨스토이가 있고, 프랑스에는 볼테르가 있으며, 영국에는 셰익스피어가 있으며, 일본에는 柴四郎이 있고, 독일에는 墨克가 있다. 나는 이들을 우리나라의 金聖嘆·施耐庵·曹雪芹·蒲松齡·湯臨川·孔雲亭 등과 같은 저명한 문호들과 서로 비교할 때, 지명도나 그 문장의 뛰어난 등의 우위는 감히 말하기 어려우나 그러나 그들이 소설로서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 세상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서양이 차이가 없으며, 이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공인하는 사실인 것이다”(《小說之功用比報紙之影響爲更普及》). 중국과 외국의 소설유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의심할 여지없이 그의 폭넓은 문학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4. 만청 소설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유익한 언급을 하고 있다. 黃小配는 만청 소설이 먼저 외국소설에 대한 평가와 소개가 대량으로 이루어진 연후에 창작소설이 대량으로 나타나는 객관적인 과정을 꿰뚫어 보고서 아래와 같이 결론지었다. “번역소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창작소설도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다. 번역소설은 그 선봉과 같고 창작소설은 그 후미와 같다. 서로 길을 나누어서 각자 제 갈 길을 가면서, 사회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친 비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 그는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인 것으로 소설의 번역이 먼저 성행하게 된 것은 사회진보를 위한 필요성과 소설이 가진 특유의 사회적 교화작용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나는 감히 번역소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쇠퇴하고, 창작소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성행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다."

5. 소설개량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적지 않은 당시에 창작된 소설이나 회곡이 "결국에는 사회의 풍기를 일신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백성들의 지식을 계발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또 예술형식 방면에 있어서도 "은통 난잡한 단어를 제멋대로 사용하여 意境의 개발은 찾아 볼 수도 없고, 그 뜻이라는 것도 너무나 평범하고 용속하나, 문장엔 지나친 수식을 하여 그 것으로 자만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의 작품 속에 줄거리가 산만하고 대단원도 없으며, 사건을 전개하면서도 뚜렷한 중심사상이 없었으며, 여러 사건을 나열하면서도 앞 뒤 연결이 되지 않고, 사건의 진행에 기복이 없고 앞과 뒤가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며, 사건을 보이는 대로 마구잡이 식으로 써 내려가 곳곳에 단절이 되어……, 이 같은데 국민의 지식을 일깨우려 해도 누가 이를 믿으려 하겠는가?" 따라서 소설을 개량하려면 소설창작의 질을 더 한층 끌어올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 사상 내용면에 있어서는 "고루한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사상으로 선도하면, 곧 국민의 지혜를 일깨울 수 있을 것이며" 예술형식방면에 있어서는 "저자가 어떻게 사건을 시작해서 어떻게 종결시켜야 하는 것은 건축을 하는 것과 같이 하면 될 것이고, 이 들을 묘사함에 있어서는 그림을 그리듯 정교해야 한다. 수식을 할 때는 정교해야하니 고심해서 경영해야 한다. 지난 이야기 한 두 가지를 엮어서 그저 글자 수만 채워 1회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물 흐르듯 담담하고 선과 같이 곧바르면, 비로소 소설가라 불려도 될 만하다"(《文風之變遷與小說將來之位置》). 그는 《中外小說林》을 창간한 목적은 소설창작이 정확한 방향으로 개량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우리 동지들이 《中外小說林》을 창간하였으니 저술할 때는 정확함을 추구하고 자료는 풍부함을 추구 할 것이다. 정확하면서도 풍부하면 반드시 성행하게 될 것이다. 날마다 개량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진보를 추구하는 자가 어찌 책임을 회피하려 하겠는가? 본사가 설립된 것은 시대적 사명과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확신한다."

黃小配의 주요한 소설이론의 저작은 梁啓超가 “小說界革命”을 제창한 후 몇 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 졌고, 그 스스로 소설창작을 하기 시작한 후 여러 해가 지나서 이루어 졌다. 따라서 그의 소설이론은 소설계 혁명이론에 대한 경험적 반성과 자기 자신의 창작에 대한 체험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소설이론은 梁啓超 등의 소설이론에 반발해서 이론적으로 더한층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겠으며, 徐念慈·黃人·王鐘麟 등 자산계급 혁명과 소설이론가들의 소설이론과 서로 비교해보아도 뚜렷한 자기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晚淸 소설이론의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이들 혁명과 지도자들의 소설이론은 내용은 물론이고 형식면에 있어서도 梁啓超 등 개량파의 소설이론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 발표자의 이름을 보지 않고 내용만 읽어서는 어느 것이 개량파의 이론이고 어느 것이 혁명파의 이론인지 구별되어지지 않는다. 적어도 1905년 《新民叢報》와 《民報》를 통해서 논쟁을 벌이기 이전까지는 兩派간에는 이념이나 인적 구성면에 있어서도 경계선이 불분명하였으며, 서로 상대방이 발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발표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소설이론에 있어서도 개량파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신소설 잡지에 이론 문장을 발표한 사람이 적지 않았으며, 혁명파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孫中山·黃興·陳少白 및 章太炎 등과 같은 혁명파의 영수들은 무장혁명 등과 같은 직접적인 정치행동을 중시했지, 소설의 정치 선전기능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그들은 梁啓超의 “小說界革命” 이론에 대해서 결코 반대한 적은 없었으나,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았었다. 진천화나 황소배 같은 소설에 관심을 가진 혁명파 인사들은 梁啓超의 “小說界革命”이론의 영향을 받아, 그와 비슷한 이론 문장을 발표하기도 하고, 소설의 창작 실천을 통해서 지지했다.

3. 徐念慈¹²⁾와 黃人¹³⁾ 등 《小說林》派의 소설이론

梁啓超는 무술 변법운동이 실패한 이래 여론선전으로서 실제적인 정치운동을 대신하였는데, 그의 정치사상에 관한 주장은 언제나 시대의 최선봉에 서 있었다. 그러나 革命派와의 논전 과정에서 그의 사상은 점

12) 서념자(1875~1908). 자는 彦士이고, 호는 覺我. 또 東海覺我라는 필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江蘇 昭文(현재 江蘇省 常熟市)사람이다. 그는 가난한 秀才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무술변법 전후에 교육계에 투신하여 신학으로서 새로운 기풍을 이루어 보고자 하였다. 광서28년(1902)에 중국교육회가 상해에서 결성되었을 때, 그는 친구들과 함께 지부를 결성하고 지부의 책임자가 되었다. 광서30년(1904)에, 曾樸이 상해에서 소설림사를 설립하자 그는 편집주임으로 초빙되었다. 그의 주관하에 소설림사에서는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소설들이 많이 출판되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曾樸의 《蘼花》와 碧荷館主人의《黃金世界》등이 있다. 《小說林》잡지가 창간(1907년 2월)된 후에는 창간 때부터 1908년 7월 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편을 맡았었다. 그가 창작하거나 번역한 소설도 비교적 많은 편인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新舞臺》·《黑行星》·《海外天》·《新法螺先生談》 등이 있다. 그의 소설이론으로는 《<小說林>緣起》·《余之小說觀》·《丁未年小說界發行書目調查表》 및 후에 阿英이 수집하여 편집한 《小說管窺錄》이라는 新書를 소개하는 문장이 있다.

13) 黃人(1868~1913). 원래의 이름은 진명이었으나, 중년에 人으로 바꾸었다. 자는 慕庵 또는 夢闌·蠻 등을 사용했고 별호가 摩西이다. 그는 江蘇 昭文(현재의 江蘇省 常熟市)사람이다. 열 여섯 살에 박하관 제자가 되어 “수천자가 되는 뛰어난 장문의 문장을 지으니, 문장에 신비스러움이 넘쳐흘러, 온현중의 사대부들이 모두 놀라서 기재라고 칭송하였다”(金學沖, 《黃摩西家傳》). 광서26년(1900)에는 막 개교한 東吳大學校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는데 함께 근무하게 된 오매. 장태염 등과 친하게 지냈다. 정치 사상적인 면에서는 오매와 장태염의 영향을 받았으며, 학술 사상적 측면에서는 전제군주제를 공격하던 진보적 사상가인 唐飭을 대단히 숭배하였다. 선통원년(1909)에 남사가 결성되었을 때 그는 즉각 가입하여 중견작가의 한 사람이 되었다. 신해년에 남경이 광복되었을 때, 그는 즉각 남경으로 가서 혁명에 참가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발병이 나서 참가하지 못했다. 民國2년(1913) 봄, 국가의 현실에 분노를 느껴 미쳐버렸으며 그 해 10월 15일 정신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일생동안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摩西詞》·《中國文學史》와 소설번역서인 《銀山大王》등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또 일찍

점 낙오되어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梁啓超의 정치적 주장이 점점 퇴색해져감에 따라서 그가 주창한 정치를 위해 복무해야한다는 그의 공리주의적 소설관도 점점 명성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이 사상논쟁에서 革命派는 명백하게 우세한 고지를 점하였고, 梁啓超가 주편하던 《新民叢報》는 1907년 7월에 정간되어 졌고, 자매지인 《新小說》잡지는 이보다 훨씬 이른 1906년 1월 이미 정간되어지고 말았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小說界革命”운동을 반성하고 “문학에 있어서 소설의 가치”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소설의 혁명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시작되어 졌다. 《小說林》잡지를 주편했던 徐念慈·黃人 등은 왕국유의 이론적 특색을 계승해서 梁啓超의 소설이론의 片面性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가) 梁啓超 등의 “소설계혁명”이론에 대한 반성

梁啓超가 “소설은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서 人道를 지배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한 후 소설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한 후 그의 추종자들은 “중국의 일체의 부패한 현상들을 혁신하려고 한다면 소설의 막을 열어야만 한다”고 과장해서 설명함으로써 소설의 사회적 기능을 극단적인 정도로까지 끌어 올려놓았다. 그러나 소설의 구체적인 창작실천은 사실이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다. 따라서, 일단의 소설가·이론가들은 점점 더 명확한 인식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소설이 불가사의한 힘이 있다.”는 주장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였다. 진정으로 “小說界革命”에 대해 반성을 하기 시작한 사람은 《小說林》잡지의 주편을 맡았던 徐念慈와 黃人이었다. 그들은 1907년 2월에 창간한 《小說林》잡지 창간호에 동시에 문장을 발표하여 梁啓超 소설이론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 동향의 절친한 친구인 방수백 등과 三千劍氣文社를 결사했으며, 서념자와 함께 《小說林》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소설이론문장으로 는 《小說林發刊詞》·《소설소화》·《中國文學史》 가운데 한 절인 《明人章回小說》 등이 있다.

그들은 먼저 소설이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된 데 대한 그들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다. 徐念慈는 《小說林緣起》에서 소설이 발흥한 현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각아는 말한다. 대단하도다! 근래 번역된 서적이 동쪽으로 흘러 들어와, 학술이 서구화 하니, 그 가운데 가장 우리의 新·舊 사회를 감동시키고, 문인이나 야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를 막론하고 모두가 환영하지 않는 이가 없는 것이 바로 신소설이 아니겠는가?¹⁴⁾

그는 또 《余之小說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옛날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시대조류의 변화에 대해서 논하면서, 두터운 이불을 덮고 높은 베개를 베고서 어둡고 달콤한 방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어 바깥세계의 변화를 알지 못하고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에 비유했다. 일시적으로 단절된 것을 느끼지 못하던 사람도 생각이 깊은 사람이 한 번 경고만 해 주어도 갑자기 크게 깨달아 화들짝 놀람을 금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진화의 조류, 즉 소위 말하는 과학이라는 것·실업이라는 것·예술이라는 것 들 모두가 바빠 서두르는 모양이 동등 북을 울려서 잃은 아이를 찾는 것만 같고, 위태롭기가 흙먼지를 날리면서 치마를 걷어붙이고 달리는 사람과 같아 보이니, 이렇게 하여 모두들 문명의 영역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예술의 한 영역에 속하는 음악·회화·회극 등도 개량·구호가 귀에 들어오자 말자 덩달아서 소위 말하는 실업이다 과학이다 하는 것에 뒤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 쏟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앞서 나가는 것이 바로 신소설이다.¹⁵⁾

14) 覺我曰：偉哉！今年譯籍東流，學術西化，其最動吾新舊社會，而無有文野智愚咸歡迎之者，非近年所行之新小說哉？

15) 昔德意志哲學家康德氏論時勢之推移也，譬之厚褥高枕，安睡于黑黯之鄉，而不知外界之變動，內容之代謝；乃有一息之未嘗間斷者，一經有心人之警告，始不禁恍然悟而瞿然驚矣。今者亞東進化之潮流，所謂科學的、實業的、藝術的，咸乎若揭鼓而求亡子，岌岌乎若囊囊而步后塵，以希共進于文明之域。即趨于美的一方面之音樂、圖畫、戲劇，亦且改良之聲，喧騰耳鼓，亦步亦趨，不後于所謂

黃人은 《小說林發刊詞》에서 소설이 유행하여 사회에 미친 현상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 세상은 바야흐로 문명이 서로 교통되는 시대이며 또한 소설이 교환되는 시대이다. 국민자치는 바야흐로 예비단계에 있으며, 교육개량은 아직도 보급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과학은 마치 골동품을 나열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고, 실업이라는 것도 술취한 사람을 부축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넘어질지 일어설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오로지 소위 소설이라는 것만은 힘차게 일어선 것이다.¹⁶⁾

그들은 만청 소설이 발흥하는 현상 및 소설이 만청 사회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좀 과장적으로 표현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만청 소설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반영해 내었다. 이러한 사실은 梁啓超가 주창한 “小說界革命”운동이 보급의 측면에서는 예상했던 효과를 얻었으나, 그러나 본래의 목적 즉 사회를 개량한다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徐念慈와 黃人도 못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소설이 사회를 개량할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는 않을 뿐만 아니

實業科學也。然而此中絕塵而駛者，則當以新小說爲第一。

- 16) 今之時代，文明交通之時代也，抑亦小說交通之時代乎！國民自治，方在預備期間；教育改良，未臻普及地位；科學如羅骨董，眞贗雜陳；實業若披醉人，僕立無定；獨此所謂小說者，其興也勃焉。海內文豪，既各變其索縑乞米之方針，運其高髻多脂之方略；或墨驅尻馬，貢殊域之環聞；或筆代然犀，影拓都之現狀。集葩藻春，并亢樂曉，稿墨猶滋，囊金競質。新聞紙報告欄中，異軍特起者，小說也；四方聲致，擲作金石聲，五都標懸，燦若云霞色者，小說也；竹罄南山，金高北斗，聚珍攝影，鈔腕欲脫，操奇計贏，舞袖益長者，小說也；蠶發學童，蛾眉居士，上自建牙張之尊嚴，下迄雕面粥容之瑣賤，視沫一卷，而不忙遽置者，小說也；小說之風行于社會者如是。狹斜拋心締約，輒神游于亞猛、亨利之間；屠沽察睫競才，常銳身以福爾、馬西爲任；摹仿文明形式，花圈雪服，賀自由之結婚；崇拜虛無黨員，炸彈快槍，驚暗殺之手段；小說之影響于社會者又如是。則雖謂吾國今日之文明，爲小說之文明可也，則雖謂吾國異日政界、學界、教育界、實業界之文明，即今日小說界之文明，亦無不可也。

라, 오견인과 마찬가지로¹⁷⁾ 당시의 소설이 사회에 끼친 효과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우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견인이 이러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화뇌동하기 좋아하는 작가들이 져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과는 달리 徐念慈와 黃人 두 사람은 그 근본 원인은 서방문화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현상 즉 다시 말해서 “小說界革命”이론을 너무나 과열되게 제창함으로써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단정지었다. 그들은 만청의 소설계가 소설의 사회적 지위를 너무나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 데 따른 일종의 반작용현상으로 보았다. 徐念慈는 《小說林緣起》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릇 우리나라에서는 소설을 줄곧 무슨 독극물처럼 여겨 근거도 없이 엄격하게 금지시켜, 청년자제들로 하여금 조금도 섭렵하지 못하게 하더니, 마침내 그 쌓인 폐습을 뒤바꾸어 놓으니 이와 같이 되고 마는구나.¹⁸⁾

그는 《小說林》제9·10기에 등재된 《余之小說觀》이라는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고루하고 현실에 어두워, 소설을 독주나 곰팡이처럼 여겨 자제들이 이를 읽는 것을 조금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지나치게 엄격함을 면치 못한다. 오늘날 서적을 번역하여 파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풍속이라든지 국민진화라든지 하는 모든 것들을 소설에 의지해야한다고 말하고들 있는데 이 또한 분수에 넘치는 잘못된 말이다.¹⁹⁾

그는 이어서 “분수에 넘친 잘못된” 근본원인이 소설과 사회의 관계를

-
- 17) 1906년에 발행된 《월월소설》의 <서>에서 소설 창작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우 불량한 현상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표시했다.
- 18) 夫我國之于小說，向所視為毒，懸為厲禁，不許青年子弟稍一涉獵者也，乃一反其積習，而至于此。
- 19) 昔冬烘頭腦，恒以鳩毒梅菌視小說，而不許讀書子弟一嘗其鼎，是不免失之過嚴；近今譯籍稗販，所謂風俗，國民進化，咸惟小說是賴，又不免失之過當。

잘못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黃人 또한 《小說林發刊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가지 폐단이 있다고 한다면: 옛날 사람들은 소설을 지나치게 경시한데 반해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소설을 지나치게 중시한다는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소설을 도박이나 광대놀이처럼 여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독주나 마귀처럼 여기기도 하였다. 사대부들은 이를 입에 담지 아니하고, 四部(經·史·子·集)에도 오르지 못하였다.(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소설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말하는 소설이라는 의미와는 사뭇 다르다.) 마음속으로는 몹시 좋아하면서도 이를 읽을 때는 반드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읽어야 했고, 글을 쓰다가 혹시 잘못하여 소설을 인용하기라도 하면 사람들이 이를 비웃곤 하였다. ……오늘날은 이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권의 소설을 출간할 때마다 작가 스스로 국민진화의 공을 내세우고, 한 권의 소설을 비평할 때도 반드시 풍속개량의 의지가 있다고 크게 소문을 내고 다닌다. 한 마리의 개가 짖으면 사방의 개가 따라 짖고, 미인의 걸음걸이를 배우다 길바닥에 넘어지는 풀이다.²⁰⁾

이 이야기는 분명 梁啓超와 그의 추종자들을 겨냥하여 한 이야기로, 梁啓超와 그의 추종자들은 당시에 사회의 일체의 모든 것은 소설에 의존해야만 하고 소설은 사회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 黃人은 이러한 견해에 완전히 동의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문학의 본질에서 출발하여, 梁啓超의 소설이 가져다준 결과에 대해서 회의하기 시작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20) 雖然，有一蔽焉：則以昔之視小說也太輕，而今之視小說又太重也。昔之于小說也，博奕視之，俳優視之，甚且鴆毒視之，妖孽視之；言不齒于縉紳，名不列于四部。(古之所謂小說家者，與今大異。)私衷酷好，而閱必背人；下筆誕征，則群加嗤鄙。……今也反是：出一小說，必自尸國民進化之功；評小說，必大倡謠俗改良之旨。吠聲四應，學步載塗。以音樂舞蹈，抒感甄挑卓之隱衷；以磁電聲光，飾牛鬼蛇神之假面。雖稗販短章，葦茹惡札，靡不上之佳諡。弁以吳詞；一若國家之法典，宗教之聖經，學校之科本，家庭社會之標準方式，無一賜于小說者。其然，豈其然乎？

문장가들이 가장 꺼려하는 것은 억지로 꾸며 만드는 것이다. 마음속의 고정관념 또한 본래의 면모를 가려버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소설이 완고한 마음을 바꾸어 생기발랄하게 하고 부패한 공기를 바꾸어 신선하게 만들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묻지 않겠다. 또한 소설을 창작하는 사람들의 본심이 전적으로 대중들의 공익만을 위하고 자신을 위해 사리를 도모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그 소설의 내용이 작가들이 표방하는 이러한 의도와 일일이 부합하느냐 하는 점도 묻지 않겠다. 소설 평론가나 독자들이 과연 이 소설이라는 것이 煥骨丹이 되고, 益智粽이 되고, 金牛의 憲章이 되거나 또는 솔로몬의 주문 등으로 공인하는지 여부는 더더욱 묻지 않겠다. 청컨데, 소설의 실질을 한 번만 살펴보시라.²¹⁾

그들은 만청 소설계의 이론주장·작자의 창작태도·독자의 열독 습관 및 비평자의 심미경향에 대해서 실제상황에서 출발해서 이론과 실제상황과의 괴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는 마침내 “옛날 사람들은 소설을 지나치게 경시하였으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소설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있다.”는 일종의 반작용현상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출현하게 된 것은 만청의 소설이론가들이 오도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며, 그들이 일방적으로 소설의 사회적 교화기능을 과장해서 선전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소설과 사회·소설과 인생의 관계를 오해함으로써 생긴 현상이라고 여겼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이 근본적으로 소설의 예술적 특징을 확대해 버림으로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았던 것이다. 황인의 이러한 반성은 직접적으로 만청 소설이론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는데, 그는 순문학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자신이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안 찾기를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는 공리주의 소설이론의 치우침을 바로잡고 새롭게 소설이론을 탐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徐念慈는 《小說林緣起》라는 글에서 마찬가지로 의문을 제기했다.

21) 夫文家所忌，莫如故爲關係：心理之辟，尤在昧厥本來。然吾不問小說之效力，果足改固之腦機而靈之，祛腐敗空氣而新之否也；亦不問作小說者之本心，果專爲大群治公益，而非爲小己謀私利，其小說內容，果一一與標置者相仇否也；更不問評小說讀小說者，果公認此小說爲煥骨丹，爲益智粽，爲金牛之憲章，爲所羅門之符咒也；請一考小說之實質。

무릇 우리나라에서는 소설을 출판 무슨 독극물처럼 여겨 근거도 없이 엄격하게 금지시켜, 청년자제들로 하여금 조금도 섭렵하지 못하게 하더니, 마침내 그 쌓인 폐습을 뒤바꾸어 놓으니 이와 같이 되고 마는구나. 과연(이 둘을 떼어놓는 개천 같은 것이 있으니), 이를 통하게 하면 그 설이 원만해 질 수 있을까? 소설의 道가 오늘날의 것과 옛날의 것이 서로 다르니 과거의 것이 사람을 해쳤다면 오늘의 것은 진실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가? 어찌 사람들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다지도 바뀌는가?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성(Venunft)은 고무하고 감각하는 가치를 갖고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연구해야만 할 문제들인 것이다.²²⁾

그는 차례로 네 가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점차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1) 중국인들의 과거의 소설관념과 현재의 소설관념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과연 이 둘을 떼어놓는 개천 같은 것이 있으니, 이를 통하게 하면 그 설이 원만해 질 수 있을까?” 무슨 충분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서 이러한 관념변화의 합리성을 설명해 낼 수는 없을까? (2) 이러한 소설관념이 실제생활과 서로 부합하고 있는가? 그 이론의 근본취지와 발생한 객관적인 효과는 서로 일치하고 있는가? (3) 어찌 사람들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다지도 바뀌는가? 그의 梁啓超 등 改良派의 소설이론에 대한 회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어 지고 있다. (4)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성(Venunft)은 고무하고 감각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로 미루어 徐念慈는 소설 이론면에 있어서의 관심은 이미 철학과 미학의 근본적인 문제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왕국유와 마찬가지로 서방의 先驗哲學이론 특히 人性론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22) 夫我國之小說，向所視爲鴆毒，懸爲厲禁，不許青年子弟稍一涉獵者也，乃一反其積習，而至于此。果有溝而通之，以圓其說者耶？抑小說之道今昔不同，前之果以害人，后之實無愧益世耶？豈人心之嗜好，因時因在而遷耶？抑于吾人之理性(Venunft)，果有鼓舞與感覺之價值也？是今日所宜研究之一問題也。

나) “小說界革命” 이론의 치우침을 바로 잡고 새로운 소설관을 제기하다

徐念慈와 黃人 등은 만청 소설계의 수많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만청 改良派들의 소설이론이 오도한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이러한 오도는 소설의 예술적 특징을 오해한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소설의 예술적 특징에서부터 착수하여 “小說界革命”이론의 치우친 부분을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소설이론을 세우고자 하였다.

黃人은 《小說林發刊詞》라는 글에서 소설에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

소설이라는 것은 문학 가운데에서 예술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부류의 한 종류이다. 寶釵의 비단 허리띠는 벌써 높이 뛴 분위기는 아니고, 벽운의 노란 꽃은 만년이 행복할 그러한 품격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소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문학은 스스로 추구할 만한 높은 품격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드시 심미적인 지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비록 진짜 일어난 사건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택해야 한다.²³⁾

黃人은 “소설이라는 것은 문학 가운데에서 예술적 아름다움을 추구하

23) 小說者，文學之傾于美的方面之一種也。寶釵羅帶，非高蹈之口吻；碧雲黃花，豈后樂之襟期？微論小說，文學之有高格可循者，一屬於審美之情操，尚不暇求真際而擇法語也。然不佞之意，亦非敢謂作小說者，但當極藻繪之工，盡纏綿之致，一任事理之乖，風教之滅裂也。玉麒麟鎖，補史氏之舊聞，氣液日精，掘良工所并獲，未始非即物理之助也；不然，則有哲學、科學專書在。吁天訴虐，金山之同病堪憐，渡海尋仇，火窟之孝思不置，固足收振恥立懦之效也；不然，則有法律、經訓原文在。彼求誠止善者，未聞以玩華綉之不逮，而變誠之善之目的以遷就之；則從事小說者，亦何必推髻飾勞，黥容示節，而唐捐其本質乎？媼、施天下之美也；鷗夷一舸，詎非明哲？青塚一壞，不失幽芬。藉令沒其傾吳宮、照漢殿之豐容，而強與孟廡齊稱，蛾台合傳，不將疑其狂易乎？一小說也，而號于人曰：吾不屑屑爲美，一秉立誠明善之宗旨，則不過一無價值之講義、不規則之格言而已。恐閱者不免如聽古樂，即作者亦未能歌舞其筆墨也。名相推崇，而實取厭薄，是吾國文明，僅于小說界稍有影響，而中道爲之安障也。

는 부류의 한 종류이다.”이라는 이 핵심적인 한 마디를 붙들고서, 소설과 철학·과학·법률 및 經訓 등의 다른 학문들과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설명했다. 만약 소설이 어떤 문학적 품격을 가져야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심미적인 지조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것이 있음으로서 문학적 품격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이다. 진실로 소설을 창작할 때는 반드시 물리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능히 “수치스러움을 떨쳐버리고 나약한 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비단 소설이 문학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허품은 아니다. 만약 이러한 기능을 소설이 아닌 철학·과학·법률·경전 등에서 찾는다면 이들 또한 이러한 일들을 훌륭히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이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설만의 독특한 특질은 “美”이다.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진실한 마음가짐으로서 善을 밝혀내려고 한다면 그가 기록한 것은 “무가치한 강의노트나, 불규칙한 격언”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黃人의 이런 유태주의적인 논조는 당시의 실용주의적인 가치관에 대한 반동처럼 보인다. 비록 그의 소설의 개념에 대한·문학의 실질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깊은 단계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의 법전·종교의 성경·학교의 교과서·가정과 사회의 어떤 규범까지도” 모두 소설과 연계시키지 아니하면 안되던 특정한 역사적 조건 하에서 능히 “소설이라는 것은 문학 가운데에서 예술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부류의 한 종류이다”라고 제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용기 있는 행위이다. 그는 소설이 직접적인 정치적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감흥을 불러일으킴으로서 독자들의 사상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의 이러한 관점은 이미 소설미학의 실질에 접근하고 있으며, 임의적으로 소설의 사회적 기능을 과대평가 하는 관점을 부정하고 있으니, 그의 이러한 관점의 발표는 의심할 여지없이 소설의 사회적 역할을 새로이 평가하고 소설의 특성과 기능을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촉진작용을 하였을 것이다.

그는 《小說小話》라는 글에서 소설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진일보한 관점을 발표했다.

소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실하나, 사회의 온갖 풍상도 이보다 앞서 소설을 구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 이들의 관계는 서로 인과 결과가 되는 호환관계이다. 우리나라의 남북부는 자연현상이 확연히 다르다. 북부의 각 성은 자연환경이 척박하여 사람들의 기질이 강인하나, 남쪽 사람들은 비옥한 토지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체질이 연약하고 호색함에 습관이 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의 문학은 이러한 기준으로 그 특징을 분류할 수 있으니, 소설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북방사람들의 소설은 그저 입만 병긋하면 俠義를 논하지만, 남방사람들의 손에서 나온 소설은 천편일률적으로 남녀가 밀약을 하는 것 일색이다. 兒女英雄은 각자가 그 사회에 잘 어울리는 것을 모델로 삼았다. 수 천년 간 지속된 전제정치체제의 속박을 그들이 싫어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만이라도 자신들의 이상 속의 자유(협의소설은 금지령을 지켜가면서도 호족이나 관료들과는 적이 되어 정부의 전제를 깨부수는 것, 남 몰래 밀약하여 혼인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으로서, 가정의 전제를 깨부수는 것)를 써내 보이려고 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들은 사고력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금기사항들을 고려하고 이것저것을 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마침내 그들의 목적은 여전히 임금님의 율령을 얻어내거나 책봉을 받는데 에 있는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 만약 허락을 받아내지 못하게 되면 곧바로 정당성을 상실하고 말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후천적으로 누적된 습관으로, 이러한 일을 몰래 행하면서도 그것이 모순됨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설을 읽는 독자들도 사건줄거리의 기이함과 서술의 기묘함에만 신경을 쓸 뿐, 자유라는 하나의 중심 축을 따라서 이야기를 전개한 줄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그 효과를 살펴보면 소위 북방에 속하는 소설은 괜히 도적질만 가르친 것이 되고, 남방에 속한 소설들은 오로지 음탕한 것만 가르친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²⁴⁾

24) 小說之影響于社會固矣，而社會風尚實先有構成小說性質之力，二者蓋互爲因果也。吾國南北兩部，風風氣犁然而異，北方各行省，地斥鹵而民強悍，南人生長膏沃，體質荏弱，而習爲淫靡，故南北文學亦因之而分，而小說尤顯著。北人小說，動言俠義；而出于南人者，則幽期密約，千篇一律；兒女英雄，各据其所融治于社會者爲影本。原其宗旨，未始非厭數千年專制政體之束縛，而欲一寫其理想中之自由(俠義躬捍文綱，與豪宗墨吏爲仇，破政府之專制也；幽期密約，婚姻自由，破家庭之專制也)，而思力不充，更多顧忌瞻徇，其目的仍在封拜，誥贈，一若不得君主父母之許可，終不得爲正當者。則又第二層之普通結習，潛驅陰率之，而不復能顯其矛盾也。而閱小說者，但喜其情節之離奇，敘述之雋妙，不知

黃人 이전에도 적지 않은 소설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토론이 있어왔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梁啓超와 曼殊간에 있었던 서로 상반된 의견이었다. 梁啓超는 《小說與群治之關係》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중국인들의 장원재상사상이 어디에서 왔는가? 소설에서 왔다.
우리 중국인들의 재자가인사상이 어디에서 왔는가? 소설에서 왔다. 우리
중국인들의 강호도적사상이 어디에서 왔는가? 소설에서 왔다. 우리 중국
인들의 무와 요괴의 사상은 어디에서 왔는가? 소설에서 왔다.²⁵⁾

梁啓超도 전통소설의 感染作用에 대해서 비록 긍정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곧 이어 이러한 감염작용이 긍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梁啓超는 전통적인 중국사회의 수많은 열악한 사회가치관 및 어리석게도 미신을 믿는 나쁜 습관들은 모두가 다 전통 소설로부터 나왔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중국의 전통소설은 대체로 도적 짓을 가르치는 것이나 음탕한 짓을 가르치는 것 등 두 가지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니, 이것이 중국의 정치가 부패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주장은 소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장하여 말한 것이다. 이를 이론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사회의식이 사회존재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앞뒤가 전도된 관념에서 출발하여 梁啓超는 “정치를 개량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소설을 개량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하며, 백성을 새롭게 하는 일도 반드시 소설을 새롭게 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는 한쪽으로 치우친 결론을 얻기에 이른 것이다.

만수는 梁啓超의 이런 소설의 사회적 기능을 극단적으로 과장하는 소설관에 대해서 《小說叢話》라는 글에서 아래와 같은 비판적인 의견을

就自由之一点引申而整理之，故其效果，屬于北者徒誨盜，屬于南者唯誨淫。

25) 吾中國人狀元宰相之思想何自來乎? 小說也。吾中國人佳人才子之思想何自來乎? 小說也。吾中國人江湖盜賊之思想何自來乎? 小說也。吾中國人妖巫狐鬼之思想何自來乎? 小說也。

제시했다.

소설이라는 것은 현재사회의 견본이다. 어떤 소설인가를 막론하고 그 사상의 범위는 그 소설이 쓰여진 당시의 범위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 이는 아마도 (소설과 사회와의 관계는) 형상과 모양과의 관계·그림자와 사물과의 관계와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조국사회의 부패상을 보고 가슴아파하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우리나라에 뛰어난 소설이 없다는 사실에 돌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쁜 사회가 저질소설의 결과인가 아니면 저질소설이 나쁜 사회의 원인인가?²⁶⁾

만수는 梁啓超의 대립되는 입장에 서서 사회존재가 사상의식을 결정한다는 주장을 견지했는데, 그는“소설이라는 것은 현재사회의 견본”이라고 여기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소위 모모 미래가·모모 사상 여행기 등의 부류는 최근의 외국 소설계에는 이런 소설이 적잖게 보이는데, 갑자기 이들을 보면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세계 밖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세상을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선악을 구별하고是非를 결정하는 것은 모두가 다 오늘날의 사상들이다.²⁷⁾

비록 그가 주장하는 나쁜 사회가 나쁜 소설을 만들어 낸다는 추론 또한 또 다른 하나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을 면할 수는 없지만, 曼殊의 관점은 梁啓超 등의 관점에 대한 대단히 유력한 반박으로, 소설이론연구자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참고계통을 제공하였으니, 가까이 黃人에게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

26) 小說者“今社會”之見本也。無論何種小說，其思想總不能出當時社會之範圍，此殆如形之于模，影之于物矣。雖證諸他邦，亦罔不如是。……今之痛祖國社會之腐敗者，每歸罪于吾國無佳小說，其果今之惡社會爲劣小說之果乎，抑劣社會爲惡小說之因乎？

27) 卽如所謂某某未來記、某思想游記之類，在外國近時之小說界中，此等書殆不少，驟見之，莫不以爲此中所言，乃世界外之世界也，脫離今時社會之範圍者也。及細讀之，只見其所持以別善惡決是非者，皆今之思想也。

黃人은 “소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실하나, 사회의 온갖 풍상도 이보다 앞서 소설을 구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 이 둘의 관계는 서로 인과 결과가 되는 호환관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성숙되고 변증 통일된 논점은 梁啓超와 曼殊의 啓發를 받아서 확립된 것으로 方正耀가 《晚清小說研究》에서 “사회가 소설에 대하여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소설이 사회에 미치는 반작용만을 과대 선전한 것이 梁啓超의 착오이라면, 사회가 소설에 미치는 영향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후 소설이 사회에 미치는 반작용을 확대한 것은 俠人(曼殊를 잘못 기억함) 소설이론 중의 착오이다. 黃摩西가 변증법적으로 사회와 소설의 상호연관·상호인과 및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 등을 명백하게 밝힘으로서 梁啓超의 착오를 바로 잡았을 뿐만 아니라 俠人(曼殊의 착오)이론의 부족한 부분도 보충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만청의 소설이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날로 깊어져 갔다”²⁸⁾고 말한 바와 같다.

黃人과는 달리, 徐念慈는 서방미학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소설의 예술적 특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마찬가지로 梁啓超 등의 소설이론 가운데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소설이론을 바로잡아 주었다. 그는 《小說林緣起》라는 글에서 소설에 정의를 내려 “내가 비록 아둔하기는 하나 소설에 대해서 정의를 굳이 내린다고 한다면 ‘무릇, 소설이라는 것은 아마도 理想美學·感情美學에 부합하는 것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것이 아니겠는가?’²⁹⁾”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정의는 梁啓超가 二種境界說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학 장르들 가운데에서 능히 그 묘를 다하고 그 技를 신비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소설만 한 것이 없다 따라서 소설을 문학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말한다”³⁰⁾라는 관

28) 文正耀, 《晚清小說研究》(華東師大出版社, 1991年 7月), 98쪽. “不知社會對小說起決定作用而誇大小說對社會的反作用, 是梁啓超理論的錯誤所在: 肯定社會對小說產生的決定作用而忽略小說對社會的反作用, 則是俠人(曼殊—引者按)理論中的偏面之處。黃摩西辯證地闡述了社會與小說兩者互相關聯、互為因果和作用與反作用的關係, 則既糾正了梁啓超的錯誤, 也彌補了俠人的不足, 從而說明晚清小說理論是在不斷發展、日趨深化的。”

29) 余不敏, 嘗以臆見論斷之: 則所謂小說者, 殆合理想美學、感情美學而居其上乘者乎?

점을 발표한 것을 겨냥해서 말한 것이다. 梁啓超는 소설의 사회교화 기능을 이론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반해, 徐念慈는 소설의 미학특징을 이론의 근거로 삼고 있다. 중국의 학술사상은 당시까지만 해도 세밀하게 분류를 한다든지 분과를 하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문학과 철학은 항상 함께 토론을 했으며, 문학이라는 것은 항상 經史의 附庸의 위치를 차지하곤 했다. 梁啓超가 비록 소설의 문학상의 지위를 극단으로 끌어올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는 아직도 전통적인 학술관점을 답습하고 있었으며, 문학을 여타 다른 학과와 분리하여 문학만의 독립된 학과로 분리하는데 대해선 아직도 명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徐念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反功利的 입장에서 출발하여 소설(문학)이 기타 학과와 구별되는 예술적 특징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별을 이론화하려는 시도를 내보이고 있다. 그의 이론은 개성화(전형화)·형상화 같은 소설의 예술적 특성과 감정미학·이상미학 등과 같은 미학의 특성 및 소설과 사회의 관계 등 제반 문제를 두루 섭렵하고 있다. 徐念慈의 이러한 이론이 이론으로서의 엄밀성과 체계성이 아직도 결핍되어 있어서, 서방의 미학이론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이론은 이미 전통문학관념의 한계를 벗어나, 현대문학이론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다.

徐念慈는 《余之小說觀》이라는 글에서 “소설과 인생”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소설은 문학 가운데에서 오락적인 요소로서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고性情의 자극을 심화시킨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고루하고 현실에 어두워, 소설을 독주나 꿈팡이처럼 여겨 자제들이 이를 읽는 것을 조금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지나치게 엄격함을 면치 못한다. 오늘날 서적을 번역하여 파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풍속이라든지 국민진화라든지 하는 모든 것들을 소설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고들 있는데 이 또한 분

30) “諸文之中能極其妙而神其技者，莫小說若。故曰，小說爲文學之最上乘也”。梁啓超，〈論小說與群治之關係〉，《新小說》雜誌 第1號(1902年 11月 14日)。參見徐中玉·吳組緝(主編)，《中國近代文學大系》(文學理論集，卷二)，303쪽，上海書店，1995年 4月。

수에 넘치는 잘못된 말이다. 내가 있는 그대로 소설을 논하면, 소설은 확실히 사회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며, 오로지 사회가 먼저 있고 나서야 소설이 구성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사회의 앞날에는 다만 두 가지만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는 세력의 발전이요 다른 하나는 욕망의 팽창이다. 소설이란 모름지기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적용해서 인생의 온갖 활동 및 회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서 그 형식을 꾸미는 것이다. 그 정신이 응결된 곳은 결코 이 두 가지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 따라서 소설과 인생을 선을 그어서 서로 떼어놓을 수는 없는 것이니, 소설과 인생 어느 한쪽을 없애 버림으로서, 다만 인생의 발자취만 있고, 이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인류를 위해서 대단히 불행스러운 일이라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³¹⁾

그는 “무릇 소설이라는 것은 아마도 理想美學·感情美學에 부합하는 것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것일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후, 곧 이어 “소설이라는 것은 문학 가운데에서 오락적인 요소로서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고 性情의 자극을 심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소설은 결코 직접적으로 사회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물형상이나 사건의 줄거리 등과 같은 예술적 수단을 통해서 독자들을 감화시켜서 무의식중에 그들의 사상의식을 바꾸어 놓게되며 그런 연후에 사회의 “群治(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여기고 있었다. 徐念慈는 특별히 “내가 있는 그대로 소설을 논하면, 소설은 확실히 사회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며, 오로지 사회가 먼저 있고 나서야 소설이 구성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黃人과 마찬가지로 소설과 사회의 관계에 대하여 성숙된 변증 통일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와 같은 인식의 기초 위에서 참신한 소설관 즉 “사회 앞날에는 다

31) 小說者，文學中之以娛樂的，促社會之發展，深性情之刺戟者也。昔冬烘頭腦，恒以鴆毒毒菌視小說，而不許讀書子弟一嘗其鼎，是不免失之過嚴；近今譯籍雜販，所謂風俗改良，國民進化，咸惟小說是賴，又不免譽之失當。余爲平心論之，則小說固不足生社會，而惟有社會始成小說者也。社會之前途無他，一爲勢力之發展，一爲欲望之膨脹。小說者，適用此二者之目的，以人生之起居動作，離合悲歡，鋪張其形式；而其精神湛結處，決不能越乎此二者之範。故謂小說與人生，不能濶而分之，即謂小說與人生不能闕其偏端，以致僅有事跡，而失其記載，爲人類之大缺憾，亦無不可。

만 두 가지만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는 세력의 발전이요 다른 하나는 욕망의 팽창이다. 소설이란 모름지기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적용해서 인생의 온갖 활동 및 회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서 그 형식을 꾸미는 것이다. 그 정신이 응결된 곳은 결코 이 두 가지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 따라서 소설과 인생을 선을 그어서 서로 떼어놓을 수는 없는 것이니, 소설과 인생 어느 한쪽을 없애 버림으로서, 다만 인생의 발자취만 있고, 이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인류를 위해서 대단히 불행스러운 일이라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라는 소설관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소위 “인생을 위한 예술” 현대문학관념과 꼭 부합하고 있다. 이러한 소설관은 소설가로 하여금 인생의 참모습을 탐구하는 것을 창작의 목표로 삼도록 요구하지, 治國平天下라는 정치적 교화를 목적으로 삼도록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소설관은 전통문학관념의 문학 기능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黃人과 徐念慈의 소설관점은 비교적 서로 비슷한데, 비록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겠지만 둘 다 서방의 소설이론을 이론의 준거로 삼고 있으며, 소설의 특성을 위배하고 제 멋대로 소설의 사회적 교화기능을 강조하는 공리주의적 소설이론을 비판함으로써, “小說界革命”이론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는데 대해서 치우침을 바로잡는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벌인 일련의 소설이론 문제에 대한 논의는 만청 소설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대소설 관념의 새로운 지평을 엮으면서, 5·4신문학운동의 產生에 啓發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다) 소설 창작방법과 예술기교에 대한 논의

徐念慈와 黃人 등《小說林》파의 소설이론가들은 위에 언급한 관점들 외에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소설의 창작방법과 예술기교에 대해 논술했다.

徐念慈는 《小說林緣起》라는 글에서 5개 방면의 문제에 대하여 거론했는데 소설의 예술특징과 창작방법 등을 논술했다.

(1) 소설의 허구성에 대한 검토

그는 헤겔의 관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헤겔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술적 원만함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들의 미적 욕망을 만족시킴에 유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회곡들 가운데에서 대단 원으로 끝나는 白兔記와 荊釵記, 임금의 관직 하사로 막을 내리는 殺狗記, 금의환향하는 것으로 끝맺는 千金記, 巧습으로 끝맺는 紫簾記 등의 작품은 모두가 그러하다. 소설 가운데의 野叟曝言은 맨 마지막 부분에서 온통 주저하는 분위기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구성이) 원만하여 이성적으로 자연스러운 상태를 벗어나지 않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요구이다.³²⁾

작자는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소재에 대해서 더욱 더 엄선하고 부각시켜서 상상과 종합을 첨가하여 전형적인 예술형상을 창조해 내어야 하는데, 예술적 허구는 반드시 현실의 토양을 이탈해서는 안되며, 만약 정확하게 허구적 방법을 운용할 수만 있다면 생활의 본질을 더욱 더 심각하게 반영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 인물의 개성화 즉 전형화에 대한 검토

그는 헤겔의 관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헤겔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물의 개성을 더욱 풍부하게 표현하면 할수록 이상을 더욱더 원만하게 들추어내게 된다, 따라서 美라는 것은 결국 구상적 이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지, 추상적 이상 속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서방의 소설은 대부분 한 사람의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의 소설은 대부분 여러 사람의 여러 가지 사건

32) 曰：“藝術之圓滿者，其第一義，爲醇化于自然。”簡言之，即滿足吾人之美的欲望，而使無遺憾。曲本中之團圓白兔記、荊釵記封誥殺狗記榮歸千金記巧合(紫簾記)等目，觸目皆是。若演義中之野叟曝言，其卷末之躊躇滿志者，且不下數萬言。要之不外使圓滿而合于理性之自然也。其征一。

을 서술하고 있다. 이것이 문명과 야만의 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한다. 사건이 복잡하면 작품의 구성도 변할 수밖에 없으니, 인물은 충신과 간신,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나란히 나타나고, 사건 또한 교묘한 것과 부족한 것, 기이한 것과 정상적인 것 등이 서로 뒤섞여 나타나고 있으니, 그 앞과 뒤를 연결하고 장면의 변화를 묘사하는 일은 모두가 다 위대한 작가, 대단한 스케일, 웅대한 문장이 없이는 이를 수 없는 것들이다. 구상적 이상의 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백 번을 읽어도 싫증이 나지 않게 하는데 있음이 명백하다. 서양소설 가운데 이러한 맛이 나는 소설은 참으로 드무니, 어느 것이 뛰어나고 어느 것이 못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美는 궁극적으로 소설과 확실히 잘 어울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요구이다.³³⁾

소설 속에서 창조된 개성과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와 서로 상호 통일된 예술형상은 특정한 사회 특정한 역사환경 속에서 형성된 선명하고 생동적이며 풍부한 독특한 개성을 갖추고 있는 동시에 어떤 계급이나 계층의 본질적인 방면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예술형상은 실제생활에서 따왔으나, 실제생활보다 더 한층 뛰어나기 때문에 한층 더 높은 보편성과 예술적 감화력을 가지게 된다.

(3) 형상화에 대한 검토

그는 Kirchmann(1802~1844)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Kirchmann은 감정미학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가 말하는 美적인 패

33) 又曰：“事物現個性者，愈愈豐富，理想之發現亦愈愈圓滿，故美之究竟在具象理想，不在於抽象理想。”西國小說，多述一人一事；中國小說，多述數人數事：論者謂爲文野之別，余獨不謂然。事迹繁，格局變，人物則忠奸賢愚并列，事迹則巧拙奇正雜陳，其首尾聯絡，映帶起伏，非有大手筆、大結構、雄于文者，不能爲此，蓋深明乎具象理想之道，能使人一讀再讀即十讀百讀亦不厭也，而西籍中富此興味者實鮮，孰優孰拙，不言可解。然所謂美之究竟，與小說固適合也。其征二。

감이라는 것은 실제적 형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쾌감을 말하는 것이다. 오용(수호지)의 지혜, 야수폭언의 진실함, 韋痴珠(花月痕)의 기구한 운명, 曹阿瞞(三國志)의 세도를 부림, 風波亭(岳傳)의 억울한 옥살이, 孫行者(西游記)와 濟顛僧(濟公傳)의 神統과 遊戲, 설록 흠즈 형사와 마틴 루터 형사의 기묘한 상상과 사건의 해결 등등은 모두 사람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업신여기게도 만들며,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도 만들며 존경하게도 만든다. 이러한 감정들은 모두가 서설을 통해서 얻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이 세 번째 요구이다.³⁴⁾

그는 소설은 형상화의 방식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반영하는 것이며, 생동적인 형상과 전형적인 의의를 가진 인물을 창조해냄으로서 사회생활에 대하여 예술적으로 개괄함으로써 어떤 정치적인 경향성을 띤·예술적인 감화력을 지닌 구체적이면서도 생동감이 있는 생활의 모습을 창조해 내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4) 세부묘사에 대한 검토

그는 역시 Kirchmann의 관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적 개념의 요소 가운데 세 번째의 것은 형상성이다.” 형상이라는 것은 실제의 모방이다. 미개한 사회에 있어서는 모든 신선·부처·요괴와 악마들이 사회로부터 모두 환영을 받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미혹되어 진다. 따라서 아라비안 나이트, 회람의 신화, 西游記나 封神榜의 황당함, 聊齋志異나 諧錄에 나오는 요괴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즐겁게 이야기하였으며 술이나 차를 마시는 한가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이를 듣고 깜짝 놀라기도 하곤 하였다. 문화가 날로 발전해감에 따라서 長生殿·海屋籌 등을 읽는 재미가 차화녀나 가인전 등의 현대소설을 읽었을 때 느끼는 만큼 재미있지도 않고 또 친근하지도 않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는 형상성을 갖추고 있고,

34) 邱希孟氏(Kirchmann, 1802~1884), 感情美學之代表者也, 其言美之快感, 謂對於實體之形象而起. 試觀吳用之智(水滸); 鐵巧之眞(野叟曝言), 數奇若韋痴珠(花月痕), 弄權若曹阿瞞(三國志), 冤獄風波亭(岳傳), 神通游戲若孫行者(西游記), 濟顛僧(濟公傳), 闡事燭理若福爾摩斯, 馬丁休脫(偵探案), 足令人快樂, 令人輕蔑, 令人苦痛尊敬, 種種感情, 莫不對於小說而得之. 其征三.

하나는 형상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이로 인하여 서로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네 번째의 요구이다.³⁵⁾

소설에 등장하는 전형적 의의가 있는 아주 미세한 동작이나 하잘것없이 보이는 작은 사건들마저도 인물의 성격을 각인하는데, 이야기와 이야기를 연결하는데, 사건의 발전을 이끌어 낼 때, 주제사상을 표현할 때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건의 세부묘사는 서사문학창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예술표현수단이다. 세부묘사는 진실하고 전형적이며 간결하고 세련되어 하나의 중심을 벗어나지 않음으로서, 인물과 주제를 부각시켜 예술적 감화력을 증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다.

(5) 형상사유에 대한 검토

그는 또 Kirchmann의 관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美的 네 번째 특성은 理想化이다”. 理想化라는 것은 감흥의 실체로부터 예술상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 버리고서도 그 본성을 발휘하게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소설이 날마다 일어나는 잡다한 사건들이나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일일이 다 일기를 적듯 기록할 필요는 없으니, 소위 말하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 부분은 삭제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달의 일주 여행·지구의 종말·지구 밑바닥이나 바다 속을 여행하는 일들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으니, 과학적 이상에 근거하여 자연을 초월하여 날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다섯 번째의 요구이다.³⁶⁾

35) 又曰: 美的概念之要素, 其三爲形象性。“形象者, 實體之模仿也。當未開化之社會, 一切神仙佛鬼怪惡魔, 莫不爲社會所歡迎, 而受其迷惑, 阿剌伯之夜談, 希臘之神話, 西游、封神之荒誕, 聊齋、諧鐸之鬼狐, 世樂道之, 酒后茶余, 聞者色變。及文化日進, 而觀長生殿、海屋籌之興味, 不如茶花女、迦因小傳之郁而親切矣。一非具形象性, 一具形象性, 而感情因以不同也。其征四。

36) 又曰: 美之第四特性, 爲理想化。“理想化者, 由感興的實體, 于藝術上除去無用分子, 發揮其本性之謂也。小說之于日用瑣事, 亘數年者, 未增按日而書之, 卽所謂無用之分子則去之。而月球之環游, 世界之末日, 地心海底之旅行, 日新不已, 皆本科學之理想, 超越自然而促其進化者也。其征五。

작가가 창작을 함에 있어서 소재를 취사선택하고 분석하고 개괄하여 이를 간결하게 다듬어 이야기의 줄거리를 안배하는 구성의 전 분야 및 심지어는 예술형상에 이르는 사유활동 및 사유방식에 이 형상적 사유가 수반하게 된다. 형상적 사유라는 것은 사물의 表象(외형)을 인식한 후에, 한 걸을 더 나아가 작가의 감정이 충만된 새로운 意象을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想像을 진행시켜, 일련의 藝術的 形象을 창조해 냄을 말하는 것이다. 形象思惟의 중요한 방법은 想像이며, 이 想像에는 聯想과 推測幻想을 포함한다. 형상사유는 창조성이 대단히 풍부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일정한 현실생활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 그 것이 엄밀한 과학적 논증이 아니기 때문에, 추상적 사유가 주도적인 작용을 하는 것을 배척하지는 않는다. 소설작품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예술형상은 모두가 다 형상사유의 산물인 것이다.

徐念慈의 이와 같은 소설이론은 아직도 깊이가 없고 유치한 단계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현대소설이론의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죄다 거론하고 있어, 그가 근대소설이론의 발전에 끼친 특수한 공헌은 적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황인은 《小說小話》라는 글에서 소설창작에 있어서 敘事者의 敘事時角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소설에서 인물을 묘사할 때는 마땅히 거울 속에 비친 그림자를 취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예쁜 것과 미운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독자 스스로 알게 만들어야 한다. 이중 가장 금기시 하는 것은 작자가 마음대로 끼여들어서 자기 자신의 견해를 펼치거나, 또는 극중의 한 인물이 등장하여 한바탕 독백을 펼쳐서 누구누구는 어떻게 좋고 누구누구는 어떻게 나쁘다고 예언하나 그러나 그 사람의 실체는 그 말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그러한 현상이다. 또 앞뒤가 절대로 모순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미 중복된다고 느껴지면 조금도 여운이 없게 된다. 따라서 소설이 비록 小道라고는 하나 한 개인의 사건을 피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수호지에서 의협을 묘사하거나 금병매에서 음란함을 묘사하는 것, 홍루몽에서 아름다움을 묘사하거나, 유럽외사에서 사회의 각종 인물을 묘사할 때에 결코 어떤 전제어를 나타내지는 아니했지만 그

러나 그 사람의 성격, 신분 등이 누가 뛰어나고, 누가 열악한지를 비록
아녀자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능히 구별할 수 있으니 진실로 거울 앞
에 선 사람이 자신의 형체를 숨길 수 없는 것과 꼭 같다. 무릇 거울이라
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이다.³⁷⁾

작가가 작품 속에서 자신의 견해를 펼치는 현상은 만청 소설의 하나
의 커다란 고질병이다. 만청 소설가들은 사상선전을 자기 자신의 의무
로 여겼기 때문에 소설가운데에 크게 자기 자신의 주장을 펼쳐서 반복
적으로 자기의 사상적 경향과 인물사건의 평판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여, 끊임없이 지루하게 독자들을 교육시킨다. 황인은 이러한 의론
이 소설의 예술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가의 사상적 경향
은 마땅히 작품 줄거리의 발전이나 인물의 창조과정 중 또는 인물간 상
호관계를 전개하는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것이니, 이것은 소설
창작에서 매우 중요한 한가지의 예술원칙이다. 황인은 소설은 반드시
형상스스로 이야기하게 만들어야하며, 한 개인의 사적인 견해를 삽입하
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강조하면서 소설이 가장 금기시 하는 것
은 작자가 제 멋대로 논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니, 이는 예술의 이
원칙을 정곡을 찌르듯이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소설가들에게는 의심할 여지없이 한 알의 양약이 되었
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작가의 의론이 소설에 없어서는 안될 필
수품처럼 여겨서 의론을 하지 아니하면 작가의 사상을 나타낼 방법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주의를 할만한 점은 黃人이
소설 창작시에 제멋대로 의론하는 현상을 소설가가 회곡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과 유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만청 소설가들은 비록
회곡과 소설이 그 체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37) 小說之描寫人物，當如鏡中取影，妍媸好丑令觀者自知，最忌攙入作者論斷，或
如劇中一脚色出場，橫加一段定場白，預言某某若何之善，某某若何之劣，而其
人之實事，未必盡肖其言。即先后絕不矛盾，已覺疊床架屋，毫無余味。故小說
雖小道，亦不容着一我之見，如《水滸》之寫俠，《金瓶梅》之寫淫，《紅樓夢》
之寫艷，《儒林外史》之寫社會種種人人物，并不下一前提語，而其人人性質、
身份，若優若劣，雖婦孺亦能辨之，真如對鏡者之無遁形也。夫鏡，無我者也。

들 다 “說部”에 속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약간의 회곡의 기교들을 소설의 기교에 운용하곤 하였던 것이다. 그 가운데에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 또한 있다. 그러나 소설에 회곡의 독백을 모방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만청의 적지 않은 소설가들은 결코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따라서 黃人의 비평은 대단히 시의 적절하였으며 소설가들의 이 방면의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중국 고전소설의 주류는 실제에 있어서 송·원의 話本 소설을 계승하여 발전한 장외소설이다. 장외소설은 여전히 說書인들의 말투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작자가 작품을 쓸 때에 여전히 독자를 청중으로 여겼으며 독자 역시 “이야기를 함으로서 청중이 듣고서 이해하는” 오래된 감상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서 작품 속의 서술자는 끼어 들지 않는 데가 없었고, 모르는 것이 없었으며, 소설 속의 어떤 인물도 알 수 없는 비밀을 알거나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장외소설은 본래부터가 供案頭閱讀(독자들에게 제공되어 책상 위에서 읽게 쓰여짐) 하도록 쓰여진 소설이다. 서방 소설이 중국에 들어온 이후로 중국 만청의 소설가들은 일찍부터 전지전능한 시각의 결점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실제 창작에 있어서도 또한 이미 制限敘事나 純客觀敘事 등의 새로운 서사시각을 채용하기 시작하였다. 黃人의 이론적 설명은 의심할 나위 없이 중국 소설의 書面化경향을 촉진시켰으며, 중국 소설의 서사학적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공헌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서면화 경향은 중국 소설의 장외소설로부터 현대소설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특징중의 하나이다.

이어서 그는 소설작가의 경험과 작품과의 관계에 대해서 時文의 작자와 서로 비교해서 설명했다.

소설과 시문은 서로 반비례한다. 시문을 쓰는 사람은 일체의 서적을 다 볼 필요는 없으며 일체의 앞으로 일어날 세상일을 앞당겨 듣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들이 소설을 대하는 태도는 뱀이나 마귀가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소설을 가까이하려 하지 아니한다. 그러

나 소설가들은 시문을 거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체의 자질구레한 일, 규방에서 일어나는 욕지거리, 나무꾼이나 목동들의 이야기들도 경서나 대단한 문장들과 더불어 이들을 받아들여 소설창작의 자료로 제공된다. ……따라서 시문을 짓고 시문을 배우는 자들이 거의 알 수 없는 것도 소설을 짓고 소설을 읽는 사람은 거의 모르는 것이 없으니 다른 점이 이와 같다.³⁸⁾

黃人은 소설가는 시문작가와와는 달리 필수적으로 오랜 기간의 기본 지식과 생활경험의 누적이 있는 이후에야 비로소 소설의 창작을 시작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그는 소설창작에 있어서 하나의 규율은 풍부한 생활경험과 광범위한 지식영역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소설작가는 비로소 더욱더 자신의 시야를 넓힐 수 있으며, 우주의 모든 것을 붓끝으로 써낼 수 있다. 그는 실제에 있어 이미 사회생활과 소설사이에 있는 반드시 거쳐야 할 중간 경로, 즉 작가가 담당할 중요한 작용을 의식하고 있었다. 한 작가가 실제 생활하고 있는 환경과 풍속은 작품이 표현하고 있는 생활분위기나, 풍격적 특징을 결정짓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그는 소설의 내용과 작가의 생활과의 관계를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소설예술과 작가의 지식정도 및 창작태도와의 관계를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 黃人은 전형적 인물의 창조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고래로 진정으로 완전한 인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설이 비록 이상에 속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한계가 있어서, 만약 지나치게 완전한 것을 추구한다면, 오히려 졸작을 낳고 말 것이다. 《수호지》의 송강, 《석두기》의 가보옥은 비록 인격이 순정한 것은 아니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숭배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만든다. 《야수폭언》의 문소신은 거의 전지전능하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밀납을 씹는 것과 같은 기분울 느

38) 小說與時文爲反比例。講究時文者，一切書籍皆不得觀覽，一切世務皆不容預聞，至其目小說也，一若蛇蝎魔鬼之不可邇。而小說中，非但不拒時文，即一切謠俗之猥瑣，閨房之詬誶，樵夫牧豎之歌謠，亦與四部三藏鴻文秘典，同收筆端，以供鑷管之資料。而宇宙萬有之運用于爐錘者(施耐庵《水滸記》自序，可爲作小說者之標準)更無論矣。故作時文與學時文者几于一無所知，而作小說與讀小說者几于無一不知，不同也如此。

끼게 하여, 심포소설에 나오는 양진이나 손오공 등 변화무쌍한 것이 비록 현실성이 없으나,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만 못하게 보인다. 그 사상이 저급한 것이 천화장의 才子書나 各鐘盲史 중에 나오는 王孫公子名士佳人的 훌륭한 장식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저 《금병매》의 주인공의 인격은 대단히 저속하지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 백년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손에서 떼지 못하게 만들었다.³⁹⁾

만청 소설 또한 마찬가지로 선한 자는 절대적으로 선하고, 악한 자는 절대적으로 악하다는 병폐를 가지고 있다. 현실생활 속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다. 소설이 생활을 반영하고, 인물을 창조함에 있어서 단지 하나의 간단한 선악 표준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가보옥의 성과 서문경의 악은 사람마다 모두 이를 믿고 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인정되어지는 까닭은 이러한 형상들이 결코 전형적으로 선하거나 또는 전형적으로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생활의 풍부함을 잘 드러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작자가 진실하게 인물성격의 다양한 충차와 다양한 측면 및 주도적인 성격을 써낸다면 예술형상은 진정으로 독자를 감동시킬 것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청 소설가들은 결코 고전소설의 이러한 뛰어난 예술전통을 계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론가들도 역시 이 문제를 충분히 중시하지 않았다. 黃人의 견해는 비록 아직까지도 평점식 비평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미 전형화 이론을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은 중국 고전소설비평의 뛰어난 전통을 계승하여 점차적으로 현대화 비평으로 바뀌고 있는 일종의 과도기적인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黃人は 《小說小話》라는 글에서 역사소설에 대해서 품평을 하였는데

39) 古來無真正完全之人格，小說雖屬理想，亦自有分際，若過求完善，便屬拙筆。《水滸記》之宋江、《石頭記》之賈寶玉人格雖不純，自能生觀者崇拜之心。若《野叟曝言》之文素臣，几于全知全能，正令觀者味同嚼蠟，尚不如神怪小說之楊戩、孫悟空騰拿變化，雖無理而尚有趣焉。其思想之下劣，與天花藏才子書，及各種盲辭中王孫公子名士佳人之十足裝点者何異？彼《金瓶梅》主人翁之人格，可謂極下矣，而書曆今數百年，輒令人吧賞不置。此中消息，惟熟于盲、腐二史者心知之，固不能爲賦六合，嘆三恨者之徒言也。

이로부터 그의 역사소설에 대한 견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여기에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西周志》는 소왕의 남정 사실과 목왕이 서왕모를 접견한 일 및 서언을 평정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 《列國志》와 비교해 볼 때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그러나 대부분의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다.

《班定遠平西紀》를 날조한 이야기로 억지스러워 요즘 사람이 지은 잡극만도 못하다.

《南北史演義》는 약간의 흥미는 있으나 오로지 귀신 요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사족이 많다.

《岳傳》은 《精忠傳》에 비하여 다소 흥미가 있으나 너무 황당하다. 악충무는 우리나라의 무사들 중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그 본傳만 쓴다 하더라도 이미 족히 고금을 놀라게 할 수 있지만 이 책은 너무나 지엽적인 일을 많이 기술함으로써 오히려 그의 忠武가 퇴색하고 있다. 무릇 통속역사소설 가운데에는 제 일류의 인물에 몰래 억지를 부려서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이보다 나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예를 들어 《說唐》에 나오는 秦琼이나 尉遲恭, 《英烈傳》의 常開平, 이 책에 나오는 忠武 등이 모두 요행히 이름을 날리게 된 것처럼 보인다. 그 의도는 천하가 이렇게 큰데 이름을 날린 사람은 불과 몇 사람에게 지나지 않으니 때를 만나지 못해서 이름을 이루지 못한 무명의 영웅들이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니 기만이 너무 심하다. 《鐵冠圖》는 …… 洪遼陽이 出毛의 문하생이 되어 장백산에 다다랐다.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지혜를 전수 받았다고 여겼다가 신에게 크게 꾸지람을 듣고서 드디어 천명의 소재를 알고 귀순하게 된다. …… 대단히 황당무계하다. 오로지 五龍會 한 절만이 근거가 있는데, 오늘날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기에 근거해서 대본을 만든 것 같다.

《臺灣外記》는 연평별전이다. 飛黃推理에서부터 克爽輿檄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간의 발자취를 아주 상세하게 적고 있다. 작자의 견문이 비교적 사실에 가까우니 마땅히 근거가 있을 것이나, 서술순서가 산만하여 낱아빠진 조건신문과 같아서, 장회소설의 체제엔 별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 같다.⁴⁰⁾

40) 《西周志》: 鋪張昭王南征, 穆王見西王母及平徐偃之事。較《列國志》稍有變化, 而語多不根。

《班定遠平西紀》: 杜撰無理, 不如近人所著雜劇也。

黃人은 주로 역사소설 창작이 “많은 이야기가 근거가 없고”, “날조하여 이치에 닿지 않고”, “황당하게 흐르는” 현상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는 결코 역사소설의 허구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허구성은 반드시 적당한 한도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했다. 역사소설이라고 명칭을 붙였으면 반드시 역사적 근거가 있어야하고, 또 특정한 역사단계의 대체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야한다. 허구성을 편다하더라도 반드시 정리에 맞고 합리적 이어야한다고 생각했다. 만약, 서술한 것이 대단히 황당하여 그 근거가 없다면, 역사소설로서의 특징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더구나 귀신과 요괴를 묘사함에 있어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으로는 그는 역사소설을 창작함에 있어서 소설성과 예술성을 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으며, 장희소설의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반대했다. 그는 《臺灣外記》가 “서술의 순서가 산만하여 낡은 조간신문 같은 것”에 대하여 대단히 불만을 느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되면 곧 역사소설로서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는 《岳傳》이 “지엽적인 사건을 많이 서술”함으로써 개괄적이고 세련됨이 결핍하게 됨에 대해서 또한 역시 불만을 표시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오히려 忠武가 퇴색되어 버린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역사소설을 창작함에 있어서, 근거가 없어서는 아니 되고, 또 지엽적인 일을 너무 많이 서술해서도 안 된다는

《南北史演義》：稍有興味，惟裝点鬼怪，殊爲蛇足。

《岳傳》：較《精忠傳》稍有興會，而失之荒俚。岳忠武爲我國武士道中之山海麟鳳，卽就其本傳鋪張，已足震鑠古今，此書多設支節，反令忠武減色。凡通俗歷史小說中，于第一流人物，輒暗加抑置，謂并世似彼者有若而人，勝彼者若而人。如《說唐》中之秦瓊、尉遲恭，《英烈傳》中之常開平，此書之忠武，皆若僥幸成名者，意謂天下之大，成名者不過數人，其無名英雄，淪落不遇者蓋不知凡几焉，然而矯誣亦甚矣。

《鐵冠圖》：……以洪遼陽爲出毛門下，因到長白山。擬師邊大綬放智，爲神所呵，遂知天命有在，幡然歸順。……殊極荒謬。唯五龍會一節……尚有所本，今說評話者，似卽據此爲藍本。

《臺灣外記》：此延平別傳也。從飛黃推理以至克爽輿櫬，首尾數十年事迹甚詳備。作者見聞較近，當有所根據，惟敘次散漫，多近乎斷爛朝報，不甚合章回小說體裁焉。

것이니, 역사의 진실성에 주의 해야하며, 소설의 예술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당시에 적지 않은 소설이론가들이 역사소설의 창작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였는데, 黃人 또한 그들 중의 한사람이다.

黃人の 《小說小話》라는 글은 언급하고 있는 범위가 대단히 넓은데, 미학적 관점으로 소설을 토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梁啓超가 지나치게 소설의 공리적인 면을 강조하는 치우침을 바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王國維의 소설이론에 호응하고 있다. 사실 《小說小話》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것은 실용비평인데 黃人은 백여 종의 고전 전통소설에 대해서 일련의 검토와 평가를 내리고 있다. 평론의 문장은 간결하고 힘이 있어 때때로는 한마디로 정곡을 찌르고 있다. 예를 들면 그는 《水滸》를 사회주의 소설로 간주하여 토론했다(아마도 결코 타당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영국사람 하이데거의 소설 두 권과 《三國演義》 및 《隋唐演義》 함께 거론했는데, 이들을 역사소설의 典範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점에서 볼 것 같으면, 그의 비평도 너무나 당연하게 순전히 그의 시대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그는 중국 고전소설에 대해서 아주 냉정한 태도를 가지고서, 결코 자신을 비하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득의양양하지도 뽐내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예술적 또는 철학적인 안목으로써 전 작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을 뿐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장래의 비평가들을 위해서 하나의 상당히 훌륭한 모범을 수립했던 것이다. 민국 이전에는 《西遊補》·《野叟曝言》 등과 같은 비교적 비인기 소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학자들이 거의 없었는데, 魯迅은 아마도 黃人の 계시를 받아서 훗날 《中國小說史略》에서 이 작품들을 토론하였을 것이다. 그밖에도 명칭 연간에 나타난 《說唐前傳》·《說唐後傳》·《梁家將》·《萬華樓》·《五虎平西》·《五虎平南》·《說岳全傳》 등과 같은 唐宋歷史演義 소설들 또한 黃人の 비평을 통해서 비로소 점차로 후대의 소설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⁴¹⁾

41) 他把英人哈葛德的兩本小說與《三國演義》及《隋唐演義》相提并論，認為是曆史小說的典範。單就這些而言，他的批評當然完全屬於那個時代。不過從整體來看，他對中國古典小說能夠秉持冷靜態度，既不妄自菲薄，亦不沾沾自喜·夜郎

그밖에 徐念慈는 《小說林》제 9기, 10기에 연재된 《余之小說觀》이라는 글에서 《一. 小說與人生》, 《二. 小說創作與翻譯小說》, 《三. 小說之形式》, 《四. 小說之題名》, 《五. 小說之趣向》, 《六. 文言小說與白話小說》, 《七. 小說之定價》, 《八. 小說之今後之改良》 등 각 항 문제를 나누어 하나하나 그의 개인적 관점을 분명하게 논술했다. 비교적 특수한 것은 그가 문언소설 특히 林紓가 고문으로 번역한 소설에 대해서 매우 긍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임금님 선생은 오늘날 소설계의 태두이시다. 어찌하여 그를 숭배하는 사람이 많으냐고 묻는다면, 단어를 엮어서 문장을 만듦에 있어 사기와 한서의 필체를 익혀서 문장이 소박하고 아름다워 족히 문학계의 한자리를 차지해도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이다.” 문장을 가지고 소설을 판단한 것으로부터 서씨의 유미적인 마음가짐을 볼 수 있다. 이미 위에서 이야기 한 《一. 小說與人生》이라는 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내용은 모두가 소설잡지발행인의 신분으로서 소설의 판로를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판로를 전망하는 내용이니 이후의 연구자들에게 당시 소설계의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우리들은 《八. 小說之今後之改良》으로부터 당시 소설계에 심각한 상품화 경향이 만연되어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徐念慈가 말하는 “小說之改良”이 첫 번째로 주목하는 것은 소설의 사회환경이다. 그는 소설시장을 반드시 개척하기 위해서는 小說讀者群을 학생사회·군인사회·실업사회 및 여자사회로 깊숙이 들어가야만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여성 독자군과 유관한 견해를 인용하여 그의 절박한 심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一. 여자사회. 그가 바늘상자를 지고서 서당으로 가서 학적을 유지하

自大。他只是以藝術或以哲學的眼光來審視與全部作品。如此，黃人爲後來批評家樹立了一個相當好的典範。民國以前，几乎從來沒有學者過問這些比較冷門的作品，譬如像其中的《西游補》·《野叟曝言》與《史》，魯迅很可能受到黃人的啓示，故後來在《中國小說史略》里討論這三部作品。其他像明清間出現的唐宋曆史演義小說，如《說唐前傳》·《說唐后傳》·《楊家將》·《萬花樓》·《五虎平西》·《五虎平南》·《說岳全傳》等，也是經黃人的批評，才逐漸爲後來的小說研究者所注意。

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잠시 거론하지 않겠다. 보통 규수방에서 식사를 마친 후 차를 마시고, 등 앞에 앉아서 《天花藏才子書》 같은 책이나 《天雨花》·《安邦定國》 같은 책, 또는 《玉交梨》·《雙珠鳳》·《三笑》 등과 같은 책들은 그 이름을 일일이 들자면 백 가지도 넘겠지만 어느 것 하나 여성계에서 관람하지 아니하는 책들은 없다. 그 내용은 바로 才子佳人이 뜰을 거닐다 만나서 정표를 주고 약속을 하며 마침내는 장원급제하여 재상이 되고, 장군과 제후가 되어서 그 부귀장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나 판매 부수를 다달이 계산해보면 여유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소설개량 후에는 보통 여자들의 심리에 부합해서 이목을 일신하고 족히 오래된 찌꺼기를 씻고 점차 문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책은 한 권도 없으니, 문필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이 여긴다. 나는 금후로 작가들이 마땅히 주의해야 할 사실은 여자들이 읽을 수 있는 소설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 형식·제재·문자·가치 등은 상인들이 보는 것과 대체로 같으나 또 彈詞類나 시가·등미(정월보름에 하는 수수께끼의 일종)·주령·그림·음악 등과 같은 미에 중점을 둔 여러 가지 일들을 삼입시켜야 한다. 그 취지는 그들에게 가사 일과 처세술, 크게는 정치와 윤리, 작게는 음식과 의복,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가르치고, 아래로는 자식을 가르치는 일, 하나하나 그 발자취를 보여줌으로써 감흥이 일어나게끔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규방 내에서 유행하던 것이 서로 얘기하다가 마음이 끌리게 되면, 반드시 사다가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소설의 진보이며 보통사회도 자극을 받아 진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소설이라는 것이 진실로 문학계의 뛰어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영향이 동포들에게 미치는 것은 잠재적인 세력이 더욱더 발전하고 장래의 욕망이 더욱더 팽창함을 보여줌으로써, 의지를 가지고서 나아가 참을성을 가지고서 그것을 지킴으로써 깊은 정으로 감화를 줌으로써 효용이 날로 커져서 이러한 것은 정의로운 선비들에 의해서 멸시되지 않을 것이며, 대외에 의해서 배척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군자들이 여기에 뜻을 두고 있는 것이다.⁴²⁾

42) 一女子社會。其負篋入塾，隸學生籍者，吾姑勿論。即普通閨閣，茶余飯罷，酒後燈前，若《天花藏才子書》，若《天雨花》·《安邦定國》諸志，若《玉交梨》·《雙珠鳳》·《珍珠塔》·《三笑》諸書，舉其名不下數百，何一非供女界之觀覽者？其內容則皆才子佳人，游園贈物，卒至狀元宰相，拜將封侯，以遂其富貴壽考之目的。墮志喪品，莫此爲甚。然核其售數，月計有余。而小說改良后，

1907년 2월 《小說林》을 창간할 때에 徐念慈는 대담무쌍하게 《小說林緣起》라는 문장을 발표하여 자신만만하게 유미주의 경향의 순문학 소설관을 제창하였다. 겨우 1년이 지난 1908년 2·3월에 그는 《余之小說觀》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는데, 이미 너무나 판이하게 변하여있어서 梁啓超의 소설주장과 차이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하물며, 당시의 상황은 梁啓超가 “小說界革命”을 주장할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있었으므로 徐念慈의 소설이론은 필연적으로 몰락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徐念慈의 슬픈 신음소리 속에서 원앙호접과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들은 徐念慈의 변화로부터 만칭 소설계가 이미 시장규율의 지배를 받는 문화상품시대로 진입하였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소설잡지의 발행인으로서의 徐念慈가 소설이론가로서의 徐念慈와 충돌이 발생했을 때 잡지의 생존을 위해서 그는 반드시 시장의 규율을 중시하고, 현실과 타협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으며 점점 독자의 구미에 영합하다보니 최후에는 자기 자신의 이론적인 바탕마저도 상실하게 되어, 완전히 공리주의 소설관의 입장에 서게되었다. 徐念慈의 소설이론이 이미 자기 자신이 주편하던 잡지에 마저 발을 붙일 수 없게되자, 1908년 10월 제12기를 발행한 후 《小說林》잡지는 정간될 수밖에 없었다.

曾無一冊合普通女子之心理，使一新耳目，足滌其舊染之汚，以漸赴于文明之域者，則操觚者殊當自愧矣。余謂今后者作家所當留意，專出女子觀覽之小說。其形式、體裁、文字、價值，與商人觀覽者略同，而加入彈詞一類，詩歌、燈謎、酒令、圖畫、音樂、趨重于美的諸事。其旨趣，則教之以治家瑣務，處事大綱，巨如政治倫常，細至飲食服用，上而教養奉親，下若義方教子，示以陳迹，動其興感。如是則流行于閨內，香口誦吟，檀心傾倒，必有買絲羅以綉者矣。是為小說之進步，而使普通社會，亦敦促而進步。則小說者，誠足占文學界之上乘。其影響之及于同胞者，將見潛蓄之勢力，益益發展，將來之欲望，益益膨脹，而有毅力以赴之，耐性以守之，深情以感觸之，效用日大，斯不至為正士所鄙夷，大義所排斥矣。其諸君子有意于是乎？

4. 결 론

“小說界革命”은 만칭 문학 변혁운동의 핵심내용이다. 양계초는 《小說與群治之關係》라는 문장을 발표하여 “일국의 백성을 새롭게 하려면 일국의 소설을 먼저 새롭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도덕을 새롭게 하려면 먼저 소설을 새롭게 해야하고, 종교를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소설을 새롭게 해야하고, 정치를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소설을 새롭게 해야하고, 풍속을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소설을 새롭게 해야하고, 학예를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소설을 새롭게 해야하고, 인심을 새롭게 해야하고, 인심을 새롭게 해야하고, 인격을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소설을 새롭게 해야한다.”⁴³⁾

“금일 정치를 개량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소설계 혁명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백성을 새롭게 하려면 소설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계초의 이러한 감정적 색채가 풍부한 말은 사실은 다만 선전목적밖에 없는 신화를 창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화의 가치는 소설의 사회 교화기능을 강조하는데 있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을 교화하는 사상도구로 만들고자하였던 것이다. 양계초의 이러한 정치색채가 농후한 공리주의 소설관은 상당히 완전한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데, 아래와 같은 4가지의 선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극단적으로 소설의 지위를 끌어올렸다.

둘째, 임의로 소설의 사회 교화기능을 과장했다.

셋째, 소설의 정치성과 보급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넷째, 비록 그것 나름대로의 독특한 이론색채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 교화기능 한 방면으로만 편중되어 있어서 일반 이론가들이 가장 중시하는 소설의 예술적 특징과 창작방법 등의 문제를 홀대함으로써

43) 梁啓超, 《論小說與群治之關係》, 《新小說》雜誌 第1號(1902年 11月 14日). “欲新一國之民, 不可以不先新一國之小說。故欲新道德, 必新小說; 欲新宗教, 必新小說; 欲新政治, 必新小說; 欲新風俗, 必新小說; 欲新學藝, 必新小說; 欲新人心、欲新人格, 必新小說。(何以故? 小說有不可思議之力, 支配人道故。)”

소설발전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도 끼쳤다. 만청 시대에는 소설창작이 번성함에 따라서 소설의 예술성 문제를 날로 중시하기 시작했다. 반성의 분위기가 뒤를 이어 나타나 소설계 혁명이론과 논쟁, 반박을 하는 가운데에 새로운 토론의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중국소설이론의 성숙과 발전에 공헌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晚淸 革命派의 소설이론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시기적으로 혁명파의 전성시기에 성장하고 발전한 소설이론을 말하는 것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양계초등 資產階級 改良派의 소설이론과 구별하기 위한 개념인 것이다. 孫文·陳少伯·章太炎 등과 같은 혁명파의 영수들은 정통혁명가로 자처하며, 초기에는 군사력에 의존할 뿐 정치선전에는 그다지 주력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계초등 자산계급 개량파의 활동에 자극을 받아 점점 혁명선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소설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양계초 등이 오로지 소설을 유일한 수단으로 삼은 것과는 달랐다. 따라서 그들의 소설이론은 소설이론에 국한시켜서 보면 상당부분 양계초의 그것과 일치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거리를 보이고 있는데, 그들이 소설을 혁명선전사업의 작은 한 부분으로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설에 대해서 상당히 균형이 잡힌 시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유파의 탄생이 가능하였으니, 이는 곧 《小說林》과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小說林》잡지의 창간은 공리주의 소설관이 풍미하던 만청 소설계에 한 무리의 참신한 지원군이 출현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유미주의·반공리주의를 표방하고서 소설의 미학상의 가치와 예술성을 탐색하였으니, 이는 의심할 나위 없이 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유행하던 “小說界革命” 이론에 대한 효과적인 반성이었으며, 그것의 편파성을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소설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새로운 발전이었으며, 다가올 5·4 신문학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啓發적 의의가 있다.

《小說林》잡지의 발행인이며 동시에 대표적인 이론가였던 黃人과 徐念慈는 둘 다 독일의 관념론과 선형철학에 깊이 심취해 있었는데, 특히

徐念慈는 헤겔에 심취해 있었다. 이점에 있어서는 왕국유의 미학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었다. 왕국유는 칸트와 쇼펜하우어에 심취해있었으나, 徐念慈는 헤겔에 탐닉해있었다. 헤겔은 우주의 근본과 본질이 인간의 두뇌 속에 있는 사유과정이라고 여기고 있었으며, 따라서 유심론적 변증법--물질세계에는 자기 자신의 법칙이 있으나, 진정한 세계는 아니고,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진정한 세계는 관념세계이다--을 만들어 내었다. 전환적 시기에 있어서 이러한 상상으로써 알 수 없는 것을 추측하는 낭만적인 세계관은 확실히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유심적 관념론을 문이론과 비평에 적용할 때, 그 예술규칙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한다는 예술적 초월성·예술의 목적은 예술일 뿐이고 미의 목적은 미일뿐이라는 예술적 유미성·예술은 형이상학적인 것이라서 생활밖에 존재한다는, 다시 말해서 생활 속의 행위표준은 예술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는 예술의 비도덕성 등을 가리킨다. 徐念慈는 왕국유를 거론한 적이 없기 때문에(적어도 필자가 발견하지는 못했음), 그들 사이의 영향수순관계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 그러나 18·19세기의 교체기에 독일의 사상대가인 칸트가 이미 왕국유에게 영향을 주었고, 독일에 있어서 칸트의 추종자인 헤겔의 관념론적 문학사상이 또 徐念慈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면,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된 일종의 비슷한 문학·미학관념을 갖게되었다. 그러나 《小說林》과의 이론문장은 많지 않고, 그들의 활동시간 또한 짧으며, 그들의 추종자들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더구나 현재까지 그들의 소설이론에 대한 연구는 거의 공백상태로 남아있어 그들이 중국소설이론의 발전에 끼친 공헌 또한 매우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것은 徐念慈와 黃人 등의 소설이론가들이 소설관념·소설기교 또는 창작방법 및 실용비평 등 방면을 막론하고, 이미 유익한 검토를 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왕국유와 마찬가지로 서방이론과 중국실천이 서로 결합하는 방면에 있어서 개척을 한 공로가 있고, 만청 소설이론의 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金泰寬撰,《晚晴小說理論研究》,華東師範大學 博士論文,1997年 6月.
- 魯迅,《中國小說史略》,北新書局,1925年 9月.
- 方正耀(著).郭豫適(審定).洪尚勛(譯),《中國小說批評史略》,乙酉文化社,1994年 5月,漢城.
- 方正耀,《晚清小說研究》,華東師範大學出版社,1991年 6月.
- 徐中玉(主編),《中國近代文學大系,文學理論集一二卷》,上海書店,1994年 12月.
- 阿英,《晚清小說史》,人民文學出版社,1980年.
- 袁進,《上海近代文學史》,上海人民出版社,1993年 2月.
- 袁進,《中國文學觀念的近代變革》,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1996年 10月.
- 袁進,《中國小說的近代變革》,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2年 6月.
- 이영섭, <만청 시기 소설림파의 소설관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4년 8月.
- 中國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近代文學研究組(編),《中國近代文學論文集》,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1年,1984年.
- 陳炳昆,《最近三十年中國文學史》,上海書店,1989年 3月.
- 陳平原(著),李宗敏(譯),《中國小說敘事學》,圖書出版社,1994年 9月,漢城.
- 陳平原、夏曉虹(主編),《二十世紀中國小說理論資料》,北京大學出版社,1989年 3月.
- 陳平原,《小說史:理論與實踐》,北京大學出版社,1993年 3月.
- 陳平原,《二十世紀中國小說史.第一卷(1897~1916年)》,北京大學出版社,1989年 12月.
- 陳平原,《中國小說敘事模式的轉變》,上海人民出版社,1988年 3月.
- 陳平原,陳國球(主編),《文學史.第二輯》北京大學出版社,1993年 4月.
- 陳平原,陳國球(主編),《文學史.第一輯》北京大學出版社,1993年 4月.
- 夏曉虹,《覺世與傳世—梁啟超的文學道路》上海人民出版社,1991年 8月.

《邊城》과 《盲啞院에서》의 비교 연구

劉麗雅*

<目次>

- | | |
|-----------------------------|----------------------------|
| 1. 서론 | 3. 《邊城》과 《盲啞院에서》의
작품 비교 |
| 2. 《邊城》과 《盲啞院》의
성장소설적 특성 | 4. 결론 |

1. 서론

沈從文과 黃順元은 서로 왕래한 적도 없고 영향을 받은 적도 없는 작가들이다. 게다가 두 작가의 작품은 그 창작 연대나 배경도 전혀 다르다. 그런데 沈從文의 《邊城》과 황순원의 《盲啞院에서》는 모두 성장소설이며, 주제·제재·내용·서술 형식·주인공의 성격의 발전 등에서 유사한 점이 대단히 많이 나타난다.

성장소설은 서양의 산물이다. 중국 문학사나 한국 문학사에서 그와 비슷한 소설 분류나 명칭은 두 작품이 나오기 이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청소년의 심리 발전이나 성격 형성 등을 다룬 작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曹雪芹의 《紅樓夢》이나 巴金的 《家》 등은 다 소나마 그런 성격을 지닌 작품들이다. 그런데 심종문의 《邊城》과 황순원의 《盲啞院에서》는 성장소설의 특성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이 두 작품은 비교해 볼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邊城》은 1934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심종문의 대표작이다. 심종문

* 明知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教授

은 중국 문체의 대가로 칭송을 받아왔다. 그의 작품은 풍성하고 또한 질도 대단히 높다. 그는 500여 편의 작품을 썼고, 백여 권의 단행본을 출간했다. 1920년대 말부터 약 20여 년 동안 많은 독자를 확보하였다. 그의 작품은 대체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도시 생활에 대하여 묘사한 것이다. 그 둘째는 湘西(호남 서부) 사람들의 삶을 그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경에 관하여 서술한 것이다.

그는 어린 시절 湘西에서 농민, 군인, 뱃사공, 장사꾼들과 어울려 지냈다. 때문에 湘西인들의 삶을 그린 작품을 많이 썼으며, 그러한 작품들이 가장 특색이 있다. 《邊城》은 바로 湘西의 세계를 그린 걸작이요, 그의 대표작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湘西 산촌 삶의 목가요, 사랑의 찬송가요, 소설 형식으로 쓰여진 운을 달지 않은 시’라고 했고¹⁾, 어떤 사람은 ‘湘西인의 인성애요 인정이다. 향토 문학의 새로운 수확이며, 五·四 이래 사랑과 미적 문학의 새로운 발전’이라고 했다.²⁾ 어떤 사람은 ‘湘西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두 가지 애정 개념과 혼인 방식이 서로 얽히고 함께 존재하는 사회 문화 형태’라고 했다.³⁾

그러나 어떤 사람은 ‘湘西 세계 모습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의 상아탑에 불과하며 민족의 이상적인 낙원의 환상’이라고 했다.⁴⁾ 성장소설이라는 시각에서 쓴 유일한 논문은 葉少嫻의 논문이다. 그는 《邊城》이 주제, 내용, 서술 형식, 주인공의 성격 발전적 측면에서 볼 때 한 젊은이의 성장 과정을 성공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같은 시기에 중국 소설에서 개인의 발전을 그린 매우 드문 소설이라고 했다.⁵⁾

《盲啞院에서》는 1953년에 발표된 황순원의 문제작으로 단편소설집

1) 潘旭瀾, 「重讀《邊城》」,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中國人民大學書報刊資料中心, 1981.15, p.49.

2) 何益明, 「論沈從文的《邊城》」,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中國人民大學書報刊資料中心, 1981. 3, pp.71-78.

3) 凌宇, 「從苗漢文化和中西文化的撞擊看沈從文」,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中國人民大學書報刊資料中心, 1986.6, pp.241-249.

4) 萬同林, 「從創作主體的文化構成看沈從文」,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中國人民大學書報刊資料中心, 1988.6, pp.208-212.

5) 葉少嫻, 「沈從文的《邊城》」, 《中國現代文學新貌》, pp.193-205.

《학》에 수록되어 있다. 황순원은 한국 현대문학사의 중심에서 영욕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본 선비이다. 문단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초지일관 문학가로서의 외길을 걸어왔다. 권력과 출세에 초연하면서 이데올로기에 흔들리지 않고 선비의 이상과 덕목을 체득해나갔다.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주제는 대단히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그 가운데서도 부 의식의 상실과 전통지향성, 이념의 갈등과 부조리한 현실, 소외와 인간 구원의 문제는 주목할 만하다. 1970년에 이르는 오랜 창작 생활과 시, 소설, 희곡 등 다양한 장르적 실험 그리고 엄청난 양의 작품 생산은 그를 한국현대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가로 만들고 있다. 그의 작품의 중심이 시에서 단편소설로, 단편소설에서 장편소설로, 장편소설에서 시로 변화해간 것은 단순히 장르와 창작 경향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의 탐구이자 그 확대의 과정임에 틀림없다.⁶⁾

단편소설집 《학》에는 《소나기》·《두메》·《매》·《과부》·《학》·《맹아원에서》·《사나이》·《왕모래》·《부끄러움》·《필묵장수》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나기》·《두메》·《매》·《과부》·《사나이》는 전쟁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작품이고, 《학》·《맹아원에서》·《왕모래》·《부끄러움》·《필묵장수》 등은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盲啞院에서》는 전쟁으로 고아가 된 소녀를 대상으로 그의 세계 인식과 성장의 과정을 밀도 있게 그린 걸작이다.

필자는 본고에서 《邊城》과 《盲啞院에서》를 통하여 두 작품의 성장소설로서의 특성과 유사점을 살펴보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동양문학의 보편성을 규명하고 동양의 근대문학이 서양문학의 이식에 의해 성장하였다는 종래의 이식사관을 극복해보자 한다.

6) 송현호, 『선비정신과 인간구원의 길 - 황순원』, 건국대출판부, 2000, pp.5-7.

2. 《邊城》과 《盲啞院》의 성장소설적 특성

성장소설은 대체로 주인공의 초기적 삶을 그리는 데 중점을 둔 소설이다. 주인공이 겪었던 일들은 곧 그의 성장 과정에서 직면해야 하는 시련들이다. 게다가 스승의 바른 지도를 받고서, 주인공이 마침내 스승의 복제품이 된 것이다. 자립할 수 있는 청년이 되며, 세간에 뛰어 들어서도 사회에 먹히지 않는다. 인생의 여러 도전에 맞서는 용기가 있으며, 인간 관계 속에 얽혀 있는 애환을 경험한다. 성장소설에서 주인공이 받은 ‘교육’은 결코 서적을 통하여 얻은 지식이 아니라, 직접 삶의 과정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다.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 성장하여 자립적인 성격과 삶의 목표를 세우게 된다.

성장소설은 주인공의 초기 삶과 성장 과정에서의 결정적인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서술한다. 그런 사건들은 주인공의 일생을 좌우하게 된다. 젊은 주인공이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립적 인생을 시작하고 삶의 전사가 됨으로써 비로소 이야기의 끝을 맺는다. 바꿔 말하면 소설이 끝날 때에야 젊은 주인공의 자립적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또한 무지하고 천진난만한 소년에서 철들고 성숙하고 능력이 있으며, 꾀꾀한 태도로 인생을 맞이하는 성인이 된다. 따라서 성장소설은 ‘개인의 발전 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다.⁷⁾

《邊城》의 주인공인 翠翠의 삶의 공간은 상서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지닌 작은 산성이다. 그녀는 자연 속에서 잉태한 소녀이다. 주위를 둘러싼 산과 물은 곧 그녀의 세계이다.

翠翠는 바람과 태양에 길들여져 있다. ……이런 고로 눈동자가 수정 처럼 맑다. 자연은 그녀를 기르고 교육한다. 천진난만하고 쾌활하여 어린 짐승같다. 너무나 착해서 노랑 사슴같이 잔인한 일을 생각해 보지 못하며 고민하거나 화내는 일이 없었다.⁸⁾

7) 葉少嫻, Op. cit., pp.194-195.

8) 彭小妍編, 《沈從文小說選(二)》, 臺北: 洪範書店, 1995, p.700.

그녀는 함께 공부하고 놀이를 할 친구가 없었다. 黃狗 한 마리만이 그녀를 따라 다녔다.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와 서로 의지하며 가난하게 살아왔다. 비록 평범한 삶이지만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즐거움을 더했다. 할아버지는 곧 그녀의 전부였다.

그녀의 천진난만하고 근심 걱정 없는 성격은 그녀의 행위를 통하여 엿볼 수 있다. 신부를 건네주고 나서 자기도 신부 놀이를 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학교에 다닌 적이 없으나 제법 철이 들었다. 그녀는 무엇을 하든 순리대로 하여 마음의 기준을 삼는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지친 이요 스승이다. 수시로 그녀에게 처세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예를 들어 단오절에 翠翠가 마음이 변하여 순순이라는 그 지역 배 주인의 집에 가서 뱃놀이 구경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훈계한다.

翠翠야, 너 왜 그러니? 약속하고도 또 마음이 변하다니. 우리 다산동 지역 사람들의 평소 품행과 어울리지 않는다. 약속을 잘 지켜야지. 이랬다저랬다 하면 못써.⁹⁾

翠翠는 커가면서 심적 변화가 적지 않았다. 항상 자신도 모르게 소녀 특유의 정서를 드러내곤 하였다. 翠翠는 하루하루 자랐다. 문득 무슨 이야기를 꺼내면 얼굴이 붉어졌다. 시간이 그녀를 자라게 했다. 그녀더러 다른 어떤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독촉을 한 듯하다. 그녀는 분장한 신부를 구경하기 좋아하며, 신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다. 들꽃을 머리 위에 꽂기 좋아하고 노래를 불러주기 좋아했다. 때로는 외로운 듯하며 암석 위에 올라앉아 하늘을 향해 한 점의 구름, 하나의 별을 쳐다보았다. 할아버지가 ‘翠翠야 무엇 생각하니?’하고 물으면, 그녀는 약간 수줍은 듯, 가볍게 말하기를 ‘翠翠 아무 것도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서도 마음속에는 ‘너 무엇 생각하니’ 자문자답하지만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지 못했다.

《盲啞院에서》의 여주인공 영이는 부산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맹아

9) Ibid., p.725.

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거기는 곧 그녀의 삶의 세계다. 15살 소녀인 영이는 6·25전쟁으로 피난을 가던 길에 박격포 파편을 맞고 눈이 멀게 되었다. 게다가 어머니의 사랑을 잃게 된 일련의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눈이 먼 원아들보다 난폭하고 불안해 보이고 음침스러워서 누구도 그녀를 믿지 못할 정도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칠이 들어 장님이 된 애는 좀처럼 자기의 운명에 순응하지 않으려 드는 것이다. 영이의 경우도 그랬다 ……이들 소경 애들은 병어리 애들과는 또 달라 먼저 남을 의심하고 드는 버릇이 있었다. 자기 피부로 직접 만져지는 것이 아니면 믿지 않으려는 것이다.¹⁰⁾

맹아원에 들어오는 애들은 자기의 본색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름도 바꾸고, 나이도 속이는 것이었다. 그것이 영이 같은 애에게 있어서는 더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¹¹⁾

사감은 원아의 보호자 겸 스승이다. 특히 장애자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사감이 영이의 성장과정에서 준 영향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맹아원에 들어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영이는 말썽을 피웠다. 그런데 사감은 그녀의 심리와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일을 적당히 처리했다.

웅당 사감인 그로서는 영이를 꾸짖거나 타일러 그러지 못하게 해야 옳을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도리어 같은 방 애들을 다른 방으로 옮겨버렸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칠들어 장님이 된 불행한 소녀의 기를 누그러지게 해보자는 것이었다.¹²⁾

그리고 성격이 온순하여 선량하기 그지없는 소경인 숙이를 그녀와 룸메이트가 되게 했다. 사감은 그녀를 감화시키는 한편 숙이를 통해 그녀의 신상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했던 것이다.

10) 황순원, 《학/잃어버린 사람들》, 문학과지성사, 1985, p.44.

11) Ibid., p.55.

12) Ibid., p.44.

難送과의 해후는 翠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를 사랑과 미움, 슬픔과 기쁨이 얽혀져 있는 삶에 끌여 들였다. 難送은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그녀의 마음속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녀의 정서 세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변화는 할아버지의 시선에 비할 수 없다. 자연 속에 한 평생을 보낸 늙은 뱃사공에게는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었다. 자연의 규칙을 묵묵히 받아 들여 생로병사는 자연 현상이니 누구나 겪어야 할 길로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늙어감에 대해 걱정하지 않지만 손녀의 미래를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翠翠 때문에 걱정한다. 가끔 문밖의 암석 위에 드러누워 별을 보고 시름에 잠긴다. 그는 자기의 죽을 날이 다가왔음을 느낀다. 翠翠가 어른이 되었으니 자신이 확실히 늙었음을 안다. 그러나 어쨌든 翠翠가 확실한 소식이 있어야 한다. 기왕 그녀의 불쌍한 엄마가 자신에게 말했으니, 翠翠를 누군가에게 넘겨주어야만 비로소 자신의 일을 끝마칠 수 있다.¹³⁾

翠翠는 자기 인생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형인 天保인가 아니면 둘째 아우인 難送인가를 두고 어찌 할 줄을 모른다. 그녀의 속마음엔 難送을 좋아하지만 본격적으로 청혼한 자는 天保였다. 그녀는 또한 효녀라서 할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지도 않았다.

翠翠는 마음이 어수선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녀의 행동은 이전의 쾌활하고 명랑했던 성격 그리고 茶峒 지역 사람들의 호방한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성숙을 뜻한다. 難送과의 해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며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천보의 청혼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워서 매우 난처했다. 게다가 難送과의 애정도 종잡을 수 없다.

翠翠는 붉은 구름을 쳐다보고 나투터에 타향살이 장사꾼들의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약간의 처량함을 느낀다. 저녁노을이 여전히 부드럽고 아름답고 고요하다. 그러나 똑같은 저녁노을인데도 약간의 처량함을 느

13) 彭小妍 編, Op. cit., pp.727-728.

진다. 삶은 고통스러워진다. 翠翠는 무엇이 모자란 듯하다. 이런 시간이 곧 지나갈 듯하다. 새로운 일에 매달리고 싶어하지만 안 된다. 삶은 너무나 평범해서 참을 수가 없다.¹⁴⁾

翠翠와 천보, 難送 두 형제와 얽힌 복잡한 사랑은 바로 그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자연 속에서 자란 翠翠의 개인적인 사상, 정서는 할아버지나 순순(두 형제의 아버지) 등을 뜻한 사회 문화 개념과의 오해와 충돌이다. 그녀의 침묵은 여러 사람의 오해를 사게 되어 할아버지도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는 스스로 결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혼사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 천보가 이 일로 인해 간접적으로 뜻밖에 죽었다. 이런 돌발사고로 難送까지도 오해하게 된다. 천보의 죽음은 翠翠와 難送 사이의 애정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사실상 難送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녀와 함께 한평생 나룻배를 지킬지언정 아버지의 뜻에 따라 부자집 딸과 혼인할 생각은 없었다. 그렇지만 형의 죽음도 잊을 수 없다. 翠翠와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 사랑과 미움의 기로에 타향살이를 택했다. 당연한 문제를 잠시나마 피하려는 것이었다.

사춘기에 접어들어 정서가 불안한 영이는 원내서 행해진 장애아 교육에 대해 협조하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교활하여 똑똑한 소경 사내와 관계를 가졌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나중에 임신한 사실이 사감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사감은 마음의 상처가 깊은 영이를 조심스레 다룬다.

영이의 임신은 곧 그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를 성인의 사회에 들어가도록 밀어주었다. 하나의 새 생명은 그녀로 하여금 흥분하여 초조하게 만들었다. 이런 번덕스러운 생각은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에 깔게 만들었다. 이것은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두려움과 불신감의 산물이다. 과거는 그녀에게 악몽이었고, 그녀는 전철을 밟을까봐 두려워했다.

성한 사람과 병신은 부모 자식 사이라도 종내는 새가 벌어지고 만다

14) Ibid., p.758.

는 걸 무서워했어요 …… 앞으로 자기가 낳는 애가 자기를 바라볼 눈까지 지레 생각하고 불안해 한 것임에 틀림없었다.¹⁵⁾

翠翠의 할아버지는 어머니 생전의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다. 그녀는 임신한 뒤에 삼각관계를 일으켰다. 양심의 가책으로 그녀를 낳자마자 자살했다. 翠翠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기쁨과 슬픔, 이별과 만남 그리고 무상함을 회미하게나마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늙은 뱃사공의 노력은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성숙하고 자립적인 인간이 될지 안될지는 외부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능동성과 통찰력에 달린 것이다. 세상물정을 잘 헤아려 행동에 옮긴 것이다.

‘울지마, 어른이 되거든 어떤 일에도 울지마. 악착같이 든든해야 이 땅에 살 자격이 있단다.’

翠翠가 손을 눈가에서 거두며 할아버지 곁에 가까이 가서 ‘이제부터는 안 울거야’라고 말했다.¹⁶⁾

할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녀로 하여금 더욱 빨리 성장하게 만들었다. 문득 하루 사이에 어른이 된 것 같다. 단오절의 難送과 的海후는 조손 간의 세계를 깨뜨렸다면 천보의 청혼 그리고 훗날 발생한 일들은 그녀에게 세간의 애증과 애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다. 할아버지의 죽음은 인생에서 생로병사가 자연스럽고도 잔인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다. 할아버지의 친구인 노 군인은 줄곧 그녀를 도와주면서 翠翠가 전에 몰랐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문득 사정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주변 세계를 보다 더 깊이 인식하게 된다. 소설이 끝날 때 바로 그녀는 독립적인 삶의 시작을 암시하고 있다.

그녀는 육친에 대한 정이나 애정이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요, 難送도 돌아올 지 안 올 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가야 할 것이다. 사

15) 황순원, Op. cit., p.60.

16) 彭小妍 編, Op. cit., p.760.

람마다 제각기 갈 길이 있으며 책임을 질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슬퍼한 듯하나 긍정적이면서도 낙관적인 결말은 또한 성장소설의 특색이다. 그녀는 여전히 나뭇배를 지키면서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처럼 살아갈 것이다.

사감은 영이를 두 차례 바닷가에 데리고 갔다온 후 그녀가 자살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염려했다. 이런 걱정은 드디어 현실화됐다. 사감은 그녀가 빨리 성숙해지기를 바랐다. 꽃꽂한 어른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사감의 노력에 비하여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사감도 그런 사실을 깨달았다.

그 한 사람의 운명과 의지는 다른 사람으로서 방관하는 도리 밖에 없다는 것일까?¹⁷⁾

영이는 자살을 결심하고 바다에 들어갔다. 그때 그녀는 뱃속의 태동을 강하게 느꼈다. 생명력의 꿈틀거림은 모성애의 본능을 일으켜, 순식간에 그녀로 하여금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만들었다. 자신이 자살하지 않고 살아야 할 사명감과 희망을 발견하고, 모성애의 위대함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용기를 되찾고 새로운 인생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마 이것은 하늘의 뜻일 것이며, 그녀더러 자연의 이치와 운명을 따르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뱃속에 든 것이건만 벌써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¹⁸⁾

3. 《邊城》과 《盲啞院에서》의 작품 비교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주제, 내용, 서술 형식과 주인공의 성격 발전에서 볼 때 두 작품은 매우 유사하며, 주인공의 성장 과정을 성공적

17) 황순원, Op. cit., p.61.

18) Ibid., p.62.

으로 그려낸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다른 나라의 작품이며 성장소설 형식을 내세우지 않았는데도 두 작품은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성장소설이 세계적인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두 작품은 동양 작가의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배경에서 생성된 유사한 사상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두 작가는 그들의 성장 배경이 된 역사, 문화, 풍속 등의 차이로 인하여 상당히 이질적인 요인을 작품 속에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성장소설이라는 공통성을 지닌 두 작품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유사성과 변별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두 작품의 유사성

(1) 여주인공의 삶

두 작품은 모두 주인공의 초기 인생 경험을 그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翠翠의 초기인생은 명랑하여 순탄한 시작이며, 영이는 우울하여 우환이 끊이지 않는 시작이었다.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결정적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여 인간의 회로에락을 체험하며 자립한 인생을 세웠다. 스토리의 끝에 翠翠는 할아버지의 사망과 難送의 떠남으로 인해서, 영이는 자살 미수 후 뱃속의 태동으로 인하여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았다.

(2) 인생 스승 역할의 배치

할아버지는 한편으론 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며, 한편으로는 손녀의 인생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 한평생을 보내는데 자연법칙인 생로병사를 받아들일 줄 안다. 자신이 곧 죽어가고 서둘러 손녀의 미래를 준비한다. 하지만 손녀의 혼인에 있어 자유를 존중하며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늘 손녀가 자기 엄마의 길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한다.

사감은 장애아 전문가이면서 영이의 인생스승 격이다. 사감은 신체장

애가 있으나 정신적인 장애가 되지 않는 원칙에서 시종일관 영이에 대한 무언의 가르침을 해왔다. 그녀가 만들어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스스로 깨우치도록 그때그때 거두어 주었다.

끝내 주인공들은 양심을 기준으로 삼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결말은 동양의 노장사상에 영향받은 바 크다. 노장사상은 좁은 공리주의에 반대하며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無爲하고도 無不爲하는 사상이다. 아울러 두 작품에는 인도주의 사상도 담겨 있다.

(3) 소설 결말의 유사성

할아버지가 죽고 難送이 떠난 뒤에 翠翠는 스스로 몸부림치다가 갑자기 성숙해진 것 같다. 그녀는 가장 바람직한 삶을 선택했다. 즉 변치 않는 삶, 자연의 순리대로 강물이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이다. 영이도 주위 환경의 끊임없는 유혹과 스스로의 몸부림 끝에 본래의 삶의 질서를 유지한다. 폭풍우 뒤의 바다처럼 고요해진다.

두 여자는 성품이 고상하고 사고방식 또한 성숙한 상태다. 이것으로 서 소설의 결말이 되며 주인공의 삶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더욱더 큰 깨달음은 인간은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적인 삶의 의미는 자기의 힘으로 개척하고 개발하여 체득해야 한다. 어떤 생명도 서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두 작가의 유사한 사고 방식은 곧 동양인 인생관과 세계관에 다름 아니다.

(4) 동양인의 특유한 천명관

“하느님에게 순종하는 자는 잘 되고, 하느님에게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는 옛 성인의 말씀처럼 자연법칙에 따른 동양 도가사상 그리고 숙명론은 동양적인 작품에서 가장 짙은 색채를 띠고 있다. “天人合一”의 사상은 인생의 불변한 진리다. 인간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아야 가장 합리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2) 두 작품의 차이점

(1) 작품의 전체적 분위기

《邊城》의 주민은 열정적이고 즐거워하며 노래를 즐겨 부른다. 서로 도와가며 인정미가 넘친다. 전쟁을 치른 뒤의 한국만큼의 큰 위협이 없고 굶주림 정도의 가난함이 아니다. 온 마을 사람들의 화목하고도 낙천적 성품이 湘西 茶峒 지역의 분위기이다. 작품 전체는 지나치게 아름다워서 작가가 자기 고향을 너무 과장되게 그렸다는 비평도 받았다. 茶峒 같은 지방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작가의 도화원 같은 꿈일지도 모른다.

《盲啞院에서》의 시대 배경은 6.25전쟁이 막 끝난 50년대이며, 영이는 전쟁의 피해자를 대표한다.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서 정신상태는 벌써 정상인과 다르다. 따라서 작품은 마치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온갖 우울하고 어두컴컴한 분위기이고 저기압에 휩싸여 살고 있는 듯하다. 그 점에서 《邊城》과 《盲啞院에서》은 너무도 대조적이다.

(2) 남녀 애정 묘사의 수법

《邊城》에서는 남녀의 애정을 주로 翠翠의 정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 지역의 풍속에 따라 남자가 산에 올라가 애정 어린 노래를 불러줌으로써 여자의 주의력을 끈다. 이런 사랑의 표시 방식은 매우 분위기 있고 보수적이고 순박하고도 흥미롭다. 湘西 지역 남녀의 순수한 사랑을 나타내는데 보다 더 매력적이고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盲啞院에서》 그리는 남녀의 애정은 사감의 진술을 통해 드러나지만 사춘기 남녀의 이성애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으켰던 행위였다. 진정한 의미로서의 남녀사랑이란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다. 단조롭고 지루하고도 세속적이다.

그러나 두 작품에서 인생의 스승들인 할아버지와 사감의 정신세계를 통해 여주인공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소원이 잘 나타나 있

다. 이런 측면에서 간접적인 남녀애정의 표현방법은 일치된다.

(3) 작품의 현실성 문제

《邊城》은 목가식 문체이다. 소설 전체가 인정미와 자연미로 가득 차 있다. 독자로 하여금 도화원에 들어가 있는 착각을 일으킬 만하다. 심종문이 《邊城 題記》에서도 작품의 사상 경향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 민족 과거의 위대함과 현재의 타락함을 인식하자”. 이 작품은 독자에게 회고의 정서, 하나의 용기와 신심을 주는 데 있다. 사실상 茶峒 같은 성지는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창작 경향은 자연미에 대한 추구하고 표현에 있다.

반대로 《盲啞院에서》는 매우 리얼하게 현실적인 작품이라는 강한 느낌을 준다. 전후 50년대 한국사회를 배경으로 한 소경 소녀를 주인공으로 삼아, 전쟁후유증으로 살아가는 한민족의 슬픔을 고발한 셈이다.

4. 결 론

본고는 성장소설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邊城》과 《盲啞院에서》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두 작품에 나타나는 유사점과 변별성을 구명하고자 했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동양문학의 보편성을 규명하고 동양의 근대문학이 서양문학의 이식에 의해 성장하였다는 종래의 이식사관을 극복해보자 했다. 그러한 의도 하에서 이루어진 본고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심종문과 황순원은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서로 만난 적이 전혀 없었던 생면부지의 작가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작품에는 성장소설적 특성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 성장소설은 동양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거의 중요시하지 않았거나 인식을 하지 못한 하위 장르이다. 그런데 두 작가의 작품은 성장소설의 전형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두 작품에 나타나는 유사성은 여주인공의 삶, 인생스승 역할의 안배,

소설 결말의 유사성, 동양인의 특유한 천명관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으며, 대체로 두 작가는 공통적인 사고 방식에 입각하여 유사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작품은 작가의 성장 배경이 된 중국과 한국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도의 이질성도 보여주고 있다. 두 작품에 나타나는 변별성은 작품의 전체적 분위기, 남녀 애정의 묘사 수법, 작품의 현실성 문제 등을 통해 드러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두 작가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임에도 대단히 유사한 문학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동양적 인생관과 세계관에 바탕을 둔 동양문학의 보편성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아울러 성장소설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작가의 작품에 그런 특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성장소설이 서구적 장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것이지만 서양에서 그러한 인식이 먼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參考文獻

- 강선주, 「黃順元의 '成長小說' 연구 : 短篇小說을 중심으로」, 전남대 교육대학원, 1990.
- 강여주, 「황순원 성장소설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1989.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85.
-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 일지사, 1979.
- 김윤식·김우종 외, 《한국현대문학사》, (주)현대문학, 1989.
-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84.
- 김윤정, 《한국현대소설과 현대성의 미학》, 국학자료원, 1998.
- 송하섭, 《한국 현대 소설의 서정성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89.
- 송현호, 《선비정신과 인간구원의 길-황순원》, 건국대출판부, 2000.
- 오명숙,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니시에이션소설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

- 원, 1993.
- 이재선, 《현대 한국 소설사》, 민음사, 1991.
- 이현숙, 「黃順元 小說의 人物 研究 : 이니시에이션 소설을 중심으로」, 단국대 석사학위청구논문, 1998.
- 장현숙, 《황순원문학연구》, 시와시학사, 1994.
- 전현주, 「황순원 단편 고찰--이니시에이션 스토리를 중심으로」, 동아대 석사학위청구논문, 1984.
- 조남현, 《한국 현대 소설사 연구》, 민음사, 1984.
- 현영종, 「이니시에이션 소설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1989.
- 황순원, 《학/잃어버린 사람들》, 문학과 지성사, 1985.
-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中國人民大學書報刊資料中心, 1981-1988
- 《中國新文學大師名作賞析》, 海風出版, 1993.
- 凌 宇, 《沈從文傳》, 臺北: 東大圖書公司, 1991.
- 蘇雪林, 《中國二三十年代作家》, 純文學出版, 1983.
- 沈從文, 《沈從文自傳》, 輔新書局, 1990.
- 李 輝, 《恩怨滄桑》, 葉強出版, 1992.
- 彭小妍 編, 《沈從文小說選(一 二)》, 臺北: 洪範書店, 1995.
- 夏志清, 《中國現代小說史》, 傳記文學出版, 1979.

明代中琉关系

楊 秀 芝*

<目次>

- | | |
|-------------------|------------------|
| I. 序言 | III. 閩人36姓对琉球的贡献 |
| II. 琉球在朝贡体制下的仲介贸易 | IV. 结论 |

I. 序言

中琉关系始于何时? 隋书虽有有閩琉球的记载, 但究竟指的是琉球还是台湾并不明确, 目前最足徵信的是元代汪大渊的《岛夷志略》, 该书谈到琉球商人买处州瓷器的事, 证诸琉球城寨出土的400多处遗迹的陶瓷碎片, 可以发现琉球在宋元明时代与中国都有交通。不过正式的朝贡关系是从明代开始的。

朱元璋登基后, 遣使诏告四夷, 中国经10多年的战乱, 已西平陈友谅, 东缚张士诚, 南平闽粤, 勘定八番, 北逐胡元。新建国号大明。安南, 占城, 高丽, 爪哇等于是纷纷称臣入贡。因琉球远在中国东南海外, 未及报知, 乃于洪武5年(1372)遣行人杨载往谕。¹⁾ 当时琉球国中山王察度随即遣王弟泰期随杨载到中国报聘, 获赐大统历, 开始了明琉正式的朝贡关系。

不过, 当时的琉球是处于三山分裂的时期, 为了获得支持和保护, 洪武13年(1380)山南王, 16年(1383)山北王亦先後遣使来朝, 明待他们一视同仁, 都赐与大统历, 驼纽镀金银印, 文绮纱罗, 冠带, 船舶等。对于三山的纷争,

* 忠北大学 中文系 教授

1) 《明太祖实录》, 洪武元年12月壬辰遣使往高丽, 5年正月甲子遣使往琉球条参照。

明到1383年才由归国使者的报告中得知，明太祖即分别诏谕三山要他们停止废农伤民的战争。

1392年琉球中山王，山南王开始先後遣送自己的子侄及寨官的儿子到南京国子监留学。到1429年琉球统一为止，中山王派了16名，山北王派了4名留4学生。1372~1429年间中山王遣使朝贡了89回(年平均1.56回)，山南王34回(年平均0.59回)，山北王15回(年平均0.26回)，朝贡的比例是6:2:1，这也是三山国力和文化水平的比例。

三山最後於1429年由尚巴志统一了。琉球从此以一个统一的王国向明朝贡，明规定琉球2年1贡，对于琉球的朝贡，明则给予回赐，並准许附带货物的贸易。每逢琉王过世，明廷必派使节过海谕祭，并册封世子为新王。双方维持朝贡册封的关係，直到1644年明亡为止。清代琉球与中国的关係大体是与明代相同的。不过，琉球王国本身在1609年遭萨摩藩入侵以後，已由一个独立王国变为日本萨摩藩的一个附庸国。1872年日本明治政府单方面的把琉王变为藩王，把琉球变为日本的藩属，1875年禁止琉球向中国朝贡，1879年琉球终沦为日本的冲绳县，琉球王国就此消失。

本论文所讨论的范围主要局限在1372~1644年明代的中琉关係。

II. 琉球在朝贡体制下的仲介贸易

前面我们已大略谈到明代中琉关係的缘起及中琉关係的基本样式。那麼，明代中琉关係具有什麼样的特徵呢？它与同时期的中国朝鲜关係有什麼不同呢？本文打算就东亚环境的变化对中琉关係的影响，概略的介绍一下明代中琉关係的特徵。

1. 琉球对明的朝贡贸易

琉球利用对中国的朝贡关係，及朝贡体制下的交邻关係，从事东北亚与东南亚间的仲介贸易。琉球与中国关係密切，朝贡次数仅次于朝鲜。大明会典载琉球2年1贡，但琉球事实上并不严格遵守。除了前面我们谈到琉球统一

前的年平均贡期如中山国已超过1.5次以外,琉球统一后,1430~1499的70年里,琉球朝贡了107次,年平均也超过1.5次。琉球能够这样不时入贡,其实也是因为明的需要。一是为了防范倭寇,明需要琉球注意倭寇的动向,²⁾二是为了让琉球居中恢复明日关系,三是在海禁政策下,需要靠琉球得到海外的物资。不过,宣宗以后因对各国使节招待馆谷费用很大,时有节约诸国入贡经费的建议,加以贡使沿途对中国百姓军官屡有暴行,³⁾到成化10年(1474),发生琉球国的使者在福建杀人放火的事件,次年开始,明即限定琉球只能两年一贡,可琉王每年都遣使来奏请复1年1贡,成化16年明告知此例既定,难再更改,琉球始2年1贡。正德元年(1506)琉球国王请求允许复旧,翌年才又恢复1年1贡,但到正德13(1518)年起又改为2年1贡,到嘉靖元年(1522)除限定2年1贡外,还规定每只船员不得超过150人,明所以有这样的规制是因为当时明已开放海禁,有许多的中日商人能提供明所需要的南海物资。琉球已经失去了国际贸易仲介角色的地位。万历37年(1609),琉球为日本萨摩藩所侵,琉王被俘去了2年多才被放回,那以后的朝贡贸易,利益主要归萨摩所有。因入贡人员中杂有日人,贡品中挟带日货,引起中国的注意,万历40年(1612)明将琉球贡期改为10年1贡,后因琉球之恳求天启2年(1622)改为5年1贡,到崇祯7年(1634)改为2年1贡,⁴⁾明所以这样作,是怕完全拒绝琉球的话,琉球可能会投靠日本,完全为日本所用,因此保持距离,维持一个朝贡册封的形式。

琉球贡期虽然不能与朝鲜的1年4次相较,但在所有朝贡国中,只有它与朝鲜不需勘合信符,会同馆开市亦不受3-5天的时间限制,显示中国对它的待遇不同於一般国家。而尽管中国要它2年1贡⁵⁾,它仍是不遵守,找理由1年1

2) 张存武,〈对於明琉关系的几点认识〉(《第三届中琉历史关系国际学术会议论文集》,中琉文化经济协会出版,中华民国80年),950面。

3) 郑梁生,〈明代中琉两国封贡关系的探讨〉(第二回琉中历史关系国际学术会议实行委员会编,《琉中历史关系论文集》,1989),239-242面。

4) 关于琉球贡期,吴霁华将其分为:1372~1471百年间的放任时期,1472~1609的两年一贡时期和1610~1644的不规则时期。见吴霁华,〈清代儒家思想对琉球的影响〉(中琉经济协会编,《第一届中琉历史关系国际学术会议论文集》,中华民国76年),82-83面。

5) 《明宪宗实录》,成化14年4月己酉。

贡。这说明朝贡对琉球是非常重要的。

根据会典，琉球的贡物有马，刀，海巴，生红铜，锡，生熟夏布，丁香，檀香，苏木，胡椒，硫黄，磨刀石等，⁶⁾ 明则回赐国王锦四段，紵丝罗各六疋，纱八疋，王妃锦二段，紵丝纱各四疋，⁷⁾ 回赐品是有等级的，琉球国王的身分比照中国的官制屬於二品，所受颁赐的赐品则与郡王同格，是比朝鲜国王，日本国王的亲王级低一等的。根据会典记载，我们知道，琉球朝贡所带去的正贡外的附带货物是官抽五分买五分，而像暹罗日本占城满刺加等国的附带货物则是给价不抽分的。⁸⁾ 这可见琉球所携带的货物很多，并且具有商业价值。我们知道明对各朝贡国所携来的货物，不是全都给与特价收买的，对不同国家有不同的收购价格，对琉球有苏木，胡椒，锡三项是特别优厚的。根据弘治年间所定的蕃货价值，苏木原产地是暹罗，爪哇，当地的价格未详，明给的一般收买价是每斤500文，给暹罗每斤5贯，给琉球10贯。胡椒在原产地苏门答腊每斤10文，明一般收买价是3贯，但给满刺加20贯，给暹罗25贯，给琉球30贯。锡产地价格不详，明给一般国家每斤500文，但给琉球8贯。自1469~1499年，琉球平均每年进口苏木25275斤，胡椒5900斤，锡2760斤，⁹⁾ 按1000文等於银1两，钞1贯来计算，琉球在苏木，胡椒，锡这三项所得的利益可以想像。

2. 琉球在朝贡体制下的交隣贸易

琉球的贸易不是到此为止，琉球使团归国时亦必购买东西带走，其中最重要的莫如明的陶磁器，依明政府订价，青花白磁盘每个500贯，碗300贯，瓶500贯，酒壶1500贯，豆青磁碗150贯，碗100贯，瓶150贯。这些东西的价格是相当昂贵的，可琉球一般用大青盘20个，小青盘400个，青碗2000个带到暹罗，满刺加作为礼物以换取苏木和胡椒。¹⁰⁾

6) 《明会典》，卷105，主客清吏司，朝贡1，东南夷上。

7) 《明会典》，卷111，礼部69，给赐2，外夷上。

8) 同上条。

9) 朱德兰，〈十五·六世纪朝贡与琉球的亚洲外交贸易〉（第二回琉中历史关系国际学术会议实行委员会编，〈琉中历史关系论文集〉，1989），201面。

10) 《历代宝案》1集，卷41，1303-1304面；卷42，1332面。

当时琉球暹罗这些国家的国际贸易都是王室的专利，琉球为大量平价取得这些货物，在给暹罗，满刺加等南海诸国的公文上必称是为朝贡中国，並说“交聘睦邻为邦之要，货财生殖富国之基”请求看在同为藩属国交聘睦邻的分上，协助让琉球人尽速完成买卖达成任务。¹¹⁾

琉球除利用以明为中心的朝贡体制，在中国和东南亚之间从事互通有无的国际贸易以外，它也利用同为藩属国的关系向朝鲜进行交邻外交，不过，它对朝鲜不谈利字，而利自在其中，它以送回被倭寇所掳转卖到琉球的朝鲜人，及因海难漂流到琉球的漂流人为理由，¹²⁾ 附带加上东南亚的孔雀，鸚鵡，象牙，水牛角，丁香，檀香等香料，苏木胡椒锡，琉球特产布料，东南亚绵染花巾，色线花布等作为礼物，换取朝鲜的绵紬，正布，佛经等。被掳人1名如果是由日人送回的，约可得10-15疋绵布的赏赐，琉球可能更多，朝鲜端宗元年(1453)琉使送回2名漂流人，加上铜，鐵，苏木等进上物，得到的回赐是紬布2577疋，绵布3860疋，正布7719疋。世祖元年(1455)琉使得了90000疋的正布，4年(1458)琉使送回3名漂流人加上国王和使臣的进上货物，朝鲜需付出的代价约达20000多疋的布货，世祖13年(1467)大司宪梁诚之因世祖又要赐琉球使臣绵布10000疋和绵紬5000疋，而大加反对。朝鲜绵紬1疋可交换铜铁11斤或苏木11斤，正布1疋可换丁香8两或白檀7两，¹³⁾ 到1500年为止，琉使共来访朝鲜15次，送还了至少133名被掳人及75名漂流人。¹⁴⁾ 由世祖时代的这几个例子，可以知道朝鲜绵布在琉球的仲介贸易上所占的重要性。

15世纪中叶以後，一方面是日本国内战争影响琉球北上朝鲜海路的安全，一方面是日人羡慕琉球在朝鲜所得的优厚待遇，朝鲜政府因琉球同是朝贡国並受汉文化的影响，对能诗能文的琉球使节待遇远超过日本使节，这引起日本人的覬覦，强行阻止琉球北上，並假称琉使，琉球遂因此几乎不能直接到朝鲜进行贸易，但假称琉使的倭人仍需向琉球购买南洋的货物，因此直到1530年朝鲜拒绝伪使，改在北京与琉球通消息时止，在那之前琉球在朝鲜与东南

11) 《历代宝案》1集，卷41，1303-1304面；卷42，1332面。

12) 關於琉球送还朝鲜被掳人，漂流人的详细内容，请参照 楊秀芝，〈朝鲜琉球关系研究〉(韩国精神文化研究院 韩国学大学院 博士学位论文，1994)。

13) 同註 5)。

14) 见楊秀芝 前揭论文，96面。

亚间的仲介贸易应该是一笔相当可观的收入。而更重要的是漂流人的互相送还成为一种惯例，不因两国没有直接的往来而中断，从1530年到清末继续进行着。

琉球自朝贡中国以後，在以明为中心形成的朝贡体制圈内，从朝鲜，日本到东南亚的苏门答腊，它纵横往来攫取仲介贸易的利益，其数目虽不可知，但琉球到尚真王(1477即位~1526)时代，已创造了琉球历史上的黄金时代。

III. 闽人36姓对琉球的贡献

1. 负责航海及外交的工作

1383年明太祖赐中山王山南王海舟各一，在尚巴志统一琉球之後，琉球的航海能力仍然薄弱，不儘缺乏造船的材料，也缺乏造船的人才，船到中国常搁浅损折，不得不求中国给舟以归，¹⁵⁾ 明到永乐时止，赐给琉球的海舟已达30多只。景泰元年明才移文福建令琉球自造。¹⁶⁾ 此外，明还赐琉球善於航海操舟的闽人36姓，让他们移住琉球，他们首批是在太祖，成祖年间移住琉球的。後来人员渐减，到神宗万历时只剩五姓，知书者及习海者不足，琉球曾请求再赐。¹⁷⁾

闽人36姓居住在离王城约五里地的久米村，由汉人主管，自成一个维持所有中国风俗习惯言语的聚落。36姓的子弟从小学习汉语汉文，12-3岁称若秀才，琉球政府授米1石，到15岁称秀才得米3石。这是首里，那霸高官子弟所无的待遇。他们可随功绩由通事升都通事，中议大夫(正四品)，正议大夫(正三品)，甚至紫金大夫(从二品)。¹⁸⁾ 紫金大夫主朝贡礼仪及往复文书诸事，使华时担任庆贺或谢恩副使，正议大夫则任进贡副使，都通事任上京及存留通

15) 《明宣宗实录》，宣德7年 3月 己巳。

16) 吴霭华，〈十四至十九世纪琉球久米村人与琉球对外关系研究〉(国立台湾师范大学，〈历史学报〉19，中华民国 80年)，8面。

17) 《明神宗实录》，万历35年 9月 己亥。

18) 李鼎元，〈使琉球记〉。

事, 通事则专司其他与朝贡有闲的事宜。

闽人36姓不僅活动於明琉间的朝贡关系上, 也负责琉球对东南亚的外交。据琉球历代宝案, 琉球与暹罗, 满刺加, 佛太泥, 爪哇, 三佛齐, 苏门答腊的往来在1425~1570年的145年间, 有71名久米村出身的通事, 从事117回的往来任务。琉球使行除正使一般由王族担任以外, 副使, 通事, 船长等都由久米村的人担当。他们使用汉语汉文, 与早年由福建广东移民到东南亚各国对该地经济, 甚至政治都有影响力的华侨沟通别无困难, 这也是琉球在东南亚贸易容易成功的理由。

明将闽人36姓赐与琉球本因他们善於航海操舟, 让他们入琉後担任到中国朝贡, 请封, 书写公文, 通译, 航海等大事。因他们的工作重要, 受到琉王的特别待遇, 他们的身分地位也跟着上升, 他们由航海贸易外交人员, 渐次影响到琉球的政治和教育, 文化。

2. 在琉球政治·文化上的贡献

前面提到琉球自三山时期即派遣留学生到中国, 不过主要是王族和寮官的子侄, 到成化以後36姓的子弟也到中国留学, 这些留学生学成归国後, 或普及儒教文化, 或以外交使节从事活动。像山南国的三五郎臺, 他是在1392~1396年来华留学的, 可说是最早期的留学生之一。他在1403~1416年14年间, 以中山王使臣的身分, 有11次使明的记录。而36姓子弟留学的记录始见於成化18年(1482), 尚真王选派其陪臣蔡宾等五人於南京国子监读书习礼。他们学明体达用之学, 以孝悌, 礼义, 忠信, 廉耻为根本, 以六经诸史为课业, 他们必须在五经中人专一经, 並兼习四书。他们在中国留学的时间3-7年不等, 皇帝按时节下赐衣物靴袜寝具, 並於修业3年後让他们回去省亲, 送他们礼物盘缠, 並令兵部提供驿马把他们由京城送到福建。这样的官费生从1392~1587年止, 确实有记录可查的共19次, 75名。¹⁹⁾ 除了官费生以外, 还有自费生, 自费生一般跟着朝贡接贡的使节到了福建以後, 留在当地, 向当地的

19) 徐玉虎, <明琉封贡中“官生入监读书习礼”之研究>, (第四回 琉中历史关系 国际学术会议编, 《琉中历史关系国际学术会议论文集》, 1993), 575面。

太儒学家，或具有特殊技能的专家学习。

明代琉球官学生中最具代表性的，应是郑迥，郑迥的父亲郑禄曾任都通事，其兄郑达，曾任那霸官，弟郑周万历7年入监读书，回国後任至长史(相当於外交部长)，一门受重用，是闽人36姓参与琉球外交及政治的典型例子。郑迥在北京留学7年(1565~1572)，归国後在久米村担任讲解师，教育子弟，万历2年，5年，7年，17年先後4次奉使入明，万历27年(1599)升紫金大夫，以请封使入明，34年(1606)担任琉球政府的三司官，三司官是仅次于按司(同姓诸侯)的最高行政主官，1609年萨摩入侵，他随着国王一起被俘到鹿儿岛，经2年多，岛津家久同意释放琉王一行回国，但王及所有臣下必须发誓永远效忠萨摩藩主，这时兄有郑迥一人抵死不从，他被岛津投进油鑊里处死，琉王回去以後国已不国，琉球从此失去了独立王国的地位，成为萨摩藩的附庸。为琉球大义捐躯的高官郑迥，他是36姓的子孙，琉王弥留时手绘三首左旋太极图，象徵萨摩武士2人，投郑迥於油鑊之意，交待世子永远不能忘记这个忠臣。²⁰⁾

明代的琉球自费生不见记录，但到清代程顺则，蔡温则是无人不知无人不晓的大学问家，大政治家。程顺则的祖先程复从洪武年间即在琉球任职长达40馀年，到81岁升国相兼左长史。顺则的父亲生於崇祯7年(1634)，曾过继给王室，他19岁任通事，随中国册封使张学礼回中国，在福建柔远驿馆待了2年，以後屢次出使，最後客死苏州，被琉王追封为进贡正使。顺则自小受到薰陶，渴望多学中国文化，他21岁时随琉球谢恩使节团到福州，留在陈元辅，竺天植门下，攻读文学和经史，25岁回琉任讲解师。以後官至王府侍讲，紫金大夫，最後被称为名护圣人，得到百姓的爱戴和尊敬。他除在福州琉球馆任职外，还曾有3次到中国的机会。他利用这些机会留心研究程朱学说，考察中国典章制度，他一生约有12年的时间在中国，他推广六谕衍义为琉民修身齐家的准则，传至日本，到明治维新以前是日本国民修身的课本，他倡建明伦堂，弘扬儒家学说，引进中国典章制度重修琉球官制。²¹⁾

蔡温(1682~1761)早年也任过训诂师，讲解师，27岁时以进贡存留通事在福建学习程朱之学，30岁担任国师，47岁任三司官，他在向象豎把琉球萨摩

20) 杨仲揆，《琉球古今谈》(台湾商务印书馆，中华民国79年)，42-72面。

21) 张希哲，〈程顺则對於中琉文化交流的贡献〉(琉中历史因系国际学术会议 实行委员会编，《第二回琉中历史因系论文集》，1989)，1-10面。

化之後，开始摸索琉球的独自性，他编写“教条”教导士农工商四民勤勉工作；讲求五伦，建立个人，家庭，社会，国家的伦理秩序。²²⁾並成功地折冲於中国和萨摩藩间，攫取朝贡贸易的一点利益，致力琉球的山林保护，河川改修等利用厚生的施策。²³⁾他还编纂琉球史“中山世谱”和振兴文艺，工艺等。在萨摩藩的榨取下，艰难的创造了琉球史上第二个黄金时代。程顺则和蔡温虽生於清代的琉球，但他们的成就在於有家学渊源和文化的累积。

闽人36姓的子孙在琉球外交前线担任通译，航海，外交，贸易方面的工作；在琉球国内传播中国儒家思想和文化。显示了闽人36姓移居琉球的重要性，不管是在明代或在清代闽人的子孙都有一定的贡献。琉球被称为“守礼之邦”诚非偶然。

IV. 结论

明代中国与琉球的关系，始於明以建国诏告四夷来聘，终於明为满清所灭。明朝虽然灭亡，琉球又主动向清朝贡。可见琉球对中国依赖之深，而其中最重要的莫过於朝贡贸易的利益与文化的输入，这是萨摩入侵琉球的原因，也是萨摩控制琉球後所以让琉球继续朝贡的理由。

明代中琉关系在朝贡册封使节的互相往来中，带动了贸易和文化的交流，留学生的派遣和闽人36姓的移居琉球，在琉球的外交工作上有实质的作用，而在文化教育上则有潜移默化的功能。

明14次遣使者过海册封琉球新王，他们因需候风汛，在琉球停留6-9个月不等，这些文人出身的使者对琉球文人的诗文绘画音乐也有不少影响，琉人到明朝贡除了前述的贸易利益以外，中国的冠服，礼乐，学风等对琉人更是切身之所需，这些随着朝贡册封关系所产生的文化影响，即使在今天也依然存在。

22) 系数兼治，〈蔡温の思想とその时代〉(《新琉球史-近世篇(下)》，琉球新报社)，185-195面。

23) 宫田俊彦，〈蔡温の外交-金鹤形一对と准作下次正贡〉(森克己博士古稀纪念会编，《史学论集-对外关系と政治文化》第1，吉川弘文馆，昭和49年)，323面。

李公樸과 民主救國運動의 思想

—孫文의 聯合戰線論과 관련해서—

青柳 純一*

—<目 次>—

머리말	II. 救國會派의 「聯合」論과 李公樸
I. 李公樸의 생애와 民主救國運動	1. 전구련의 연합전선론
1. 성장, 미국유학(1902~31.9.)	2. 인민구국회의 연합정부론
2. 항일구국期(1931.9.~37.7.)	III. 李公樸의 사상적 독자성
3. 항일전쟁期	—결론에 대신하여—
4. 항전승리 후	

머리말

「지금의 중국은 비극탄생의 시대, 그리고 또 群神재생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던 1946년 7월, 「영원불멸의 전형적인 인물, 당대에 비교할만한 인물이 없는……雙子星」¹⁾이 암살되었다. 먼저 李公樸, 이어서 3일 뒤의 追悼대회에서 그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선언한 聞一多이다. 이어서 「그대는 민주를 쟁취하려고 一黨專政에 반대하고, 평화를 쟁취하려고 중국인이 중국인을 죽이는 것에 반대했다. 그대를 죽인 자는 민주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중화민족의 생존을 살해했다」²⁾고, 李公樸을 추도했

* 釜山大學 日語日文學科 教授

1) 郭沫若序(李聞二烈士紀念委員會編《人民英烈—李公樸·聞一多先生遇刺紀實》, 1946년). 同書는 李·聞의 암살 직후에 추도문·전보, 항의성명 등을 모아서 편찬되었다.

2) 陶行知, 「追思李公樸先生」, 前掲書 199쪽.

던 陶行知도 일 주일 뒤에는 죽음으로 내몰렸다. 이들 李公樸·聞一多·陶行知 3명은 國共 양당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국 제3세력(=민주파)의 입장에서 항일구국을 위하여 제2차 국공합작의 성립 및 유지에 부신했다. 또 抗戰승리 후에는 각지 각계각층의 민중을 결집한 「평화민주연합전선」을 형성하여 국공내전을 종식시키려고 전력을 기울였다.

그 중에서도 李公樸은 30년대 초부터 민중과 지식인의 결합을 목표로 한 교육, 문화운동에 주력하여 36년 5월에 성립한 전국각계구국연합회(이하 「전구련」으로 약칭)의 주요간부로서, 소위 「抗日七君子」의 일원이었다. 그는 또 항일전쟁말기에 있어서 민주헌정운동의 발전, 심화에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제3세력의 대표적인 정치조직인 중국민주동맹의 改組, 성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陶行知·聞一多에 비해서 李公樸에 대한 평가가 현저하게 낮고 연구도 빈약한 現狀은 平野正씨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중국의 民主主義化가 불충분한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³⁾.

3) 平野正, 「キリスト者李公樸の思想的成長」(《中國の知識人と民主主義思想》, 1987년). 일본에 있어서의 李公樸의 선행연구는 同「—キリスト者の生と死—抗日戰爭開始後の李公樸の思想とその實踐」(《西南學院大學國際文化論集》第二卷 第1號, 1987년), 및 미완성 遺稿로서 菊池實晴, 「西南連合大學と中國民主同盟」(《中國第三勢力史論》, 1987년)이 있다. 그런데 菊池씨·平野씨 양자 간에는 중국 제3세력의 계보와 관련하여 인식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즉 「한쪽 견해는, 이 기원을 1927년의 국공분열후의 第三黨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의 견해는, 1935~6년의 항일구국운동에서 그 기원을 찾으려고 한다」고, 후자의 입장에 선 平野氏는 말한다. 그리고 「이 두 견해는 제3세력의 역사적 역할과 자리매김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가로 놓여 있다고 생각된다」고도 한다(「中國の《第三勢力》の系譜をどこに求めるか」, 《中國研究》 第99號, 1979년 1월, 23~24쪽). 양자의 인식의 차이는 菊池씨의 急死 등의 사정으로 인해 논쟁으로는 발전되지 않았다. 本稿에서 나는 孫文사상과의 관련을 추구하면서 미완성으로 끝나버린 菊池씨의 第三勢力史 연구를 발전시켜, 독자적으로 孫文 사후에 있어서의 孫文사상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李公樸을 연구했다. 특히 사상면에서는 李公樸 및 전구련의 「연합전선」론의 원류, 기축이 孫文사상이며, 운동면에서는 제3세력 형성의 원동력이 1931~2년(특히 1·28上海항전)이래의 항일구국운동인

그런데 平野씨는, 중국에서 李公樸에 대한 평가가 낮은 이유의 첫 번째로 그가 「크리스찬인 것」을 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異議가 없다. 그렇지만 낮은 평가의 두 번째 이유로 들었던 「성격의 복잡함」 및 세 번째 이유인 「폭넓은 활동」에 대하여 치밀하게 검토하자면, 오히려 반대의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李公樸의 일견 다양하고 복잡하게 보여지는 활동 및 성격을 관철하고 있는 基軸으로서 孫文사상의 강한 영향이 인정되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李公樸의 「폭넓은 활동」은 孫文의 「연합전선」⁴⁾론의 그

것을 실증하는데 노력했다. 금후 전구련의 「연합전선」론과 공산당의 「통일전선」론이 같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논해야 하며, 제3세력의 국공합작에 대한 독자성, 자주성을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 이 점에 대해서 平野씨는 「연합전선=통일전선」이라는 기본인식에 입각해서 전구련을 「지도한」 공산당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北京一二·九學生運動》, 1988년 등 참조). 한편 菊池씨는 「제3세력」이라는 호칭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공산당에 대한 독자성, 자주성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전개시켰다. 本稿에서는 李公樸의 「반일연합전선」 결성 계기가, 「중국공산당의 (《八·一선언》이 발표되기 3개월이나 앞서 제기되었다고 하는……선구적 의의)」(平野, 前掲 제1논문, 59쪽)에 착안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산당과 비교해서 「통일전선의 내용과 형태 등에 대한 불충분함」(전과 同)을 논하기보다도 차라리 「연합전선」론의 내용자체가 질적으로도 뛰어난 사상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중시하여 그 점을 명확히 하려고 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추억록에 가까운 方仲伯의 「李公樸在昆明」(《昆明師院學報》, 1980년 제3期)등을 포함해 李公樸의 사상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많지 않다. 식견으로는 불과 陶愚川의 《中國教育史比較研究》가 항일구국운동 및 화평민주운동에 있어서의 활동과 관련해서 李公樸의 교육사상을 간단하게 논하고 있을 정도이다.

- 4) 橫山宏章씨는 「孫中山의 연합전선이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군사세력과 혁명적인 정치세력과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중전의 해석과 같은) 국공합작의 좁은 틀 속으로 한정 지우려 하지 말고, 국공합작을 중핵으로 하면서도 좀 더 광범위한 연합전선으로서 파악」하도록 제기하고 있다. 또 橫山씨는 孫文의 연합전선이 「규모의 장대함, 내용의 복잡함」에 있어서 類例를 볼 수 없는 유니크한 것으로 「다가올 《연합의 시대》를 간파한 점」을 孫文의 선견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孫中山의 革命と 政治指導》, 1983년, 386~390쪽). 本稿는 이러한 시각을 염두에 두면서 孫文사후 연합전선론의 계승·발전으로서 李公樸, 구국회파의 사상적 독자성을 추구했다.

나름의 실천이며, 거기에서 적극적인 의의를 찾을 수만 있다면 李公樸을 재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本稿에서는 우선 量才圖書館·補習學校·重慶社會大學 등의 민중교육활동 및 《讀書生活》·《全民周刊》 편집과 北門出版社 등의 출판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구국운동의 전개에 공헌한 李公樸의 생애를 더듬고자 하며, 이어서 李公樸 자신이 주요간부의 일원이었던 전구련의 연합전선론 및 인민구국회의 연합정부론을 분석하여 그것의 독자성과 상호관련 및 李公樸과의 관련성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여겨지는 李公樸의 활동을 관철하고 있는 사상면의 독자성을 밝혀내어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대」를 준비하려고 했던 그의 선견지명을 평가하고자 한다.

I. 李公樸의 생애와 民主救國運動

1. 성장, 미국 유학(1902~1931.9.)

李公樸은 1902년 揚子江 하류의 부유한 지방도시에서 가난한 고용인의 아들로 태어나 13살 때부터 鎮江의 양품점에서 고용살이를 하면서 학문에 뜻을 두었다. 삼 년 반의 고용살이가 끝날 무렵에 일어난 5·4 운동의 와중에서 동료점원들과 「애국단」을 결성하여 일본물품을 밀매하는 가게의 실태를 폭로해 해고되었다. 이력저력 형의 원조로 중학에 진학한 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上海에 있는 滬江大學에 입학, 그 다음해인 25년에 5·30운동이 발발하자 上海학생연합회 노동자부의 책임자로서 勞學연대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어서 교장 劉湛恩의 소개로 국민당에 가입하여 廣東의 국민혁명군에 합류하여 북벌에 참가, 東路軍 정치부의 선전공작원으로서 27년 초에 上海로 개설했다. 이 때 「열강타도, 군벌배제」의 의기에 불타 「蔣총사령 만세」⁵⁾를 외친 李公樸은 孫文

5) 顧執中, 「李公樸及其死」, 《華商報》, 1946년 7월 19일. 李公樸의 출신내력

의 삼민주의에 기초한 국민혁명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4월 12일의 上海쿠데타에 의해 그의 신변에도 위협이 닥치자 軍籍을 떠나서 대학에서 크리스티교 청년운동에 복귀하고, 이듬해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유학의 길에 올랐다. 유학직전 북벌에서 알게 된 동지 張曼筠과 결혼함과 동시에 《生活週刊》(鄒韜奮 편집)의 특파원을 위탁 받아 신문사업과 연을 맺게 된다. 기항지인 일본에서는 신문사를 견학하고 濟南출병의 잘못을 논했으며, 오레곤주 포트랜드의 리드대학에서 정치학 등을 배웠다⁶⁾. 2년 간의 체류 중에도 일을 하면서 학문에 정진한 李公樸은 알래스카의 통조림 공장에서 민족차별을 통감하는 등, 29년 대공황의 영향을 직접 체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화물선에서 식기닦기를 해 가면서 제네바 평화회의 등 유럽 각지를 돌아다녔다. 이렇게 해서 30년 겨울에 上海에 돌아온 李公樸은 처와 鄒韜奮 등에게 환영을 받지만, 당시의 그가 얼마나 孫文의 유지를 자기의 사상적 원점으로 여기고 있었던가는 귀국길에서 쓴 다음 두 편의 문장에서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前途를 생각하건대, 어떠한 제국주의도 두렵지 않다.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체가 一盤散沙와 같이 되는 것이다. ……중국인의 운명은 모두가 중국인 자신의 수중에 있다. 우리들은 中山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선생이 누차 설파했던 「민족적 단결정신의 發揚」, 「민중喚起, 공동분투」를 잊어서는 안된다⁷⁾.

등 생애에 관해서는 沈鈞儒·王浩時, 「李公樸先生事略」(前掲書《人民英烈》에 수록, 이것을 보충, 정정하여 仲伯編, 《李公樸紀念文集》, 1983년에 재수록)의 兩書수록의 추도문·추억록, 宗志文, 「李公樸」, 《民國人物傳》 제2권, 1980년 및 平野, 菊池 前掲 논문 등 참조.

- 6) 李公樸, 「直渡太平洋」, 《生活周刊》 제3권 제50期, 1928년 10월 28일. 이하 유학시절의 정황은 同誌 제3~5권에 李公樸이 기고한 30여 통의 미국통신으로부터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그는 제네바에서의 평화촉진단체에 강한 인상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들이 각 국 인민의 자주적인 조직이면서도 정부에 건의해서 여론을 좌우하기에 으르는 현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 7) 李公樸, 「中山先生給誰氣死的?」, 《生活周刊》 제5권 제52期, 1930년 12월 7일.

현재의 당 및 대부분의 정부소속기관에는 「親愛精誠」 너 자의 遺訓이 걸려있다. 이것은 中山선생이 구국의 책무를 당원 각자에게 고무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들은 이 遺訓이 단순한 슬로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정신이 전국으로 보급될 것을 희망한다⁸⁾.

李公樸이 《生活週刊》에 쓴 미국통신에는 孫文사상, 특히 삼민주의에의 심취를 나타내는 문장이 그밖에도 더 있다. 예컨대 미국의 정치경제를 논한 다음, 국민정부는 향후 孫文이 말하고 있는 「節制자본과 평균地權」을 실행해야 하며, 삼민주의와 建國方略에 기초해 중국의 상공업을 발달시킨다면 구미 공업국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⁹⁾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 孫文은, 구미문명의 사실과 이론을 인용하면서 중국 수천 년 동안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현상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타국문화의 適否를 감별해서 그들과 우리의 장점을 조화시켜서 보다 뛰어난 문화, 보다 건전한 제도를 만들 것을 역설했다¹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李公樸의 문장에는 孫文에 대한 정열이 느껴진다. 귀국후의 그는 처와 함께 南京의 中山묘소에 참배하고, 다음 해 여름에는 국민당의 간부양성 훈련에도 참가했다고 한다¹¹⁾. 하지만 1931년 9월에 시작되는 일본의 침략이 그의 진로에 크다란 영향을 미쳐, 민주구국 운동에의 헌신이라고 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요인으로 되었다.

2. 항일구국期(1931.9.~1937.7.)

「만주사변」이후 중국민중은 항일구국운동을 전개하는데 그 중심이 된

8) 李公樸, 「親愛精誠」, 《生活週刊》 제5권 제51期, 1930년 11월 30일.

9) 李公樸, 「值得我們注意的顧慮」, 《生活週刊》제4권 제25期, 1929년 5월 19일.

10) 李公樸, 「食而不化」, 《生活週刊》 제4권 제35期, 1929년 6월 28일.

11) 高士其, 「回憶我的摯友李公樸」; 常任俠, 「永念公樸」, 둘 다 前掲書 《李公樸紀念文集》에 수록.

上海에서는 우선 대일 경제절교 운동이 개시되었다. 이것은 「(1905년 이후의) 보이코트의 창의·궁리·수단을 전부 인용하고 그기에 또 새로운 효과적 방법을 짜내어서, 그 규모와 조직은 미증유의 것이었다」¹²⁾. 최대의 특징은 민족자본가를 중심으로 시작한 항일구국회가 확대, 강화되는 과정에서 민중운동화 되어, 일본물품의 몰수에서 의용군에 의한 무력저항으로 발전해 나간 점이다. 이 과정에서 鄒韜奮 등 《生活週刊》의 동인 그룹이 항일과 민주의 확고한 사상을 형성해 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¹³⁾. 李公樸과 杜重遠·胡愈之 등은 이 그룹의 일원으로서, 또 沈體蘭·章乃器 등과 결성했던 「時社」라는 크리스티교 관련단체의 일원으로서, 동북의용군 지원의 모금과 항일구국 선전 등의 활동에 분주했다¹⁴⁾.

이때 《生活週刊》社は 「혹시 정부가 민중을 一致對外로 확실하게 영도할 수 있다면, 우리들 국민은 틀림없이 일치해서 옹호한다」, 그리고 「정식군대의 전선에서의 抗敵 이외에도 민중자신이 적당한 자위조직을 가져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군민일체의 대일항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¹⁵⁾. 그들 및 항일구국회의 발전과정은 36년 이후의 전구련의 선구로서 주목되지만, 鄒韜奮 등에 의한 《生活日報》의 창간도 항일구국운동 발전의 일환이었다¹⁶⁾. 하지만 국민당 정부는 《生活日報》를 허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十九路軍의 上海항전에 대해서도 원군을 파견하지 않고 安內攘外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위로 인해 다음해 32

12) 菊池貴晴, 《中國民族運動の基本構造—對外ボイコットの研究》, 1966년, 361~362쪽.

13) 石島紀之, 「抗日民族統一戰線と知識人—《滿州事變》時期の鄒韜奮と《生活週刊》をめぐって—」, 《歴史評論》 제256호, 1971년 11월, 및 제259호, 1972년 2월.

14) 上海사회과학원역사연구회편, 《“九·一八”~“一·二八”上海軍民抗日運動資料》, 1986년, 84~85쪽. 沈體蘭, 「從沈陽事變到松滬抗戰的抗日民主運動」, 《抗日風雲錄》上, 1985년, 80~81쪽.

15) 「《生活週刊》幾個緊急建議」, 前同 《資料》, 303~305쪽.

16) 鄒韜奮, 「正在積極籌(주)備中的生活日報」, 《生活週刊》 제7권 제13期, 1932년 4월 2일. 이 기사에서 李公樸은 교우가 넓고 「외교」에 재능이 있어 杜重遠을 보좌하는 경리부의 부주임으로서 소개되어 있다.

년 봄, 반년에 걸친 제1차 항일구국운동은 퇴조를 맞이하고, 上海에서의 운동은 宋慶齡·蔡元培들에 의해 同年말에 결성된 중국민권 보장동맹으로 계승되었다.

이 해에 李公樸은 항일구국회 간부인 史量才가 경영하는 신문 《申報》에서 「독서문답란」을 담당하면서, 在美중에 관심을 보였던 도서관의 필요성을 역설한 《申報》부속 유통도서관의 개설을 실현시켰다. 다음해 33년 同도서관은 열람실을 설치해서 대출을 개시, 讀者좌담회나 학술강연회를 기획함과 동시에 業餘補習學校·婦女補習學校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민중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기반을 다졌다. 이 業餘補習學校는 中山문화교육관이나 초, 중등학교의 교실을 빌어서 줄줄이 개교하여, 1년쯤이 지나서는 6분교 24교실, 교직원 수 42명, 생도 수 약 2000명에 달하게 되었다. 또 당시로서는 극히 드문 수업 연한 2년제인 婦女補習學校에는 가사과와 함께 직업과가 설치되어 李公樸 부부는 직업여성의 교육에 힘썼다¹⁷⁾. 한편 申報도서관에서는 독서지도를 비롯한 「民衆喚起」의 방법을 보다 충실히 해, 머지 않아 그것은 잡지 《讀書生活》창간의 포석으로 되었다.

이러한 활동과 병행해서 李公樸은 언론·출판의 자유 등 민주인권의 확립을 호소하는 중국 민권보장회에 참가하여 35년 5월에 丁玲 등의 정치범 석방을 요구했다¹⁸⁾. 나아가 사상, 연구의 자유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蔡元培·李公樸·章乃器·陶行知 등 백여 명이 마르크스 서거 50주년 기념집회를 열고, 上海의 YMCA도 과학적 사회주의에 관한 강연회를 열었다고 한다¹⁹⁾. 이 무렵의 李公樸은 史量才·鄒韜奮을 비롯해 이들 몇몇 지식인들과의 교류를 심화시켜 갔다. 더구나 민권보장동맹은 총간사인 楊杏佛이 암살(동년 6월)되어 활동정지에 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蔡元培로 대표되는 구미의 민주인권사상이 孫文의 삼민주의와 결합하여 이론적 지주를 형성하였고²⁰⁾, 항일구국운동의 전개를 목표로 하는

17) 《申報流通圖書館第二工作報告》, 1935년, 138, 172쪽 등 참조.

18) 중국사회과학원근대사연구소중화민국사연구실편 《中國民權保障同盟》, 1979년, 83~84쪽.

19) 朱澤甫, 《陶行知年譜》, 1985년, 230~231쪽.

지식인의 연합체가 형성된 의의는 크다. 그것은 3년 후의 전구련은 말할 것도 없고 40년대의 중국민주동맹에도 영향을 주어, 국공내전기의 평화민주운동으로 이어져 가는 시발점이 되었다. 李公樸은 이 지식인 주체의 연합을 민중과의 결합에 의해 확대, 강화시킨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이후의 활동을 전개해 간다.

그 중대한 계기가 34년 11월에 일어난 史量才의 암살이었다. 李公樸은 그의 추도식을 主祭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연차보고서에 추도 기념의 특집을 편집, 곧이어 量才도서관·量才補習學校로 개칭해서 조의를 표했다. 그리고 史量才 암살 3일전에 창간된 《讀書生活》의 편집을 담당해 항일구국을 고무하는 날카로운 論陣을 폈다. 우선 上海항전 3주년을 맞아 그것이 위대한 중국민족투쟁의 예술적 절작이며,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는 중국민족해방의 힘과 자신을 發揚했다고 높이 평가했다²¹⁾. 이어서 10주년을 맞이한 「5·30운동은 중국의 노동대중이 <자연히 있다>에서 <스스로 실천한다>로 도달한 기념비이며 노동대중이 주체가 되어서 사회각층—자본가, 상인, 학생 등—과 연합해서 형성한 빛나는 민족해방운동」이었다고 意義를 부여했다. 그리고 「일개 노동사건에서 곧바로 罷市·罷課가 연합한 전선이 형성되었다. ……이 광대한 연합전선이 중국민족의 빛나는 역량을 발휘하게 해 제국주의자를 전을 시킨」²²⁾ 점에 주목했다.

여기서 李公樸이 말하는 연합전선이 「北上宣言」에서 孫文의 제창에 의해 국민회의로 결집한 세력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코민테른류의 통일전선론인 8·1선언에 앞선 지 두 달 남짓, 그 선구적 의의뿐만 아니라 일 년 후에 결성된 전구련이 의거한 연합전선론의 독자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무렵, 《生活週刊》의 항일자세를 이어받은 《新生》이 정

20) 閔斗基, 「蔡元培思想構造의 理解」, 《高柄翊先生回甲紀念史學論叢》, 1984년 12월[拙譯, 《中國研究月報》, 제499호, 1989년 9월 게재예정] 참조.

21) 李公樸, 「紀念《一二八》三週年」, 《讀書生活》 제1권 제6期, 1935년 1월 25일.

22) 李公樸, 「紀念五·三〇」, 《讀書生活》, 제2권 제2期, 1935년 5월 25일.

간에 처해지고 편집장 杜重遠은 체포되었다. 한편 일본의 화북침략은 착착 진행되어, 연말에는 괴뢰정권인 「자치정부」가 준비되기에 이르렀다. 바로 이때 北平에서 12·9운동이 일어나자, 上海에서는 지식인 다수가 문화계구국회를 결성, 다음 해 36년 1월의 上海 항전기념일에는 上海 각계 구국연합회가 성립되어 李公樸은 두 쪽 다 중심멤버의 일원이 되었다. 이 제2차 항일구국운동은 우여곡절 끝에 행동의 공개·대중화를 제기해서 전구련을 조직하지만, 李公樸이 경영하는 量才補習學校는 유력한 거점이었다. 그것도 있고 해서 李公樸은 전구련의 상임위원으로 뽑히고, 鄒韜奮·沈體蘭·章乃器와 함께 蔣介石과 회견하기도 하고, 上海 시장과 회식하는 등 주요간부의 일원으로 꼽혔다²³⁾.

같은 해 여름부터 겨울에 걸쳐 綏遠지방에서 전투의 기색이 고조되자, 전구련의 영향력은 급속하게 확대된다. 이 무렵 李公樸은 「정권의 극도의 민주화, 소위 진정한 전민정치」가 필요하며, 「각 계급이 협조해서 공동으로 항전하는 것을 정치의 최고원칙」으로 하여,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정치대립의 해소를 강하게 주장했다²⁴⁾. 10월 하순 전구련은 魯迅의 장례식을 거행하고, 11월 12일 정부당국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孫文 탄생 기념집회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당일의 총지휘는 李公樸으로 참가자 전원이 孫文의 遺影에 경례하고 총리의 遺言을 낭독한 뒤, 李公樸이 대표해서 발언했다. 「連蘇容共은 현재 우리 중화민족이 해방·승리를 갈망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걸어야만 할 길이다. 中山선생의 안광의 위대함, 견해의 정확함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²⁵⁾. 이 집회에서는 「국내의 각당 각파는 연합해서 一致對外!」 「중화민족 해방만세!」와 함께 「국민당은 孫中山선생의 민족혁명정신을 회복해라!」 「孫中山선생의 혁명정신은 죽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또 기관지에서는 孫文이 제창한 국민회의가 국내의 민생문제해결과 열강의 침략타파를 목적으로 하는 연합전선이었던 것을 강조하여, 전구련은 그것의 실현 형태임을 주장하고 있다²⁶⁾.

23) 章乃器, 「我和救國會」, 周天度編, 《救國會》, 1981년, 438~439, 447쪽.

24) 李公樸, 「政治的國防動員」, 艾思奇主編, 《國防總動員》, 1936년, 2~3쪽.

25) 《救亡情報》 제26기, 1936년 11월 15일.

하지만, 이 집회에서 행한 在華紡 스트라이크의 지원결의를 직접적인 구실로 전구련 간부 7명은 체포되었다(항일7군자 사건). 이듬해의 재판에서 피고의 한사람인 李公樸은 「보통선거에 의한 국민대회의 소집」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孫文의 「北上선언」 및 遺訓을 완전히 실현하도록 국민정부에 희망한다²⁷⁾고 진술했다. 이와 같이 전구련, 특히 李公樸은 孫文의 삼민주의를 사상적 기축으로 하여, 連蘇·容共·노동부조라고 하는 삼대정책을 항일구국운동의 와중에서 최대한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3. 항일전쟁期

A. 전기(1937.7.~1940.)

盧溝橋사건 발발 후 37년 7월말에 李公樸 등은 석방되어 먼저 上海에 귀환하여 동지들의 환영을 받고, 이어서 南京정부의 초청에 응하여 蔣介石 등 정부요인을 예우 방문했다. 8월 13일 上海에서의 항전에 의해 전면전쟁으로 돌입하자, 李公樸은 「구제난민계획대강」을 정리해 단순한 구제대상으로서의 난민이 아니라, 일을 확보해서 생산향상을 기도하는 등, 국방증강에 기여코자 했다²⁸⁾. 이어서 그는 山西·山東省 등 華北지방 戰場을 시찰하고 10월에 上海로 돌아와서 戰地공작에 있어서의 교훈에 입각하여 「戰區민중학교 조직대강」을 제안했다. 또 국공합작에 있어서의 민중운동을 중시하여 「孫中山선생의 혁명주의와 혁명정책을 실현」해야 할 인민의 자유권과 생활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²⁹⁾.

26) 《救亡情報》, 中山先生誕辰紀念號外, 1936년 11월 12일.

27) 前掲書 《救國會》, 98~299쪽.

28) 李公樸, 「救濟難民工作大綱」, 《抗戰三日刊》 제2호, 1937년 8월 23일. 이 李公樸의 주장이 공업합작사의 「생산적 농민구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등에 대해서는, 菊池一隆, 「中國工業合作運動と救國會派」, 《歷史研究》(大阪教育大學歷史學研究室) 제25호, 1988년 참조.

29) 李公樸, 「全國動員告國人書(下)一統一戰線下の民衆運動」, 《抗戰三日刊》 제19호, 1937년 10월 19일. 또 「戰區民衆學校組織大綱」(同誌 제20호, 1937년 10월 23일), 「上海戰區的教育問題」(同誌 제22호, 1937년 10월 29일).

南京이 함락된 그 해 말 임시수도 武漢의 YMCA에 寄宿하고 있었던 李公樸은 전구련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는 沈鈞儒와 《全民周刊》을 간행한다. 그 사명은 「孫中山선생의 삼민주의와 혁명적 정책을 철저하게 실현하는 것」이고, 「북벌시대의 국민혁명군의 정신을 회복」해서 정부와 군대만에 의한 항전에서 전민족적인 전면항전으로 나아갈 것을 호소했다³⁰).

이 무렵 또 항전교육 좌담회 등에 참가해서 기성의 전시교육의 재검토를 주장하고³¹), 정치와 군사 양면의 훈련을 결합시킨 민중교육에 헌신할 지식청년, 군인의 결집을 도모하여 山西 민족혁명대학의 부학장으로 부임했다. 이 대학은 省長 閻錫山이 교장을 겸임, 국공양당을 포함한 모범적인 연합전선체로서 조직된 회생구국동맹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족혁명운동의 간부양성기관이었다. 山西 민족운동의 실태에 대하여 李公樸은, 위에서 밑으로 조직된 민중운동으로 정상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민족의 통일적인 연합전선이라고 하는 최고원칙」에 부합하는 민중조직을 실현시켜야만 하는 그는 노력했다³²). 同대학의 창립취지는 민중을 喚起, 조직, 훈련, 무장하고, 행정을 혁신하여 민족혁명전쟁의 최종승리를 보장하는 것³³)으로, 단순한 병사가 아닌 새로운 사회의 건설자로서 민중을 교육하고 조직할 수 있는 인간의 양성을 목표로 세웠다. 李公樸에 의하면 민족혁명대학은 이러한 점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항일교육기관이며,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약소민족, 신민지 인민을 위한 「대학」이었다³⁴). 학생들은 경제, 생활면에서의 곤란에도 굴하지 않고 정규수업 외에도 각종 과외활동을 통하여 자발적인 집단연구를 전개했다. 또 교직원들과의 관

30) 《全民》동인, 「爲爭取全面全民族戰爭勝利而奮鬥—《全民周刊》的使命」, 《全民周刊》 제1권 제1期, 1937년 12월 11일(前揭書《救國會》, 350~351쪽에서 중복 인용).

31) 생활교육사편, 《戰時教育論集》, 1938년, 320~321쪽.

32) 李公樸, 《民衆動員論》, 1938년, 79~80쪽(「我所認識聯盟」).

33) 叔羊, 「山西的民族革命大學」, 《抗戰三日刊》제47호, 1938년 2월 19일. 필자는 沈鈞儒의 아들이다.

34) 李公樸, 「關於民族革命大學」, 《全民周刊》제1권 제9호, 1938년 2월 5일.

계도 친밀해서, 「생활촉진회」라는 互助조직을 공동으로 준비하는 등 「연합전선의 민주정신을 실행한 것이 중요하다」고 높이 평가되었다³⁵⁾. 한편 閻錫山은 학생과의 문답에서 「중국은 일당專政인 까닭에 당권이 모든 것에 있어 우위이다」고 하여, 군사면에서 통일군사기관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³⁶⁾. 이 두 사람의 견해차가 표면화되기 시작할 무렵, 일본군의 山西 침공이 본격화되고, 臨汾의 本校는 불과 두 달만에 이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李公樸도 西安 부근으로 이전하여 강연을 하면서 同대학에 있어서의 실천을 총괄했다³⁷⁾.

머지않아 李公樸은 武漢으로 돌아와, 각 공장에서 華北정세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서 노동자의 자주조직을 결성하는데 노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일당 專政하에서의 國論통일을 고집하는 정부의 경계를 초래하고, 그는 재차 체포되었다³⁸⁾. 약 1개월 간의 구속에서 석방된 직후인 7월 7일은 盧溝橋사건 일주년으로, 국민회의를 실현시킬 것으로 기대되던 국민참정회가 개막되었다. 같은 날 沈鈞儒·李公樸의 《全民週刊》과 鄒韜奮의 《抗戰》은 합체하여 《全民抗戰》으로 개칭하고, 항전건국노선의 관철, 선전을 자신들의 임무로 삼았다³⁹⁾.

38년 10월의 武漢 함락 후, 李公樸 부부는 延安을 방문하여 「항전건국교육단」을 결성해서 陝甘寧邊區 및 晉察冀邊區를 시찰하고 2년 가깝

35) 顧文華, 「民族革命大學檢討」, 《抗戰三日刊》 제61호, 1938년 4월 9일. 또 前掲書 叔羊의 보고 등을 참조.

36) 方寒松 외편, 《閻伯川先生救國言論選集》, 1939년, 65쪽. 犧牲救國同盟會 등 山西 민족운동에 관해서는 內田知行, 「犧牲救國同盟會と山西新軍」, 《人民八路軍·新四軍史》, 1989년 참조.

37) 李公樸, 「抗戰教育的理論與實踐」(1938년)은 그 총괄이다.

38) 李公樸은 이 직전에 「建立中韓民族反日連合戰線」(《朝鮮民族戰線》제4기, 1938년 5월 25일)을 써, 일본의 침략에 대한 중국, 조선 양 민족의 공동투쟁을 호소하고 있다. 同誌 제4기는 중국과 조선민족 연합전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다.

39) 《全民抗戰》은 항전기간 중에 가장 환영받은 정기간행물로서 41년2월에 157로서 정간되기까지 每期 약 30만 부가 발행되었지만, 「참간사」에서는 항일건국이라는 임무 속에서 전국적인 민족의식의 고양·단결강화와 인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에 내놓는 두 가지를 스스로의 당면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게 체류하였다. 39년 겨울에 河北省 〔(부)平縣에서 만난 陸誥에 의하면, 일군의 청년들을 통솔한 李公樸은 「민주가 있음으로 해서 인민의 역량이 발동되어 적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스스로 술선해서 자기비판을 하며 민주적인 토론을 명심했기 때문에 그들의 진보는 매우 빨랐다고 한다⁴⁰⁾. 하여튼 李公樸은 이렇게 견문했던 공산당지배구의 실태를 《華北敵後—晉察冀》에다 정리했다. 그 서문에는 同지구가 모범적인 항일민주, 항일민족 통일전선구이며, 「신중국의 축소판 모형」이라고 칭찬하고 있다. 특히 각 당 각파각층의 항일인사가 일심단결하여 구성된 민주적 연합정권인 縣정부의 실태에 그는 주목했다. 거기서는 모든 항일인민의 이익과 생명, 재산의 안전이 보장되고 항일언론, 출판, 신앙 등의 자유가 있으며, 군대·정부·민중이 각자의 독자성을 존중하는 민주정치가 행해지고 있다고 그는 평가했다. 그리고 이 연합정권하의 최고학부인 항일건국학원을 중심으로 각 縣 各 區의 민중교육관을 거점으로 하는 사회교육의 네트워크화가 지향되어, 혁명적이고 대중적인 신민주주의적 문화가 창조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것의 경제적 기반으로서 전개중인 협동조합사업은 민중을 조직한다고 하는 정치적 작용도 크며, 항전경제의 강력한 네트워크 형성으로서도 장려되어, 항일건국학원에서도 처음으로 합작계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⁴¹⁾. 李公樸의 교육, 경제 양면에 걸친 네트워크로의 관심은 일시적인 민중동원이 아니라 민중을 조직해서 정권으로의 참여를 촉진하는 새로운 전망과 긴밀하게 관계하고 있었다. 그 정치적 조건으로서 국공합작의 유지가 필요불가결하며, 양당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독자적인 역할을 새롭게 자각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邊區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당지배구에 있어서의 연합전선강화를 스스로의 임무로서 수행한 것이다.

40) 陸誥, 「向公樸先生學習」, 《文萃》, 제1년 50期, 1946년 10월 3일.

41) 李公樸, 《華北敵後—晉察冀》, 1979년, 서문 및 147, 149, 167~169쪽(원문은 1940년).

B. 후기(1941.~1945.8.)

邊區시찰을 마친 李公樸은 戰時수도인 重慶에 도착한 얼마 후인 41년 1월에 皖南사건이 발발해서 국공합작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한다. 이 영향으로 《全民抗戰》은 정간되고 鄒韜奮은 홍콩으로 탈출해서 난을 면했다. 後事를 위탁받은 사람들은 비밀리에 中國民主政團同盟의 결성을 준비하지만, 국공합작의 유지에 부심한 민주파의 활동은 곤란에 빠졌다.

이러한 중에서 군벌 龍雲이 지배하는 雲南省都인 昆明에서는 민주파에 대한 압박이 비교적 느슨하였다. 여기는 미얀마·베트남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미군기지가 있으며, 케르타와의 사이에서는 매일 열 몇 편의 항공로가 있으며, 연안 地區로부터 다수의 자동차도 유입되고 있었다고 한다⁴²⁾. 또 北京·清華·南開의 三大學 합동인 西南연합대학이 이전해 온 38년 무렵부터는 지식인도 줄줄이 결집해, 戰前의 배를 능가하는 30만 명 정도의 유력 도시로 변모했다.

昆明에 처갓집이 있었던 李公樸은 41년 가을 무렵부터 이주하여 살았다. 머지않아 同鄉의 鎮江 출신으로 대학시대의 동료인 王有興이 총간사를 하고 있던 YMCA의 원조를 얻어 기숙생활을 하면서 聞一多 등의 강연회를 했다. 곧 국민당으로부터 압력이 걸려오자, YMCA와 YWCA의 간사회는 독서회를 조직하여 좌담회 형식으로 李公樸과 청년들의 교류에 협력했다. 이 YMCA의 이사장이 군벌 龍雲의 부인으로, 또 李公樸의 장인 張篠樓이 서화가로서 명성이 자자했던 것도 있어 龍雲과의 교류도 생기고, 그들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었다⁴³⁾. 나아가 李公樸은 楚圖南·孫起孟·周新民 등의 지식인들과 함께 「九老會」라는 친목회를 만들었지만, 멤버의 대부분이 나중에 민주동맹 雲南省지부의 창립에 참가했다. 이러한 사람들의 협력하에서 李公樸은 42년 말에 대학관계자가 많이 살고 있는 북문街에 서점을 개설해서 활동의 거점으로 삼았다. 그

42) 極秘, 《情報》 제15호, 大東亞省, 1944년 1월, 27쪽.

43) 張文實, 《雲南內幕》, 1949년, 42~43쪽에는 李公樸과 龍雲 교류의 일단이 보인다.

의 北門書屋에는 항일구국, 민주헌정을 갈구하는 지식인이나 청년이 학문영역과 사상의 차이를 넘어서 많이 모여들어 새로운 연합전선적인 살롱의 분위기였다고 한다⁴⁴⁾.

한편, 龍雲은 西南연합대학 등의 문화인·교육자에 대해서 숙사 및 식량을 제공하며, 다른 국민당지배구보다 훨씬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형성에 노력했다. 그 배경으로 먼저 영·미 등 연합국과 중국의 「大後方」을 연결하는 창구라고 하는 성격 이외에도, 재정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대립—田賦의 중앙 이관, 미국의 현물징수, 관영사업의 확대, 물가통제 등에서의 갈등—이었다. 당시의 국민당지배구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 등 국민생활에 걸쳐 관리, 통제가 심하고 일당독재 체제하에서 관리의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⁴⁵⁾. 이것에 대해서 국민각층의 불만과 반발이 분출하여, 43년 가을 카이로 회담과의 관련도 있고 해서 헌정실시의 움직임이 정부의 안팎에서 표면화되었다. 이윽고 일본군 최후의 대공세인 대륙打通작전이 전개되자, 여기에 패한 국민당군의 약체와 관리의 부패에 저항하여 제2차 민주헌정운동이 급속도로 고양되었다. 그것의 표출이 昆明에서는 44년 5월 西南연합대학에 3000여 명이 결집한 5·4기념좌담회였다.

좌담회 석상의 聞一多是, 「5·4의 임무는 아직 완수하지 못했다…… 우리들은 과학을 배우고 민주를 얻어서 孔家店과 봉건세력을 타도하지 않으면 안된다」⁴⁶⁾라고 하면서 스스로 운동의 선두에 설 것을 선언했다. 李公樸은 동지로서 聞一多의 자기변혁에 깊이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羅隆基·潘光旦 등 소위 국가주의자들과도 토론을 거듭하여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서로 협력했다. 5월말 李公樸 등의 昆明학술계 헌정연구회는 민주정치실현을 위한 18항목의 구체적인 요구를 열거한 선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우선 「참다운 민주국가에서는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주권은 인민의 수중에 있다」고 明言하고, 생명·신체의 보장, 언론·출판의 자유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가장 중시했다. 또

44) 前掲書 《李公樸紀念文集》 수록의 王有興, 楊春州의 추억을 참조.

45) 菊池, 前掲書, 25~27, 304쪽 참조.

46) 史靖, 「抗戰時期昆明學生運動散記」, 《紅旗飄飄》, 1957년, 116쪽.

각당 각파의 승인, 민영공업·공업협동조합의 추진, 25減租 등을 들어 孫文의 유훈을 인용하면서 지방의 균형을 강조했다⁴⁷⁾. 이 선언은 민중의 구체적인 요구를 수용해서 孫文의 삼민주의에 입각하여 각당 각파, 무당무파 민중의 대연합을 추구할 방침을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 시점에 있어서의 민주화요구로서는 상당히 격조가 높으며 내용적으로도 뛰어나, 제2차 민주헌정운동의 전개뿐만 아니라 항전승리후의 평화민주운동에 있어서도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같은 무렵의 重慶에서 발표된 민주政團동맹 중앙의 주장은 추상적인 정책요구에 머물러, 국공양당의 중간파인 小政團의 연합에 의한 정계의 재편을 꾀하는 의도가 엿보인다⁴⁸⁾. 이 체질은 곧바로 민중의 요구를 배경으로 한 내부변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것이 44년 가을 중국민주동맹(이하 民盟이라고 약칭)으로의 改組이지만, 추진자는 羅隆基·李公樸 등의 昆明 그룹이었다. 民盟은 이 改組에서, 정단가맹에서 개인가맹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무당무파의 개개인이 다수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각지에 지부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민맹은 단순한 국공양당의 중간적 조정자라는 역할을 초월하여 독립자주의 지식인·민중연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동시에 결의된 정치주장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 헌정실시의 신속한 준비를 요구하여, 昆明의 「선언」에 가까운 내용이었다⁴⁹⁾. 다만 人事면에서는 타협이 도모 되어, 근본적인 기구개혁에는 미치지 못했다.

민맹성립 후 昆明으로 돌아온 李公樸 등은 10월 쌍십절의 辛亥革命 기념대회, 12월의 호국군 기념집회를 성공시켰다. 그들을 중심으로 5~6천 명이 결집한 두 집회에서는 학생, 노동자시민 이외에 지방군에서 정부의 간부에 이르는 광범위한 연합을 지향하여, 일당독재의 폐지와 연합정부의 수립이 주장되었다⁵⁰⁾. 李公樸은 이 해 昆明에서의 민주운동

47) 「昆明學術界發表宣言要求立即實行民主」, 《解放日報》 1944년 6월 26일.

48) 「對目前時局的看法與主張」(1944년 5월), 중국민주동맹총부편, 《民主同盟文獻》, 1946년.

49) 「對抗戰最後段階的政治主張」(1944년 10월 10일), 同前書.

50) 前掲 史靖 논문, 118~120쪽 및 前掲 方仲伯 논문, 4쪽.

의 고양을 배경으로 北門출판사를 설립하여, 重慶·上海 등 각지의 출판계와도 제휴하여 昆明지식인의 저작활동을 지원했다. 나아가 12·9운동의 기념일을 기해서 발간된 《민주주간》은, 전후해서 결성된 민맹 雲南省지부의 기관지로서 멤버의 의견이나 논의의 일부가 게재되었다.

이상과 같은 축적을 바탕으로 45년 5월, 서남연합대학에서는 5·4기념회가 일주일간에 걸쳐 열려, 집회나 데모 이외에도 문화, 스포츠를 포함한 다양한 행사로 많을 때는 2만여 명이 참가했다고 한다⁵¹⁾.

4. 항전승리 후

1945년 8월, 드디어 중국민중은 항일전쟁에 승리했다. 그 기쁨 속에서 李公樸은 「내전에 반대하여 평화를 쟁취하고, 독재에 반대하여 민주를 쟁취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당면한 가장 긴급하고 절박한 임무이다.⁵²⁾라고 내전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토로했다. 이를 전후해서 重慶에서는 국공회담이 열려 雙十협정으로 일단 정전이 결정되지만, 완전한 실사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민맹은, 임시대표대회를 열어 새로운 강령, 활동방침, 조직체제 등을 결의했다. 이 무렵 李公樸·聞一多·羅隆基 등의 雲南省지부(약 2백 명)의 주장이 대회를 주도하여, 그 기에 대항하는 청년당의 左舜生 등 四川省지부(약 2천 명)의 주장을 압도하여 和平민주운동의 전개를 준비했다. 李公樸은 이 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회에 뽑혀 민중운동위원회(위원장 陶行知)의 부위원장으로서 重慶에 머물렀다⁵³⁾.

11월 19일, 重慶에서는 민맹을 중심으로 교육계·상공계·부녀계 등의 대표적 인사 5백여 명이 결집하여 「각계 내전반대 연합대회」가 열렸

51) 「三十四年在連大」, 馮友蘭등, 《抗戰中的西南連合大學》(1946년). 및 前掲史婧 논문, 121~122쪽.

52) 前掲 方仲伯 논문, 4쪽.

53) 《中國各小黨派現況》, 1946년, 10~16쪽. 다만, 중국민주동맹 중앙문사자료위원회편, 《中國民主同盟歷史文獻》, 1983년, 95쪽에 의하면, 민주교육운동위원회라고 있다.

다. 대회석상에서 章乃器·羅隆基 등이 孫文정신과 삼민주주의의 의의를 강조하여, 항일 七君子사건 직전의 孫文탄생 기념집회와 같은 느낌을 보였다. 제기된 방침도 전국각지에서 각계 反內戰연합회를 조직하여 민중의 힘으로 내전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전구련의 재현을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⁵⁴⁾.

11월 25일 昆明에서도 같은 취지의 反內戰大會가 열렸지만, 당시 현지에 막 진주하고 있던 중앙군의 방해로 반자 이것에 항의하여 시내 31교의 학생 3만 여명이 다음날부터 스트라이크로 돌입했다. 5일 후 동원된 군대는 대학에 난입하여 徒手空拳의 학생들을 습격하여 4명이 죽고 다수의 부상자를 냈다. 이 「12·1慘案」의 소식은 곧 전국으로 퍼져 각지에서 추도대회나 항의집회가 개최되어 각종 추도문이나 성명문이 기고되었다. 李公樸은 「반인민적인 사람, 무력에 의해 인민을 압박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민들의 손에 의해 타도된다」⁵⁵⁾고 지적하고, 또 「정치회의의 시금석」이라는 제목의 小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정부의 昆明사건에 대한 처리는, 민주정치를 실행하여 內戰을 정지시킬 성의가 정부에 있는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부 孫中山선생은 국민회의에서 학련대표가 국사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며, 정부가 이를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우리들은 ① 책임자의 처벌, ② 언론·출판 등 인민의 자유, ③ 사태의 진상규명 요구, ④ 전국각지에 각계 反內戰연합회를 조직하여 昆明학생의 민주운동을 원조한다⁵⁶⁾.

이 시기에는 李公樸·陶行知·沈鈞儒 등을 중앙상임위원(7명)으로 하는 인민국교회(강령등은 후술) 이외에도 黃炎培·章乃器 등의 민주건국회, 馬絨倫 등의 민주촉진회가 연달아 결성되어, 「12·1慘案」 후에 화

54) 力揚, 「記陪都各界反對內戰連合大學」, 《周報》제13期, 1945년 12월 1일.

55) 前掲 方仲伯 논문, 6쪽(原載 「從世界看<一二·一>慘案」《知識青年》제1권 5期).

56) 李公樸, 「政治會議的試金石」, 于再선생기념위원회편, 《一二·一民主運動紀念集》, 1946년, 60쪽. 同書에는 각지각계의 다양한 사람들로 부터 보내진 추도문이나 詩 등 다수가 게재되어 있다.

평민주운동은 단숨에 고양되었다. 이러한 국내의 동향에다 트루만 성명과 마셜 파견, 모스크바 삼상회담 등 국민정부에 대한 압력이 고조되어, 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회의로 약칭)의 개최가 결정되었다⁵⁷⁾.

46년 1월 국공양당 외에 민맹 9명, 청년당 5명, 무당무파 9명, 도합 38명이 대표로 선출된 정협회의에서는 5개 항목의 의제를 중심으로 정치해결을 설정하여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 회의에 앞서 李公樸·陶行知·章乃器 등을 중심으로 한 重慶문화계의 약 500명은 각당파의 정협회의대표를 초대하여 축하회를 열었다. 주석단대표인 陶行知 외 다수로부터 내전반대, 화평민주의 강한 요망이 제기되는 속에서 李公樸은 신문계가 인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⁵⁸⁾. 이 모임을 계기로 인민구국회·민주건국회와 함께 정협회의 각계협진회가 결성되었다. 이 회를 준비, 주최한 사람은 李公樸·章乃器 등이지만, 그들은 정협회의대표의 보고를 받아서 질의응답 또는 의견표명을 하는 것으로, 민중의 의견을 가능한 한 정협회의에 반영시키려고 했다. 同會는 정협회의 기간중에 8차례의 회의를 열었지만, 최초의 중국공업합작회의에서는 회장이 비좁아, 그 후로는 滄白堂기념관에서 열렸다. 특히 참가자가 늘어난 제6회 이후는 李公樸·章乃器가 주석이 되어 정부에 의한 민주와 인권의 보장, 특무활동의 폐지 등을 둘러싼 강한 요구가 제기되고⁵⁹⁾, 곧 陶行知·沈鈞儒 등에 의하여 인민권리보장위원회의 준비회가 개최되었다⁶⁰⁾. 정협회의가 화평건국강령을 채택하고 폐막하자, 그 성공

57) 이 一二·一운동에 대하여 聞一多是 다음과 같이 말한다. 「一二·一은 중화민국 건국이래 가장 암묵의 날이다. 그러나 이 날 죽은 네 명의 열사의 피는 중화민족의 한줄기 활로를 열었다.」(이후 昆明은 전국민주운동의 심장으로서 되고……전국의 反內戰운동이 한층 격렬하게 전개되고……내전 정지를 재촉하여 협상단결의 신국면을 열었다.) (聞一多「《一二·一》運動始末記」, 前掲《抗戰中的西南連合大學》 36쪽).

58) 학습지식사편, 《政治協商會議文彙》, 1946년, 70~74쪽.

59) 商聞實, 「滄白堂事件和較場口事件」, 《文史資料選輯》, 제66집, 1979년 9월, 34~43쪽. 李公樸은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여 集思公益, 孫文이 말하는 바 「大同」을 구할 목적으로 회의를 조직, 운영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생각. 그의 토론, 집회의 조직능력에 대해서는 전구런 무렵부터 평가되고 있었다고 한다.

을 축하하는 대집회가 준비되어, 李公樸은 전체를 지휘하는 임무를 위탁받는다.

하지만 당일 C·C계의 특무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당반동파는 집회분쇄의 폭동을 일으키고, 집중공격을 받은 李公樸의 다수가 부상을 입는다. 이 較場口사건이 상징하는 것처럼, 정협회의에서의 결의를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국민당내의 반동파는, 미·소대립의 징조를 보고 미군의 일부와 호응하면서 내전의 길을 걸게 된다. 한편 李公樸이 병원에서 기록한 문장에는 민주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엿보인다⁶¹⁾. 이미 이 때 李公樸은 평화혁명에 의한 민주중국의 실현을 바라며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그렇고 정협회의가 열리고 있는 도중인 1월 15일, 陶行知·李公樸 등은 重慶사회대학을 창립했다⁶²⁾. 이 대학에는 陶行知 교장 외 鄧初民·章乃器·翦伯贊 등 당대의 일류 지식인이 결집하여, 이사장 馮玉祥 등 국공 양당원을 포함한 화평민주파의 연합체라는 성격이 강했다. 李公樸은 부교장으로서 사실상의 책임자를 겸하고 있어 교직원과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입장이었다. 대학에서의 그의 강의는 중국, 서양의 교육사상사를 주축으로, 각국의 현행교육제도를 횡축으로 하는 소위 「十字教育」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민주적인 교육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의 민주화가 불가결함을 역설했다고 한다. 이 사회대학은 陶行知 등의 생활교육운동을 중심으로 한 量才補習學校 이래, 李公樸의 민중교육실천이 합류하여 화평민주의 새로운 중국을 건설할 새로운 지식인의 양성을 목표로 했다. 그 때문에 주제적, 실천적인 학습에 기초한 인격교육, 조직교양을 중시하고, 자치회나 과외활동 등으로 개인과 집단의 상호발전을 모색하였다. 4월말에 同대학의 제1기 졸업식을 마치자, 李公樸은 학생들이 출판을 예정했던

60) 前掲書 《陶行知年譜》, 507쪽.

61) 李公樸, 「起床以後」, 上海雜誌連誼會編, 《抗議陪都兇案—爲陪都血案爭取人權連合特刊》, 1946년, 5쪽.

62) 拙稿, 「國共內戰期の社會大學運動」, 《中國研究月報》 제491호, 1989년 1월 참조.

책자 《사회대학》에 협력하고, 5월 중순에 昆明으로 돌아와 사회대학의 설립 및 민주운동의 전개에 분주했던 것을 엿볼 수 있다⁶³⁾.

이 무렵 전국적으로 국공내전의 위기가 고조되자, 일시 停戰이 실현되었던 6월에는 각지에서 민중주체의 내전반대집회가 열렸다. 昆明에서도 6월말 李公樸·聞一多 등의 민맹 雲南省지부가 당·정·군의 책임자 및 문화계·교육계·신문계의 사람들을 초청하여 「화평진국, 민주단결」의 비폭력주의가 자신들의 취지임을 밝혔다. 특히 李公樸은, 우리들은 결단코 화평협상 방식으로서의 문제해결을 주장한다. 전국 인민이 모든 방식, 방법을 이용하여 다같이 급박한 목전의 내전의 의기를 막자⁶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7월 내전이 확대되어 겁에 따라 李公樸의 신변에도 위협이 닥친다. 그래도 그는 꺾이지 않고 화평민주운동의 선두에서 7월 11일 43세로 흉탄에 쓰러졌다. 임종시 민주를 위하여 죽는 것을 숙원으로 여기고 있었던 李公樸은 아침이 가까운 것을 믿고 침착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李公樸의 추도대회에서 李公樸의 처는 말문이 막히면서도 단언했다. 「公樸의 사업, 민주 사업은 암살따위 불가능하다. 저……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그를 따르고 같이 투쟁한다. 민주적 인민의 사업은 반드시 실현될 것임에 틀림없다!». 또 친구 聞一多是 「公樸과 같이, 문을 나서면 다시 돌아올 준비를 안했다. 민주를 죽지 않는다!」고 단정해, 유지를 이어받을 것을 맹세했다⁶⁵⁾. 이어서 기자회견이 행해지고, 聞一多是 또다시 李公樸의 암살에 항의하여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직후 聞一多 父子도 암살되었기에 전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분노와 비탄이 昆明에 모아졌다.

그 중에서도 李公樸·聞一多의 암살에 충격을 받은 하버드·콜롬비아

63) 「李公樸日記摘抄」, 育才학교사회대학교사연구회편, 《育才社大》, 제7期, 1985년 11월.

64) 吳茁, 「在昆明民盟招待會上的李公樸聞一多兩先生」, 《華商報》, 1946년 7월 20일.

65) 白衣, 「雲大“至公堂”舉行李公樸先生追悼大會」, 前掲書, 《李公樸紀念文集》, 89~91쪽.

대학 등의 교수 60여 명의 항의는, 미국 정부가 민주적인 중국 정부의 건립을 지지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⁶⁶⁾. 또 홍콩 《華商報》는, 「지금 중국인민의 화평민주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은 「死中求生」운동이며, 스스로 삶과 민족의 삶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어떠한 高壓·공포의 수단을 사용할지언정 이러한 求生의 유지를 꺾을 수는 없다」⁶⁷⁾고 언명했다. 머지않아 민맹의 진상조사단이 李公樸·聞一多 암살의 범인은 「雲南경비사령부」라는 정부직속의 특무기관이다⁶⁸⁾고 단정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여론이 배경에 있었기 때문이다.

II. 救國會派의 「聯合」論과 李公樸

1. 전구련의 연합전선론

1935년 5월 시점에서 李公樸이 孫文제창의 국민회의와 관련하여 「연합전선」이라고 한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여기서는 그 일 년 뒤에 성립되어 그들도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전구련의 연합전선론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논할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면서도 호칭도 구국전선·求亡전선·인민구국전선·민족전선 등 극히 다양하여 명확한 공통인식에는 미치지 못했던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다. 그 중에서 비교적 다수의 합의를 얻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전구련 결성시에 공표된 「전구련성립대회선언」과 「항일구국초보정치강령」이고, 보다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36년 7월 陶行知·沈鈞儒 등의 「단결禦侮성명」(약칭)이었다(이하 각각 선언, 강령, 성명으로 약기함).

「선언」은 「전국에 통일적인 연합구국전선을 만든다고 하는 요구에 보

66) 前掲書 《人民英烈》, 379~380쪽.

67) 사실, 「李公樸先生被暗殺了」, 《華商報》, 1946년 7월 14일.

68) 梁漱溟, 周新民, 《李公樸被害真相》, 1946년 10월, 29~31쪽.

답하여, 전국 각지각계 구국단체의 대표들이 上海에서 전국각계구국연합회 성립대회를 가지고, 통일적인 인민구국전선을 수립했다」고 하여 스스로를 통일적인 구국자연합체라고 그 성격을 규정지었다. 그리고 「각당각파가 곧바로 정식대표를 파견」하여 「공동抗敵요강을 제정해서 통일적인 항적정권을 수립」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 「강령」은 일본의 침략이 민족전선의 통일을 촉진하고 있다는 기본인식에 따라 각당각파 합작의 기본조건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 등 민주제도의 확립을 들었다. 그 위에 각당 각파 합작의 항일회의, 보통선거방식에 의한 국민救亡회의가 필요하며, 신속하게 통일정권을 건립하자고 호소했다⁶⁹⁾. 어느 것이든 스스로의 발안에 의한 새로운 정권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국민당에서 보면 그 자체가 정권전복을 꾀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성명」은 스스로를 救亡연합전선이라고 규정하여 蔣介石 선생, 지방군당국, 국민당, 공산당 그리고 일반대중의 희망으로서 「연합항일」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각당 각파가 공동으로 분투한다면 공동의 승리를 얻을 수 있고, 일치를 보지 못하는 점이 있더라도 승리 도중에서 내부통일이 형성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 문장에는 인민·통일이라는 표현을 피하여 민족전선·연합전선이라는 호칭이 눈에 띄고, 救亡의 위기감과 함께 공명정대한 항일구국운동의 전개가 강조되어 있다⁷⁰⁾.

이 「성명」에 대하여 중국공산당 모택동은 자신이 주장하는 민족통일전선의 구체화가 전구련이라고 보고, 거의 전면적으로 찬동을 표하며 그 강령에 서명하여 가입하겠다고 신청했다.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들의 통일전선의 슬로건은 「각 정당 각 계급이 항일구국의 깃발아래서 단결하는」 것이며, 국민당·정부내의 적지 않은 영수, 당원, 관리는 抗日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과의 연합을 원한다⁷¹⁾고 말했다. 여기에 蔣介石이 포함되는지 아닌지는 미묘하지만, 반년 뒤의 서간에서는 국공합

69) 《救亡情報》 제6期, 1936년 6월 14일.

70) 沈鈞儒, 陶行知 등, 「團結禦侮幾個基本條件與最低要求」, 《生活日報》, 1936년 7월 31일.

71) 「毛澤東先生致章陶鄒沈四先生信—關於團結禦侮幾個基本條件與最低要求的檢討」, 《救國時報》 제64期, 1936년 10월 30일.

작으로 향한 협의개시를 국민당에 제기했다.

이것에 대하여 국민당은 목살의 태도로 일관했지만, 그것은 전구련이 공산당이 말하는 통일전선, 인민전선류라고 보았기 때문이다⁷²⁾. 그것의 표출이 전구련 간부 7명의 체포이며, 다음해의 재판의 기소장에서 단적으로 지적되어 있다. 즉, 어느 청년피고의 공술을 인용해서 「인민전선·인민구국전선·구국전선·민족전선·연합전선 등은 모두가 같은 것이다」고 단정하여, 내전 하에서의 스페인 인민전선을 예로 들어서 죄상의 하나로 꼽고 있다⁷³⁾. 또 인민전선과 구국전선의 차이를 피고 한사람 한사람에게 추궁하여, 공산당의 주장과의 일치점을 실증하려고 했다. 李公樸 등은 인민전선이 대내(계급대립, 좌우대립)임에 대해서, 구국전선은 대외(抗日救亡)이라고 응답해⁷⁴⁾, 「선언」이나 「강령」보다도 「성명」에 가까운 내용으로 관철하여 「구국무죄」를 쟁취했다.

그런데 전구련의 주장은 대개 그들로 대표되지만, 「연합전선」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명확한 意志일치가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양한 의견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沈鈞儒·鄒韜奮·陶行知 세 사람의 연합전선론이다.

먼저 沈鈞儒는 孫文의 삼민주의에 있어서의 連蘇連共정책을 연합전선론의 기축으로 받아들여, 자기의 救亡연합전선은 孫文의 삼대 정책의 구체화라고 주장했다⁷⁵⁾. 이 생각은 전구련의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으나, 沈鈞儒의 경우는 공산당의 통일전선론을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여 동일시하는 경향으로, 공산당에 대한 강한 친근감을 엿볼 수 있다. 鄒韜奮에게도 이러한 친근감은 있지만, 자기의 연합전선과 공산당의 통

72) 당시의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간주하여 항일인민전선이라고 호칭하고 있었는데, 沈·陶 등의 「聲明」 이후에는 평가가 나누어져 中西功·西里龍夫《中國共產黨と民族統一戰線》 등의 기술도 포함하여 가장 예리한 것이 尾崎秀實이라고 할 수 있다(拙稿, 「救國會派と第二次國共合作」, 前掲 《歷史研究》 제24호, 1987년, 126, 128쪽 참조).

73) 「江蘇高等法院檢察官起訴書」, 《天津大公報》, 1937년 4월 8일.

74) 「沈鈞儒等案第一次審理記錄」, 前掲書, 《救國會》, 270~308쪽.

75) 記者「孫中山主義與救亡陣線」, 《生活星期刊》 제1권 제24호, 1936년 11월 15일.

일전선과의 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연합은 과정이고, 통일은 목적이다. 반드시 먼저 연합하여 통일해야만 하고, 연합하기 때문에 통일할 수 있다. ……대개의 실력파는 고립되어서 힘이 약해지면 연합하기를 바라며 통일을 바라지 않고, 일단 권력을 잡으면 통일을 바라지 연합을 바라지는 않는다. 「연합과 통일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진정한 통일은 연합함으로써 착수할 수 있다. 다만 연합에는 반드시 대외적인 통일목표가 있고, 민족위기가 심중한 오늘의 통일적 목표는 항적구국에 있다」⁷⁶⁾.

이에 대해서 陶行知는 통일전선 혹은 통일이라는 말을 피하여 의도적으로 연합전선 혹은 연합이라는 개념을 역설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합전선 內에서는 「원한이나 정치적 의견이 다른 집단이라도 서로 너그럽게……이러한 너그러움이야말로 민족생존의 救生圈이다」고 한다. 또 「연합전선은 숲마을의 사람들에게 호소하여 강도를 몰아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마을의 사람들을 한방에 살게 하고 결혼시키는 것 등은 불가능하다」⁷⁷⁾고, 각자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속에서의 연합을 중시했다. 동시에 그는 대중의 새로운 도덕관으로서 「자각—연합—해방」이 극히 중요하다고 지적해, 「문화망」이라는 소논문에서도 자각한 인간의 연합—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⁷⁸⁾.

이상 세 사람의 미묘한 차이 속에서 李公樸의 연합전선론은 적어도 항일구국기에서 항일전쟁전기에 걸쳐서는 沈鈞儒의 의견을 기초로 하면서 鄒韜奮의 단계론에 가까운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구상의 기반에 있었던 국공합작이 皖南사변에 의해 부득불 후퇴하게 되자, 李公樸은 나름대로 총괄하여 昆明의 민주운동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형성된 昆明지식인의 연합전선이 중국민주동맹으로의 改組를 추진하지만, 그것은 국공양당으로부터 자립하여 집단형성을 추구

76) 社論 「統一與連合」, 《生活日報》, 1936년 7월 27일.

77) 陶行知, 「我對於連合戰線的認識」, 《生活教育》 제3권 제11期, 1936년 8월 1일.

78) 「新大學」, 화중사범학원교육과학연구소주편, 《陶行知全集》 제3권, 1985년, 72쪽. 또 「文化網」, 同書 제2권, 1985년, 830~831쪽.

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個의 확립」을 지향한다고 하는 새로운 질의 맹아적 실천이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李公樸에 있어서 이러한 사상과 실천을 결합시킨 화평민주운동 및 사회대학운동이야말로 자기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전개한 장이었다. 또 이것과 병행해서 그를 중심에 포함한 인민구국회의 연합정부론이 제기되었다.

2. 인민구국회의 연합정부론

1946년 1월 중국민중의 기대를 짊어준 정협회의가 개최되어, 冒頭에서 蔣介石 주석은 인민의 자유, 각 정당의 합법적인 지위, 보통선거, 정치범의 석방이라고 하는 소위 「四項諾言」을 발표하여 대환영을 받는다⁷⁹⁾. 이것은 중국민권보장동맹 결성 이후 李公樸 등이 일관해서 요구해 오던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정부당국이 인정한 것을 의미하며, 중국의 정치는 화평건국 단계에 돌입한 듯이 보였다. 네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민의 자유권에 대해서는 새롭게 결의되어, 「화평건국강령」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강령은 「중국의 Magna Charta라고 불러, 李公樸·陶行知의 동지 鄧初民도 「민주대헌장」 또는 중국혁명사상 최초의 「인권선언」이라고 높이 평가했다⁸⁰⁾.

이 정협회의에서 논의된 정부기구의 형태는 연합정부이지만, 그것은 인민의 자유권에 기초한 각 당내 각파의 합법화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관계를 애매한 표현이지만 최초로 제기한 것이 전구련의 「강령」이다. 즉, 언론·출판의 자유 등 민주제도의 확립(a)을 기본조건으로 하고, 각 당각파 합작의 항일회의(b), 보통선거방식의 국민救亡회의(c)를 감안한 통일적인 구국정권(d)이라는 구상이다⁸¹⁾. 국민당이 이 구상을 받아들여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a)의 일부를 최초로 인정한 것이 38년 봄의 항전건국강령이고, (b)는 거기서 규정된 국민참정회였

79) 역사문헌사편, 《政協文獻》, 1946년, 10쪽.

80) 鄧初民, 「論共同綱領的重要性」, 前掲書, 《救國會》, 405쪽. 張綱伯, 「政協決議是中國的大憲章」, 《文萃》제2권 제18期, 1947년 2월 6일 등 참조.

81) 《救亡情報》, 제6期, 1936년 6월 14일.

다⁸²⁾. 나아가 항전후의 정협회의에서는 (c)의 국민대회와 (d)의 연합정부
부가 각각 주요 과제의 하나로 되었다.

전구련의 「강령」을 한발 짝 전진시킨 것이 39년 9월 제1차 민주헌정
운동의 출발점으로 되었던 제4회 국민참정회에서의 章伯鈞(제3당·張君
勳(국가사회당)·左舜生(청년당)들의 3당 합동 제안이다. 거기서는 우선
「黨治의 즉시종결, 헌정실시」가 명문화되고, 「거국일치의 戰時행정원의
즉시성립」이 건의되고 있다⁸³⁾.

이어서 제2차 민주헌정운동이 고양된 44년 가을에 改組, 성립된 민주
동맹은 「각당파회의를 소집하여 戰時 거국일치의 정부를 탄생시킨다」고
명시하고, 언론·출판 등의 인민의 자유권, 각 당 각 파의 합법적 지위,
보통선거의 실시를 주장했다⁸⁴⁾. 바로 직전 공산당의 연합정부안이 국민
참정회에 제출되었기에 양자는 보조를 맞추어서 정부에의 요구를 강화
시키는데, 민주파의 연합정부론은 전구련의 연합전선론의 발전형태로
볼 수 있겠다⁸⁵⁾.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이, 민주동맹으로의 改組에 李公樸 등의 昆明그
룹이 수행한 역할은 크다. 그들은 이듬해의 5·4기념주간에 즈음하여
학생, 시민 2만 여명이 데모를 조직했는데, 중점 슬로건은 「연합정부를
조직하여 민주정치를 실현하라」⁸⁶⁾였다.

항전승리후인 45년 10월, 민맹은 임시대표회의를 열어서 새로운 강
령, 정치보고, 선언 등을 결의하지만, 정부기관에 대한 언급은 충분하지
않았다. 즉, 민맹은 「시종 거국일치의 민주연합정부가 당면의 국가화평,
통일, 단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며, 「현재의 黨治의 범통과도 절대
로 충돌하지 아니함」으로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희망한다⁸⁷⁾라는 정
도에 머물고 있다. 이 내용이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82) 「中國國民黨抗戰建國綱領」, 《國民參政會紀實》, 상권, 1985년, 35~37쪽.

83) 張君勳 등, 「改革政治以應付非常局面案」, 同前書, 588쪽.

84) 「對抗戰最後段階的政治主張」, 前掲書 《中國民主同盟文獻》, 15쪽.

85) 중국공산당 연합정부론과의 비교, 대조는 항후의 과제로 삼고 싶다.

86) 前掲 「三十四年五四在連大」 및 史靖 논문 121~122쪽.

87) 「中國民主同盟臨時全國代表大會宣言」, 前掲書, 《中國民主同盟歷史文獻》,
90쪽.

의 민맹 내에는 국공 양당과 견줄만 한 제3의 정당을 지향하는 움직임도 있고, 몇몇 종류의 주장을 잘 섞어서 정리했을 뿐 명확한 방침제기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같은 해 겨울 인민구국회의 강령에는 李公樸·陶行知 등 민주구국파의 기본노선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대단히 주목할 만한 문헌이다.

冒頭의 총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국 현 단계의 역사가 중국인민에게 課하고 있는 혁명적 임무는 외래 식민제국의 민족압박에 반대하고, 국내 봉건주의와 파쇼 잔재세력의 압박에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혁명의 성질은 자산계급성의 민주주의 혁명이고, 사회주의 혁명은 아니다. 다만 민주주의 혁명단계에 멈추지 않고, 민주주의 혁명을 거쳐서 사회주의로 나아간다. 민주주의 혁명의 목표는 전국 절대다수를 기초로 하는 연합전선적·민주동맹적인 민주국가 제도이고, 독립, 자유, 평등의 인민공화국의 건립이다. 그 정부, 즉 민주연합정부는, 각당 각파 및 무당 무파의 각종 정치역량을 포함하는 연합정부이고,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는 연합정부이다」⁸⁸⁾.

다음으로 정치면은, 첫째로 「화평, 통일, 단결, 민주」에 기초한 민주개혁을 실시하여 「독립, 자유, 평등, 행복의 新중국을 건립한다」. 둘째로 정협회의를 통하여 일당專政을 종결시켜 임시적 민주연합정부 성립을 기도하고, 보통선거에 의한 국민대회에서의 헌법제정을 거쳐 정식으로 연합정부를 성립시킨다. 셋째로 언론, 출판, 사상 등 일체의 자유를 인민에게 보장하고, 각 민주당파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정치범을 석방한다. 그 이외에도 남녀, 신앙 등에 의한 차별금지, 民選의 연합정부에 의한 지방자치, 정부의 간소화, 인민의 무력으로서의 군대의 국가化 등이 명기되었다.

이어서 경제면은, 자본주의 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국가경영, 개인경영, 협동조합경영을 혼합시킨 경제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耕者有其田」 「독점방지」를 꾀하는 구체적인 방책으로서 협동조합농장을

88) 「中國人民救國會政治綱領」, 前掲書 《救國會》, 384쪽.

비롯한 협동조합사업을 장려하고, 생산력을 높여서 근대화를 촉진하는 방침을 채용하고 있다. 이하, 민족공업의 발전, 독립자유 경영 하에서의 외자이용, 합리적인 노자관계에 기초한 생활개선, 조세부담의 경감 등이 나열되어 있다.

문화·교육면은, 내용의 풍부함으로 인해 인민구국회의 독자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으며, 담당은 陶行知와 李公樸이었다. 거기서는 봉건적, 파쇼적인 문화·교육을 제거하여 민주적, 민족적, 과학적인 새로운 문화·교육을 창조하기 위하여, 외래문화와 중국 고래의 문화를 비판적으로 섭취하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각급 각종의 補習學校 및 사회대학을 건립하고 야학, 통신, 신문, 방송 등을 운용하여 남녀 失學 청년, 노동대중에게 好學의 습관을 양성하고, 계통적인 지식의 학습에 의한 생애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또 교육의 보급에 맞추어서 私人興學의 장려, 私人의 출판사업이나 도서관의 장려, 직업여성을 위한 유치원 설치, 학술·연구의 자유 등을 나열하여, 연합정부하의 문화·교육정책으로 하려고 했다.

이들 외에도 사회면에서는, 노동법의 제정 등 민중의 생활개선, 복리사업을 중시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私營의 사회시설의 창립, 운영을 장려하고 있다. 외교면에서는, 국제적 평등과 민족독립의 기초 위에서 각국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수립하며, 특히 미·소와 연합하여 전후세계의 안전과 영구평화의 확립에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⁸⁹⁾.

이 인민구국회의성립대회에서, 李公樸이 다음과 같은 정치보고를 행하고 있다⁹⁰⁾.

현재 주목해야 할 첫째는, 연합정부를 주된 형태로 하는 새로운 유럽의 형성이다. 이것은 인민대중을 주도세력으로 하는 민주연합으로, 전후의 영·프에 있어서의 자산계급 각 정당의 연합내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중국에 있어서의 연합정부의 골자는 (1) 각당 각파 및 무당 무파의 인사에 의한 공동구성, (2) 국민당이 제1당, (3) 蔣介石이 정부주석이

89) 同前, 385~390쪽.

90) 同前, 397~400쪽.

라는 세 항목이고, 동시에 공동강령의 채택이 불가결하다.

이상이 인민구국회의 강령 및 정치보고인데, 세계정세의 추이와 국민당 蔣介石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중국혁명의 현 단계를 응시하여 제기된, 「먼저 민주주의혁명, 그리고 사회개혁」이라는 것이 기본노선이었다. 민주주의 혁명이란 각당 각파, 무당 무파층을 폭 넓게 결집한 연합정부의 건립이고, 이 연합정부 하에서 민중교육 및 협동조합의 추진을 축으로 한 사회개혁을 달성하려고 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여튼 李公樸 자신의 활동도 이 기본노선과 표리일체의 관계였다.

Ⅲ. 李公樸의 사상적 독자성

—결론에 대신하여—

李公樸에 대한 평가가 낮고, 또 연구가 빈약한 현상은 그의 사상이 파악하기 어렵거나 또는 역으로 단순한 크리스찬으로 간주되는 경향에서 기인한 것은 아닐까? 그의 저작 혹은 발언으로부터 어느 정도 종합된 사상을 적출해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구태여 말하자면, 「《민족적 내셔널리즘》의 실현을 지향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싸운 사람중의 한사람」이라던가⁹¹⁾, 孫文사상을 계승하여 민주구국운동의 형성 발전에 진력했다는 등으로 평가될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평가를 근거로 해서 李公樸의 독자성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여기서는 李公樸의 독자성을 추구함에 있어 그의 저작 이상으로, 그의 생애에 걸친 활동 및 그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구국회파의 주장에 비추어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그가 시종 일관했던 「지식인과 민중의 연합」을 지향한 행동적인 이상주의자였던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의 독자성으로는, 성장내력 즉 사상형성

91) 平野, 前掲 제2논문, 139쪽.

의 과정이 중국 고래의 「사대부적인 지식인」의 그것과는 지극히 다르다는 점이다. 그는 말하자면 빈민출신의 새로운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타입의 지식인이며, 「민중으로부터 태어나, 민중으로 돌아간다」⁹²⁾ 타입의 지식인이었다. 그는 魯迅·陶行知 등과 같은 「몰락한」 지주·사대부계급 출신의 지식인이 아니었다. 이 점이 陶行知가 重慶사회대학의 부교장으로서, 실무상의 책임자로서 李公樸을 추천한 최대의 이유였다고 생각된다. 또 소년기의 노동생활을 포함하여 성장과정에서 길러진 李公樸의 「사교」의 재능은 鄒韜奮·沈鈞儒 등 전구련 지도자들도 한결같이 인정하는 부분이며, 그의 열성은 금방 사람을 매료시켰다고 한다⁹³⁾. 그런 까닭에 전구련이 지향한 광범위한 연합전선의 형성에 기여한 그의 역할은 헤아릴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이 점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그의 생애는 각계각층에 걸친 다양한 사람들을 민주구국운동으로 결집시키는 「합작=연합」의 사상으로 일관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국공합작을 포함하여 이 「연합」의 사상을 단순히 제창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천에 진력한 점이 李公樸의 제2의 독자성이다. 예를 들면, 항일전쟁에 있어서의 최대의 과제가 국공합작을 기본으로 하는 항전건국노선의 관철에 있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지방군벌의 동향도 또한 중요한 과제였다. 제2차 국공합작 성립 직후인 항전초기, 李公樸이 관계한 山西省 이외에, 章乃器를 재정청 장관에 앉힌 李宗仁의 安徽省, 杜重遠을 학원장으로 맞이한 盛世才의 新疆省 등에서 전구련의 간부가 초빙되었다⁹⁴⁾. 그들은 모두 국공합작을 중심으로 하는 각 당파 연합체제라는 조건을 살려서 항전건국의 인재양성에 힘써, 그 나름의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皖南사변을 전후해서 국공대립이 격화되자, 그들 지역에서의 활동은 어렵게 되었고, 대신해서 「문화城」이라는 李濟深 등의 廣西省 桂林과 「민주의 보루」인 龍雲의 雲南省

92) 陶行知, 「育才學校創辦旨趣」, 《陶行知全集》, 제2권, 1985년, 379쪽.

93) 齋藤秋男, 《陶行知生活教育理論の形成》, 1983년, 49쪽. 鄒·沈에 대해서는 註(16), (40)의 史料와 《李公樸紀念文集》 등의 추억록을 참조.

94) 張乃器에 대해서는 前掲書 《第二次國共合作在安徽》(安徽文史資料 제25집), 1986년. 또 杜重遠에 대해서는 菊池, 前掲書 제4장 「杜重遠의 民族民主運動」을 참조.

昆明에서 간신히 그들의 활동이 유지되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항일전쟁기의 李公樸은 이 山西省·雲南省 뿐만 아니고 陝甘寧邊區·晉察冀邊區에도 체재했으며, 나아가 武漢·重慶의 임시수도에서의 생활도 경험했다. 그 중에서도 山西省에서의 체험은 《抗戰教育的論理與實踐》 및 《華北敵後—晉察冀》에 정리되어 있는데, 양쪽 다 각 당파 각 계층에 의하여 형성된 연합정권을 평가하고 그런 상황 하에서의 문화·교육 정책을 논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이와 같이 지방군벌 및 공산당을 포함한 기성의 군사·정치세력과 「전민족적 단결정신의 발양」을 목표로 가장 구체적으로 활동한 사람이 李公樸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李公樸은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 「지식인과 민중의 연합」을 지향했다⁹⁵⁾. 이 연합을 포함하는 중국 제3세력이란, 계급구성면에서 보면 「중간을 점하는 민족자본가·소시민·지식분자·中農이상의 농민들의 방대한 민중」이며, 「孫文이 가장 중시했던 것은 바로 이들 계층이었다고 생각된다」⁹⁶⁾.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李公樸이 이러한 계급적 시점에서 「연합」의 대상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일관해서 교육·문화운동에 종사해, 다양한 생각의 공존과 연합을 지향하여 일당독재로 기울어지기 쉬운 국공 양당을 체크할 수 있는 「지식인과 민중의 연합」을 형성하는데 노력했다. 이것을 李公樸의 제3의 독자성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구체적으로는, 정협회의 전후의 정협회의 협진회를 제외한 화평민주운동 및 사회대학운동에 있어서의 활동이지

95) 항전말기인 44년경의 제2차 민주헌정운동에서 항전승리 후의 국공내전 돌입에 이르기까지 약 2년 간에 제3세력 지도층 내에는 대별해서 3, 4개의 조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하나는 국공양당간의 조정역을 하려고 했던 중간 소당파계의 지도자다(그들 중 정협회의를 전후하여 청년당 등은 국민당에 접근했다가 이탈했다). 둘째로 국공양당에 속하지 않는 각 당파, 무당파 지식인을 「제3의 당」에 결집시켜, 정당간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張瀾, 羅隆基 등 무당파계 지도자다. 셋째로 「지식인과 민중의 연합」을 지향한 각지 각계각층에 걸쳐 화평민주연합전선의 형성에 가장 의욕적이었던 李公樸, 陶行知 등 민주구국파의 지도자다.

96) 菊池, 前掲書 제1장, 10쪽.

만, 여기서는 중경사회대학에 결집했던 혹은 협력했으리라 생각되는 지식인에 대하여 일별해 두고자 한다. 첫째, 陶行知를 비롯한 育才학교·생활교육社의 同人·同學들로, 교육을 중심으로 한 사회변혁을 중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둘째로 昆明에서의 동지였던 聞一多·羅隆基 등의 민주적 국가주의자, 셋째로 鄧初民·王崑崙 등의 삼민주의동지연합회 등 孫文사상에 강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하에서도 같지만, 넷째로 항일구국운동 이래의 章乃器, 昆明九老會 이래의 孫起孟, 그리고 직업교육에 통달한 黃炎培 등의 민족자본가(그 단체인 민주건국회)가 포함된다. 다섯째 胡風, 曹靖華 등 魯迅에 가까웠던 사람들, 여섯째 章漢夫·張友漁 등의 공산당원도 사회대학에 결집해 있었다. 그리고 장년에 걸쳐 협력을 받고 있었던 沈體蘭·王有興·吳耀宗 등 민족적 크리스찬도 머지않아 참여했으리라 추측된다. 이상과 같이 광범위한 사람들과의 「연합」을 추구하여 실천했던 것에 李公樸의 독자성이 있지만, 46년 단계에서의 한계로서 역시 도시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즉 농민에 대한 활동이 없었던 것이 결정적인 약점인데, 그런 까닭에 그도 공산당이나 향촌건설파인 梁漱溟 등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孫起孟이 「내일의 학교」⁹⁷⁾로서 제기한 학교협동조합의 구상을 포함하여 사회대학운동이라는 민중교육의 네트워크화에도 힘써, 공업합작운동 등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는 등 그들과의 접점도 많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李公樸에 있어 무엇보다도 특필할만한 독자성은 스스로의 비폭력성을 가지고 폭력행사자의 자멸을 재촉한 「비합리적인 합리주의」 정신이다⁹⁸⁾. 동시대의 많은 중국 지식인 혹은 정치지도자 중에서, 자신이 암살되는 것 자체가 중국에 「민주」를 초래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97) 孫起孟, 「《明日的學校》設計」, 《民主》 제23期, 1946년 3월 23일.

98) 上原專祿은 1955년 반돈회의 개최에 기고하여, 「병기의 사용은 인간적 양심에 따라서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합리주의를 초월한 비합리적인 합리주의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합리주의, 이러한 아시아의 생각이야말로 국제정치의 막다름, 합리주의 문명이라는 것의 막다름을 타개하고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역설하고 있다(「アジアは一つか」, 《世界史における現代のアジア》, 1961년 중보개정판, 78-79쪽).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는 「암살」이라는 수단이 만능인 이 시대, 이 중국사회의 한계를 자각하고 있었고, 비폭력이 폭력에 이기는 유일한 길임을 여기에서 찾아, 스스로 나서서 죽음을 받아들였다⁹⁹⁾. 그런 의미로서는 동시대의 인도의 간디 암살과 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李公樸의 선견성은, 다가올 「민주인권과 평화공존의 시대」를 읽어내어 비폭력으로 관철하고, 침착하게 죽음을 맞이한 점에 있다. 1946년 7월 국공내전 돌입 전후, 단신으로 전차와 대치하는 것과 같았던 그의 활동은, 「死中求生」· 죽음으로서 살려고 했던 「비합리적인 합리주의」의 실천자인 李公樸의 진수를 체현한 것 바로 그것이였다. 이러한 평가가 결코 그의 대한 과대평가라고 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¹⁰⁰⁾.

99) 前掲, 李公樸 「起床以後」의 부인, 동지들의 추억록 등 참조.

100) 중국제3세력의 연구에서는 「喚起民衆」 및 「爭取民主, 連合起來」를 지향한 사상적, 운동적 측면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既述한 바와 같이 그들의 사상적인 「계보」를 고찰할 경우에는 孫文의 연합전선론과의 관련 유무를 논하는 것은 불가결하다. 우선 本稿에서는 주로 양자의 공통점을 받아들여서 관련이 있다고 했지만, 차이점으로서 李·陶뿐만 아니고 梁漱溟·黃炎培 등이 특히 민중교육운동을 전개한 점에 주목해서 향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시장화 과정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개혁과 중앙의 역할

—珠江三角洲 지역을 중심으로—

정 해 용*

<目次>

I. 서론	IV. 지방정부 개혁에 대한 중앙의 관료적 개입
II. 시장화 과정에서 중국 지방정부 개혁의 과제	V. 珠江三角洲 지역내 지방정부 개혁의 향후 과제
III. 珠江三角洲 지역내 지방정부의 개혁성과와 한계	VI. 결론

I. 서론

동서 냉전체제를 유지해 온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세계가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는 동안, 각국 정부들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즉 기존의 관료주의적 행정이 중앙집권적이고 수직적인 통제에 의존함으로써 혁신보다는 현실안주를 선호하였고, 급격한 시장의 변화와 날로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자의 요구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이를 타개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당면한 주요 개혁과제였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정부권한의 분권화와 책임의 이양, 정부조직의 다운사이징(downsizing), 정부규제의 완화, 정부활동

* 신라대학교 중국학과 조교수

의 민영화(privatization), 고객지향적 서비스의 확대 등에 관한 개혁이 세계를 풍미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단순히 정부조직의 개편, 행정상의 낭비와 부정의 철폐, 정부의 다운사이징과 민영화 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¹⁾ 대표적인 행정개혁 이론가인 David Osborne 등(1992; 1997)은 이러한 변화를 관료체제가 기업가적 체제로 전환됨으로써 기업가적 공공조직이 탄생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기업가란 생산성이 낮은 영역의 경제적 자원을 생산성이 높고 더 많은 이윤을 내는 영역으로 바꾸어 주는, 즉 생산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따라서 기업가적 공공조직이란 바로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자원을 활용하는 공공조직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변화로도 흔히 기업가적 정부의 등장이 꼽히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이처럼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체제의 시장화와 중앙권한의 지방위임에서 기인한다. 개혁개방과 더불어 중앙당국은 과거 계획경제 시기에 자신이 획일적으로 행사하던 많은 경제적 권한을 지방으로 위임하는 분권화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광범위한 자율성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자신의 특수성에 맞는 지역적 다양성을 창출할 수 있었다. 즉 중앙당국은 지방정부가 제한된 재정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이를 지역발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기업가정신을 용인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체제개혁 과정은 점진적·부분적 개혁전략에 근거해 중앙의 제한된 개혁능력을 지방의 창조적 능력을 통해 극복하는 시장에 대한 적응적 탐색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분권화와 적응적 전략에 근거한 중국의 체제개혁은 개혁이 심화단계에 접어들수록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내었다. 즉 초기의 개혁전

1) 왜냐하면 이러한 개혁은 명백하게 정부를 능률적이게 만들고, 산업민주주의 체제하의 시민으로 하여금 좀 더 값싼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능률성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정부체제가 지속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략이 기존의 이익관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지 않음으로써 개혁에 대한 지지확보와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개혁이 심화될수록 기존 이익관계에 대한 개혁이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반면 기득세력은 오히려 개혁의 장애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기존 계획경제 체제는 이를 운영하는 견고한 국가행정 체제에 의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체제내부의 개혁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국가부문에서의 개혁은 경제영역에서의 개혁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그 구조적 변화가 상당정도 지연되었던 것이다(정해용, 1999: 272-273).

물론 80년대 등소평에 의해 추진된 정치·행정 개혁이 혁명세대를 퇴진시키고 당정관료의 기술관료화를 촉진시킴으로써 경제발전을 위한 초석을 제공하였지만(장경섭, 1999), 이는 지배엘리트의 성격변화에 국한되고 기존의 정부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없이 진행됨으로써 개혁의 실질적 성과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지방수준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분권화 개혁이 지방관료들의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지방수준에서의 행정개혁을 지연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Lee, 1996). 따라서 90년대 들어 중앙의 개혁당국은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는 보다 강도있는 개혁을 필요로 하였고, 이것이 국가 행정부문에 대한 보다 대대적인 개혁으로 표출되었다.

최근 들어 중앙 國務院 수준에서의 행정개혁은 朱鎔基 총리의 강력한 지도력에 의해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방수준에서의 행정개혁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개혁보다 더 복잡한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다. 비록 개혁기간 동안 중앙당국은 통치구조를 붕괴시키지 않은 채 자신의 정책목표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할지라도, 지방의 자율성 확대는 명백하게 양자간의 갈등관계를 증폭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이 비록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지방의 특수성과 정책사안에 따라 지방정부의 순응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으며(정재호, 1999: 95-151), 특히 행정개혁의 경우 관료들의 이익기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더 저항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글은 시장화 과정에서의 중국 지방정부의 행정개혁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사례지역으로는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된 廣東省의 珠江三角洲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이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택한 것은 두 가지 상반된 가정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먼저 개혁의 상호연관성으로 미루어 경제가 발전한 지역일수록 행정개혁에 대한 요구도 더 강할 것이라는 점이며, 따라서 이 지역의 지방정부는 중앙의 상명하달식 개혁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제적 성장이 가속될수록 지역발전을 위해 스스로 개혁의 활로를 모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珠江三角洲를 중심으로 하는 廣東省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중앙정부의 지시를 종종 무시하는 대표적인 강한 지방정부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Qian & Stiglitz, 1996: 179), 따라서 중앙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역관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개혁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상당히 저항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먼저 2절에서는 중국의 시장화 개혁에 수반되어지는 행정개혁의 실질적인 목표와 이에 대한 기존의 개혁과정을 개괄적으로 기술한다. 3절에서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자신의 행정개혁을 위해 투여하고 있는 노력은 어느 정도이며, 반대로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적인 태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4절에서는 행정개혁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선택한 정책수단은 어떠한 것이며, 이를 통해 중앙의 의도된 개혁성고가 어떻게 도출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5절에서는 지방정부 행정개혁의 성과와 그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향후의 개혁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시장화 과정에서 중국 지방정부 개혁의 과제

1978년 중국 공산당 제11기 3중전회를 기점으로 시작된 개혁개방의 중요한 특징은 시장화의 확대와 분권화 전략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어 가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역할은 그에 상응하여 감소되는 추세였다는 점이다. 즉 지방정부에게 위임된 개혁의 임무는 정부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계획자(planner)가 아니라, 시장의 조절자(regulator)가 되도록 그 역할과 기능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그렇지만 과거의 강한 중앙계획의 전통으로 인해 하위수준의 정부관료들은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인식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이를 주도하여 나갔다. 즉 80년대를 거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 대부분 지역들의 경제적 성공은 정부역할의 축소때문만은 아니며, 오히려 시장화와 분권화 개혁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중요해졌고, 시장에 대한 개입이 직접적 수단보다는 간접적 수단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ian과 Stiglitz(1996: 178-179)는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는데, 먼저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구조를 따른 공유된 통치구조(shared governance structure)이다. 가령 산업정책의 경우 중앙 정부는 국가정책을 설정하고,省政府은 省의 목표를 설정하는 등으로 수직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즉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수준의 정부간에 대화와 의사소통이 강하게 지속되었고, 당과 정부의 계층제가 붕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은 지역내의 수평적 의사소통과 경쟁구조이며, 이러한 구조는 필연적으로 많은 지방관료들로 하여금 상위수준에서 부과된 제약을 최대한으로 이완시키려는 혁신적 사고를 유발시켰고, 나아가 그들을 상부관료들과 타협과 협상을 피하는 기업가로 성장시켰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지방정부는 기업가적 정부로 불릴 수는 있어도, 서구의 정부체제와 견주어 손색없을 정도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정부가 되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은 공공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고객지향적 공공조직이기보다는 여전히 관료적 체제에 의존하여 관료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권위주의적 정부조직이며, 지방정부의 수익 창출이 사회주의적 유산에 의해 형성된 규제적 수단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였기 때문이다. 개혁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결여된 채 지방정부에게 많은 권한이 위임되었던 분권화 개혁전략은 각 지방정부들이 자신의 경제적 성공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규제적 수단을 확대할 수 있게 만들었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들은 자신들의 자원동원 능력을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단기간에 많은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였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각 지방의 제후경제적 모순, 중복투자로 인한 산업구조의 왜곡, 중앙정부의 거시경제에 대한 통제능력 저하, 지방관료들에 의한 부패 심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문제의 근원은 중국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당면한 기존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강한 경로의존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분권화 개혁과정에서의 지방정부는 자신들에게 부과된 경제성장의 우선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쇄신적이고 독창적인 수단에 의존하기보다는 과거 계획경제 시기에 사용하던 정책수단에 상당정도 의존하였다. 실제로 분권화 개혁은 과거 중앙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지방정부에게 점차로 허용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으며, 대체로 기업가적 자질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한 지방정부가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존속되어 온 정책수단들은 시장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체제와는 필연적으로 상충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분권화 개혁의 제반 모순들이 노정된 것이다.

이처럼 중국 지방정부 개혁의 필요성은 경제발전과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목표를 위해 동원했던 분권화의 발전전략이 그에 상응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렇지만 분권화로 야기된 모순의 해결이 곧바로 지방으로 위임된 권한을 다시 중앙으로 회수하는 영합게임(zero-sum game)의 논리로 해결될 수는 없으며, 지방정부의 개혁에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오히려 분권의 제도화이다(吳國光, 鄭永年, 1995). 이러한 분권의 제도화가 실제로 의미하는 내용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지방정부가 가져야 할 합당한 역할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며, 결국 지방정부의 역할은 시장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정립하려는 중앙수준에서의 개혁요구와 합치되는 것이다. 즉 지방정부의 개혁은 그 성격상 기존의 체제유산을 청산하는 과정이며, 따라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줄어드는 대신 모든 지방정부들이 중앙의 규범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할 포괄적 정책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한편 정부개혁은 그 내용과 범위에 있어서는 개혁 자체의 연동성으로

인해 많은 내용을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서구에서 다운사이징(downsizing) 등과 같은 조직개혁을 위주로 하는 정부개혁이 공공조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면, 중국의 정부개혁은 비단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 새로운 정부역할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즉 80년대를 거치면서 확대된 지방정부의 비규범적 행위들이 대부분 자신들의 경제적 권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이러한 조건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비단 정부조직의 개편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며, 재정개혁과 금융개혁 등을 포괄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혁에 접근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부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과정은 현재에도 지속되는 지난한 개혁과정이며, 비록 지방정부 개혁이 중앙의 통일적 개혁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사안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경제적 권력기반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중앙의 개입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당국의 개혁에 대한 의지는 90년대로 접어들면서 먼저 행정체제내의 조직개편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행정체제 측면에서의 개혁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80년대의 개혁이 경제체제의 전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부기구의 급속한 팽창이 초래한 때문이었다. 즉 개혁개방 이후 무역·재정·조세·산업정책 등에서 기존 계획경제 체제에서의 직접적 개입과는 달리 새로운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한 개입과 규제강화가 필요하였으며, 또한 80년대의 분권화 개혁을 통해 지방보호주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앙은 지방을 불신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지방에 중복적인 대표기관을 설립하면서 정부기구가 급속도로 팽창하였던 것이다(Burns, 1989: 515-516). 뿐만 아니라 경제체제 자체에서도 과거의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개혁방식에서 탈피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分稅制 등을 포함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으로 본격화되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80년대의 분권화 개혁과정에서도 중앙의 지방에 대한 수직적 통제는 여전히 지속되었으며, 따라서 90년대 접어들어 지

방정부의 개혁 필요성을 인식한 중앙정부는 강력한 주도권을 갖고 이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혁의 일환으로 중앙정부가 사전적으로 필요로 한 것은 먼저 개혁주체를 설정하는 문제였으며, 이를 위해 1991년 당시의 李鵬 총리를 주임으로 하는 中央機構編制委員會가 설립되었다.²⁾ 동 위원회는 중앙 國務院의 기구개혁 뿐만 아니라 각급 지방정부의 행정개혁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졌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을 시도하였다. 당시 중앙과 지방의 개혁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계획경제 체제의 제도적 유산인 18개의 산업주관 부문 중에서 7개 부서의 철폐와 5개 부서의 개편이 있었고, 국무원 직속기구와 비상설기구에 대한 대대적인 축소가 있었으며, 국무원 기구정원은 20%가 감축되었다(羅干, 1993).

다음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개혁도 마찬가지로 그 동안 급속히 팽창한 각급 당정기구의 규모를 축소하고, 관리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그 과정에서 중앙당국은 中央機構編制委員會가 산출한 각급 지방정부의 당정기구와 인력규모의 축소방안을 지방으로 하달함으로써 이에 대한 획일적인 순응을 요구하였다(표-1 참고). 당정기구 개혁은 중앙수준에서 시장체제에 적합한 정부기능의 재조정이 그 목표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에서도 조직을 이에 상응하게 정비함으로써 중앙의 정책결정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집행될 수 있는 일치된 조직구조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당정기구의 인력 측면에서는 1991년말 920만 명에서 25%에 달하는 200여만 명의 감축비율을 산정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중앙수준보다 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2) 中共中央國務院關於成立中央機構編制委員會的通知, 中發 [1991] 14號. 동 위원회는 國務院 기구개혁의 일환으로 國發 [1993] 27號에 의해 폐지되고, 그 업무는 공산당이 직접 통제하는 中央編制委員會(약칭 中央編委)로 이관되었다가, 1994년 다시 그 조직을 강화하여 당중앙과 국무원이 공동으로 관할하는 의사협력기구가 되었으며, 일상적 업무관리는 국무원의 人事部가 책임지게 되었다.

[표 1] 1993년 개혁방안에 따른 당정기구 축소 및 인원감축 목표

분 류	당정기구	인원편제 ¹⁾
省·自治區	평균 68개에서 55개로 축소	1급성 6500~7500명, 2급성 5000~6500명, 3급성 3000~4000명으로 편제 총편제 16만명으로 20% 감축
直轄市	평균 99개에서 75개로 축소	총편제 11만명으로 15% 감축
地區	평균 30개 정도로 통제	500~900명으로 편제
市 (476개)	1급시 ²⁾ 60개, 2급시 50개, 3급시 30개로 축소	1급시 평균 6700명, 2급시 평균 2100명, 3급시 평균 700명으로 편제 총편제 86만명으로 20% 감축
縣 (1894개)	1급현 30개, 2·3급현 25개, 4급현 20개로 축소	1급현 750명, 2급현 650명, 3급현 500명, 4급현 350명 정도로 편제 총편제 110만명으로 22% 감축
鄉·鎮		총편제 200만명으로 42% 감축

- 1) 각급 기관의 인원편제 범위는 당위원회, 정부,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노동조합, 공청단, 부런 등의 기관을 포괄하는 것임.
 2) 각 지방단위의 분류 기준은 “關於印發市, 縣級鄉鎮分類標準的通知”(中編發 [1993] 17號)에 근거.
 출처: 「中共中央印發《關於黨政機構改革的方案》和《關於黨政機構改革方案的實施意見》的通知, (中發 [1993] 7號) 정리.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당국의 개혁요구는 비단 조직과 인력부분 뿐만 아니라, 관료들의 행태에 대한 통제도 동시에 수반하였다. 80년대의 개혁과정에서 관료들의 초기 지대추구 조건이었던 이중가격제의 축소로 가격편차를 이용한 지대추구의 여지는 줄어들었지만, 기존의 산업주관 부문들이 여전히 기업의 경제활동을 관리하고, 투자자본과 무역에 대한 결정권이 상당정도 지방관료들의 통제하에 놓여 있는 등, 대부분의 시장활동에서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의 당정기관 간부들이 경제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자 하였다.³⁾

3) 이에 관한 구체적 지시는 中共中央辦公廳과 國務院辦公廳의 《關於黨政機關與辦經濟實體和黨政機關幹部從事經營活動問題的通知》(中辦發 [1992] 5

1993년의 정부개혁도 그 규모면에서 상당한 것이었지만, 계획경제 체제의 제도적 유산은 그와 같은 한 차례 개혁만으로는 완전하게 청산될 수 없었고, 따라서 1998년 朱鎔基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새로운 행정부가 구성됨과 동시에 더욱 대폭적인 개혁이 선포되었다. 제9기 인민정부의 國務院 기구개혁을 종합하면 7개 部의 局級 격하, 2개 委員會의 部級 격하, 2개 위원회의 철폐, 1개 部의 기업화, 2개 部의 병합, 2개 총공사의 局級 격하, 그리고 4개 部와 위원회를 개편하여 전체적으로 각 部와 위원회를 40개에서 29개로 축소하는 규모였으며, 목표로 하는 인원감축은 무려 50%에 달하였다(羅干, 1998). 이러한 과감한 목표설정만 사회주의 관료체제를 전면적으로 청산함으로써 새롭게 도입된 시장경제 체제에 대해 국가의 대응성을 높이하고자 한 중앙당국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폭적인 개혁에 대해 중앙당국은 개혁의 적극성과 사회안정을 적절히 조화시킬 것을 개혁의 방침으로 삼았다. 즉 이러한 정부개혁이 개혁개방 이래 사회주의 관료체제를 변화시키는 가장 대폭적인 개혁이었고, 또한 국유기업 노동자들의 실업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혁이 정치적 안정을 해치거나 사회적 동요를 초래해서는 안되기 때문이었다. 이와 동시에 개혁의 급진성을 비판하는 주장도 적지 않았고, 특히 자신들의 관료적 기반이 급격히 축소되는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당시의 개혁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만은 없었다. 따라서 1993년의 정부개혁이 중앙과 지방수준에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1998년의 개혁방안은 먼저 중앙수준에서만 시행되고 지방정부의 개혁방안은 상당정도 지연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통일적인 명령계통으로 구성되는 수직적 의사전달 체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설계된 조직구조가 지방에서도 대체로 수용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1년여의 시간이 지난 후 중앙의 통일적인 개혁지침이 지방으로 하달되기에 이른

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현금 이상 당정간부들은 일률적으로 경영활동이나 기업설립을 할 수 없으며, 당정기관 간부가 기업관리자의 이중신분을 유지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4) 이러한 중앙지침은 다시 각 지방의 실정과 결합하여 실제적인 개혁방안이 도출되고 있으며, 최근 2000년을 전후로 각 지방에서는 본격적인 정부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개혁은 그 동안 분권화 과정에서 형성된 중앙-지방간 강한 拮抗關係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강력한 주도하에 비교적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아래에서는 이를 다시 사례지역으로 선택한 珠江三角洲 지역에 대해 지방의 개혁과정과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珠江三角洲 지역내 지방정부의 개혁성과와 그 한계

논의에 앞서 먼저 사례지역인 珠江三角洲의 범위와 성격 등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전적 설명이 필요하다. 珠江三角洲 지역의 발전은 개혁개방의 역사와 그 궤적을 같이하며, 이는 중앙당국이 1979년 深圳과 珠海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외자의 이용, 외환수입의 보유, 합자기업의 설립 등에 관한 다양한 경제적 특혜를 부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특혜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85년 국무원은 珠江三角洲經濟開放區 (the Pearl River Delta Open Economic Region; PRDOER)를 지정하였고, 이들 지역도 이전에는 단지 경제특구인 深圳과 珠海에만 부여되던 특혜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珠江三角洲經濟開放區는 지형학적인 관점에서 삼각주내에 위치한 南海, 番禺, 順德, 東莞 등 16개의 市·縣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흔히 '小三角洲'로 알려진 지역이다. 이어 1987년 국무원의 승인에 따라 珠江三角洲經濟開放區는 12개의 市·縣을 더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이것이 '大三角洲'이다. 그렇지만 당시에

4) 구체적 내용은 《中共中央, 國務院關於地方政府機構改革的意見》(中發 [1999] 2号)를 참고할 것. 그외에도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國務院關於全面推進依法行政的決定》(國發 [1999] 23号), 《國務院關於克服官司僚主義進一步轉變工作作風提高辦事效率有關問題的通報(1999. 3. 28)》등이 지방으로 하달되었음.

성정부 소재지인 廣州와 경제특구인 深圳 및 珠海는 珠江三角洲經濟開發區와는 구별되었고, 경제개발구는 단지 삼각주 지역의 광범위한 농촌을 지칭하였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삼각주 내의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서로 분리하는 것이 의미를 잃어가는 대신, 廣州와 두 경제특구를 포함하는 삼각주 내의 다양한 지역들이 하나의 대도시권역(megalopolis)으로 점차 통합되는 추세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廣東省 정부는 1994년 珠江三角洲經濟區(the Pearl River Delta Economic Region; PRDER)를 삼각주 내 지방정부간의 경제 및 도시발전에 대한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그 속에 25개 市와 3개 縣을 포함하며, 전체 면적은 43,188km²에 이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廣東省建設委員會, 1996: 2). 그렇지만 주강삼각주 외부에 위치한 廣東省의 기타 지역들은 여전히 개혁개방의 편익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省 내부의 지역적 격차는 상당정도 확대되어 갔다. 즉 珠江三角洲 지역은 廣東省 내에서 경제성장을 선도한 지역을 통칭함과 동시에 중국전역에서도 가장 부유한 지역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⁵⁾

珠江三角洲 지역이 이처럼 경제발전을 성취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 이는 상술한 바처럼 개혁개방과 더불어 중앙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광범위한 특혜정책과 홍콩과 마카오에 인접해 있는 지리적 여건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특히 중요하였지만, 그러나 이 지역의 지방정부들이 기업가적 능력을 발휘하여 이러한 외부적 조건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더라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즉 珠江三角洲 지역의 외자도입을 통한 발전모형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행정주도적 작용에 의해 가능하였다(唐興霖, 1997: 7). 이른바 행정주도는 지방정부가 산업정책, 공공정책, 시장유인 등의 방식을 통해 정부의 권위로서 경

5) 1979년에서 1996년 사이, 珠江三角洲 지역의 국내 총생산액 증가율은 20%로, 廣東省의 평균 증가율 14%와 전국의 평균 증가율 9.3%를 훨씬 상회한다. 1996년 珠江三角洲 지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액은 22,000元에 달하며, 이는 廣東省 전체에서 인구의 30%를 점하는 珠江三角洲가 국내 총생산액에서는 70%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제성장을 추진하고 경제발전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정주도적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목표의 설정이 가능해야 하며, 다음으로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의 동원이 필요하다. 먼저 발전목표의 설정에 있어서는 개혁 개방과 더불어 정부기관과 개혁적 지방 지도자들이 이미 그들의 업무과제를 과거의 정치운동에서 경제건설로 신속하게 전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모두 지역적 특성에 근거하는 경제발전 전략의 추구를 자신들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몇몇 지방정부의 예를 보면, 먼저 順德市는 80년대 중반에 공업발전의 '3개 위주' 정책, 즉 鎮辦企業·骨幹企業·集體經濟 위주의 발전전략을 제기하였고, 1994년에는 과거의 '3개 위주'에서 새로운 '3개 위주' 정책, 즉 2·3차 산업을 위주로 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混合經濟를 위주로 하는 비국유부문의 확대, 규모의 경제를 위주로 하는 공업화 수준의 제고 등을 발전전략으로 삼았다. 東莞市는 80년대 초에 대외개방형 경제를 추구하고, 상품농업을 기초로 하고, 鄉鎮企業에 의존하고, '三來一補'를 돌파구로 삼는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하여 농촌 공업화의 길을 걸었으며, 90년대에는 다시 도시형 농업을 기초로 하고, 첨단기술 산업이 주도하는 산업구조의 균형화와 현대화된 국제도시의 건설이라는 발전전략으로 전환하였다(唐興霖, 1997: 7-8).

다음으로 珠江三角洲의 각 지방정부들은 자신들의 발전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이에 합당한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행정적 수단은 조직, 인력, 재정 등 다양한 측면에 걸쳐 있는 것이지만, 특히 각 지방정부들이 조직적 수단을 동원하는 과정은 개혁개방 이전의 정부조직을 새롭게 개혁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개혁 초기 이 지역의 발전전략이 기본적으로 외자도입을 통한 산업화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의 정부개혁은 이른바 '하나의 창구(一個窗口)' 혹은 '일팔처리(一條龍)'에 집중되었다. 가령 1978년 9월 東莞市는 '三來一補領導小組'를 조직하고, '對外加工裝配辦公室'을 설립하여, 대외적 업무에 있어서 협상, 계약, 사업등록, 통관수속, 수입허가증 처리, 그리고 홍콩과의 직거래 수속 등 일체의 업무를 '일팔처리(一條龍)'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하였다. 과거의 번잡한 수속과정을 간소화하는 이러한 개혁은 업무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크게 제고시켰으며, 따라서 東莞은 외국인들에게 투자의 천국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王光振 等, 1993: 476).

또한 당시 삼각주 내의 각 지방정부들은 계획경제하에서 운영되던 정부조직을 철폐하는 데 있어 중국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선구적이었으며, 1984년 전후로 많은 市와 縣들이 정부의 경제관리 기구에 대해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江門市의 예를 보면 당시 경제위원회 산하의 5개의 공업국과 5개의 행정성 공업기업을 전부 철폐하고, 11개 부문에 대해서도 축소를 단행하여, 경제위원회의 기존 간부 412명이 개혁 후에는 단지 108명으로 편제되었다. 그리고 深圳特區政府의 경우에도 1981년 당시 계획경제 시기의 행정체제에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여, 경공업·기계·전자·화학 등 업종별로 편제되어 있던 행정기구를 경제실체로 전환시켰고, 이에 따라 행정기구가 원래의 53개에서 17개로 축소되었다(張天亮, 1998; 李容根, 1998: 70-76).

그러나 경제발전이 가속화되고 도시규모가 부단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축소지향적인 개혁방침만으로는 발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으며, 따라서 각 지방정부들은 자신들의 전략에 맞추어 융통성있게 이에 대처해 갔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정부조직의 축소와 확대의 순환과정을 초래하였다. 深圳의 경우, 1984년 개혁의 주요목적은 경제발전의 수요에 따라 경제의 종합관리부문을 강화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경제발전·공업·도시계획의 3개 위원회와 기본건설·재정무역·교통·농업·문교 등 5개의 시장판공실을 신설하였다. 1986년에는 다시 정부의 정책집행과 감독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존의 3급 관리체제를 2급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기구수는 오히려 17개에서 39개로 증가시켰다(張天亮, 1998; 李容根, 1998).⁶⁾ 물론 이는 조직개혁이라는 측면에서만 보았을

6) 1988년에는 다시 공산당 제13기 전당대회에서 제출한 정치개혁 요구에 따라 당정기구의 개혁이 추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당위원회 조직 중 정부기구와 중첩되는 부문이 상당히 철폐되었고, 정부기구도 중앙의 국무원 기구 편제에 통일시키려는 개혁이 있었다.

때 1981년과 비교하여 기구수가 17개에서 39개로 팽창한 것이지만, 深圳의 경우 1979년의 30만 인구에서 1993년의 325만 인구로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의 팽창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며, 오히려 기구조정이 행정효율을 대가로 하지 않았는지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劉伯龍, 1998: 25-30).

지방정부 수준에서 자발적 개혁의 의지는 과거의 간부제도에서 공무원체도로의 전환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공무원체도로의 개혁은 深圳市의 경우가 비교적 두드러지는데, 이는 深圳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리한 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深圳의 발전된 경제가 공무원개혁에 소요될 재정적 자원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보유할 수 있게 한 점이 그것이다. 둘째 인적자원의 이용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深圳은 젊고 교육받은 사람으로 구성된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력풀(pool)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深圳은 1979년 경제특구로 지정되는 것과 동시에 국가의 고용통제를 벗어나 인재를 자유롭게 충원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따라서 전통적인 간부임용이 실적에 기초한 공무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체제로 이미 상당정도 전환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특구로서의 深圳의 역할은 중앙관료들이나 다른 省과 도시들의 기대와는 항상 일정한 긴장관계가 있었다. 개혁에 대한 深圳의 기본적 입장은 만약 深圳이 현대적 관리방식과 상충되는 비효율적 기존 간부체제를 계속 고수할 경우, 잠재적 투자자들을 이탈시켜 경제발전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즉 深圳의 지도자들은 지방 관료제의 현대화가 아직도 비효율성과 부패의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발전과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고 인식하였지만, 그러한 개혁 프로그램은 내생적 요인(국가의 개혁 프로그램)보다는 외생적 요인(외부 세계에 대한 개방 필요성)에 의해 추동되어졌고, 그 결과 중앙과 타지역의 영향으로 인해 개혁이 종종 점진적이고 매우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Cheung, A., 1996: 81-82).

80년대의 지방정부 개혁이 이처럼 자발성과 융통성을 그 특징으로 하였다면, 90년대 들어 정부개혁은 상술한 바와 같이 보다 중앙주도적인 개혁으로 전환되었다. [표 1]에서 보여지는 중앙정부의 요구에 맞추

어 상명하달식의 정부개혁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省정부 수준에서 보면 廣東省의 경우 정부기구의 수가 46개로 축소되고, 행정인원의 편제는 기존의 9589명에서 21.8%인 2089명을 감축하였다.⁷⁾ 그리고 深圳市의 경우, 1992년 기구개혁의 시범도시로 지정됨과 동시에 지방정부로서 처음으로 공무원조례를 실시하였으며, 市정부 기구는 44개에서 40개로, 행정인원의 편제는 1급시의 편제기준보다 훨씬 적은 5200명으로 확정되었다.⁸⁾ 다음으로 현급시인 順德市의 경우에는, 기구조정을 통해 기존 56개의 당정기구가 32개로 축소되었고, 행정기구의 정원조정을 통해서도 인력이 원래의 1200여명에서 900여명으로 감축되었다(招汝基, 1998).

이러한 기구개혁은 중앙의 개혁과 마찬가지로 지방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국무원의 지방정부 기구개혁방안에 따라 廣東省에서는 또 한 차례 대폭적인 기구축소와 인원감축이 단행되고 있다. 즉 廣東省의 정부기구는 1992년의 46개에서 2000년 들어 다시 41개로 축소되었고, 省政府의 인원편제는 기존의 5931명에서 49.4%에 달하는 2931명을 감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⁹⁾ 이러한 대폭적인 개혁은 하급정부로 연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중앙의 강력한 리더십에 비추어 볼 때 개혁의 진행은 매우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앙과의 연계가 약화되는 하급수준의 지방정부로 내려갈수록 중앙의 개혁의지에 반하는 행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順德市의 경우 珠江三角洲 지역에서 鄉鎮企業의 발전이 가장 빨랐던 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분리가 강조되기보다는 여전히 당정간부들이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적으

7) 「廣東省政府機構改革」(中國地方政府機構改革編輯組 編, 1995; 375-381) 참고.

8) 「深圳市政府機構改革」(中國地方政府機構改革編輯組 編, 1995; 530-535) 참고. 다시 1995년에 深圳市에는 당위원회의 11개 기구와 시정부의 39개 기구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중앙이 각 시기구에 대해 50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요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300만 인구 이상의 대도시 수준에서는 상당히 간소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9) 자세한 내용은 <中共廣東省委, 廣東省人民政府關於印發「廣東省人民政府機構改革方案」的通知>(粵發 [2000] 2號)를 참고할 것.

로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지배구조가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달성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만이 아니라, 상급정부 수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용인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급정부가 하위수준의 지방정부에 대해 정경분리의 정책목표를 강하게 추진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기업들의 이윤과 손실이 상급정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정수입이 일차적으로 당해 정부에 귀속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Cheng, J., 1996).

이는 결국 정부기구의 외적 변화가 시장화 과정에서 정부의 기능변화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 즉 그동안 중국의 정부개혁이 계속해서 정부의 기능전환[職能轉變]에 일차적 목표가 있음을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혁은 각 지방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어 왔던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의 지방정부에 의한 장악, 비규범적 지방 재정수입의 확충, 투자활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여신개입 등이 모두 시장화 과정에서도 여전히 정부역할이 전환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증거이며, 이는 결국 지방관료들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낳는 제도적 조건으로 작용함으로써 정부개혁의 궁극적 과제로 남게 되었다.¹⁰⁾

정부의 기능전환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하여, 먼저 국유기업의 지배구조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중국에서 정부와 기업의 강한 제도적 유착관계는 계획경제 체제의 본질적 특성이었으며, 기업체제 개혁이 시작된 이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한 기업지배구조는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사회주의 공유제를 존속시켜야 하는 당의 이데올로기적 요구에 의한 것이어서, 중앙수준에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지방수준에서의 정부-기업간 분리가 실현될 수 있는 내재적인 한계를 지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기업활동에 대한 개입을 배제시키려는 노력은 여전

10) http://anon.free.anonymizer.com/http://members.tripod.com/~Cora_2/에서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에 관한 풍부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히 정부의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음으로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비규범적 수입의 존재도 정부 기능이 정립되지 못했음을 보여지는 증거이다. 이는 80년대의 분권화전략이 실질적으로 재정분권화[分權吃飯]를 그 내용으로 하는 과정에서 강화되어 왔으며, 중앙정부는 90년대 들어 이른바 分稅制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정립하려 시도하였지만, 당시의 개혁이 중앙-지방간 타협의 결과로서 이루어졌고, 아직도 지방정부의 재정 기능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즉 지방정부는 조세국가로서 중앙의 충실한 대리인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자기재정의 확보에 있어서도 명확한 제도적 기초에 근거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개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개혁과제인 것이다.

또한 정부의 기능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은행간 관계의 새로운 정립도 필요하다. 계획경제 시기 중국의 信用計劃은 지방정부와 행정조직에 따라 편제된 국유은행 지점 사이의 협의가 필요하였으며,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가 은행부문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이러한 신용할당제는 개혁기간 동안 지속되다가 1998년에 와서야 폐지되었으며, 아직도 은행의 자율성을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혁과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의 정책당국이 이러한 개혁의 필요성을 정부의 기능전환과 연계하여 고려한 것은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따라서 지방에서의 정부-은행간 관계의 정립은 비로소 착수단계가 돌입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경제적 영역에서의 정부기능의 전환이 전제되어야만 기구축소와 인원감축 등을 통한 정부개혁의 목표가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서처럼 정부실패는 자명한 일이다. 경제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여주었던 珠江三角洲의 경우, 기본적인 행정체제의 측면에서는 80년대에는 지방정부의 자발성과 융통성에 근거해서,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앙의 개혁요구에 순응하여 비교적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기능의 정립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체제유산을 향유함으

로써 자신들의 이익기반을 존속시키려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수준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IV. 지방정부 개혁에 대한 중앙의 관료적 개입

정부의 기능전환을 통해 시장체제에 상응하는 정부역할을 정립하려는 중앙당국의 방침은 개혁의 심화기에 접어든 90년대에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개혁내용이었다. 즉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江澤民, 1992)’의 천명과 더불어 시장이 자원배분의 주체가 되고, 국가의 역할은 이제 명령적 계획에서 경제전반에 대한 거시적 조절과 통제의 임무로 전환되어지며, 이러한 거시적 정책수단의 확보를 위해 재정, 조세, 금융, 무역체제 등에서의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경제영역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향유하였던 많은 관료들의 물질적 기초를 약화시킬 것이며, 따라서 권력중심으로부터의 원심적 이반경향이 있는 관료부문에서는 이러한 개혁에 대해 저항적이거나, 최소한 비협력적이게 될 것이다.

상술한 바처럼 80년대 중국의 중앙-지방관계는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이것이 지방의 기업가적 역할을 강화시키고 지방의 경제발전을 유도하는데 기여하였지만, 한편으로 각 지방들은 지역이기주의에 기초하여 중앙과의 拮抗關係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경제영역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축소하고 정부역할을 재정립하려는 개혁과정에서 많은 지방정부들은 중앙의 방침에 비협조적이거나 때로는 저항적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각 지방들이 향유하던 규제적 정책수단과 경제영역에 대한 개입을 통해 확보하던 재정수입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1994년에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를 명확히 하고, 재정정책을 중앙의 거시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정부의 기능전환을 시도한 分稅制 개혁이 중앙-지방간 타협의 결과로 이루어 졌던 점이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의 저항적 태도에 대해 중앙 개혁당국의 의지는 명확하였으며, 특히 朱鎔基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현 체제가 성립된 이후 이에 대한 개혁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래에서는 珠江三角洲 지역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얼마만큼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지방의 대응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중앙당국이 지방정부에 대해 정책집행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은 인사통제에 있으며, 따라서 아래에서는 중앙의 인사통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표 2] 廣東省의 3대 방언에 따른 族群의 분류

族群	廣府群	客家群	潮州群	
방언 분류	粵方言	客方言	閩方言	
방언 명칭	廣州話, 廣府話	客話, 客家話	潮州話	雷州話
인구 (만명)	3,700	1,300	1,000	300
방언 사용 지역	珠江三角洲의 粵西와 粵北의 대부분 지역. 크게 廣府片, 四邑片, 羅廣片, 高廉片의 4개 語音區로 분류.	梅州市 관할의 전체 현, 惠州·河源·韶關의 일부 현. 廣府話와 潮州話 지역의 일부 현에도 客家村落이 존재.	潮州·汕頭·揭陽·汕尾의 4개 시.	湛江市의 雷州·廉江·遂溪·徐聞과 茂名市の 電白.
족군 문화	상업문화	산림문화	해양문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 지역의 족군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표 2]에서 보여지는 바처럼 지역의 토착 족군으로는 크게 廣府群, 客家群, 潮州群이 있으며, 이에 비해 이른바 外江群은 중앙이 지방통제를 위해 파견하는 정치세력이라 할 수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래 광둥지역의 권력판도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 먼저 첫 번째 시기인 1978

~1985년에 廣東省의 지도급 인물은 外江群으로 충원되었고, 당시 冮仲勛, 任仲夷가 제1서기를 역임하였다. 주요 실권간부들의 대다수가 外江人으로 충원되었으며, 본성의 族群으로는 潮州群이 우위를 점하였다. 두 번째 시기인 1985~1997년에는 潮州人인 林若, 謝非가 각각 省委書記를 맡음으로써 潮州群의 우위가 두드러졌고, 外江群의 실권은 약화되었다. 대신에 廣府群의 佛山幫이 약진하고, 客家群의 대표인물인 葉選平, 楊資元은 각각 省長과 廣州市長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다시 1998년에 와서는 外江群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북경정부가 이 지역에 대해 인사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80년대 중소평의 분권화 전략은 각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상당정도 확충시켰으며, 이것이 중앙과 지방간에 拮抗關係가 형성되는 지점이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재정자율성을 향유하였던 廣東省에서 省長으로 재임하고 있던 客家群의 葉選平과 중앙당국과의 갈등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Chang 1992, 221-222; Shirk, 1999: 274-275). 1990년, 당시 중국은 분권화 전략으로 초래된 지역할거주의를 극복하고 거시경제에 대한 중앙의 통제능력을 확보하는 개혁의 착수단계에 있었다. 1990년 11월 省 지도자 회의에서 廣東省長 葉選平은 지속적인 재정자율성에 대한 省의 요구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심지어 각 省 지도자들은 중앙에 대항하는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관련 이익에 대한 지역간 분쟁을 보류시켰다고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중앙당국은 공개적으로 중앙의 제안을 반대하는 葉選平을 광둥성장직에서 강제해임하고, 중국인민협상회의 상무위원회 부의장이라는 완전히 의례적인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이에 대한 수락조건으로 자신이 廣東省에 계속 거주할 수 있고, 후임자를 자신이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타협에 붙였으며, 결국 중앙정부는 지방수준에서의 더 이상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그의 조건을 수락하게 되었다. 이는 중앙에 의한 인사통제가 지방의 순응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정책수단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그것이 80년대의 개혁과정을 거치며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표 3〕 1998년 廣東省 黨·政 지도부 개편과정에서의 인적 구성변화

직무	전임자(족군, 주요경력)	현임자(족군, 주요경력)
省委書記	謝非(潮州)	李長春(外江)
省委副書記	盧瑞華(潮州, 省長), 張翱英(廣府), 黃華華(客家)	盧瑞華(潮州, 省長), 黃華華(客家, 廣州書記), 高祀仁(外江), 張高麗(潮州, 深圳書記), 黃麗滿(外江), 陳紹基(廣府)
省委常委	高祀仁(外江, 廣州書記), 王宗春(外江, 紀委書記), 厲有爲(外江, 深圳書記), 梁廣大(廣府), 溫玉柱(廣府), 盧種鶴(廣府, 副省長), 張高麗(潮州, 副省長), 歐廣源(廣府, 副省長), 陳紹基(廣府), 于幼軍(外江), 劉鳳儀(外江)	王岐山(外江, 副省長), 溫玉柱(廣府), 盧種鶴(廣府, 副省長), 歐廣源(廣府, 副省長), 于幼軍(外江), 劉鳳儀(外江), 王華元(外江, 紀委書記), 蔡東士(潮州)

丁望, 《李長春與廣東政壇(修訂二版)》, 香港: 當代名家出版社, 1999.

그렇지만 최근의 省 지도부 개편과정에서는 중앙의 인사통제가 다시 강력하게 부활하고 있으며, 이는 지도부에서 外江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것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대표적인 外江群의 인물로는 省委書記인 李長春 외에, 省委副書記인 高祀仁과 黃麗滿, 第一副省長 王岐山, 省委宣傳部長 于幼軍, 省委組織部長 劉鳳儀, 省紀委書記 王華元 등이 있다. 즉 省위원회 책임자 중 기존에 外江群이 전혀 없던 데에서 3명으로 늘어나 그 비중이 43%가 되었고, 15명의 常務委員會 중에서는 기존의 5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여 그 비중은 33%에서 47%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省의 高級法院院長, 檢察院檢察長으로 충원된 呂伯濤과 張學軍도 모두 外江群이며, 省정부의 廳長급에서도 沈栢年, 劉澎湃, 張思平 등 外江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外江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80년대의 분권화 개혁으로 초래된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보다 제도화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外江群 중에서 李長春은 이미 중국 공산당의 제15기 중앙정치국 정치위원으로 선출되어 중국의 4세대 지도자의 선두그룹에 속하고

있으며, 그가 廣東省의 최고책임자로 부임하게 된 것은 중앙지도부가 이른바 ‘幹部交流’를 통해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廣東省을 그의 정치적 미래를 시험하는 무대로 삼은 것이다. 80년대의 시장화 과정에서 지방에서 성장한 정치엘리트가 중앙정부와 어느 정도의 연계를 가지느냐는 것이 그 지방의 발전을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였으나, 이처럼 외부에서 유입된 경우 기업가적 발전 엘리트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관료적 통제의 예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앙에서 파견한 중요한 인물로는 廣東省의 副省長으로 임명된 王岐山을 꼽을 수 있다. 그가 廣東省으로 파견된 것은 다음의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는데(丁望, 1998: 126), 먼저 廣東省은 지방 재정수입, 은행저축, 대외무역량이 많고 중국의 90년대 재정 개혁 이후로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관료를 통해 재정·금융 부문을 주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이후로 朱鎔基 총리는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王岐山으로 하여금 廣東省을 개혁의 시범지역으로 삼아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모색 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朱鎔基는 전면적인 은행체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인민은행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각 성의 지점들을 철폐함으로써 지방당국이 더 이상 은행여신에 간여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중앙은행의 수직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廣東省의 인민은행 지점을 개혁의 시범단위로 삼았고, 王岐山이 그 일을 추진할 주체로 선정되었던 것이다.

王岐山 외에도 현재 재정·금융 부문의 개혁을 위해 중앙에서 파견한 인물로는 廣州市 부시장을 맡고 있는 沈栢年과 珠海市 부시장을 맡고 있는 劉澎湃이 있다. 沈栢年은 1996년 4월 廣州로 부임하기 이전까지 국무원 연구실에서 財政經濟司 司長을 역임하였으며, 劉澎湃은 이전까지 줄곧 중국인민은행 본점에서 재직하였고, 珠海市에 부임한 이후로는 재정·금융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王岐山과 비슷한 시기에 주용기 총리의 은행체제 개혁의 전도사로 廣東省에 파견되었으며, 王岐山이 省級 수준에서 은행체제 개혁을 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각省政府 소재지와 경제특구에서 지방정부의 경제관리 기능의 전환에 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관료적 통제를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개혁을 중앙이 실질적으로 주도해 가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혁들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먼저 정부가 경제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던 과거의 행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정부역할의 정립을 꾀하려는 것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개입의 가장 직접적인 통로였던 정부-은행간 관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실제로 1998년 5월 인민은행은 廣州에서 “廣東省 신용자산의 정리분류업무 동원대회”로 불리는 업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은행여신 업무에 대한 개입을 없애고, 대신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人民日報華南新聞版, 1998. 5. 6).

중앙수준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정립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는 또 다른 개혁은 정부-기업간 분리에 관한 것이다. 이는 이미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개혁과제이며, 현재의 개혁이 과거와 다른 점이라면, 중앙수준에서 합리적인 규범을 설정하여 지방에까지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 예로 지방재정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던 기업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기금의 징수를 대폭 취소하였으며,¹¹⁾ 한편으로 지방정부가 중앙의 조세정책을 위배하여 임의로 조세반환을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¹²⁾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몇 가지 정책조치들이 바로 중앙의 강력한 주도하에서 지방정부의 기능전환을 꾀하고 있는 부분이다. 즉 정부-은행간 결탁으로 인한 관치금융의 정부행태를 변화시키고, 임의적

11) 廣東省的 각종 행정 수수료 및 기금의 취소항목에 대해서는 <http://www.gdet.gov.cn/jw07/1/right.htm>를 참조.

12) “國務院關於糾正地方自行制定稅收先征后返政策的通知”(國發 [2000] 2号)이 廣東省에서 粵發 [2000] 21号로 시행되었음. 자료출처는 http://www.gd.gov.cn/aspsmp/gd.gov/wj_title.asp?id=176

개정운용을 근절시킴으로써 공공재정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정책목표이며, 이러한 정책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최근 들어 많은 정책조치들이 지방으로 하달되고 있으며, 이의 성공적인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당국이 과거와는 다른 강력한 인사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은 비단 인사통제를 통해서 정책목표의 실현을 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적인 다양한 행정조치들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가령 중앙 국무원은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운동을 한 차례 전개하고, 이를 총괄하여 그에 따른 지방의 실제적인 개혁조치를 서면형식으로 중앙에 보고할 것을 각 지방에 통보하고 있다.¹³⁾ 뿐만 아니라 중앙당국은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실제적인 개혁조치도 마찬가지로 상급정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¹⁴⁾ 廣東省의 경우 이러한 중앙의 요구에 따라 《廣東省行政執法責任制條例》(廣東省 제9기 人大常委會 제13차 회의, 1999년 11월 27일 심의·통과)라는 지방성 행정법규를 제정하였으며, 하급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동 조례에 따른 법치행정의 구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중앙의 개입이 비교적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중앙의 정책에 대해 기본적인 순응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순응적 태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동기유발은 무엇보다도 중앙-지방간 관료체제에서 기존에 비해 중앙에 대한 구심성과 관료의 일체성이 강화된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개혁에 대한 기본방침이 확정되고, 중앙의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확보되었다 할지라도, 지방정부의 순응이 어느 정도 지속될

13) “國務院關於克服官司僚主義進一步轉變工作作風提高辦事效率有關問題的通報(1999. 3. 28)” (國發 [1999] 9号)가 각 지방으로 하달되었으며, 廣州市에서는 (穗府 [1999] 26号)로 전달됨. 자료출처는 <http://www.gz.gov.cn/g9/g92/z1990520b.htm>

14) “國務院關於全面推進依法行政的決定”(國發 [1999] 23号) 참고. 자료출처는 <http://www.chinalawinfo.com/zlxf/xzfg/19991108.asp>

지는 아직 시기적으로 판단을 유보해야할 문제이다. 이는 지방정부 내부에 아직도 해결해야할 세부적인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고, 그 과정에서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가 지방이익에 동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외부환경으로서의 중국정치가 어떻게 변화할 지 쉽게 전망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VI. 珠江三角洲 지역내 지방정부 개혁의 향후 과제

이상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시장화 과정에서의 정부개혁에 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바,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된 珠江三角洲 지역의 경우 정부개혁에 있어서도 가장 선도적인 개혁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내의 정책적 지향이 중앙정부의 관료적 개입을 초래하고 있을 만큼 중앙-지방간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갈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아직도 지방정부의 개혁에 많은 과제가 놓여있음을 단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사례지역으로 선택한 珠江三角洲 지역의 개혁성과와 한계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공통된 것과 이 지역의 특수한 것이 존재하지만, 아래에서는 다시 이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이를 개괄함으로써 중국 지방정부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개혁과제에 대해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당정관계와 정부개혁의 정치적 한계

중국에서 당정관계의 처리문제는 전국적 범위의 일이며, 오랫동안 정치개혁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이에 대한 적지 않은 개혁노력을 경주하여 왔지만, 당기구와 행정기구의 중첩, 그리고 지휘체통의 불일치 등은 여전히 행정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아있다. 가령 현재 당정분리의 원칙에 따라 당은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과 인사관리에 대하여, 그리고 정부는 경제와 행정관리에 대해 책임지도록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 공산

당의 최대 과제가 경제 활성화에 있으며, 이는 당연히 정부의 경제관리
에 대한 개입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당의 중대 인사에 대한 결정권은
각 단위의 인사권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정의 독립성과 효율성이 쉽
게 보장되지 못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수준에서의 당기구(당기부)는 중앙수준의 당기부에 대응편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구합리화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가령 深圳市 黨委員會를 예를 들면, 법률의 제정과
관리는 인민대표대회와 시정부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산하에
政法委員會를 두어 법률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으며, 당위원회하에 黨
校와 深圳特區報社는 독립기구로 두기보다는 宣傳部에 통합시킬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劉伯龍, 1998: 42). 또한 당위원회 산하의 정책연구실
과 시정부의 經濟體制改革辦公室은 그 기능이 상당정도 중첩되고 있으
며, 따라서 이는 당연히 통합되어야 할 기구로 지적할 수 있다.¹⁵⁾

그렇지만 深圳의 경우 지방행정 편제에서 副省級에 해당되는 대도시
이기 때문에 그나마 당과 정부가 각각의 고유기능을 상당정도 확보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규모가 적어질수록 당정합일의 현상이 더욱 강하고,
오히려 이것이 합당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왜냐하
면 낮은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당정기구들이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간
여하기보다는 그 기능이 주로 정책집행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당
정합일이 오히려 당위원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지지를 가져오고, 이
러한 점이 상급기구와의 협력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Cheng, A., 1996).

당정의 미분화는 그 동안 기업가적 정신의 원천으로까지 간주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이로 인한 행정의 중립성 저하는 장기적으로 관료에
대한 감독불능과 부패, 시장질서의 왜곡이라는 더 큰 댓가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즉 그 동안 지방단위에서의 권력이 당조직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당조직에 의해 정책이 집행될 경우 자원동원이

15) 市級 지방정부의 기구개혁은 현재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 기
구설치의 구체적 상황은 <http://210.73.0.2/zfzx/jgsz/gov01.htm>과 <http://210.73.0.2/zfzx/jgsz/gov01.htm>를 참고할 수 있음.

보다 용이하였고,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가 지속될 경우, 행정 및 고용관계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당에 의한 권력집중화로 인해 인사관리와 행정책임성간의 불일치를 낳고, 인사관리에 있어 전문직업주의의 발전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다.

2. 정부기능의 지속적 재조정 과제

현재까지 중국 체제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사회주의 공유제의 전통 하에서 국가가 경제영역의 모든 생산과 경영활동에 개입하던 체제에서 한편으로 공유제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시장영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표현되고 있는 이러한 체제에서 중앙당국은 국가의 소유권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혁들을 단행하고 있는 반면, 당정간부들의 시장활동 개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즉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추구하는 현대적 기업제도에 상응하게 정부의 기능을 소유자적 역할에 한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당국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소유자 기능과 생산영역의 시장활동에 대한 직접적 개입간에는 명확한 경계를 확정짓기가 쉽지 않다. 실제적으로 중국의 모든 조직운영 원리가 여전히 “당이 간부를 관리한다(黨管幹部)”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당의 인사권 통제는 현대적 기업제도의 확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활동에 대한 중요한 통제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구조는 지방수준으로 내려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중국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일련의 개혁조치들이 지방 수준에서는 오히려 국가의 소유권 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분에서 당이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로 변형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상술한 국가-기업간 분리와 정부기능 전환의 개혁이 중앙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수준에서는 지방이익을 고려하는 다양한 형태의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최근 몇 년간 廣東省과 그 산하

지방정부의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¹⁶⁾ 그리고 이처럼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제도적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정부의 많은 규제권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권한은 주로 계획경제 시기의 정책수단이 폐기되지 않은 때문이며, 현 중국의 규제사항은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거나, 명확한 규제의 내용과 조건이 규정되지 않았고, 또한 규제에 따른 승인기한이 길고 규제의 효율이 낮은 등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개혁의 기본방향은 규제수단의 확보를 통한 시장활동의 직접적 개입에서 규제완화와 보다 많은 시장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치행정의 강화, 정부업무의 공개성과 민주성 확보, 사회부문에 대한 정보서비스의 확대, 사회중개조직의 활용 등으로 개혁이 보다 가속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혁과정이 완결되어야만 비로소 기존의 관료이익을 극대화하던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능률성과 효과성이 극대화되는 참된 고객지향적 공공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VII. 결 론

사회주의 국가체제는 전통적으로 자체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으로 인하여 관료부문의 과대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정부부문도 집권적 경제모형에 의해 규정된 중앙에서 지방 하급단위로 이어지는 '종직 확장성'과 정부기구가 국민경제 관

16) 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中共廣東省委辦公廳, 廣東省人民政府辦公廳印發《關於深化國有企業領導人員管理體制改革的實施辦法》和《廣東省省屬國有資產經營公司管理暫行辦法》的通知 (粵辦發 [1999] 25号), 中共廣州市委辦公廳關於印發《廣州市國有資產管理, 監督和運營體制改革的實施辦法》, 《廣州市深化國有企業領導體制改革的實施辦法》和《廣州市國有企業分配制度改革實施辦法》的通知 (穗辦 [2000] 3号) 등을 참고할 것. 자료의 출처는 각각 http://www.gd.gov.cn/aspsamp/gd.gov/wj_title.asp?id=135와 <http://www.gzcity.gov.cn/zfwj/gzzb03/sb03.htm>

리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횡적 확장성’을 지녀 왔었다. 중국의 개혁 개방 초기의 발전전략은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의 이양이라는 방위적 전략을 취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과대성장한 정부구조에 대한 문제인식이 부족하였고, 구조적 측면에 대한 중앙의 개입은 극히 제한되었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대한 자발적 의지가 강하였던 연해지역의 경우, 특히 본 논문에서 살펴본 珠江三角洲 지역의 지방정부의 경우, 이러한 조직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혁을 게을리 하지 않았었다. 즉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조직구조를 이에 융통성 있게 적응시켜 왔던 것이다. 나아가 중국의 체제개혁이 점차 심화되는 과정에서 정부개혁에 대한 중앙당국의 인식이 점차 확고해지고, 따라서 중앙주도적인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지방정부들은 이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개혁은 국가기구와 인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드러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능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이는 중국의 체제전환이 가지는 근본적인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방정부의 자발적 개혁도 자신들의 관료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개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이제 보다 완결된 체제내적 개혁을 달성하려는 중앙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를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그것이 현재 개혁의 전도사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부의 파견 등과 같은 인사통제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중앙의 의도가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을지는 아직 관찰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중앙이 지방정부의 기능전환에 대해 인식을 확립하게 된 동기는 초기 개혁전략이 낳은 부작용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부작용이 이미 중앙이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 이에 대한 개혁의 속력을 더욱 가속화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권력의 중심부에서 견인하는 이러한 체제내적 개혁은 黨政合一의 정치구조, 이데올로기적 제약, 기존 체제에 대한 강

한 경로의존성 등으로 인해 본질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 장경섭, 1999. “중국의 체제 개혁과 지배엘리트의 성격 변화,” 현대중국 연구, 제2집, pp.55-101.
- 정재호, 1999.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론: 분권화 개혁의 정치경제》서울: 나남출판.
- 정해용, 1999. “중국의 시장화와 국가관료제 개혁,” 21세기 정치학회보, 제9집 1호, pp.263-286.
- 丁 望, 1999. 《李長春與廣東政壇(修訂二版)》, 香港: 當代名家出版社.
- 廣東省建設委員會 主編, 《珠江三角洲經濟區城市群計劃: 協調與持續發展》, 北京: 中國建設出版社, 1996.
- 李容根 主編, 1998. 《八大體系: 深圳行政管理改革探索》, 深圳: 海天出版社.
- 劉伯龍, 1998.《論中國經濟特區的公共行政》, 澳門: 澳門大學出版中心.
- 羅 干, 1993. “關於國務院機構改革方案的說明,” 在第八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一次會議上.
- _____, 1998. “關於國務院機構改革方案的說明,” 在第九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一次會議上.
- 彭立勛 主編, 1998. 《邁向新世紀的深圳經濟特區》,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 唐興霖, 1997. “珠江三角洲: 行政主導與經濟發展”, 《中國行政管理》學術專輯.
- 王光振, 張炳申, 趙瑞彰 主編, 1993. 《珠江三角洲經濟社會文化發展研究》,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張天亮, “建立与市場經濟相適應的行政管理體系-深圳市政府機構改革的探索”, 鄧小平行政改革理論与政府機構改革研討會論文, 北京: 國家

- 行政學院, 1998年3月.
- 招汝基, “順德市的行政管理體制改革”, 鄧小平行政改革理論与政府機構改革研討會論文, 北京: 國家行政學院, 1998年3月.
- 中國地方政府機構改革編輯組 編, 1995. 《中國地方政府機構改革》, 北京: 新華出版社.
- 清理信貸資產改進貸款分類, 人民日報華南新聞版(廣州), 1998. 5. 6.
- Burns, John P., 1989. “China’s Governance: Political Reform in a Turbulent Environment,” *The China Quarterly*, 119: 481-518.
- Chang, Maria Hsia, 1992. “China Future: Regionalism, Federation, or Disintegration,”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25/3.
- Cheung, A., 1996, “Civil Service Reform in Shenzhen: Expectations and Problems,” MacPherson, Stewart (e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South China*, Cheltenham, Glos : Edward Elgar.
- Cheng, Joseph Y.S., 1996, “Structures and Functions of Town and Township Governments in Guangdong,” MacPherson, Stewart (e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South China*, Cheltenham, Glos : Edward Elgar.
- Lardy, Nicholas R., 1998, *China’s Unfinished Economic Revolution*,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Qian, Y. & Joseph Stiglitz, 1996. “Institutional Innovations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Transition Economies: The Case of Guangdong Province of China,” John McMillan & Barry Naughton (eds.), *Reforming Asian Socialism: The Growth of Market Institution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hirk, Susan L., 최완규 옮김, 1999.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중국경제개혁의 정치적 논리),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인터넷 사이트

<http://www.gdet.gov.cn/jw07/1/right.htm>

<http://www.gz.gov.cn/g9/g92/z1990520b.htm>

http://www.gd.gov.cn/aspsamp/gdgv/wj_title.asp?id=135

<http://www.gzcity.gov.cn/zfwj/gzzb03/sb03.htm>

<http://210.73.0.2/zfzx/jgsz/gov01.htm>

<http://210.73.0.2/zfzx/jgsz/gov01.htm>

<http://www.chinalawinfo.com/zxlf/xzfg/19991108.asp>

http://www.gd.gov.cn/aspsmp/gdgv/wj_title.asp?id=176

http://anon.free.anonymizer.com/http://members.tripod.com/~Cora_2/

《論語》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韓譯에 대한 考察*

金 榮 奇**

<目 次>

- | | |
|-----------------|-----------------|
| 1. 문제의 제기 | 4. 仁의 실천방법상의 순서 |
| 2. 기존 해석의 검토 | 5. 맺음말 |
| 3. '立'과 '達'의 해석 | |

1. 문제의 제기

유가의 경전 중 《論語》만큼 인구에 많이 회자된 책도 드물 것이다. 《論語》는 유가사상의 원류로써 이를 통하여 공자와 그 사상의 진면목을 이해하고 나아가 유가사상 전체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論語》는 유가사상의 연원이자 귀착점이 되는 것이다.

《論語》경문에 대한 국문해석은 일찍이 《論語諺解》나 《四書栗谷諺解》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해석의 관건이 되는 핵심어들을 여전히 한자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실령 역자 자신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하더라도 문자로 잘 드러나지 않은 점이 있었다. 그 후 《언해논어》에 이르러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문자상의 약간의 진전이¹⁾

* 본 논문은 1999년도 동서대학교 연구지원 기금으로 조성된 것임.

** 동서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전임강사

1) 《언해논어》<대문훈것>인한자란 몸이 셔고자 함애 사람을 셔게하며 몸이 달코자 함애 사람을 달케 하나니라. <글뜻훈 것> ...스스로 몸이 셔고자 하

있었음에도 해석상의 의미전달이 완전하지 못한²⁾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經文의 정확한 의미를 강구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일부 해석들은 이전의 것들에 비해 크게 나아져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원래 經文 자체가 난해하기 보다 문자의 표현에 다소 제약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거나 이를 보충하기 위한 해설이 미미하거나 아예 없는 것이 많다. 또 일부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 없이 이전의 해석을 그대로 답습한 듯한 것들도 있다. 심지어 일부 해석은 공자의 本意는 물론이고 유가사상의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들도 있어 독자들을 오도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論語·雍也》의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부분을 문제삼아 이에 대한 기존 해석들을 검토하고 유가사상을 토대로 공자의 본의에 충실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관련 개념들을 정리하면서 필자의 拙見을 펴려하고자 한다.

2. 기존 해석의 검토

《論語諺解》나 《四書栗谷諺解》에서는 문제로 제시한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에 대해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仁_인은 者_자는 몸이 立_립고져 人_인에 사람을 立_립게 하며 몸이 達_달코져 人_인에 사

면 그 몸을 세워서 썬 곳 다른 사람을 처치(處置)해야 붓들고 호위하고 복도다(培) 주어서 하야금 스스로 서 난 것이 있게하고 스스로 몸이 통달코자 하면 그 뜻을 드되여 곳 다른 사람을 처치하야 반다시 맥히고 저회함이 업시 하야금 스스로 일우게 하나니...

- 2) 예를 들어 《언해논어》의 <글뜻풀것>에서 보면, 「己欲立而立人」은 “스스로 몸이 서고자 하면 그 몸을 세워서 썬 곳 다른 사람을 처치하야...”라고 하였으나, 바로 다음 구의 「己欲達而達人」에서는 “스스로 통달하고자 하면 그 뜻을 드되여 곳 다른 사람을 처치하야...”하고 하여 앞 뒤 구의 글 뜻풀이가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됨을 達케 하는니라. 《論語諺解》

▲그 仁자는 己 立고져 호매 人을 立히며 己 達코져 호매 人을 達하는
니라. 《四書栗谷諺解》

이 두 해석에서 보면 해석에 관건이 되는 말들을 한자 그대로-立(입/립) 達(달)-표기하여 그것이 나타내는 구체적인 의미를 밝혀 놓지 않았다. 또한 ‘仁의 실천방법’에 있어서 ‘몸(己)’와 ‘인(人)’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해 놓지도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王命으로 제정되었거나 율곡과 같은 대학자의 손에 의해 편찬된 것임을 감안한다면 명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당시 편찬과정의 어려움이나 이 정도 풀이만 해도 독자가 《논어》를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할 수 있다.

아무튼 이 두 해석은 그 후 지금까지 《논어》해석의 典範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 의해 나름대로 재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공자의 본의를 충분히 밝혔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는 공자의 본의와 다르게 잘못 해석한 것도 있고, 또 앞서 말한 ‘仁의 실천방법’에 있어서 ‘몸(己)’와 ‘인(人)’의 관계를 모호하게 이해하거나 아예 그 순서를 바꾸어 놓은 것도 있다.

1) ‘立’을 ‘나서다’로 해석한 경우

- ① 인자한 사람은 자기가 나서고 싶으면 남을 내세워 주고 자기가 발전하고 싶으면 남을 발전시켜 준다.³⁾
- ② 인자란 자기가 나서고 싶을 때 남을 내세워 주고, 제가 잘 되려고 하면 남을 먼저 잘 되게 해 주오.⁴⁾
- ③ 인자는 자기가 나서고 싶을 때 남을 내세워 주며, 자기가 발전하고 싶으면 남을 발전시켜 주느니라.⁵⁾
- ④ 어진 사람은 자신이 나서고 싶으면 남부터 세우고 자신이 이루려고

3) 車柱環 譯, 《論語》, 서울, 乙酉文化社, 1969.

4) 金敬琢 譯, 《論語》, 서울, 명지대학출판부, 1982.

5) 《四書三經》, 東信出版社編輯部, 서울, 1989.

하면 남부터 이루게 해준다.⁶⁾

- ⑤ 인자란 자신이 나서려고 하는 곳에 남을 내세우고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데에 남을 이루게 한다.⁷⁾

이들은 ‘達’을 ‘발전시키다’(①③), ‘잘 되게 하다’(②)로 해석하였는데 물론 ‘達’의 포괄적 의미범주에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자의 본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미흡하다.

2) ‘立’을 ‘어떤 위치에 서다’로 해석한 경우

- ① 대저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을 세워주고 자기가 達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達하게 해 준다.⁸⁾
 ② 어진(仁) 사람은 자기가 서고(立) 싶으면 남을 세워 주고, 자기가 달(達)하고자 마음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달하게 하여 주는 것이다.⁹⁾
 ③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려고 하는 곳에 남을 세워주며 자기가 통달하려고 하는 곳에 남을 통달하게 한다.¹⁰⁾

위의 세 경우는 사실상 ‘立’을 ‘어떤 위치에 서다’로 풀이함으로써 독자들이 ‘立’을 정치적 또는 사회적 위치에 서는 것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達’을 제대로 풀이하지 못하였다.(①②)

3) 仁의 실천방법상 ‘자신’과 ‘남’의 관계를 동일시 한 경우

- ① 仁者는 스스로 서고자 할 때 남도 서게 하며 스스로 이루고자 할 때

- 6) 김석환 역주, 《論語》, 서울, 學英社, 1999.
 7) 金錫源 譯解, 《論語》, 서울, 惠園出版社, 1999.11.
 8) 李基奭 編譯 鄭淳睦 評說, 《論語選》, 서울, 培英社, 1978. 경문의 풀이에 서는 ‘어떤 위치에 서다’라는 의미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해설에서 ‘立’을 ‘어떠한 위치에 서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9) 李家源 監修, 《四書五經·論語》, 서울, 한국교육출판공사, 1986. 이 역시 해설에서 ‘立’을 ‘어떤 위치에 섬을 말함’이라 하였다.
 10) 鄭後洙, 《論語集注》, 서울, 이화문화출판사, 2000.2.

남도 이루게 하나니...¹¹⁾

- ② 대저 어진자는 자기가 서고져 할 때 남을 세우고 자기가 달하고져 할 때 남을 달하게 하느니라.¹²⁾
- ③ 인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도 서게 하고 자기가 이르고자 하면 남도 이루게 한다.¹³⁾
- ④ 무릇 인자란 자기가 똑바로 서려고 하여 남까지 세워주게 되고 자기가 통달코져 하여 남까지 통달하게 해 주나니.¹⁴⁾
- ⑤ 무릇 인자는 자기가 서고자 할진대 남도 자기처럼 생각해서 서게 하며 자기가 이루고자 할진대 남도 이루게 한다.¹⁵⁾
- ⑥ 대저 어질다는 것이 무엇이나? 자기가 서려면 동시에 다른 사람도 서게 하고, 자기가 일에 통달하려고 하면 동시에 다른 사람도 일에 통달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¹⁶⁾
- ⑦ 인자는 자신이 서고자 함에 남도 서게 하며, 자신이 통달하고자 함에 남도 통달하게 하는 것이다.¹⁷⁾
- ⑧ 대저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할 때 남을 서게 해주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남을 이루게 해준다.¹⁸⁾

4) 仁의 실천방법상 '자신'과 '남'의 순서가 바뀐 경우

- ① 대저 인(仁)의 덕을 갖춘 사람은 자기가 서고 싶으면 먼저 남을 세우고, 자기가 달하고 싶으면 먼저 남을 달하게 하여서...¹⁹⁾

11) 表文台 譯解, 《論語》, 서울, 靑木文化社, 1985.

12) 金星元, 《正本論語集註》, 서울, 明文堂, 1992.2.

13) 洪승직 譯解, 《論語》, 서울, 고려원, 1997.

14) 李栢淳, 《四書解·論語》, 대전, 學民文化社, 1997.2.

15) 尹永春 譯, 《孔子·莊周》(세계의 문학대전집), 동화출판사, 1970. 표면적 인 해석은 이와 같으나 그의 <解意>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자기가 서기 위하여 남을 먼저 세우고 자기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남의 일을 먼저 성취시켜 주는 일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인(仁)은 확실히 다른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선의식(善意識)을 촉진시키며 이기주의가 아닌 이타주의(利他主義)이다.”

16) 楊伯峻 譯註, 李章佑·朴鍾淵 韓譯, 《論語譯註》, 대구, 중문출판사, 1997.

17) 成百曉 譯註, 《論語集註》,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9.3.

18) 金相培, 《論語》, 서울, 자유문고, 1998.7.

19) 李元燮 譯, 金敬琢 解說, 《論語》(세계사상대전집 2), 서울, 大洋書籍, 1972.

- ② 인자란 자기가 나서고 싶을 때 남을 먼저 내세워 주고, 재가 잘 되려고 하면 남을 먼저 잘 되게 해 주오.²⁰⁾
- ③ 대저 仁者는 자기가 서고 싶으면 먼저 남을 세우고, 자기가 통달하고 싶으면 먼저 남을 통달하게 하여서...²¹⁾
- ④ 원래 인이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먼저 남을 세우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면 먼저 남을 이루게 한다.²²⁾
- ⑤ 어진 사람은 자신이 나서고 싶으면 남부터 세우고 자신이 이루려고 하면 남부터 이루게 해준다.²³⁾
- ⑥ 인이란 것은 그런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가까운 데 있는 것이다. 자신의 명예가 소중한 줄 알면 먼저 남의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 자신의 자유를 원하거든 먼저 남의 자유부터 소중하게 여긴다.²⁴⁾
- ⑦ 대저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하여서 남을 일으켜 세우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면 남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²⁵⁾
- ⑧ 어진 자는 자기가 서고자 하여 사람을 세우며, 자기가 달하고자 하여 사람을 달하게 한다.²⁶⁾
- ⑨ 실로 어진 자는 스스로 서기를 바라서 남을 세우고 스스로 통달하기를 바라서 남을 통달시키며...²⁷⁾
- ⑩ 인자라는 것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세우며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남으로 하여 이루게 한다.²⁸⁾
- ⑪ 대개 인한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하면 사람을 서게 하고, 자기가 통달하고자 하면 남도 또한 통달하게 하는 것이다.²⁹⁾
- ⑫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을 세워주고 자기가 통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달하게 해 주는 것이다.³⁰⁾

20) 金敬琢 譯, 《論語》, 서울, 명지대학출판부, 1982.
 21) 유명종 편, 《論語講讀》, 서울, 형설출판사, 1993.
 22) 황병국 옮김, 《論語》, 서울, 凡友社, 1997.
 23) 김석환 역주, 《論語》, 서울, 학영사, 1999.7.
 24) 李家源 譯解, 《論語》(세계사상대전집), 서울, 學園出版社, 1993.
 25) 金東吉 · 許鎬九 譯, 《朱注論語》, 서울, 創知社, 1994.8.
 26) 韓相甲 譯, 《論語》(세계사상대전집), 서울, 三省出版社, 1997.
 27) 이수태, 《새번역논어》, 서울, 생각의 나무, 1999.11.
 28) 朴一峰, 《論語》, 서울, 育文社, 1997.6.
 29) 金鍾武, 《論語新解》, 서울, 民音社, 1994.2.
 30) 李家源, 《論語》, 서울, 弘新文化社, 1999.4.

5) 해석이 부분적으로 생략된 경우

- ① 원래 인이란 내가 이루고자 할 때 남도 이루게 하는 것이다.³¹⁾
- ② 원래 인이란 내가 이루고자 할 때 남도 이루게 하는 것이다.³²⁾

위의 두 경우는 앞부분 즉 「己欲立而立人」을 해석하지 않았다. ②의 경우는 해설을 통하여 경문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 ‘立’을 ‘나서다’로 풀이하고 그것도 ‘남을 먼저 나서게 하고’ 또 ‘남을 먼저 성취하도록’으로 풀이하고 있다.

3. ‘立’과 ‘達’의 해석

1) ‘立’의 해석

《論語》의 전체 경문에 나타난 ‘立’의 용례는 모두 21곳에서 보인다. 그 중 ‘立’을 일반적으로 ‘서다’ 즉 ‘어떤 곳에 위치하다’로 해석할 수 있는 용례도 확실히 상당수에 이른다.³³⁾ 그러나 위의 일부 기존해석에서 처럼 ‘어떤 일에 나서다’로 해석할 수 있는 용례는 찾아볼 수 없다.

문제의 부분에 있어서 朱子の ‘立’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劉寶楠의 《論語正義》에서 阮元の 말을 인용하여 「立者, 如三十而立之立」이라고 하였다. 또 錢穆의 《論語新解》에서 「立, 三十而立之立」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學而篇> 「三十而立」의 ‘立’에 대한

31) 禹玄民 譯解, 《四書五經·論語》, 서울, 한국교육출판사, 1984.

32) 金榮洙 譯解, 《論語》, 서울, 일신서적출판사, 1997. <해설> “어진 사람이란 것은 내가 무슨 일에 나서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같은 일에 나서고 싶을 테니 그 심정을 양해하고 동정하여 남을 먼저 나서게 하고, 내가 무엇을 성취시키고 싶으면 남을 먼저 성취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33) 예컨대 <公冶長>「束帶立於朝」; <子罕>「與衣狐貉者立而不恥者」; <鄉黨>「揖所與立」, 「立不中門」, 「朝服而立於阼階」, 「升車, 必正立」; <季氏>「他日, 又獨立」; <陽貨>「其猶正牆面而立也與」; <微子>「子路拱而立」 등이다.

朱子の 해석을 살펴보면 “능히 도에 스스로 설 수 있는 것(能自立於斯道也)”으로 풀이하였다. 물론 阮元 역시 ‘立’을 “능히 도를 세우는 것(立謂身能立道也)”으로 생각하였다.³⁴⁾ 이밖에 邱變友 등이 편역한 《四書讀本》에서도 “도를 세우는 것(立道)”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에 서는 것’이든 ‘도를 세우는 것’이든 ‘立’은 ‘도에 근거하여 인격수양을 완성’³⁵⁾하거나 ‘도덕 실천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論語》‘立’의 용례 중에 보이는 「立於禮」(泰伯), 「民無信不以立」(顏淵)에서도 주자는 한결같이 ‘自立’으로 해석하고 있고, 「不知禮, 無以立也」(堯曰)에서는 비록 ‘自立’이란 말은 보이지 않으나 앞의 <顏淵篇>의 예를 근거로 이 또한 ‘自立’의 의미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³⁶⁾ 신의와 예의 실현을 통한 인(仁)의 완성(立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사람이 인을 실천할 줄 모른다면 예(禮)는 두었다 무엇 할 것인가?”³⁷⁾에서 잘 확인시켜 주고 있다. 《中庸》의 「修身則道立」은 인격수양과 도덕실천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인격수양을 통한 가치판단의 기준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공자 자신의 말대로 나이 열 다섯에 성인의 가르침을 본받아 따르는데 뜻을 두었고, 서른 살에 마침내 스스로 자신의 가치판단 기준을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그 후 어떤 경우에도 미혹되지 않았고 천명을 체험하게 되었으며 천하의 이치를 터득하기에 이르러 하는 일 마다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결국 ‘立’은 몸을 일으켜 세우는 단순한 역학적 동작이나, 어떤 일 또

34) 劉寶楠, 《論語正義》, 卷七, 雍也第六에 보임.

35) 譚宇權, 《孔子思辨方法評論》에서도 ‘己立’을 ‘自我修養’으로 해석하여 仁을 실천하는 工夫라 하였다. 臺北, 商務印書館, 1990. p.367.

36) 문자의 해석은 문자의 어원이나 일반적인 정의에 따를 수도 있겠지만 《論語》에 보이는 모든 용례를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저마다 용례의 상황이 각기 다르므로 결국 사상의 본의를 이해할 수 있는 일정한 계통내의 약정성에 의해 정의되어질 때 비로소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 예컨대, 「立於朝」와 「立於禮」에서 ‘立’을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勞思光, 《中國哲學史》一, 三民書局, 臺北, 1986, p.118 참고.

37) 《論語·八佾》: 「人而不仁如禮何?」

는 어떠한 위치에 서는 식 따위의 사회, 정치적 행위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어떤 일에 '나서다'로 풀이하는 것은 더더욱 거리가 멀다.

2) '達'의 해석

《論語》에 보이는 '達'의 용례는 그 유형에 따라 대체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達理'에 속하는 것³⁸⁾, '達事'에 속하는 것³⁹⁾, '達意'에 속하는 것⁴⁰⁾, 끝으로 '達(道)德'에 속하는 것으로 <季氏>의 「隱居以求其志, 行義以達其道. 吾聞其語矣, 未見其人也.」와 <顏淵>의 「子曰: 是聞也, 非達也. 夫達也者, 質直而好義, 察言而觀色, 慮以下人.」이 그것이다.

錢穆은 《論語新解》에서 「己欲達而達人」의 '達'을 「達, 如是聞非達之達.」이라 하여 <顏淵>에서의 그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즉 공자는 '達'은 '성질이 곧고 의를 행하기 좋아하며 남을 배려하는 태도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論語》에 보이는 '심오한 이론이나 사리에 통달(達理)하는 것, '어떤 일을 달성하는 것'(達事), '자신의 뜻을 표달하는 것'(達意)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朱子에 의하면 이는 곧 德으로 남의 신망을 얻는⁴¹⁾ 길이며 구체적으로는 안으로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과 신의를 길러 행동이 의에 합당하며 남과 교제함에 있어 분별력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처신하는 것으로 자신의 덕을 수양하게 되면 남이 자신을 신망하게 되고 행동하는데 막힘이나 장애가 없게 되는 것⁴²⁾이라 하였다. 결국 <學而>에서 말한 「七十而縱心所欲, 不踰矩」의

38) <雍也>「曰賜也達, 於從政何有」朱注: 「通事理」. <鄉黨>「康子饋藥, 拜而受之, 曰丘未達, 不敢嘗」朱注: 「藥未達」. <顏淵>「子曰: 知人. 樊遲未達」. <憲問>「君子上達, 小人下達」朱注: 「子曰: 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朱注引程子: 「上達天理」 등이다.

39) <子路>「子曰: 無欲速, 無見小利.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

40) <衛靈公>「子曰: 辭達而已矣」朱注: 「達意」.

41) <顏淵>「子張問士何如斯可謂之達矣」朱注: 「達者, 德孚於人」.

42) <顏淵>「夫達也者, 質直而好義, 察言而觀色, 慮以下人…」朱注: 「內主忠信, 而所行合宜. 審於接物, 而卑以自牧, 皆自修於內, 不求人知之事. 然德修於己, 而

경지와 다름없는 것이다.

이처럼 ‘達’은 ‘立’과 마찬가지로 자아수양을 통한 도덕실천의 과정이자 그러한 경지를 가리킨다 할 수 있다. 공자가 <顔淵>에서 말한 「質直而好義」는 자아수양인 ‘己達’이며 「察言而觀色，慮以下人」는 도덕실천의 과정인 ‘達人’ 즉 ‘愛人’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기존의 해석에서 ‘達’을 ‘발전하다(시키다)’, ‘잘되다(게 하다)’, ‘통달하다(시키다)’, ‘이루다(게 하다)’ 따위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석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명예(자유)를 소중히 여기다’ 또는 ‘자유를 원하다’는 식의 해석은 더욱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立’과 ‘達’은 결국 같은 의미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己立’과 ‘己達’은 자아수양의工夫이며 ‘立人’과 ‘達人’은 ‘愛人’의工夫라 할 수 있다.⁴³⁾ 이것은 仁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며 정치적 입신이나 사회적 영달과는 전혀 무관한 철저한 자기수양과 도덕실천의 의지표현인 것이다. 또 이러한工夫의 실천의지는 공자 자신이 말한 「學而不厭，誨人不倦」<述而>에서 잘 드러나 있다.⁴⁴⁾

공자가 子貢에게 요구한 것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명백하다. 재물을 널리 베풀어 천하 대중을 구제하는 일은 堯舜과 같은 성인도 이루지 못한 일이다. 堯舜이 그와 같은 일을 실현하지 못한 까닭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德이 그 일을 감당하기엔 아직 미흡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기에 공자는 堯舜도 이 일에 대하여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였다.⁴⁵⁾ 博施濟衆의 실현은 仁에만 그치는

人信之，則所行自無窒礙矣。」

43) 譚宇權, 《孔子思辨方法評論》, 臺北, 商務印書館, 1990, p.367.

44) 劉寶楠, 《論語正義》에서 阮元の 말을 인용하여 「爲之不厭，己立己達也。誨人不倦，立人達人。」이라 하였고 錢穆 또한 그의 《論語新解》에서 「孔子好學不厭，是欲立欲達。誨人不倦，是立人達人。」이라 하였다.

45) 朱子는 程子の 말을 인용하여 堯舜이 부족하게 여겼던 점은 두 가지로, 첫째는 ‘博施’에 있어서의 부족으로 백성들이 오십에 비단옷을 입게 하고 칠십에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였지만 젊은이들에게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고, 둘째는 ‘濟衆’에 있어서의 부족인데 九州만을 경영하였을

것이 아니라 성인이라 일컬어도 부족함이 없을 대동세계의 단계인지도 모른다. 이런 일을 실현하는 데는 정치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명망만 있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에는 반드시 자기수양을 통한 도덕적 인격의 완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⁴⁶⁾ 이러한진대 하물며 子貢에게 있었으랴.

子貢은 孔門十哲 중에서 宰我와 더불어 ‘言語’에 뛰어났던 인물이다. 훗날 孟子가 그들을 평하여 “說辭에 능하였다”⁴⁷⁾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다. 그는 특히 外交辭令에 능하였는데 《左傳》의 여러 곳⁴⁸⁾의 기록에서 당시 縱橫家로서의 자질과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자가 子貢을 사리에 밝아 정치를 맡겨도 될만하다⁴⁹⁾고 칭찬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정치적 식견과 수완을 갖추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理財에도 능력을 발휘하여 공자는 子貢이 ‘재화를 늘리는 데 있어 예측하면 늘 적중하였다’⁵⁰⁾고 감탄할 정도로 제자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⁵¹⁾ 공자의 대화 중 ‘博施濟衆’을 언급한 것은 어쩌면 이러한 자신의 정치·외교적 재능과 경제적 능력만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기인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子貢은 스승의 사상을 전파하는데 앞장섰고⁵²⁾ 공자가 瑚璉에 비길⁵³⁾ 만큼 총애하였지만 그에게도 늘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 스

뿐 천하 밖의 대중을 구제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다고 하였다.(論語之言堯舜其猶病諸者二. 夫博施者, 豈非聖人之所欲, 然必五十乃衣帛, 七十乃食肉. 聖人之心, 非不欲少者亦衣帛食肉也? 顧其養有所不贍爾. 此病其施之不博也. 濟衆者, 豈非聖人之所欲, 然治不過九州, 聖人非不欲四海之外亦兼濟也? 顧其治有所不及爾. 此病其濟之不衆也.)이 부분에 관해서는 《孟子·梁惠王》에 자세히 보인다.

46) 錢穆, 《論語新解》「必也聖乎」: 「仁者無位, 不能博施濟衆. 有位無德, 亦不能博施濟衆」, 臺北, 東大圖書公司, 1991. p.224.

47) 《孟子·公孫丑上》: 「宰我, 子貢, 善爲說辭」

48) 《左傳》哀公七年, 十一年, 十二年, 十五年 등에 보인다.

49) <雍也>: 「賜也達, 於從政乎何有」

50) <先進>: 「賜也不受命, 而貨殖焉, 億則屢中」

51) 《史記·貨殖列傳》: 「七十子之徒, 賜最饒富; 結駟連騎, 束帛之幣以聘享諸侯」

52) 蔡仁厚, 《孔門弟子志行考述》, 臺北, 商務印書館, 1995, p.80.

53) <公冶長>: 「賜也何如? 子曰: 女器也. 曰: 何器也? 曰: 瑚璉也」

승의 지적을 받았다. 일찍이 공자는 “四時가 운행하고 만물이 성장하는 데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던가?”⁵⁴⁾라는 말로 子貢이 이론적인 지식의 습득에만 몰두하고 자기수양의 실천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충고하였다. 또한 子貢이 정치에 관하여 묻자 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무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보다 백성들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⁵⁵⁾이라 강조하였고, 선비의 자질에 대하여 묻자 공자는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워 할 줄 아는 태도를 가져 使臣으로 나가 君命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⁵⁶⁾이라고 하였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외교사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기회가 잦았던 子貢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간과하기 쉬운 점으로 그의 부족한 부분을 간과한 공자의 적절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⁵⁷⁾는 말로 지나치게 理財에 밝아 부유한 생활로 교만하기 쉬운 子貢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하였다.

이처럼 공자의 눈에 비친 子貢은 비록 겉으로 드러난 재능과 능력은 뛰어나지만 자신의 내적 수양과 도덕실천에는 늘 부족하였다.⁵⁸⁾ 子貢 또한 이 점에 대해 “배우는데 권태로움을 느낀다”⁵⁹⁾는 말로 자신을 솔직히 시인한 바 있다. 이러한 병폐는 비단 子貢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공자의 제자들은 자신의 내적 수양과 실천보다는 외형적인 능력의 발휘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⁶⁰⁾ 그리하여 공자는 당시의

54) <陽貨>: 「子曰: 予欲無言. 子貢曰: 子如不言, 則小子何述焉? 子曰: 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何言哉?」

55) <顏淵>: 「子貢問政. 子曰: 足食, 足兵, 民信之矣.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三者何先? 曰: 去兵.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二者何先? 曰: 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56) <子路>: 「子貢問士, 子曰: 行己有恥, 使於四方, 不辱君命, 可謂士矣.」

57) <學而>: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58) 朱熹《論語集注》引尹氏: 「子張之學, 病在乎不務實.」

59) 《荀子·大略》: 「子貢問於孔子曰: 賜倦於學矣. 願息事君. ……然則賜願息事親.」

60) 朱熹《論語集注》<顏淵> 「夫聞也者, 色取仁而行違, 居之不疑. 在邦必聞, 在家必聞」引尹氏: 「子張之學, 病在乎不務實, 故孔子告之. ……當時門人, 親受聖人之教, 而差失有如此者, 況後世乎.」

학풍이 자신의 내적 수양보다는 타인을 의식하는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⁶¹⁾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子貢이 언급한 ‘博施濟衆’에 대한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의 가르침은 子貢이 仁을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평소 자신의 외형적인 능력에만 의존하여 항상 내적인 자기수양과 실제적인 접근보다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의식하지 못한 채 이상적이고 비 실제적인 방법에 대한 적절한 충고인 것이다. ‘博施濟衆’의 실현 방법을 먼데서 구할 것이 아니라 ‘能近取譬’, 즉 자신의 내적 수양과 도덕실천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⁶²⁾

4. 仁의 실천방법상의 순서

앞서 말한 대로 ‘立人’, ‘達人’이 ‘愛人’의工夫에 속한다면 ‘己立’, ‘己達’은 ‘愛己’ 또는 ‘盡己’의工夫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두工夫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의 실천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충차적이고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愛己’의 엄격한 요구와 완성이 자신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愛人’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오직 仁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좋아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⁶³⁾는 공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愛人’의工夫는 자기 인격의 완성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愛人’의 출발점은 ‘愛己’요 ‘盡己’에 있는 것이다.

사람은 사회적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타인을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한다. 본능적인 사랑은 때로 개인의 美醜에 의해 좌우되겠지만

61) <憲問>「子曰: 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朱注引程子: 「爲己, 欲得之於己也; 爲人, 欲見知於人也。」

62) <雍也>「能近取譬, 可謂仁之方也已」朱注引呂氏: 「子貢有志於仁, 徒事高遠, 未知其方. 孔子教以於己取之, 庶近而可入. 是乃爲仁之方, 雖博施濟衆, 亦由此進。」

63) <里仁>: 「唯仁者, 能好人, 能惡人。」

서로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이성적인 사랑은 자신의 성숙된 인격에서 비롯된다. “德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못 별들이 북극성을 에워싸고 도는 것”⁶⁴⁾과 같이 타인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도 자신에게서 구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愛己’에서부터 ‘愛人’에 이르는 仁의 실천과정은 <顏淵> 「爲仁由己，而由人乎哉?」, 《大學》 「有諸己而後求諸人，無諸己而後非諸人」이라고 한 것처럼 반드시 자신의 인격수양이 선행되어야 만 비로소 타인의 인격에 영향을 미쳐 자신과 같은 상태로 이끌 수 있게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식이요 위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曾子가 스승의 가르침을 일러 “忠恕”⁶⁵⁾라고 한 것은 공자의 道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仁의 실천과정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확고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忠’은 ‘盡己(愛己)’요 ‘恕’는 ‘推己及人’으로 ‘忠’과 ‘恕’의 선후관계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己欲立而立人，己欲達而達人」에 대한 기존해석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인격완성이 선행조건으로 전제되지 않은 채 단지 “자기가~하면(하여) 남을~”이라든가 심지어 “남을 먼저(먼저 남부터)”라는 식의 해석은 공자의 本意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愛人’의 工夫는 자신의 철저한 실천 없이 생각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며 또 ‘愛己’의 工夫없이 먼저 남을 생각하는 ‘愛人’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해석은 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邢昺의 《論語疏》에서 「己欲立身進達而先立達他人」이라 하여 「先」자를 첨가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경문에 없는 「先」자를 첨가하여 해석한 것은 「立身進達」을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고찰했기 때문이다. 역으로 공자의 의도를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파악하자니 「先」자를 첨가하지 않으면 앞뒤의 뜻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즉 자신의 출세나 영달에만 급급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줄 아는 태도이고 타인의 이익을 먼저 배려한다는 것은

64) <爲政>: 「子曰: 爲政以德，譬如北辰，居其所，而衆星共之。」朱注: 「政之爲言正也。所以正人之不正也。」

65) <里仁> 「曾子曰: 夫子之道，忠恕而已矣。」朱注: 「盡己之謂忠，推己之謂恕。」

자신의 사욕을 억누를 줄 아는 겸양이요, 미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立'은 '立身'이 아니라 '立道'이고, '達'은 사회적 영달이 아니라 '愛己' '愛人'의 도덕실천 工夫라는 점과 또한 공자가 「三十而立」한 것으로부터 「七十而縱心所欲, 不踰矩」에 이르는 단계가 정치적인 立身이나 사회적 영달의 진행과정이 아니라 순수한 도덕실천의 전 과정이라는 점, 그리고 문제의 부분에 해당하는 子貢과 공자의 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 설령 子貢 자신은 정치·사회적인 의도를 지녔다 할지라도 앞에서 설명한 대로 공자는 평소 그의 단점을 간파하여 자신의 수양과 도덕실천을 강조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바로 공자 교육방식에 있어서 '因人施教'의 특징이다. 刑戾의 해석이 가능케 한 정치·사회적 관점에서의 이해는 공자의 본의를 크게 벗어난다고 할 수밖에 없다.

仁의 실천은 자기 자신에 대한 虛無主義⁶⁶⁾도 종교적인 절대적 禁慾主義⁶⁷⁾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보다 남을 우선하는 利他主義도 더더욱 아니다. 만약 남과 타인을 동일시하거나 또는 남을 우선 한다면 이는 墨子の '兼愛'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⁶⁸⁾

5. 맺음말

공자가 스스로 술회한 대로 「吾十有五而志於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縱心所欲, 不踰矩」는 공자의 생애가 자신의 인격수양과 도덕실천으로 일관되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己立'과 '己達'의 전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개인 자신의 완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推己及人'의 부단한 확충을 통하여 '立人'과 '達人'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즉 '修己愛民'하는 仁의 實踐工夫인 것

66) 李澤厚, 《中國古代思想史論》, p.25.

67) 위의 책 같은 페이지 참조. 또 顧兆駿, 《儒家倫理思想》, 臺北, 正中書局, 1981, p.59.

68) 熊自健, 《中共學界孔子研究新貌》, 第1章 2節 李澤厚的方法, 臺北, 文津出版社, 1988, p.13 그리고 譚宇權, 《孔子思辨方法評論》, p.367 참조.

이다.

‘立’과 ‘達’이 仁을 실천하는 가장 가까운 방법(能近取譬, 可謂仁之方也)이라면 자신의 수양이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자신의 실천을 미룬 채 남부터 먼저 하기를 양보할 이유가 없다. 기존의 해석들 중에는 孔子의 子貢에 대한 가르침을 정치·사회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였거나 또 일부는 공자의 本意를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다만 종전의 해석들을 답습하여 ‘立’과 ‘達’의 개념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언해논어》의 <글뜻푼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스스로 몸이 셔고자 하면 그 몸을 세워서 써 곳 다른 사람을 처치(處置)해야 붓들고 호위하고 복도다(培) 주어서 하야금 스스로 셔 난 것이 잇게하고……”와 같이 풀이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몸을 세워서”라는 말은 ‘立’과 ‘達’을 인격의 수양과 도덕실천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孔子의 本意를 정확하게 이해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은 위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여 “무릇 仁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수양을 완성하여 남을 완성시키고자 하며 스스로 덕을 실천하여 남을 실천하게 해 주는 것이다”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개인의 전인적 인격수양의 완성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仁의 실천덕목을 모두 완성한 다음 남도 자신처럼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상적일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루어내기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러나 仁의 실천덕목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는 하나 「孝」, 「悌」는 물론이요 「禮」, 「愛人」, 「恭」, 「敬」, 「剛」, 「勇」, 「寬」, 「信」, 「敏」, 「惠」⁶⁹⁾ 등이 개별적인 仁의 실천덕목이라면 공자가 평소에 제자의 부족한 부분 한 두 가지를 일러 교육하고 강조한대로 이러한 개

69) <陽貨>: 「宰我問: 三年之喪, 期已久矣. ……子曰: 予之不仁也. 子生三年, 然後免於父母之懷. ……子也, 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 <學而>: 「孝悌也者, 其爲仁之本與.」 <顏淵>: 「顏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顏淵>: 「樊遲問仁. 子曰: 愛人.」 <子路>: 「樊遲問仁. 子曰: 居處恭, 執事敬, 與人忠.」 <子路>: 「子曰: 剛毅木訥近仁.」 <憲問>: 「子曰: ……仁者必有勇, 勇者不必有仁.」 <陽貨>: 「子張問仁於孔子. 孔子曰: 能行五者於天下, 爲仁矣. 請問之? 曰: 恭, 寬, 信, 敏, 惠.」

별덕목의 실천을 통한 인격수양의 완성은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참고문헌

- 《四書集注》朱 熹, 中華書局, 臺北, 1989.8.
《論語正義》劉寶楠, 世界書局, 臺北, 1977.4.
《論語辨證》胡志奎, 聯經出版, 臺北, 1983.5.
《論語別裁》南懷瑾, 老古文化, 臺北, 1990.3.
《論語新解》錢 穆, 東大圖書, 臺北, 1991.8.
《四書釋義》錢 穆, 學生書局, 臺北, 1990.3.
《孔門弟子志行考述》蔡仁厚, 商務印書館, 臺北, 1995.5.
《孔子思辨方法評論》譚宇權, 商務印書館, 臺北, 1990.12.
《中共學界孔子研究新貌》熊自健, 文津出版, 臺北, 1988.3.
《十子批判》趙雅博, 星光出版, 臺北, 1991.1.
《中國古代思想史論》李澤厚, 영인본
《儒家倫理思想》顧兆駿, 正中書局, 臺北, 1981.4.

中文提要

《论语·雍也》云:「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达而达人。」至于此一语的解釋, 历来学者见仁见志, 莫衷一是. 韩国早有《论语谚解》与《四书采谷谚解》二书先後为之韩译, 始成为後代学者韩译《论语》之典范. 但此二书韩译其中关键字「立」「达」时, 仍然袭用汉字, 尚未详细而具体加以解釋, 而使读者可能误解孔子本意.

後代学者与今人之误解, 乃起于「立」「达」此二字: 其解「立」为「树立」「确立」「站立」, 甚至为「替人办事」; 又释「达」为「通达」「达成」「发展」

等，皆求政治社会上「立身进达」之义。如此二字之误解，不止其二字本身，而系于全文。尤其考「立己」和「立人」，「达己」和「达人」工夫实践先後之问题，亦与此二字有闲。

如本文所提及，皆以为「先人後己」，则误为「己欲立而先立人，己欲达而先达人。」阮元云：「立者，如三十而立之立。」朱熹曰：「立谓身能立道也。」「立」乃「立道」，即随道德工夫之实践而自我修养之义，其例易见《论语》诸篇。

今人钱穆云：「达，如是闻非达之达。」《颜渊》曰：「子曰：是闻也，非达也。夫达也者，质直而好义，察言而观色，虑以下人。」「达」乃「推己及人」，则为自我修养之终极，正如《学而》所云「纵心所欲，不踰矩」之阶段。

由此而观之，「立」与「达」之工夫，並非二事。「己立」「己达」是尽己爱己而自我修养之工夫；「立人」「达人」是爱人而推己及人之工夫。如上所云，「推己及人」，自有层次性，即先己而後人。若将此推至「立」「达」，乃「己先立而後立人，己先达而後达人」。

孟子称子贡「善为说辞」，《论语》中得知，其在政治经济上充分发挥力量。但子贡自言「倦於学」，孔子特意评子贡不务实际而徒事高远。博施济衆，並不在高远，而爱己爱人，循序而渐进。子贡虽志於仁，而不知仁之方。夫仁之方，由己立己达而始，以推己及立人达人。

先秦 儒家의 法律觀에 관한 고찰

鄭 貴 和*

<目 次>

서 언	3. 법의 기능
1. 법의 함의	4. 법률관의 특징과 문제점
2. 법의 시행원칙과 시행대상	결 언

서 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규범을 스스로 창조하여 그것을 지킴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한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행위규범으로서는 도덕과 종교 그리고 관습 등이 있는데 법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들 중에서 법은 다른 행위규범과는 달리 물리적 강제성을 지닌 행위규범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 개개인이 스스로 질서를 지킨다면 이러한 강제성은 동원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출현할 경우에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의 강제성에 호소되어야 할 것이다.

인류역사에 있어서 사회질서를 파괴하려는 자들은 항상 존재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제성에 기초한 법이라는 행위규범은 일찍부터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왔다. 하지만 서로간의 환경적 차이와 그것으로 인한 사상과 관습 등의 차이로 인하여 중국과 서양

* 창원대학 중국학과 교수

은 상당히 다른 정치적 전통을 보여주고 있다. 일찍이 서양에서는 도덕적 및 지적 指導가 법으로 구체화되지 않는 한 불완전하다는 사상이 그리스의 전통 속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전통중국에서는 정치 사상이 항상 그 성격상 법적이라기 보다는 윤리적 경향이 농후하였으며, 그들은 윤리적 교훈과 모범으로 사회를 개량해 나가고자 하였다 (Watkins, 1967, 8).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전통중국에서는 서양의 정치전통에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차원의 법치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서양에서 법의 역사는 곧 자연법과 실증법간의 대립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의 대립은 곧 도덕과 법의 상관관계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견해를 대표하기도 하다. 자연법학자들은 도덕은 법률의 존재적 근거이자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스토아 학파이후 서양의 자연법 사상은 비록 시대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나 법은 마땅히 도덕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관점에 있어서는 대체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실증법학자들은 도덕과 법률을 엄격히 분리시키고 양자간의 내재적 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선진유가는 도덕적·윤리적 경향을 중시하는 학파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덕치(공자)나 인치(맹자) 혹은 예치(순자)를 주장하였다. 이들은 비록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람에 의한 통치(人治)의 범주에 속한다. 그들은 도덕적 측면에서 정치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사상 내에서 정치와 윤리는 완전히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¹⁾. 선진유가가 도덕에 의한 정치를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치수단으로서 법의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후자에 비해 전자를 훨씬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도덕과 윤리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차적이며 보다 근본적인 통치수단이었음에 비해, 법은

1) 공자는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대가 바름으로써 영도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게 되지 않겠는가?”(政者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 (論語·顏淵)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도덕적 측면에서 정치를 파악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들을 보장하고 지원하면서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이차적이며 보조적인 통치수단이였다. 요컨대, 선진유가는 법보다는 도덕과 윤리를 훨씬 중요시하였으며, 또 도덕과 윤리는 법의 존재근거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서양의 자연법학자들이 갖는 견해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법률이 나름대로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였으나 유가 사상의 영향을 받은 전통중국에서는 법이 언제나 도덕과 윤리의 영향하에 있었으며, 결코 그것에서 해방되어 나름대로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오랫동안 유가사상의 지배를 받아왔던 유교문화권, 특히 중국과 한국 등의 국가에서는 지금에 와서도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사상적으로 규명해보기 위하여 유가사상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선진시대 유가(주로 공자와 맹자 그리고 순자를 가리킴)사상에 나타난 법률에 관한 견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선진유가는 법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떠한 원칙하에서 법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며 또 그 대상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논하고, 더 나아가 법의 기능을 유가의 핵심개념의 하나인 예와 비교하면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선진유가의 법률관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특징과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야기되거나 혹은 그것이 현실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변형되거나 왜곡되어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법의 함의

고대 그리스에서는 법을 ‘노모스’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나누어준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다. 라틴어로 법을 지칭하는 ‘jus’는 사실 ‘올바른 것’·‘법’·‘권리’라는 뜻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라틴어로 ‘jus’는 독일어로 ‘Recht’라고 부르며, 프랑스어로는 ‘droit’라고 부른다. ‘올바른 것’은 또한 정의를 상징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들 나라에서 법이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관념이 강하게 나타난다.(한견우, 1992, 127).

사실상, 정의의 측면에서 법을 파악하였던 이러한 관념은 일찍이 “악법도 법이다”라고 외쳤던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²⁾.

고대중국에서도 ‘法’이라는 글자는 ‘공평’ 혹은 ‘정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었다. 원래 법이란 글자는 약자이며, 漢나라때의 저서인 《說文解字》에 의하면, 그것의 고어는 ‘氵’과 ‘廌’ 그리고 ‘去’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였다고 한다. 여기서 ‘氵’ 즉 물(水)은 공평무사와 냉정함을 나타내는 의미이다; ‘去’는 양자간에 서로 협조하지 못하고 어긋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廌’는 외뿔을 가진 산양과 비슷한 신령스러운 동물을 가리킨다(武樹臣, 1994, 88·124-125). 廌라는 神獸는 고대중국의 한 씨족의 토템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설에 의하면, 이 신수는 재판석에 있는 자들, 즉 원고와 피고 중에서 혐의가 있어 보이는 자를 자신의 뿔로 들이받아 죄인을 구별해 내었다고 한다³⁾.

이러한 어원적 측면에서 볼 때, 법이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함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첫째로 법은 사람들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廌로 하여금 죄인을 찾아내게 하는 일종의 재판활동이었다는 점이다; 둘째로 법은 이러한 재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공평과 정의에 기초한 행위준칙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說文解字》에 나타난 합성어로서의 법자가 아닌 약자로서의 ‘法’이라는 글자는 甲骨文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그 후에 유행한 金文中서 처음으로 출현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나는 법이라는 글자는 합성어로서의 법자의 의미와는 약간 다르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

2) 한건우, 1992, 127-128 참조. 플라톤은 “법률이 관심을 갖는 것은 나라안의 어느 한 계급만의 특별한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 전체에 행복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The Republic, VII, 519)라고 말하였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은 욕망에 의해 영향을 받지않는 이성이다”(Politics, 1287a)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말들은 정의의 관점에서 법을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3) 신령스러운 짐승이 재판을 한다는 신화는 후세에 와서는 비록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남아 漢나라 이후 법관들의 관복에 해태무늬를 넣게 되었다(瞿同祖, 1984, 333).

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사고하다·의심하다·판별하다는 의미이다; 둘째는 따르다·준수하다·모방하다는 의미이다(武樹臣, 1994, 134). 금문에 나타난 법의 이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또 반드시 따르거나 준수해야 할 행위준칙이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고대중국에서 법이란 글자가 이처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의미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고대중국에서 말하는 법은 사실상 주로 형법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대중국의 갑골문자에는 ‘法’자가 출현하지 않고 있으며, 그것 대신에 ‘井’자가 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刑’자의 초기형태이다. 갑골문에 나타난 ‘井’자는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사람의 이름이다. 둘째는 지역의 이름이다; 셋째는 刑을 의미한다(武樹臣 1994, 161). ‘井’자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고대중국인들의 법률에 대한 최초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고대중국에서 말하는 법의 실질적인 내용은 바로 형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說文解字》에서도 “法이란 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 “夏나라때 정치가 혼란해지자 禹刑을 만들었다; 商나라때 정치가 혼란해지자 湯刑을 만들었다; 周나라때 정치가 혼란해지자 九刑을 만들었다”(《左傳·昭公六年》)라는 기록에서 말하고 있는 ‘禹刑’과 ‘湯刑’ 그리고 ‘九刑’은 夏·商·周 세나라가 제정한 법--형법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들은 고대중국인들이 주로 형법의 측면에서 법을 파악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고대중국에서 ‘刑’자는 형식을 뜻하는 ‘形’자와 구별이 없었으며, 형벌은 원래의 형태나 형식으로 되돌리는 것, 또는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원래의 형태나 형식이라는 것은 고대의 중국사회에서 통용되던 禮를 가리키는 것이며, 형벌은 의례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예치주의적 원리가 형법구성에 轉用된 것이다(레옹 방데르메르슈, 1988, 236). 후일 선진유가는 이러한 형식적 측면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법의 형법적 함의와 예치주의적 원리가 형법구성에 그대로 전용된 특

정을 보다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고대중국의 역사에서 예에 의한 통치가 확립되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일찍부터 자급자족적 농경문화가 발달하였으며, 이러한 환경 하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구조가 발전하게 되었다. 즉 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씨족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혈연과 혼인을 유대로 삼아 씨족과 씨족을 연합하여 부족을 이루고, 또 이러한 부족들이 연합하여 마침내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고대중국에서 국가는 결국 가족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주나라에 이르러 가장 확연하게 나타난다. 주나라에서는 봉건제도와 더불어 종법제도에 기초하여 나라를 다스렸다. 종법제도는 씨족을 크게 직계장손인 大宗과 나머지인 小宗으로 분류하며, 여러 소종들은 대종을 중심으로 결속되어서 상하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다. 주나라를 건립한 후 천자는 또 혈연관계의 親疎와 공로의 大小에 따라 전국의 토지와 백성들을 제후들에게 하사하였다. 토지와 백성들을 하사 받은 제후들은 또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토지와 백성들을 하급귀족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아랫사람은 반드시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하며, 제후는 천자에게 복종해야 했다. 그 결과 소위 “하늘아래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고, 땅위에 사는 사람들 중 왕의 신하가 아닌 사람이 없는”(詩經, 小雅, 北山) 사회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원래 상나라 때는 종교적 색채가 농후하던 예가 점차 정치적 가치를 획득하게 되었다. 당시 천자와 제후간에는 알현의 예가 있었으며, 제후들간에는 상호 초빙의 예가 있었으며, 제사에는 종묘의 예가 있었으며, 군사훈련에는 軍禮가 있었다. 귀납해서 볼 때, 이러한 예는 첫째, 통치자와 피 통치자를 구분 짓고, 또 통치계급 내부에서 권력을 재분배하는 척도가 되었다; 둘째, 예는 통치이데올로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유방식까지도 지배하게 되었다; 셋째, 예는 입법과 사법의 원칙이 되었다⁴⁾.

4) 예의 이러한 내용, 특히 예와 권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拙文 <순자의 예의 기능과 그 실행에 대한 상관적 고찰>, 경성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중국

결국 예는 원래 가족내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하였던 행위규범이었으나 가족이 점차 확대되어 마침내 국가로 발전하게 된 후에도 여전히 통치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국가 전체를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위규범인 예보다 강력하게 유지할 필요가 생겨나게 되었다. 즉 예가 제대로 지켜질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뒷받침해줄 법의 강제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법이 예치주의적 원리대로 운용되게 되었던 것이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에게 우애롭지 못한 자는 징벌하여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尙書·康誥》편의 내용은 종법제도의 규범을 지켜주는 법의 이러한 기능을 잘 반영해주고 있으며, 가족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종법적 규범은 이러한 체계하에서 법규범으로 전환되고 말았다(武樹臣, 1994, 60).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법을 ‘윤리법’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楊一凡·劉篤才, 1987, 9).

유가의 창시자인 공자는 서주시대를 모델로 하는 이상향을 꿈꾸었다. 하지만 주나라때의 통치수단이자 행위규범이었던 예가 형식과 등급간의 차이성을 중시하였던 반면에, 공자는 예의 내면성과 도덕성을 중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공자는 이전의 예가 지니고 있던 계급적이고 신분적인 색채를 없애고 그것을 도덕화시키고 윤리화시키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를 위시한 선진유가는 윤리도덕을 상당히 중시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도 통치수단으로서 법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공자는 《論語·顏淵》편에서 소송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또 《爲政》편에서 “형으로써 백성들을 정돈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맹자도 “오직 옳만으로 정치를 행하거나, 혹은 오직 법만으로 정치를 행할 수는 없다”(《孟子·離婁上》)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순자도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고 상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어느 통치자나 같다”(《荀子·正論》)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들은 선진유가도 통치에 있어서 법의 필요성을 전혀 무시하지 않고

문제연구》 제2집, 1988 참조.

5) 막스 베버 역시 중국의 이러한 법규를 ‘법률적인 규범이 아닌 윤리적인 규범’이라고 여겼다. 金曜基, 1992, 133 참조.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언급하는 법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선진유가의 저서에서는 어떤 개념에 대하여 정확한 정의를 잘 내리지 않고 있는데, 법개념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다. 그러므로 그들의 저서내에 산재하는 법이라는 글자는 전후의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분류할 때, 선진유가가 말하는 법의 함의는 크게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로서의 법에는 政令·제도·형법 그리고 상벌에 관한 조례 등이 포함된다고 하겠다(蕭公權, 1982, 110. 盧建榮, 1982, 162 참조). 공자가 말하는 “정도로 인도한다”(道之以政)(《論語·爲政》)는 구절에서의 ‘政’과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행해진다”(不令而行)(《論語·子路》)는 구절에서의 ‘令’, 그리고 순자가 말하는 “정령으로 정한다”(政令以定)(《荀子·議兵》)는 구절에서의 ‘政令’ 등은 모두 넓은 의미로서의 법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들이라고 하겠다. 또 순자는 “政令制度는 아랫사람을 대하기 위한 것이다”(《荀子·王霸》)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이란 백성들에 대한 통치를 말하며, ‘정령제도’란 통치의 수단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좀더 상세하게 말한다면, 政은 정책을 가리키며, 令은 명령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그리고 政令은 비교적 일시적인 법을 대표하는 것이며, 制度는 비교적 항구적인 법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넓은 의미로서의 법의 개념은 이처럼 많은 내용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의미로 선진유가가 언급하는 법을 해석하는 경우 그들의 사상에 있어서 법과 예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모호해져 서로 혼동되기 쉽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선진유가가 언급하는 법의 함의를 살펴보면 법은 확실히 예와는 구별되는 개념임을 잘 알 수 있다. 선진유가, 특히 순자의 저서에서는 예와 법을 함께 사용하는 ‘禮法’이라는 개념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의 典範 혹은 규범’을 가리키는 것이지(成中英, 1986, 455), 결코 예와 법을 동일한 차원에 두고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좁은 의미로서의 법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는 개념일까?

일반적으로 공자의 ‘齊之以刑’과 ‘君子懷刑’(《論語·里仁》), 맹자의 ‘省刑罰’(《孟子·梁惠王上》), 순자의 ‘賞有功, 罰有罪’(《荀子·強國》) 등의 구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刑’·‘刑罰’·‘賞’·‘罰’ 등은 대체로 예와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좁은 의미로서의 법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법의 개념은 특히 순자의 주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예를 음숭히 하고 현인을 존중하면 王者가 될 수 있고, 법을 중시하고 백성을 사랑하면 覇者가 될 수 있다”(《荀子·強國》)라고 말하고 있다. 이 문장에서 순자는 예와 법, 그리고 왕자와 패자를 대조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선진유가사상에 있어서 왕자는 패자보다 우위에 속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때, 왕자의 통치수단인 예는 패자의 통치수단인 법보다 우위에 있는 개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또 “士 이상은 반드시 예악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반드시 법으로 다스린다”(《荀子·富國》)라고 말하고 있다. 이 문장에서도 순자는 예는 士 이상의 수준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 반하여 법은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대조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예는 법보다 고차원의 행위규범임을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처럼 예와 상호 대조시켜 그것보다 하위개념으로서 법을 언급하는 경우, 이때의 법의 의미는 대부분 형법을 가리키는 것이다(梅仲協, 1969, 190. 唐凱麟·曹剛, 2000, 63). 이로써 선진유가는 고대중국의 실제역사에서 나타난 예와 법의 상호관계를 형식적 측면에서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2. 법의 시행원칙과 시행대상

선진유가는 덕을 쌓은 현인이나 성인이 정치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윤리의 연장선상에서 정치를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유가는 법을 예보다 하위개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교화와 같은 도덕적 전제조건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즉 먼저 도덕적 교화를 거친 후에 비로소 법을 시행해야 문제가 없

다는 것이다. 선진유가가 볼 때, 덕을 쌓은 자-군자-에 의한 교화가 이루어진다면 예라는 행위규범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지만, 교화되지 못하는 자들은 예를 지키거나 따르지 않거나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으로써 그들의 일탈행위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를 준수하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형벌의 시행대상-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우선 유가사상에 있어서 법의 몇 가지 시행원칙을 살펴보자.

(1) 법의 시행원칙

유가사상에 있어서 법은 도덕에 기초하여 제정되는 것이며, 또 그들은 정치를 도덕적 측면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법의 시행원칙도 이러한 각도에서 피력하고 있다. 즉 그들은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먼저 교화하고 나중에 처벌한다는 先敎後刑의 원칙, 예에 의거하여 시행한다는 원칙, 正名에 따라 시행하는 원칙 등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선진유가는 먼저 교화를 행하고 그런 후에 죄를 범하면 형벌을 가한다는 先敎後刑의 원칙을 주장한다. 공자는 도덕적 측면에서 정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바르게 하면 영을 내리지 않아도 백성들이 잘 따르며, 자신의 몸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비록 영을 내린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論語·子路》)라고 말하였으며, 또 “백성에게 허물이 있으면 그 책임은 나 한사람에게 있다”(《論語·堯曰》)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통치자는 항시 스스로 모범을 보여 아랫사람들이 자신을 따라 행동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공자는 도덕적 교화를 형벌을 실시하는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교도하지 않고 백성들이 죄를 범했다고 하여 살해한다면 이는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이다(《論語·堯曰》)라고 말하였다. 공자는 또 《論語·爲政》편에서 만약 政令과 형벌로 백성들을 다스린다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따르기는 하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부도덕하고 부끄러운 일임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법률이 가지는 한계인 것이다. 하지만 도덕과 예로써 교화한

다면 죄를 짓는 것이 부도덕하고 부끄러운 일임을 알게 된다⁶⁾. 그렇기 때문에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먼저 반드시 백성들에 대한 교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맹자는 인민의 생활안정이 중요하며, 인민의 생활안정이 없는 정치적 환경하에서의 형벌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백성들이란 일정한 재물이 있으면 일정한 마음이 있게 되고, 일정한 재물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이 없게 된다……죄에 빠진 뒤에 쫓아서 형벌을 내리는 것은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이다”(《孟子·滕文公上》). 이 구절도 형벌을 내리기 전에 우선 교화를 실시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교화의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고 있다. “좋은 정치라도 좋은 교화로써 백성을 얻는 것만 못하다. 좋은 정치는 백성이 두려워하고, 좋은 교화는 백성이 사랑한다. 좋은 정치는 백성의 재물을 얻고, 좋은 교화는 백성의 마음을 얻는다”(《孟子·盡心上》). 그는 또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면 이는 심적으로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덕으로 사람을 따르게 한다면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완전히 성심껏 따르게 된다”(《孟子·公孫丑上》)라고 말하였다. 앞의 두 구절에서 맹자는 정치와 교화, 덕과 힘을 대조시켜 교화와 덕의 우월성과 우선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맹자 역시 형벌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교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순자는 “교화를 행하지 않고 단지 형벌에만 의존하여 정치를 한다면 비록 자주 형벌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통제할 수 없다. 교화만 행하고 형벌을 가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마땅한 징벌을 받지 않는다면 더욱 기탄없이 날뛰게 될 것이다”(《荀子·富國》)라고 말하였

6) 부끄러움을 느끼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개인의 행위가 自願과 自覺에 바탕을 둔 것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공자에 의하면, 덕과 예에 의한 통치는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自願) 政令에 복종하게 하고 자각적으로 규칙을 준수하게 한다. 그러므로 先教後刑의 원칙은 결국 덕이나 예에 의한 통치, 즉 덕치나 예치를 먼저 실시한 후에 교화되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형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다. 순자의 이 말도 통치자가 우선적으로 교화를 행한 후에야 비로소 법에 의한 통치, 즉 형벌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요컨대, 공자와 맹자 그리고 순자는 통치를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을 통한 교화이며,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시행하여 형벌을 가한다면 이는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효율성도 훨씬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법은 반드시 예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한다. 선진유가는 모두 예를 법의 상위개념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예에 근거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우선 공자는 “예악이 흥하지 않으면 형벌이 도리에 맞지 않게 되고, 형벌이 도리에 맞지 않으면 백성들이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게 된다”(《論語·子路》)라고 말하였다. 공자의 이 말은 법을 시행할 때는 행위규범으로서의 예의 본질에 근거해야 비로소 그것이 도리에 부합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순자는 사람을 따르게 하는 방법으로는 덕과 힘 그리고 富 등 세 가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중에서 “덕에 의한 방법은 법령을 순조롭고 도리에 부합하게 한다”(《荀子·議兵》)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 “예의를 쌓고, 도덕을 존중하며…… 그런 후에 賞이 여기서 생겨나며……”(《荀子·議兵》)라고 말하였다. 위의 두 구절에서 보듯이, 덕에 근거하면 법령이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된다거나 상은 예에서 생겨난다는 등의 주장은 바로 법이 예에 의거해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법의 시행은 正名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법에 의한 통치에는 백성들이 잘 행동하면 賞을 내리고 그렇지 못하면 罰을 내리는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수단은 행위의 정도에 비례하여 적절하게 운용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과 벌은 정명의 원칙에 근거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명이란 名과 實이 부합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이 점에 대해서, 공자는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불순하고 도리에 맞지 않게 되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형벌이

도리에 맞지 않게 된다”(《論語·子路》)라고 말하였으며, 순자도 “名과 實이 바르지 않으면 시비가 불분명해지고, 그렇게 되면 법을 지키는 관리나 글을 읽는 儒者들이 모두 혼란에 빠지게 된다”(《荀子·正名》)라고 말하였다. 명과 실이 일치해야 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순자는 또 “형벌은 죄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상은 덕(功績을 가리킴)을 넘어서는 안된다”(《荀子·君子》)라고 말하였다. 즉 공이 있으면 상을 내려야 하며, 죄가 있으면 벌을 가해야 하나 각기 정도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정명 원칙에 의거하여 상벌을 내리지 않게 되면 혼란을 조성하게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순자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내리는 상이 공에 합당하지 않고, 형벌이 죄에 합당하지 않으면 정말로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된다……형벌이 죄와 일치하면 다스려지고, 일치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게 된다”(《荀子·正論》). 순자의 이러한 주장은, 형벌과 관련된 부분만을 고려할 때, 소위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넷째, 법은 공개하여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이롭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 순자는 천하사람들에게 “절도를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으며……남을 해치는 자는 오래 살 수 없으며, 위에서 금하는 것을 범하는 자는 안녕할 수 없으며”, 만약 법을 지키면 “각자 좋은 바를 얻게 될 것이며”,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나게 될 것”(《荀子·君子》)임을 알게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말은 법의 내용을 반드시 천하에 공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법을 지키면 이익이 됨을 알게 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게 행동하게 하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종합해서 볼 때,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시행원칙들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칙은 현대의 관점에서 보아도 전혀 문제가 안되며, 첫 번째 문제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록 내용적으로는 다소 다르지만, 덕에 의한 교화를 일종의 사회화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현대 국가에서도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교육이나 각종 다른 방법을 통한 사회화과정을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번째 원칙은 다소 문제가 있다.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강조하는 유가의 입장에

서 본다면 이것은 당연하고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현대사회는 도덕과 법의 영역을 명확히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현실사회에서 두 번째 원칙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 역기능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도덕윤리와 법률이 충돌하게 될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이 공적인 영역보다 우선시 되는 상황이 출현할 수도 있다(뒤의 법률관의 특징부분에서 상론함).

(2) 법의 시행대상

선진유가의 사상에서 법의 개념(좁은 의미에서의)이 예의 개념과 구분된다면, 그것의 적용대상도 당연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를 알아보기 이전에 여기서 우선 《禮記·曲禮》편에 기록되어 있는 “禮不下庶人, 刑不上大夫”라는 말의 의미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이 말은 “예는 서민에게까지 내려가지 않으며, 형벌은 대부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직역할 수 있다. 좀더 상세히 말한다면, 예는 대부이상의 신분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행위규범이며, 형벌은 주로 서민들을 다스리는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당시 대부이상의 신분은 전혀 형벌을 받지 않았으며, 또 서민에게는 예가 조금도 통용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았다.

먼저 “禮不下庶人”이란 말부터 살펴보자. 주지하다시피 춘추시대 이전에 예는 통치계급이 자기의 존엄과 위풍 그리고 신분의 고귀함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등급과 신분이 서로 다르면 예의규범 또한 서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예가 절대로 피통치자인 서민과 조금도 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비록 간단하기는 하지만 그들에게도 혼인의 예 등과 같은 최소한의 예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행위규범으로서의 예의 대부분의 내용은 피통치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禮不下庶人”이란 말은 바로 신분이 낮은 사람은 신분이 고귀한 통치계층과 도덕적으로

동등한 지위에 처할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楊一凡·劉篤才, 1987, 65).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일반적으로 상류사회의 신분있는 자들은 평민들이 받지 못하는 특수교육을 받아 어떠한 행위가 자신의 체면을 구기는 치욕스러운 행위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매사에 예를 준수하게 되며, 따라서 그들에게는 형벌에 의한 제재가 필요없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서민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翟同祖, 1984, 263). 따라서 “禮不下庶人”이란 말의 진정한 의미는 서민층에서도 최소한의 예가 존재하였으나, 예는 주로 상류층의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행위규범이었다고 해석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刑不上大夫”라는 말은 대부이상의 계층은 잘못을 저질러도 형벌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西周 초기 周公의 동생인 管叔과 蔡叔이 은나라의 후손인 武庚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자 주공은 반란을 진압한 후 무경과 관숙을 사형에 처하고, 채숙을 유배형에 처하였다(《史記·管蔡世家》). 또 東周시대에 와서는 많은 새로운 형벌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형벌의 시행대상도 평민에서 귀족에게까지 확장되었다(盧建榮, 1987, 163).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춘추시대 이전에도 통치계층이 잘못을 범하면 처벌을 면하지 못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刑不上大夫”라는 말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옳은가? 이 말은 결코 형벌은 완전히 피통치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통치계층은 어느 정도 특권을 가지며 평소에 일부 모욕적인 형벌은 대부이상의 신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楊一凡·劉篤才, 1987, 58).

공자이전의 중국사회에서 예와 법의 시행대상은 이처럼 사회적 신분에 따라 구분되는 경향이 농후하게 존재하였다. 하지만 공자를 위시한 선진유가는 이러한 경향을 지양하여 주로 도덕적 자질에 따라 예와 법의 시행대상을 구분지으려 하였다. 공자와 맹자는 예와 법의 시행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은 도덕적 수양에 따라 사회를 대체로 군자와 소인 두 계층으로 나누고 있으며⁷⁾, 이들 중

7) 군자와 소인은 도덕적 수양에 따른 분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자는 통치 계층을, 소인은 피통치계층인 일반백성을 가리킨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군자는 주로 예를 행위규범으로 삼는 반면에, 소인은 예를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형벌의 시행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순자의 사상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와 법의 시행대상에 대해서 순자는 “士 이상은 반드시 예악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반드시 법으로 다스린다”(《荀子·富國》)라고 말하였다. 순자가 말하는 ‘士 이상’과 ‘백성’이란 이분법은 공자와 맹자가 도덕적 수양에 따라 사회계층을 군자와 소인으로 나누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이전처럼 신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인의 도덕적 성취에 의한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순자는 또 “착한(善) 자는 예로써 대하고, 착하지 못한(不善) 자는 형벌로써 대한다”(《荀子·王制》)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善’이란 예에 근거하여 쌓은 덕에 의한 행위를 가리키며, ‘不善’이란 그렇지 못한 나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착한 자’는 실질적으로 士 이상의 계층-군자-을 가리키며, ‘착하지 못한 자’는 소인을 가리킨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나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소인이나 백성들 중에서 잘못을 저지르거나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상에서 선진유가사상에 있어서 법의 시행원칙과 시행대상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법의 시행원칙 방면에서 선진유가의 핵심은 반드시 도덕적 조건을 먼저 행한 후-교화를 실시하거나 예악을 흥하게 한 후-비로소 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그 기능상 항상 도덕이나 예에 예속되어 독립하지 못하게 되었다. 예와 법의 이러한 관계와 대조하여 법의 시행대상을 보면, 선진유가는 인의 경지에 이르러 자발적이고 자각적으로 예를 지킬 수 있는 도덕적 자질이 높은 군자를 예의 대상으로 여겼던 반면에, 인의 경지에 이르지 않아 자발적이고 자각적으로 예를 지킬 능력이 없어서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소인이나 백성들을 형벌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다.

3. 법의 기능

앞에서 법의 개념과 시행원칙 그리고 시행대상을 분석하면서 법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언급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의 기능이란 물론 좁은 의미로서의 법의 개념이 갖는 기능을 가리킨다. 이러한 기능은 전통중국에서 예가 갖는 기능과 함께 통치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파악되었다. 아래에서는 예의 기능과 대조해 가면서 법의 기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고대중국에서 형벌은 초기에는 주로 반란진압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⁸⁾. 하지만 그 후 사회가 점차 발전하자 형벌로써 교육을 돕거나(以刑輔教), 혹은 덕을 위주로 하고 형벌을 보조적 수단으로 삼는(德主刑輔) 사상이 나타나게 되었다(楊鴻烈, 1936, 27과 84). 선진유가는 고대중국의 이러한 사상을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켰다. 그들은 통치수단으로서 教와 刑, 혹은 德과 刑을 설정하여 이들의 기능을 상대적으로 구분하여 항상 전자를 후자보다 우선시하였다. 공자는 '政으로 인도하고 刑으로 다스리는 것보다는 德으로 인도하고 禮로써 다스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순자는 법을 예의 파생물로 여기고 있다(楊一凡·劉篤才, 1987, 121). 즉 그들은 예와 법을 기능적으로 구분하여 전자에 우선적인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만약 이것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후자를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예와 법의 이러한 기능적 분화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선진유가의 사회관 혹은 분업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전통과 근대의 차이점의 하나는 근대사회에서는 법적으로 인간을 파

8) 《尙書·呂刑》편에 “蚩尤가 다섯 가지 형을 만들어 법이라고 칭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고대중국에 蚩尤부락은 80여 개의 씨족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들은 닳치는 대로 다른 씨족을 침략하였다. 그들은 호령을 통일하고 패배한 다른 씨족들을 노예로 만들어 반란을 저지할 목적으로 다섯 가지 잔혹한 형벌을 제정하여 이를 법이라고 칭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다섯 가지 형이란 사형, 코를 베는 형, 귀를 베는 형, 얼굴에 먹물을 남기는 형, 생식기를 자르는 형을 가리킨다.

악하지만, 전통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가치평가로서 인간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인간을 인정하고 파악하는 것에 비하여, 인간에 대한 가치평가로서 인간을 파악하고 인정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직관적으로 의식된 규범들의 경험적 적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구체적인 속성과 능력의 등급에 따른 평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평가는 주체의 도덕적 속성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다른 인간들과 구분하는 데서 한 인간을 특징짓게 된다(문성훈·이현재, 1996, 197). 유가의 사회관은 바로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유가는 인간들 사이에는 사회적으로 똑똑하거나 어리석은 자들 혹은 현명하거나 그렇지 못한 자들(智愚賢不肖)간에 구분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는 마땅히 자신의 능력에 맞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가의 분업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자가 주장하는 정명론이나 사회계층을 ‘勞心者’와 ‘勞力者’로 구분하는 맹자, 그리고 ‘천한 자가 귀한 자를 섬기고, 현명하지 못한 자가 현명한 자를 섬기는 것은 천하의 通義이다’(《荀子·仲尼》)라고 주장하는 순자의 관점은 모두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결코 신분에 따른 구분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바로 후천적인 노력에 의한 구분에 근거하고 있으며, 선진유가는 개인의 후천적 능력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차등적 분배야말로 공평한 것이라고 여겼다.

능력에 따른 사회적 차이 외에 또 친속관계에 있어서도 친분의 정도와 배분 그리고 연령 등에 근거하여 형성된 차별-親疎·尊卑·長幼-이 존재하였다. 능력에 따른 귀천 즉 사회적 등급의 상하가 사회에 있어서 개인의 지위와 역할을 결정짓는 요인이라면, 친소와 존비 그리고 장유 등은 가족내에서 개인의 지위와 역할을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유가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개인적 능력에 기초한 것과 혈연에 기초한 것-의 종합에 기초한 사회질서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원리는 바로 “仁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義는 적합함(宜)을

말하는 것이며, 의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현인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中庸》의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전자는 가족내에서 올바른 인간관계(仁)를, 그리고 후자는 사회내에서 올바른 인간관계(義)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요인에 근거한 인간간의 차등관계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은 바로 禮였던 것이다. 즉 예의 본질은 바로 인간을 서로 구분지우는 것이다.

예라는 것은 차별지우는 것이다(《禮記·樂記》).

예는 구별지우는 것을 중시한다(《荀子·樂論》).

人道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辨)하는 것이며, 분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분짓는 것이며, 구분지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이다(《荀子·非相》).

위의 세 구절은 예의 이러한 기능을 잘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예는 사회내에서 인간들을 서로 구분지움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 반하여, 법은 이러한 구분을 어기는 일탈행위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력인 것이다.

예와 법의 이러한 기능적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大戴禮記·禮察》편에 “예라는 것은 일이 장차 발생하기 이전에 금지시키는 것이며, 법이라는 것은 일이 이미 발생한 연후에(처벌을 통하여) 금지시키는 것이다”(禮者, 禁於將然之前; 而法者, 禁於已然之後)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선진유가사상에 있어서 예와 법의 기능적 차이를 단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다. 선진유가에 의하면, 사회의 구성원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개인적 수양에 힘써 덕을 함양하고 인을 실천하게 되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과 동시에, 자신은 또 선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을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는 것’(克己復禮)이 仁이라고 주장한 공자의 말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 덕과 예로써 사람들을 이 방향으로 인도하려는 것이 선진유가가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통치방법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법률은 단지 소극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을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악행을 저지른 후에 그것을 징벌하는 기능만 있을 뿐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선행을 행하게 하는 기능은 없다⁹⁾.

다시 말해서, 예는 주로 교화를 통하여 범죄를 미리 일어나지 않게 하는 事前的 기능¹⁰⁾을 가지는 반면에, 법은 주로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단지 그것을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금지시키는 事後的 기능만을 가질 따름이다. 그리고 법의 이러한 사후적 기능은 예의 사전적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유가는 가능한 한 예에 의한 교화를 통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였으며, 특히 공자는 법을 필요악적인 존재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無訟’, 즉 ‘소송이 없는 사회’를 이상향으로서 추구하였던 것이며, 심지어 善인이 나라를 다스리면 “포악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어 정부는 사람을 처벌하는 형벌을 폐기해도 된다”(《論語·子路》)라고 말하면서 법이 필요없는 사회를 꿈꾸기도 하였다.

현대법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법의 사회적 기능에는 사회통제와 분쟁해결, 그리고 여러 가지 가치를 배분하는 배분적 기능이 있다. 사회통제 과정에는 사회화, 즉 사회의 규범과 가치가 개인들에게 내면화되는 과정과 제재(sanction)라는 외부적 압력을 가하는 과정이 있다. 제재에는 또 적극적 제재인 보상과 소극적 제재인 처벌이 있다(양진, 1990, 223-225). 이렇게 볼 때, 선진유가들이 말하는 예와 법은 현대법학자들이 말하는 법의 개념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즉 선진유가가 중시하였던 예는 현대법학자들이 말하는 법의 가치배분적 기능과 사회통제중 사회화 기능에 해당되는 반면에, 선진유가가 말하는 법은 현대법학자들이 말하는 법의 기능 중에서 외부적 압력을 가하는 제재적 기능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 9) 후대의 유가는 이 점을 잘 피력하고 있다. 먼저 陸賈는 “법령이란 악을 주살하는 것이지 선을 권하는 것은 아니다”(夫法令者所以誅惡，非所以勸善)(《新語·無爲》)라고 말하고 있으며, 桓寬은 “법은 사람을 처벌할 수는 있으나 사람으로 하여금 청렴하게 하지는 못하며, 사람을 죽일 수는 있으나 사람으로 하여금 인을 행하게 하지는 못한다”(法能刑人而不能使人廉，能殺人而不能使人仁)(《鹽鐵論·申韓》)라고 말하였다.
- 10) 《大戴禮記·禮察》편에 예의 이러한 기능을 잘 말하고 있다. “(예는) 악이 싹트기 전에 잘라 없애고……백성들로 하여금 선으로 향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면서 스스로 느끼지 못하게 한다”.

요컨대, 유가사상에서 볼 때, 도덕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 즉 道라는 객관적 질서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역시 도에 기초한 가치를 그 내재적 척도를 삼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예라는 도덕규범 내에서만 정당화되며, 형벌부과를 통한 예의 실효성 확보, 즉 도덕규범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기능이 더욱 중시되었던 것이다(이재룡, 1997, 264-266 참조).

4. 법률관의 특징

중국은 고대부터 예와 법이라는 두 가지 메커니즘을 결합한 통치체제에 의해 다스려져 왔으며, 선진유가는 이러한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선진시대 유가사상에서 예는 도덕적 함의를 내포한 행위규범으로 파악되었으나, 漢대이후 유가사상이 정치이데올로기로 되면서부터 예에 의한 통치는 상당히 왜곡되고 만다. 즉 이때부터 예는 도덕적 규범이나 법률적 규범과는 달리 행위자의 행동이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요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의 외현적 국면만을 규제하게 되었던 것이다¹¹⁾. 이러한 점은 선진유가가 결코 의도하였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현실사회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현실사회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이 아닌가 싶다. 아래에서는 선진유가의 법률관과 관련된 몇 가지 특징과 이로 인하여 생겨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선진유가사상의 한가지 특징은 정치와 도덕을 같은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현실사회에서 통치자들에게 이

11) 정치화된 예가 행동의 외현적 국면만을 규제하는 것임에 반하여, 도덕은 행동의 내면화된 국면인 의식의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이다. 레옹 방데르메르 슈, 1988, 231-232 참조. 정치화된 예는 기존의 세속권력 질서에 대한 성실한 준행을 대단히 중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도덕적 자유에 대한 자각이 결여될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 정치적 권위·사회적 전통과 습속을 극복하고 그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를 갖지 못하게 된다. 金耀基, 1992, 136.

용되어 피통치계층의 행위를 규정하는 ‘진정한 도덕 아닌 도덕’, 즉 형식화되고 정치화된 도덕으로 전환되기 쉽다. 일반적으로 도덕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기초할 때 비로소 올바른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선진유가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선진유가처럼 도덕적 측면에서 정치를 바라본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역으로 통치자의 입장에서 도덕을 이용하려 든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즉 정치권력이 도덕을 교조화시키게 되면 그 도덕은 자유의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강요된 도덕’으로 전환되고 만다.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인격이나 개성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없으며, 실제로 전통중국은 이러한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楊鴻烈, 1936, 49-50). 또 정치와 윤리가 상호결합된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선진유가는 예를 근본적인 것으로, 법을 보조적인 것으로 여겼다. 법은 보조적 지위에 처해있었으므로 목적이 아닌 수단에 불과하였으며, 입법의 근거는 도덕윤리, 즉 예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과 윤리 혹은 예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 한 법률도 변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전통중국에서는 법이 간단하였고 오랫동안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楊鴻烈, 1936, 2-3).

둘째, 도덕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선진유가는 법에 의한 통치보다 사람에게 의한 통치(人治)를 더욱 중시하였다.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정치는 잘 시행되나 그러한 사람이 없으면 정치는 소멸되고 만다”는 《中庸》의 말이나, “법은 독립하여 행해질 수 없으며……사람을 얻으면 다스려지고, 그렇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그러므로 군자가 있으면 법이 비록 간단할지라도 두루 만사를 다스릴 수 있으나, 군자가 없으면 비록 법이 구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혼란에 빠지게 된다”(《荀子·君道》)라고 한 순자의 말은 인치를 강조하는 전형적인 예라고 하겠다. 인치를 강조한 선진유가가 숭상하였던 성인의 모델은 堯·舜이었으며, 역사상 이러한 성인은 자주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간혹 출현할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가 없으면 비록 법이 구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순자의 논리에 따른다면, 전통중국의 역대왕조는 군자라고 할만한 황제가 별로 출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줄곧 혼란에 처해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진유가의 이러한 관점에 대하여 법가의 집대성자인 한비자는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있다. 그는 만약 권세와 법도를 버리고 요·순의 출현을 기다린다면 그들이 나타나야 비로소 국가가 다스려질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성인은 千世에 한번 출현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천세 동안은 혼란에 처해있다가 성인이 출현한 一世 동안만 나라가 안정되게 다스려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韓非子·難世》). 즉 한비자가 볼 때, 선진유가가 주장하는 인치의 결정적인 약점은 성인이 출현하는 그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혼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통중국의 역사에서는 공자이후 요·순과 같은 성인이 거의 출현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황제들은 선진유가가 말하는 현인이나 군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치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중국은 자주 혼란에 처하였으며, 이러한 통치자는 덕이나 예에 의한 통치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하고 또 자신의 의지를 뒷받침해 줄 통치수단을 찾게 되었으며, 그 결과 전통중국에서는 율령과 행정기율 등이 법치가 아닌 인치¹²⁾의 발전을 위해 결정적 기초를 제공하였던 것이다(錢世明, 1999, 13).

셋째, 선진유가는 인간의 내재적 측면을 중시하였으므로 가능하다면 도덕과 윤리만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은 법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예에 종속된 하위개념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법이 필요없는 사회, 그리고 소송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꿈꾸었다. 원래 소송은 시비를 가리고 정의를 찾는 것이나 선진유가는 이를 선호하지 않았다. 공자는 “소송안건을 심판함에 있어서 나는 다른 사람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반드시 백성들이 소송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이다”(《論語·顏淵》)라고 말하였으며, 순자도 “공자께서 노나라의 사구벼슬을 하실 때父子간에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공자는 그 아들을 구금하여 삼 개월을 끌면서 그 죄를 심판하지 않자 그 아버지가 소송을 취하하였

12) 여기서 말하는 ‘인치’는 선진유가가 말하는 도덕이나 예에 근거한 ‘인치’가 아니라 전제정치나 독재정치처럼 통치자가 법위에 군림하면서 임의대로 통치하는 것을 가리킴.

다”(《荀子·宥坐》)라는 사실을 인용하고 있다. 선진유가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한편으로는 도덕에 의한 교화의 효용을 최대한 확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政刑의 사용을 최대한 축소시켜 궁극적으로는 법률이 필요없는 사회를 추구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선진유가의 이상은 형벌이 도덕적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정당화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형벌이 필요없게 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공자 같은 경우에는 교화에 의해 각 개인이 自主自律의 도덕주체로 된다면 근본적으로 형벌이 필요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謝仲明, 1998, 234-235).

물론 이렇게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투쟁이나 분규가 발생하지 않았던 적은 한시도 없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爭訟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법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점차 발전하여 왔으며, 사회정의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점차 확립되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윤리적 가치가 팽배하였던 전통중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만약 투쟁이나 분규가 발생하면 어느 한쪽의 양보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도덕과 법이 상충될 경우 선진유가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는가를 살펴보자. 섭공이 공자에게 “우리 마을에 솔직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남의 양을 훔친 것을 증명하였습니다”라고 말하자, 공자는 “우리 마을의 솔직한 자는 그것과 정반대인데,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숨기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숨긴다. 정직한 도리는 여기에 있습니다”(《論語·子路》)라고 대답하였다. 법보다 윤리도덕을 더욱 중시하였던 공자로서는 어쩌면 이와 같은 대답이 지극히 당연하였을지도 모른다¹³⁾.

공자의 이러한 입장에 반대하여 한비자는 초나라의 한 사람이 아버지가 양을 훔친 사실을 관리에게 고발하자 관리가 그 자를 사형에 처하는

13) 맹자도 舜의 아버지가 살인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는 질문을 받고는 “그는 오직 몰래 아버지를 업고는 해변가로 도망가서 일생을 보내고 기쁜 마음으로 부친을 모시면서 천하를 잊어버린다”(《孟子·盡心上》)라고 대답하였는데, 이 역시 공자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하겠다.

판단을 내린 사실을 인용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효와 군주에 대한 충은 상치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잘못을 저지른 자를 눈물을 흘리면서 죽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仁이며, 죽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法이다”(《韓非子·五蠹》)라고 말하였다. 한비자가 볼 때, 이러한 사적 차원의 옳은 공에 배치되기 때문에 용인할 수 없는 죄악이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 도덕에 의한 통치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법에 의한 통치만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한비자의 이러한 주장은, 비록 전제군주를 위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도덕을 강조하는 선진유가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선진유가는 도덕을 강조하기 때문에 권리보다는 의무를 중시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법과 도덕의 차이점의 하나는 전자의 양면성과 후자의 일면성이다. 즉 법은 권리를 인정하고 의무를 부여하는데 반하여, 도덕은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의무만 부과한다는 것이다(김철수, 1983, 4-6 참조). 전통중국은 유가사상의 영향아래 예를 중요한 행위규범으로 설정하였으며, 예치주의적 시각에서는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한 과실행위의 체계화가 지니는 의미, 다시 말해서 형법의 근본정신은 피통치자의 권리를 국가권력의 횡포로부터 보호하는데 있다는 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예치주의가 의무의 개념만 강조하고 권리의 개념을 전적으로 외면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사상의 영향을 받았던 중국의 법규범에는 권리규정이 적고 의무규정이 많은 것이 특색이다(吳經熊, 1984, 194-195. 김철수, 1983, 33). 그 결과 중국의 역사에서 피지배계층이 정부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획득하거나 확보하려는 노력이 극히 드물었으며,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거나 지켜주는 법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전통중국에서 명문화된 형법은 단순한 권력의 새로운 도구로 화하여 예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훨씬 더 잔인하게 통치자의 손에서 조종당하게 되어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지주로 변모하게 되었던 것이다(레옹 방데르메르슈, 1988, 241-242).

결 언

이상에서 선진유가의 법률관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위의 분석에서 우리는 선진유가의 법률관은 서양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중국과 서양에서 법의 출현배경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즉 고대중국에서는 국가의 출현과 통합과정에서 통치대상, 즉 피통치자가 증가하게 되자 종전의 혈연중심의 사회에서 행위규범으로 작동하였던 예만으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 법률이 출현하게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법률이 예를 대신하지 못하고 그것의 예속적 지위에 머물게 되고 말았으며, 이러한 배경하에서 생겨난 법은 예에 기초한 사회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기능을 가진 형법에 불과하였다. 고대중국에서는 예와 법(형법)의 두 가지 기능에 의존하여 국가를 통치하였다. 선진유가는 고대중국의 이러한 이중적 통치구조를 형식적으로 그대로 계승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에 나타나는 법 역시 형법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선진유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측면이 아니라 처벌을 위주로 하는 형법의 측면에서 법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법이 필요 없는 사회’를 추구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인간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서양의 법률관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선진유가는 예와 법의 이중적 구조 중에서 전자의 기능을 훨씬 더 중시하였기 때문에 윤리적 교훈과 모범으로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후자는 단지 전자에 의해 교화되거나 사회화되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제재였으며, 그것의 주요한 목적은 통치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회제도에서 이탈하는 자들에 대한 재사회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관의 영향을 받은 전통중국 사회에서 법은 사회내에서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 것이 아니라, 예를 어기거나 혹은 통치자가 요구하는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메커니즘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법은 양면성을 가지는 통치수단이였다. 피통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

은 통치자에 대한 충성과 의무를 강요하는 채찍이었던 것이다. 통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수단이었으며, 이러한 체제하에서 통치자는 초법적 존재로 군림하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법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법치는 서양과 같은 '법의 통치'(rule of law)가 아니라 단순히 법을 이용하는 통치, 즉 '법에 의한 통치'(rule by law)에 불과한 것이다.

서양에서는 사회적 투쟁이 사회의 도덕적 발전과정에서 구조형성적 힘이 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서양의 역사에서 투쟁은 그러한 기여를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선진유가사상에 있어서 핵심개념의 하나인 예는 '구분을 지우는' 특징이 있지만 그 목적은 사회적 조화를 추구하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송조차도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이상향으로 꿈꾸었던 것이다. 그 결과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은 전통중국에서는 투쟁을 통하여 상대방부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거나 혹은 자신의 권리를 획득하려는 경향은 거의 출현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조화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분규가 발생하면 시비를 가리키기보다는 대부분은 지위가 낮거나 배분이 낮은 사람들이 전체를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거나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체제하에서 개개인은 자유나 권리에 대한 자각이 거의 없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설령 정치적 권위나 사회적 전통과 습속 등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에 대항하거나 그것들을 극복할 근거를 갖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선진유가의 법률관과 그것의 영향을 받은 전통중국 사회에 있어서, 법은 결코 목적이 아닌 수단에 불과하였으며, 개개인은 또 법의 객체나 대상이었지 결코 그것의 주체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념이 성행하는 체제하에서 통치자는 항상 법위에 존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과거 유가사상의 지배를 받거나 그것의 영향을 받았던 지역에서는 지금도 인치적 요소가 상당히 잔존하고 있으며, 서양과 같은 법치가 아직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參考文獻

《詩經》

《左傳》

《四書》

《韓非子》

《禮記》

《史記》

《新語》

《鹽鐵論》

《說文解字》

方東美等,《中國人的心靈》,臺北,聯經出版社,1984.

成中英,《知識與價值》,臺北,聯經出版社,1986.

金耀基,《中國社會與文化》,香港,牛津大學出版社,1992.

武樹臣,《中國傳統法律文化》,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4.

楊一凡·劉篤才,《中國的法律與道德》,黑龍江省,人民出版社,1987.

黃俊傑等,《理想與現實》,臺北,聯經出版社,1982.

瞿同祖,《中國法律與中國社會》,臺北,里仁書局,1984.

錢世明,《儒學的復興》,北京,京華出版社,1999.

蕭公權,《中國政治思想史(上)》,臺北,聯經出版社,1984.

레옹 방데르메르슈, <고대중국에 있어서 예와 법의 제정>, 동방학지 제 57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8.

김기현 역,《유학과 현대세계》,서울,서광사,1998.

김철수,《법과 사회정의》,서울대학교 출판부,1983.

문성훈·이현재 역,《인정투쟁》,서울,동녘,1996.

양진,《법사회학》,서울,민음사,1990.

이재룡등,《현대의 위기》,서울,예문서원,1997.

한건우,《법학개론》,서울,신영사,1992.

F. Watkins, *The Political Traditions of The West*, Harvard Univ. Press, 1967.

朱子学与朝鲜理学的传衍与发展*

李 相 圭**

<目 次>

- | | |
|----------------|------------------|
| I. 绪 言 | 2. 朝鲜理学传衍过程及代表人物 |
| II. 本 文 | III. 结 语 |
| 1. 朝鲜理学勃兴的历史根源 | |

I. 绪 言

儒家学术思想为亚洲学术文化之主流，此一学术思想之特质，重视人生道德之实践，故其一切学问均以“人”之心性问题为核心，以期达成一种“至善最好”的人格为最终理想。孔子的“仁”说，即是这一学术思想的核心，发展到孟子，他更以“仁义”为言，发扬光大这一核心，而使儒学日益昌盛。由于秦朝用法家之说，讲农战，统一了中国，深感儒家倡行仁政，称古论今，是当时暴政的克星，就爆发了“焚书坑儒”的惨剧，也因此大失了人心，仅仅统治了四十年，就被人民大众推翻了。汉初，鉴于秦的失败，就改用道家黄、老之术，来与民休息；然消极无为的政治，总是不能长治久安的，终于不得不变儒家为一尊，儒家从此就成为中华文化的主流了。贾徽、郑兴、贾逵、郑众、许慎、马融、郑玄诸大师接踵而起，尤其郑玄遍注群经，兼通今古文之学，而集其大成，此后儒学就是郑学的天下了，而这一经学时代。汉魏诸儒，兄是以发明经旨为务；道家讲玄理所生发的“无”的智慧，佛教讲空理所

* 本论文由圣心外国语大学之校内研究基金资助完成

** 圣心外国语大学 外国语通商学部 中国语专攻 教授

生发的“空”的智慧，虽然都达到了玄深高妙的境界，但是由“玄智”、“空智”而阐发出来的“道”毕竟不是儒圣之“本天道为用”上达天德，天人合一，下开人文、齐家、治国平天下的天道、人道、大道，而彰显此弘规大道的使命，经两汉、魏晋、南北朝、隋唐的千年沉晦，历史地落在宋明儒者的肩上。儒学在玄学、道教和佛教思想的激荡下，用玄远幽深的义理，从象、数、理、气、心、性……各方面来肯定人生的价值，强调人格的高卓，弘扬人文的精神。而正是在千年沉晦后，孔孟之道在儒学之自觉，道教之复兴，佛教之调和，三教归一共同作用之下，于宋初开始了一个中国学术思想史的新纪元——宋明理学时期。而将理学推向顶峰的则是南宋时期的朱熹，朱子的学说，大体上看是继承和发展了程颐的学说，吸收周、程(颢)、张子及程门诸子的思想精华，而以对论、孟、诗、书、易、春秋、学、庸的钻研为基础，并旁及佛、老，而集古今之学说为一统，可谓精力绝伦。其说虽不无破绽，又多为采集诸家之言，然其伟大之处，就在于集前儒之大成。其博学多议，实可谓古今独步。其影响於天下万世，对亚洲各国，尤其对韩国、日本影响巨大。

对朱子的学术成就，李珣在其理学读本《圣学辑要(八)》圣竖道统章中评价说：“孔子集群圣之大成，朱子集诸竖之大成，圣人生知安行，浑然无迹，难可猝学，惟朱子积累功夫，可以取以为模范，先学朱子，然后可学孔子”可见栗谷对朱子之学术成就评价之高，他并在此话后加自注曰：“观明道行状可见资禀之高，观朱子行状宜深体功夫之密”从中不难体会到栗谷对朱子学说严密精深的敬佩，同时也体现出朱子学对韩儒的深刻影响。

II. 本文

1. 朝鲜理学勃兴的历史根源

韩国之有儒学，当始于汉代。汉武帝元封三年(西元前一零八年)，灭卫氏朝鲜，置四郡。自此至西晋末年，朝鲜为中国郡县约四百年。汉代郡国，设有学官，朝鲜四郡，当不例外。五胡之乱，中国退出朝鲜半岛，韩人的自主政权逐渐成长，形成高句丽、百济、新罗三国鼎立的局面。《北史》云“书

有五经、三史、三国志。”《旧唐书》亦云“其书有五经。”同书又云“其书籍有五经子史，又表疏并依中国之法。”三国之中，设立太学最早者为高句丽。高丽朝史家金富轼撰《三国史记》曰：“小兽林王二年(西元三七二年)，立太学，教子弟。”

在高句丽设立太学后二年，百济亦开始置博士，李朝史家徐居正撰《东国通鉴》曰：“晋宁康二年(西元三七四年)，百济以高兴为博士。百济自开国未有文字，至是始有书记。”

《三国史记》曰：“近肖古王三十年(西元三七五年)，王薨。古记云百济开国以来，未有以文字记事，至是得博士高兴，始有书记。然高兴未尝显于他书，不知其何许人也。”

据此，百济至四世纪下半叶始置博士，但日本书纪却以百济博士王仁渡日的年代，系于应神十六年乙巳西元二八五年，其间相差约一世纪，足证日本书纪记载失实。不过百济兴起于带方郡故地，儒学当早已随着汉人传播，这兄能说是百济政府正式设置博士的年代。百济既在四世纪末，已有向外国输出儒学的的能力，则儒学在它本国必早有相当的基础。不过史缺有间，当时的详情以不得而知。今兄知百济于梁武帝时，曾有表请毛诗博士之举，唐贞观以后，曾不断派遣子弟赴唐留学。

新罗兴起于朝鲜半岛的东南隅，处于接受中国文化较不方便的地位，所以儒学的传入，比高句丽百济为迟。新罗智证王四年(西元五零三年)，始称王号，定国号为“新罗”。‘新’者德业日新，‘罗’者网罗四方之义。这说明六世纪，新罗已受到儒学某种影响。至贞德女主二年(西元六四八年)，金春秋如唐，诣国学，观释奠而还，新罗始知释奠之体。五年(西元六五一年)，置“大舍”二人，据《东国文献备考》注，“大舍”乃国学之官，说明新罗在七世纪中叶，已有学官讲授儒学。当时不仅贵族子弟接受儒学教育，似乎民间俊秀也有接受儒学教育的机会了。《三国史记》曰：“及壮，自知读书，通晓义理。父欲观其志，问曰：尔学佛乎？学儒乎？对曰：愚闻之，佛，世外教也，愚人闲人，安用学佛为，愿学儒学之道。父曰：从尔所好。遂就师，读孝经、曲礼、尔雅、文选，所闻虽浅近，而所得愈高远，魁然为一时之杰。”

唐灭百济高句丽，战果终于为新罗所独吞。新罗既统一朝鲜半岛，更加积极的推行儒学教育。神文王二年(西元六八二年)，立国学，置卿一人。孝昭

王元年(西元六九二年),以薛聰博学能文,命以方言讲九经,作“吏读”。这是推进儒学大衆化的初步努力。景德王六年(西元七四七年),设立通文博士及助教,国王亲临国学听讲,奉祀文宣王十哲七十二弟子于太学。当时新罗文教之盛,已引起唐玄宗的注意。《旧唐书》载:“上谓寿日:新罗号为君子之国,颇知书记,有类中华,以卿学术,善与讲论,故选使充此,到彼宜阐扬经典,使知大国儒教之盛。”

后来玄宗幸蜀,新罗使者溯江至成都朝贡,玄宗御制御书五言十韵诗赐新罗王,其中有“衣冠知奉礼,忠信识尊儒”之句,足见当时新罗已够得上“奉礼”“尊儒”的“君子之国”。元圣王四年(西元七八八年),设立读书出身科,专凭儒学修养取录人才。这是韩国科举的起源。于是儒学更受到一般社会的尊崇了。《三国史记》载:“元圣王四年春,始定读书三品以出身。读春秋左氏传、若礼记、若文选,而能通其义,兼明论语孝经者为上,读曲礼论语孝经者为中,读曲礼孝经者为下。若博通五经三史,诸子百家者,超擢用之。前兄以弓箭选人,至是改之。”

新罗不但在国内尽力推行儒学教育,并且不断派遣留学生赴唐留学。《册府元龟》载:“敬宗宝历元年(西元八二五年)五月庚辰,新罗国王金彦升奏:先在太学生崔利贞、金叔贞、朴季业四人,请放还蕃。其新赴朝贡金允夫、金立之、朴亮之等一十二人,请留在宿卫,仍请配国子监习业,鸿胪寺给资粮。从之。”又《唐会要》云“开成……五年(西元八四零年)四月,鸿胪寺奏:新罗国告哀,其质子及年满合归国学生等共一百五人,并放还。”

唐朝一次放还的新罗学生竟达百人之多,反映当时新罗是如何热心的吸收中国文化。后日韩国儒学的兴隆,实不能不归功于新罗的开路工作。

王氏高丽代兴,历代国王虽崇信佛教,但对儒学亦非漠不关心。高丽太祖开国,即颇注意儒学教育,创建学院,聚六部生徒教授,后作训要十条,亦谆谆告诫子孙“博观经史,鉴古戒今。”高丽光宗时,采纳后周人双冀的建议,开始科举取士(西元九五八年),仿唐制分制述(进士)、明经二科。制述科试诗赋策,明经科试五经。高丽成宗更竭力奖励学问,在即位的那年(西元九八二年),便下令州郡县选俊秀子弟诣京习业,并遣学生崔罕王琳赴宋留学。八年,于十二牧置经学博士。九年,在西京设修书院,令诸生抄经史保藏。十一年(西元九九二年),又仿唐设国子监,立文宣王庙于国子监,并令地方

官广营学舍，量给田庄，教曰：“王者化成天下，学校为先，祖述尧舜之风，聿修周孔之道，设邦国实章之制，辨君臣上下之仪，非任竖儒，岂成轨范！揆天拓地，保大定功，固将崇奖而行，不可斯须而废，……其令有司相得胜地，广营学舍，量给田庄，使之金谏为真，玉磨成器。凡在诸儒，尚知予意。”

但高丽显宗以后，契丹屡次入寇，国家多事，官学渐衰。侍中崔冲深表忧虑，收召后进，教诲不倦，四方子弟闻风云集，崔冲分设乐圣、大中、诚明、敬业、达道、率性、进德、大和、待聘等九斋，加以收容，时称“侍中崔公徒”。凡应科举子弟，必先列名九斋，故时入尊称崔冲为“海东孔子”。当时名儒聚徒教授者，除崔冲外，尚有郑倍杰、庐旦、金尚时等十一人，皆广收学徒，和崔冲之徒合称“十二公徒”。一时儒学得以维持于不坠，实应归功于此种私学。高丽睿宗时，复谋振兴官学，在国学设置七斋，并立养竖库以养竖士。

自宋室南渡，高丽内则变乱迭起，外则金元先后入侵，国命不绝如缕，遂不遑顾文教，有志研究儒学者只能向僧侣学习。但长夜漫漫终于露出了一线曙光，那便是理学的输入。至元二十六年(西元一二八九年)，安晦轩从忠烈王在大都得到新刊的朱子全书携带回国，这是宋儒性理之学东传高丽之始。忠宣王时，白颐正在大都修程朱学，回国后传授于李齐竖、朴忠佐。不久，忠肃王又采纳权溥的建议，令秘书省书籍所刊行《四书集注》。於是理学开始在高丽传播，终于发展而为李朝五百年的正统学术。

李朝开创之初，鉴于高丽的佞佛亡国，决以儒家的合理主义代替佛教。李太祖首先设立成均馆，掌管儒生教育。李定宗继之，成立五部学堂(后改为四部学堂)，并制定幸学谒圣之礼。李太宗设铸字所，铸铜活字数十万，大量印书，於是书籍广泛流布各地。有“海东尧舜”之称的李世宗，在这方面贡献尤大。曾置集竖殿，集文士二十人讲经论学，号为玉堂学士，并先后撰孝行录、五礼仪、礼记大文谚读、春秋经传集解等书，又命辑录古今忠臣孝子烈女，作总图三纲行实，宣扬儒家精神，不遗余力。尤其值得大书特书的一件事，是李世宗立王子饒为世子时，仪式定为穿儒服入太学行谒圣礼，自此成为定制。这无异世子宣誓为孔子的弟子，异日执政自当谨遵师教，也就等于定儒教为国教了。而宋元理学的引进，并雄居朝鲜学术界五百年，也成

为历史之必然。

2. 朝鲜理学传行过程及代表人物

韩国高丽(西元九一八~一三九一年)受唐代文化之影响,以佛教为国教。朝鲜朝(西元一三九二~一九九零年)开国以后,尊崇儒学。其开科取士,是以三经(诗、书、易)与四书为功令,而在学术思想上发生影响的,则是朱子学。兹以韩国历史进程为序,略述朱子学在朝鲜李朝前期的传衍和发展。

在高丽朝忠宣王时,有白颐正赴燕京留学十年,师事赵孟兆页,求得朱子性理学而归,是为宋学传入韩土之始。但当时佛教当令,儒学未能即时发生影响。经过半个世纪,有郑梦周(西元一三三八~一三九二年)尊信性理之学。他一面从事政治改革,一面立学堂,置乡校,在太学讲述朱子学,并且朱子家礼行冠婚丧祭,以取代佛教之仪式。其时,明朝已开国,梦周暗图废弃蒙古服饰,采行大明衣冠文物,他的心向和作为,正为朝鲜儒教之兴起开启了先路。所以一般多推郑梦周为东方理学之祖。李朝史家南金陵撰《高丽名臣传》,别立道学传,以郑先生梦周冠首,略云“古者无道学之名,自宋始盛,作史者别立为列传。……东方无性理之学,高丽之末,郑先生梦周始倡明之。我朝诸儒,得以寻释渊源,典章文物,沿衍乎洛闽洙泗者,皆以先生为祖,其功诚大矣。”

朝鲜李朝开国前后,郑道传三峰(西元?~一三九八年)奋起讲学。道传为李朝开国功臣和儒学大家,在军事、外交、性理学、历史、行政、著述等方面多有建树。他最重要的贡献是提出以“崇儒斥佛”为国是的主张。他先著《佛氏杂辨》,正面驳斥佛家学术之虚诞。又著《心气理篇》,比较道佛与儒学之优劣,为儒教在韩国的学术地位奠定了初基。稍后,权近阳村(西元一三五二~一四零九年)为郑氏的《心气理篇》作注释,其注言有云“入之生也,受天地之理以为性,而其所以成形者,气也。合理与气,能神明者,心也。……其心之灵,管乎事物之理,其气大,塞乎天地之间,皆以义理之主,而心与气每听命焉耳。此儒者之道,具於入伦日用之常,行於天下万世而无弊。”阳村又作《入学图说》,有云“四端,理之原,发於性,纯善。七情,气之原,发於心,有善有恶。”阳村这个说法,实为百余年后,退溪、

栗谷诸人“四七”论议之滥觞。

李朝建国之后，儒学成为国教，而实以朱子为代表的理学遂开始流行。接着吉再、金淑滋、金宗直、郑汝昌、金宏弼、赵光祖等名儒辈出。在初期阶段，一般学者大体重视博文力行，经世致用，其影响多在政制。如金宗直及其门人金宏弼、郑汝昌等人，皆热心政治，而导致戊午之祸(时当明孝宗弘治十一年)。宏弼之门人赵光祖静庵(西元一四八四~一五一九年)倡导“至治主义”学派，继续主张革新政治，排斥书儒。无奈亢龙有悔，又激成神武门之变。光祖与同志数十人或死难，或流窜，或削职。从此以后，狱祸时起，儒者及渐离政治，转而研讨义理。这一连串政治上的挫败，却反而促成了性理学兴起之契机。

李朝开国一百余年之后，至十六世纪，便成为朝鲜理学的黄金世纪。当时出了许多伟大的理学家，其中尤以徐敬德、李彦迪、李滉、李珥最为重要。兹依其年序，略加介述。

徐敬德花潭(西元一四八九~一五四六年)：是朝鲜理学史上唯一较有特色的存在，他虽不反对朱子的理气二元论，却在理气二元之上，更立太虚一元，以太虚为元气，故其学说和朱子不甚同，而比较接近张横渠，他是十八世纪实学派思想的先驱者。花潭的著述，如《原理气说》、《理气说》、《太虚说》、《鬼神死生说》、《复其见天地之心说》，都是精约的短篇。但花潭之学，不从朱子来，大抵受邵康节、张横渠的影响为多。不过，花潭虽敏悟深密，而其器局学力则不足以上企张子《正蒙》之沉雄弘伟。他又尚奇异，好术数，所以就性情风格而言，亦很难契应《西铭》粹然醇厚的仁者襟怀。退溪以为花潭之言，“揆诸圣贤说，无有符合处”，花潭虽“自谓穷深极妙，而终见得理字不透”，“花潭所见，殊未精密，观其所著诸说，无一篇无病痛”从内圣性理学的立场看来，退溪的话，或者不失为公允的论断。

李彦迪晦斋(西元一四九一~一五五三年)：晦斋是朝鲜李朝最早治朱子之学而有成的人。他英悟过人，天姿近道，深於性理之学，穷格践履，两臻其工，他在二十七岁时，曾作畏天、养心、敬身、改过、笃志五箴。三十岁又作立箴，其言皆古圣先贤躬行心得切要之旨。对于操存省察，徵室迁改，能身体力行，实用其功，其几案上书自戒之辞曰：“吾日三省吾身：事天有未尽欤？为君亲有未诚欤？持心有未正欤？”其向道之诚，学力之深，贯精微，

彻上下，粹然一出於正，然深玩其义，莫非先儒之绪餘，而其得於朱子者为尤多。

早岁与忘机堂曹汉辅论无极而太极，亦是韩国第一次出现的儒学争议。退溪认为晦斋“阐吾道之本原，辟异端之邪说，贯精微，彻上下，粹然一出於正，深玩其义，莫非有宋诸儒之绪论，而其得於考亭者为尤多也。”

晦斋於五十七岁时，为奸人诬害，被谪闲西，举家闻命号泣，惟晦斋饮食方笑如平时，不以外物而动其心。在谪所益万忠贞，为学益力，曾作《大学章句补遺》，《续大学或问》、及《求仁录》三书。《大学章句》和《大学或问》，都是朱子所作，而晦斋作此二书，旨在阐扬朱子学说，其中《大学章句补遺》一书，有些地方颇能发朱子所未发。且能指出朱子格物补传之失当，晦斋以为，大学“物有本末”与“知止而后有定”二节，即是格物致知传文，无须另作补传。这个见解，与南宋董槐、叶梦鼎、王柏，元代吴澄，明代蔡清诸儒之说，大同小异，可谓不谋而合。

朱子学到韩国李氏朝鲜时代，由李退溪及李栗谷加以传承发扬，使朱子学大放异彩，而分成两派。其后韩儒研究朱子学，莫不受此两派之影响，因而退溪与栗谷，被称为李朝二竖。

退溪名滉，字景浩，晚号退溪(西元一五零一～一五七零年)，此李晦斋仅小十岁。退溪之推曾晦齐，正如朱子之推曾二程。曾作晦斋行状，极言其学力之深处，退溪又谓：“近代晦斋之学甚正，观其所著文字，皆自胸中流出，理明义正，浑然天成，非所造之深，能如是乎？”尝评晦斋学问为东方第一。於答李全仁书中，谓“廷臣入启，有一代儒宗之语”。观其所言，可知晦斋之学，對於退溪不无影响。

退溪曾任艺文馆提学，超然於党争之外，以研究朱子学为毕生事业，世称“海东朱子”。著有《朱子书节要》、《理学通录》、《启蒙传疑》、《退溪集》等书。有人认为退溪论学之精密，在宋元明朱子学派中无出其右者。他的学说，并曾给与日本的朱子学以相当的影响。退溪的业绩，可分破邪和显正两方面来看。所谓破邪，便是排斥中国陆王之学，抨击朝鲜卢(守慎)、徐(敬德)诸家之说。所谓显正，就是谋振作赵光祖殉难以来萎靡的士气，发扬大朱子之学。自朱子学传入朝鲜，经二百馀年之蕴蓄，到李退溪而成为一代宗匠。

据退溪年谱及其言行录看来，退溪之学，以朱子为依归。退溪之学朱子，可谓正心诚意，亦步亦趋，他一生的行谊，著述，居官，讲学，一以朱子为法，其戒之慎之，敬谨为厚的精神，在朱子的门人后学之中，似乎亦罕有其匹。幼年当背诵论语兼集注，自初章至终篇不差一字。十九岁时初得《性理大全》，读之不觉心悅而眼开，日久渐见意味。其后得《朱子全书》，闭户静观，历履不辍，於其书札，尤有所感，遂成《朱子书节要》二十卷，此书后来对韩日两国学者影响很大。

退溪编辑《朱子书节要》的目的，在于使初学者知其入门之处，以为用功之地。退溪学说之最大特色，即在真知实践，欲求真知，贵乎穷理。退溪曾言：“穷理而验乎践履，始为真知；主敬而无二三，方为实得”，至於穷理之方，退溪於《答李叔献书》中言之甚详：“穷理多端，不可拘于一法，如穷一事不得，便生厌倦，遂不复以穷理为事者，谓之迁延逃避可也，不然，所穷之事，或值般错肯启，非力索可通。或吾性偶音於此，勉强以烛破，且当置此一事，别就他事上穷得。如是穷来穷去，积累深熟，自然心地渐明，义理之实渐著，目前时复拈起向之佃不得底，细意绸绎，兴与穷得底道理参验照勘，不知不觉地并前未穷底一时相发悟解，是乃穷理之活法。”

“敬”为退溪之中心思想，当亦本於朱子。退溪晚年所进《圣学十图》，其始终之要，不外“持敬”二字。退溪谓：“持敬者所以兼思学、贯动静、合内外、一显微之道也。其为之之法，必也存此心於齐庄静一之中，穷此理於学问思辨之际。不睹不闻之前，所以戒惧者愈敢愈敬；隐微幽独之处，所以省察者愈精愈密。或绸绎玩味於夜气清明之时，或体验栽培於日用酬酢之际。免焉孳孳，既竭吾才，则颜子之心不远仁而为邦之业在其中，曾子之忠恕一贯而传道之责在其身。畏敬不离乎日用，而中和位育之功可致；德行不外乎彝伦，而天人合一之妙可得矣。”

综上所述，可知退溪是一位注重躬行实践的学者，其学术对后世之影响，其一为修己之工夫，亦即道德实践方面，亦即朱子居敬思想之传承与实践。其二为理气之探讨，其中最重要者为四端七情之论辩，退溪分四端为理发，七情为气发，此点对其后之韩儒，激起剧烈之反响。

李珥少退溪三十五岁，他二十三岁初见退溪，退溪年五十八，而退溪卒时，栗谷年二十五。二竖相见之时日虽不多，而论学之书信则不少。大体而论，

退溪沉潜笃实，而栗谷高明宏达；退溪卫道之心最切，而栗谷论道之情甚殷；退溪主笃行，而栗谷好明辨。栗谷编撰之《圣学辑要》，亦尤退溪之《圣学十图》，可以分别代表二人之思想纲维。二人同尊朱子，而论学之旨趣则不尽相合，故虽有师弟之谊，而终于发展成朝鲜中期以后儒学之两大学派。

李珥，字叔献号栗谷又号石潭，德水人。中宗丙申(西元一五三六年)十二月二十六日出生于江陵府北坪村申命和进士氏中的乌竹轩。

栗谷十六岁时母亲申氏夫人去世，守丧至十八岁，其母去世的悲痛的心情，使他开始深入思考人之生死的问题。一日他偶然进入汉城附近之奉恩寺，披览佛经，深感死生之说，遂于守丧三年期满后，入金刚山佛门潜心禅学，时其年十九岁。其在金刚山的修学情况，可从他的诗作中体会到。其《与山人普应下山至丰岳李广文家宿草堂》诗曰：“学道即无著，随缘致处游，暂辞青鹤洞，来玩白鸥洲，身世云千里，乾坤海一头，草堂聊寄宿，梅月是风流。”可知栗谷年青时的志向之远大，及其对真理世界的憧憬。此时他希望达到佛教和儒教终极合一的境地。如金刚山一老僧问栗谷儒家是否有“即心即佛”之语意，栗谷答曰：“孟子道性善，言必称尧舜，何异于即心即佛，但吾儒见得实。”

可见此时栗谷入山修研禅学，始终是从一儒者的观点去考究、参研佛家之经典，这也是其一年后即离开金刚山的真正动因。但无论如何，栗谷在金刚山禅门修行的经历，不仅使其吸收了佛教思想之精华，也使他娴于佛教之思辩艺术。对其理学思想之影响可以说是不言而喻的。栗谷的这段经历思想之变化过程在其门人金长生为其撰写的行状中有详细的记述曰：“……十三岁，中进士初试，文章日就，声闻籍籍，而亦不屑为也，遂专心于圣竖之学。十六岁，丁内忧，庐墓三年，一遵家礼，不脱衰绋至，躬执祭馔，虽洗涤之事，不使僮仆任之，十八岁而冠，为学专用力於内，时先生，新免於丧，哀慕不自克，常日夜号泣。一日，入奉恩寺，披览释氏书，深感死生之说，且悦其学，简便而高妙，试欲谢去人事，而求之。十九岁，以书当别诸友曰：文，不可学而能；气，可以养而致，是气者，入之所同得者，而养之则役於心，不能养之则心为气役，气役於心则身有主宰，而圣竖可期，心役於气则七情无统，而愚狂虽免。古之人，有善养气者，孟子是也。孔子日知者，乐水；仁者，乐山。乐山者，非取其峙而已，取其静之道，而体之也；乐水者，非

取其流而已，取其动之道，而体之也。仁知者之所以养气者，舍山水，而奚求哉？因入山门，戒定坚固，至忘寝食。久之，忽思以为，佛氏戒其徒，勿作增减想者，何意也？尽其学，无他奇妙，兄欲其截断此心走作之路，凝聚精神，以造静极虚明之域，假话头，使之依靠下功，而又恐入先知此意，则著禅，必不精专故，又设此禁，此诳之也，乃悟异说之非，尽弃其学，而专心吾道，著《自警文》，一以圣贤为准则，敬义夹持，知行并进，不由师承，自得其妙，尝语学者曰：吾少时，妄意禅家顿悟法，於入道甚捷而妙，以万象归一，一归何处，为话头，数年思之，竟未得悟，反以求之，乃知其非真也。”

栗谷为善其圣学而入金刚山，以期他山之石可以攻玉之效，虽然仅一年他便顿悟下山，但是他这种不畏当时社会上不同学术思想之间门户之见，入佛门钻研学问追求真理之勇气，以及其广研佛经后对自己山中修道之自我否定的气概，充分体现出栗谷治学之包容性。就是他的这种勇气和气概以及治学之包容性，使他能够在对理学思想的阐述中，融合佛教及其他学术思想中的合理成分。特别是吸收佛家辩证思想，发入所未发，使其最终成为朝鲜理学界的一大高峰。

栗谷与道家思想之渊源，最早见诸文字的是其入金刚山时诗作《途中》中有“本来无誉谁为毁”之诗句，与《庄子》中“是以终身无誉”和“空虚不毁万物为实”之意甚相契合。但是最能反映栗谷与道家思想渊源的是其关于形而上的自然的理与形而下的自然的气所构成的自然之观念。其《易数策》中曰：“夫形而上者，自然之理也，形而下者，自然之气也，有是理则不得不有是气，有是气则不得不生万物，是气动则为阳，静则为阴，一动静者气也，动之静之者理也。”与老子之“道法自然”的自然观一脉相承。老子曰：“入法地、地法天、天法道、道法自然。”

栗谷的道教研究成果，为其对老子《道德经》注释之《醇言》。《醇言》是栗谷按照他自己哲学体系，从老子《道德经》八十一章中选择重点章节，重排章节为四十章，逐句详加注释，并将此注释本封面题名为《醇言》。

在《醇言》第一章中，栗谷将老子的“道”理解和把握为“太极”，所以他引用朱子的话注释曰：“朱子曰：‘道即易之太极，一乃阳之奇，二乃阴之偶，三乃奇偶之积，其曰三生三，独所谓二与一为三也，其曰三生万物，即奇偶

合而万物生也。”可见，栗谷对道家的理解同其对佛教的认识一样并没将它们视为异说，而是从其深奥思想之本质出发，将其包容于儒家思想主体之中，因此栗谷的学术思想体系具有儒佛道合一的综合特色。

此外在李氏朝鲜广受排斥，被视为非正统的阳阴学，亦是栗谷学术思想内思索参研的范围。在其为中国陈建所著旨在明辨阳明思想的《学部通辨》的题跋中说：“其志甚盛，而其论甚正矣，第未知陈氏平日学行德业，可以取信重於天下后世否也，其论性理肯启之说，亦未能尽其妙而少出入也，但因其言深知陆王之邪术，则其功已保矣，何必觅指疵累以助党邪之口乎，诚者或以此书过於张皇，而欠精约之义为疑，此亦似矢。”

可见栗谷对他人学术思想之批判，仅是针对思想本身而言的，而对其他学派之人物本身之学行德望及其对后世之影响是持肯定态度的。栗谷在当时社会上性理学排斥其它学说之风盛行的情况下，对其它学宗派或学派的学说采取去粗取精之态度，这充分表现在他对阳明学的态度上。他吸收阳明学的客观真理“取其功而略其过，亦忠厚之道也。”对阳明学之精华，他充分地吸收和容纳。

当有人问他“中朝之士多染陆学，而我国则未之闻也”时，栗谷答道“若专攻利欲，而朱陆之学两废，则其优劣何如哉。”可知栗谷对阳明学所持之态度并非排斥而是取其所长。对佛教、道家和阳明学，栗谷认为“异端之言岂必佛老禅陆为然乎，世之非先王之道，循一己之欲者，莫非异端也。”栗谷治学唯真理是求，而无利欲之心的鲜明态度，在当时的社会条件下，其进步性可以说是伟大学者的理智的思考者也。

又如中国使臣来朝鲜后，拜谒文庙时，问栗谷“克己复礼”之义。而宋代性理学家对此早有“克己复礼为仁之义”的定说。面对属象山学派之使臣的提问，栗谷当即著说以示略曰：“仁者本心之全德，礼者天理之节文，己者一身之私欲也，人莫不具此本心，而其所以未仁者，由私欲闻之也，欲去私欲，须是整理身心，一遵乎礼，然后已可克，而礼可复矣。”对栗谷之说中国使臣连续多遍曰：“此说极如，当传布中朝。”栗谷从朱子学之立场出发，吸收阳明学派观点的这一精辟见解，令象山派之中国学者折服。在此阳明之“本心说”和朱子之“礼节说”完美的调和在一起，可以说是栗谷思想之综合性的鲜明体现。

可见,栗谷的学术思想是其在广泛参研不同学派宗派之思想的基础上,省察自身的理论见解,其自身之理论升华为认识主体,对诸学派和诸宗派的真意辩别为认识对象,形成其思想极具包容性之特征。其学术思想是在调和诸思想间的对立因素下,生发出来的独立的思想,这种发展的调和的特点是形成栗谷学术思想特色一个重要方面。

李珥自二十九岁任户曹佐郎入仕,至四十九岁去世的二十年间不论是任内职外任亦或是请辞返乡,均以其亲身躬行来实现其以圣人自期,进而仕,求国泰民安,济世安民;退而讲学,求教化民众,击蒙后学。长期的政治实践和教育实践,使栗谷的学说领域极为广阔,学说内容更加丰富,而学说特色也尤为突出。使其成为李朝历史上最伟大的政治家、思想家和教育家。

III. 结语

中国文化学术思想以儒学为主流,自孔子集诸子之大成奠定主流地位后,经孟子的发扬光大,儒学的基本体系初步形成。但随着时代的发展,儒学的主流地位也不断受到冲击,玄学的歧途、道教的兴起、佛教的传入和盛行对儒学挑战的同时也为儒学的自新带来了机遇。儒学在自省的同时,吸收道教思想和佛教思想的营养,顺应历史的要求,在玄学、道教和佛教思想的激荡下,经两汉、魏晋、南北朝、隋唐的千年沉晦,宋代的儒学家走出了汉儒沉溺于经学研究的迷途,重新从对世界的本原和人性的本原的探求出发,去理解阐发圣贤的学说。同时总结吸收道教和佛教思想在指导社会实践过程中的经验和教训,借鉴佛老思想中的合理成分,以儒学为骨干和出发点,否定了佛、道宣扬出世,吸收了佛、道“禁欲”、“主静”的僧侣主义以及思辨哲学和宇宙生成的图式,从而建立了唯心主义理学体系,顺应时代要求,综合发展成为以朱子学为代表的新儒学——理学。

儒家思想自中国汉代传入韩国后,始终受到历朝历代的重视,特别是在教育方面儒学思想有着特殊的地位。李氏朝鲜开国后,总结高丽和三国时期(高句丽、百济、新罗)因为佛事纷繁而致衰亡的历史教训,转而提出崇儒抑佛的建国理念,而此时正是中国以性理学为代表的新儒学兴盛时期。朱子学

自中国元朝元世祖至元二十七年(西元一二九零年),由安晦轩随忠烈王至燕京(今北京市),将《朱子文集》、《朱子语类》传至韩国,渐受学者的重视。朝鲜王朝初期,中国明朝曾颁赐《四书五经大全》及《性理大全》等书,而朝鲜王朝的设科取士,又以通四书三经(诗、书、易)者得与其选。故士大夫之所诵习,无非孔孟程朱之书。而其国各级学校,莫不普遍注重儒学。尤其是朱子学,受到学者的研究与阐扬,特别是由于李退溪及李栗谷传承发扬,使朱子学在韩国之地位和影响,远远超过宋明清时的中国,而对之朱子学中的某些言之未详的观念的不同理解和阐发,使退溪、栗谷分成两大学派,其后韩儒治朱子学莫不受此两大学派之影响,退溪与栗谷二人也并称为韩国李朝二竖。对于朱子学,退溪的最大贡献在于排斥中国阳明学,抨击本朝卢守慎、徐敬德等家之说;以振作己卯士祸以来的士风,发扬光大朱子之学。特别是其《朱子书节要》二十卷,对韩日两国学者影响极大。栗谷和退溪同宗朱子,但其治学精神,与李朝诸儒一味维持朱子学之独尊地位有所不同。而栗谷对于朱子学最大的贡献,则在于其以自身的治学实践体悟朱子学之精髓,以实践性和思辨性两个方面发扬光大朱子学,这是栗谷之学与退溪的最大不同之处。朝鲜理学对社会产生了深远的影响。朱子家礼被运用到生活礼仪之中,蔚为社会之习俗。孝亲尊师的思想深入人心。由朱子学影响下发展起来的朝鲜理学顺应了朝鲜的社会需要,成为学术思想的主流,蓬勃兴盛了整整五百年。即在今天的韩国民间,比较保守的家庭,仍然保存不少的古礼。

儒学思想作为东方古代社会及文化思想的主流,其精神实质在于重视人生道德之实践,以“人”之心性问题为核心,以达成一“至善最好”之人格为终极。孔子的“仁”说为这一思想之中心观念,孟子更以仁义为言,光大此旨,汉魏诸儒,惟以发明经旨为务;以言道德心性之学,则当推宋儒矣。而伊洛一脉,尤号源远流长,论者推为正统。至于朱子,旁采他学诸术,以通彻天人之心性理观,畅发此一正统之儒家仁爱思想,又所谓集大成者也。在韩国李氏朝鲜时期,理学思想更成为韩国民族思想之骨干,影响李朝五百年之久,以朱子学为代表的中国理学,经过李彦迪、徐敬德、李退溪、李珥等伟大思想家的传承和发扬,使得理学在韩国的地位和影响远远超过元明清时的中国。李珥等人对理学思想不同理解和阐释,极大地丰富和发展了理学学说,

忠、孝、礼、义成为国民的行为规范和思想准则。就实践性而言,李氏朝鲜理学之辉煌治绩,或有胜于中国之宋元明。是故研究中国理学形成与发展的根源与过程,对正确理解和把握朝鲜理学思想的特质,发扬忠孝精神有着深刻的历史意义和现实性。

参考文献

- | | | | |
|---------------|----|---------|-------|
| 陈荣捷,《朱学论集》 | 台北 | 学生书局 | 1982年 |
| 陈钟凡,《两宋思想述评》 | 台北 | 华世出版社 | 1977年 |
| 黄宗羲,《宋元学案》 | 台北 | 世界书局 | 1961年 |
| 黄宗羲,《明儒学案》 | 台北 | 世界书局 | 1973年 |
| 李光地,《性理精义》 | 台北 | 中华书局 | 1982年 |
| 黎靖德,《朱子语类》 | 台北 | 正中书局 | 1970年 |
| 钱穆,《宋明理学概述》 | 台北 | 学生书局 | 1977年 |
| 王孺松,《朱子学》(上下) | 台北 | 教育文物出版社 | 1985年 |
| 吴康,《宋明理学》 | 台北 | 华国出版社 | 1973年 |
| 吴汝钧,《儒家哲学》 | 台北 | 商务印书馆 | 1995年 |
| 朱熹,《四书集注》 | 台北 | 世界书局 | 1977年 |
| 朱熹,《大学章句》 | 台北 | 艺文印书馆 | 1978年 |
| 朱熹,《中庸章句》 | 台北 | 艺文印书馆 | 1978年 |
| 朱熹,《诗集传》 | 台北 | 艺文印书馆 | 1978年 |
| 朱熹,《周易本义》 | 台北 | 艺文印书馆 | 1978年 |
| 朱熹,《近思录》 | 台北 | 世界书局 | 1963年 |
| 朱熹,《小学集解》 | 台北 | 世界书局 | 1977年 |
| 影印版,《李朝王朝实录》 | 汉城 | 国史编纂委员会 | 1955年 |
| 金富轼,《三国史记》 | 汉城 | 先进文化社 | 1960年 |
| 僧一然,《三国遗事》 | 汉城 | 光文出版社 | 1967年 |
| 郑麟趾,《高丽史》 | 汉城 | 延世大学校 | 1955年 |
| 金宗瑞,《高丽史节要》 | 汉城 | 东国文化社 | 1960年 |

赵光祖, 《静庵集》	汉城	民族文化促进会	1988年
徐敬德, 《花潭集》	汉城	民族文化促进会	1988年
李彦迪, 《晦斋集》	汉城	民族文化促进会	1988年
李 況, 《退溪集》	汉城	民族文化促进会	1968年
李 珥, 《栗谷集》	汉城	民族文化促进会	1968年
李 珥, 《栗谷全书》	汉城	民族文化促进会	1988年
奇大升, 《高峰集》	汉城	民族文化促进会	1988年

국문요약

중국의 유교사상은 우리 한국인의 사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특히 중국의 이학사상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본 논문에서는 송대의 이학이 어떻게 계승되고 발전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런 송대의 이학이 한국의 대표적 유학자인 이이의 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 뒤 이이로 대표되는 조선조의 이학이 어떻게 그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현대에 있어서도 한국과 중국의 사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유학사상을 바르게 인식하여 그 현대적 의미를 되새기는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

공자로부터 시작된 유학사상이 맹자에 의해 그 체계가 확립되고 이후 도교와 불교의 사상이 일부 가미되어, 양한·위진·남북조·수·당시대를 거쳐 송대에 이르러 인성의 탐구의 주체로 완성되었다. 원래 유교는 불교와 도교의 사상을 배척하였으나 유심주의의 이학적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 그 사상의 일부를 융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가사상은 중국 한대에 이르러 우리나라로 전래되었으며, 주자의 성리학은 과거 조선 5백 년 동안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주류로 자리잡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의식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戰國策》寓言譯註*

辛 昌 浩 譯註**

杜赫欲重景翠於周

— 東周策 —

杜赫¹⁾欲重景翠²⁾於周, 謂周君曰: 「君之國小, 盡君子³⁾重寶珠玉以事諸侯, 不可不察也⁴⁾. 譬之如張羅者, 張於無鳥之所, 則終日無所得矣; 張於多

* 본 역주는 《전국책(戰國策)》에 수록된 우언(寓言) 54편 [진포청(陳浦淸) 《중국고대우언사(中國古代寓言史)》]중에서 <동주책(東周策)>부터 차례로 15편을 번역한 것이다. 본 역주는 상해고적출판사(上海古籍出版社)가 1978년 5월에 출판한 《전국책》 교집본(校點本)을 저본(底本)으로 하고 포표본(鮑彪本)·오사도(吳師道) 《전국책포주보정(戰國策鮑注補正)》·백서(帛書) 《전국책》·황비열(黃丕烈) 《찰기(札記)》 등을 참조하였으며 당대 《전국책》연구자들의 견해를 비교하여 번역하였다.

** 성심외국어대학 외국어통상학부 중국어전공 조교수

1) 두혁(杜赫): 《여씨춘추(呂氏春秋)·무다편(務多篇)》에 수록된 두혁이 주문군(周文君)을 설득시켜 천하를 평안케 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동주(東周) 소문군(昭文君)과 같은 시대 사람이라는 설[왕수겸(王守謙) 등의 《전국책전역(戰國策全譯)》·포표주(鮑彪注)]과 초(楚)나라 사람이라는 설[오사도(吳師道)의 《전국책포주보정(戰國策鮑注補正)》, 이하 모두 간단히 《보정(補正)》이라 한다]이 있다.

2) 경취(景翠): 초(楚)나라의 장군(將軍)이다.

3) 자(子): 포표주(鮑彪注)와 황비열(黃丕烈)의 《찰기(札記)》는 “지(之)”로 적고 있다.

4) 찰(察): “고려하다”의 뜻이다. 포표주(鮑彪注)는 “나라가 작으니 반드시 뇌물을 바쳐 도움을 구해야 한다. 뇌물은 감당하기 어려우니 고로 마땅히 살피야 한다(國小, 必賂以求援. 不可勝賂, 故宜察)”라고 하였다.

鳥處, 則又駭鳥矣⁵⁾; 必張於有鳥無鳥之際, 然後能多得鳥矣. 今君將施於大人, 大人輕君; 施於小人, 小人無可以求, 又費財焉. 君必施於今之窮士, 不必⁶⁾且爲大人者, 故能得欲矣。」

두혁(杜赫)이 동주(東周)로 하여금 경취(景翠)를 중용(重用)하게 할 생각으로 주왕(周王)에게 “대왕의 나라는 너무 작아 대왕의 귀중한 보물과 보석으로 제후들을 받들어야 하니 대상(對象)을 세심히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새그물을 치는 것과 같아서 새가 없는 곳에 그물을 드리우면 하루종일 소득이 없으며, 새가 많은 곳에 그물을 드리우면 새가 놀라 날아가게 되니, 반드시 새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사이에 그물을 쳐야만 새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대왕께서 귀한 보물을 제후 같은 큰 인물에게 내리시면 큰 인물은 반드시 대왕을 알볼 것이며, 작은 인물에게 내리시면 작은 인물은 쓸모가 없으니 또한 많은 재산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반드시 지금의 궁핍한 선비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데 이는 그들이 장차 큰 인물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으니, 고로 그렇게 하면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하였다.

蘇厲謂周君

— 西周策 —

蘇厲⁷⁾謂主君曰: 「敗韓·魏, 殺犀武⁸⁾, 攻趙, 取蘭⁹⁾·離石¹⁰⁾·祁者¹¹⁾,

-
- 5) 해조(駭鳥): 포표주(鮑彪注)는 “새가 많은 곳은 그물을 건드리는 새가 있으니 주변의 새가 반드시 느끼게 되고 느끼면 곧 모두들 놀라서 날아가 버린다(多鳥處, 有觸羅者, 傍鳥必覺, 覺則群驚而去矣)”고 하였다.
- 6) 불필(不必):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다. 포표주(鮑彪注)는 “불필(不必)은 ‘알 수가 없다’의 뜻이다(不必, 有不可知也)”라고 하였다.
- 7) 소려(蘇厲): 소진(蘇秦)의 동생이다.
- 8) 서무(犀武): 위(魏)나라 장군(將軍)이다.

皆白起¹²⁾ 是攻¹³⁾用兵, 又有天命也. 今攻梁, 梁¹⁴⁾必破, 破則周危, 君不若止之. 謂白起曰: 『楚有養由基¹⁵⁾者, 善射; 去柳葉者百步而射之, 百發百中. 左右皆曰: 『善. 有一人過曰: 『善射, 可教射也矣.』 養由基曰: 『人皆善, 子乃曰可教射, 子何不代我射之也?』 客曰: 『我不能教子支左屈右. 夫射柳葉者, 百發百中, 而不已善息¹⁶⁾, 少焉氣力倦, 弓撥矢鉤, 一發不中, 前功盡矣.』 今公破韓, 魏, 殺犀武, 而北攻趙, 取蘭·離石·祁者, 公也. 公之功甚多. 今公又以秦兵出塞¹⁷⁾, 過兩周, 踐¹⁸⁾韓而以攻梁, 一攻而不得, 前功盡滅¹⁹⁾, 公不若稱病不出²⁰⁾也.』』

소려(蘇厲)가 주나라 왕에게 “한(韓)나라와 위(魏)나라를 쳐서 물리치고 한나라의 장군 서무(犀武)를 죽였으며 조(趙)나라를 공격하여 린(蘭)·이석(離石)·기(祁)세 곳을 차지한 사람은 백기(白起)입니다. 이것은

-
- 9) 린(蘭): 지명으로 산서성 이석현(離石縣) 서쪽지방이다.
 10) 이석(離石): 지명으로 산서성 이석현(離石縣)이다.
 11) 기(祁): 지명으로 산서성 기현(祁縣)이다.
 12) 백기(白起): 진(秦)나라 대부인 백을병(白乙丙)의 후예로 진나라 소왕(昭王)을 모시고 70여 개의 성을 함락시켜 무안군(武安君)으로 봉(封)해진 용병술이 뛰어난 진나라 장수이다.
 13) 공(攻): 요평주(姚宏注)는 “공(攻)은 ‘교묘하다’의 뜻이다(攻, 巧也)”라고 하였으며, 포표주(鮑彪注)는 “공(攻)은 공(功)이며 능숙한 기교를 뜻한다(攻, 功字, 善巧也)”고 하였다. 《보정(補正)》에는 “공(攻)과 공(工)은 가차(假借)할 수 있다(攻工字通借)”라고 하였다.
 14) 양(梁): 위(魏)나라는 혜왕(惠王)때 대양(大梁)[하남성(河南省) 개봉시(開封市)]로 천도하였다.
 15) 양유기(養由基): 성은 양(養)이며 이름은 유기(由基)이다. 초나라 공왕(共王)의 장수로[포표주(鮑彪注)] 활을 잘 쏘아 세상에 이름을 떨쳤다.
 16) 이(已): 요평주(姚宏注)는 “이(已)는 전본(錢本)과 유본(劉本)에는 이(以)로 되어있다(已錢劉作以)”라고 하였으며, 포표주(鮑彪注)에도 “이(已)는 이(以)로 한다(已作以)”고 하였다.
 17) 출새(出塞): “요새(要塞)인 이궤(伊闕)을 떠나다”의 뜻이다.
 18) 천(踐): 포표주(鮑彪注)는 “천(踐)은 밟을 리(履)이며 ‘지나가다·통과하다’의 뜻이다(踐, 履也, 猶過也)”라고 하였다.
 19) 멸(滅): 요평주(姚宏注)는 “멸은 ‘없어지다’의 뜻이다(滅, 沒也)”라고 하였다.
 20) 불출(不出): “병력을 일으켜 대양(大梁)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가 용병(用兵)에 뛰어날 뿐 아니라 또한 하늘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가 또 위(魏)나라 대양(大梁)을 공격하려 하니 대양은 반드시 함락될 것이며, 대양이 함락되면 곧 주(周)나라가 위협하게 되니 대왕께서 그를 공격하지 않게 만류하십시오. 대왕이 파견한 사람이 백기에게 “초(楚)나라에 양유기(養由基)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화살을 잘 쏘아서 버드나무 앞에서 백보(百步)나 떨어져 쏘아도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좌우에서 보고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활 솜씨는 훌륭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어떤 이는 오히려 ‘활을 잘 쏘는구나. 이제 그에게 활 쏘는 것을 가르쳐도 되겠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양유기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내가 활을 잘 쏜다고 하는데, 당신은 오히려 나에게 활 쏘는 것을 가르쳐도 된다고 하니, 당신은 어째서 내 대신 활을 쏘아보지 않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지나가던 그는 ‘나는 당신에게 왼손을 받치고 오른손을 굽히는 그런 활 쏘는 법을 가르칠 수는 없소이다. 당신은 버들잎을 백발 쏘아 백발을 적중하였습니다. 그러고도 멈추고 쉬지 않으니, 잠시 후 기력이 쇠진하여 활을 똑 바로 잡을 수 없게 되어 화살도 비스듬히 나가 한 발도 적중시킬 수 없게 되면, 앞서의 공로는 모두 물거품이 되어 버리지요. 지금 한나라와 위나라를 공격해 물리치고 서무를 죽이고 또한 북쪽으로는 조나라를 공격하여 린·이석·기 세 곳을 차지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공로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진나라 군사를 이끌고 이궐(伊闕) 요새를 떠나 동주(東周)·서주(西周)를 거쳐 한나라를 뚫고 대양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만약 공격하여 일거에 승리를 얻지 못하면, 어찌 앞서의 공로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당신은 병을 핑계삼아 출정(出征)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司寇布爲周最謂周君

— 西周策 —

司寇布²¹)爲周最謂周君曰:「君使人告齊王以周最不肯爲太子也²²), 臣爲君不取也. 函冶氏²³)爲齊太公²⁴)買良劍, 公不知善, 歸其劍而責之金²⁵). 越人請買之千金, 折而不賣²⁶). 將死, 而屬²⁷)其子曰; 『必無獨知.』²⁸)今君之使最爲太子, 獨知之契²⁹)也, 天下未有信之者也. 臣恐齊王之爲³⁰)君實立果³¹)

- 21) 사구포(司寇布): 사구(司寇)는 형벌(刑罰)과 감옥을 주관하는 가장 고위층 관리로 육경(六卿)의 하나이다. 포(布)는 관리의 이름이다.
- 22) 포표주(鮑彪注)는 “민왕(閔王)이 주나라 최(最)를 좋아하여 그를太子로 삼으려고 뇌물을 받쳤다. 최는 그 때 보위(寶位)를 사양하였다. 주나라 왕은 최가 보위에 오르려고 하지 않는다고 제나라 민왕에게 고하였다(閔王善最, 欲其爲太子, 以賂進之. 最時讓位, 周以最不肯立告齊)”라고 하였다.
- 23) 함야씨(函冶氏): 성은 함(函)이며, 야(冶)는 주조(鑄造)를 관리하는 관리인데 나중에 관명(官名)이 성씨(姓氏)가 되었다.
- 24) 제태공(齊太公): 제나라 제후로 성은 전(田)이고 이름은 화(和)이며, 전상(田常)의 손자이다.
- 25) 함야씨(函冶氏)는 주조(鑄造)와 철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또한 보검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태공(太公)은 보검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려주었을 뿐 아니라 보검을 위해 지불한 돈을 돌려 받았다.
- 26) 절이불매(折而不賣): 기꺼이 천금(千金)을 지불하고자 하였지만 보검의 원래 지닌 값어치에 미치지 못하여 팔지 않았다는 뜻이다. 절(折)는 절가(折價), 즉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을 뜻한다.
- 27) 속(屬): 축(屬)과 통하며 “당부하다”의 뜻이다.
- 28) 필무독지(必無獨知): 오사도(吳師道) 《보정(補正)》은 “무릇 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 사람에게 그 좋은 점을 알려야 하며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된다(言凡有售, 必使衆知其良, 不可獨知也)”라고 하였다. 즉 보검의 진가를 자신만 알고 있으면 안되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뜻이다.
- 29) 계(契): 포표주(鮑彪注)에는 “계는 약속이다. 마땅히 두 사람이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혼자만 알고 있다(契, 約也. 當兩知之, 今則獨)”라고 하였다. 계약을 할 때는 쌍방이 각각 한 부분씩 보관하여 차후의 증거로 삼아야 한다.
- 30) 위(爲): “여기다 · 간주하다”의 뜻이다.
- 31) 과(果): 주나라 태자(太子)이다.

而讓³²⁾之於最, 以嫁³³⁾之齊也. 君爲多巧³⁴⁾, 最爲多詐, 君何不買信貨³⁵⁾哉?
奉養無有愛³⁶⁾於最也, 使天下見之。」

사구포(司寇布)가 주나라 최(最)를 위해 주나라 왕에게 “대왕께서는 사신을 보내 제나라 왕에게 최가 태자(太子)가 될 생각이 없다고 전하였는데 저는 대왕의 이러한 조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함야씨(函冶氏)는 제나라 태공(太公)을 위해 보검(寶劍)을 구입하였지만 태공은 그 보검의 훌륭함을 알지 못하여 그 보검을 그에게 돌려주고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월(越)나라 사람이 천금(千金)으로 보검을 구입하자고 청하였으나 함야씨는 본래의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팔지 않았습니다. 함야씨는 임종(臨終)때 그의 아들에게 당부하길 ‘반드시 보검의 훌륭한 점을 너 혼자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최를 태자로 삼으려고 하시지만 단지 대왕 혼자만이 이 약정(約定)을 알고 계시니 천하에 그것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대왕께서 과(果)를 태자로 삼으려고 하시면서 단지 이런 방법으로 빈 구호로만 최라고 외치며 제나라를 기만한다고 제나라 왕이 생각할까 단지 두려울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왕께서는 계략을 잘 부리는 사람이 되시고, 최는 간교한 사람이 되니, 어찌 믿을 만한 진짜 물건을 사지 않으십니까?(어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은 진실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지 않으십니까?) 부왕(父王)을 봉양(奉養)하는데는 최보다 진실한 사람이 없으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점을 알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32) 양(讓): 포표주(鮑彪注)는 “양은 가식(假飾)의 말이다(讓, 飾辭也)”라고 하였다.

33) 가(嫁): “전가(轉嫁)·기만(欺瞞)”의 의미이다.

34) 교(巧): “기만(欺瞞)하다”의 뜻이다.

35) 신화(信貨): 믿을 만한 진품을 뜻한다. 포표주(鮑彪注)는 “믿을 만한 물건은 혼자 알아서는 안 된다(可信之貨, 非獨知也)”라고 하였다.

36) 애(愛): 인식(吝惜), 즉 “아끼다”는 뜻이다.

田莘之爲陳軫說秦惠王

— 秦策 —

田莘³⁷之爲陳軫³⁸說秦惠王曰:「臣恐王之如郭君³⁹. 夫晉獻公⁴⁰欲伐郭, 而憚舟之僑⁴¹存. 荀息⁴²曰:『周書』有言,「美女破舌⁴³」,」乃遺⁴⁴之女樂, 以亂其攻. 舟之僑諫而不聽, 遂去⁴⁵. 因而伐郭, 遂破之. 又欲伐虞⁴⁶, 而憚宮之奇⁴⁷存. 荀息曰:『《周書》有言,「美男破老⁴⁸」,」乃遺之美男, 教之惡宮之奇. 宮之奇以諫而不聽, 遂亡⁴⁹. 因而伐虞, 遂取之. 今秦自以爲王⁵⁰, 能害王者之國者⁵¹, 楚也. 楚智⁵²橫君⁵³之善用兵⁵⁴, 用兵與陳軫之

37) 전신(田莘): 인명(人名)이며 생평(生平)은 자세히 알 수 없다.

38) 진진(陳軫): 유설지사(遊說之士)로 장의(張儀)와 함께 진나라 혜왕(惠王)을 모셨는데, 서로 총애를 받기 위해 다투었다. 장의가 진나라 재상이 된 후 진진은 초(楚)나라를 망명하였으며 나중에 진나라로 다시 돌아왔다. 자세한 내용은 《사기·장의열전(張儀列傳)》의 부록(附錄)인 <진진전(陳軫傳)>에 기록되어 있다.

39) 곽군(郭君): 즉 궈군(號君)이다. 곽(郭)은 궈(號)과 통하며 궈군은 춘추시대 북궈(北號)의 군주였다. 북궈는 지금의 산서성 평육현(平陸縣)이다.

40) 진헌공(秦獻公): 진나라 무공(武公)의 아들로 이름은 궈제(詭諸)이다.

41) 주지교(舟之僑): 궈국(號國)의 대부(大夫)이다.

42) 순식(荀息): 진나라의 대부(大夫)이다.

43) 미녀파설(美女破說): “미녀가 간언(諫言)을 하는 신하를 무너뜨린다”는 뜻이다. 포표주(鮑彪注)에도 “파(破)는 ‘일을 망치다’는 뜻이며, 설(舌)은 간언을 하는 신하를 가리킨다(破, 壞其事. 舌, 指諫臣)”라고 하였다.

44) 유(遺): “바치다”의 뜻이다.

45) 거(去): “떠나다”의 뜻이다. 《국어(國語)·진어(秦語)二》에는 주지교(舟之僑)가 궈국(號國)의 멸망을 예견하고는 바로 궈국을 떠나 진나라로 갔다고 적혀있다.

46) 우(虞): 나라이름으로 지금의 산서성 평육현(平陸縣)동북지방이다.

47) 궁지기(宮之奇): 우(虞)나라의 대부(大夫)이다.

48) 미남파노(美男破老): 미남은 외모로 총애를 받는 신하를 가리키며 노(老)는 국노(國老), 즉 나이가 많은 원로 경대부(卿大夫)를 가리킨다. (김정휘(金正煥) 《전국책보석(戰國策補釋)》의 주석(註釋)에 따랐다.)

49) 수망(遂亡): “곧 바로 도망쳤다”의 뜻이다. 《국어·진어(秦語)二》에는 궁지기는 우공(虞公)에게 간언(諫言)하였으나 우공이 받아들이지 않자 처자와 함께 서산(西山)으로 도망쳤다고 적혀있다.

智, 故驕⁵⁵⁾張儀以五國. 來, 必惡是二人⁵⁶⁾. 願王勿聽也.」張儀果來辭⁵⁷⁾, 因言軫也, 王怒而不聽.

전신(田莘)이 진진(陳軫)을 위해 진나라 혜왕(惠王)에게 유설(遊說)하길 “저는 대왕께서 곽군(郭君)과 같은 경우가 될까 두렵습니다. 진나라 헌공(獻公)은 곽국(虢國)을 침공하려고 하였으나 주지교(舟之僑)의 존재가 두려웠습니다. 순식(荀息)이 ‘《주서(周書)》에 「미녀가 간언(諫言)을 하는 신하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라고 하자 가무(歌舞)를 잘 하는 기생을 바쳐 나라의 정치를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주지교가 간언을 하였으나 곽군이 듣지 않자 곧 곽국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진나라 헌공(獻公)은 곽국을 침공하여 마침내 곽국을 멸망시켰습니다. 또 우(虞)나라를 침공하려고 하였으나 궁지기(宮之奇)의 존재가 두려웠습니다. 순식이 ‘《주서(周書)》에 「미남이 원로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고 하자 외모로 총애를 받을 만한 신하를 보내 그들로 하여금 궁지기를 중상(中傷)하게 하였습니다. 궁지기는 간언하였으나 우군(虞君)이 듣지 않자 곧 우국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진나라 헌공은 우국을 토벌하여 끝내 우국을 탈취하였습니다. 현재 진나라는 스스로 왕이라 봉(封)하니 대왕을 해칠 수 있는 나라는 초(楚)나라 뿐입니다. 초

50) 자이위왕(自以爲王): “스스로 자신을 왕으로 봉하다”는 뜻이다. 요굉주(姚宏注)에 “혜왕(惠王)은 효공자(孝公子)이다. 제왕의 존호(尊號)를 참칭(僭稱)하여 왕이라 부르기 시작하니 고로 ‘자이위왕(自以爲王)’이라 한다(惠王, 孝公子也. 始僭尊號爲王, 故曰「自以爲王」)”고 하였다.

51) 능해왕지국자(能害王之國者): 곽희분(郭希汾) 《전국책상주(戰國策詳注)》에는 “왕자(王者)의 “자(者)”를 빼고 “능해왕지국자(能害王之國者)”라고 적고 있다. 본 역주는 곽주(郭注)를 따른다.

52) 지(智): 지(知)와 통하니, 즉 “알다”의 뜻이다.

53) 횡군(橫君): 진나라 장수인 횡문군(橫門君)이다.

54) 용병(用兵): 포표주(鮑彪注)와 곽희분(郭希汾) 《전국책상주(戰國策詳注)》도 두 이 두 글자는 없다. 본 역주 역시 이를 따른다.

55) 교(驕): “총애하다”의 뜻이다.

56) 이인(二人): 횡문군과 진진 두 사람을 가리킨다.

57) 사(辭): 간언(諫言)을 뜻한다.

나라는 횡문군(橫門君)이 용병(用兵)에 뛰어나고 진진(陳軫)이 지혜롭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총애하는 장의(張儀)를 한(韓)·위(魏)·조(趙)·연(燕)·제(齊)의 다섯 나라에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장의가 진나라에 오면 반드시 횡문군과 진진을 중상할 것이니 대왕께서는 부디 그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얼마 후 과연 그의 말대로 장의가 진나라에 와서 진나라 혜왕에게 진언(進言)을 올려 진진을 비방하였으나, 혜왕은 대노(大怒)하며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陳軫去楚之秦

— 秦策 —

[1]

陳軫去楚之秦. 張儀謂秦王⁵⁸)曰: 「陳軫爲王臣, 常以國情輸楚⁵⁹). 儀不能與從事, 願王逐之. 卽⁶⁰)復之楚, 願王殺之.」 王曰: 「軫安敢之楚也!」

[1]

진진(陳軫)이 초(楚)나라를 떠나 진(秦)나라에 왔다. 장의(張儀)가 진나라 혜왕(惠王)에게 “진진은 대왕의 신하이면서 오히려 진나라의 상황을 자주 초나라에 밀고하였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국정을 돌볼 수 없습니다. 부디 대왕께서 그를 추방하십시오. 만약 그가 정말로 초나라에 가면 그를 죽이십시오”라고 하였다. 진나라 혜왕은 “진진이 어찌 감히 초나라에 가겠느냐?”라고 하였다.

58) 진왕(秦王): 즉 진나라 혜왕(惠王)이다.

59) 수초(輸楚): “초나라에 밀고(密告)하다”의 뜻이다. 요굉주(姚宏注)에는 “수는 말하다(輸, 語也)”라고 하였으며, 오사도(吳師道)《보정(補正)》에는 “수는 ‘쓰다’의 뜻이다. 적은 것을 보내 알린다(輸, 寫也. 輸寫以告之)”라고 하였다.

60) 즉(則): “만약”의 뜻이다.

[2]

王昭陣軫告之曰:「吾能聽子言, 子欲何之? 請爲子車約⁶¹⁾。」對曰:「臣願之楚。」王曰:「儀以子爲之楚, 吾又自知子之楚. 子非楚, 具安之也⁶²⁾。」軫曰:「臣出, 必故之楚, 以順⁶³⁾王與儀之策⁶⁴⁾, 而明臣之楚與不⁶⁵⁾也. 楚人有兩妻者, 人誑⁶⁶⁾其長者, 詈之; 誑其少者, 少者許之. 居無幾何⁶⁷⁾, 有兩妻者死。」客謂誑者曰:『汝取長者乎? 少者乎?』『取長者.』客曰:『長者詈汝, 少者和⁶⁸⁾汝, 汝河爲取長者?』曰:『居彼人之所, 則欲其許我也; 今爲我妻, 則欲其爲我詈人也.』今楚王⁶⁹⁾明主也, 而昭陽⁷⁰⁾賢相也. 軫爲人臣, 而常以國輸楚王, 王必不留臣, 昭陽將不與臣從事矣. 以此明臣之楚與不.」

[2]

진나라 혜왕이 진진을 불러 그에게 “과인은 너의 말대로 해줄 수 있구나. 너는 어디로 가고 싶으나? 너를 위해 마차를 준비해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진진이 “저는 초나라에 가길 원합니다”고 대답하자 혜왕은 “장익은 네가 초나라에 갈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 또한 네가 초나라에 갈려고 한다는 것을 지금 직접 알게 되었구나. 네가 초나라에

-
- 61) 거약(車約): 요평본(姚宏本)은 “거약(車約)”으로, 포표본(鮑彪本)은 “약거(約車)”로 적고 있다. 약(約)은 “준비하다”의 뜻이다.
 62) 차안지(且安之): 차(且)는 장차(將)의 뜻이다. 전체 구절의 뜻은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이다. 반문(反問)의 어기(語氣)를 사용하여 “진진이 초나라에 갈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63) 순(順): “순응(順應)하다”의 뜻이다.
 64) 책(策): 계책(計策)의 뜻이다.
 65) 불(不): 부(否)와 통한다. 포표본(鮑彪本) 역시 “부(否)”로 적고 있다.
 66) 조(誑): 도(挑)와 통하며 “회롱·유혹하다”의 의미이다.
 67) 거무기하(居無幾何): 포표주(鮑彪注)는 “오래지 않아(時不久也)”로 해석하고 있다.
 68) 화(和): “응화(應和)·응허(應許)”의 의미로 맞장구치며 허락함을 뜻한다. 포표주(鮑彪注)는 “화는 ‘응하다’의 뜻이다(和, 猶應)”고 하였다.
 69) 초왕(楚王): 초나라 회왕(懷王)을 가리킨다.
 70) 소양(昭陽): 성은 소(昭)이고 이름은 양(陽)이다. 본래 초나라의 장수로 위나라의 침공에 공헌이 있어 초나라 회왕(懷王)의 영윤(令尹)이 되었다.(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사기·초세가(楚世家)》에 자세히 적혀 있다.)

가지 않으면 어딜 가겠느냐?”라고 하였다. 진진이 “제가 진나라를 떠나면 반드시 일부러라도 초나라에 갈 것입니다. 이로서 대왕과 장의의 계책에 순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초나라에 갈 것인지 아닌지를 나타내 보이고자 합니다. 이전에 초나라에 두 명의 마누라를 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의 큰마누라를 유혹하자 그의 큰마누라는 그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또 그의 작은마누라를 유혹하자 그의 작은마누라는 그의 유혹을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명의 마누라를 둔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마누라를 유혹했던 그 사람에게 ‘당신은 그 사람의 큰마누라에게 장가들려고 합니까 아니면 작은마누라에게 장가들려고 합니까?’라고 묻자 그는 ‘큰마누라에게 장가들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큰마누라는 너에게 욕을 하였고 작은마누라는 너를 허락하였는데 왜 큰마누라에게 장가들려고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당연히 그녀가 나에게 허락해주길 바랬지만 지금 나의 마누라가 되면 그녀가 나를 대신해 다른 사람에게 욕하길 바란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지금의 초나라 왕은 총명한 군주이며 소양(昭陽)또한 재덕(才德)을 겸비한 재상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신하로서 오히려 나라의 정보를 자주 초나라 왕에게 밀고하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초나라 왕은 결코 나를 거두어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소양 역시 나와 함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내가 초나라에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3]

軫出, 張儀入, 問王曰; 「陳軫果安之?」 王曰; 「夫軫天下之辯士也, 孰⁷¹⁾視寡人曰; 『軫必之楚。』 寡人遂無奈何也。 寡人因問曰; 『子必之楚也, 則儀之言果信矣』 軫曰; 『非獨儀之言也, 行道之人皆知之。 昔者子胥⁷²⁾忠其君,

71) 숙(孰): 숙(熟)과 통한다. “세밀하다”의 뜻이다.

72) 자서(子胥): 오자서(伍子胥)이다. 초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원(員)이다. 부친 사(奢)와 형인 상(尚)이 초나라 평왕(平王)에게 살해되자 오나라로 도망가서 오왕을 도와 초나라를 침공하였다. 초나라 도읍인 영(郢)에 입성하였으나

天下皆欲以爲臣; 孝己⁷³⁾愛其親, 天下皆欲以爲子. 故賈僕妾不出里巷而取者, 良僕妾也; 出婦嫁於鄉里者, 善婦也. 臣不忠於王; 楚何以軫爲?⁷⁴⁾ 忠尙見棄, 軫不之楚, 而何之乎?』, 王以爲然, 遂善待之.

[3]

진진이 나간 후 장의가 들어와 진나라 혜왕에게 “진진은 도대체 어디로 갈려고 합니까?”라고 물었다. 혜왕은 “진진은 정말 천하의 변사(辯士)로다. 그는 자세히 나를 보고는 ‘저 진진은 반드시 초나라에 갈 것입니다’라고 하여 나를 꼼짝 못하게 하였다. 나는 계속해서 그에게 ‘네가 반드시 초나라에 갈 것이라고 하니 장의의 말은 과연 정말이었구나’ 라고 하자, 진진이 ‘단지 장의만 그렇게 말할 뿐 아니라 길가는 사람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오자서(伍子胥)가 오왕(吳王)에게 충성을 다하자 천하의 군주들이 모두 그를 신하로 삼으려고 했으며, 효기(孝己)가 그의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자, 천하의 부모가 모두 그를 아들로 삼고자 하였습시다. 팔려서 종복(從僕)이 골목을 벗어나지 않고 팔리면 반드시 좋은 하인이며, 버림받은 부녀자가 그녀의 마을에서 시집가면 또한 반드시 좋은 부녀자인 것입니다. 내가 만약 대왕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초왕이 저를 왜 원하겠습니까? 충성을 다하고도 버림을 받게 되었으니, 제가 초나라에 가지 않으면 어딜 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진나라 혜왕은 진진의 말이 옳다고 여겨 그를 잘 대해 주었다.

평왕은 이미 죽은 뒤이므로 그의 무덤을 파서 시체에 채찍을 가해 복수하였다.

73) 효기(孝己): 은(殷)나라 고종(高宗)인 무정(武丁)의 아들로 효행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나 후처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되니 세상사람들이 모두 애통해 했다.

74) 위(爲): 문구(文句)의 끝에 쓰여 의문을 나타낸다.

楚絕齊齊舉兵伐楚

— 秦策二 —

楚絕齊, 齊舉兵伐楚. 陳軫謂楚王⁷⁵)曰: 「王不如以地東解於齊, 西講⁷⁶)於秦。」

楚王使陳軫之秦, 秦王⁷⁷)謂軫曰: 「子秦人⁷⁸)也, 寡人與子故⁷⁹)也, 寡人不佞⁸⁰), 不能親⁸¹)國事也, 故子棄⁸²)寡人事楚王. 今齊楚相伐⁸³), 或謂救⁸⁴)之便⁸⁵), 或謂救之不便, 子獨⁸⁶)不可以忠爲子主⁸⁷)計, 以其餘爲寡人⁸⁸)乎?」陳軫曰: 「王獨不聞吳人之遊⁸⁹)楚者乎? 楚王⁹⁰)甚愛之, 病⁹¹), 故使人問之,

75) 초왕(楚王): 초나라 회왕(懷王)이다.

76) 강(講): 화해(和解)의 뜻이다. 포표주(鮑彪注)에 “《보정(補正)》에 말하길 강(講)은 마땅히 구(媾)로 읽어야 한다(補曰: 講, 當從媾讀)”고 하였다. 즉 구화(媾和)·강화(講和)의 의미이다.

77) 진왕(秦王): 진나라 혜왕(惠王)이다.

78) 진인(秦人): 요굉주(姚宏注)는 “진(軫)이 일찍이 진나라에서 관직을 지냈으므로 진나라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軫先任於秦, 故言秦人也)”고 하였다.

79) 고(故): 구(舊), 즉 “오랫동안 사귀 친구(舊交)”의 뜻이다.

80) 불녕(不佞): 념(佞)은 재주와 지혜(才智)의 뜻이다. 불녕은 “재주와 지혜가 없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말이다.

81) 친(親): 요굉주(姚宏注)는 “지(知)와 같다고 하였으니, 즉 “주지(主持)”의 뜻이다.

82) 기(棄): “떠나다”의 뜻이다. 요굉주(姚宏注)는 “기는 ‘가다’이다(棄, 去也)”라고 하였다.

83) 제초상벌(齊楚相伐): 《사기·장의열전(張儀列傳)》에 부록으로 된 <진진전(陳軫傳)>에는 이것을 “한위상공(韓魏相功)”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마도 또 다른 전해오는 이야기인 것 같다.

84) 구(救): “제지하다”의 뜻이다.

85) 편(便): “이롭다”의 뜻이다.

86) 독(獨): 반문(反問)의 부사로 “설마”의 뜻이다.

87) 주(主): 군주의 약칭으로 초나라 회왕(懷王)을 가리킨다.

88) 기여위과인(其餘爲寡人): 요굉주(姚宏注)는 “남는 계약으로 과인(寡人)을 위해 계획을 세워라(以餘計爲寡人計也)”라고 하였다. 즉 “너의 군주인 초나라 왕을 위해 계약을 세우고 여유가 있으면 나를 위해 계획을 세워 달라”는 뜻이다.

89) 유(遊): “벼슬을 하다”의 뜻이다.

曰; “誠病乎? 意⁹²亦⁹³思乎?” 左右曰; “臣不知其思與不思, 誠思則將吳吟⁹⁴. 今軫將爲王吳吟⁹⁵. 王不聞夫管與⁹⁶之說乎? 有兩虎諍⁹⁷人而鬪者, 管莊子⁹⁸將刺之, 管與止之曰; ”虎者, 戾蟲⁹⁹; 人者, 甘餌也. 今兩虎諍人而鬪, 小者必死, 大者必傷. 子待傷虎而刺之, 則是一舉而兼¹⁰⁰兩虎也. 無刺一虎之勞, 而有刺兩虎之名.“ 齊·楚今戰, 戰必敗¹⁰¹. 敗, 王起兵救之, 有救齊之利¹⁰², 而無伐楚之害. 計聽知覆逆者¹⁰³, 唯王可也. 計者, 事之本

90) 초왕(楚王): 초나라 선왕(先王)이다.

91) 병(病): “오(吳)나라 사람의 병이 심하다”는 뜻이다.

92) 의(意): 억(抑), 즉 “혹은”의 뜻으로 선택을 나타내는 연사(連詞)이다.

93) 역(亦): “단지”의 뜻이다.

94) 성사즉장오음(誠思則將吳吟): “정말 오나라를 그리워하면 오나라 말로 신음할 것이다”라는 뜻이다.

95) 진진도 역시 진나라를 그리워하며 옛날을 잊지 않고 있음을 말한다.

96) 관여(管與): 성은 관(管)이며 이름은 여(與)이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다.

97) 쟁(諍): 포표본(鮑彪本)과 《사기(史記)》모두 “쟁(爭)”으로 적고 있다. 본 역 주 역시 이를 따른다.

98) 관장자(管莊子): 요평본(姚宏本)은 “관장자(管莊子)”로, 포표본(鮑彪本)은 “변장자(卞莊子)”로, 《사기·진진전(陳軫傳)》에는 “관수자(館賢子)”로 적고 있다. “관수자”란 주막의 점원이란 뜻이고, 《논어·헌문편(憲問篇)》에 “변장자의 용기(卞莊子之勇)”라는 구절이 있으니 문장 전체의 뜻에 비추어 본 역 주는 포표본(鮑彪本)을 따른다.

99) 려충(戾蟲): 포표주(鮑彪注)는 “려(戾)는 ‘포악하다’의 뜻이다(戾, 暴也)”라고 하였다. 충(蟲)은 모든 동물을 가리킨다. 따라서 려충은 포악한 동물, 즉 여기서는 호랑이를 가리킨다. 옛 사람들은 금(禽·조류)을 “우충(羽蟲)”, 수(獸·들짐승)를 “모충(毛蟲)”, 구(龜·거북류)를 “갑충(甲蟲)”, 어(漁·물고기)를 “린충(鱗蟲)”, 인(人·사람)을 “라충(倮蟲)”이라 하였다.

100) 겸(兼): 겸득(兼得), 즉 “동시에 획득한다”는 뜻이다. 요평주(姚宏注) 역시 “겸은 ‘얻다’의 뜻이다(兼, 得也)”라고 하였다.

101) 필패(必敗): 포표주(鮑彪注)는 “반드시 한 쪽은 패한다(必有一敗)”라고 하였으나 위 문장의 “약한 놈은 반드시 죽고 강한 놈은 반드시 상처를 입는다”라는 문구와 연결시켜 보면 “둘 다 패하거나 국력에 큰 손실을 입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전체 문장의 뜻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102) 초나라와 제(齊)나라가 단교한 후 제나라와 진(秦)나라의 관계가 가까워져서 진나라는 부득이 제나라를 구제(救濟)한다고 공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103) 계청지복역(計聽知覆逆): “책략을 잘 세우고 훌륭히 결단을 내리며 또한

也; 聽者, 存亡之機¹⁰⁴). 計失而聽過, 能有國者寡也. 故曰: “計有一二者難悖¹⁰⁵也. 聽無失本末¹⁰⁶者難惑¹⁰⁷.”]

초나라와 제나라가 국교를 단절하고 제나라가 병력을 일으켜 초나라를 토벌하였다. 진진(陳軫)이 초나라 회왕(懷王)에게 “대왕께서는 영토를 할양(割讓)하여 동쪽으로는 제나라와 화해하고 서쪽으로는 진나라와 강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초나라 회왕은 진진을 진나라에 파견하였다. 진나라 혜왕(惠王)은 진진에게 “너는 원래 진나라 사람으로 너와 과인은 오랫동안 교분을 나누었으나, 내가 재주와 지혜가 없고 국사를 잘 이끌지 못하여 너는 과인을 떠나 초나라 왕을 모셔왔다. 지금 제나라와 초나라가 서로 싸우니, 어떤 이는 싸움을 제지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어떤 이는 옳지 않다고 한다. 너는 너의 왕을 위해 책략을 올린 후, 너의 여력으로 나를 위해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없다고 설마 말하지는 않겠지?”라고 하였다. 진진이 “대왕께서는 초나라에서 벼슬을 한 어떤 오나라 사람의 일을 들어보지 못하신 것은 설마 아니시겠지요? 초나라 왕은 그를 대단히 아꼈으며 그 오나라 사람이 병이 나자, 초나라 왕은 특별히 사람을 보내 그를 위문하였습니다. 위문하고 돌아온 이에 ‘정말로 병이 난 것인가? 아니면

일이 순조롭게 발전할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을 것인 지를 미리 안다”는 뜻이다. 포표주(鮑彪注)는 “책략을 잘 세우고 청단(聽斷)을 훌륭히 하여 두 나라의 순리에 어긋남을 안다. 복역(覆逆)은 ‘도리에 어긋난다’의 뜻이다(能計善聽, 知二國之覆逆. 覆逆, 言不順於理)”라고 하였다. 그러나 목문원(繆文遠) 《전국책신교주(戰國策新校注)》에는 “복역은 백서(帛書) 제 24장에는 순역으로 되어 있다. 일의 순조로움과 역행함을 안다는 뜻이니 포주(鮑注)는 잘못되었다(覆逆, 帛書第二十四章作順逆. 言知事之順逆, 鮑注非是)”고 하였다. 본 역주는 목주(繆注)를 따라 “복역”을 “순역”으로 해석하였다.

- 104) 기(機): 요평주(姚宏注)는 “기(機)는 ‘중요하다’의 뜻이다(機, 要也)”라고 하였다. 즉, 관건(關鍵)의 뜻이다.
 105) 패(悖): 오류(誤謬)의 뜻이다.
 106) 무실본말(無失本末): “본말이 전도(顛倒)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107) 난혹(難惑): 혹(惑)은 혼란·미혹(迷惑)의 뜻으로 “혼란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뜻이다.

자기의 모국인 오나라를 그리워해서인가?’라고 묻자, 그 사신은 ‘저는 그가 오나라를 그리워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정말 그리워한다면 그는 장차 오나라 말로 신음(呻吟)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저 진진은 대왕을 위해 오나라 말로 신음하고자 합니다. 대왕께서는 또 관여(管輿)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두 마리의 호랑이가 한 사람을 먼저 잡아먹기 위해 서로 싸웠습니다. 관장자(管莊子)가 그 놈들을 찢어 죽이려고 하자 관여가 그를 말리며 ‘호랑이는 탐욕스럽고 포악한 동물이며 사람은 그들의 가장 좋은 먹이 감입니다. 지금 두 마리 호랑이가 한 사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니, 힘이 약한 놈은 반드시 죽을 것이며, 힘이 센 놈도 반드시 부상을 입을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 때를 기다렸다가 부상을 당한 호랑이를 찢어 죽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두 마리의 호랑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마리의 호랑이도 찢어 죽이는 고생 없이 오히려 두 마리의 호랑이를 찢어 죽였다는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초나라와 제나라가 서로 싸우니, 싸우면 반드시 둘 다 패하게 되고, 둘 다 패하면 그 때 대왕께서 병력을 출동시켜 구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나라를 구조하였다는 이점(利點)을 가지게 되고 초나라를 침공하였다는 결점(缺點)은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계략을 잘 세우고 결단을 훌륭히 내리며 또한 일의 진행됨이 순조로울 것인지 아닌지를 예견하는 것은 오직 대왕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계책(計策)은 국사(國事)의 근본이며 결단은 국가존망(存亡)의 관건입니다. 계략을 잘못 세우고 또한 결단 역시 과실을 범하고서도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생각하여 세운 계책은 착오가 나타나기 어려우며, 본말이 전도되지 않은 결단은 혼란을 초래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라고 하였다.

醫扁鵲見秦武王

— 秦策二 —

醫扁鵲¹⁰⁸見秦武王¹⁰⁹, 武王示¹¹⁰之病, 扁鵲請除¹¹¹. 左右曰: 「君之病, 在耳之前, 目之下, 除之未必已¹¹²也. 將使耳不聰, 目不明.」君以告扁鵲. 扁鵲怒而投其石¹¹³: 「君與知之者謀之, 而與不之者敗之. 使此知¹¹⁴秦國之政也, 則君一舉而亡國矣.」

명의(名醫) 편작(扁鵲)이 진나라 무왕(武王)을 알현(謁見)하자 무왕이 그에게 자신의 병을 말하였다. 편작은 치료할 수 있도록 왕에게 청하였다. 무왕 주위의 사람들이 “대왕께서는 귀의 앞부분과 눈의 아랫부분에 병이 났는데 설사 치료하더라도 반드시 완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

108) 편작(扁鵲): 《사기·편작창공열전(扁鵲倉公列傳)》의 편작은 춘추시대 사람이며, 장수절(張守節)은 《사기정의(史記正義)》에서 <황제팔십난서(黃帝八十難序)>을 인용하여 헌원(軒轅, 즉 황제)시대에도 편작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본문의 편작은 전국(戰國)시대 사람으로 위에서 열거한 편작과는 시대가 너무 동떨어지니 편작은 아마도 고대 명의(名醫)의 칭호인 듯하다. 본문의 편작은 요굉주(姚宏注)·포표주(鮑彪注)·오사도(吳師道) 《보정(補正)》 및 각 주를 종합해보면 전국시대의 명의로 성은 진(秦), 이름은 소제(少齊), 혹은 월인(越人)으로 지금의 하북성 임구현(任丘縣)사람이다. 의술은 장상군(長桑君)에게서 배웠으며 의료경험이 풍부하고, 의술의 각 분야에서 뛰어났으며, 무술(巫術)로 병을 치료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진나라에 들어온 후, 태의령(太醫令) 이혜(李醜)가 자신의 의술이 그에 미치지 못함을 알고는 사람을 시켜 살해하였다.

109) 진무왕(秦武王): 진나라 혜왕(惠王)의 아들로, 이름은 탕(蕩)이다.

110) 시(示): 요굉주(姚宏注)는 “시는 ‘말하다’의 뜻이다(示, 語也)”라고 하였다.

111) 제(除): “제거하다”의 뜻이나, 여기서는 뜻이 인신(引伸)되어 “치료하다”의 뜻이다. 요굉주(姚宏注)도 “제는 ‘치료하다’의 뜻이다(除, 治也)”라고 하였으며, 포표주(鮑彪注)도 “그 병을 없애려고 한다(欲去其病)”라고 하였다.

112) 이(已): “치유(治癒)되다”의 뜻이다.

113) 석(石): 펨(砒), 즉 돌 침이다. 옛사람들은 돌 침으로 살을 찢러 병을 치료하였다.

114) 차지(此知): 차는 여차(如此)이다. 지는 주지(主持), 즉 “다스리다”의 뜻이다.

히려 전하의 귀를 멀게 하고 눈을 못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무왕이 주위 사람들의 말을 편작에게 말하자, 편작은 화를 내며 돌침을 던지고는 “대왕께서는 전문가와 치료에 대해 상의하고서는 오히려 비전문가와 함께 그것을 파괴하였습니다. 만약 대왕께서 이와 같이 나라를 다스리면 대왕은 일거(一擧)에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秦武王謂甘茂

— 秦策二 —

[1]

秦武王謂甘武曰: 「寡人欲車通三川¹¹⁵), 以闚¹¹⁶周室¹¹⁷), 而¹¹⁸寡人死不¹¹⁹朽乎?」甘武對曰: 「請之魏·約伐韓」王令向壽¹²⁰輔行¹²¹).

[1]

진나라 무왕(武王)이 감무(甘武)에게 “과인은 병력을 일으켜 삼천(三川)을 관통하여 주나라 왕실을 엿보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죽어도 과인의 공적은 불후(不朽)의 공적이 될 것이다”라고 하자, 감무가 “한(韓)나

115) 삼천(三川): 황하(黃河)·낙하(洛河)·이하(伊河)가 경유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진나라는 여기에 삼천군(三川郡)을 설치하였다. 지금의 하남성 영보현 동쪽으로 낙양(洛陽)·언사(偃師)·공현(琺縣)·범수(汜水)·맹진(孟津) 등지를 포함한다. 당시는 한나라의 영토였으며 의양(宜陽)땅은 삼천의 가운데에 있었다.

116) 闚(窺): 窺(窺)로 “엿보다”의 뜻이다.

117) 주실(周室): 주나라 왕실로 낙읍(洛邑)을 가리킨다.

118) 이(而): “즉·그러면”의 뜻이다.

119) 불오(不朽): 마땅히 “불후(不朽)”로 적어야 한다.

120) 향수(向壽): 인명으로 진나라 소왕(昭王)의 모친인 선태후(宣太后)의 외가 일족이다.

121) 보행(補行): 부사(副使)이다.

라를 함께 침공하자는 약정(約定)을 위나라와 맺을 수 있도록 저를 위(魏)나라에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무왕은 곧 향수(向壽)를 부사(副使)로 임명하고 감무와 함께 가도록 하였다.

[2]

甘茂至魏, 謂向壽: 「子歸告王曰: 『魏聽¹²²臣矣, 然願王勿攻¹²³也。』 事成¹²⁴, 盡以爲子功。」 向壽歸以告王, 王迎甘茂於息壤¹²⁵。甘茂至, 王問其故¹²⁶。對曰: 「宜陽, 大縣也, 上黨¹²⁷·南陽¹²⁸積之久¹²⁹矣, 名爲縣, 其實郡也¹³⁰。今王倍數險¹³¹, 行千里而攻之, 難矣。臣聞張儀西并¹³²巴¹³³

122) 청(聽): 청중(聽從), 즉 “듣고 따른다”의 뜻이다.

123) 물공(勿功): “한나라를 공격하지 말라”는 뜻이다.

124) 사성(事成): 한나라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그 일을 성사시킨다.

125) 식양(息壤): 진나라 읍명(邑名)으로 혹은 지금의 협서성 함양시(咸陽市) 동쪽 교외라고도 한다.

126) 고(故): 한나라를 공격하지 않는 이유를 가리킨다.

127) 상당(上黨): 한나라의 군명(郡名)으로 지금의 산서성 장치현(長治縣)으로 남으로는 화순현(和順縣)·유두현(榆杜縣)을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심수(沁水)지역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다.

128) 남양(南陽): 한(韓)나라의 지명으로 지금의 하남성 제원·맹현·온현(濟源·孟縣·溫縣)일대이다.

129) 적지구(積之久): 적(積)은 취(聚), 즉 “모으다”의 뜻이다. 상당과 남양 두 지역의 재산을 오랫동안 줄 곧 의양(宜陽)으로 모아 왔다는 뜻이다.

130) 전국시대에는 군(郡)이 현(縣)보다 컸다. 오사도(吳師道)의 《보정(補正)》에 “《대사기(大事記)》에 ‘춘추시대는 군이 현에 속했다’라고 하였다. 조간자(趙簡子)가 말하길 ‘상대부(上大夫)는 현을 하사 받고 하대부(下大夫)는 군을 하사 받는다’라고 하였는데 옳은 말이다. 전국시대에는 현은 군에 속하였으며 소위 상군(上郡)은 15개의 현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옳은 말이다(大事記云: 春秋時郡屬於縣, 趙簡子所謂上大夫受縣, 下大夫受郡是也。戰國時縣屬於郡, 所謂上郡十五縣者是也)”라고 하였다.

131) 배수험(倍數險): 배(培)는 배(背)와 같으니, “깊어지다”와 “떠나다”의 두 가지 뜻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따라서 “깊어지다”로 해석하면 “수 차례 위협을 안고”로 해석되며, “떠나다”로 해석하면 “여러 험한 요새를 지나서”로 해석된다. 본 역주는 “깊어지다”로 해석하였다.

132) 병(并): “겸병(兼併)·합병(合併)하다”의 뜻이다.

133) 파(巴): 나라 이름으로 지금의 사천성 동부지역이다.

蜀¹³⁴之地, 北取西河之外, 南取上庸¹³⁵, 天下不以爲多¹³⁶張儀, 而賢先王¹³⁷. 魏文侯¹³⁸令樂羊¹³⁹, 將攻中山¹⁴⁰, 三年而拔之, 樂羊反¹⁴¹而語攻¹⁴², 文侯示之謗書一篋, 樂羊再拜稽首曰¹⁴³: 『此非臣之攻, 主君之力也.』今臣羈旅之臣¹⁴⁴也, 樗里疾¹⁴⁵·公孫衍¹⁴⁶二人者, 挾韓而議¹⁴⁷, 王必聽之, 是王欺魏, 而臣受公仲侈¹⁴⁸之怨也. 昔者曾子¹⁴⁹處費¹⁵⁰, 費人有

- 134) 촉(蜀): 나라이름으로 사천성 서부지역이다. 《화양국지(華陽國志)》에 의하면 진나라 혜왕(惠王)은 장의(張儀)와 사마착(司馬錯) 두 사람을 보내 촉나라를 멸망시켰다.
- 135) 상용(上庸): 초나라 땅으로 지금의 호북성 죽산현(竹山縣) 서남지방이다.
- 136) 다(多): “칭찬하다”의 뜻이다.
- 137) 선왕(先王): 진나라 혜왕(惠王)을 가리킨다. 당시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선왕이라 하였다.
- 138) 위문후(魏文侯): 이름은 사(斯)이며(일설에는 도(都)라고 한다.). 재위기간은 38년이며 주나라 위열왕(威烈王) 23년(기원전 403년)에 한(韓)나라·월(越)나라와 함께 제후가 되었다.
- 139) 악양(樂羊): 위나라 문후(文侯)의 장수이다.
- 140) 중산(中山): 나라이름으로 지금의 호북성 정현·당현(定縣·唐縣)일대이다. 위문후(魏文侯) 17년(기원전 408년)에 문후에 의해 멸망하였다.
- 141) 반(反): 반(返), 즉 “돌아오다”의 뜻이다.
- 142) 어공(語功): 논공(論功)의 뜻이다.
- 143) 계수(稽首): “머리를 땅바닥에 조아리다”의 뜻이다.
- 144) 기여지신(羈旅之臣): “이국타향에서 머물고 있는 신하”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감무는 하채인(下蔡人)으로 진나라에서 좌승상(左丞相)을 지냈기 때문이다.
- 145) 처리질(樗里疾): 처리자(樗里子)로 진나라 혜왕(惠王)의 동생이다.
- 146) 공손연(公孫衍): 《사기(史記)》에는 공손석(孔孫奭), 《신서(新序)》에는 공손자(孔孫子)로 적고 있으며 《사기색은(史記索隱)》에는 공손연으로 적고 있다. 혹은 서수(犀首)와 동일인이라 하지만 자세한 사실은 알 수 없으며, 아마도 두 사람은 진나라의 공자(公子)로 추측된다.
- 147) 협한이의(挾韓而議): 협은 협지(挾持), 즉 “양옆으로 끼어 잡다”의 뜻이다. 즉 “한나라를 양옆에 끼고 감무를 비방한다”는 뜻이다.
- 148) 공중치(公仲侈): 한나라 재상이다. 목문원(繆文遠) 《전국책신교주(戰國策新校注)》에는 “치(侈)는 붕(悞)의 오류이다. 백건(帛巾) 《전국책총횡가서(戰國策縱橫家序)》에서는 붕(悞)으로 바로 적고 있다. 공중붕(公仲悞)은 당시 한나라 국상(國相)이었다(侈爲悞之訛. 帛巾《戰國策縱橫家序》正作悞. 公仲悞時爲韓國國相)”라고 하였다. 참고할 만한 자료이다.
- 149) 증자(曾子): 이름은 참(參), 자는 자여(子與)이며 춘추시대 노(魯)나라 남무

與曾子同名族¹⁵¹)者而殺人, 人告曾子母曰: 「曾參殺人。」 曾子之母曰: 「君子不殺人。」 織自若。 有頃焉。 人又曰: 「曾參殺人。」 其母尚織自若也。 頃之, 一人又告之曰: 「曾參殺人。」 其母懼, 投杼¹⁵²)踰牆而走。 夫以曾參之賢, 與母之信也, 而三人疑之, 則慈母不能信也。 今臣之賢不及曾子, 而王之信臣又未若曾子之母也, 疑臣者不適¹⁵³)三人, 臣恐王爲臣之投杼也。 王曰: 「寡人不聽也, 請與子盟。」 於是與之盟於息壤。」

[2]

감무는 위나라에 도착하자 향수에게 “너는 돌아가 무왕에게 ‘위나라가 신의 말을 듣고 따르기로 하였으나 대왕께서는 한(韓)나라를 토벌하지는 마십시오’라고 전하여라. 이번 일이 잘 처리되면 나는 모든 공로를 전부 너에게 돌리겠다”라고 하였다. 향수는 돌아와 무왕에게 고하자 무왕은 곧 식양(息壤)에 가서 감무를 영접하였다. 감무가 도착하자 무왕은 그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감무는 “의양(宜陽)은 큰 현이며 상당(上黨)·남양(南陽) 두 곳의 재산을 오래 전부터 그곳으로 모아 왔으니, 이름은 현이지만 실제로는 군과 같습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험준한 위험을 안고 천리나 되는 길을 행군하여 위나라를 공격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장의(張儀)가 서쪽으로는 파국(巴國)과 촉국(蜀國)을 합병하고, 북쪽으로는 서하(西河)를 얻고, 남쪽으로는 상용(上庸)을 얻었으나 천하의 사람들은 장의를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선왕(先王)을 현명한 군주로 여겼다고 들었습니다. 위나라 문후(文侯)가 락양(樂羊)을 장수로 임명하고, 중산국(中山國)을 침공하게 하여 3년만에 겨우 점령하였습니다. 락양은 조정으로 돌아와 자신의 공로를 평가하자 위나라 문후는 오히려 그를 비방하는 서함(書函)을 한 상자 그에게 건네주어 보게 하였습니다. 락양은 몇 번이고 절을 하며 머리를 땅바닥에 조아리

성(南武城) 사람으로 공자의 수제자이며 효(孝)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다.

150) 비(費): 노나라 읍명으로 지금의 산둥성 비현(費縣) 서남쪽이다.

151) 명족(名族): 명(名)은 이름이며 족(族)은 성(姓)이다. 《사기·저리자 감무열전(樗里子甘茂列傳)》에는 성명(姓名)으로 적고 있다.

152) 저(杼): 베를 복을 가리킨다.

153) 불적(不適): 불시(不啻), 즉 “다만~뿐만 아니라”의 뜻이다.

며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군주의 역량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나는 타국에 머무는 신하이며, 저리질(樗里疾)·공손연(公孫衍) 두 사람이 한(韓)나라를 양 겨드랑에 끼고 나를 비방하고 있고 있으며 대왕께서는 어쨌든 그들의 말을 듣고 믿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대왕은 위나라를 속이게 되고, 나도 역시 공중치(公仲侈)의 원한을 사게 됩니다. 예전에 증자가 비읍(費邑)에 살 때, 이름이 같은 비읍의 사람이 살인을 하였는데 어떤 이가 증자의 모친에게 ‘증참(曾參)이 살인을 하였소’라고 하자, 증자의 모친은 ‘내 아들이 사람을 죽였을 리 없다’라고 말하고는 태연하게 베를 짚습니다. 잠시 후 또 한사람이 와서 ‘증자가 사람을 죽였소’라고 하였으나 그의 모친은 여전히 태연하게 베를 짚습니다. 잠시 후 또 한사람이 와서 ‘증자가 사람을 죽였소’라고 하자 그의 모친은 두려워져서 베를 북을 내던지고 담을 넘어 도망갔습니다. 증자와 같이 그렇게 현명한 분과 그의 모친과 같이 그를 그렇게 믿는 경우에도 단지 세 사람이 ‘증자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여 그녀를 의심하게 만들면 그렇게 자애로운 모친마저도 자신의 아들을 의심하게 됩니다. 지금 나의 현명함은 증자에 미치지 못하고 대왕께서 나를 믿는 정도도 증자의 모친이 증자를 믿는 것 만 못하고 또한 나를 의심하는 자가 단지 3명에 그치지 않으니 대왕께서도 나 때문에 베를 북을 집어던질까 염려됩니다”라고 하였다. 진나라 무왕이 “과인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과인으로 하여금 너와 명세를 하게 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김무는 식양(息壤)에서 맹약(盟約)을 맺었다.

[3]

果攻宜陽，五月而不能拔也。樗里疾·公孫衍二人在¹⁵⁴⁾，爭之王，王將聽之，召甘茂而告之。甘茂對曰：「息壤在彼¹⁵⁵⁾。」王曰：「有之。」因悉起兵，復使甘茂攻之，遂拔宜陽。

154) 재(在): 포표주(鮑彪注)는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한다(言在中也)”고 하였다.

155) 식양재파(息壤在彼): “식양(息壤)은 아직 그곳에 있다”라는 뜻으로 실제로는 무왕에게 식양의 명세를 잊지 말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다.

[3]

이양을 공격하였으나 과연 예상대로 5개월이나 지났으나 함락시킬 수 없었다. 저리질(柁里疾)과 공손연(公孫衍) 두 사람은 가운데에서 방해를 하고 진나라 무왕에게 쟁의(爭議)를 올렸다. 진나라 무왕은 그들의 말을 믿고는 감무를 불러 그들의 쟁의를 그에게 알려주었다. 감무가 “식양은 아직도 거기에 있습니다”라고 하자 진나라 무왕은 “그렇구나”라고 하였다. 그래서 모든 병력을 모아서 감무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여 의양(宜陽)을 함락시켰다.

甘茂亡秦且之齊

— 秦策二 —

[1]

甘茂亡秦¹⁵⁶, 且¹⁵⁷之齊, 出關¹⁵⁸遇蘇子¹⁵⁹, 曰: 「君聞夫江上之處女乎?」 蘇子曰: 「不聞。」 曰: 「夫江上之處女, 有家貧而無燭者, 處女相與語, 欲去¹⁶⁰之. 家貧無燭者將去矣, 謂處女曰: 『妾以無燭, 故常先至, 掃室布席, 何愛餘明之照四壁者? 幸以¹⁶¹賜妾, 何妨於處女? 妾自以有益於處女, 何爲去我?』 處女相語以爲然而留之. 今臣不肖¹⁶², 棄逐於秦而出關, 願爲

156) 망진(亡秦): “진나라에서 도망하다”의 뜻이다. 《사기·저리자감무열전(柁里子甘茂列傳)》에 의하면 진나라 소왕(昭王)이 즉위하자 감무는 향수(向壽)·공손연(公孫衍)등의 참언(讒言)에 의한 중상을 당하여 진나라에서 도망갔다.

157) 차(且): “장차”의 뜻이다.

158) 관(關): 합곡관(函谷關)을 가리킨다.

159) 소자(蘇子): 즉 소대(蘇代)인데 낙양(洛陽)사람으로 종횡가(縱橫家) 소진(蘇秦)의 동생이다. 당시 소대는 인질로 잡혀있는 연(燕)나라 왕의 아들을 시종들기 위해 연나라 재상에 의해 제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160) 거(去): 견(遣), 즉 “쫓아내다”의 뜻이다.

161) 이(以): 지(之), 즉 “그것”의 뜻이다.

162) 불초(不肖): “현명하지 않고 재능이 없다”는 뜻이다.

足下掃室布席，幸無我逐也。」蘇子曰：「善。請重¹⁶³公於齊。」

[1]

감수가 진나라를 도망하여 제나라로 가는 도중에 함곡관(函谷關)을 지날 때, 소대(蘇代)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에게 “당신은 강가 처녀의 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하자 소대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감수가 “강가의 처녀들 중에 집이 가난하여 초를 살수가 없는 처녀가 있었는데 다른 처녀들이 서로 의논하여 그를 내쫓기로 하였습니다. 집이 가난하여 초를 살 수 없는 처녀가 떠나면서 다른 처녀들에게 ‘나는 초가 없기 때문에 항상 먼저 와서 방을 청소하고 방석을 깔고 하였다. 너희들은 왜 사방 벽에 비치는 약간의 잔광(殘光)까지도 아까워하느냐? 만약 그 잔광을 나에게 베풀어준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무슨 방해가 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이로운 존재라고 생각되는데 왜 나를 쫓아내느냐?’라고 하였다. 처녀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는 서로 상의하여 그의 말이 옳다고 여겨 그를 남게 하였습니다. 지금 나는 현명하지도 않고 재능도 없어 진나라에 의해 관외(關外)로 쫓겨갑니다. 당신을 위해 방을 청소하고 방석을 깔기를 원하니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소대가 “좋습니다. 나는 제나라가 당신을 존중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2]

乃西說秦王¹⁶⁴曰：「甘茂，賢人，非恒士¹⁶⁵也。其居秦累世重矣¹⁶⁶，自穀塞¹⁶⁷·溪谷¹⁶⁸，地形險易¹⁶⁹盡知之。彼若以齊約¹⁷⁰韓·魏，反以謀秦，

163) 중(重): “존경·존중”의 뜻이다.

164) 진왕(秦王): 진나라 소양왕(昭襄王)을 가리킨다.

165) 항사(恒士): 평범한 보통의 선비를 말한다.

166) 누세중의(累世重矣): “몇 대에 걸쳐 중용(重用)되었다”는 뜻이다. 감수는 진나라 혜왕(惠王)때 장수가 되어 위장(魏章)이 한중(漢中)을 진압하는데 도왔으며, 진나라 무왕(武王)때 좌승상(左丞相)이 되어 의양(宜陽)을 공격하였으며, 진나라 소왕(昭王)때는 저리자(摎里子)와 함께 위(魏)나라를 정벌하였다. 따라서 본문에서 몇 대에 걸쳐 중용(重用)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是非秦之利也¹⁷¹).」秦王曰：「然則奈何？」蘇代曰：「不如重其贄¹⁷²·厚其祿以迎之。彼來則置之槐谷，終身勿出¹⁷³，天下何從圖秦？」秦王曰：「善。」與之上卿，以相迎之齊。

[2]

그리하여 소대(蘇代)는 서쪽의 진나라에 가서 소왕에게 “감수는 현인(賢人)이며 보통의 선비가 아닙니다. 진나라의 여러 군왕께서 몇 대에 걸쳐 그를 중용 하셨으며, 효새(都塞)에서 계곡(谿谷)에 이르는 지형들 중에 어느 곳이 험하고 평탄한지를 그는 모두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제나라 군사를 이끌고 한·위 두 나라의 군대와 연합하여 한꺼번에 되돌아와 진나라를 공격한다면 아마도 진나라에 이롭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유설(遊說)하였다. 진나라 소왕이 “그러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묻자, 소대가 “귀중한 예물과 많은 봉록(俸祿)으로 진나라로 돌아오는 그를 영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가 돌아오면 그를 괴곡(槐谷)지방에 봉하여 평생토록 나오게 못하게 하면 천하의 제후들 중에 누가 진나라를 공격하고자 하는 획책에 따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진왕이 “좋다”라고 말하고는 곧 감무에게 상경(上卿)의 관직을 주고 상인(相印)을 가지고 제나라에 가서 그를 영접하게 하였다.

167) 효새(都塞): 즉 효산요새(都山要塞)이며 지금의 하남성 낙녕현(洛寧縣) 서북쪽 60리에 있다.

168) 계곡(谿谷): 괴곡(槐谷)이라고도 하며 지금의 협서성 삼원현(三原縣) 서북에 있다.

169) 험이(險易): “험준함과 평탄함”을 뜻한다.

170) 약(約): “결탁하다”의 뜻이다.

171) 시비진지이아(是非秦之利也): “진나라에 대해 이롭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이다. 요굉주(姚宏注)는 “강한 제나라가 한나라·위나라와 힘을 합쳐 진나라를 탐하면 능히 무너뜨릴 수 있으니 고로 ‘진에 대해 이롭지 않다’고 말한다”고 하였다(以齊之強, 合韓·魏, 還以圖陳, 能傾之, 故曰「非秦之利也」).”

172) 지(贄): 고대에 서로 만날 때 바치는 예물을 가리킨다. 《좌전·장공(莊公) 24년》에서 “남자의 예물로는 크게는 옥과 비단, 작게는 들짐승과 날짐승이다(南贄, 大者玉帛, 小者禽鳥)”라고 하였다.

173) 종신물출(終身勿出): “평생토록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3]

甘茂辭不往，蘇秦僞謂王曰¹⁷⁴：「甘茂，賢人也。今秦與之上卿，以相迎之¹⁷⁵，茂德¹⁷⁶王之賜，故不往，願爲王臣。今王何以禮之？王若不留，必不德王。彼以甘茂之賢，得擅用強秦之衆，則難圖也！」齊王曰：「善。」賜之上卿，命而處¹⁷⁷之。

[3]

감무는 사양하고 진나라로 돌아오지 않았다. 소대는 모르는 체 가장하고 또 제나라 민왕에게 “감무는 현인(賢人)입니다. 지금 제나라가 그에게 상경(上卿)의 관직을 주고 상인(相印)을 가지고 그를 영접하였으나 감무는 대왕의 은혜로운 베푸심에 감은(感恩)하여 진나라로 가지 않고 대왕의 신하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어떻게 그를 대우하실 생각이십니까? 대왕께서 만약 그를 붙잡지 않으면 그는 당연히 대왕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나라가 감무의 현명한 재덕을 기반으로 하고 강대한 진나라의 군대를 그로 하여금 제멋대로 사용케 한다면 대응하기가 어렵게 됩니다”라고 하였다. 제나라 민왕은 “좋다”라고 말하고는 곧 그에게 상경의 관직을 주고 제나라에 살게 하였다.

174) 위위왕왈(僞謂王曰): “모르는체 가장하고 제나라 민왕(湣王)에게 말하였다”는 뜻이다. 왕은 제나라 선왕(宣王)의 아들인 민왕으로 이름은 지(地)이다.

175) 이상영지(以相迎之): 《사기·저리자감무열전(樗里子甘茂列傳)》에는 “이상인영지(以相印迎之)”라고 적고 있다. 상인(相印)은 재상의 관인(官印)이다. 따라서 상인으로 해석하면 “상인을 가지고 그를 영접하였다”는 뜻이 된다. 요굉주(姚宏注)은 “이상영지(以相迎之)”라고 하였는데 이는 “서로 영접하다”라는 뜻이 된다. 곽희분(郭希汾) 《전국책상주(戰國策詳注)》는 “이상인영지(以相印迎之)”라고 하였다. 본 역문은 문장의 뜻에 근거하여 곽주(郭注)를 따랐다.

176) 덕(德): 요굉주(姚宏注)는 “덕은 ‘감은(感恩)’의 뜻이다(德, 恩也)”라고 하였다.

177) 처(處): “거주하다·머물어 살게 하다”의 뜻이다.

應侯謂昭王

— 秦策三 —

應侯¹⁷⁸謂昭王曰:「亦聞恆思¹⁷⁹有神叢與¹⁸⁰? 恆思有悍少年, 請與叢博¹⁸¹, 曰:『吾勝叢, 叢籍¹⁸²我神三日; 不勝叢, 叢困我。』乃左手爲叢投¹⁸³, 右手自爲投, 勝叢, 叢籍其神. 三日, 叢往求之, 遂弗歸. 五日而叢枯, 七日而叢亡. 今國者, 王之叢; 勢者, 王之神. 籍人以此, 得無危乎? 臣未嘗聞指大於臂, 臂大於股, 若有此, 則病必甚矣. 百人與¹⁸⁴, 瓢而趨, 不如一人持而走疾. 百人誠與瓢, 瓢必裂. 今秦國, 華陽用之, 穰侯用之, 太后用之, 王亦用之. 不稱¹⁸⁵瓢爲器, 則已; 已稱瓢爲器, 國必裂矣. 臣聞之也: 『木實繁者枝必披, 枝之披者傷其心. 都大者危其國, 臣强者危其主。』其令¹⁸⁶邑中自斗食¹⁸⁷以上至尉¹⁸⁸·內史¹⁸⁹及王左右, 有非相國¹⁹⁰之人者

178) 응후(應侯): 즉 범수(范雎)이다. 진나라는 범수를 응(應)에 봉하였기 때문에 응후라 하였다. 응은 지금의 하남성 노산현(魯山縣) 동쪽지방이다.

179) 항사(恆思): 지명이며 정확한 소재는 알 수 없다.

180) 신총(神叢): 《사기·진섭세가(陳涉世家)·색은(索隱)》에서 고유주(高誘注) 《전국책》을 인용하여 “신총은 신사이다. 총은 나무이다(神叢, 神祠. 叢, 樹也)”라고 하였다. 포표주(鮑彪注)는 “관목(灌木)중에 신령을 위탁한다(灌木中有神靈託之)”라고 하였다. 본 역주는 포표주(鮑彪注)를 따른다. 옛날에는 신령을 어떤 나무에 위탁하였다고 믿었는데 이 나무를 “신총”이라 하였다.

181) 박(博): 승부내기를 하는 일종의 놀이이다.

182) 적(籍): 차(借)와 통하며 “빌리다”의 뜻이다. 포표주(鮑彪注)는 “신령을 나에게 빌려주다(以神靈借我)”라고 하였다.

183) 투(投): “주사위를 던지다”의 뜻이다. 곽희분(郭希汾)주(注)에는 “투는 도박 기구인데 바로 지금의 주사위이다(投, 博具, 卽今之骰子也)”라고 하였다.

184) 여(輿): “신다”의 뜻이다. 포표주(鮑彪注)는 “그것을 짊어지는 것은 마치 물건을 싣는 것과 같다(負之如輿載物)”라고 하였다.

185) 칭(稱): “비유하다”의 뜻이다. 포표주(鮑彪注)는 “칭은 ‘같다’의 뜻이다. 나라를 표주박에 비유함을 말한다(稱, 猶等也. 謂比國於瓢)”라고 하였다.

186) 기령(其令): 포표주(鮑彪注)에 의거하여 “차령(且令)”으로 한다.

187) 두식(斗食): 봉록(俸祿) 중 가장 적은 봉록을 가리킨다. 하루에 일두이승(一斗二升)으로 일년에 일백석(一百石)이 되지 않는다.

188) 위(尉): 무관(武官)으로 즉 군위(軍尉)이다. 진나라는 중앙이나 군·현 모두

乎? 國無事, 則已; 國有事, 臣必聞¹⁹¹⁾見王獨立於庭也. 臣竊爲王恐, 恐萬世之後有國者, 非王子孫也。」

「臣聞古之善爲政也, 其威內扶¹⁹²⁾, 其輔¹⁹³⁾外布, 四¹⁹⁴⁾治政不亂不逆, 死者直道而行, 不敢爲非. 今太后使者分裂諸侯, 而符布天下, 操大國之勢, 強徵兵¹⁹⁵⁾, 伐諸侯. 戰勝攻取, 利盡歸於陶; 國之幣帛, 竭入太后之家; 境內¹⁹⁶⁾之利, 分移華陽. 古之所謂『危主滅國之道』必從此起. 『三貴』¹⁹⁷⁾竭國以自安, 然則令何得從王出? 權何得毋分? 是我¹⁹⁸⁾王果處三分之一也¹⁹⁹⁾。」

응후(應侯)가 진나라 소왕(昭王)에게 “항사(恒思) 지방의 나무 신을 들 어본 적이 있습니까? 항사에 흉악하고 난폭한 소년이 있었는데 나무 신 에게 도박을 하자고 요구하면서 ‘내가 만약 당신을 이기면 당신은 신을 저에게 3일 동안 빌려주어야 하며, 만약 당신을 이기지 못하면 당신은 나를 곤경에 빠뜨려도 좋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왼손으로 나 무 신을 위해 주사위를 던지고 오른손으로 자신을 위해 주사위를 던졌 습니다. 그 결과 그가 이겼으며 나무 신은 신을 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위가 있었다.

189) 내사(內史): 진나라 때 서울을 다스리는 행정장관으로 지위는 군수에 해당 한다. 한 무제(武帝) 이후 경조윤(京兆尹)으로 바꾸었다.

190) 상국(相國): 양후(穰侯) 위엄(魏冉)을 말한다.

191) 문(聞): 포표주(鮑彪注) 및 찰기(札記)에는 문(聞)자가 없다.

192) 부(扶): 포표주(鮑彪注)에는 “부는 ‘지탱하다’의 뜻이다. 넘어지지 않음을 말 한다(扶, 猶持也. 言不顛仆)”고 하였다.

193) 보(輔): 고평지신(股肱之臣)을 말한다. 즉 군주를 보좌하는 대신을 가리킨 다.

194) 사(四): 요굉주(姚宏注)는 “사(四)”로, 포표주(鮑彪注)는 “이(而)”로 적고 있 다. 본 역주는 포주(鮑注)를 따른다.

195) 강징병(強徵兵): 요굉주(姚宏注)는 “강징병(強徵兵)”, 포표주(鮑彪注)는 “징 강병(徵強兵)”으로 적고 있다. 본 역주는 “강한 사병을 징발한다”는 뜻이므 로 해석하여 포주(鮑注)를 따른다.

196) 경내(境內): 즉 경내(境內)이다.

197) 삼귀(三貴): 태후(太后) · 양후(穰侯) · 화양군(華陽君) 세 사람을 말한다.

198) 아(我): 요굉주(姚宏注)는 유창본(劉敞本)에는 “아(我)”자가 없다고 하였으 며, 포표주(鮑彪注) 역시 “아(我)”자는 연문(衍文)이라 하였다.

199) 삼분지일(三分之一): 삼대일(三對一)이란 뜻이다.

3일이 지나자 나무 신은 신을 찾으러 갔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
니다. 5일 후 나무는 말라버렸으며 7일 후 나무는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바로 대왕의 나무이며, 권세는 대왕의 신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도 위험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손가락이
팔뚝보다 크고 팔뚝이 허벅지 보다 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
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병이 대단히 심한 경우입니다. 만약
백 명이 표주박을 짚어지고 달리면 한 명이 표주박을 갖고 달리는 것보
다 빠르지 못합니다. 또한 백 명이 정말로 표주박을 들면 그 표주박은
반드시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의 진나라는 권세를 화양군(華陽君)
이 사용하고, 양후(穰侯)가 사용하고, 태후(太后)가 사용하고, 대왕 역시
사용합니다. 나라를 표주박에 비유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만약 나라를
표주박에 비유하면 나라는 반드시 분열되고 맙니다. 저는 ‘과일이 많이
달린 나무는 가지가 반드시 부러지며, 가지가 부러지면 반드시 나무 속
은 손상을 입게 된다. 수도가 큰 제후는 그의 국가를 위협하며, 권세가
강한 신하는 반드시 그의 군주를 위협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물
며 진나라 성읍(城邑)중에 일두봉록(一斗俸祿)의 작은 관리부터 군위(軍
尉), 내사(內史) 및 대왕이 좌우에 거느린 신하조차 양후(穰侯)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나라에 큰 일이 없으면 그런 대로 괜찮지만, 일
단 나라에 큰 일이 생기면 대왕께서는 조정에서 고립되어 아무도 도와
주지 않게 됨을 저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만세(萬世)
가 지난 후 진나라가 대왕의 자손 것이 아니지 않을 까 남몰래 대왕을
위해 걱정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應侯曰鄭人謂玉未理者璞

— 秦策三 —

應侯曰：「鄭人謂玉²⁰⁰未理者璞²⁰¹，周人謂鼠未腊²⁰²者朴。周人懷璞過

200) 리(理): “옥을 가공하다”는 뜻이다.

鄭賈曰:『欲買朴平?』鄭賈曰:『欲之。』出其朴,視之,乃鼠也.因謝不取.今平原君²⁰³自以賢,顯名於天下,然降²⁰⁴其主父²⁰⁵沙丘²⁰⁶而臣之.天下之王尚猶尊之,是天下之王不如鄭賈之智也,眩²⁰⁷於名,不知其實也。」

응후(應侯)가 “정(鄭)나라 사람은 가공하지 않은 옥을 박(璞)이라 부르고 주나라 사람은 말리지 않는 쥐를 박(朴)이라 합니다. 어떤 주나라 사람이 말리지 않는 쥐를 가슴에 품고 정나라 상인이 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상인에게 ‘박(朴)을 사겠소?’라고 묻자, 정나라 상인은 ‘사겠소’라고 하였습니다. 주나라 사람은 박(朴)을 꺼내어 놓았습니다. 정나라 상인이 보니 바로 말리지 않은 쥐였습니다. 그래서 사절하고 사지 않았습니다. 지금 평원군(平原君)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여기고 있을 뿐 아니라 명성이 온 천하에赫赫(赫赫)합니다. 그러나 그는 조(趙)나라 주부(主父)인 무영왕(武靈王)을 헐뜯어 사구(沙丘)에서 신하로 만들었습니다. 천하의 군왕들은 여전히 그를 존경하니 이것은 천하의 군주가 정나라 상인보다 총명하지 못하고 또한 그의 명성에 미혹되어 오히려 그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201) 박(璞): 가공하지 않은 옥을 말한다.

202) 석(腊): 본래는 마른 육포인데 여기서도 동사로 쓰여 “말리다”라는 뜻이다.

203) 평원군(平原君): 즉 조승(趙勝)으로 조나라 혜문왕(惠文王)의 동생으로 효성왕(孝成王)때 재상을 지냈다. 봉지(封地)는 동무성[東武城, 지금의 산둥성 무성현(武城縣)]이며 전국시대 사공자중의 한 사람이다.

204) 강(降): 포표주(鮑彪注)에 “그를 헐뜯는다”는 뜻이다(貶損之也)”라고 하였다.

205) 주부(主父): 조나라 무영왕(武靈王)을 가리킨다.

206) 사구(沙丘): 즉 사구대(沙丘臺)로 지금의 허북성 평향현(平鄉縣)동북지방이다.

207) 현(眩): “미혹(迷惑)되다”의 뜻이다.

天下之士合從相聚於趙

— 齊策三 —

天下之士，合從相聚於趙，而欲攻秦。秦相應侯曰：「王勿憂也，請令廢之。秦於天下之士非有怨也，相聚而攻秦者，以己欲富貴耳。王見大王之狗，臥者臥，起者起，行者行，止者止，毋相與鬪者 投之一骨，輕²⁰⁸起相牙者²⁰⁹，何則？有爭意也。」於是²¹⁰唐雎²¹¹載音樂，予之五十金²¹²，居武安²¹³，高會相與飲²¹⁴，謂：「邯鄲人²¹⁵，誰來取者？」於是其謀者²¹⁶固未可得予也，其可得與者與之昆弟²¹⁷矣。

「公與秦計功²¹⁸者，不問金之所之，金盡者功多矣。今令人復載五十金隨

208) 경(輕): “신속히·돌연히”의 뜻이다.

209) 아(牙): “이빨로 문다”의 뜻으로 아(牙)는 동사로 쓰였다. 포표주(鮑彪注)는 “경은 ‘갑자기’와 같다. 이는 이빨로 서로 씹는 것을 말한다(輕. 猶忽也. 牙, 言以牙相齧)”라고 하였다.

210) 어시(於是): “어시(於是)” 다음에 포표주(鮑彪注)에 의거하여 “사(使)”자를 넣어 해석하였다.

211) 당저(唐雎): 위(魏)나라 사람으로 기타 그에 대한 생명은 알 수 없다. 혹은 진나라 소왕(昭王)때 이미 90세로 진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진나라와 위나라의 동맹을 맺게 하였다는 당차(唐且)라고도 하나 방증(傍證)이 부족하다.

212) 오십금(五十金): 본 편에 “오십금”이 두 곳 나온다. 그러나 포표주(鮑彪注) 및 항비열(黃丕烈)주(注)는 오천금(五千金)이 옳다고 하였다. 아래 문장에 “삼천금(三千金)”이 있으므로 본 역주도 포표주(鮑彪注)를 따라 “오천금”으로 해석하였다.

213) 무안(武安): 조(趙)나라의 읍명으로 지금의 하남성 무안현(武安縣)서남지방이다.

214) 고회상여음(高會相與飲): 고회(高會)는 성대한 대회의 뜻이므로, 전체 구절은 “대회에 참가한 손님들이 함께 연회를 베풀다”는 의미이다.

215) 한단인(邯鄲人): 한단(邯鄲)은 조나라 수도로 지금의 허북성 한단시(邯鄲市)서남 지방이며 본문의 한단인이란 조나라의 한단에 모인 각지의 책사(策士)들을 가리킨다.

216) 기모자(其謀者): 합종하여 진나라를 공격할 것을 모의하는 책사들을 말한다.

217) 여지곤제(與之昆弟): “마치 형제처럼 서로 대우한다”의 뜻이다.

218) 계공(計功): “공적을 도모한다”는 뜻이다.

公。」唐雎行，行至武安，散不能²¹⁹三千金，天下之士，大相與鬪矣。

천하의 책사(策士)들이 조나라의 도읍에 모여 연합하여 진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였다. 진나라 재상인 범수(氾雎)가 진나라 왕에게 “대왕께서는 근심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저로 하여금 바로 그것을 제거하게 하십시오. 진나라는 천하의 책사들에게 결코 원한이 없음에도 그들이 서로 모여 진나라를 공격할 상의를 하는 원인은 단지 자신들의 부귀 때문입니다. 대왕께서 대왕의 개들을 보시면 누워있는 것은 누워있고,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고, 가는 것은 가고, 서있는 것은 서있고 서로 결코 싸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뼈다귀 하나를 던지면 곧 갑자기 서로 물어뜯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서로 먹을 것을 쟁취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마차에 악대를 싣고 금 오천을 당저(唐雎)에게 주어 조나라의 무안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회에 모인 빈객들과 서로 연회를 베풀어 “한단(邯鄲)에 모인 책사들 중에 누가 이 금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한단에 모인 책사들은 오히려 상금을 얻지 못하고, 무안에서 상금을 얻은 사람은 곧 진나라와 형제처럼 친하게 되었다.

범수가 또 당저에게 “당신은 진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이다. 금을 어디에 뿌려졌는지 묻지 않겠다. 금을 다 뿌리면 너의 공로 역시 그만큼 커지게 된다.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오천 금을 싣게 하여 너와 함께 가게 하겠다”라고 하였다. 당저가 무안에서 금을 3천도 뿌리기 전에 천하의 책사들이 서로 크게 싸우기 시작하였다.

應侯失韓之汝南

— 秦策三 —

應侯失韓之汝南²²⁰。秦昭王謂應侯曰：「君亡國²²¹，其憂平？」應侯曰：

219) 불능(不能): 불급(不及)·불도(不到), 즉 “이르지 못하다”는 뜻이다.

「臣不憂。」王曰：「何也？」曰：「梁人有東門吳²²²者，其子死而不憂，其相室²²³曰：『公之愛子也，天下無有，今子死不憂，何也？』東門吳曰：『吾嘗無子。無子之時不憂，今子死，乃即與無子時同也，臣奚憂焉？』臣亦嘗爲子²²⁴，爲子時不憂。今亡汝南，乃與即²²⁵爲梁餘子²²⁶同也。臣下爲憂？」

秦王以爲不然，以告蒙傲²²⁷曰：「今也，寡人一城圍，食不甘味，臥不便席；今應侯亡地而言不憂，此其情²²⁸也？」蒙傲曰：「臣請得其情。」蒙傲乃往見應侯曰：「傲欲死。」應侯曰：「何謂也？」曰：「秦王師君²²⁹，天下莫不聞，

220) 여남(汝南): 여수(汝水)의 남쪽지방으로 범수(氾雒)의 봉지(封地)인 응읍(應邑)에 속하는 땅이다. 응읍은 본래 주나라 영토인데 후에 진나라에 귀속되었으며 당시에는 이미 한나라에 의해 점령당하였던 것 같다. 지금의 하남성 보풍현(普豐縣)이며, 당·송때의 여남군(汝南君)[지금의 하남성 여남현(汝南縣)]이 결코 아니다. 《한비자(韓非子)·정법(定法)》에는 “응후가 한(韓)나라를 8년이나 공격하였으나 단지 여수 남쪽 지방만이 봉지(封地)가 되었을 뿐이었다(應侯功韓八年，成其汝南之封)”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나라가 범수의 봉지를 탈취한 일에 관해서는 기타 사적(史籍)에는 기록된 바가 없다.

221) 망국(亡國): 응후가 여남의 봉지를 잃은 것을 말한다.

222) 동문오(東門吳): 人名으로, 성은 동문(東門), 이름은 오(吳)이며 위나라의 고사(高士)이다.

223) 상실(相室): 집안의 관리인이다. 포표주(鮑彪注)는 “집안의 관리인으로 여기서 여자를 가리킨다. 남자는 ‘가노(家老)’라고 한다(室家之相，此女也。南曰「家老，）」고 하였다.

224) 위자(爲子): 위자에 대한 주(注)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여자(餘子), 즉 봉지(封地)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포주(鮑注)]. 둘째는 옛날에는 적장자(嫡長子)만이 관직을 계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적장자 이외의 아들을 말한다. 셋째는 뜻이 인신(引伸)되어 평민을 말한다.[왕수겸(王守謙)《전국책전역(戰國策全譯)》] 넷째는 무자(無子), 즉 아들이 없음을 말한다. 본 역주는 첫째의 뜻인 봉지가 없는 사람으로 해석하였다.

225) 여즉(與即): 요굉주(姚宏注)는 “여즉(與即)”, 포표주(鮑彪注)는 “즉여(即與)”로 되어 있는데 본 역주는 포주(鮑注)를 따른다.

226) 여자(餘子): 고대의 적장자(嫡長子) 이외의 아들에 대한 칭호이다.

227) 몽오(蒙傲): 즉 몽오(蒙騫)인데, 제나라 사람으로 진나라 소왕을 받들어 관직이 상경(上卿)에 이르렀으며 뒤에 진나라 장군이 되었다. 그의 아들 몽무(蒙武), 몽무의 아들 몽척(蒙恬)에 이르기까지 삼대에 걸쳐 진나라 장군을 지냈다.

228) 정(情): 진실된 마음을 뜻한다.

而況於秦國乎! 今傲勢得秦, 爲王將, 將兵, 臣以韓之細也, 顯逆²³⁰誅, 奪君地, 傲尙奚生? 不若死。」應侯拜蒙傲曰: 「願委之卿。」蒙傲以報於昭王。
自是之後, 應侯每言韓事者, 秦王弗聽也, 以其爲汝南虜²³¹也。

응후(應侯)는 여수(汝水)이남의 봉지(封地)를 한(韓)나라에 빼앗겼다. 진나라 소왕이 응후에게 “너는 여남(汝南)의 봉지를 잃었으니 걱정스럽지 않느냐?”라고 묻자, 응후는 “나는 걱정스럽지 않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소왕이 “어째서 그러하냐?”라고 물으니 응후는 “위나라에 동문오(東門吳)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않았습니 다. 그의 집사가 ‘당신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경우는 천하에 두 번 다시 는 없을 진데,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않으니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동문오가 ‘나는 원래 아들이 없었던 사람 이었다. 아들이 없었을 때는 당연히 별 걱정이 없었다. 지금 아들이 죽 었으니 아들을 낳지 않았을 때와 같으니 내가 또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본래 봉지가 없던 사람으로 봉지가 없었을 때 걱정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남의 봉지를 잃었으니, 아들을 잃은 위나라 의 여자(餘子) 즉 동문오와 같습니다. 신이 왜 걱정해야 합니까?”라고 하였다. 진왕은 이것은 솔직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이 일을 몽오(蒙 傲)에게 말하면서 “지금 과인은 성읍(城邑)이 포위 당해 밥맛도 없고 잠 도 잘 수가 없구나. 그러나 응후는 봉지를 잃었는데도 오히려 근심스럽 지 않는다고 하니 이것이 그의 진실한 마음인가?”라고 물었다. 몽오는 “저로 하여금 그의 진실한 마음을 탐문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리 하여 몽오는 응후를 찾아가 “저는 죽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 응후가 “당신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몽오는 “진나라 소왕이 당 신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천하에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하물

229) 사군(師君): “군(君)을 스승으로 여기다”는 뜻으로 사(師)는 동사로 쓰였다.

230) 현역(顯逆): 명백한 반역자를 뜻한다.

231) 노(虜): 노지(虜地), 즉 “침략 당해 예속된 영토”를 말한다. 포표주(鮑彪注) 는 “여남(汝南)의 백성은 한(韓)나라에 사로잡히게 되었다(汝南民爲韓虜獲 者)”라고 하였다.

며 진나라에서야 더욱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진나라 왕의 장군이 되어 진나라 병사를 통솔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한나라는 소국(小國)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진나라에 공공연히 노골적으로 반역을 하니 마땅히 주벌(誅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나라가 당신의 봉지를 탈취하였으니 제가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죽는 편이 낫습니다”라고 하였다. 옹후가 몽오에게 삼가 감사드리며 “이 일을 당신에게 말기겠소”라고 하였다. 몽오는 이런 상황을 소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이후로 옹후가 매번 한나라의 일을 이야기 할 때마다 소왕은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언제나 그가 여남의 봉지를 되찾기 위해 이야기한다고 여겼다.

秦昭王謂左右

— 秦策四 —

[1]

秦昭王謂左右曰：「今日韓·魏，孰與始強²³²？」對曰：「弗如也²³³。」王曰：「今之如耳²³⁴，魏齊²³⁵，孰與孟嘗²³⁶·芒卯²³⁷之賢？」對曰：「弗如也。」王曰：「以孟嘗·芒卯之賢，師強韓·魏之兵以伐秦，猶無奈寡人何也；今以無能之如耳·魏齊，師弱韓·魏以攻秦，其無奈寡人何，亦明矣！」左右皆曰：「甚然²³⁸。」

232) 숙여시강(孰與始強): “지금의 한나라와 위나라는 처음과 비교하여 언제가 더욱 강대한가?”의 뜻이다.

233) 불여아(不如也): “지금의 처음보다 못하다”의 뜻이다. 요굉주(姚宏注)는 “처음의 강함보다 못하다는 것을 말한다(言不如始時強也)”라고 하였다.

234) 여이(如耳): 위나라 대부(大夫)이며 나중에 한나라의 신하가 되었다.

235) 위제(魏齊): 위나라의 재상이다.

236) 맹상(孟嘗): 맹상군(孟嘗君) 전문(田文)이다. 그는 위나라 소왕때 위나라 재상을 지낸 적이 있다.

237) 망묘(芒卯): 즉 맹묘(孟卯)인데 위나라 장군이다.

238) 심연(甚然): 성연(誠然), 즉 “참으로 그러하다”는 뜻이다.

[1]

진나라 소왕(昭王)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지금의 한(韓)나라와 위(魏)나라는 처음과 비교해서 언제가 더 강한가?”라고 물으니, 좌우의 신하들이 “지금의 처음보다 강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소왕이 또 “현재의 한나라 대신 여이(如耳)·위나라 대신 위제(魏齊)와 이전의 맹상군(孟嘗君)·망묘(芒卯)와 서로 비교하면 누가 더 강한가?”라고 물었다. 좌우의 신하들이 “여이·위제는 맹상군·망묘만 못합니다”라고 답하였다. 진나라 소왕이 “당초 현명하고 재능이 뛰어난 맹상군과 망묘를 앞세우고 강대한 한나라·위나라의 군대와 연합하여 진나라를 공격하였으나, 과인은 어쩔 수가 없었다. 지금 무능한 여이와 위제에다 이미 약소해져 버린 한나라와 위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진나라를 공격하니 과인이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은 더욱 확실한 것이다”라고 하자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정말 그러합니다”라고 하였다.

[2]

中期²³⁹推琴²⁴⁰對曰: 「三之料²⁴¹天下過矣. 昔者六晉²⁴²之時, 智氏²⁴³)

239) 중기(中期): 진나라의 번사(辯士)로서 처음에는 진나라 무왕(武王)을, 나중에는 진나라 소왕(昭王)을 섬겼다. 《한비자·난삼(難三)》에 의하면 그는 거문고와 비파를 주관하면서 소왕을 모셨다고 한다.

240) 추금(推琴): 오사도(吳師道) 《보정(補正)》에는 “《사기(史記)》에는 ‘빙금(憑琴)’으로, 《사기·색은(索隱)》이 인용한 《후어(後語)》에는 ‘복금(伏琴)’으로, 《한비자(韓非子)》에는 ‘추금(推琴)’으로, 《설원(說苑)》에는 ‘복금(伏琴)’이라 하였다. 나는 거문고를 밀치고 일어나서 마주 대하는 것을 적은 것으로 마치 논어의 ‘사금(舍琴)’이라 적은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장자(莊子)는 ‘공자추금(孔子推琴)’이라 하였다. (史憑琴. 索隱引後語, 伏琴. 韓子推琴. 說苑伏琴. 愚謂, 此其推琴而起對, 猶論語記舍琴也. 莊子云, 孔子推琴)”라고 하였다.

241) 삼지료(三之料): 요굉주(姚宏注)는 “삼(三)”이라고 하였고, 포표주(鮑彪注)는 “왕(王)”이라고 하였다. 삼(三)은 왕(王)의 오자(誤字)이다. 료(料)는 “예측하다”의 뜻이다.

242) 육진(六晉): 춘추시대 진나라의 6명의 경상(卿相)으로 즉 한강자(韓康子)·조양자(趙襄子)·위환자(魏桓子)·범헌자(范獻子)·중행문자(中行文子)·지백(智伯)이다. 진나라 소공(昭公)때 여섯 경상이 강대하여 각각 패왕이 되

最強, 滅破范·中行²⁴⁴), 師韓·魏以圍趙喪子於晉陽²⁴⁵). 決晉水²⁴⁶以灌晉陽, 城不沉²⁴⁷者三板²⁴⁸耳. 智伯出行水²⁴⁹, 韓康子御, 魏桓子驂乘²⁵⁰). 智伯曰: 『始, 吾不知水之可亡人之國也, 乃今知之. 汾水利以灌安邑²⁵¹, 絳水利以灌平陽²⁵².』 魏桓子肘²⁵³韓康子, 康子履²⁵⁴魏桓子, 躡其踵. 肘足接於車上, 而智氏分²⁵⁵矣. 身死國亡²⁵⁶, 爲天下笑. 今秦之強, 不能過智

있으나 후에 서로 병탄(併呑)하여 삼가(三家)가 진나라를 나누어 가졌다.

- 243) 지씨(智氏): 즉 지백(智伯)인데 당시 진나라의 정사(政事)는 모두 그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진나라 애공(哀公)은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 244) 범·중행(范·中行): 즉 범헌자(范獻子)·중행문자(中行文子)를 가리킨다.
- 245) 솔한위이위조양자우진양(帥韓魏以圍趙襄子于晉陽): 지백(智伯)이 범씨(范氏)와 중행씨(中行氏)를 멸한 후 또 조양자(趙襄子)에게 영토를 할양할 것을 요구하였다. 조양자가 동의하지 않자 한강자(韓康子)·위환자(魏桓子)와 함께 조양자를 토벌하여 조양자의 봉읍(封邑)인 진양(晉陽·지금의 산서성 태원시(太原市) 서남지방)에서 조양자를 포위하였다.
- 246) 진수(晉水): 산서성 태원시 서남현 용산(太原市 西南縣 龍山)에서 발원하여 북·중·남 세 곳의 수로로 나누어지며 동쪽은 분하(汾河)로 흘러 들어간다.
- 247) 침(沈): “침(沉)과 통하며 “물에 잠기다”의 뜻이다.
- 248) 삼판(三板): 6자를 말하는데 높이가 2자인 것을 일판(一板)이라 한다.
- 249) 행수(行水): 행은 시찰의 뜻으로 “물살을 순시하다”의 뜻이다. 포표주(鮑彪注) 역시 “행은 거성으로 읽어야 한다. ‘시찰하다’의 뜻이다(行, 去音. 按視也)”라고 하였다.
- 250) 한강자어, 위환자참승(韓康子御, 魏桓子驂乘): 어(御)와 참승(驂乘)에 대한 학설은 몇 가지가 있다. 요굉주(姚宏注)는 “세 사람이 함께 타는 것을 참승이라 한다(三人共載曰驂乘)”고 하였다. 포표주(鮑彪注)는 《서무귀(徐無鬼)》의 소(疏)를 인용하여 “마차의 왼편에 타는 것을 참, 오른편에 타는 것을 어라고 한다(在左爲驂, 在右爲御)”고 하였다. 본 역주는 어(御)는 “마차를 몰다”로, 참승은 배승(配乘, 즉 옛날 마차를 탈 때 귀인을 모시고 그 곁에 탄 호위자)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 251) 안읍(安邑): 위환자(魏桓子)의 성읍으로 지금의 산서성 하현(夏縣) 서북지방이다.
- 252) 평양(平陽): 한강자(韓康子)의 도성(都城)으로 지금의 산서성 임분현(臨汾縣)이다.
- 253) 주(肘): 원래는 팔꿈치를 뜻하나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 “팔꿈치로 서로를 건드리다”의 뜻이다.
- 254) 리(履):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 “밟다”의 뜻이다.
- 255) 지씨분(智氏分): 주나라 정왕(定王) 16년(BC. 453)에 조양자·한강자·위환

伯; 韓·魏雖弱, 尙賢在晉陽之下也²⁵⁷). 此乃方其用肘足時也, 願王之勿易²⁵⁸也。」

[2]

대신(大臣) 중기(中期)가 거문고를 밀치고 “대왕께서는 천하의 형세를 잘못 예측하셨습니다. 이전에 진나라에 여섯 명의 경상(卿相)이 있었을 때, 지씨(智氏)가 가장 강대하여 범헌자(范獻子)·중행문자(中行文子)를 멸망시키고 한강자(韓康子)·위환자(魏桓子)의 군대를 이끌고 진양(晉陽)에서 조양자(趙襄子)를 포위하였습니다. 그런 후 진수(晉水)를 방류하여 진양을 수몰시켰는데 성벽이 오직 여섯 자가 되는 곳만 수몰되지 않았습니다. 지백(智伯)이 물살을 순시 나가자, 한강자가 마차를 몰고 위환자가 마차의 오른쪽에서 그를 보위하였다. 지백이 ‘처음에는 강물로 다른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지금은 알게 되었다. 분수(汾水)로서 안읍(安邑)을 수몰시키니 정말 편리하고, 강수(絳水)로서 평양(平陽)을 수몰시키니 정말 번거롭지 않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 위환자가 팔꿈치로 한강자를 치고, 한강자 역시 발로 위환자를 밟고 또 그의 발뒤꿈치를 찼습니다. 바로 팔꿈치와 다리가 마차에서 서로 부딪칠 때 지백의 영토는 이미 분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지백은 피살되고 나라는 망하였으며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조소(嘲笑)를 받았습니다. 지금 진나라의 강대함이 지백보다는 못하며 한나라와 위나라가 설사 약하다 하더라도 조양자가 진양에서 포위 당했을 때보다는 강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들이 팔꿈치와 다리로 서로 부딪치는 때이니 대왕께서는 그들을 가벼이 여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자가 함께 지씨를 공격하여 지백을 살해하고 그 영토를 나누었다.

256) 사신국망(死身國亡): 지백(智伯)의 피살과 지씨의 멸망을 가리킨다.

257) 상현재진양지하야(尙賢在晉陽之下也): 현(賢)은 “~보다 낫다”의 뜻이므로 전체 구절의 의미는 “조양자가 진양에서 포위되었을 때보다 낫다”는 뜻이다.

258) 역(易): “경시(輕視)하다”의 뜻이다.

靖郭君將城薛

— 齊策 —

靖郭君²⁵⁹將城薛²⁶⁰, 客多以諫. 靖郭君謂謁者²⁶¹: 「无爲客通²⁶²。」 齊人有請者曰: 「臣請三言²⁶³而已矣! 益²⁶⁴一言, 臣請烹²⁶⁵。」 靖郭君因見之. 客趨²⁶⁶而進曰: 「海大魚。」 因反走²⁶⁷. 君曰: 「客有於此²⁶⁸。」 客曰: 「鄙臣不敢以死爲戲。」 君曰: 「亡²⁶⁹, 更²⁷⁰言之²⁷¹。」 對曰: 「君不聞大魚乎? 網不能止, 鉤不能牽²⁷², 漚²⁷³而失水, 則螻蟻²⁷⁴得意²⁷⁵焉. 今夫齊,

259) 정곽군(靖郭君): 전영(田嬰)의 봉호(封號)이다.

260) 장성설(將城薛): “장차 설지(薛地)의 성벽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뜻이다.

261) 알자(謁者): 전달(傳達)을 주관하는 관리이다.

262) 무위객통(无爲客通): “식객(食客)들의 간언(諫言)을 통보하지 말라”는 뜻이다.

263) 삼언(三言): 세 글자를 뜻한다.

264) 익(益): “증가·초과한다”는 뜻이다.

265) 팽(烹): 팽형(烹刑), 즉 가마솥에 삶아 죽이는 형벌이다.

266) 추(趨): “작은 걸음으로 빨리 걷는다”는 뜻이다. 고대에 신하가 군주를 만나는 예절이다.

267) 반주(反走): 반주(返走)·환주(還走), 즉 “뒤돌아 달리다”의 뜻이다.

268) 객유어차(客有於此): 요굉주(姚宏注)는 “어차(於此)는 멈춰서 가지 말라는 뜻이다(於此, 止無走也)”고 하였으며 포표주(鮑彪注)는 “이 말 외에 마땅히 또 할말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言此, 言外應復有)”라고 하였다. 두 주를 종합해보면 “여기에 남아 계속 이야기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비자·설림하(說林下)》에는 “청문기설(聽聞其說)”이라 하였다.

269) 망(亡): 무(無)와 통하며, 불(不)의 뜻이다.

270) 갱(更): 재(再) 즉 “다시”의 의미이다.

271) 지(之): “포획하다”의 뜻이다.

272) 견(牽): “견인(牽引)하다”의 뜻으로 여기서는 “뉘시로 끌어당긴다”라는 뜻이다.

273) 탕(蕩): ‘방종하다’의 뜻이다. 鮑彪本은 《집운(集韻)》을 인용하여 “탕(蕩)은 방(放)이다. 스스로 방종함을 말한다(蕩, 放也. 言自放肆)”고 하였다. 《장자·경상초(庚桑楚)》에 “배를 삼킬 듯한 물고기도 방종하여 물을 떠나면 개미도 괴롭힐 수 있다(吞舟之魚, 礪而失水, 則螻能苦之)”라고 적고 있다.

274) 루의(螻蟻): 땅강아지와 개미이다.

亦君之水也。君長有齊陰²⁷⁶，奚以薛爲？夫²⁷⁷齊，雖隆²⁷⁸薛之城到於天，猶之無益也。」君曰：「善。」乃輟城薛。

정곽군(靖郭君) 전영(田嬰)이 설(薛)지역의 성벽을 새로 쌓으려고 하자 많은 식객들이 모두 성벽 쌓기를 멈추도록 권하였다. 정곽군은 전달을 주관하는 관리에게 식객의 간언(諫言)을 통보하지 말도록 하였다. 제나라의 어떤 사람이 정곽군을 만나길 청하여 말하길 “신은 단지 글자 세 자만 말하겠습니다. 한 자라도 덧붙이면 신은 평형(烹刑)의 형벌을 받아도 좋습니다”라고 하여 정곽군은 그를 만났다. 식객은 빠른 걸음으로 들어와 “바다의 큰 물고기”라고 말하고는 돌아서서 뛰었습니다. 정곽군이 “식객은 여기에 멈추어 계속 이야기를 하시오”라고 하자 식객이 “신은 목숨을 가지고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정곽군이 “그렇지는 없으니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여라”라고 하자, 식객은 “바다 속의 대어(大漁)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습니까? 어망으로도 그를 포획할 수 없고 낚시로도 그것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어 스스로가 방종하여 물에서 벗어나면 땅강아지와 개미들도 배부르게 대어를 먹어 치웁니다. 지금의 제나라는 군왕의 물과 같습니다. 군왕께서 만약 오랫동안 제나라의 비호를 받을 수 있다면 설(薛)땅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만약 제나라를 잃으면 설사 설(薛)의 성벽을 하늘에 닿도록 쌓아도 무

275) 득의(得意): “배가 불러 만족스럽다”의 뜻이다.

276) 음(陰): 요굉주(姚宏注)는 “다른 판본에는 ‘음(陰)’자가 없다”고 하였고 포표주(鮑彪注) 역시 “유(有)와 음(陰)은 없다”고 하였다. 《한비자(韓非子)·설림하(說林下)》에는 “군장유제(君長有齊)”, 신서(新序)에는 “군이유제(君已有齊)”라고 적고 있다. 따라서 포표주(鮑彪注)와 《한비자·설림하(說林下)》에 근거하여 삭제하고 해석하기도 한다. 본 역주는 오사도(吳師道)의 《보정(補正)》에 근거하여 “음(陰)”을 “음(蔭)”으로 읽고 음비(陰庇), 즉 “비호하다”의 뜻으로 해석하였다.

277) 부(夫): 황비열(黃丕烈)은 “부(夫)는 실(失)과 글자모양이 비슷하여 잘못 적었다(夫乃失字形近之譌)”고 하였다. 《한비자(韓非子)》와 《회남자(淮南子)·인간훈(人間訓)》모두 “실(失)”로 적고 있다. 본 역주 역시 “실”자로 해석하였다.

278) 융(隆):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 “높이다”의 뜻이다.

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정곽군이 “옳다”고 말하고는 설(薛)의 성벽 쌓는 일을 중지시켰다.

참고문헌

- | | | |
|------|---------|-----------------------|
| 劉向 | 《戰國策》 | 上海古籍出版社, 1978. 5, 上海. |
| 劉向集錄 | 《戰國策》 | 里仁書局, 1990. 9, 臺北. |
| 郭希汾 | 《戰國策詳注》 | 惠文出版社, 1972. 6, 臺北. |
| 何建章 | 《戰國策注釋》 | 中華書局, 1990. 2, 北京. |
| 溫洪隆 | 《新譯戰國策》 | 三民書局, 1998. 8, 臺北. |
| 王守謙 | 《戰國策全譯》 | 貴州人民出版社, 1996. 3, 貴州. |

大韓中國學會

(Kore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會 則

第 1 章 總 則

- 第 1 條 本會는 大韓中國學會라 稱한다.
以下 本會라 稱함.
- 第 2 條 本會의 本部는 會長所屬校內에 둔다.
- 第 3 條 本會는 中國學 관련 분야를 研究함으로써 韓國의 學術문화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 4 條 本會는 第3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活動을 한다.
- 1) 國內·國際學術會議 및 學術講演會 開催
 - 2) 會誌 및 其他 出版物 發刊
 - 3) 國內外 學術團體와의 學術 및 文化交流
 - 4) 其他 必要한 事業

第 2 章 會 員

- 第 5 條 本會의 會員은 正會員·準會員·名譽會員·團體會員으로 한다.
- 第 6 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資格을 가지고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자로서 正會員 2명 以上の 推薦으로 任員會의 承認을 얻어 定한다.
- 1) 正 會 員 : 大學 및 이와 同等한 教育機關에서 中國學 관련 講義를 맡고 있는 講師 以上の 사람, 또는 이와 同等한 資格을 갖춘 사람.

- 2) 準會員：大學院에서 中國學 관련 분야를 專攻하는 사람.
- 3) 名譽會員：本會의 目的에 贊同하고 本會의 發展에 功勞가 顯著한 사람.
- 4) 團體會員：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단체.

第7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 1) 正會員은 總會에서의 議決權과 任員의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가지며 本會의 活動을 위한 會費納付 및 會則을 遵守할 義務를 가진다.
- 2) 準會員·名譽會員·團體會員은 本會가 主催하는 各種 行事에 參與할 수 있으며 準會員은 總會의 議決에 따른 所定の 會費納付 義務를 가진다.

第8條 本會에 加入한 會員은 本人의 事情에 따라 任意로 脫退할 수 있다.

第3章 任 員

第9條 本會는 會長·副會長·運營委員·理事·監事 등의 任員을 두고, 顧問·名譽會長을 둘 수 있다.

第10條 任員의 任期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단, 顧問과 名譽會長의 임기는 예외로 한다.

第11條 會長 1명·副會長 약간명·運營委員 약간명·監事 2인은 總會에서 選出하며 理事 약간명은 任員會의 認准을 얻어 會長이 任命한다. 顧問·名譽會長의 경우는 會長이 추천하고 總會에서 추대한다.

第12條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本會의 諸般業務를 統轄하고 總會 및 任員會의 議長이 된다.

第13條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는 首席 副會長이 이를 代理한다.

第14條 運營委員은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이나 其他 重要な 會務를 協議하고 處理한다.

第15條 理事는 會長을 補佐하며 總務·學術·編輯·出版·研究·涉外·企劃 등 本會의 會務를 分擔한다.

第16條 監事는 本會의 會計를 監査한다.

第4章 會議

第17條 本會의 會議는 定期總會·臨時總會·任員會·編輯委員會로 하고 構成會員 1/3 以上の 出席으로 成立된다.

第18條 本會의 會議는 다음과 같은 경우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 1) 定期總會 : 每年 8월중
- 2) 臨時總會 :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正會員 3분의 1 이상이나 任員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3) 任員會 :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任員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단 任員會 任員은 會長·副會長·運營委員·理事에 한하며 顧問·名譽會長 및 監事는 除外된다.

第19條 本會의 議決은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第20條 總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 1) 會長·副會長·運營委員·理事의 選出 및 顧問·名譽會長 추대
- 2) 豫算 및 決算
- 3) 會則改正
- 4) 事業計劃의 議決
- 5) 其他 必要한 事項

第21條 任員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 1) 總會에서 委任받은 本會의 運營 및 事業의 執行에 관한 事項
- 2) 會則修正案
- 3) 事業計劃案과 豫算決算案
- 4) 新入會員 審査 및 幹事의 認准

5) 其他 必要한 事項

第22條 編輯委員會는 本會의 論文集 및 기타 刊行物의 編輯을 主管하고 論文審査委員會를 委囑한다.

1) 編輯委員會는 編輯幹事의 推薦으로 會長이 任命한 中國學 關聯分野의 專門家 9명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2) 編輯委員長은 編輯委員會에서 선임하고 委員會의 當務를 主宰한다.

3) 編輯委員會에서 委囑하는 論文審査委員의 構成과 論文審査에 관한 細則은 別途로 定한다.

第5章 財 政

第23條 本會의 經費는 入會金·會費·贊助金 및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단, 入會金과 會費는 定期總會에서 決定한다.

第24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9월 1일부터 翌年 8월 말일까지로 한다.

第6章 附 則

第25條 本會則의 改正은 總會에서 正會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會員 3분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26條 本會則의 施行上 必要한 細則은 總會와 任員會에서 別途로 定한다.

第27條 本會는 本會則 第4條의 事業을 위하여 必要에 따라서 약간의 分科를 둘 수 있다.

第28條 本會則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一般慣例에 따른다.

第29條 本會則은 通過日로부터 그 效力을 發生한다.

1984年 10월 23일 제정

2000年 2월 26일 제1차 개정

논문심사 세칙

《中國學》의 게재용 논문심사 규정 및 편집위원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중국어문학 및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논문으로 한다.
- 2)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 체재의 적합성(20%)
 - (2) 논리 전개의 명확성(20%)
 - (3) 이론의 참신성(20%)
 - (4) 논문제목의 적합성과 논문의 완성도(20%)
 - (5)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20%)
- 3) 심사 결과는 (1) 게재 가, (2) 수정 후 게재, (3) 게재 유보, (4) 게재 불가 등으로 나눈다.
- 4) 상기 3)항의 (2)에 해당되는 논문은 심사평가서에 의거,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3)에 해당되는 논문은 차기 논문집의 심사대상에 우선 포함되고, (2)에 해당되는 논문은 심사평가서에 근거해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여 반영 후 게재한다.
- 5) 편집위원회는 학계의 분야별·전공별로 학술업적이 뛰어난 자를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 6)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 7)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논문심사위원회를 둔다.

- 8) 논문심사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3~5인의 홀수 인원으로 구성한다.
- 9)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교수는 반드시 피하여 구성하도록 하며, 각 분야의 권위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10) 편집위원회는 심사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논문심사위원회에 원고를 제시하고 게재여부의 심사를 요구한다.
- 11) 논문심사위원회에는 외국의 학자도 참여할 수 있다.
- 12)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3)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14)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 논문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원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15) 편집위원회 혹은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6) 원고의 게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책임을 진다.
- 17) 본 학회에서 개최한 각종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공개토론을 거친 완성된 논문은 심사를 면제한다. 다만 발표 당시 토론자에게 최종 사독을 위촉하여 토론 자료의 반영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 18) 원고 작성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심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필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 19) 원고 작성 요령은 별도의 투고규정을 참조한다.
- 20)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21) 이상의 심사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투고요령

학회지의 원활한 편집과 출판을 위해서 투고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꼭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문단모양					글자모양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들어 쓰기	줄간격	정렬 방식	글꼴	장평	자간	글자 크기
본문	0	0	韓 2 中 4	160	양쪽 혼합	신명조	100	0	10
인용문	3	3	2	140	양쪽 혼합	신명조	100	0	9
각주	3	0	-1	140	양쪽 혼합	신명조	100	0	9
참고문헌	5	0	-5	160	양쪽 혼합	신명조	100	0	10
제목 크기	논문제목	-	-	160	가운데	견명조	95	5	16
	장제목	-	-	150	가운데	신명조	95	5	13
	절제목	-	-	160	양쪽 혼합	중고딕	95	3	12
	소절 제목	-	-	160	양쪽 혼합	신명조	100	2	10
편집 용 지	용지 종류	용지 방향	여 백 주 기						
	사용자 정의 (155×225)	증계	위·아래		왼·오른쪽		제본여백		
			위 17 아래 20	왼쪽 20 오른쪽 20	2				

1. 논문 제출마감은 매년 12월말, 6월말까지로 한다.
2. 원고작성은 한글 97판 및 한글 3.0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한글 워

디안은 코드체계가 이전 판과 다르므로 저장시 반드시 **훈글 97&훈글3.0** 포맷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중문 워드를 사용한 경우 별도의 요구가 없을 시에는 편집자 임의로 코드를 변환합니다. 이에 따르는 출력사고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3. 논문 제출시 논문의 **영문제목과 영문이름**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벽자나 기호를 써넣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력본에 **붉은색 펜**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논문 제출시 반드시 **참고문헌**을 부기하고, 우리말 원고의 경우는 **중국어**나 **영어**로 된 초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우리말로** 된 초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5. 논문 제출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하고,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일 경우에는 별도의 조판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6.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하되, 최대분량이 200매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분량이 과다한 논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판보조비를 받습니다.
7. 논문 필자가 받을 수 있는 **별쇄본**은 15부이며, 추가로 필요시 별도의 인쇄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8. **디스켓과 출력본 4부**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디스켓에 필자의 **E-MAIL** 주소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서명은 ≪ ≫(문자표 : 344c, 344d), 논문과 작품명 및 편명 등은 < >(키보드에 있는 것), 중간점은 ·(문자표 : 3404)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부호는 되도록 **키보드에 있는 것**을 사용하면 나중에 편집할 때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10. 각주의 참고문헌은 저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연월일), 버전 또는 권수, 인용 쪽수 순으로 한다. 페이지 표기는 가급적 「쪽」을 사용하도록 한다.

예) 이××, ≪中國學≫(부산, 대한중국학출판사, 2000.8), 제4판,
120-155쪽 참조

半年刊 中國學 第14輯

2000년 8월 25일 인쇄
2000년 8월 31일 발행

編輯人：大韓中國學會
會長：李 根 孝
印刷處：中文出版社(053-424-9977)

發行處：부산시 남구 대연동 110번지
경성대학교 중어중문학과(608-736)
TEL : 051) 620-4262, 4263
FAX : 051) 620-4265
H. P : <http://www.sinology.org>

